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 130 ~ 134 |

2019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은 경도를 기준으로 124~126°는 서부원점, 126~128°는 중부원점, 128~130°는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석기·목기 1/2~1/3, 장신구 1/1~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토기류 중 호는 기고 및 동최대경이 45cm 이상일 경우 대호로 분류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cm 미만을 세사립, 0.1~0.2cm는 사립, 0.3~0.4cm는 세석립, 0.5cm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중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하부, 우측 상·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본문 표의 규격 중 () 안의 수치는 잔존치를 의미한다.
12.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감수·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 감수, 『신판 표준토색첩』, 2007” 및 Albert H.Munsell, 『MUNSELL SOIL COLOR CHART』,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보고서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72개 유적을 조사완료일 순으로 편집하여 상반기(6월 27일)에 96개 유적을 14권으로, 하반기(12월 23일)에 76개 유적을 11권으로 각각 묶어 인쇄한다. 각 권별 유적 수록 목록은 II 권부터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한화문화연구원)	130-1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한국문화재단)	131-1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재)영남문화재단연구원)	132-1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재)한양문화재단연구원)	133-1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한국문화재단)	134-1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한화문화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30 - 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0 - 9
1. 김해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130 - 9
2. 김해시의 고고·역사적 환경	130-11
3. 김해시의 민속 및 문화행사	130-20
4. 조사대상지역 개관	130-20
5. 지명전승	130-21
6. 주변유적	130-21
III. 조사내용	130-31
1. 체성부	130-37
2. 해자	130-41
3. 상부수습 유물	130-45
IV. 조사성과	130-47
1. 문헌적 검토	130-47
2. 김해읍성 체성 조사 검토	130-53
3. 출토유물 검토	130-59
V. 맺음말	130-60

도면목차

도면 1.	해동지도.....	130-13
도면 2.	여지도	130-14
도면 3.	지승	130-15
도면 4.	김해부내지도	130-16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30-22
도면 6.	조사대상지 음성관련 조사지역 배치도(1:5,000)	130-23
도면 7.	유구배치도(1:100)	130-32
도면 8.	기준토층도1·2(1:50).....	130-33
도면 9.	체성부 평·입면도(1:60)	130-35
도면 10.	체성부 하부 지정목 단면도(1:40)	130-37
도면 11.	체성부 출토유물(1~7)	130-40
도면 12.	해자 호안석축 평·입면도(1:50)	130-42
도면 13.	해자 출토유물(8~10,14)	130-44
도면 14.	해자 출토유물(11~13)	130-45
도면 15.	상부수습유물(15~17).....	130-46
도면 16.	김해읍성 동벽 및 해자(호안석축) 축조 모식도1	130-55
도면 17.	김해읍성 동벽 및 해자(호안석축) 축조 모식도1-1	130-56

도 판 목 차

도판 1. 김해읍성 시굴 및 발굴조사 현황 위성사진(출처 : NAVER 위성지도)	130-63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 전경(E→W)	130-64
도판 3. 조사대상지역 원경(①, S→N), 조사전 전경(②, N→S)	130-65
도판 4. 체성부 조사중(①) · 조사후(②) 전경(E→W)	130-66
도판 5. 기준토층1 토층상태(① · ②), 기준토층2 토층상태(③ · ④)	130-67
도판 6. 기준토층1 단벽(①) · 기준토층1 단벽(②) 토층상태, 체성부 입면상태(③), 체성부 하부 토층상태(④ · ⑤)	130-68
도판 7. 지정목 조사전(①) · 조사후(②), 체성부 출토유물(1~4)	130-69
도판 8. 체성부 출토유물(5~7), 해자 조사전(①) · 후(②) 전경	130-70
도판 9. 해자 입면(①) 및 단면(② · ③), 해자 출토유물(8)	130-71
도판 10. 해자 출토유물(9~14)	130-72
도판 11. 지표수습 유물(15~17)	130-73

표 목 차

표 1. 김해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130-17
표 2. 지정목 제원표	130-38
표 3. 김해읍성 관련 문헌기록 내용	130-48
표 4. 김해읍성 (시)발굴조사 결과 내용	130-53
표 5. 영남지역 읍성 관련 문헌기록 내용	130-58

I.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22-13번지로 사업시행자 김막순씨의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축부지(245㎡)이다. 조사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김해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김해시는 신청대상지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해당하므로 건축신고에 따른 조건으로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해시와 협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 김막순씨는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입회조사를 의뢰하였고 2017년 5월 12일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의 중간지점 토층 단면상에서 6단 정도의 석축시설이 조사되었으며 주변에서 자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는 사업부지 내 김해읍성 관련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유적의 보존대책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김해시에서 통보받고 2017년 5월 17일 한국문화재단에 국비지원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한국문화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김해시 동상동 722-13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7년 6월 30일 문화재청으로 부터 허가(2017-0841호)를 득한 후 2017년 7월 10일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의 서쪽편에서는 김해읍성 동쪽 체성부 일부가 조사되었으며 동쪽편에서는 입회조사에 파악된 김해읍성 내측 해자 호안석축이 조사되었다.

상기의 조사성과를 토대로 2017년 8월 28일 실시한 학술자문회의¹⁾ 결과 “조선 전기에 축조된 김해읍성의 동남구간(해자석축 포함) 일부에 해당되며 체성의 외벽은 그 구체적인 축조수법이 확인되나 내벽과 그와 관련된 내탁부는 이미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체성에 대한 조사는 기록 완료되었으므로 차후 예정된 공사는 확인된 유적 보존조치를 완료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노출된 체성부와 호안석축에 대하여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 한 후 복토를 실시하였으며, 9월 8일 현장조사를 완료(현장조사일수 39일)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신 용 민(한화문물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김 유 정(한화문물연구원 조사단장)
 조 사 원 : 김 미 경(한화문물연구원 자료부장)
 현 희 정(한화문물연구원 조사과장)

1) 자문위원 : 정의도(한국성곽학회 회장), 이동희(인제대학교 교수)

준 조 사 원 : 김 진 의(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황 철 현(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강 명 선(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윤 철 희(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최 선 아(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조 나 림(한화문물연구원 연구원)

*()는 조사당시의 직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은 김미경의 책임하에 홍인의, 정은주, 변영자가 담당하였고 도면의 일러스트작업은 권규빈, 김수미가 담당하였다. 도면 및 도판 편집은 김미경이 담당하였다.

발굴보고서는 I장은 김유정, II장은 조나림, III장은 김진의, IV·V장은 신용민 등이 분담하여 집필하였고 전체 내용을 신용민이 수정·가필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22-13번지로 김해중학교 북쪽에 위치한 분성로 366번길을 따라 120m 정도 진행하다보면 서쪽에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지리적인 좌표는 동경 128°53'09.4", 북위 35°14'01.4"에 해당하며, 지형적으로는 분성산(380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사면부에서 호계천과 후천 사이에 해발 10~11m 정도의 낮은 평탄면 대지에 위치한다.

김해읍성의 동쪽에 해당하며, 김해읍성 관련 유적으로 북쪽으로는 동상동 540-1번지 유적, 591-4번지 유적, 722-8번지 유적이, 남쪽으로는 동상동 724-7번지 유적이 위치한다.

1. 김해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및 양산시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창원시·진해시와 각각 대면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김해시의 북부지역은 소백산맥(小白山脈)에서 뻗어 내린 지맥이 낙동강(洛東江)에 접한 낮은 산악지로 형성되어 평지가 적은 편이다. 서부지역은 용지봉(해발 743m), 화산(해발 798m), 굴암산(해발 662m)과 같은 높은 산지로 에워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한다. 또한 낙동강이 김해시 북쪽의 무척산(해발 700m)에서 남쪽 신어산(해발 630m)에 이르는 산맥의 동부 지맥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백산맥의 여러 지맥과 접하는 북부지역과는 달리 남부지역은 낙동강의 지류를 따라 넓고 기름진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구조는 예로부터 김해시를 중심으로 김해와 인근지역을 구분짓는 자연 경계가 되어 왔다. 특히 한반도 남단을 가로 지르는 낙동강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북쪽 화포강(花浦江)과 밀양강(密陽江)의 합류지점에 비교적 넓은 충적지대를 형성하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하구에 이르러서는 아주 넓은 삼각주 평야를 발달시키고 있다.²⁾

조사대상지인 동상동은 김해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구산동, 서쪽으로는 대성동, 남쪽으로는 봉황동, 동쪽으로는 분성산과 인접하고 있다. 이 일대의 지형은 북동쪽과 북서쪽에 해발 380m 이상인 분성산과 경운산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나지막한 구지봉, 대성동 구릉 등 독립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분성산의 서쪽 사면에서 발원한 해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낙동강은 하구역에서 유속이 감소하여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게 된다.

낙동강 하구 삼각주의 지형발달은 내륙쪽으로 이동하여 평야 내 독립구릉과 선상지성 곡저평야를 제외한 지역은 고김해만이 형성되고, 퇴적되면서 김해 삼각주가 육지화되어 현재 김해평야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김해만의 형성은 고김해만 형성 이전단계, 형성 발달단계, 고김해만 쇠퇴

2) 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소멸 및 김해평야 형성단계로 연구된 바 있다.³⁾ 삼한~삼국시대의 경우 고김해만 형성 발달단계에 해당하며 고김해만 성립기의 해발고도는 패총유적이 입지한 지점의 해발고도를 고려하여 0~2m로 추정되고 있다.⁴⁾ 동상동의 남쪽은 과거 고김해만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던 충적대지이다. 해수면 상승의 고고학적 증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봉황대 유적과 같이 인근 유적의 층위적 양상에서 해상층과 바다모래가 분포한다. 또 고김해만의 서쪽 만오(灣澳)인 관동리에서 금관가야의 교역장인 부두와 도로 및 배후시설 등 진취락(津聚落)의 전모가 조사되어 해상교역의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되었고⁵⁾ 최근에는 김해 봉황동에서 가야의 선박(船舶) 부재와 노(櫓)가 출토되어 그 사례를 더 하였다.⁶⁾ 이렇듯 봉황대와 관동리 등 고김해만 연변에 패총과 해상교역과 관련되는 시설이 위치하는 것은 당시 이곳이 내만(內灣)의 환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김해를 감싸고 지나는 낙동강은 하류인 삼랑진에서 물금 사이가 협곡을 이루고 있어 큰물이 들면 쉽게 물에 잠긴다. 양산협곡을 벗어난 본류는 구포 위에서 갈라지므로 옛날에는 삼차수(三叉水) 또는 삼차강(三叉江)이라 했으며⁸⁾, 그 사이에는 대저도와 같은 큰 하중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낙동강 하부 삼각주의 발달에 따라 내만은 서서히 충적 환경을 이루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자연퇴적층이 증가하면서 제방축조와 매립에 의하여 고김해만은 지금과 같은 모습의 김해평야가 되었다.

김해시의 지질형태는 그 분포상 대부분 중생대 말기의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지층에 속한다. 이에 따라 심성암인 섬록암 및 화강암, 분류암인 석영반암, 맥석으로서의 석영반암 및 규장석 등의 산성암과 섬록분암 등의 염기성암을 포괄하고 있다. 각 암석의 맥류는 서로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간간이 석영맥 소화강암 또는 거정화강암의 소맥을 수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강섬록암 등의 심성암을 이루고 있다. 김해지역의 산지는 대부분 백악기층이며 저지대는 모래와 실트, 점토 등이 주체가 된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의 지질은 다시 백악기 상부의 불국사관입암류와 유천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방대에서 금병산 일대는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한다.⁹⁾

3) 반응부·곽종철, 1991, 「洛東江河口 金海地域의 環境과 漁撈文化」, 『가야문화연구』 제2호, pp. 59~86.

4) 곽종철, 1990, 「洛東江 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 貝塚貝類를 中心으로 본 側面」, 『가야문화』 제3호.

5) (재)삼강문화재연구원, 2009, 『金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6) 김갑진, 2012, 「해상왕국 가야시대의 선박-김해 봉황동 유적의 발굴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계간 한국의 고고학』 21, pp. 26~35.

7) 황상일·김정운·윤순옥, 2009, 「김해시 관동리지역의 Holocene 후기 지형발달」, 『金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p.589.

8) 『海東地圖』(1750년대 제작)에는 불아창과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 삼차수라 적었고, 덕도(德島)와 명지도(銘旨島)만 섬으로 표현되었고 다른 섬들의 주변으로는 이미 육지화가 진행되어 충적지상의 구름으로 묘사되었다.

9) 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2. 김해시의 고고·역사적 환경

1) 선사시대~통일신라시대

금관가야의 도읍지인 김해는 봉황동, 부원동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각종 패총과 지석묘, 고분군 등과 함께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 넓게 펼쳐진 평야와 언덕진 곳, 들 가운데 섬같이 솟아있는 대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적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장유면 수가리패총·범방패총·농소리패총·봉황대패총과 예안리고분군·양동리고분군·대성동고분군 등은 우리나라의 선사문화와 가야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일찍부터 철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도자문화가 확산되면서 김해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기원전 2세기 경에는 고대국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구야국(狗倭國)’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금관가야(金官伽倻)’로 발전하였다.¹⁰⁾

그러나 번영을 구가하던 금관가야는 4세기 이후 동아시아 해상 무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쇠잔해 가기 시작했으며, 4세기 초엽 고구려에 의한 낙랑군(313년)과 대방군(314년)의 축출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금관가야는 철의 주요 수요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삼국사기』〈가락국기(駕洛國記)〉에 의하면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하여 10대 491년을 이어오다가 신라 법흥왕(法興王) 19년(532), 구해왕(仇亥王)이 신라에 투항하니, 신라는 그를 예우하고 금관가야를 ‘금관군(金官郡)’으로 고쳐서 식읍(食邑)으로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통일 후인 문무왕(文武王) 20년(680)에 9주5소경제도를 실시하면서 ‘금관소경(金官小京)’으로 개칭하였다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이르러 비로소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¹¹⁾

2) 고려시대~조선시대

경덕왕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없이 통일신라 전반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고려 태종(太宗) 23년(940)에 김해소경을 김해부로 고쳤다. 뒤에 임해현(臨海縣)으로 올렸다 성종(成宗) 2년(983)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목(牧)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 호족세력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성종 14년(995)에 지방체계를 다시 ‘4도호부(都護府) 10도(道)’로 개편하였으며 현종(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도호부(都護府) 8목(牧) 56주군(州郡) 28진(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완성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한 완전한 정비가

10) 田溶新, 1995, 『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1) 『三國史記』卷三十四〈雜誌〉第三 地理一 新羅條 참조.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행정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성종 14년(955)에는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쳤고 현종 3년(1012)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원종(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김훤(金暄)이 밀양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충렬왕(忠烈王) 19년(1293)에 안렴사(安廉使) 유호가 살해되는 사건으로 현으로 강등되었으며, 동왕 34년(1308) 다시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되었고,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이르러 김해부(金海府)가 되었다.¹²⁾

조선 태종(太宗)대에 이르러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도(道) 중심체제’의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태종 13년(1413)에는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때에서야 이곳에 향교가 설치되었으며, 웅천·완포를 속현으로 대신·천읍을 부곡으로 삼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해부의 호구 수는 1,290호, 인구는 6,642명이었다.¹³⁾

그리고 문종(文宗)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포현을 웅천현으로 통합하여 현감을 두었고, 세조(世祖) 13년(1467)에 지방군제 개편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할의 진관(鎭管)을 설치하였다. 선조(宣祖) 25년(1592)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여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군 제3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 이후 『김해부읍지(金海府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영조(英祖) 35년(1759) 김해도호부의 호구 수가 8,511호에 인구가 33,01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 비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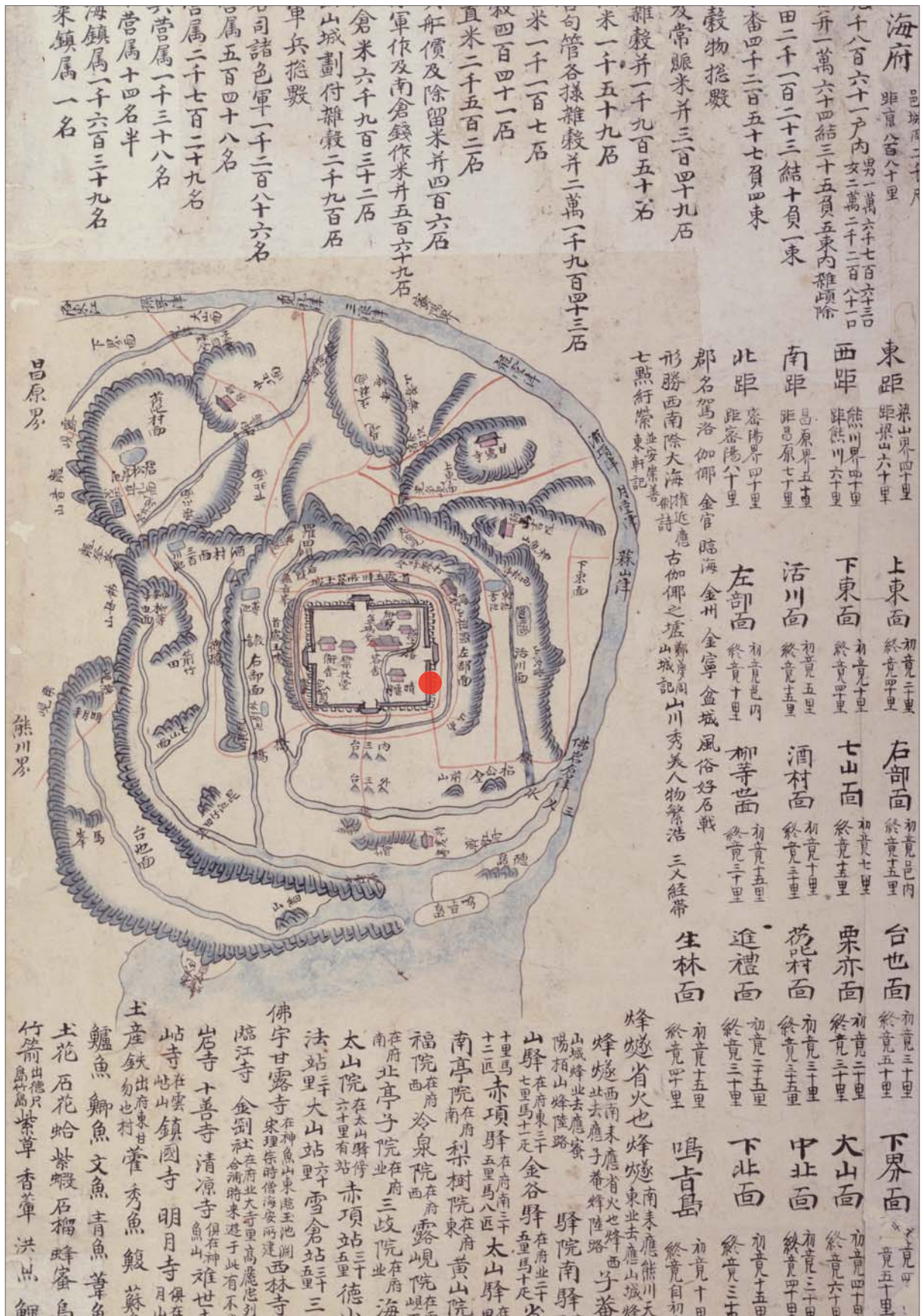
3) 근·현대

조선 말기인 고종(高宗) 32년(1895)의 ‘23부제(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김해군(金海郡)’으로 되었다. 이듬해인 고종 건양 원년(高宗 建陽 元年, 1896)에 다시 ‘도체제(道體制)’가 부활되면서 행정 개편되었으며, 광무(光武) 10년(1906)에 대산면(大山面)이 창원군으로 편입되고 양산군 대저면(大著面)을 편입하였다. 1910년 23개 면을 14개 면으로 통합하였고, 1918년에 좌부면(左部面)과 우부면(右部面)을 김해면으로 통합하였다. 1931년 11월 1일에 김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33년에 낙동대교가 준공되어 부산 구포와 연결되었으며, 1942년에 10월 1일에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 1978년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던 해에 대저면, 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현 부산광역시 북구로 편입되었고,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김해군과 분리되었다. 1983년 2월 김해군 생림면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이북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이북면이 한림면으로 개칭되었다. 1993년에는 낙동대교가 완공 개통되었고 1995년 도농통합시로 김해시·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⁴⁾

12)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참조.

13)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金州都護府 戶口條.

14) 경남대학교경남지역문제연구원, 1997,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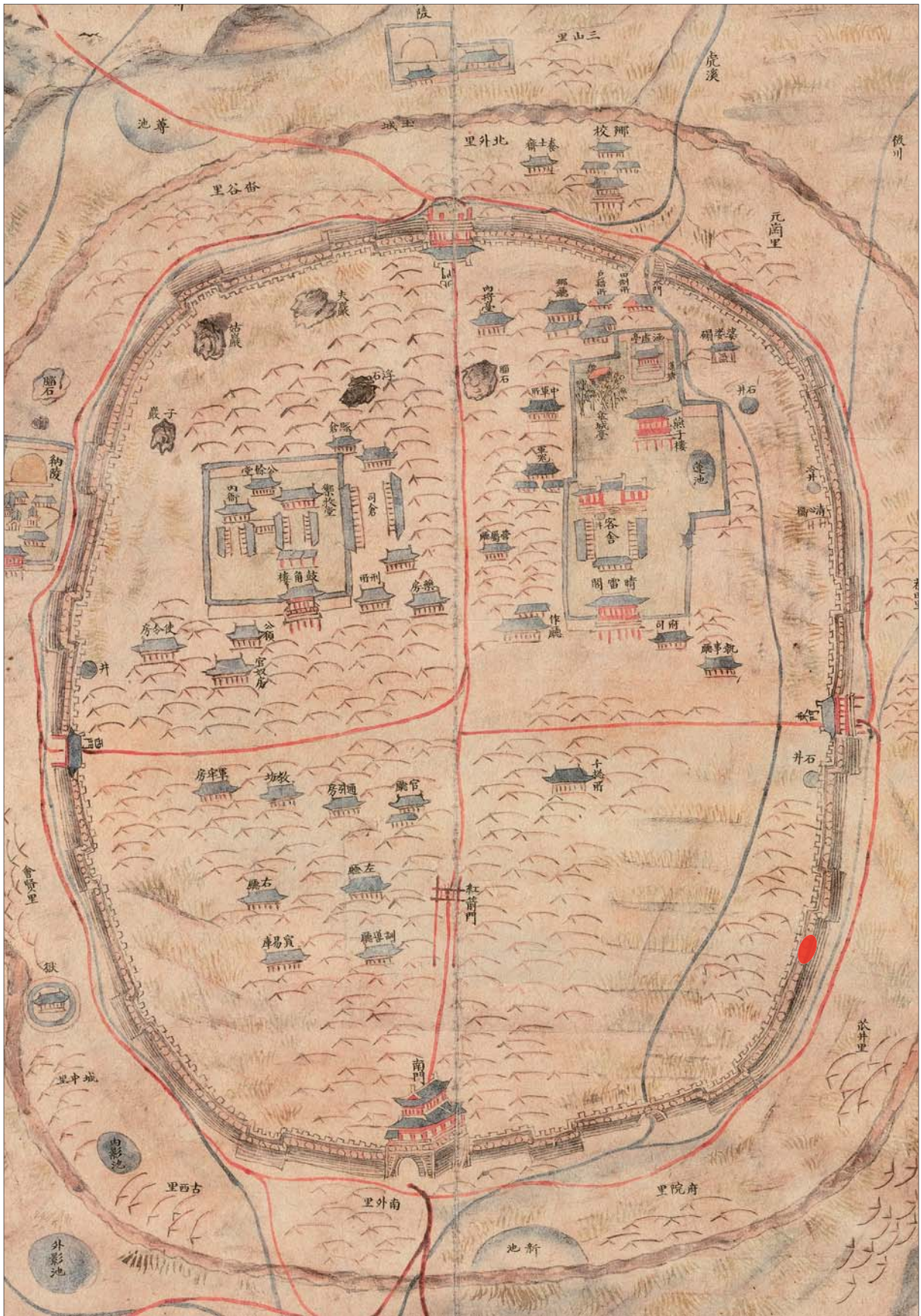
도면 1. 해동지도(● : 조사대상지)



도면 2. 여지도(● : 조사대상지)



도면 3. 지승(● : 조사대상지)



도면 4. 김해부내지도(● : 조사대상지)

4) 김해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표 1】 김해시 역사관련 문헌자료

	문헌	내용
史料1	『三國遺事』卷2 〈奇異〉2 駕洛國記	<p>(上略)……가락국이 망한 후에 이 땅은 대대로 부르는 이름이 같지 않았으니, 신라의 31대 정명왕(신문왕[神文王])이 즉위한 개요(開耀) 원년 신사(辛巳)(681)에는 금관경(金官京)이라 하여 태수를 두었다가 그 후 259년 만에 우리(고려[高麗]) 태조(太祖)에게 귀속하여 통합된 후에는 대대로 임해현이라 하고 배안사(排岸使)를 두었던 것이 48년이요, 다음에는 임해군 혹은 김해부(金海府)라고 하여 도호부를 둔 것이 27년 동안이요, 또 방어사를 둔 것이 64년 동안이다……(下略).¹⁵⁾</p>
史料2	『三國史記』卷34 〈雜志〉 第3 地理1 新羅	<p>김해소경은 옛날 금관국(가락국[伽落國] 또는 가야[伽耶]라고도 한다)이었다. 그 나라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0대 왕인 구해왕이 양(梁)나라 중대통(中大通) 4년, 신라 법흥왕(法興王) 19년(532)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항복해 와서 그 지역이 금관군이 되었으며 문무왕(文武王) 20년(680) 영용(永隆) 원년(元年)에는 금관소경이라고 하였다. 경덕왕(景德王)이 김해소경으로 개칭하였는데 지금(고려시대)의 금주(金州)이다.¹⁶⁾</p>
史料3	『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2	<p>금주(金州)는 원래 가락국(駕洛國)이었다……(中略)……고려 태조(太祖)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김해부(金海府)로 되었고 후에 강등되어 임해현(臨海縣)으로 되었다가 다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성종(成宗) 14년(995)에 금주(金州)로 고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가 되었고, 현종(顯宗) 3년(1012)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쳤다. 원종(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김훤(金暉)이 밀성(密城·밀양) 폭동을 진압하였고, 삼별초(三別抄)의 진출을 막아 내는데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忠烈王) 19년(1293)에 낮추어서 현으로 하였고, 34년에는 다시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전국의 목(牧)이 없어짐에 따라 다시 김해부(金海府)로 되었다. 수로왕(首露王)의 묘(墓·서쪽에 있다)와 초현대(招賢臺·동쪽에 있다) 또 삼분수(三分水 : 동쪽에 있는 황산강, 민간에서는 삼차수[三叉水]라고 부른다)가 있다. 주현에 소속된 군이 2개, 현이 3개 있다.¹⁷⁾</p>

	문헌	내용
史料4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金海都護府	<p>(上略)……고려 태조 23년(940) 경자에 김해부(金海府)로 고쳤다. 뒤에 낮추어서 임해현(臨海縣)으로 하였다가, 또 올려서 군(郡)으로 하였고, 성종(成宗) 14년 을미에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치고, 현종(顯宗) 3년 임자에 낮추어서 금주방어사(金州防禦使)로 삼았다. 원종(元宗) 11년 경오에 방어사(防禦使) 김훤(金桓)이 밀성(密城)의 난(亂)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三別抄)를 막아 공(功)이 있는 까닭으로, 올려서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하고, 인해 김훤을 발탁하여 도호(都護)로 삼아 진수(鎭守)하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4년 무신에 금주목(金州牧)으로 올렸다가, 충선왕(忠宣王) 2년 경술에 여러 목(牧)을 없앴에 따라 다시 김해부로 하였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下略).¹⁸⁾</p>
史料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金海都護府〉	<p>[건치연혁[建置沿革]]본래 가락국(駕落國)이다. 혹은 가야(伽倻)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뒤에 금관국(金官國)이라 고쳤다.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으로부터 구해왕(仇亥王)까지 무릇 10대 491년을 전하여 내려왔다.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하니 법흥왕(法興王)이 객으로 예대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만들어서 금관군(金官郡)이라 불렀다. 문무왕(文武王)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고,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 그대로 소경이라 하였다. 고려 태조(太祖)는 부(府)로 강등시켰고, 뒤에 또 임해현(臨海縣)으로 강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으로 승격시켰다. 성종(成宗)이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라 고쳤고 현종(顯宗)은 강등시켜서 방어사(防禦使)로 만들었다. 원종(元宗)은 방어사 김훤이 밀성 반란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토벌한 공이 있다는 이유로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하고 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진수하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2년(1276)에는 안렴사 유호(劉顥)를 살해한 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다시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선별·폐지하면서, 다시 김해부(金海府)로 만들었는데 본조(本朝)에서는 그대로 하였다. 태종조(太宗朝)에 도호부라 고쳤고 세조조(世祖朝)에서 진(鎭)을 설치하였다……(下略).</p>
史料6	『慶尙道邑誌』 〈金海府邑誌〉	<p>[건치연혁[建置沿革]]본래 수로왕([金]首露王)의 가락국으로 구해왕(仇亥王)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법흥왕(法興王)이 객으로 예대하고 그 나라를 없앤 뒤 금관군(金官郡)으로 불렀다. 문무왕(文武王)이 금관소경(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고려 태종(太宗¹⁹⁾)은 부(府)로 강등시켰고, 뒤에 또 임해현(臨海縣)으로 강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으로 승격시켰다. 성종(成宗)은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고쳤으나, 현종(顯宗)이 방어사(防禦使)로 강등하였다. 원종(元宗) 때 방어사 김훤이 밀성 반란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은 공이 있다는 것으로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하고 훤을 발탁하여 도호로 삼아, 진수하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2년(1276) 안렴사 유호(劉顥)를 살해한 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뒤에 다시 금주목(金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선별·폐지하면서, 다시 김해부(金海府)로 하였다. 본조(本朝[조선])에서는 그대로 하였다.</p> <p>[군명[郡名]] 가락(駕洛)·가야(伽倻)·금주(金州)·금관(金官)·임해(臨海)·김녕(金寧)·분성(盆城)이라고도 한다.²⁰⁾</p>

	문헌	내용
史料7	『輿地圖書』 〈慶尙道 金海鎭 金海都護府〉	<p>[김해진김해도호부[金海鎭金海都護府]]동쪽으로 양산(梁山) 경계까지 42리이고, 남쪽으로 웅천(熊川) 경계까지 40리이며 서쪽으로 창원(昌原) 경계까지 44리이고, 북쪽으로 밀양(密陽) 경계까지 44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884리 떨어져 있어 10일 거리이며 북쪽 감영(監營)까지 200리 떨어져 있어 3일 거리이고, 서쪽 병영(兵營)까지 20리 떨어져 있어 3일 거리이며 남쪽 통영은 210리 떨어져 있어 3일 거리이다…(中略)…기묘식(己卯式) 원호(元戶) 8,511호에, 인구(人口)는 33,015명이다……(下略).</p> <p>[군명[郡名]] 가락(駕洛)·가야(伽倻)·금관(金官)·임해(臨海)·금주(金州)·김녕(金寧)·분성(盆城)이라고도 한다.²¹⁾</p>

- 15) 『三國遺事』卷二 〈奇異〉二 駕洛國記條.
(上略)……國亡之後 代代稱號不一 新羅第三十一 政明王即位 開耀元年辛巳 號爲金官京 置太守後二百五十九年 屬我太祖統合之後 代代爲臨海縣 置排岸使 四十八年也 次爲臨海郡 或爲金海府置都護府 二十七年也 又置防禦使 六十四年也……(下略).
- 16) 『三國史記』卷三十四 〈雜誌〉第三 地理一 新羅.
金海小京 古金官國(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 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 17) 『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金州本駕洛國…(中略)…太祖二十三年 改州府郡縣名 爲金海府 後降爲臨海縣 又陞爲郡 成宗十四年 改爲金州 安東都護府 顯宗三年 更今名 元宗十一年 以防禦使金暄 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陞爲金寧都護府 忠烈王十九年 降爲縣 三十四年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爲金海府 首露王墓(在州西) 招賢臺(在州東) 又有三分水(府東黃山江…(中略)…俗稱爲三叉水) 屬郡二 縣三.
- 18)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金海都護府
(上略)……高麗太祖二十三年庚子 改爲金海府 後降爲臨海縣 又陞爲郡 成宗十四年乙未 改爲金州 安東都護府 顯宗三年壬子 降爲金州防禦使 元宗十一年庚午 以防禦使金暄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仍擢暄爲都護 以鎮之 忠烈王三十四年戊申 陞爲金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都護府……(下略).
- 19) 『高麗史』,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등 여타 문헌에서는 太祖로 기록되어져 있어 『慶尙道邑誌』에 기록된 '太宗'은 편찬자의 誤記로 보인다.
- 20) 『慶尙道邑誌』〈金海都護府〉.
[建置沿革]本首露王駕洛國至仇亥王降于新羅法興王 待以客禮 國除 改號金官郡 文武王 改置金官小京 高麗太宗降爲府 後又降爲臨海縣 未幾陞爲郡 成宗改金州安東都護府 顯宗降爲防禦使 元宗以防禦使金暄平密城之亂 又拒三別抄有功 陞爲金寧都護府 忠烈王二年 以殺按廉使劉顥 降爲縣 後陞金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復爲金海府 本朝因之.
[郡名]駕洛 伽耶 金州 金官 臨海 金寧 盆城.
- 21) 『輿地圖書』〈慶上道-金海鎭金海都護府〉.
[金海鎭金海都護府]東至梁山界四十二里 南至熊川界四十里 西至昌原界四十四里 北至密陽界四十四里 距京八百八十里 十日程 北距監營二百里 三日程 西距兵營二百里 三日程 南距統營二百十里 三日程…(中略)…己卯式 元戶 八千五百一十戶 人口三萬三千十五口……(下略)
[郡名]駕洛 伽耶 金官 臨海 金州 金寧 盆城

3. 김해시의 민속 및 문화행사

김해시의 제례의식 및 전통놀이로는 도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김해송선전 제례(金海崇善殿祭禮)’와 ‘김해오광대(金海五廣大)’, ‘김해 걸궁치기 놀이’가 있다. ‘김해송선전 제례’는 구산동의 김수로왕릉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매년 봄과 가을 모두 2차례의 제례를 송선전에서 행한다. 송선전은 가락국 시조의 김수로왕과 허황후 두 분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흔히 수로왕의 전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릉 자체는 납릉이라 하고 송선전 앞에는 송안전이라 하여 왕묘가 없는 2대에서 9대까지의 8왕과 왕비 등 모두 16분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다. ‘김해오광대’는 민속가면극으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되던 탈놀이이다. 김해시 가락면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동래야류’와 ‘초계 대광대 탈놀이’를 모방하였다는 말이 있다. ‘김해 걸궁치기’는 음력 정월 초순~정월대보름에 행해졌다. 집안의 악귀를 물리치고 태평을 기원하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장유면 유하리 버등마을에서 시작하여 김해시 일원으로 전파되었다.

김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는 ‘가야문화축제’와 ‘김해예술제’ 등이 있다. ‘가야문화축제’는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가락국을 건국한 김수로왕을 추모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해송선전 제례’와 같은 시기에 벌어진다. ‘김해예술제’는 지역예술인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순수문화예술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매년 10월 중순경에 개최된다. 이 외에도 ‘연지봄축제’, ‘진영단감축제’ 등 김해시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4. 조사대상지역 개관

동상동은 김해시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분성산 남쪽의 평지에 위치한다. 현재 김해읍성의 북문이 복원되어 있으며 고대 소성유구와 삼한시대 가마터 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인근 지역에 백운대고분군을 비롯한 김해향교 등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東上’이란 행정지명은 근대에 새로 생겨 지속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다. 조선 후기 문헌인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김해부읍지(金海府邑誌)〉 방리조(坊里條)의 기록에 활천면(活川面), 좌부면(左部面), 칠산면(七山面), 우부면(右部面) 등의 행정구역명이 보이며²²⁾ 조선 후기까지 큰 행정 변화없이 이들 지역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활천면(活川面)과 좌부면(左部面)이 ‘좌부면(左部面)’으로 통합되고 칠산면(七山面)과 우부면(右部面)이 ‘우부면(右部面)’으로 통합되었으며 동상동(東上洞)은 다전리, 부원동 각 일부가 병합되어 좌부면(김해읍) 관할이 되었다. 그리고 1918년에 이 두 면이 김해면(金海面)에 통합되었으며 1931년에는 김해면이 ‘김해읍(金海邑)’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당시 김해읍은 동

22) 『慶尙道邑誌』〈金海府邑誌〉坊里條.

상동을 포함한 22개 동리(洞里)들을 관할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³⁾ 이러한 행정체제는 해방이 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1981년에 김해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김해군 으로부터 분리되어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지명전승

본래 김해군 좌부면(左府面) 동쪽의 위에 있는 마을로 시가지 북동쪽 지역으로 분성산 남쪽의 평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좌부면 지역이었다.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의 좌부면에 동상리(東上里)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구대조(新舊對照)』에 좌부면 동상리(東上里)·다전리(茶田里)·부원리(府院里) 각 일부를 합쳐 동상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지도에서 동상동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이곳에 있었던 김해읍성의 북문이 『지승(地乘)』 등의 지도에 묘사되어 있어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동 지명은 ‘좌부면의 동쪽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1941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성리와 부원동의 각 1부를 병합하여 동상리가 되었으며, 1941년 11월 1일 동명을 조일정으로 바꾸었다가 1947년 6월 다시 동상동으로 동명이 복구되면서 2개구로 나누었으며, 1981년 7월 1일 법률 제 3425호에 의거 시 승격과 함께 법정동 관할 구역이 현재의 행정동인 동상동이 되었다.

또한 이곳은 고대 가락국과 관련된 옛 지명 중 다전리(茶田里)라는 지명은 차 밭이 많았다하여 전하는 지명으로 주도로가 다전로(茶田路)로 불리기도 했다. 허황후가 인도의 아유타에서 가야에 시집을 때 옥합에 차씨를 넣어와 수로왕을 만나고 명월산(녹산면 지사리)에 차를 심게 했다고 하는 유래설이 있으며 차밭관리 전담스님을 둘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상동 일대에는 차밭골이 있었다고 하며, 예전부터 야생차 군락이 존재했다 한다.

차가 유명하여 특산물로 ‘김해장군차’가 유명한데, 장군차의 이름은 고려 충렬왕이 왜구 정벌을 위해 모인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해의 금강사에 들러 절의 뜰에 있는 차나무를 보고 맛과 향이 차 중에서 으뜸이라 하여 장군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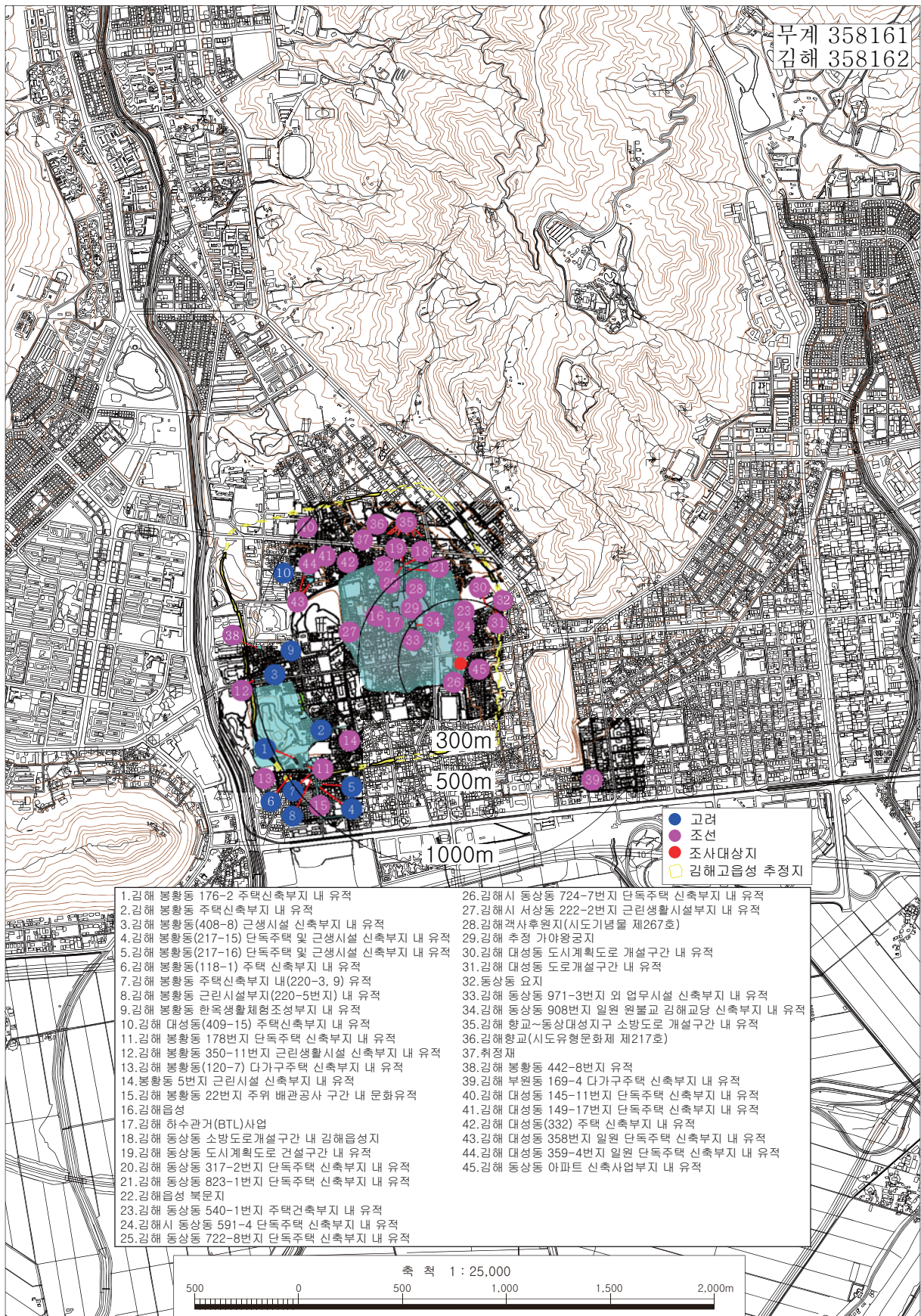
6. 주변유적

1)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김해읍성지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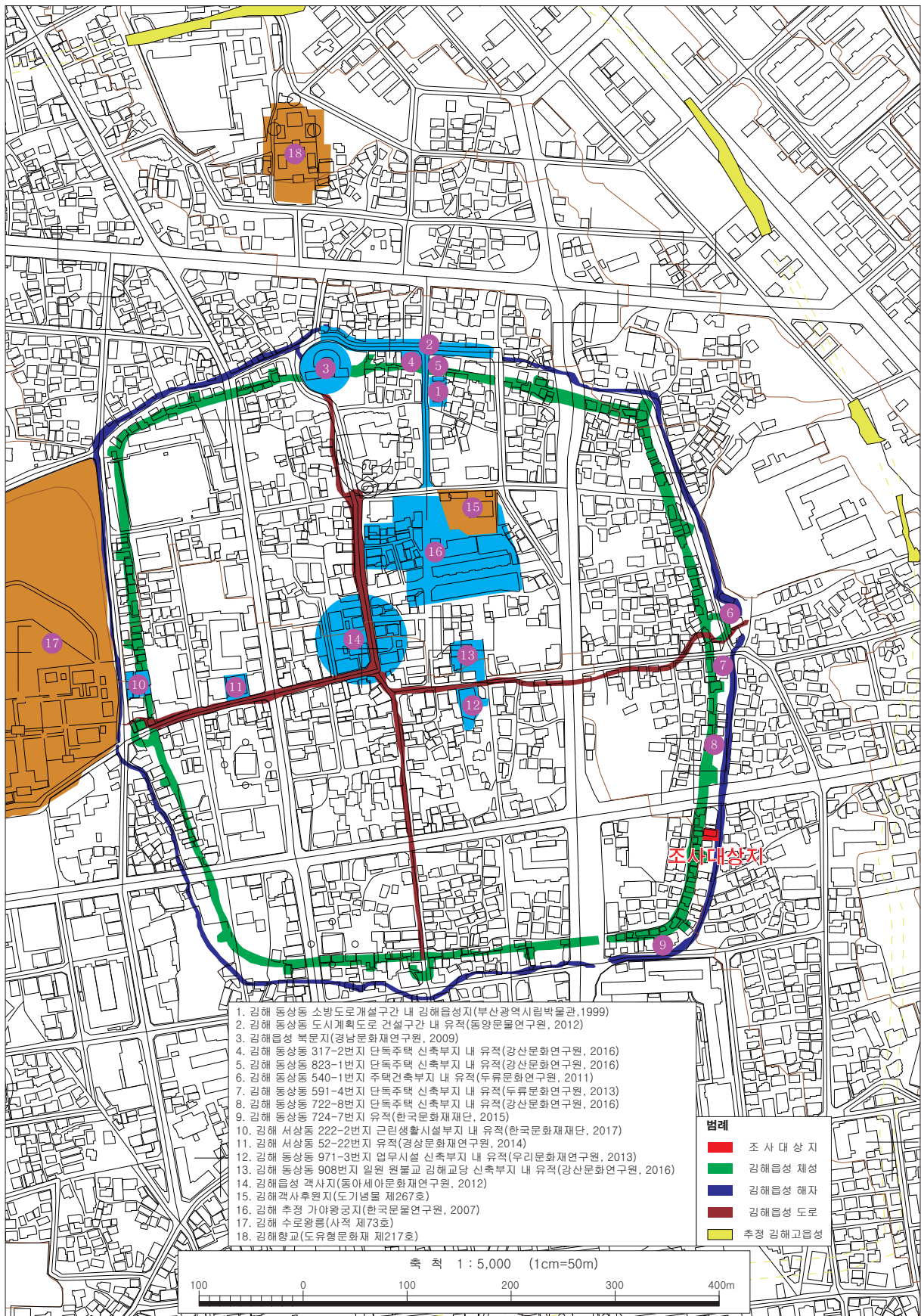
김해읍성의 북문지에서 동쪽으로 약 80m 정도 떨어진 김해읍성의 북쪽 성벽에 해당하며 금회 조

23) 『嶠南誌』卷之五十一〈金海郡〉邑面里洞條.

24) 부산박물관, 1999,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김해읍성지 시굴조사』.



도면 5.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6. 조사대상지 음성관련 조사지역 배치도(1:5,000)

사대상지와와의 이격거리는 약 490m 이다. 시굴조사 결과 성벽과 해자가 조사되었다. 성벽은 내·외벽으로 구성되었는데, 외벽은 지면에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기단석을 쌓은 다음 그 위로 외벽을 축조한 형태였다. 외벽 지대석을 기준으로 한 체성부의 너비는 8.4m이다. 다음으로 내벽은 외벽에서 약 8m 지점에서 노출되었는데 외벽과는 달리 50cm 내외의 방형 석재로 축조되었으며, 현재는 1단 정도 잔존한다.

한편, 성의 외벽에서 북쪽으로 약 9.5m 지점에서 해자의 성내 석축이 조사되었는데, 석축의 잔존 높이는 약 3m이며 기단석 위에 9단으로 쌓여 있었다. 하단 석축의 경우 80×60~70cm 크기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하였으며 틈 사이는 채움석으로 보강하였다. 상부 석축은 5단이며 50×20~25cm 크기의 할석을 허튼층쌓기수법으로 쌓았다. 석축의 뒷채움은 30~40×40cm 크기의 판석이 사용되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기와류 및 철기류 그리고 청자류·분청사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2) 김해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²⁵⁾

행정구역상 김해시 동상동 306-2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와의 이격거리는 약 550m 이다. 조사결과, 김해읍성의 초축 해자와 해자의 호안 석축,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렬과 과거 호계천과 관련된 유구가 조사되었다. 11개의 Pit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석축의 축조법과 이용된 석재의 크기, 해발 고도를 통해 해자는 초축 이후 2회 이상 수·개축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8pit에서는 고지도상에서 묘사되어 있는 호계천의 흔적 일부를 밝힐 수 있었다.

유물은 기와가 주를 이루며 백자 및 분청사기편도 함께 수습되었다. 기와 중에는 ‘北面’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는데 김해읍성의 북쪽 체성부에서 출토된 것과 기존의 주변 유적에서 출토 위치에 따라 ‘東面’, ‘南南’ 등의 문자가 새겨진 명문 기와가 출토된 사례로 보아 이는 북쪽 성벽을 축조하기 위해 제작·공급된 기와였음을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3) 김해읍성 북문지²⁶⁾

행정구역상 김해시 동상동 214-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와의 이격거리는 약 530m 이다. 김해읍성의 북문지와 웅성, 북문지 주변의 성벽과 해자, 웅성 등이 조사되었다.

북문지의 경우 초축 이후 2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초축과 수축은 축조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석재의 크기도 달랐다. 웅성의 경우 성벽과 축조방법에 차이를 보여 축조시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문지 아래에는 선대 유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트렌치의 토층 양상을 참고할 때, 북문지와 선대 유구 사이의 간층이 없어 김해읍성 축조 직전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부 출토 유물

25) (재)동양문화연구원, 2012, 『김해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26)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읍성 북문지』.

은 분청사기, 백자, 기와 등이 주를 이룬다.

4) 김해 동상동 317-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²⁷⁾

김해읍성 북쪽 체성 및 해자와 인근한 위치에 해당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540m 이다. 조사 결과 해자의 내측 호안석축이 조사되었다. 호안석축은 후대의 교란으로 상부가 유실된 상태로 잔존 규모의 너비는 40~160cm 정도이다. 남쪽 조사경계 밖에 잔존하는 체성과 나란히 조성되었으며 체성과의 이격거리는 약 14m 내외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북쪽의 '김해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해자의 외측 호안석축과의 이격거리로 추정되는 해자의 너비는 약 6m 정도이다.

해자의 바닥과 석축에서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다.

5) 김해 동상동 823-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²⁸⁾

김해읍성 북문지 인근의 북쪽 체성부에 해당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510m 이다. 조사 결과, 김해읍성의 체성 외벽과 뒷채움석, 그리고 체성 외벽에 덧대어 축조한 치성이 조사되었다.

체성은 동-서 방향으로 진행하며 너비는 6.7m 규모이다. 지대석 기단석, 성벽석은 들여쌓기하였고 기단석과 성벽석 사이의 빈틈은 크고 작은 할석으로 채워 넣었다. 현재 성벽석은 4단까지 남아 있으며 잔존 높이는 3.5m 이다.

체성의 내측은 북고남저 지형에 따라 외벽에서 내측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지며 할석과 실트질 흙을 깔아 면을 맞추고 60cm 정도 크기의 면석을 놓았다. 면석은 외벽의 지대석과 높이를 맞추었고 체성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계단상으로 축조하였다.

치성은 체성의 외벽이 먼저 쌓은 후 외벽에 덧대어 축조된 상태이다. 지대석은 없으며 기단석 위로 성벽석을 기단석과 면을 맞추어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벽석은 교란으로 인하여 1~2단만 잔존한다.

유물은 유구 노출 과정과 지표상에서 청자, 분청사기, 백자,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6) 김해 동상동 540-1번지 주택건축부지 내 유적²⁹⁾

분성산 남서쪽 사면 말단부와 이어지는 평지에 해당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220m 이다. 남북으로는 주택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너비 약 2m의 배수로나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결과, 김해읍성의 동문지 일대로 추정되는 체성부와 해자의

27) (재)강산문화연구원, 2016, 「김해 동상동 317-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28) (재)강산문화연구원, 2016, 「김해 동상동 823-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29) (재)두류문화연구원, 2011, 「김해 동상동 540-1번지 주택건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결과약보고」.

일부가 남-북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조사구간 내에서 일부 조사되었다.

먼저, 해자는 풍화암반층을 완만하게 굴착한 후 40cm 내외의 장방형 할석을 사용하여 호안석축을 쌓았다. 현재 육안으로 1~3단 정도 관찰되며 깊이는 110cm 내외이다.

체성부는 해자의 호안석축에서 서쪽으로 8m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며 조사구역의 서쪽 경계에 맞물려 있다. 성벽 너비는 내벽이 도로 하부로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유물은 해자의 퇴적토 및 체성부의 노출지점 주변에서 백자와 분청사기편 및 옹기편, 소량의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7) 김해시 동상동 591-4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³⁰⁾

분성산 남서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며 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 이격거리는 약 180m 이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주택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도로와 접해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동광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다. 조사결과, 북쪽경계에 면하여 동쪽 도로에서 약 2m 지점에서 김해읍성의 해자 내측 호안석축이 조사되었다. 석축의 진행방향은 체성과 평행하게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진행되며 일제강점기 지적측량도와 현대 지적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김해읍성 동문지 앞쪽 옹성해자와 연결되는 해자로 추정된다.

현재 조사된 해자의 길이는 9.2m 정도로 전체적인 양상을 볼 때 크게 2차례 걸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축 석축은 40~80cm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한 단으로 높혀 지대석으로 설치하였으며, 이 지대석 위로 10~15cm 정도 들어서 20~80cm 정도의 (장)방형 할석을 세로놓혀쌓기수법으로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였는데 면석 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최대잔존 높이는 지대석을 포함해 1m 내외이다. 1차 수축은 초축 석축을 기저부로 하여 상부에 40~60cm 정도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초축 석축 상부에 2~4단의 허튼층쌓기하였다. 현재 해자의 초축시 조성된 지대석으로부터의 최대 잔존 높이는 1.7m 정도이다. 해자의 석축 후면에는 30cm 내외의 할석으로 호안석축을 보강하였으며 바닥면에선 목익과 목익흔이 조사되었다. 목익흔의 잔존 직경은 6cm 이다. 해자의 너비는 내벽과 외벽이 함께 조사되지 않아 그 규모는 파악하기는 힘들다. 유물은 백자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8) 김해 동상동 722-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³¹⁾

김해읍성 동문 추정지에서 남쪽에 인접하는 성벽으로, 분성산의 구릉 말단부 서편에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 이격거리는 약 80m 이다. 김해평야가 접한 남서쪽 평지에 해당한다.

체성부는 유적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며 체성부의 규모는 잔존 너비가 7m로, 유적의 북·서·남쪽 경계 밖으로 연장된다. 체성부 내에서 파악된 시설은 기단석, 박석, 적심석, 지정

30) (재)두류문화연구원, 2013, 『김해 동상동 591-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약보고』.

31) (재)강산문화연구원, 2016, 『경남 김해 동상동 722-8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석, 지정목 등이 있다.

단면조사를 통해 본 축조수법은 기반층을 20~30cm 가량 굴착하여 평면을 조성한 후 지정목을 다수 설치하였다. 이후 상면에 10~30cm 내외의 잡석으로 지정석을 채워 넣어 보강한 후 상면에 체성의 외벽 기단을 마련하였다. 이후 외벽 내측에 적심석을 채워 넣어 외벽을 축조하고, 외벽 외면에는 박석을 부석하였다.

조사구역 내에서 주혈이 총 21개가 조사되었는데, 주혈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내부에서 연질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어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9) 김해 동상동 724-7번지 유적³²⁾

분성산에서 남서쪽으로 뺏어내린 구릉사면부에서 호계천으로 이르는 평탄면 대지에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100m 이다. 발굴조사 결과, 김해읍성 남벽의 동쪽 해자 내측 호안 석축이 조사되었다. 해자 외측 석축은 조사구역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해자의 정확한 너비는 알 수 없었다. 석축은 너비 80cm, 깊이 200cm 정도이다. 석축은 4~6단으로 서쪽 경계부에서 동쪽으로 230cm를 기준으로 동쪽은 허튼층쌓기, 서쪽은 바른층쌓기하여 축조수법에서 차이가 있다. 석축의 상단 1~2단은 하부에 비해 할석의 크기가 작는데, 뒤쪽부분의 층전양상과 비교하여 볼 때 1차례 정도의 수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해자 내부에서 백자 4점이 출토되었다.

10) 김해시 서상동 222-2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³³⁾

수로왕릉(사적 제73호) 서쪽에 인접하고 있으며 김해읍성의 성벽 추정범위 중 서벽 중앙부에 위치한다.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570m 이다. 발굴조사 결과, 읍성의 서벽의 체성, 해자의 내측 석축, 후대의 석축유구 일부가 조사되었다.

체성의 잔존높이 146~206cm 정도이며 체성의 외벽과 박석, 뒤채움은 모두 조사경계 바깥으로 연장된다. 체성은 지대석-기단석-외벽석 순으로 10~20cm 정도 들여쌓기하였다. 지대석은 길이 20~40cm 정도의 할석으로 1단을 조성하고 그 상면에 다시 잔돌을 이용하여 수평을 이루도록 조성하였다. 기단은 길이 60~100cm의 할석을 사용해 외면과 상면을 편평하게 쌓아 1단을 설치하였다. 외벽석은 길이 100~140cm의 대형석재와 길이 40~100cm의 중소형석재를 혼용하여 쌓았다. 빈틈은 할석으로 채워 보강하였다.

박석은 외벽 바깥 기저부에 설치하였으며 남쪽지점은 너비가 160cm 미만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180~190cm로 커진다.

32) 한국문화재단, 2015,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 - 울산·경남 -』.

33) 한국문화재단, 2017,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 김해시 서상동 222-2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

해자는 내측 석축만 조사되었는데, 체성과는 9.5m 정도 이격되어 있다. 40~100cm의 할석들을 바른층쌓기하였다. 유물은 자기, 옹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체성에서 서쪽으로 10.8m 떨어져 위치한 석축은 읍성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읍성 폐기 이후 조성된 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배수 용도의 석축시설로 판단된다.

11) 김해 서상동 52-22번지 유적³⁴⁾

김해시 서상동 52-22번지에 소재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470m 이다. 조사결과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층은 근·현대층, 2층은 조선시대 문화층, 3층은 삼국시대 문화층이다. 유구는 근대 추정 목주열, 조선시대 수혈 2기, 삼국시대로 10기, 자연구 1기, 수혈 2기 등 모두 16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자기류, 기와편, 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12) 김해 동상동 971-3번지 업무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³⁵⁾

김해읍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3년도 지적원도상으로 동남쪽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포함되어 조선시대 관청시설 주변일 가능성이 있다.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260m 이다.

조사결과, 2개의 조선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는데 조선시대 1문화층에서는 건물기단 1기와 부뚜막 1기, 조선시대 2문화층에서는 담장 1기, 적심 4기, 우물 2기, 석열 2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1문화층의 기단과 2문화층의 담장은 조사경계까지 유구가 맞물려 있어 조사경계 밖으로 유구가 연장되고 있다.

우물 내부에선 사람의 두개골, 말의 두개골 및 척추, 늑골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외에도 유구 내부에서 기와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13) 경남 김해 동상동 908번지 일원 원불교 김해교당 신축부지 내 유적³⁶⁾

김해읍성 중심부에 위치하며 북쪽에 객사가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290m 이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2동과 수로 1기가 조사되었는데 건물지 내부에서는 각기 배수로, 마당, 계단석, 적심, 초석 등의 시설물이 발굴조사되었다. 수로는 각 건물지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김해읍지’ 등의 사료를 통해 인공 연지를 조성하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 ‘함허정(咸虛亭)’의 옛 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2동은 ‘김해부내지도’, ‘김해읍지’ 수록 고지도, 일제강점기지적원도 등의 자료를 근거로 볼 때 객사의 부속 건물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건물일 가

34)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4, 『김해 서상동 52-22번지 유적』.

35)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동상동 971-3번지 외 신축건물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6) (재)강산문화연구원, 2016, 『경남 김해 동상동 908번지 일원 원불교 김해교당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정밀) 조사 결과보고서』.

능성도 있다. 출토유물은 기와 및 백자가 주종을 이룬다.

14) 김해읍성 객사지³⁷⁾

경남 김해시 서상동, 봉황동, 부원동 일대에 해당하며 ‘김해하수관거정비(BTL)사업’의 실행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대상지는 『김해부내지도(金海府內地圖)』에 표시된 김해객사지와 김해읍성 북쪽에 해당하는 구간이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380m 이다.

조사결과, 객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에는 건물지 8동, 석축 5기 등이 노출되었으며, 유물은 분청사기·백자 등의 자기류와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15) 김해객사후원지(도기념물 제267호)³⁸⁾

김해객사후원지는 김해시 동상동 김해읍성 내의 포교당 경내에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380m 이다.

분성대(盆城臺)와 함허정(咸虛亭)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터는 금관가야 후기의 왕궁터 혹은 수로왕비의 중궁터로도 전해지며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인 파사석탑을 보관한 호계사(虎溪寺)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연자루(燕子樓)와 함허정이 세워진 역사성을 가진 장소로 전해진다.

1928년 김해김씨 후손 김문배가 이 터에 대(臺)를 수축하여 ‘분성대’라 하고 비를 세우면서 ‘가락도궁허비’(駕洛古都宮墟碑)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함허정은 1497년 김해부사 최윤신이 초창한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친 연지 가운데의 정자였으나 1800년대 이전에 읍성 밖 북쪽으로 이건되었다고 한다.

함허정은 연자루의 북쪽 파사탑의 남쪽에 네모난 못을 파고 호계(虎溪)의 물을 끌어들이 돌아나가게 하고 그 가운데에 가도(假島)를 쌓아 높은 집을 지었는데 집 위에 띠를 덮어 정자를 만들었고 물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았으며, 못에 물을 넣고 연을 심었으며 작은 배를 띄워 기생과 풍물을 싣고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과 연자루와 함허정의 배치 관계는 1820년경 제작된 김해부내지도(金海府內地圖)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6) 김해 추정 가야왕궁지³⁹⁾

김해 구시가지 재래시장 북측 입구의 동측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연화사 포교당의 경내에 해당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의 이격거리는 약 400m 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중요 건물들이 수차례 건립되고 존속되어 왔으며, 조사는 특히 대지 중심부분에 위치한 연못이 이번 조사의 핵심구

37)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김해읍성 객사지』.

38)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39) (재)한국문화재연구원, 2007, 「김해 전 가야왕궁지(분성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결과 약보고」.

역이 되고 금당이 그 중심에 위치하여 그를 제외한 부분에서 연못의 규모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분성 대구역에서는 하천 바닥 퇴적층 위에 적어도 전체 폭 6m 이상 규모의 방대형 토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2트렌치에서는 사료조사에서 드러난 사층단과 같은 시설의 기반석축이 노출되었다. 4트렌치에서는 인공적인 보도와 같은 구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기와, 백자, 분청사기 등이다.

17) 김해 수로왕릉(사적 제73호)⁴⁰⁾

조사대상지로부터 북동쪽으로 580m 이격된 김해시 서상동 312번지에 위치하며 금회 조사대상지와 이격거리는 약 700m 이다.

이 능은 가락국의 시조 수로의 능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조선 세종 28년(1446)에 수로왕릉과 허왕후릉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100보에 표석을 세워 수호 구역으로 확대하고, 선조 13년(1580)에는 상석(床石), 석단(石段), 능표(陵表) 등의 석물을 시설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도굴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인조 25년(1647)에 능비(陵碑)를 세우고, 고종 2년(1884)에는 숭선전(崇善殿)이란 호를 내리고 침묘(寢廟)를 개축하였다. 이때 안향각(安香閣), 신도비각(神道碑閣), 수석(石獸) 등을 설치하였다. 봉분은 원형 봉토분으로 규모는 길이 22m, 너비 21m, 높이 약 5m 이다. 봉분 앞에는 능비(陵碑), 상석(床石), 장명등(長明燈), 망주(望柱)가 있고 숭선전(崇善殿)을 비롯하여 가락루(駕洛樓), 홍살문(紅箭門), 숭화문(崇化門) 등의 여러 건물과 석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2 가락국기조(卷 題二 駕洛國記條)」 수로왕 장례기사에 의해 “드디어 대철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을 지었다. 높이 일장이고 주위 삼백보로 그 곳에 장사를 지내고 수로왕묘라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능의 내부구조는 전혀 알 수 없어 어느 시기에 축조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18) 김해향교 (도유형문화재 제217호)⁴¹⁾

금회 조사대상지와 이격거리는 약 790m 이다. 창건시기는 15세기이며, 18세기에 이건되었다. 현황 조성시기는 19세기이다. 조선 태종 8년(1408)에 김해읍 고진산 아래에 창건하였으나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며, 1600년에 부사 정기남(鄭奇男)이 읍의 동쪽에 위치한 대전동 위에 재건하였다. 그러나 영조 45년(1769) 화재로 재소실되어 이듬해 현재 위치인 송악산 아래(현 대성동 224번지)에 이전하여 재건하였고, 그 후 수 차례에 걸친 중수와 보존·관리로 오늘에 이르렀다.

40) 박천수 외, 2003, 『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41) 동아대학교박물관·김해시,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 - 김해시』.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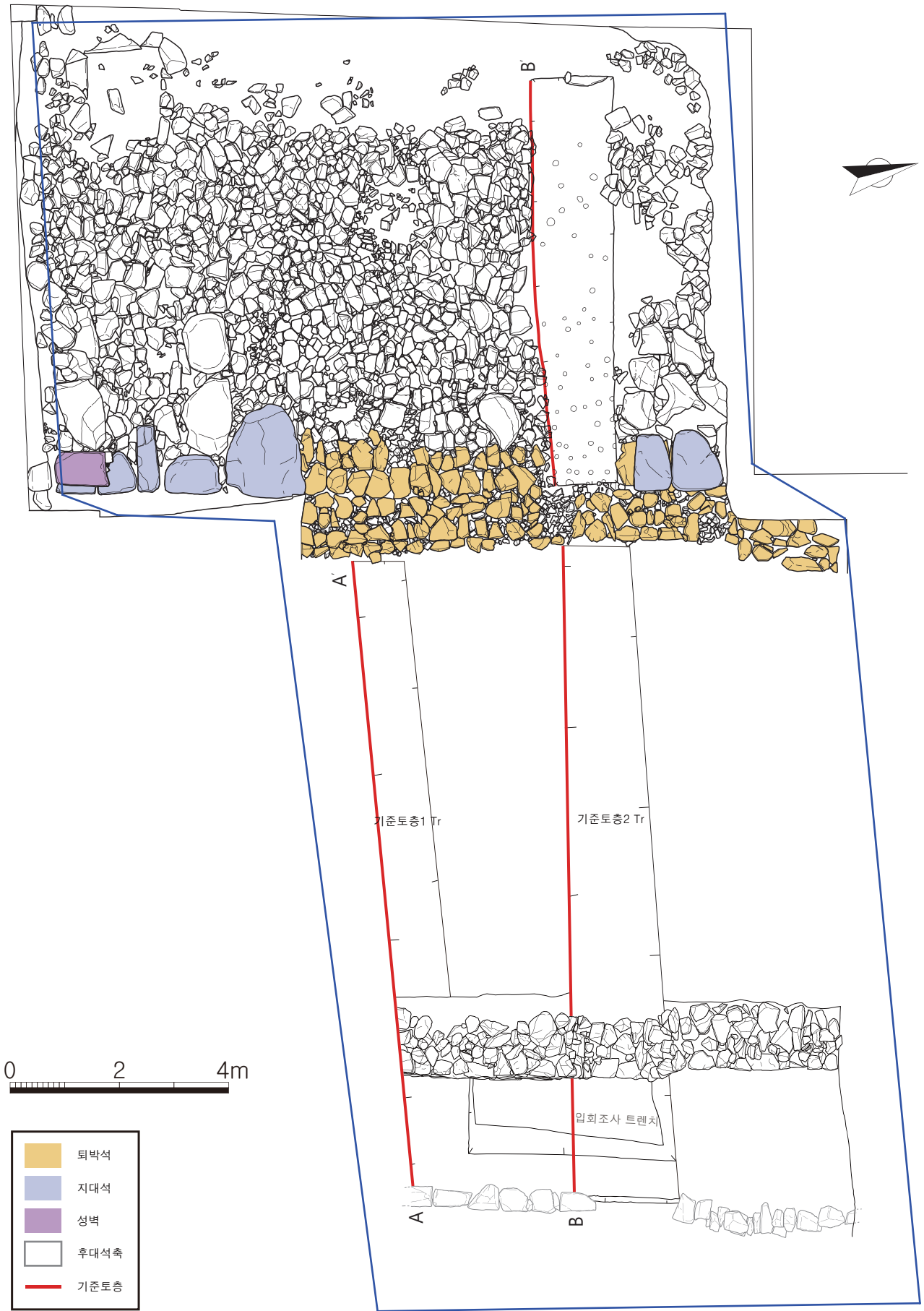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22-13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생시설(수리점) 부지로 조사대상지의 북동쪽으로는 분성산(326.8m)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해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2017년 5월 12일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실시한 입회조사 결과,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의 중간지점 토층 단면상에서 6단 정도의 석축시설이 노출되었으며 주변에서 자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주변에는 김해읍성과 관련된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는데, 기 조사된 유적의 보고서 및 고지도, 금번 입회조사 결과 등을 통해 조사대상지는 김해읍성의 동쪽 체성부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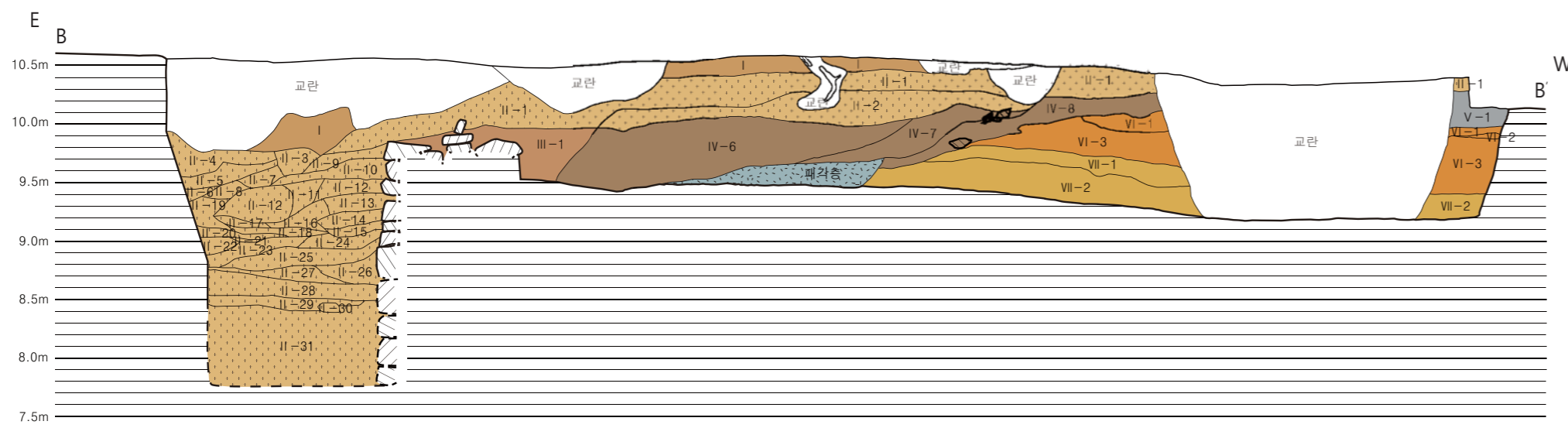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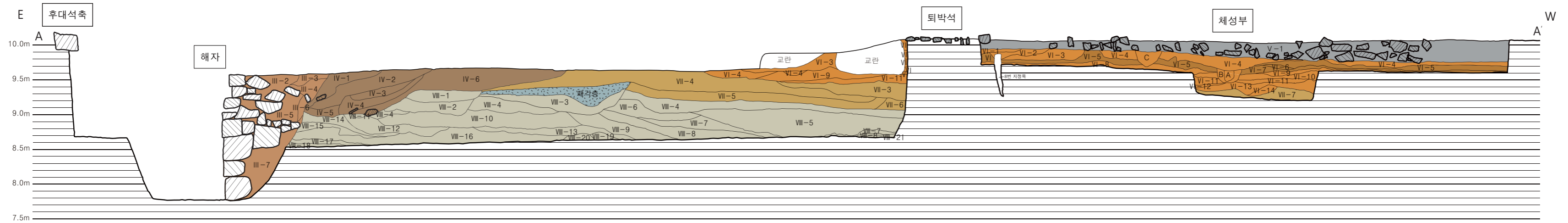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입회조사시 트렌치를 확장하여 동-서 방향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체성부, 해자(호안석축)의 분포범위 및 잔존상태를 파악하고 토층조사 결과에 따라 전면 제토하여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역의 면적이 협소하고, 서쪽편의 경우 현 지표 즉, 기존 건물 바닥면과 연결하여 지대석 등의 체성부 구조가 바로 노출되어 교란된 체성부 석재와 축조 당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여 정리, 노출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계속되는 우천과 폭염으로 조사상황이 열악하였다.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면 벽면지점의 토층을 기준토층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후대 건축 등으로 인하여 교란이 심한 상태여서 조사대상지역의 전체적인 토층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입회조사시 설치하였던 트렌치를 확장하여(기준토층2) 토층조사를 실시하고 남쪽 경계면 토층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조사구역내의 토층퇴적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성부의 축조 전 퇴적상태, 체성부와 해자(호안석축)간의 축조 선후관계 및 체성부 축조이후의 퇴적상태, 호안석축 설치단계의 토층 및 그 이후 기타 시설물 설치상태 등의 조사구역 내에 노출된 유구의 축조 시기, 축조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우선 설정하고 조사자들의 이해를 공유하면서 조사에 임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전체적인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8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I 층은 표토층으로 후대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해 교란이 심한 상태이다. II 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자연퇴적층, III 층은 해자 호안석축 설치층, IV 층은 토기편, 청자, 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포함된 유물포함층으로 읍성 축조 후 호안석축(해자)이 축조되기까지 일정기간 퇴적된 구지표층이다. V 층은 읍성 축조시 체성부의 기초면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석과 사질점토로 정지한 정지층, VI 층은 점질토와 사질토를 번갈아 정지한 후에 지정목으로 기반을 보강한 정지층, VII 층은 암회색의 점질토층으로 읍성 축조 이전의 구지표층으로 추정된다. 이 층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호계천(虎溪川)과 후천(後川)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형성된 층으로 이 때문에 읍성 축조시 V·VI 층의 토목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VIII 층과 IX 층은 황갈색과 회백색의 마사토층, 암회색 점질토층이 교차 퇴적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주변 하천 범람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연퇴적층(하성퇴적층)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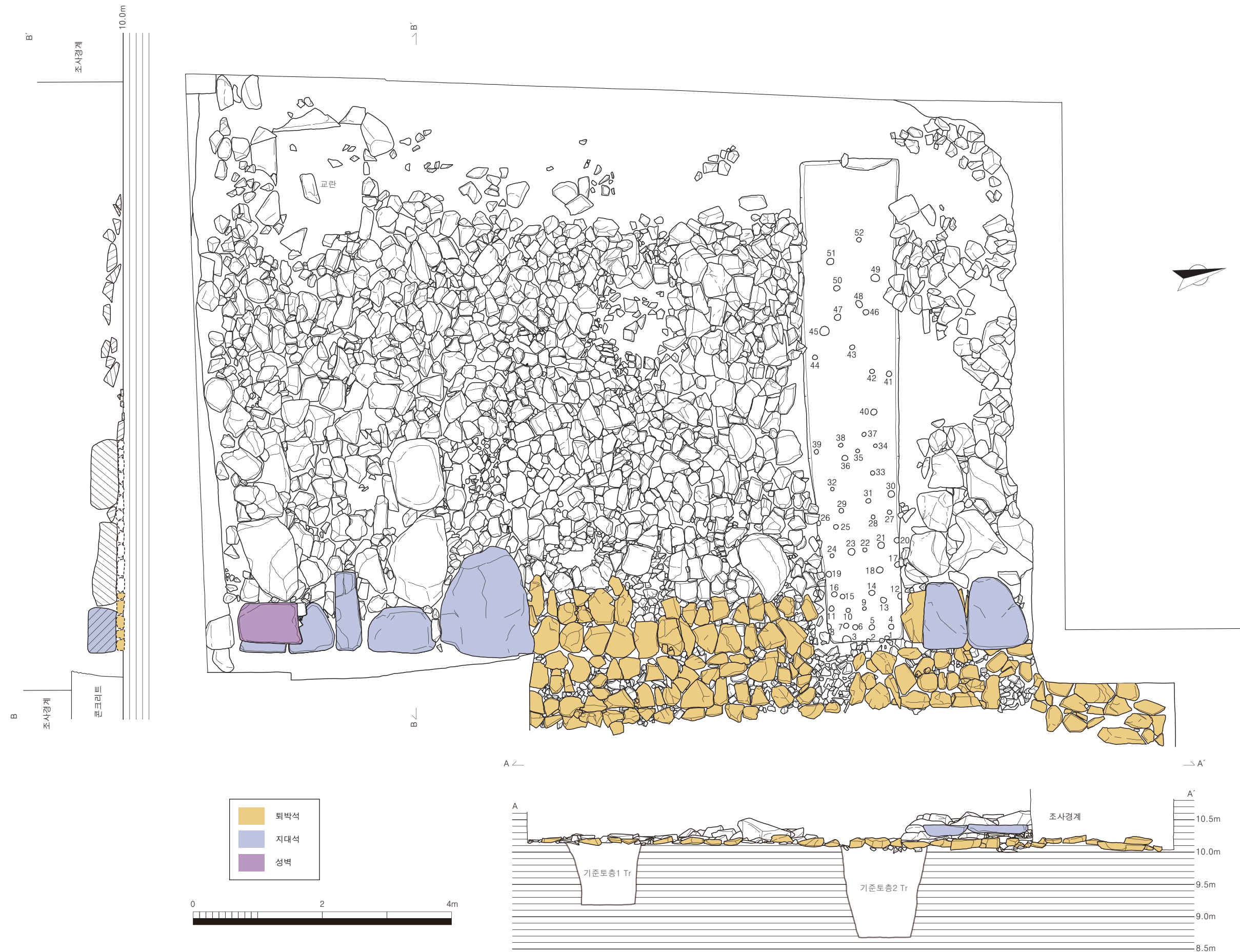


도면 7. 유구배치도(1:100)



- | | | |
|---|---|---|
| <p><표토층>
I. 갈색 사질점토(HUE 7.5YR 4/4)</p> <p><자연퇴적층>
II-1. 암갈색 사질점토(HUE 10YR 3/4)
II-2.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p> <p><해자내부 퇴적층>
II-3. 명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7/1)
II-4. 명갈색 사질점토(HUE 7.5YR 5/6)
II-5. 회갈색 사질점토(HUE 7.5YR 5/2)
II-6.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5/3)
II-7.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5/3)
II-8. 등색 사질점토(HUE 7.5YR 5/6)
II-9. 회갈색 사질점토(HUE 7.5YR 6/2)
II-10.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6/3)
II-11.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6/1)
II-12.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6/3)
II-13. 갈색 사질점토(HUE 7.5YR 4/6)
II-14. 이.부.이 등색 사질점토(HUE 7.5YR 6/4)
II-15.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6/3)
II-16.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5/1)
II-17.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6/1)
II-18. 명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7/2)
II-19. 이.부.이 등색 사질점토(HUE 7.5YR 5/3)
II-20.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6/1)
II-21. 회갈색 사질점토(HUE 7.5YR 5/2)
II-22.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6/3)
II-23.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5/1)
II-24. 이.부.이 갈색 사질점토(HUE 7.5YR 6/3)
II-25. 회갈색 사질점토(HUE 7.5YR 5/2)
II-26.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5/1)
II-27.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6/1)
II-28.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5/1)
II-29. 이.부.이 등색 사질점토(HUE 7.5YR 7/3)
II-30. 이.부.이 등색 사질점토(HUE 7.5YR 7/4)
II-31. 갈회색 사질점토(HUE 7.5YR 5/1)
II-32. 갈회색 점질토(HUE 7.5YR 4/1)</p> <p><해자 호안석축 설치층>
III-1. 이.부.이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III-2.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8)
III-3. 밝은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6/6)
III-4. 갈회색 사질점토(HUE 10YR 4/1)
III-5. 이.부.이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III-6.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3/1)</p> | <p><음성 축조 후 지표층(유물포함층)>
IV-1.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IV-2.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2)
IV-3. 이.부.이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3)
IV-4. 암갈색 사질점토(HUE 10YR 3/4)
IV-5.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2)
IV-6.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6)
IV-7.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3/2)
IV-8. 암갈색 사질점토(HUE 10YR 3/3)</p> <p><정지층>
V. 회백색 사질토(HUE 10YR 7/1)</p> <p><음성 축조시 성토층>
VI-1. 갈회색 사질점토(HUE 10YR 6/1)
VI-2. 이.부.이 황등색 사질점토(HUE 10YR 6/4)
VI-3. 갈회색 사질점토(HUE 10YR 4/1)
VI-4. 회백색 사질토(HUE 10YR 7/1)
VI-5. 흑갈색 사질토(HUE 10YR 3/1)
VI-6. 회백색 사질토(HUE 10YR 7/1)
VI-7. 이.부.이 황등색 사질점토(HUE 10YR 6/4)
VI-8. 회백색 사질점토(HUE 10YR 8/1)
VI-9. 이.부.이 황등색 사질점토(HUE 10YR 6/4)
VI-10. 갈회색 점질토(HUE 10YR 6/1)
VI-11. 이.부.이 황등색 사질점토(HUE 10YR 5/3)
VI-12. 갈색 점질토(HUE 10YR 4/4)
VI-13. 회백색 사질토(HUE 10YR 7/1)
VI-14. 회백색 사질토(HUE 10YR 7/1)</p> <p><음성 축조시 구지표층>
VII-1. 흑갈색 점질토(HUE 10YR 2/2)
VII-2. 흑갈색 점질토(HUE 10YR 3/1)
VII-3. 흑갈색 점질토(HUE 10YR 2/2)
VII-4. 흑갈색 점질토(HUE 10YR 2/2)
VII-5. 흑갈색 점질토(HUE 10YR 3/1)
VII-6. 갈회색 사질토(HUE 10YR 4/1)
VII-7. 흑갈색 점질토(HUE 10YR 2/2)</p> <p><음성 축조전 자연퇴적층>
VIII-1.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2/2)
VIII-2.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2/2)
VIII-3.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3/2)
VIII-4. 이.부.이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4)
VIII-5. 이.부.이 황갈색 사질토(HUE 10YR 4/3)
VIII-6. 이.부.이 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3)
VIII-7.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2)</p> | <p>VIII-8.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2/2)
VIII-9.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2/2)
VIII-10. 회황갈색 사질토(HUE 10YR 4/2)
VIII-11. 황갈색 점질사토(HUE 10YR 5/6)
VIII-12. 갈회색 사질점토(HUE 10YR 4/1)
VIII-13. 회황갈색 사질토(HUE 10YR 4/2)
VIII-14. 황갈색 사질토(HUE 10YR 5/6)
VIII-15. 갈색 사질토(HUE 10YR 4/6)
VIII-16. 흑갈색 점질사토(HUE 10YR 2/3)
VIII-17. 갈색 사질점토(HUE 10YR 4/4)
VIII-18.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4/2)
VIII-19.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2/3)
VIII-20.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3/2)
VIII-21. 회황갈색 사질점토(HUE 10YR 5/2)</p> <p><패각층>
흑갈색 사질점토(HUE 10YR 3/1)-패각류 다량포함</p> |
|---|---|---|

도면 8. 기준토층도1·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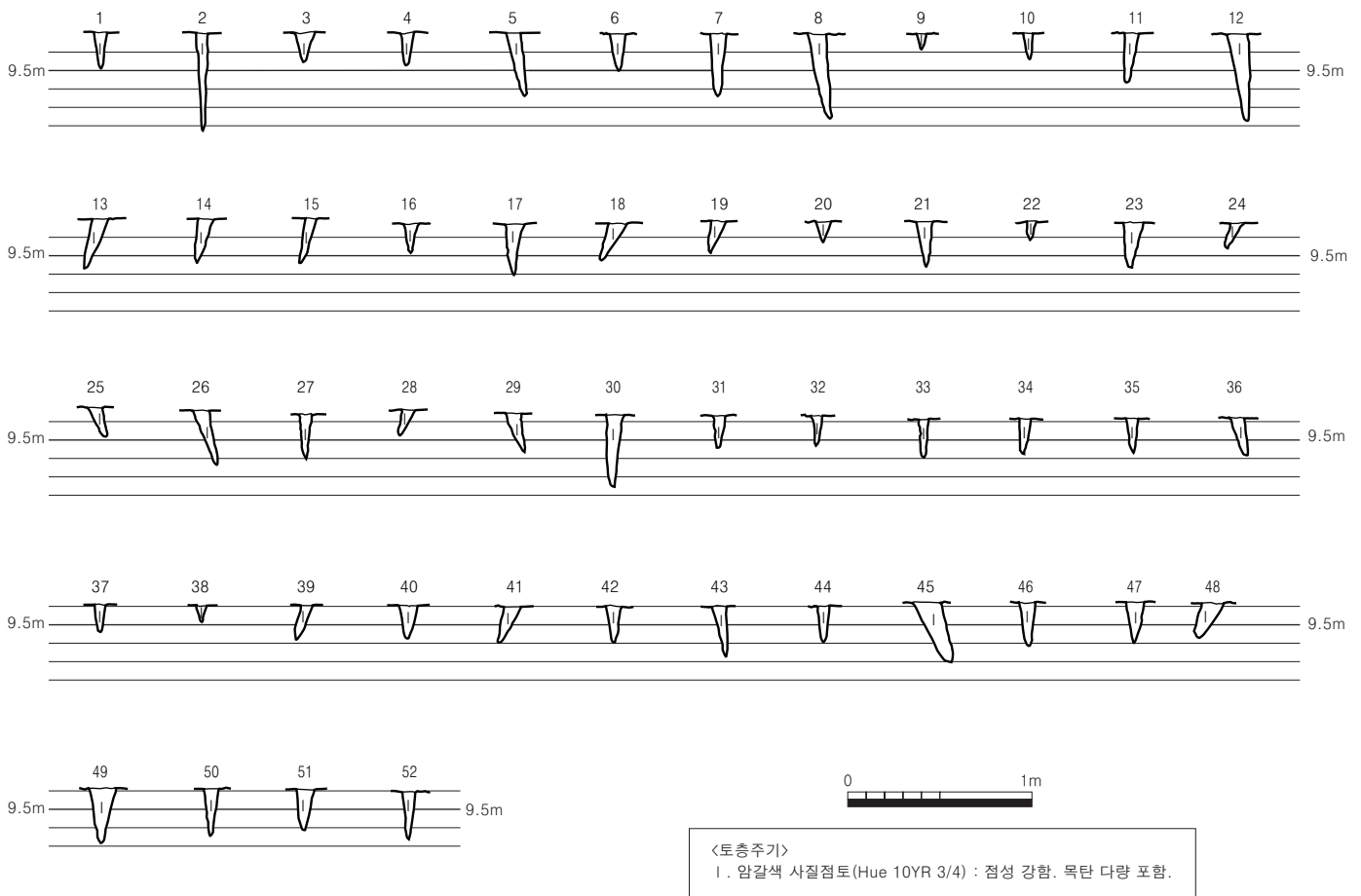
도면 9. 체성부 평·입면도(1:60)

1. 체성부

가. 유구(도면9·10, 도판4~7)

토층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 제토를 실시하였고 철거된 기존 주택지의 바닥면과 연접하여 바로 아래 지점인 해발 10.5m 정도에서 체성부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노출되었는데 후대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이 심하여 잔존 석재들이 원자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부득이 이러한 석재들을 제거하니 곳곳에 움푹 파여진 상태로 드러났고, 그 원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면석, 기단석, 퇴박석 등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체성 내부의 채움석은 1~3단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정리되었다.

체성부의 외벽부는 조사대상지역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부터 서쪽 경계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내벽부는 조사대상지에서 벗어나 보다 서쪽까지 연장된다. 조사대상지역 내 체성부의 잔존규모는 남-북 길이 약 1,440cm, 너비 약 800cm, 높이 약 57cm이며 장축방



도면 10. 체성부 하부 지정목 단면도(1:40)

향은 남-북향(N-18°-W)에 가깝다. 체성부의 외벽부인 동쪽에는 길이 30cm, 너비 25cm, 높이 5~10cm의 납작한 할석재를 박석으로 이용하여 4~6열 부석하였는데, 특히 지대석을 시설한 부분의 박석은 정치하게 부석하였다.

기단부는 박석에서 약 90cm 가량 들여서 높이 20~30cm 정도의 화강암재 대석을 놓혀쌓기하여 지대석을 이루었는데 지대석은 체성부의 길이 방향으로 줄맞춤하여 축조하였지만, 남쪽지점 일부 지대석은 길이 반대방향으로 켜기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대석 상부 체성부의 성벽은 남쪽 경계 끝부분에 1매만 잔존하는데, 지대석에서 약 20cm 들여서 축조하였다.

동남쪽 체성부 내부에는 지대석과 유사한 크기의 대석(110~140cm×70~100cm)을 이용하여 기저부를 단단하게 하는 효과를 더하였다. 그 외 나머지에서 30~50cm×20~40cm 크기의 할석으로 촘촘하게 채워 기초를 고정하였다.

비교적 잔존상태가 불량한 체성부의 북쪽 부분에 동-서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의 평면조사 결과, 직경 10cm 내외의 목재흔이 다수 조사되었는데, 박석과 외벽 기단부는 체성의 중앙부에 비해 촘촘하게 지정(地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면조사 결과, 약 50cm 깊이로 수직하게 박아 넣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경사지게 목재를 박아 지반을 다지기 위한 지정의 효과를 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성 축조 전 저습지와 인근하여 지반의 견고성이 다소 불리한 지형적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지반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이며, 조사된 김해읍성 북문, 김해읍성 객사, 김해 동상동 722-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등지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표 2】 지정목 제원표

(단위 :cm)

번호	너비	깊이	번호	너비	깊이	번호	너비	깊이	번호	너비	깊이
1	7	20	14	9	24	27	7	24	40	10	18
2	6	53	15	6	24	28	8	14	41	8	20
3	10	16	16	8	16	29	6	20	42	9	20
4	7	18	17	9	18	30	9	39	43	7	28
5	8	34	18	10	20	31	7	18	44	7	20
6	8	20	19	8	17	32	6	16	45	14	32
7	8	34	20	8	11	33	6	20	46	8	24
8	10	46	21	9	24	34	6	19	47	10	22
9	4	8	22	5	10	35	6	18	48	12	18
10	5	14	23	11	24	36	8	20	49	14	30
11	8	16	24	6	14	37	6	15	50	8	25
12	11	47	25	8	16	38	5	9	51	10	22
13	9	26	26	8	29	39	6	18	52	8	26

나. 유물

1. 반구병 구연부편(도면11-1, 도판7-1)

경질의 반구병 구연부편으로 구연 및 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소성은 양호하고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태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청색이며 속심은 암회청색을 띤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나팔형으로 벌어져 수직상으로 직립하며, 구연단 내면에서 다시 외반하는 구연을 이루면서 구순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 및 자연유가 관찰된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2.8cm, 추정구경 8.9cm

2. 반구병 경부편 (도면11-2, 도판7-2)

경질의 반구병편으로 구연부가 결실된 경부 일부만 잔존한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갈색, 속심은 자색+갈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소성상태는 보통으로 외면 일부에 암녹색 자연유가 유착되어 있다. 내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경부에 2조의 침선을 시문하였고 상단에는 능형상의 인화문이 일렬로 시문되어 있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3.9cm, 추정경부경 8.8cm

3. 고배 대각부편(도면11-3, 도판7-3)

경질의 고배로 추정되며, 색조는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색을 띤다. 소성은 양호하고 태토는 정선되었는데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대각은 단각을 이루며 중위에 1조의 돌대로 구획되었으며 각부 상단부에는 3조의 방형 투창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각단부는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고, 배신 내면과 각단 접지면에는 이기재흔이 남아있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4.1cm, 저경 7.6cm

4. 청자 구연부편(도면11-4, 도판7-4)

청자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단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회청색의 정선된 태토이나 불순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담청색의 유액을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용융상태와 시유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측사면은 사선방향으로 벌어져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한다.

외면은 2조의 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구연부 아래에 3조의 선문과 1조의 선문이 관찰된다. 내면 중위에 초문(草文)을 장식하였는데, 초문 앞사귀 내부는 흑상감 장식하였고 외연을 2조로 선문으로 구획하였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5.4cm, 복원구경 14.9cm

5. 청자 저부편(도면11-5, 도판8-5)

청자 저부편으로 동체 하단과 저부가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담녹색을 띤고 내·외면에 빙렬이 뚜렷하다. 내저면과 측사면이 편평하게 가다가 한번 꺾여 사선으로 경사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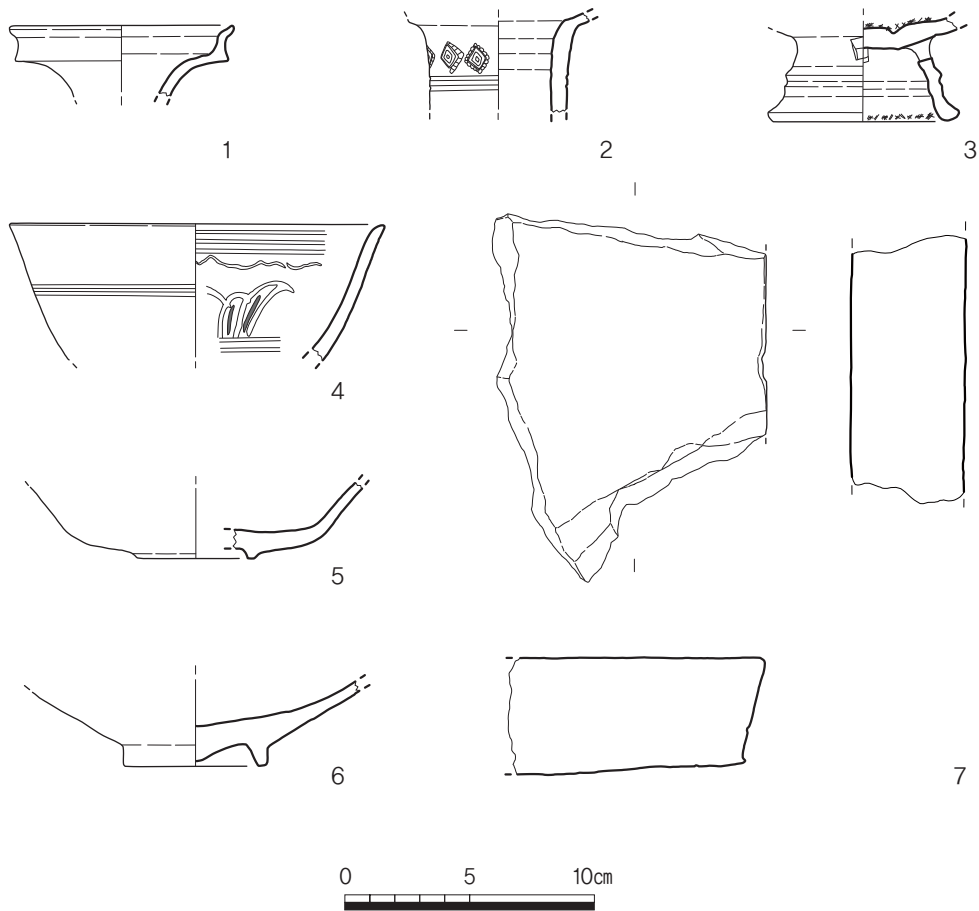
서 동체를 이루고 있다. 굽은 낮게 깎았으며, 굽안바닥에도 시유하였다. 굽접지면에 사질내화토비집흔이 관찰된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3cm, 복원저경 4.7cm

6. 백자 저부편(도면11-6, 도판8-6)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측사면은 저부에서 완만하고 넓은 사면상을 이루면서 동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백색의 태토에 치밀질로 잡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유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망상의 균열이 보인다. 굽은 단면이 제형의 수직굽으로 접지면의 폭이 0.4~0.7cm로 일정하지 않으며, 굽안바닥은 중앙부가 솟아있다. 태토비집을 내지면과 굽안바닥에 4개씩 반채 포개구이하였는데 굽 부분의 경우 접지부만 깨끗하게 마무리하였다. 체성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3.4cm, 굽저경 5.7cm



도면 11. 체성부 출토유물(1~7)

7. 전돌(도면11-7, 도판8-7)

전(塼)의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사립이 미량 혼입된 암회색 점토이다. 측면을 사선으로 분할하였으며 바닥면을 제외한 부분에 물손질로 조정하여 정연하게 만들었다. 체성부 동편 퇴박석에서 출토되었다.

잔존 너비 10.6cm, 잔존 길이 14.6cm, 두께 4.2~4.6cm

2. 해자

가. 유구(도면12, 도판9)

입회조사시 트렌치 내에서 6단 가량의 석축시설이 조사되었다. 입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제토를 실시한 결과, 체성 외벽 기단부에서 동쪽으로 약 900~950cm(포백척 20~21尺) 정도 이격되어 해발 9.7m 지점에서 해자의 호안석축이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조사대상지역의 동쪽 경계에서 남-북향으로 설치된 1열의 석열이 노출되었는데 해자 호안석축과 약 50~60cm 정도 높이차를 보이므로 해자가 폐기된 상당기간 이후에 별도로 축조된 석축열로 추정되어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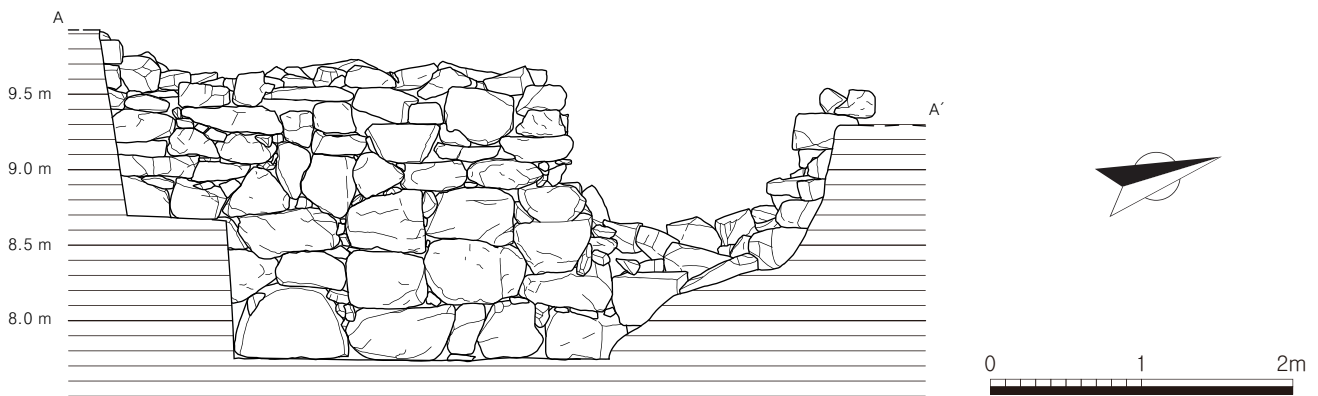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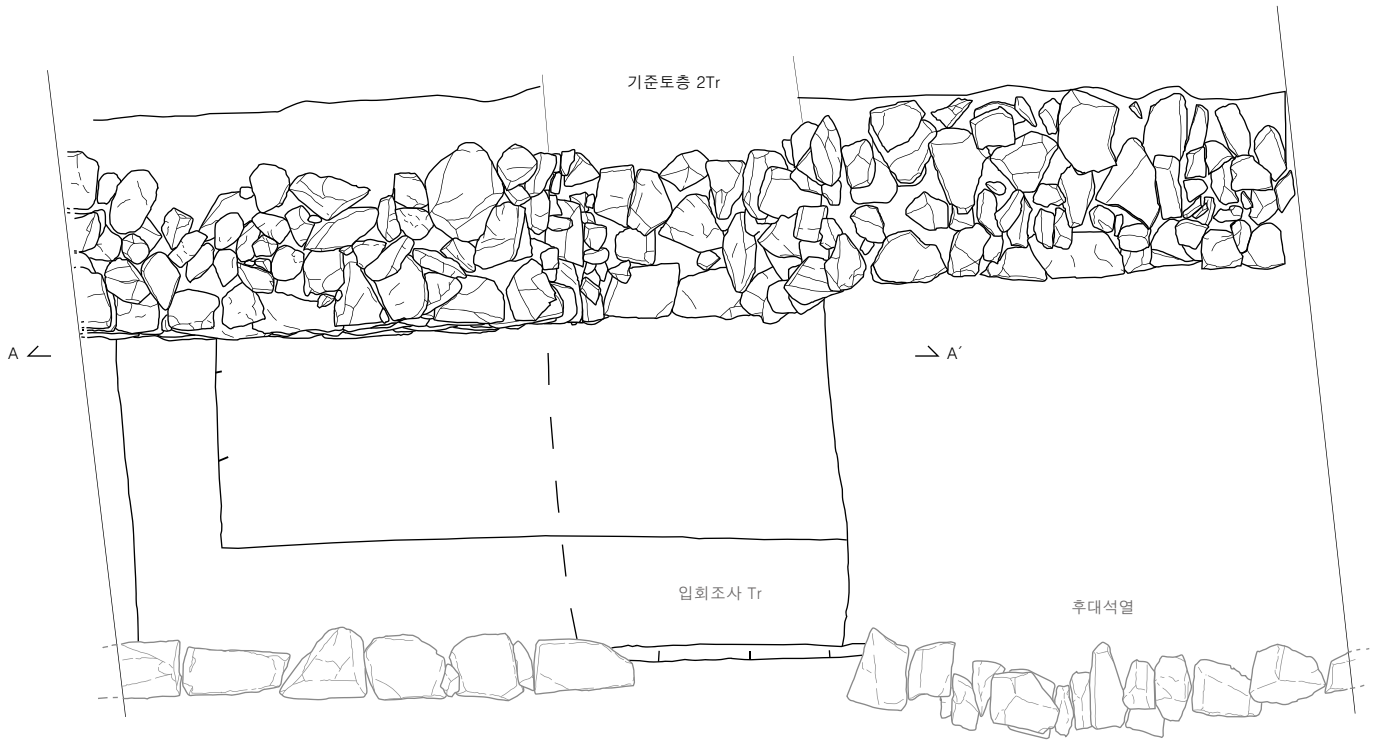
호안석축 외곽 상단부의 석열은 입회조사 트렌치를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잔존상태가 양호한데, 동쪽을 면석으로 줄 맞추어졌고 남쪽부분은 1단, 북쪽부분은 1~2단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정확한 축조시기 및 용도는 알 수 없다.

해자 호안석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성부와 평행하는 남-북향으로 축조되어 조사대상지역의 동·남·북쪽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자에 대한 내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이 주택가이고 도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조사지역 경계 붕괴의 위험으로 전면조사가 불가하여 입회조사 트렌치 기준 남쪽 일부만 조사하는 한계가 있었다.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내 잔존하는 해자의 규모는 길이 약 800cm, 너비 약 270cm, 깊이 약 200cm이며 장축방향은 체성부와 동일하다. 호안석축은 길이 약 14~66cm, 너비 약 18~76cm, 높이 약 10~50cm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수평줄을 맞추지 않고 허튼층쌓기하였는데, 잔존하는 석축의 높이는 7~8단, 약 200cm 정도이지만, 남쪽 경계 벽면에서 관찰되는 석재를 통해 축조 당시의 높이는 최소한 현재 잔존하는 것보다는 2~3단 정도 더 높이 쌓아 약 250cm 정도로 체성부 외벽면 기단부와 비슷한 수평고도를 유지하고 있어 평상시 해자의 수면이 체성부 기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를 감안하여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자 내부 바닥면에서는 목익 등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고 ‘金海’명 분청사기편 1점이 내부노출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그 외에도 호안석축 부근에서 ‘菓’자가 상감된 것과 ‘定’자가 목서로 명문된 인화분청사기편이 수습되었고, 남벽 기준토층 유물포함층에서 청자 촛대편 1점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도면 12. 해자 호안석축 평·입면도(1:50)

나. 유물

8. 청자촛대(도면13-8, 도판9-8)

청자촛대로 기둥과 넓은 원형의 반과,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굽과 원형의 반은 접합하였으며 내면과 외면에 일부 빙렬이 보인다. 태토는 적갈색으로 소량의 잡물이 섞여 있다. 반투명의 유약으로 푸른 빛을 띤다. 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굽은 죽절굽이다. 남벽 기준토층의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5.2cm, 복원저경 5.5cm, 복원반경 9.5cm

9. 분청사기 저부편(도면13-9, 도판10-9)

분청사기 저부편으로 동체부와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이 미량 함유된 태토이며, 외면의 유약은 용융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녹회색을 띤다. 내저면 바닥은 불룩하고 완만하게 솟았으며 가운데 부분에 굽 지름보다 좁은 내저원각이 있다. 내저원각부터 동체부로 올라갈수록 완만한 사선을 그리고 있으며 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에 사질내화토비짐이 3개 관찰된다. 죽절굽으로 접지면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으며 유약을 닦아 내었다. 해자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4.2cm, 저경 5.3cm

10. 백자 저부편(도면13-10, 도판10-10)

동체부 극히 일부와 저부만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문양은 없다. 측사면은 수평으로 짧게 벌어지다가 급격한 사선으로 올라가는 기형으로 종지와 같은 기종인 듯하다. 태토는 회백색의 치밀질로 잡물이 미량 포함되어 있으며, 유약은 회백색 투명유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내저면에 모래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고 굽은 평굽으로 사질내화토비짐흔이 5개가 관찰된다. 해자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2.15cm, 저경 3.5cm

11. 분청사기인화 '金海'명 접시편(도면14-11, 도판10-11)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며 기형은 접시로 보여진다. 측사면의 경우 완만한 사선을 그리고 있으며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미량의 잡물이 함유되었으며, 유약은 맑은 회색이다. 내저면 중앙에서부터 원문을 두르고 안쪽에 '金海'명을 백토 상감하였다. 그 외곽으로 연주문이 촘촘히 인화장식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소국화문과 호접문순으로 인화하였고 원문으로 구획한뒤 바깥쪽에 소국화문이 다시 관찰된다. 외면은 원문과 중권문으로 단을 나누어 주변으로 연주문을 돌렸으며 연주문 사이에 명문이 4개정도 새겨져 있지만 정확하게 판독되지는 않는다. 직립굽의 외면에는 중권문이 돌아가고 굽접지면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 접지면에는 모래받침흔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해자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3.4cm, 저경 6.2cm

12. 분청사기 '菓'字명 저부편(도면14-12, 도판10-12)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황적갈색으로 잡물이 소량 혼입된 치밀질의 점토이다.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고 중앙에서부터 '菓'字가 새겨져 있으며, 주변으로 원문 그리고 직선문을 빼곡하게 배치하고 다시 원문으로 구획을 하고 다시 그 외곽 공간에 직선문을 시문하였다. 측사면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고 있으며 저부에서부터 1개조의 침선, 주변으로 내면과 같은 방식으로 배치한 뒤 백토분장을 하고 귀얄로 마무리하였다. 굽은 오목굽으로 접지면의 너비가 일정한 편이고 접지면에 내화토비집이 5군데 정도 관찰된다. 호안석축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2.1cm, 저경 4.9cm

13. 분청사기인화문 대접편(도면14-13, 도판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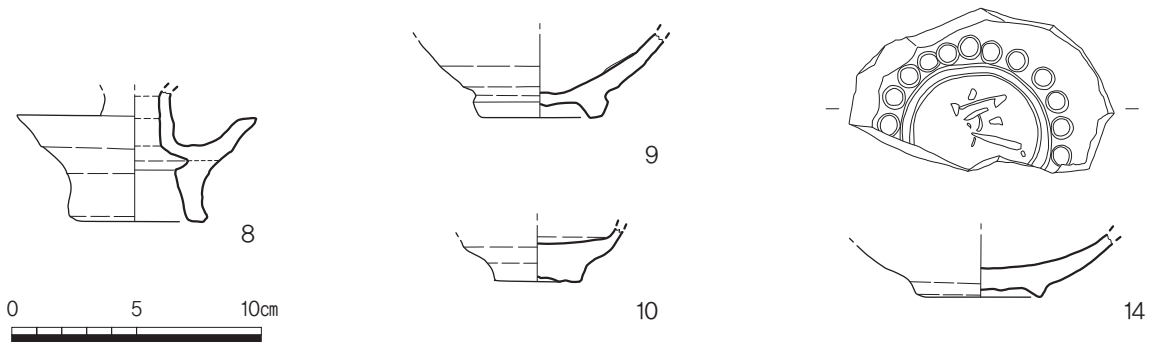
저부 극히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태토는 회청색의 치밀질이며, 유약은 명회청색에 투명하다. 측사면은 저부에서 불룩있는 곡선을 이루며 올라간다. 내저면에 내저원각이 관찰되며 내저원각을 기준으로 꺾여 올라간다. 문양은 내부는 내저면 중앙에서부터 연주문과 선문이 반복되며 선문으로 단을 나누었다. 연주문 바깥으로 소국화문이 관찰된다. 외면 하단에서부터 연화문, 연주문, 선문, 연주문 순으로 시문되어 있다. 굽접지면의 너비는 일정한 편이며 수직굽이다. 해자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잔고 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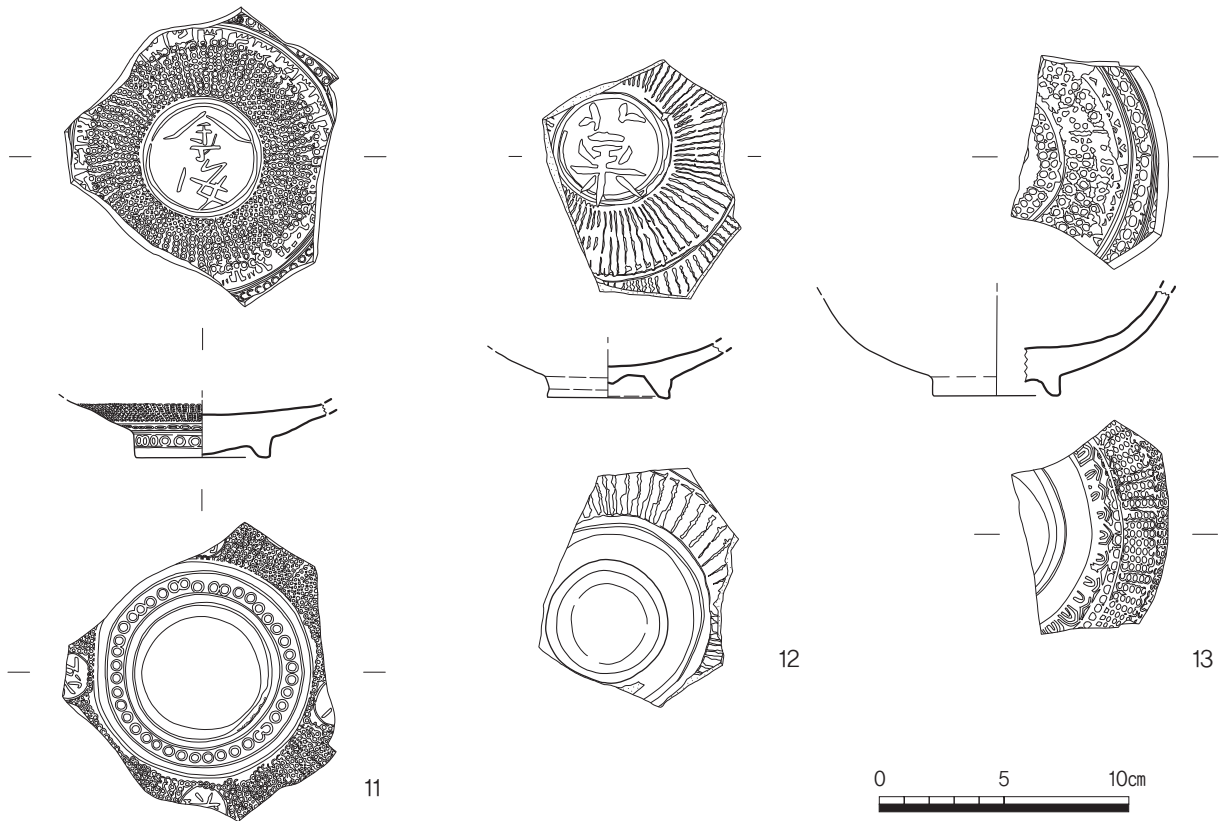
14. 분청사기 '定'字명 저부편(도면13-14, 도판10-14)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전체 기형을 알 수 없다. 측사면은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태토는 회백색에 부분적으로 갈색을 띄며 치밀질로 잡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유약은 유백색의 투명유를 얇게 시유하였다. 문양의 경우 내저면에 중앙에서부터 '定'字를 묵서하고 2개의 원문을 두른 후 그 주변으로 지름이 약 1cm 정도의 소형 원문이 12개 정도 관찰된다. 굽은 낮게 깎았으며 굽안바닥은 누른 흔적이 있으며 회전물손질하였다.

잔고 2.5cm, 저경 5.0cm



도면 13. 해자 출토유물(8~10,14)



도면 14. 해자 출토유물(11~13)

3. 상부수습 유물

15. 분청사기 저부편(도면15-15, 도판11-15)

구연부와 동체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측사면은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내저면은 살짝 오목하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일부 적갈색인 부분도 있다. 잡물과 세사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투명한 유약과 흰색 불투명유가 함께 시유되어 있다. 굽은 오목굽이며 굽점지면의 너비는 0.3~0.6cm로 일정하지 않다. 굽점지면과 내저면에 사질내화토비짐이 관찰되며 내저면은 4개이고 내저면에 포개구이한 흔적이 보인다. 굽안바닥에 회전흔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표수습되었다.

잔고 4.0cm, 저경 6.4cm

16. 암키와편(도면15-16, 도판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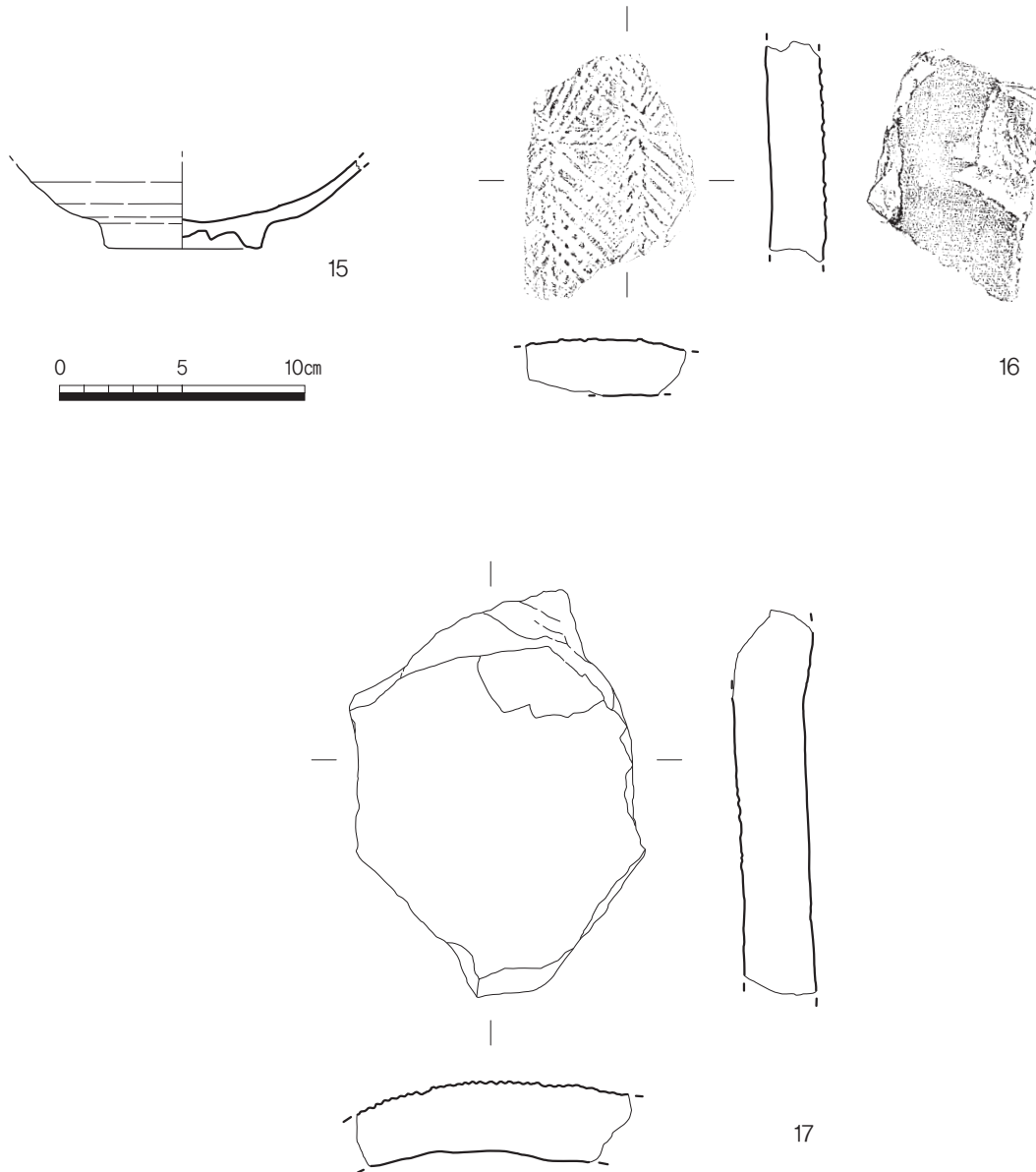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에는 0.1cm 굽기의 어골문계통의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잔장 11.0cm, 잔폭 6.2cm, 두께 1.9~2.1cm

17. 암키와편(도면15-17, 도판11-17)

회황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외면에는 0.1cm 굵기의 종사선집선문과 종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관찰된다.

잔장 16.5cm 잔폭 11.2cm 두께 2.3~2.9cm



도면 15. 상부수습 유물(15~17)

IV. 조사성과

1. 문헌적 검토

김해읍성의 분포범위는 지금의 김해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 동상동, 서상동, 봉황동 일부, 부원동 일부가 포함된 해발 4~20m 선상의 평탄한 대지에 축조된 평지성(平地城)이며 북고남저(北高南低)의 말각방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둘레는 문헌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000척, 4,418척, 4,683척 등으로 체성벽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기록 당시 어떠한 척(尺)을 기준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현재, 지적도를 통해 읍성의 위치를 추적하고 최근 부분적으로 (시)발굴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측하여 보면 대략 2,000m 정도의 규모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재환산해 보면 김해읍성 축조 당시에 사용한 척은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⁴²⁾ 하지만, 이것 역시 초측과 수개측으로 인한 규모의 세부적인 변동이 있는 상태이므로 추후 추가적인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한편, 해자의 규모는 『문종실록』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체성부의 길이와 불과 265척 밖에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볼 때, 문종대까지의 해자는 체성부 전체를 두른 것이 아닌 방어상 취약한 부분에만 설치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보고되고 있는 해자가 읍성의 초측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수개측 시에 필요에 의해 부가적으로 축조된 것인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자는 체성벽 외곽에 축조되어 있으므로 그 둘레의 규모는 체성에 비하여 훨씬 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체성부와 해자의 초측과 수개측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규모의 축소 및 확대가 있었을 것이므로 정확한 환산에 대하여는 일단 유보해 두고자 한다. 또한, 지형과 위치에 따라 체성부와와의 이격거리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너비와 깊이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직 이러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고학적인 조사의 축적을 기다리고자 한다.

그리고 성곽의 체성부 시설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읍성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함의(含意)하는 각종 내부시설물에 있다. 아쉽게도 읍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오래전부터 형성된 중심밀집주거지역으로 인해 읍성 내에 있던 각종 관아건축물과 그 외 부속시설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김해시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행히 김해시의 하수관 정비사업 과정에서 동상동시장 내에 객사지의 지하구조가 어느정도 잔존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그 규모가 지방 관아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웅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일부 조사되어 당시 김해부(金海府)의 위상을 추정하게 해주었다.⁴³⁾ 뿐만 아니라, 각종 문헌이나 고지도에서 표기되지 않은 다수의 건물지도 함께 그 흔적의 일부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조사 결과와 함께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하매장문화재의 인식 제고를

42) 조선 전기에 사용한 포백척은 1尺이 46.66cm 정도이다. (이종봉, 2001, 『한국중세도량형제연구』, 혜안, p.110)

4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김해읍성, 객사지』.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현재 표고상으로 볼 때, 객사의 서쪽지점에 있었던 주관청 시설인 아사(衙舍)와 관련된 여러 건물지가 지금의 서상동 일대의 지하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 김해읍성 관련 문헌기록 내용

출전 (연도)	규모		성문	옹성	치	여장		해자 (尺)	우물	연지	비고
	둘레 (尺)	높이 (尺)				높이 (尺)	수량				
世宗實錄 (1434)	
文宗實錄 (1451)	4,418	13	4	4	20	2	931	4,683	28	.	
慶尙道續撰地理誌 (1469)	4,683	15							28		군창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4,683	15	
東國輿地志 (1656)	4,683								28		
輿地圖書 (1757~1765)	4,683	15	.	4	.	.	333	.	.	2	
慶尙道邑誌 (1832)	4,000	11	.	4	.	.	333	.	.	.	
輿圖備誌 (1853~1856)	4,683	15	.	4	.	.	333	.	.	.	
大東地志 (1864)	4,683	.	.	4	1	
嶺南邑誌 (1895)	4,000	11	.	4	.	.	333	.	.	.	
慶尙南道輿誌集成 (1899)	4,000	11	.	4	.	.	333	.	.	.	
增補文獻備考 (1903~1908)	4,683	15	.	4	.	.	333	.	28	2	

【표 3】에 의하면, 세종 16년인 1434년 8월 병조에서 상계하여 김해읍성을 시축(始築)하고 문종 원년인 1451년 9월에 마침내 김해읍성을 완성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그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무려 17년간에 걸쳐 김해읍성을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읍성들의 축성기간에 비해 두 세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러한 김해읍성의 축조는 조선왕조에 들어서면서 연해읍성의 축조와 왜구를 대비한 방어체계에 대한 이전 시기와의 정책적 변화와 세종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⁴⁴⁾

그런데 세종조 이전 조선왕조의 태조와 태종은 새로운 왕조가 수립되었으나 국력이 아직 새로운 축성을 시도할 만큼 되지 못한 이유로 기존의 산성을 정비하여 적군을 대비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하였다.⁴⁵⁾ 심지어는 평지성(平地城)과 산성(山城) 중에 어느 것을 축성하는지에 대한 효율성을 논하다가 결국 산성이 뛰어난 정책이라는 의견이 모아짐을 알 수 있다.⁴⁶⁾ 하지만, 이러한 대비책은 왜구를 연안에서 방어하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내륙까지 침입해서야 비로소 대비되는 소극적인 방어책임을 세종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였고 이에 세종 元年 7월 유정현(柳廷顯)이 상소하여 해변의 각 마을 부근 각 戶를 30~40호 또는 20~30호를 한 屯으로 삼아서

44) 심정보, 1995,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45) 『태조실록』 권5, 3년 1월 戊辰條 :

곡산부사(谷山府使) 전이(田易)가 도평의사사에게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가만히 듣건대, 군사를 훈련시키고 곡식을 저장하여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비(對備)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나 군사가 험준한 곳을 거주하지 않는다면 나의 형체(形體)를 숨기지 않음과 같으며 만약, 곡식을 밖에 쌓아 둔다는 것은 도적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양식을 견고한 성(城)에 쌓아 두어서 진(鎭)을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중략) 국가에서 제도와 법률을 새로이 만들어서, 섬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 구비하여야 하며, 군사를 양성하여 적군에 대비(對備)하는 방법까지 더욱 상세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군사를 주둔시키는 진(鎭)의 땅은 대체로 모두 그전대로 그냥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매한 제가 부족하고 얇은 견문(見聞)으로 수다스럽게 전하의 귀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중략) 그 군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에 군사 수만명을 뽑아서 산성 아래에 감추어 두고, 그 곡식을 먹고 기회를 살피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 우리 강토에 함부로 침입하는 자가 있으면, 양암(陽巖)·수덕(樹德)에서 길을 취(取)하여 옛날의 맹주(孟州)·덕주(德州)를 경유하여 군사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급히 달려 생각지도 않을 때에 나아가서 그 배후를 급습하거나 곡식의 길을 끊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병사를 부리는 하나의 묘수입니다. 또는 험한 곳에 양식을 먹으면서 거하면서 군대의 위력을 과시(誇示) 함으로 평양(平壤)과 화령(和寧)을 돕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 주상에게 전해 아뢰니, 주상이 이를 가상(嘉尚)하게 여겨 시행하도록 명하였다.(谷山府使田易上書于都評議使司曰 “竊聞鍊兵積穀 以備不虞 守國之常典也 然而兵非據險 不可以藏我之形 穀若露積 適足爲寇之資 必也積糧於堅城 置鎭於要害 然後以逸待勞 以飽待飢 而能制敵之命也…(中略)…國家創制立法 纖悉備具 至於養兵備敵之方 講之尤詳 而貯糧之所 鎭戍之地 大率皆仍其舊 此愚所以將寡聞淺見 喋喋然以塵清聽也…(中略)…當其用兵 選精兵數萬 藏於山城之下 仰食其穀 以待事機 若有闖入我疆者 則取路陽巖·樹德 經由古孟州·德州 銜枚疾趨 出其不意 或擊其背 或絕糧道 此用兵之一奇也 其或據險食粟 以耀兵威 爲平壤和寧之聲援 亦可也” 使司轉聞于上 上嘉之 命許施行.)

『태조실록』 권7, 4년 5월 癸巳朔 :

헌사(憲司)에서 주상께 아뢰기를 “장수를 선별하고, 무기와 장비를 수리하고, 성보를 완비하고 자재와 식량을 비축하고, 상벌을 명확하게 하고, 부역을 관용있게 하는 등 6가지의 조목을 청합니다.” 이에 도평의사사에게 의논하고 시행토록 명하였다.(憲司上言 選將帥 修器械 完城堡 畜資糧 明賞罰 寬征賦 凡六條 命都評議使司 擬議施行.)

그 외, 『태종실록』 권13, 7년 5월, 甲戌條, 『태종실록』 권18, 9년 12월 壬子條, 『태종실록』 권19, 10년 2월 丙寅條,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戊戌條, 『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戊午條, 『태종실록』 권26, 13년 9월 辛卯條 등의 기사 내용에서 이러한 정책을 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6) 『태종실록』 권28, 14년 11월 戊申條 :

이조 좌참의 허조를 평안도에 보내어 산성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주상이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륜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수성하는데에는 능숙하지 못하여 만약 완급이 있을 경우 다만 평지성에 들어가게 되면 화포와 화약으로 쉽게 공격당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산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성보를 축조한 것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라고 하였다. “짐이 백성의 힘 쓰임이 중한 것을 알고 이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였다.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여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다. 하지만, 쓸모없는 곳에 성을 축조한다면, 백성들의 힘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과 같으니 자네가 정밀하게 살펴서 오라.”(遣吏曹左參議許稠于平安道 審察山城 上命之曰 “河崙嘗言 本國之人不能守城 如有緩急 苟入平地之城 則火燭火藥 易以攻破 不若因山之險築城堡. 予重用民 不即從之 反復深思 此誠保國之長策 然築城於無用之處 則謾勞民力而已 爾其精察以來.)

그 중앙지점의 적당한 곳을 둔성(屯城)을 축조하고자 건의하였다.⁴⁷⁾ 비록, 이 상소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세종의 의지는 분명하여 2년 후인 세종 3년 10월 공조(工曹)의 상계를 수용하여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어 완급의 상황을 파악하여 축성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다.⁴⁸⁾ 그리고 세종 11년 1월 왜구의 빈번한 침략에 대비한 허조(許稠)의 상소를 받아들여 다음 달인 2월 4일 병조판서 최윤덕(崔潤德)을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삼아 축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하였고 최윤덕은 2월 10일 「각관성자조축조건(各官城子造築條件)」이라는 6가지 건의사항을 담은 내용을 올리게 된다.⁴⁹⁾ 그리고, 이러

47) 『세종실록』 권4, 元年 7월 辛未條 :

요즈음 왜구의 침범이 잠잠하여 평화롭게 지낸 날이 오래되므로, 연해지방에 백성이 거주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밭과 들이 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왜적이 갑작스럽게 침범해 와서 노략질하고 살상하는 재난이 있을 것이 몹시 두렵습니다. 바라옵기는, 해변에 있는 각 마을에서는 부근의 각호(各戶)끼리 30~40호나 20~30호로 한 둔(屯)을 삼고, 중앙에 마땅한 지점을 골라 하나의 둔성(屯城)을 쌓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명하시기를, 각각 그 마을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 성의 담을 높이고, 그 문을 든든히 빗장을 걸게 하십시오. 지혜와 모략이 있고 힘이 썩며 변을 당하여도 굳게 지키기 만한 자를 택하여 둔장(屯長)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또한 명하시기를, 각기 군대의 장비를 갖추게 하고, 무사하면 성밖에 나가 밭갈고 농사짓고, 왜구가 당도하면, 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다면, 노략과 살상의 화를 면할 뿐아니라, 왜구가 깊이 들어 오지 못하고, 때를 잃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략). (比因倭寇寢息 昇平日久 沿海之濱 民居稠密 田野墾闢 今倭賊突至 則擄掠殺傷之禍 深可畏也 乞於海邊各里 以附近各戶 或三四十戶或二三十戶爲一屯 於中央擇地之宜 築一屯城 令各容其里之衆 高其城堵 固其門鍵 擇有智謀強力 可以應變固守者 定爲屯長 令各備軍糧 無事則出城耕耘 寇至則清野入城 閉門固守 如此則非徒免於虜掠殺傷之禍 寇不得深入 農不至失時..(下略)).

48) 『세종실록』 권13, 3년 10월 己亥條 :

공조에서 계를 올리기를 “최근에 전라도 관찰사가 장흥성(長興城)을 수령현(遂令縣)으로 옮겨 쌓기를 청하니, 조정의 중앙관리를 보내어 다시 살펴보기를 명하소서. 비록 전라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도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고쳐 쌓자고 청하고, 어떤 데는 옮겨 쌓고자 청하는 등, 통보가 들어온 것이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모두 관찰사(觀察使)와 절제사와 같은 조정의 중앙관리를 보내시어 그 완급을 살펴서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工曹啓 “近者 全羅道觀察使 請移長興城於遂令縣 命遣朝官更審之 非惟全羅道 諸道或請改築或請移築 通報者非一 請皆遣朝官與觀察使節制使 審其緩急以聞” 從之.)

49) 『세종실록』 권43, 11년 2월 丙戌條 :

병조판서 최윤덕이 각관성자조축조건의 계를 올리기를

- 하삼도(下三道)의 각 관할의 성들 중에서 방어상 가장 긴박한 연안의 군현(郡縣)은 곧바로 산성을 제거하고, 모두 읍성을 축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성이 가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성을 수축하여야 합니다.
- 각 관청에서는 성을 축조할 때에는 각각의 부근에 있는 내륙의 주현(州縣) 3~4개의 읍이나 5~6개의 읍으로 그 수량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여서 축조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백성의 수가 적을 경우나 성을 축조하기에는 불가능한 각 관청에서는 근처에 있는 관할 성에 이주하여 함께 있게 합니다.
- (만약) 각 관청에 사용이 가능한 옛성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축하고, 사용할 옛성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새로운 마땅한 장소를 택하여 축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 각 관청에 튼튼하지 못한 성이 있다면 각 (고을의) 백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며 그 사정에 따라 개축하여야 합니다.
- 각 관청의 성을 동시에 축조하여 마칠 수 없으니 성의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축조)공정기간을 산출하여 견실하게 축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여 이상의 내용을 공조(工曹)에게 명하였다. (兵曹判書崔潤德 將各官城子造築條件以啓 “一. 下三道各官 城子內防禦最緊沿邊郡縣 則除山城 皆築邑城 其無可用邑城者 仍修山城. 一, 各官築城時 各以附近陸地州縣, 或 三四邑或五六邑, 量宜并定, 次次造築. 一, 民戶數小 又無可築城子各官 則於隣官城子 推移并入. 一, 各官有可用 舊城, 則仍修之 無可用舊城 則擇近處新築之. 一, 各官有不實城子 則各以戶數多少 或退或縮 隨宜改築. 一 各官城子不可一時畢築 各以城子大小 量宜限年 堅實造築” 命下工曹.)

한 건의는 세종이 평소 구상하고 있던 연안지역 방어전략과 맞아 떨어져서 왜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책으로서 하삼도(下三道)의 연안지역에 각 읍성의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세종은 연안읍성의 축성계획을 수립하고 16년 8월 1일 김해읍성의 축조 건의를 받아들여 드디어 시축하기에 이른다.⁵⁰⁾ 마침내, 세종 20년 『축성신도(築城新圖)』를 반포하고 각 연안읍성을 비롯한 내륙읍성 축조의 일정한 규칙과 방식을 담은 지침서를 내려 보내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에 축조되는 읍성은 기본적으로 그 축조수법과 양식이 통일성을 기하여 연안읍성과 각 읍성을 견고하게 축조할 수 있었다. 세종 29년 9월에는 이렇게 축조된 연변의 80여개 군현의 읍성들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진(鎭)으로 선정하고⁵¹⁾ 나머지를 다시 ‘상긴(上緊), 중긴(中緊), 하긴(下緊)’으로 구분하였고 연안읍성의 군사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수령의 파견과 방어전략을 공고히 하였다.⁵²⁾ 특히, 상긴(上緊)에 해당 하는 군현에는 무재(武才)가 있는 관료를 파견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세종은 얼마나 연안의 방어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제하에서의 김해는 중긴(中緊)으로 분류되긴 하였지만 읍성의 축조에서는 여장(女牆)과 치(雉)와 같은 방어시설이 다른 읍성에 비하여 많이 시설되어 있고 규모도 장대하여 당시 다른 읍성에 비해서 그 중요도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의지로 인하여 연안지역의 읍성이 축조되었고 이 가운데 김해읍성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 축조기간도 17년이라는 상당히 오랜기간 축조되었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표1】에서 제시된 문헌 가운데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의 내용에 의하면, 읍성은 갑인년(甲寅年)에 축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 갑인년은 고려 우왕 1년(1374) 박위(朴葦)가 분성(盆城)을 축조하였다는 해와 세종 16년(1434년)이 동일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갑인년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김해읍성이 세종 16년 8월에 시축한 해인 당해

50) 『세종실록』 권65, 16년 8월 1일 乙巳條 :

병조에서 계를 올리기를 “금년에 충청·전라·경상 3도에 각각의 새해가 시작할 무렵 성을 축조하여 그해의 연말에는 성보를 다 쌓게 하소서. 남해에 쌓는 성은 일찍이 해군을 노역하여 쌓게 하였으나 극심한 추위와 장마와 더위와 방어하기에 가장 긴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쌓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다의 관문이며 요충지인 김해 읍성도 역시 금년에 시작하여 쌓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今年請畢築忠淸全羅慶尙三道各年始築未畢城堡 其南海築城 曾以船軍役之 除極寒靈熱防禦最緊時外 連續造築 且海門要衝金海邑城亦於今年始築” 從之.)

51)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진은 신라말 태종무열왕 5년(658년) 북진(北鎭)을 실직(悉直, 지금의 삼척)에 설치하여 북방의 말갈(靺鞨)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사를 주둔한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 선덕왕 3년(782년) 황해도 평산(平山)에 패강진(溟江鎭)을, 흥덕왕 3년(828년) 청해진(淸海鎭)을 완도(莞島)에 세우고, 그 이듬해에 당성진(塘城鎭)을 경기도 화성군 남양에 설치하고 문성왕 6년(846년)에는 혈구진(穴口鎭)을 강화도에 설치하였다. 이 시기의 진은 지방 토착 세력이 세운 일종의 둔전병(屯田兵)체제의 방어전략지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북쪽의 양계(兩界 : 북계와 동계)와 강동6주 등에 설치된 군사시설로 이곳에 성을 건축하고 중앙에서 군사적 수장인 진장(鎭長)으로 7품(鎭將)과 5품(防禦鎭使)의 관리가 파견되었고 방어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진(鎭)은 훈련된 군사가 상시 주둔하고 있는 변방, 연안의 방어거지로 운영되던 곳으로 중앙에서 무관(武官)의 관료가 파견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편성되어 상하관계를 가진 진관체제(鎭管體制)를 유지하고서 도(道)와의 행정구역과의 혼돈을 피하도록 하는 군사거점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2) 『세종실록』 권117, 29년 9월 癸巳條.

연도내인 갑인년의 1년 만에 완성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갑인년은 당연히 고려시대 우왕대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김해읍성은 고려시대에 쌓은 읍성의 기본 위에 석축 읍성을 축조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성립 가능하게 된다.⁵³⁾ 하지만, 다음 단락에서 살펴볼 지금까지의 김해읍성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체성부의 흔적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김해읍성 외곽에 축조되어 있는 소위 ‘김해고읍성’의 체성부 조사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친 체성부의 수개축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⁵⁴⁾ 따라서, 『경상도속찬지리지』와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등에 기록된 고려시대에 축조된 읍성의 초축 문제에 대한 문헌 내용과 고고학적인 조사성과와의 비교검토에는 그 과제를 남기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⁵⁵⁾

53) 『東國輿地志』(1656년)의 기록에 의하면 :

(김해도호부)의 부성(府城)이 석축으로 둘레가 4,683척인데 문이 있다. 성 내부에는 샘이 28개가 있고 하천이 1개가 있는데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다. 고려말 박위가 증축한 것이라고 정몽주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東國輿地志』 丁冊 券之四下 慶尙道 金海都護府 [城郭] 府城 石築周四千六百八十尺有門城內有泉二十八 川一四時不渴 高麗末府使朴葦增築 鄭夢周有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大東地志』(1864년)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성지] 읍성 고려(왕 신우(우왕)때 본 고을의 부사 박위가 축조하였다. 둘레는 4,683척이고 웅성이 4개, 샘이 28개, 시내가 1개, 못이 1개 있다. 분산성 둘레가 1,560척이며 우물이 2개 있다. 분성 토축이다. 8,683척이다.(『大東地志』 冊五 慶尙道下 券十 金海 : [城池] 邑城 辛禱時本府使朴葦築 周四千六百八十三尺 甕城四泉二十八 溪一 池一. 盆山城 周一千五百六十尺 井二. 盆城 土築 周八千六百八十三尺.)

54) ‘김해고읍성’지역에 대한 각종 고고학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김해 대성동고분군 주변지역시굴조사』.
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3, 『김해 봉황동 409-7번지 유적』.
3. (재)동서문물연구원, 2008, 『김해 봉황동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4.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김해고읍성』.
5. (재)동서문물연구원, 2010, 『김해 봉황동 주택신축부지 내 220-16번지 유적』.
6.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김해 봉황동 217-7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7.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김해 봉황동 22번지 주위 배관공사구간 내 시굴조사 약보고』.
8.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13, 『김해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내 김해 대성동유적』.
9. (재)두류문화연구원, 2013, 『김해 대성동 195번지 공동주택 신축예정지 내 유적』.

55) 『海東地圖』와 『輿地圖』, 『地乘』, 『金海府內地圖』등의 고지도에 의하면, 읍성의 외곽에 토성이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海東地圖』에는 이를 ‘수로왕대에 축조된 토성(首露王時所築土城)’으로 표기되어 있다. 문헌과 고지도를 종합해 보면, 최소한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김해에는 산상에는 분산성이 축조되어 있고, 평지에는 토성이 축조되고 그 내부에 석축성을 축조하여 읍성으로 사용되어 왔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분산성과 김해고읍성의 초축시기가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김해읍성은 그 외곽에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에까지 존속되었던 토성이 일종의 외성(外城)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내부에 석성(石城)의 구조를 한 당시로는 특수한 읍성 구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 말기에 그려진 『김해부내지도』에서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조선 전기인 세종-문종대 김해읍성 초축 당시에는 외곽의 토성이 방어적 기능을 어느정도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또한, 김해읍성이 다른 읍성과 달리 17년이라는 축성기간이 걸린 것도 부분적으로 외곽의 토성에 대한 수개축을 하였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읍성인 석성과 고읍성인 토성의 관련성 조사의 시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김해읍성 체성 조사 검토

이제까지 김해읍성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시)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자료는 아래 【표 4】로 정리 가능하다. 조사된 것을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벽과 북벽구간이 비교적 조사가 많이 진행되었고 서벽과 남벽은 각각 한군데씩에 불과하다.

【표 4】 김해읍성 (시)발굴조사 결과 내용

(단위 :cm)

위치	규모								기타 시설	비고
	성벽 너비	잔존 높이	박석 너비	수, 개축	해자와 거리	해자 깊이	*해자 너비(구간)	수 개축		
동벽	480	-	-	-	800	110, 1~3단	120	-	-	동 540-1 두 2011.5
	-	-	-	-	-	170, 2~3단	180	1	-	동 591-4 두 2013.2
	700	-	160	-	-	-	-	-	-	동 722-8 강 2016.12
	750	50	120	-	900	250	250			동 722-13 한화 2017.8
서벽	570 ~ 600	146 ~ 206, 3단	180 ~ 190	-	880	160, 7단	130	-	석축 8단	서 222-2 한 2017.6
남벽	-	-	-	-	-	200, 4~6단	80	-	-	동 724-7 한 2015.12
북벽	840	160	-	1	950	300, 9단	100	1	담장	동 818 부 1999.12
	-	-	-	-	1,400	140 ~ 250	600	1	석축	동 306-2동 2010.3
	670	350, 4단	-	-	-	-	-	-	치성 800 방형	동 823-1 강 2016.11
북문지	730 ~ 800	175 ~ 250, 3~4단	150	2	1,960	300, 7~9단 ⁵⁶⁾	200 ~ 220	2	옹성 수구	동 314, 214-5 경 2009.8

*) 해자의 수치는 조사구간 내에서의 잔존너비임.

※ 동상동(동), 서상동(서), 강산문화재연구원(강), 두류문화재연구원(두), 경남문화재연구원(경), 동양문물연구원(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 부산시립박물관(부)의 앞 글자만 따서 사용
(예) 동, 번지, 조사기관, 조사년도 순으로 기입

56) 축조는 초축과 1차 수축, 2차 수축으로 나눌 수 있다. 초축은 깊이가 약 115cm에 2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수축은 깊이 약 60cm에 4~5단으로 이루어졌다. 2차 수축은 허튼층쌓기를 하여 단을 알 수 없으나 깊이는 약 132cm 정도이다.

이제까지의 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면, 우선 규모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김해읍성의 체성부 성벽 너비는 800~900cm 정도로 추정된다. 잔존높이는 가장 높은 곳에 의하면 350cm로 문헌기록의 11~15척(尺)에 비하면⁵⁷⁾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체성부의 외곽에는 해자(垓字)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벽면에서 800~1,400c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북문지의 경우는 1,960cm 정도 상당히 멀리 이격되어 축조되었다. 이는 옹성이 축조된 상태이므로 외벽간의 거리로는 다른 체성부와는 달리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벽과 서벽의 체성부는 800~900cm 정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데 반해서 북벽은 950~1,400cm 정도로 상대적으로 먼 이격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방어적인 차원과 지형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자의 깊이는 더욱 차이가 있는데 이는 조사 당시의 붕괴위험, 조사조건 불량 등으로 인해 바닥면까지 조사하지 못한 상태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 격차가 생긴 것도 있다.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해자의 깊이는 200~300cm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빠지면 쉽게 올라올 수 없는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자의 너비는 조사구간의 한계로 그 너비가 다 밝혀진 것은 북벽만 있다. 북벽구간의 해자의 너비는 600cm 정도이다. 이 정도의 해자의 너비는 다른 읍성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이다. 금회 조사구간에서도 해자의 반대쪽 호안석축이 있는 부분은 조사구역 밖으로 도로 밑부분에 해당되어 불과 250cm 정도의 너비만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은 체성부와 해자(호안석축)의 세부적인 축조수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지역이 후천(後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후천의 범람 등으로 지반이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체성부 축조전 어떠한 토목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도면 16·17>과 같은 모식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 모식도에 제시된 축조순서와 기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축조 전에는 이곳은 호계천(虎溪川)과 후천(後川)의 두 개의 하천이 분성산(盆城山)이 위치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형의 상습 범람습지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벽 축조 예상지점의 외곽과 주변지역에서 굴착한 풍화암반 생토를 체성부와 성벽 외곽 지점 일부에까지 성토하였다. 그 이후에는 어느정도 성토한 흙이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체성이 축조되는 지점에는 회갈색 사질점토 30~40cm 정도와 암갈색 점토 20cm 정도를 정지하였다. 그 다음 직경 10cm 내외의 목재를 이용하여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촘촘하게 박아 지정하여 지반의 경고성을 더하였다. 특히, 박석과 외벽부 지대석과 기단석이 설치될 지점에는 더욱 치밀하게 지정목을 설치하여 기초 바닥면을 든든히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체성부 상단부를 쌓아올리는 입체적인 단계이다. 먼저, 상술한 기초공사면 위에 지정석과 흙을 다져넣고 박석(30×20×5~10cm)을 4~6열 정연하게 부석하였다. 특

57) 앞선【표3】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김해읍성의 체성부 높이는 11~15척으로 당시의 척은 포백척(布帛尺 : 46.66cm)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김해읍성의 체성부의 높이는 약 510~700cm 정도의 높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초축 당시인 『문종실록』에는 13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이 읍성의 다른 규모도 상세한 것으로 미루어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높이는 약 600cm 정도였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장(女牆)의 높이 2척(약 90cm)을 더한다면, 전체 높이는 더 증가해야 할 것이다.

①



상습 범람지역(읍성 동벽 조사구역); 虎溪川과 後川 두 개의 하천이 北에서 南으로 흘러내리는 저습한 상습 범람지대였을 것으로 추정.

②



동성벽이 설치될 지점의 외곽부분(해자가 설치될 지점) 생토층을 굴착하여 그 흙을 해자에서 체성부 내벽까지 성토함.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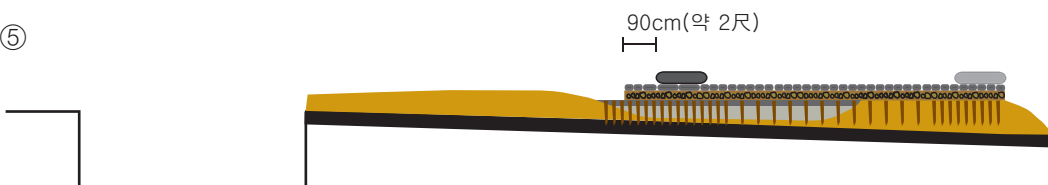
성토한 후 위로 회갈색 사질점토 30~40cm, 상부에 암갈색 점토 20cm 두께로 정지하였음. 정지한 부분에 직경 10cm 내외의 목재를 촘촘하게 지정하여 지반을 더욱 견고히 함. 특히 박석과 외벽부, 내벽부에 더욱 촘촘히 지정하였음.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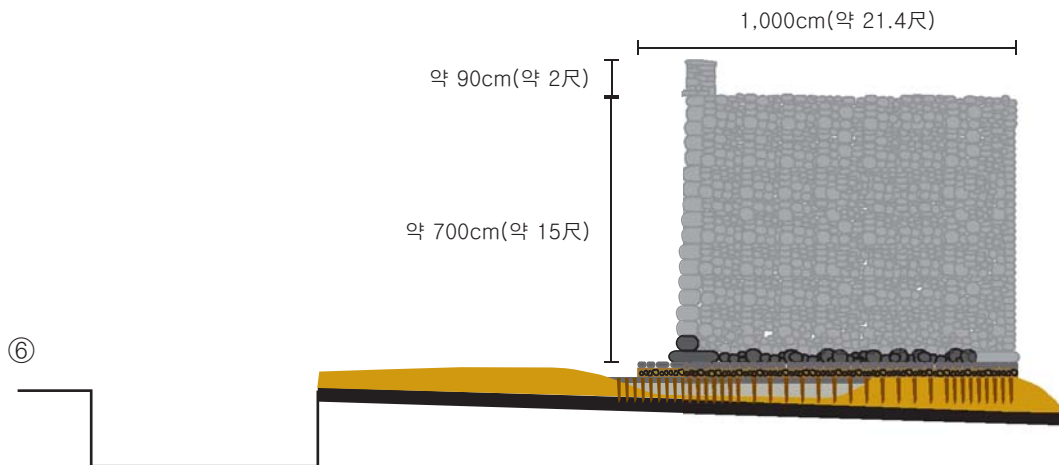
지정목 위로 잡석을 지정석과 흙을 채워 보강한 후 체성부의 기반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박석(30×20×5~10cm 내외)을 4~5열 정연하게 깔았음. 특히 지대석인 기반석이 놓이는 부분은 정치(너비 약 100cm)하게 부석하였음.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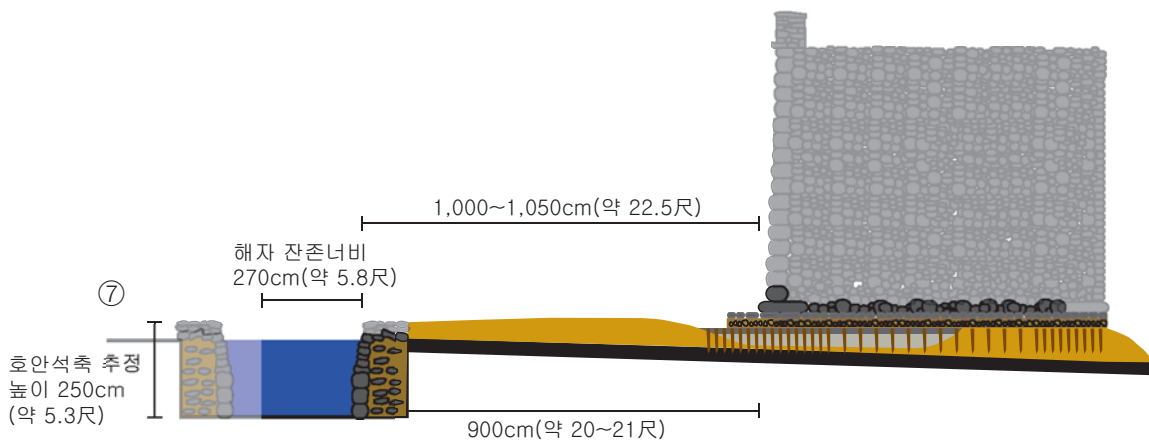


부석한 체성부 상부에 두께가 20~30cm 정도되는 화강암재의 대석(80~100×120~160×30cm)을 지대석으로 기반부를 이루고 체성부의 길이방향으로 줄맞춤하여 축조하였음.

도면 16. 김해읍성 동벽 및 해자(호안석축) 축조 모식도1



지대석에서 약 20cm 정도 들여쌓기 하였으며 상부에 면석을 대석(90~120×60~100×40~60cm)을 입수적하여 축조하였음.



호안석축은 크기가 다양한 석재로 수평줄을 맞추지 않고 허튼층쌓기하여 축조하였으며 8~10단으로 약 250cm 정도 깊이로 쌓아 올림. 호안석축의 내벽에서부터 읍성 체성부 외벽 지대석까지 이격거리는 1,000~1,050cm 정도(약 22~23尺)임.

- 1尺 기준(포백척[布帛尺] 환산) ≙ 46.66cm^{*)}

*)李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민족문화 학술총서 23』, 도서출판 혜안.

히, 지대석과 기대석의 기초바닥부분의 너비 100cm 지점은 정치하게 박석을 부석하였다. 이어서, 정치하게 부석한 곳에 약 90cm(2尺) 정도의 박석공간을 두고서 120~160×80~100×30cm 정도 크기의 화강암재 대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으로 기단부를 이루도록 남-북으로 열상으로 길이방향으로 줄맞춤 축조하였다. 부분적으로 지대석의 길이 반대방향으로 축조한 켜기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석을 사이사이 배치하였다. 그 상부로는 지대석에서 20cm 정도 들여서 90~120×60~100×40~60cm 내외의 화강암재 대석을 수직하여 면석(面石)을 맞추어서 옆줄눈맞춤으로 쌓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체성부도 그 이후에 2~3차례의 수개축이 이루어졌는데 위치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적인 간격을 두고서 체성부 외벽면에서 약 900cm(약 20尺) 정도 이격된 곳에 깊이 250~300cm(약 5.3~6尺)로 굴착하여 해자를 축조하였는데, 30×40cm 전후의 할석을 허튼층쌓기하여 10단 정도로 쌓아서 호안석축을 이루었다. 호안석축의 상부는 3-4열의 너비 100cm 내외를 이루고 있다. 성벽과의 이격거리는 성벽의 중요도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자의 너비 역시 위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을 것이다. 축조수법이 체성부처럼 정치하게 면과 옆줄을 맞춘 수법은 보이지 않으며 사용한 석재 역시 정다듬과 같은 2차 공정의 흔적이 있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크기가 비슷한 자연할석재를 이용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해자의 호안석축의 축조시기인데 『문종실록』에 의하면, 체성부의 전체 길이와 해자의 전체길이가 불과 265척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미루어 보면, 문종시기의 초축 완성단계에는 읍성의 체성부 외곽 전체에 해자가 축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다. 본 조사구간의 전체 토층의 퇴적상태를 분석하여 보면, 체성부가 완공되고 난 뒤,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호안석축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체성부가 초축될 당시에 비록 해자가 둘러져 있어도 호안석축을 뒤늦게 조성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자와 해자의 호안석축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김해읍성과 같은 중요한 읍성의 해자축조에 호안석축시설이 없이 축조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으로 현재로서는 해자의 굴착과 호안석축의 시설물 축조는 동일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체성부의 축조시기와 호안석축의 축조시기가 어느정도 간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본 조사구간에서는 호안석축 바닥면과 호안석축 조사시 아래 퇴적층에서 1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 가능한 인화분청사기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구간의 호안석축의 축조시기는 그다지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는 영남지역 읍성 관련 문헌자료를 재정리하여 김해읍성 조사자료에 참조하였다. 이전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정리한 적이 있지만, 기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금번에 다시 정리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에게 참고되길 희망한다.

【표 5】영남지역 읍성 관련 문헌기록 내용

		규모		성문	옹성	치	여장	우물	연지	해자(尺)	축조 시기	유형	비고	
		둘레(尺)	높이(尺)											
영남연해읍성	동래읍성	3,090	13	6	6	30		6	1		우왕13(1387)			
		3,092	15								세종28년(1446)			
	기장읍성	1,527	15	3		6	383	1	2		세종7년(1425)	신축		
		3,197(개축)									개축			
	웅천읍성	3,514	15	4	4						세종19년(1437)			
	합포병영성	4,291	15	4		12		5				우왕4년(1378)	토성 → 석성	
												세종12년(1430)		
	고현성(거제)	3,038	13	3		6			3	2		문종원년(1451)	신축	
	남해읍성	2,876	10~13	4		12	553	1~3	1			세종21년(1439)	신축	
	사천읍성	3,105 5,015	10~11 .5 15	3	6	15	630	4	2			세종27년(1445)	신축	
하동읍성	2,943	8	3	3	11	588 (높이 3尺)	5	1			태종17년(1417)	신축	문종연간기록	
	1,019	13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읍성	3,639	15					8				성종8년(1477)		성종실록	
	3,635	10									성종18년(1487)		신증동국여지승람	
울산병영성	3,732	12~13	4		21	908	7				태종17년(1417)	신축		
영남내륙읍성	창원읍성	4,920	12尺 7寸	4	4	18	600	2	1			성종8년(1477)	석성	신축 창원부읍지
		4,410												
		2,004												
	밀양읍성	4,670	9	3			1,580	4	1			성종10년(1479)	신축	
	함안읍성	5,160 7,003 (수축)	13	3		10	504	75				중종5년(1510)	토성→ 석성	못 깊이 6척, 너비 13척 경상도읍지
	칠원읍성	1,660	11	4		6	136	1	1			성종23년(1492)	석성	성종실록
	영산읍성	3,810	12	3		6						성종8년(1477)	신축	
진주성	4,359		4								우왕5년(1379)	토성→ 석성	개축	
언양읍성	1,427	8	4		12	834	2				공양왕2년(1390)	토성→ 석성		
	3,064	13												4

3. 출토유물 검토

금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보고서에 수록할 만한 유물의 수량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구간의 체성부와 호안석축 구간 및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에서도 체성부 축조시기와 호안석축의 축조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유물 수점이 출토되었고 이제까지 김해읍성 조사구간 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 묵서명(墨書銘) ‘定’자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시기의 것으로 고배 대각편(3)과 반구병 구연부편(1), 경부편(2) 등이 있는데 이들 유물은 모두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김해읍성 축조와는 무관하며, 주변의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자편 수 점도 출토되었는데 이 역시 김해읍성 축조와는 무관한 출토품이다.

출토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金海’명 인화분청사기편(11)과 ‘菓’명 인화분청사기편(12), ‘定’명 인화분청사기편(14)이다. ‘金海’과 ‘菓’명 분청사기는 김해읍성 복문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명문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⁸⁾ ‘金海’명 그릇의 외면에는 4방향의 등간격 원문안에 별도의 글자가 있으나 파손되어 해독이 불가하다. 이 유물은 당시 김해부(金海府)의 관청에 공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定’자의 묵서명이 있는 인화분청사기는 처음으로 출토되었는데 어떤 의미의 것인지 불명하다. 이들 분청사기는 문양기법 등의 특징을 미루어 볼 때 15세 중후반 이후로 편년 가능한 것으로 문헌기록의 축조시기와 부합되며 특히, 호안석축 내에서 출토된 것들은 호안석축의 축조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58)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읍성 복문지』에서는 ‘金海’명과 ‘菓’자명이 출토되었고, (재)강산문화연구원, 2016. 12, 『김해 동상동 722-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보고서』는 ‘金海’명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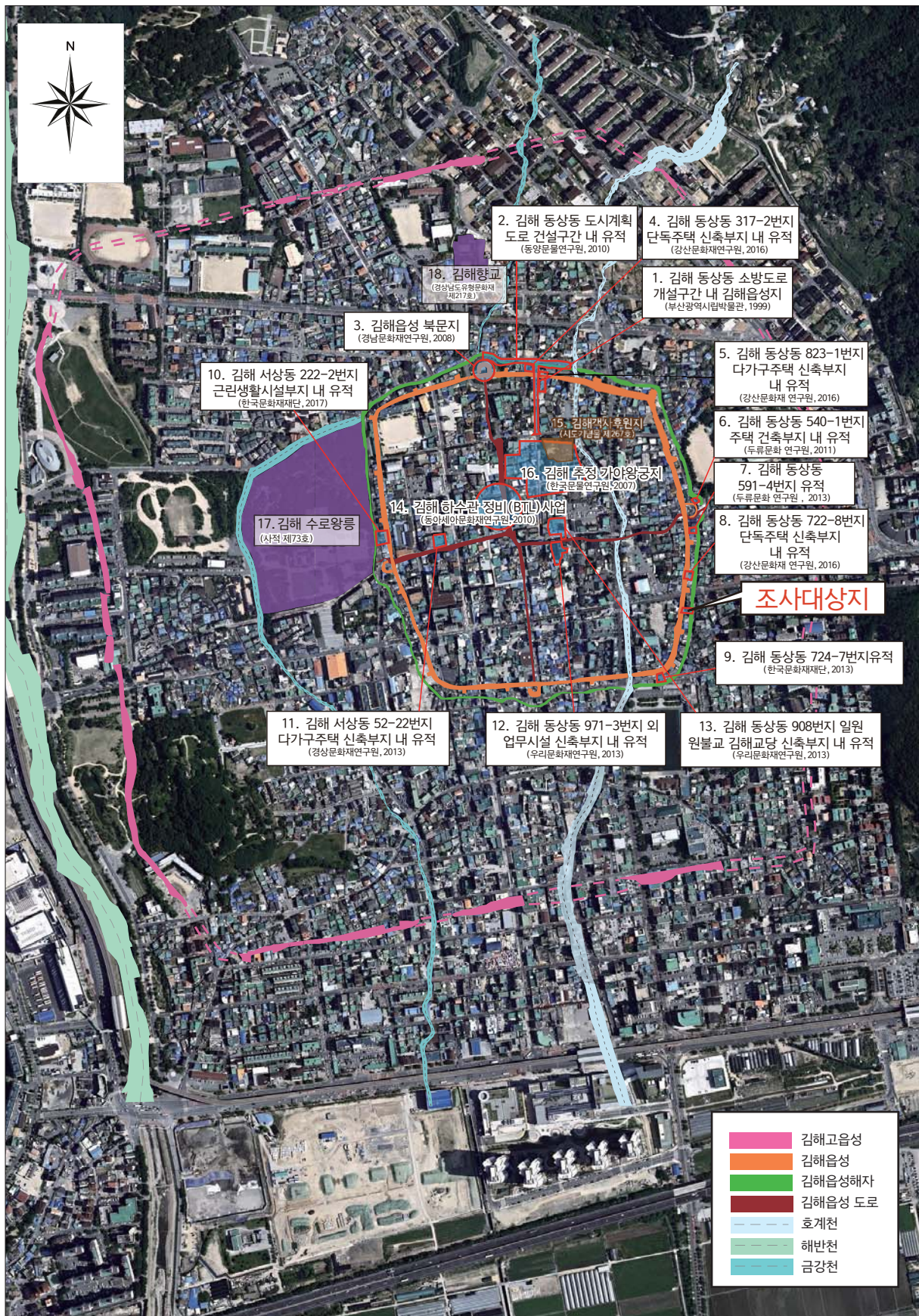
V. 맺음말

이상에서 금번 동상동 722-13번지에서 발굴조사된 김해읍성과 관련된 문헌적,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하여 발굴조사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조사구간이 협소하여 조사에 애로가 많아 불편한 점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무사히 조사가 종료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다행으로 여긴다. 그리고 2017년도 서상동에서 김해읍성 서벽이 조사되어 이와 함께 본 유적의 동벽이 함께 비교되는 자료가 거의 동시에 제시되어 김해읍성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금번 조사보고서의 조사 성과를 작성함에 있어 이제까지의 김해읍성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최대한 이해하여 보고서 고찰 내용에 포함하려 하였지만, 역량의 한계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자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의 문헌적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의 부족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보완,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부분에 국한되지만, 읍성의 동벽 체성부의 축조전 단계부터 호안석축 설치 단계까지에 대한 모식도를 작성하여 축조공정 과정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폭염속에서도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인부 어르신들과 조사에 헌신한 김진의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 모두와 한국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며, 고찰 부분의 문헌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준 조나립 연구원에게도 특별히 감사함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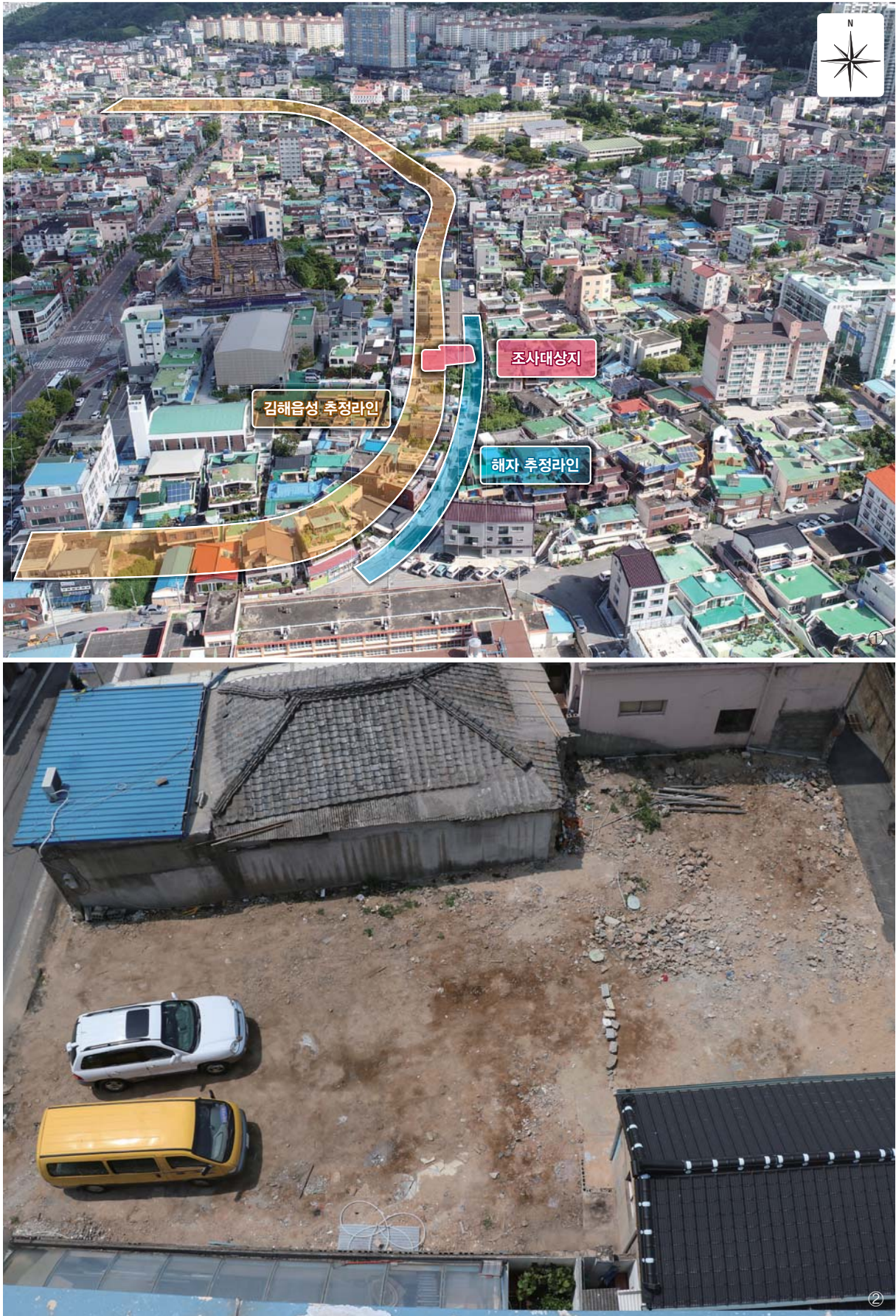
도 판



도판 1. 김해읍성 시굴 및 발굴조사 현황 위성사진(출처 : NAVER 위성지도)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 전경(E-W)



도판 3. 조사대상지 원경(①,S-N), 조사전 전경(②,N-S)



도판 4. 체성부 조사중(①)·조사후(②) 전경(E-W)



도판 5. 기준토층1 토층상태(①·②), 기준토층2 토층상태(③·④)



도판 6. 기준토층1 단벽(①)· 기준토층1 단벽(②) 토층상태, 체성부 입면상태(③), 체성부 하부 토층상태(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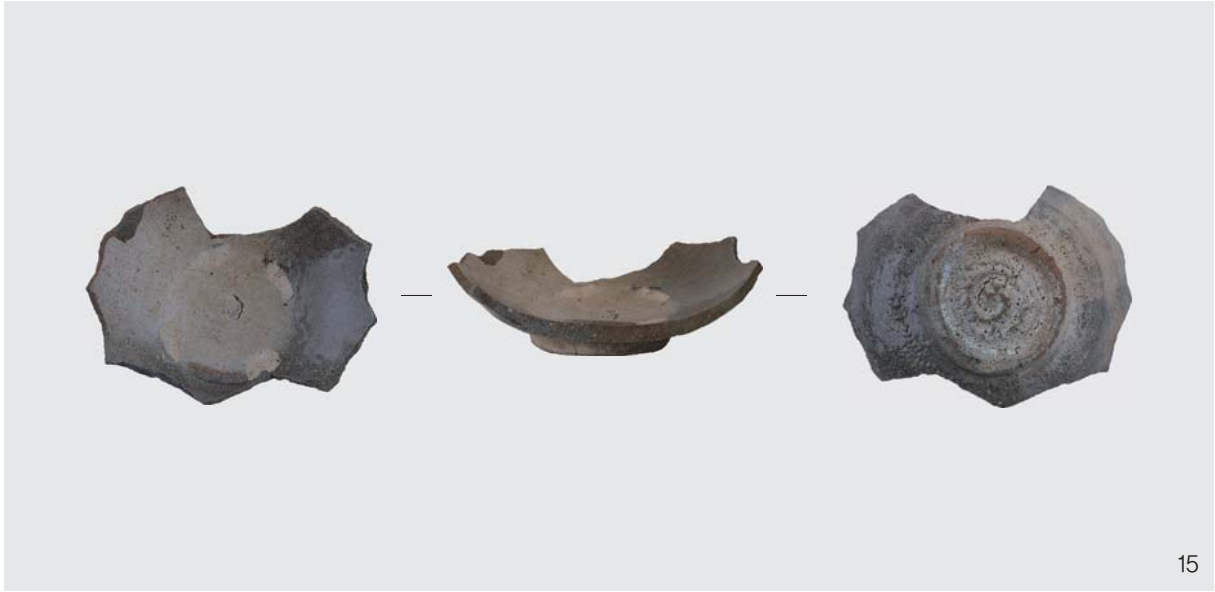
도판 7. 지정목 조사전(①)·조사후(②), 체성부 출토유물(1~4)



도판 9. 해자 입면(①) 및 단면(②·③), 해자 출토유물(8)



도판 10. 해자 출토유물(9~14)



15



16



17

도판 11. 지표수습 유물(15~17)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발굴조사 출토유물 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08 41-01	반구병 구연부편	1	체성부	토도류	통일신라 ~고려	2.8	8.9	-	도면11-1 도판7-1	
201708 41-02	반구병 경부편	1	체성부	토도류	통일신라 ~고려	3.9	-	-	도면11-2 도판7-2	
201708 41-03	고배 대각부편	1	체성부	토도류	통일신라 ~고려	4.1	-	7.6	도면11-3 도판7-3	
201708 41-04	청자 구연부편	1	체성부	토도류	고려	5.4	14.9	-	도면11-4 도판7-4	
201708 41-05	청자 저부편	1	체성부	토도류	고려	3.0	-	4.7	도면11-5 도판8-5	
201708 41-06	백자 저부편	1	체성부	토도류	조선	3.4	-	5.7	도면11-6 도판8-6	
201708 41-07	전돌	1	체성부	토도류	조선	14.6	10.6	4.2~4.6	도면11-7 도판8-7	
201708 41-08	청자 촛대	1	해자	토도류	고려	5.2	-	5.5	도면13-8 도판9-8	
201780 41-09	분청사기 저부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4.2	-	5.3	도면13-9 도판10-9	
201708 41-10	백자 저부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2.15	-	3.5	도면13-10 도판10-10	
201708 41-11	분청사기 인화'金海'명 접시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3.4	-	6.2	도면14-11 도판10-11	
201708 41-12	분청사기 '菓'명 저부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2.1	-	4.9	도면14-12 도판10-12	
201708 41-13	분청사기 인화문 대접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5.0	-	-	도면14-13 도판10-13	
201708 41-14	분청사기 '定'명 저부편	1	해자	토도류	조선	2.5	-	5.0	도면13-14 도판10-14	
201708 41-15	분청사기 저부편	1	상부수습	토도류	조선	4.0	-	6.4	도면15-15 도판11-15	
201708 41-16	암키와편	1	상부수습	토도류	조선	11.0	6.2	1.9~2.1	도면15-16 도판11-16	
201708 41-17	암키와편	1	상부수습	토도류	조선	16.5	11.2	2.3~2.9	도면15-17 도판11-17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9月 25日	
發行機關	名稱	한화문물연구원			
	住所	(50865)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0 2층 201호			
	TEL	(055)342-3288	FAX	(055)342-3287	
執筆・編輯者	신용민, 김유정, 김미경, 김진의, 조나림				
調査 緣由	단독주택				
發掘調査者	신용민, 김유정, 김미경, 현희정, 김진의, 황철현, 강명선, 윤철희, 최선아, 조나림				
遺蹟調査地番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722-13번지				
調査面積	245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성곽	15세기 중후반	1기	백자 외		
해자	15세기 중후반	1기	분청사기 외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I. 조사개요	131-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1-9
III. 조사내용	131-19
〈삼국시대〉	131-23
1) 경작유구	131-23
(1) 제1-1발	131-23
(2) 제1-2발	131-23
(3) 제2발	131-25
IV. 조사성과	131-27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31-15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 및 주변 경작유적 분포도(1:10,000)	131-16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31-19
도면 4.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31-21
도면 5. 제1-1발 경작유구	131-22
도면 6. 제1-2발 경작유구	131-24
도면 7. 제2발 경작유구	131-26

도 판 목 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②조사전)	131-35
도판 2. 제1-1·1-2발 경작유구 조사전	131-36
도판 3. 제1-1·1-2발 경작유구 조사중	131-37
도판 4. 제1-1·1-2발 경작유구(①조사후, ②~④세부, ⑤토층)	131-38
도판 5. 제2발 경작유구 조사전	131-39
도판 6. 제2발 경작유구 조사중	131-40
도판 7. 제2발 경작유구(①조사후, ②③세부, ④⑤토층)	131-41
도판 8. 탐색트렌치(①전경, ②토층)	131-42
도판 9. 학술자문회의	131-43

I. 조사개요

이번 조사대상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09-8번지로 사업시행자 송종옥씨의 동·식물관련시설(온실) 신축부지(839㎡)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면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조사대상지는 하남시 동쪽에 있는 미사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사적 269호)¹⁾의 현상변경 기준안 3구역 내에 해당한다. 또한 주변으로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사적 269호), 미사동 124-1번지 유적²⁾, 미사동 375-4번지 유적³⁾, 미사동 376-2번지 유적⁴⁾, 미사동 407번지 유적⁵⁾, 미사동 411-2·5·6번지 유적, 미사동 575-1번지 유적⁶⁾ 등이 확인되었다.

하남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본조사를 통해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자비(自費)로 표본조사⁷⁾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트렌치 내에서 밭 경작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정밀발굴조사 실시 및 국비지원 대상임을 재차 통보하였다.

하남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3월 15일 본 재단에 국비 지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자체 협의서류 보완을 이유로 발굴조사 시행에 대한 착수 연기 요청이 접수되어 발굴조사 착수는 6월 15일 이후로 연기되었다.

본 재단에서는 2017년 7월 19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7월 24일 실조사일수 17일에 대한 발굴허가(제2017-0971호)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8월 8일에 착수하였으며, 8월 30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 2개 층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8월 30일 학술자문회의⁸⁾를 진행하였으며, 회의결과 ‘주변지역 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경작층과 동일한 레벨에서 경작유구가 확인되고 있으며, 유구의 훼손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록보존한 후 복토 조치 이후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1) 미사리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 2) 서해문화재연구원, 2014, 『하남 미사동유적Ⅲ』.
 - 3) 한국문화재재단, 2018, 「6. 하남 미사동 165-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18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375-4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2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5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6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인천·경기 1』.
 - 4) 한국문화재재단, 2017, 「3. 하남 미사동 376-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서울·경기 1-』.
 - 5) 역사문화재연구원, 2017, 「하남 미사동 407번지 온실부지 내 유적」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6) 한국문화재재단, 2015, 「7. 하남 미사동 575-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 1-』.
 - 7) 역사문화재연구원, 2017, 『하남 미사동(409-8번지 일원) 온실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 보고서』.
 - 8) 학술자문위원 : 정계옥(문화재전문위원), 문재범(하남역사박물관장)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정 훈 진(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미 현(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오 정 영(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최 성 수(조사연구2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건충(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오정영이 작성하였다.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오정영·손지선(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오정영·박자연(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이건충의 책임 하에 I~IV장 오정영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 장)이 하였다.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하남시는 서울시의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경기도의 중심부에 해당하고, 한강과 붙어 있어 지리·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대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영역 쟁탈전으로 수난을 가장 많이 겪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수리적으로는 동쪽으로 광주시 남종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서쪽으로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 남쪽으로 광주시 중부면과 성남시,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시작되는 한강이 하남시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하남시 경계의 경위도선 좌표를 살펴보면 동단은 127° 17'10", 서단은 동경 127° 08'29", 남단은 북위 37° 28'00", 북단은 북위 37° 34'58"이다. 하남시는 동쪽으로 검단산, 남쪽으로 청량산에 둘러싸여져 있고, 서쪽으로 구릉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만이 넓은 평야지대로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U'자 형태의 산악지 및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쪽에 위치한 검단산(657m)은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으며, 남쪽으로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과 연결되어 있다.

육상교통로는 국도 43호선이 광주로부터 하남시의 중앙을 지나 한강의 광진교와 연결되며, 한강변의 올림픽대로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양수리로 이어지고, 북쪽으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덕풍동과 춘궁동은 판교-구리간 서울 외곽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경기도 일원은 물론 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하남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덕풍천·산곡천은 검단산·객산·금암산·청량산의 사이를 끼고 북쪽으로 흘러 한강과 만나며, 그 밖의 망월천·초이천·감이천은 하남시 서쪽의 구릉지에서 발원하여 한강과 만나게 된다. 특히 덕풍천은 하남시의 중심을 관통하는데 유로연장은 8.5km에 달하며, 남한산성 북문 부근을 발원지로 하여 북쪽에서 흘러 한강에 유입된다.

하남시의 주요암석은 변성암 제4기 충적층·녹설층·홍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성암의 주요 광물로는 호상편마암·반상변정질 편마암이 있으며, 초이동·감북동의 저구릉지에는 운모편암이 일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석영이 풍부하며 화강암보다 풍화되기 어렵고, 풍화토는 사양토에 가까우며 알칼리분이 많다.

시의 동·서·중부에 있는 검단산·객산의 산악지대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생성된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서부의 청량산·금암산·이성산은 반상변정질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의 풍산동·신장2동의 넓은 평야는 신생대의 제 4기 충적층·홍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덕풍천·산곡천·초이천·감이천 부근에도 제4기 충적층·녹설층이 존재하고 있다.

하남시의 토양은 크게 하성평탄지토양·곡간지토양·홍적대지토양·구릉지 및 산악지토양으로 나누어진다. 하남시의 하성평탄지토양과 홍적대지토양은 한강 주변의 풍산동·덕풍3동·신장2동에 주로 분포한다. 덕풍천과 산곡천 주변의 하성평탄지토양은 자갈이 많은 사질~사양질토양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곡간지토양은 주로 하남시 서부에 있는 초이동·감북동에 주로 분포하

며, 주요토양은 예천·지산·옥천통이고, 일부 덕풍천과 산곡천 주변에도 회곡·월곡·풍천통이 존재한다. 초이동·감복동에 존재하는 토양은 석력이 없는 사양질~식질 토양이고, 덕풍천과 산곡천 주변의 토양은 석력을 함유한 사양질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지역의 구석기유적은 춘궁동 271-11번지⁹⁾에서 주먹도끼, 찌개 등이 수습되었고, 학암동의 위례지구¹⁰⁾, 미사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¹¹⁾를 통해 다량의 뎀석기가 출토되어 정식조사로는 최초의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미사지구 A구역에서는 크기 1cm 정도의 줌돌날몸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미사지구 B구역 3지점에서 몸돌과 격지를 비롯한 다수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¹²⁾ 또한 교산동의 구릉지대에서 굽개와 주먹도끼 형태의 뎀석기가 확인되어¹³⁾ 앞으로 주변 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미사리유적¹⁴⁾이 대표적이다. 미사리유적에서 발견된 유구는 주거지·야외노지 등이며, 유물은 빗살무늬토기와 갈돌, 갈판, 어망추 등 생활도구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미사동 575-2번지 유적¹⁵⁾에서도 노지와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선동·춘궁동유적¹⁶⁾ 등에서도 신석기시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하남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동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어 보고된 바 있는데 특히 덕풍동과 망월동 일대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며, 춘궁동에서도 무문토기와 마제석기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석묘유적으로는 광암동·교산동·감이동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중 광암동유적¹⁷⁾만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북방식과 남방식 지석묘가 공반되는데 특히 1호 지석묘는 지석을 세워놓지 않고 지형을 고려하여 누어 놓아 양쪽의 높낮이가 균형을 이룬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2호 지석묘에서는 벽석 중에 사람 얼굴이 새겨진 인면석기가 출토되었다.¹⁸⁾ 교산동 지석묘는 객산의 산자락 아래 7기가 북두칠성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일명 ‘칠성바위’라 불리기도 하는데, 하부가 흙속에 반쯤 묻혀 있어 그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 감이동 지석묘는 산 경사면에 3기가 위치해 있는데, 1기는 북방식 지석묘이고, 나머지 2기는 상석만 확인되었다.¹⁹⁾

주거지가 발견된 곳은 미사리·이성산성·망월동·덕풍동 수리골·덕풍동 산24-4번지·덕풍골 유적 등이 있다. 미사리유적(사적 제269호)은 신석기~청동기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9) 하남역사박물관, 2010, 『하남 춘궁동 271-11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하남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0) 서해문화재연구원, 2014,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2-1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6, 『하남 미사동 구석기유적』.

1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하남 덕풍동·풍산동 유적 - 하남 미사지구 문화재 발굴조사(B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13) 최정필, 1996, 『하남시 교산동일대 문화유적』, 세종연구원.

14)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세종대학교박물관, 2002, 『河南 漢沙洞 - 2001년 시굴조사 보고서-』.

15) 한국문화재단, 2015, 『7. 하남 미사동 575-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인천·경기 1-』.

16) 충북대학교박물관 외, 1998, 『관교~구리·신갈~반월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7)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8, 『하남시 광암동 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18) 최정필·윤미숙·황보경, 1998, 『하남시 광양동 지석묘』,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9, 『하남시 역사와 문화유적』.

각 시기별로 문화층이 남아 있으며, 주거지를 비롯한 466기의 유구와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²⁰⁾ 이성산성(사적 제422호)은 현재까지 12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²¹⁾ 그 중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공렬토기·홍도 등의 무문토기와 각종 마제석기가 출토되었다. 망월동 유적²²⁾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과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세장방형으로, 이 가운데 2호 주거지의 경우 규모가 1,260×320cm로 하남지역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출토된 유물로는 무문토기, 공렬토기, 공렬+구순각목토기 등이 있다. 석기도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어망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망월동 유적이 한강과 인접해 있어 농경보다는 어로생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망월동 326-3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과 철기시대 주거지 10동이 조사되었다.²⁴⁾ 덕풍골 수리골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과 무문토기, 석기류 등이 확인되었으며²⁵⁾, 덕풍골 유적에서는 집터 주변에서 제의유적이 발견되었다.²⁶⁾

기원을 전후하여 하남지역은 마한(馬韓)의 한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명확히 어떤 소국(小國)이 지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기원전 18년에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온조(溫祚)가 터전을 잡아 건국한 백제(百濟)로 미루어 볼 때 마한의 54개국 중 백제국(伯濟國)과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하남지역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미사동 유적, 덕풍동 수리골 유적과 광암동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미사동 유적에서는 초기 삼국시대 집터와 백제시대 집터가 함께 발굴되어 미사동의 선사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역사시대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덕풍동 수리골 유적에서는 백제 토광묘와 신라 석곽묘가 발굴되었다.²⁷⁾ 광암동 고분군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차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백제 석실분 2기, 신라 석곽묘 11기 등이 조사되었다.²⁸⁾

백제는 개로왕 사후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고구려는 475년 이후부터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553년까지 약 70년에 걸쳐 한강유역을 점유하게 된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이성산성 8차 발굴조사 때 출토된 고구려 토기류와 목간, 자 등이 주목받고 있다.²⁹⁾

6세기 중엽에는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된다. 이때 백제는 한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신라는 강원도와 경기지역으로의 진출이라는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은 진군을 멈추지 않고 백제가 회복한 한강을 공략하여

20)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21) 한양대학교박물관·하남시, 2000, 『이성산성-제8차 발굴조사 보고서』.

22)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하남 망월동-청동기시대 집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3) 최정필 외, 2004, 『하남 망월동-청동기시대 집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세종대학교 박물관.

24)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춘천고속도로 예정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하남 망월동 구산유적-』.

2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하남 덕풍동 수리골유적』.

26) 세종대학교박물관, 2007, 『하남 덕풍동 유적 Ⅱ』.

2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하남 덕풍동 수리골유적』.

28) 세종대학교박물관, 1999, 『하남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공사 4차구간 발굴조사 약보고서』.

29) 한양대학교박물관·하남시, 2000, 『이성산성-제8차 발굴조사 보고서』.

신주를 설치하기에 이른다(553년). 신주는 군사거점지역으로 대 고구려와 백제와의 협공을 방어하는 요충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진흥왕은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을 영유하였는데, 한강유역 경영의 중심에는 하남지역 특히, 이성산성이 있다.

하남지역에서 이성산성과 더불어 신라가 남긴 유적으로는 고분유적으로 덕풍동 수리골 유적·덕풍동 덕풍골 유적·광암동 고분군·금암산 고분군·객산 고분군·이성산 고분군 등이 있다. 이들 고분군들은 6세기 중반 경부터 8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성되었으며, 형식이나 구조면에서도 다양하다.

하남지역은 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산주의 영역에 포함되었는데, 한산주는 6세기 대에는 이성산성이 중심이 되었고,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는 주장성이 672년에 축성되어 행정·군사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장성은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는 하남 하사창동 68-2번지 유적³⁰⁾과 하남 하사창동 64-2, 344번지 유적³¹⁾·하남 하사창동 381-5번지 유적³²⁾이 있다. 하사창동 68-2번지 유적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가마 및 숯가마가 조사되었으며, 하사창동 64-2, 344번지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주종유구가 주거지와 함께 확인되어 주목된다. 하사창동 381-1번지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석렬, 수혈유구가 확인되었고,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³³⁾ 춘궁동 386-2번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수혈, 구상유구,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인화문토기편, 자기편, 벼루, 명문와,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³⁴⁾. 또한 사찰유적인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주변으로 수차례 조사되면서 당초문암막새와 귀면문수막새, 선문과 태사격자문 기와가 확인되었다.³⁵⁾

고려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12목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12목은 광주를 포함해서 양주·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해주·황주이다. 성종 14년(995년)에는 10도가 신설되었으며, 종래의 12목은 12군의 절도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때 광주목은 봉국군으로 개편되어 절도사가 파견되었고, 10도 중 관내도에 속하게 되었다. 성종대의 이러한 개편 이후 현종 3년(1012년)까지는 12절도사마저 혁파되어 그 체제가 소멸되어, 그 대신 5도호·75도안찰사제가 성립되어 이 때 광주에는 안찰사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다시 개편되어 현종 9년(1018년)에는 안찰사를 폐지하고 4도호·8목·56주군·28진·20현이 설치되었다. 이때 광주는 다시 목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충선왕 2년(1310년) 모든 목이 혁파되고 부로 강등되는데, 광주목도 지주사로 떨어진다. 그러다가 공민왕 때 원의 복속에서 벗어나려는 일환으로 그 이전의 체제로 복구되어 광주도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목이 되었다.

3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4. 하남 하사창동 68-2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1-』.
31)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하남 하사창동 64-2, 344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강원 1-』.
32) 한국문화재재단, 2016, 「4. 하남 하사창동 381-5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경기·강원1-』.
33) 한국문화재재단, 2017, 「5. 하남 하사창동 381-1번지 유적, 하남 하사창동 381-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 경기 1-』.
34) 한국문화재재단, 2016, 「3. 하남 춘궁동 386-2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보고서Ⅲ -경기 3-』.
35) 화랑문화재연구원, 2016, 「하남 하사창동 348-1번지 근린생활시설 내 유적」, 『하남 천왕사지 I』.
화랑문화재연구원, 2017, 「하남 하사창동 353번지 근린생활시설 내 유적」, 『하남 천왕사지 II』.
화랑문화재연구원, 2017, 「하남 하사창동 66번지 근린생활시설 내 유적」, 『하남 천왕사지 III』.

고려시대 유적은 건물지 유적으로 교산동 건물지와 춘궁동 서부농협창고 신축예정부지 내 유적³⁶⁾ · 하사창동 64-3번지 유적³⁷⁾, 하사창동 381-1번지 유적, 하사창동 381-2번지 유적³⁸⁾, 하사창동 352번지 유적³⁹⁾, 향동 400-8번지 유적⁴⁰⁾, 하사창동 65-4번지 유적⁴¹⁾, 교산동 66-2번지 유적⁴²⁾, 춘궁동 294-3번지 유적⁴³⁾ 등이 있다.

고분군은 금암산 고분군 · 객산 고분군 · 상사창동 고분군 · 춘궁동 고분군이 알려져 있다. 덕풍동 수리골 유적과 덕풍동 산24-4번지 유적⁴⁴⁾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불교유적으로는 천왕사지와 동사지 등의 절터와 더불어 선법사에 있는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보물 제981호)과 천왕사지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춘궁리 철조석가여래좌상(보물 332호), 초1동 석불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하남지역은 광주목의 동부면과 서부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영조대에 간행된 『여지도서』를 통해 동부면에 대해 살펴보면 사창리 · 산곡리 · 덕풍리 · 황산리 · 둔지리 · 팔당리의 6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면의 경우에는 향동 · 춘장리 · 초덕리 · 감천리 · 동음암리 등의 6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광주목은 경기도 관내의 여러 계수관 내지 대읍 중에도 읍격이 가장 높아 세종~세조대에 걸쳐서는 감영, 즉 관찰사영이 소재하고 있었다. 정조대에 읍제가 우수겸수어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그 장관인 유수의 속관은 군사조직과 일반 행정업무조직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하남지역에서는 1841년 기해박해와 관련하여 김우집 · 김만집 등이 순교하였으며, 1868년 병인박해 때에는 김문집 · 김성희를 비롯한 7명이 순교하였다. 이외에 당시 광주부의 읍치가 있던 남한상성은 각지에서 체포되어 온 천주교도의 처형장이 되기도 하였다.⁴⁵⁾

한편 철종 13년(1862년)의 광주농민항쟁은 이 해에 진주 단성지역에서 촉발된 농민항쟁의 연장선 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선후기의 수취체계인 3정의 문란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광주부의 경우는 그 발생 원인이 환정의 문란에 있었다. 환곡의 부족한 분량분을 추가 징수하는 과정에서 광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양으로 올라가 집단항의를 하였다.

조선시대 불교유적 중 천왕사지가 조선시대 전반까지 경영되었다. 천왕사와 관련된 사적은 『세종실록』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세종 28년 천왕사에서 사리를 바쳤다(納廣州天王寺舍利十枚于內)⁴⁶⁾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적어도 1446년까지는 경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하남 춘궁동 건물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3. 하남 하사창동 64-3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1-』.

38) 한국문화재재단, 2017, 「5. 하남 하사창동 381-1번지 유적, 하남 하사창동 381-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 경기 1-』.

39) 한국문화재단, 2016, 「3. 하남 하사창동 352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4-』.

40) 한국문화재단, 2016, 「6. 하남 향동 400-8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4-』.

41) 한국문화재단, 2016, 「4. 하남 하사창동 65-4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3-』.

42) 한국문화재단, 2016, 「1. 하남 교산동 66-2번지 외 1필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3-』.

43) 고려문화재연구원, 2018, 『하남 춘궁동 294-3번지 내 유적』.

44) 세종대학교박물관, 2005, 『하남 덕풍동』.

45) 손승철, 2001, 「조선시대 하남의 교육과 천주교 박해」, 『역사도시 하남』, 하남시사편찬위원회.

46) 世宗實錄 112卷, 28年(1446 丙寅 / 명 정통(正統) 11年) 4月 23日(庚申) 2번째 기사.

고려 태조 19년(936년)에 전국의 주·군·현의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남시 지역 유교유적은 광주향교, 사충서원, 충목사 등을 들 수 있다. 광주향교는 정확히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홍경모의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따르면 18세기 초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공간배치는 명륜당을 전면에, 대성전을 후면에 두는 전학후묘의 일반적인 방식이다.⁴⁷⁾ 이 밖에도 최근에 건물지가 조사된 하남 춘궁동 389-1·14번지 유적과 하남 춘궁동 389-4·14번지 유적⁴⁸⁾이 있으며, 하남 상산곡동 112-2번지 유적⁴⁹⁾에서는 조선시대의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의 동부면에 6개 리, 서부면에 6개 리 마을은 인구증가에 힘입어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면리 개편 당시 동부면에 객산동을 비롯한 17개 리, 서부면에 초일동을 비롯한 15개 리로 분화·발전 을 이루었으며, 객산동과 교촌이 합쳐 교산리로 바뀌는 등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항 이후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여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항일의병활동과 3·1독립운동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광주를 비롯하여 이천·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은 충주·제천·원주 등지로 이어지는 항일의병 전쟁의 중심무대의 하나였다. 광주지역의 의병은 남한 산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본래는 1895년 12월 감하락·구연영 등이 결성한 이천의병이 모태가 되었다.

하남시는 1980년 12월 1일부터 광주군 동부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틀이 마련되었고 오늘날 하남시는 조선 후기 이래 광주부 동부면과 서부면을 아우르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광복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동부읍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이 마련되기에 이른 것이다.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종래 광주군의 동부읍을 중심으로 서부면과 중부면의 상산곡리 등 24개 리를 권역으로 하남시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2015년 9월 현재 하남시는 법정동 24개 동, 행정동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대상지가 위치한 미사동은 하남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미사동은 한강의 퇴적양상으로 형성된 미사섬에 해당한다. 즉 한강은 양수리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남양주시 덕소리·삼패동·가운동·수석동 등에 발달한 구릉성 산지와 남안의 하남시 망월동·선동 등에 발달한 구릉성 산지에 의해 흐름이 크게 남서쪽으로 바뀌면서 남안의 흐름이 약해지고, 북안은 빨라져 남안에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것이 미사섬(미사동)이며,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물의 흐름이 느려 계속 퇴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미사섬과 당정섬이 분리되어 한강의 수위 증감에 따라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두 섬 사이가 복토되어 하나의 섬으로 변했다.⁵⁰⁾

조사대상지는 미사섬의 중앙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은 평탄한 대지상으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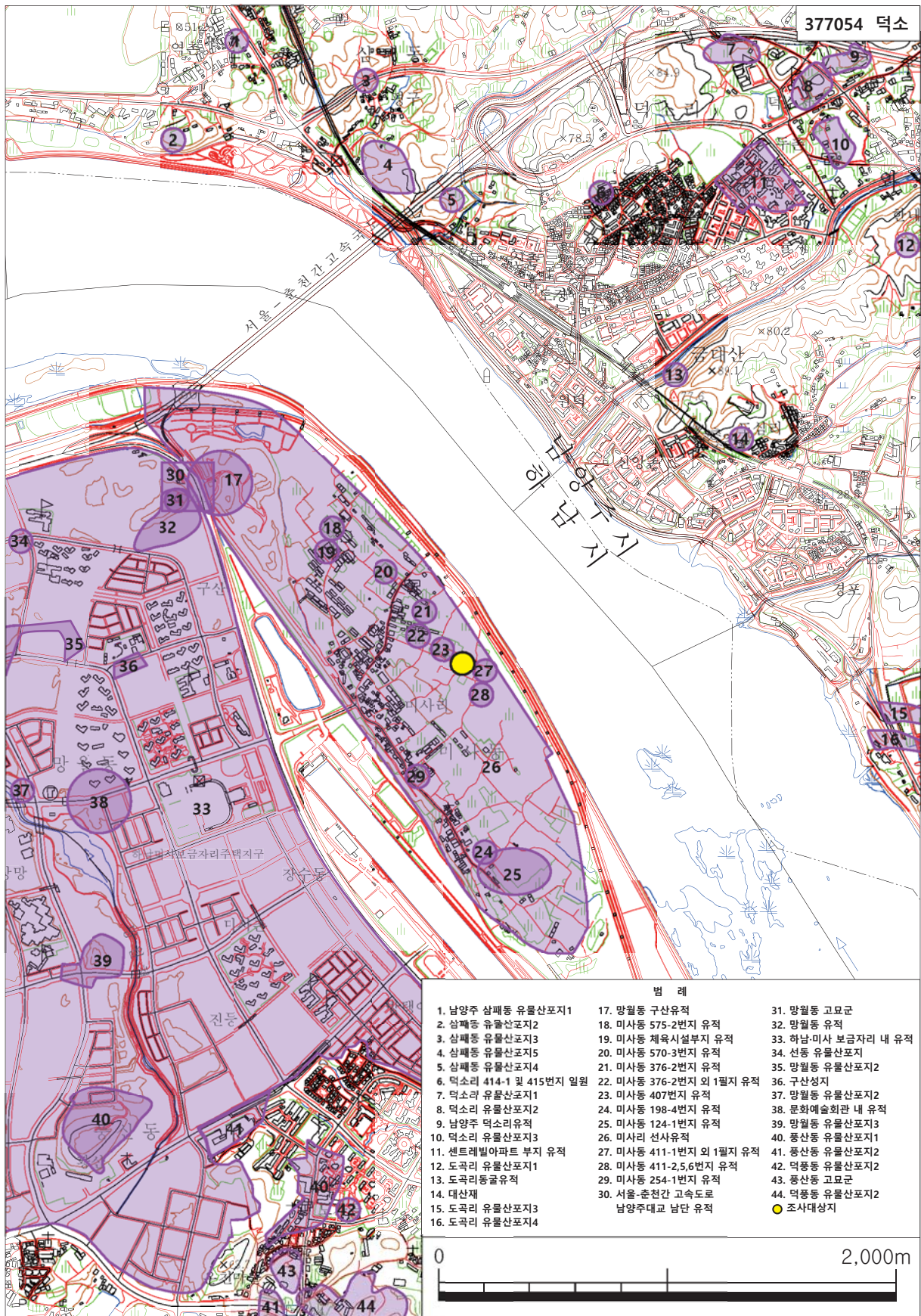
47) 하남시·한양대학교박물관, 2003, 『광주향교 발굴조사 보고서』.

4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5. 하남 춘궁동 389-1·14번지 유적, 하남 춘궁동 389-4·1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경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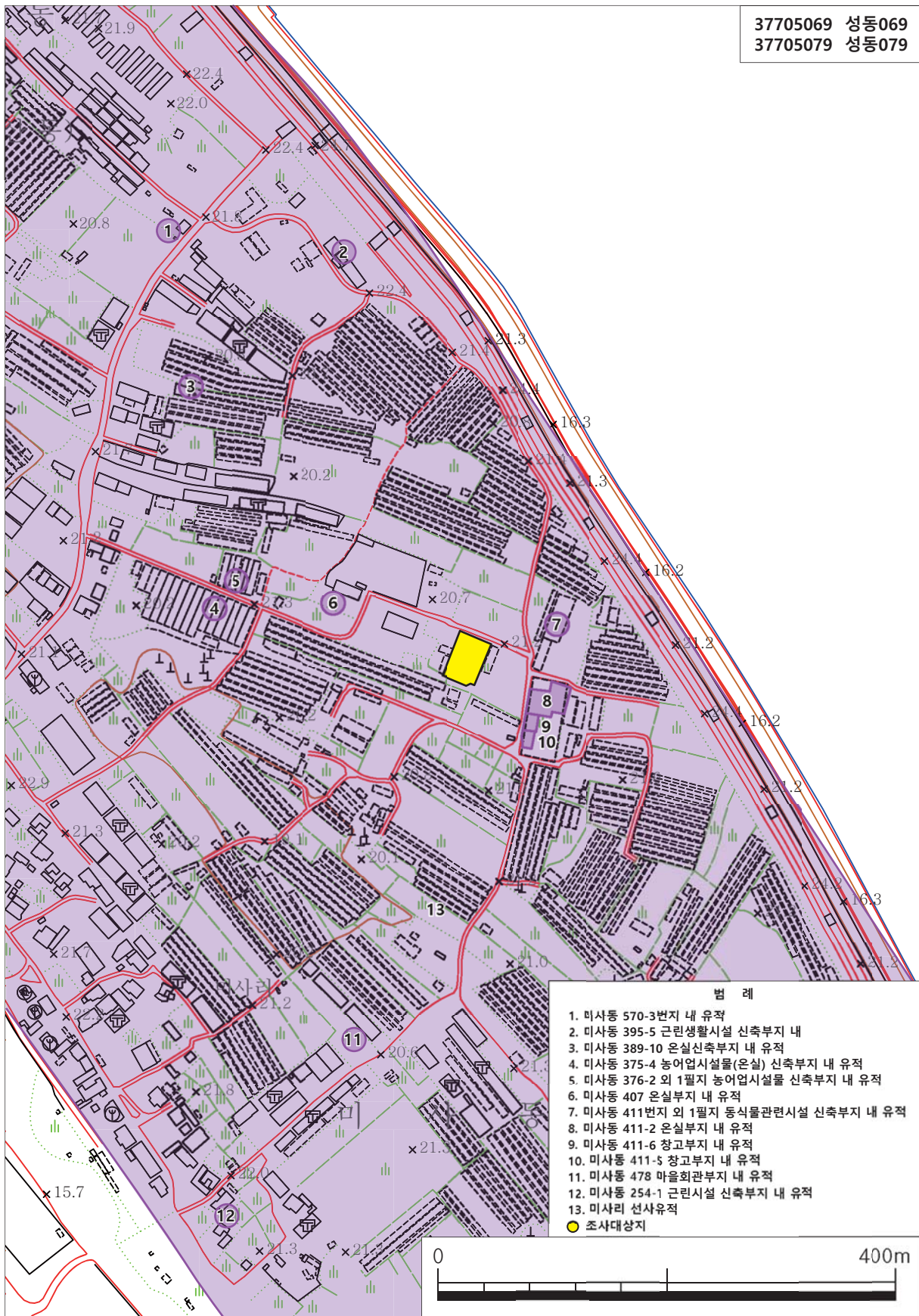
49) 한국문화재재단, 2017, 「3. 하남 상산곡동 112-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 경기 1-』.

50) 이재전, 1977, 「한강 하류 범람원 지형에 대한 연구 - 팔당에서 잠실까지의 지형변천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도박물관, 2002, 「3. 한강의 지형 및 지리」, 『한강』.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 경작유적 분포도(1:10,000)

시설 및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미사섬은 현재 남북 3km, 동서 1km 정도되는 럭비공 모양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사섬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신석기시대로 보인다.

미사섬은 한강에 의해 운반된 토사가 쌓여 형성된 드넓은 하중도로써 암사동보다는 늦게 자연 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신석기인의 거주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이후 삼국(백제)시대 초기에 이르는 동안에는 암사동보다 더 좋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¹⁾ 그러나 아직까지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인접한 망월동 유적⁵²⁾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과 수혈유구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2호 주거지의 경우 하남지역에서 발굴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석기도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어망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망월동 유적이 한강과 인접해 있어 농경보다는 어로생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망월동 326-3번지 일원⁵³⁾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미사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밭 경작유구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조사대상지 주변에서 확인된 경작유적으로는 미사리 유적, 미사동 376-2번지 유적, 미사동 407번지 유적, 미사동 411번지 외 1필지 유적, 미사동 411-2·5·6번지 유적 등이 있다.

주변유적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미사리 선사유적	조사대상지 내	신석기~삼국시대 생활유적, 경작유적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2	미사동 575-2번지	북서 550m	신석기, 삼국시대 생활유적, 경작유적	한국문화재단, 2015, 「7. 하남 미사동 575-2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 조사 보고서 I -서울·인천·경기1-』	
3	미사동 체육시설 내 유적	북서 500m	백제시대 경작유적	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2, 『하남 미사동유적 I』.	
4	미사동 570-3번지 내 유적	북 250m	백제시대 경작유적	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3, 『하남 미사동유적 II』.	

51) 채현석, 2009, 「한강본류역의 유적 층위 형성 과정 연구 : 미사리, 암사동, 풍납동 유적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2) 최정필 외, 2004, 『하남 망월동-청동기시대 집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세종대학교 박물관.

53) 고려문화재단연구원, 2008, 『서울-춘천고속도로 예정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II) 하남 망월동 구산유적』.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5	미사동 124-1번지 유적	남서 650m	삼국시대 고분	서해문화재연구원, 2014, 『하남 미사동 유적Ⅲ』.	
6	미사동 376-2번지 내 유적	북 150m	고려시대 경작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7, 「3. 하남 미사동 376-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 굴조사 보고서 I -서울·경기1-』	
7	미사동 407번지 내 유적	북서 150m	삼국시대 경작유적	역사문화재연구원, 2016, 「하남 미사동 407번지 온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 보고서」.	
8	미사동 165-3번지 유적	남동 660m	고려~조선시대 경작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6. 하남 미사동 165-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18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375-4번지 유적, 하 남 미사동 411-2번지 유적, 하남 미사 동 411-5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6 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인천·경기1-』	
9	미사동 183번지 유적	남동 650m	고려~조선시대 경작유적		
10	미사동 375-4번지 유적	서 230m	고려시대 경작유적		
11	미사동 411-2번지 유적	동 70m	삼국~고려시대 경작유적		
12	미사동 411-5번지 유적	동 70m	삼국~고려시대 경작유적		
13	미사동 411-6번지 유적	남동 80m	고려시대 경작유적		
14	미사동 411-1번지 외 1필지 유적	북동 80m	삼국~고려시대 경작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9, 「5. 하남 미사동 411-1번지 외 1필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1~8』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09-8번지에 해당하며, 하남시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하남시 미사조정경기장에서 미사동로 방면으로 약 300m 직진한 후 우회전하여 현황도로를 따라 400m가량 진입한 우측에 위치한다. 주변지역은 평탄한 대지상으로 대부분 비닐하우스와 온실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북서류하는 한강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정밀발굴조사는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참고하여 전면 제토한 뒤 문화층과 유구를 확인하였다. 제토 후 현 지표 하 약 2m 지점에서 표본조사에서 확인되었던 밭 경작유구(상부문화층)가 노출되었는데 조사대상지는 최근 이루어진 경작행위와 과거 한강의 범람으로 북동쪽 일부를 제외한 밭 경작유구 대부분이 교란되거나 유실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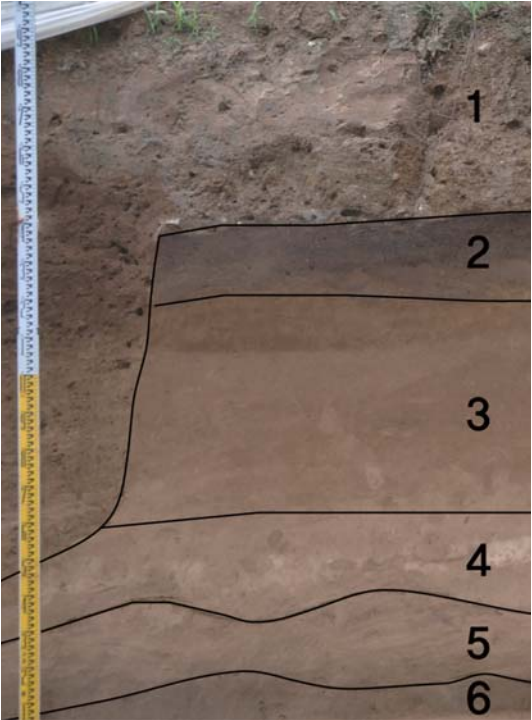
밭 경작유구(상부문화층)에 대한 조사 중 동쪽에 분포하고 있는 교란범위 정리과정 중 노출된 밭 경작유구의 약 30cm 하부에서 밭 경작유구(하부문화층)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에 상부 문화층의 밭 경작유구 조사완료 후 하부문화층에서 확인된 밭 경작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조사완료 후 조사대상지 퇴적양상과 문화층의 추가 부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나 유물을 포함하는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조사대상지 동쪽 조사경계 토층

토층	내용	
	1층 : 갈색+암갈색사질점토	표토 및 복토층 (두께 60~140cm)
	2층 : 암갈색사질점토	근래 경작층 (지표 하 60~80cm)
	3층 : 갈색사질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80~140cm)
	4층 : 황백색사질토	범람퇴적층, 제2발 경작유구 고랑내부토 (지표 하 140~170cm)
	5층 : 갈색사질토	삼국시대 제2발 경작유구 이랑조성층 및 제1발 경작유구 고랑내부토 (지표 하 170~190cm)
	6층 : 암갈색사질토	제1발 경작유구 이랑조성층 (지표 하 190cm 이상)

조사대상지의 층위양상은 동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갈색+암갈색사질점토(1층 : 표토, 복토층) - 암갈색사질점토(2층 : 근래 경작층) - 갈색사질토(3층 : 자연퇴적층) - 황백색사질토(4층 : 범람퇴적층, 제2발 고랑내부토) - 갈색사질토(5층 : 제2발 이랑조성층 및 제1발 고랑내부토) - 암갈색사질토(6층 : 제1발 이랑조성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1층은 표토 및 복토층으로 두께는 위치에 따라 약 60~140cm 정도 퇴적되었다. 근래 경작지 상부에 복토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상지 곳곳에 매립으로 보이는 두꺼운 교란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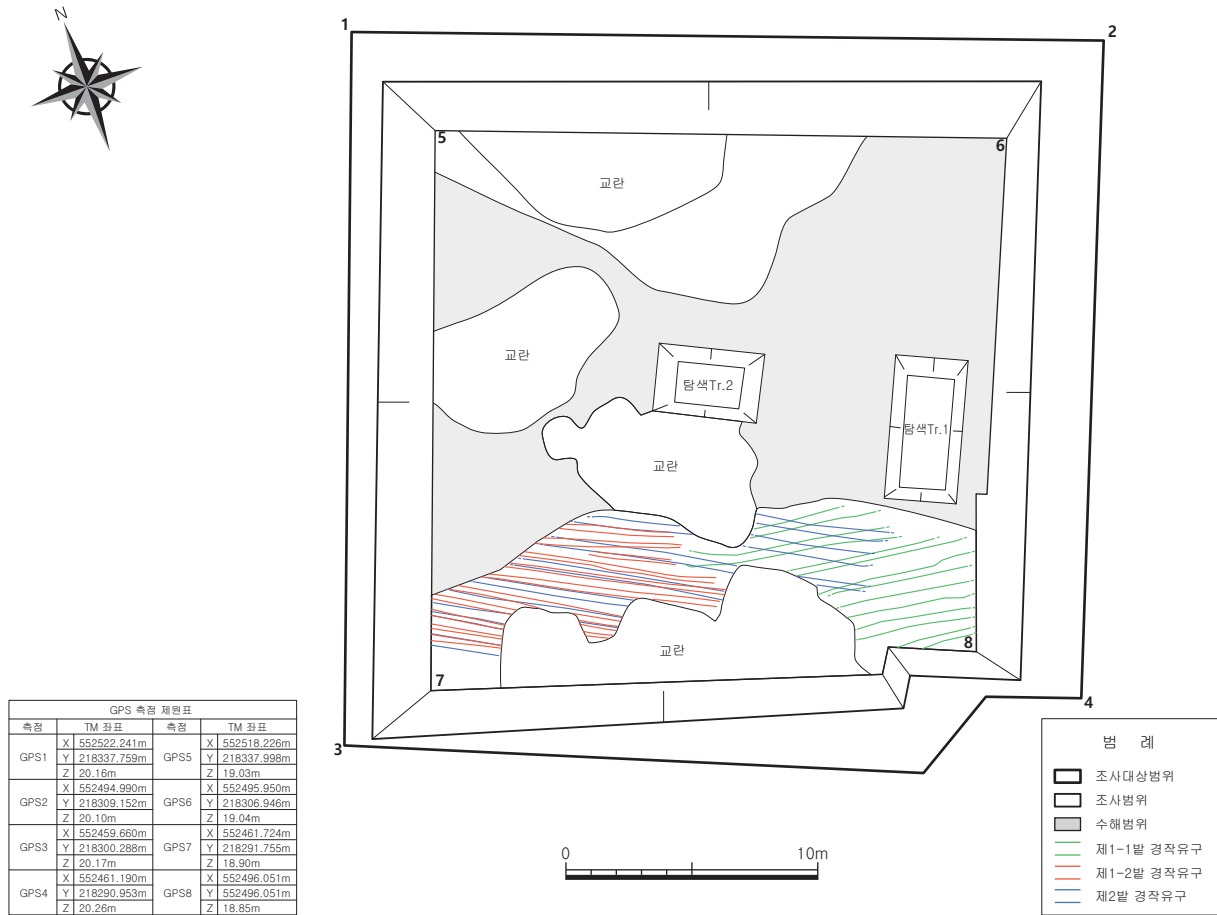
2층은 근래 밭 경작층으로 경운기 등 농기구로 기경한 흔적이 확인되며, 두께는 약 20cm 정도이다.

3층은 자연퇴적층으로 약 60cm 정도 가량 퇴적되어 있다.

4층은 하천 범람으로 유입된 층으로 최대 30cm 정도 두께이며, 삼국시대 제2발 경작유구의 고랑 내부퇴적토이다.

5층은 삼국시대 제2발 경작유구 이랑 조성층으로 갈색사질토가 20cm 정도 두께로 퇴적되어 있으며, 두께는 동에서 서로 갈수록 얇아진다. 경작과정에서 유기물 등이 뒤섞여 부분적으로 암갈색을 띠며, 하부 밭 경작유구 폐기 후 퇴적된 층이다.

6층은 하부 밭 경작유구(제1-1발 유구)의 이랑 조성층으로 지표하 190cm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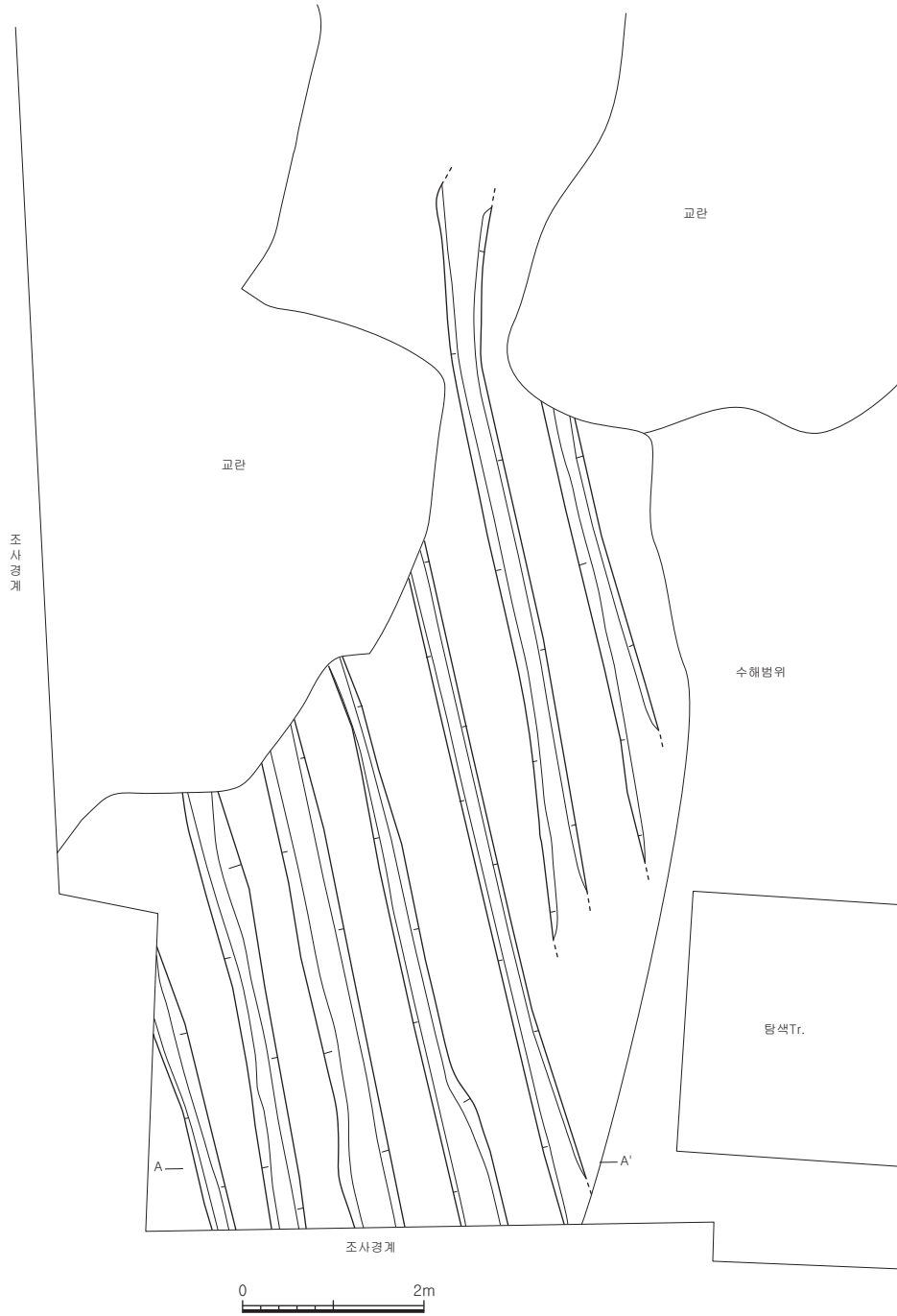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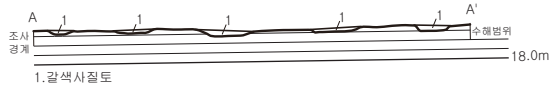


도면 4.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현장조사는 경작유구의 유실을 피하기 위해 고랑 내부토인 황백색사질토 상부를 일부 남겨두고 기계 제토하였으며, 이후 인력으로 식재흔·죽흔 등 경작 당시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경작유구의 범람퇴적층 → 기능 후 퇴적면 → 기능면 → 조성면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해발 18.3~18.5m에서 상·하부에 걸쳐 총 2개 문화층의 밭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

유구내부 및 주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 조사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미사동 411-5번지 유적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사동 411-5번지 유적의 삼국시대 제1·2발 경작유구와 유구의 해발고도 및 방향, 층의 구성요소 등이 유사하여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로 추정된다.



도면 5. 제1-1발 경작유구

〈삼국시대〉

1) 경작유구

(1) 제1-1밭

가. 유구(도면 5, 도판 2~4)

제1-1밭 경작유구는 제2밭 경작유구의 하부 20cm인 해발 18.3m 내외에서 확인되었으며, 제2밭 경작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걸쳐 노출되었다. 조사대상지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에 제1-1밭 경작유구가, 서쪽으로 제1-2밭 경작유구가 이랑의 진행방향을 달리하여 조성되었다. 밭 경작유구는 총 8줄의 이랑이 확인되었다. 유기물이 다량 포함된 암갈색사질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밭의 형태는 이랑형 밭 유구이다.

밭 경작유구의 크기는 길이 10m, 너비 6m 정도 확인되었다. 북쪽 경계는 교란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서쪽은 제1-2밭 경작유구를 경계로 두고 동쪽으로는 조사대상지 밖으로 연장된다.

이랑의 진행방향은 대체로 한강의 유로방향과 직교하는 동-서(N-84°-W)향이다. 규모는 두둑 너비 50~80cm 내외, 고랑너비 25~50cm이며, 깊이는 5~15cm이다. 단면형태는 대체로 제형이나 일부 'ㄱ'형도 확인되는데 밭의 기능상실 후 휴경과정에서 두둑상면이 유실되어 제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랑 내부는 휴경 시 자연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출토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조성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사동 411-5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제2밭 경작유구와 이랑 등의 세부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밭 경작유구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본 유적의 서쪽에 동일한 해발에 위치하는 제1-2밭 경작유구와는 이랑의 방향이 차이가 나지만 교란으로 훼손이 심하여 경작유구 간의 중복관계 파악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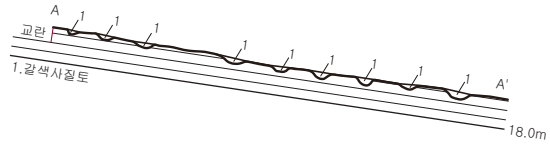
(2) 제1-2밭

가. 유구(도면 6, 도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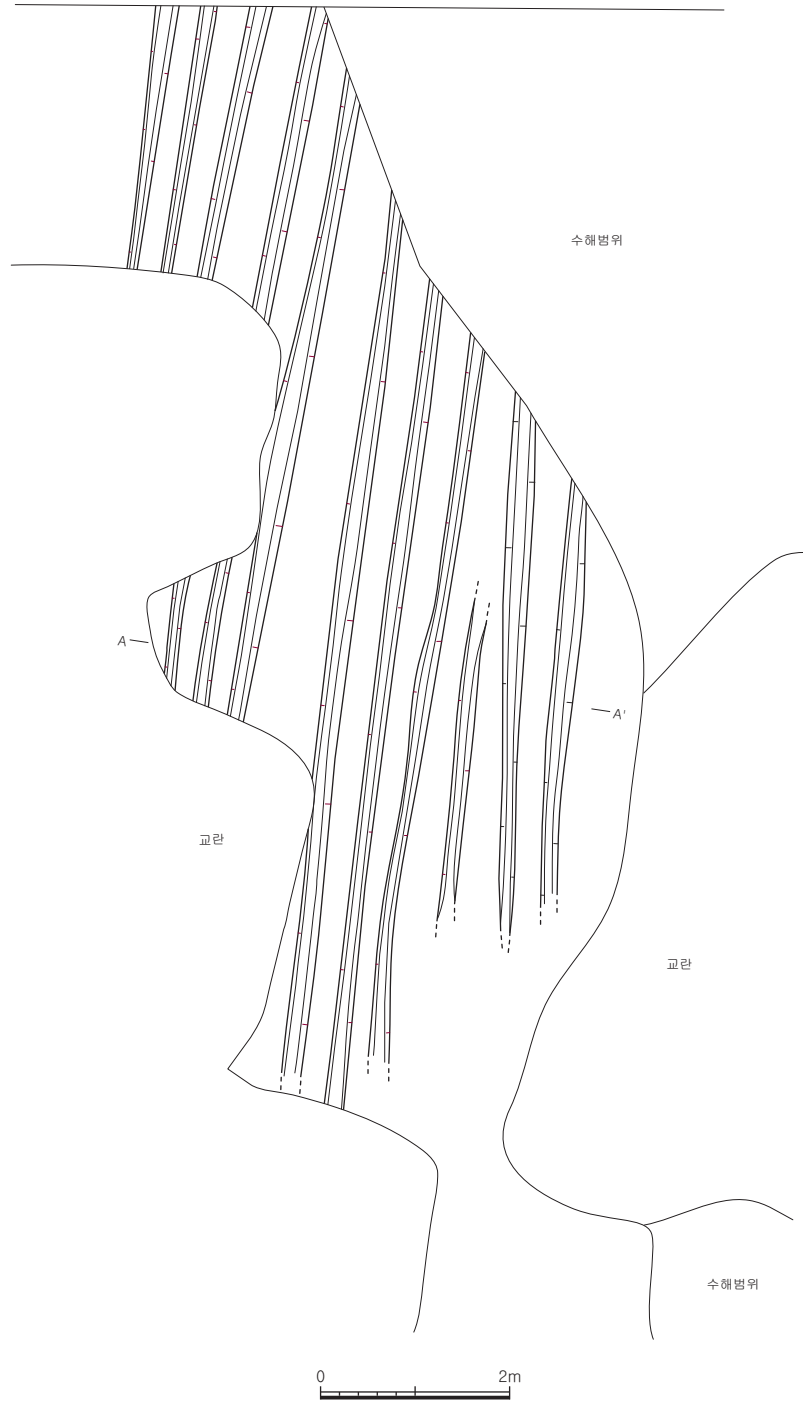
제1-2밭 경작유구는 제1-1밭 경작유구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18.3m 내외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내에서 밭 경작유구는 총 12줄의 이랑이 확인되었으며, 암갈색사질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이랑형 밭 유구에 해당한다.

밭 경작유구의 크기는 길이 10m, 너비 6m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북쪽 경계는 교란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쪽은 제1-1밭 경작유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조사 경계 밖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랑의 진행방향은 제1-1밭 경작유구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한강의 유로방향과 직교하는 북서-남동(N-60°-W)향이다. 규모는 두둑 너비 30~40cm 내외, 고랑너비 25~30cm이며, 깊이는 10cm 내



조사경계



도면 6. 제1-2발 경작유구

외이다. 이랑의 단면형태는 제형이다.

연접하는 제1-1발 경작유구에 비하여 두둑과 고랑의 너비가 좁은 편이며, 방향도 보다 남쪽을 향해 조성되었다. 밭의 규모는 동쪽으로 후대 교란범위를 사이에 두고, 제1-1발과 구분되지만 서쪽 조사경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대규모로 조성된 밭으로 추정된다.

고랑 내부는 제1-1발 경작유구와 같은 갈색사질토가 단일로 퇴적된 것으로 보아, 휴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밭 경작유구의 두둑과 고랑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유적의 양상으로 보아 제1-2발 경작유구 또한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제2발

가. 유구(도면 7, 도판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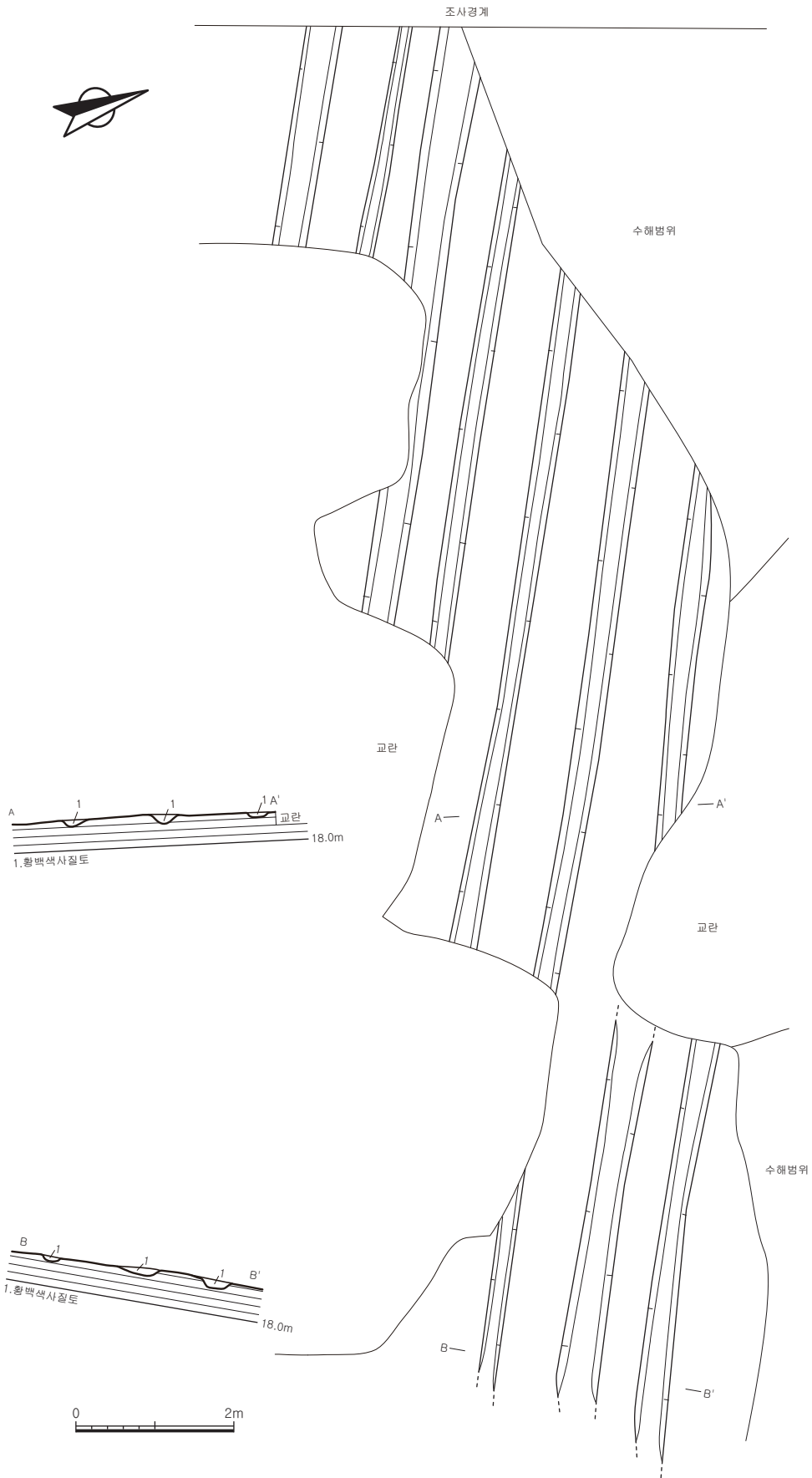
제2발 경작유구는 교란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조사구역 동쪽에서 일부 조사되었으며, 총 8줄의 이랑이 확인되었다. 해발 18.5m 내외에서 확인되었으며, 하부에 위치하는 제1-1·2발 경작유구의 고랑 내부토인 갈색사질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밭의 형태는 두둑과 고랑이 반복적으로 배치된 이랑형 밭 유구이다.

밭 경작유구의 잔존규모는 길이 21m, 너비 6m 정도이며, 교란으로 유실된 북쪽의 끝부분은 알 수 없으나, 길이가 조사대상지 범위 밖으로도 연장된다.

이랑의 진행방향은 대체로 한강의 유로방향과 직교하는 북서-남동(N-60°-W)향이다. 규모는 두둑 너비 80cm 내외, 고랑 25~50cm이며, 깊이는 10~20cm이다. 단면형태는 대체로 파상형이나, 일부 제형도 확인된다.

고랑 내부토의 양상은 이랑 상부에 황백색사질토가 단일로 두껍게 피복되었으며, 북쪽으로는 범람에 의한 수해범위가 크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한강의 범람에 의해 일시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유구의 조성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구역 동쪽에 인접한 미사동 411-5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제1발 경작유구와 이랑의 방향과 해발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시기의 밭 경작지로 추정된다.



도면 7. 제2발 경작유구

IV.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09-8번지로 송중옥씨의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에 해당한다.

하남 미사동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동쪽에 위치한 미사섬 내에 분포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졌으며⁵⁴⁾, 이후 1980년대 후반 ‘미사리 선사유적발굴조사단’이 구성되어 1987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로 미사섬 일대에 신석기시대부터 초기백제에 이르는 취락과 유물이 조사되었으며, 1992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2개 층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삼국(백제)시대 밭 경작유구가 확인되어 국내외 고고학계와 사학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⁵⁵⁾

조사결과 조사대상지가 최근 경작과 농업폐기물 매립 등으로 대부분 교란되어 동쪽 일대에서만 밭 경작유구가 총 2개 층, 3기의 경작면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밭 경작유구 내부에서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인접한 하남 미사동 411-5번지 유적과 입지조건 및 위치, 이랑의 형태 등을 비교하였을 때, 하남 미사동 411-5번지 유적 내의 삼국시대 제1밭·제2밭 경작유구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에서 확인된 밭 경작유구와 주변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들과 비교 검토하여 당시 농경과 조성시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지환경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미사섬은 한강 중류에 위치한 럭비볼 모양의 하중도(河中島)로 원래 섬의 동쪽은 한강 본류가 흐르고 서쪽은 지류가 흘렀으나 서쪽의 지류는 서울올림픽 조정경기장의 건설로 인해 현재는 완전히 막혔다. 미사섬의 크기는 남북 4km, 동서 1.5km 가량이다.⁵⁶⁾

미사섬의 층위양상은 하부에 니질의 모래층과 상부의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적이 확인되는 지점은 상부 모래층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지환경은 배수가 유리하여 논보다는 밭을 조성하기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의 홍수가 아닐 경우에는 경작지의 피해 또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충적지에 위치하는 경작유적과는 차이가 있다.

미사섬 내에서 확인된 경작유적은 한강에 인접하거나 멀게는 450m까지 떨어져 조성되어 있다. 하중도의 특성상 지형에 고도차가 크지 않아 자연제방 전사면에서 중앙부 이후까지 경작지 확보에 용이하여 대규모의 밭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미사섬 일원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밭 경작

54) 김원룡, 1961, 「광주 미사리 들문토기유적」, 『역사학보』 14.

55) 미사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56) 이재천, 1977, 「한강 하류 범람원 지형에 대한 연구 -팔당에서 잠실까지의 지형변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경기도박물관, 2002, 「3. 한강의 지형 및 지리」, 『한강』.

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경작유적의 해발고도는 대부분 17.5~21m 이내에 분포한다. 또한 미사동 일대에서 경작 유적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홍수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와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섬 일대는 하상퇴적물인 모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가 용이하여 일반적인 강우나 소규모 범람과 같은 자연재해에는 경작지 훼손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의 범람으로 일시에 홍수퇴적물이 경작지 전면을 피복할 경우 당시 경작면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사섬 일대의 경작유적은 자연지형 특성상 밭 경작유구의 범람 이전 또는 폐기 시의 경작지의 형태, 재배작물의 식물규산체 등이 잘 보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하남 미사동 경작유적의 입지 조건

연번	유적명	입지	한강과 거리(m)	유적 고도(m)
1	하남 미사리 유적	대하천 (하중도)	10 이내	19.2~19.4
2	하남 미사동 체육시설부지 내 유적		300	.
3	하남 미사동 124-1번지 내 유적		450	20.5
4	하남 미사동 376-2번지 내 유적		340	17.5~18
5	하남 미사동 376-2번지 외 1필지 내 유적(시굴)		360	18~18.5
6	하남 미사동 407번지 내 유적		360	18~18.5
7	하남 미사동 570-3번지 내 유적		200	21
8	하남 미사동 575-2번지 내 유적		270	상층(19.1), 하층(18.5)
9	하남 미사동 165-3번지 내 유적		200	18.6~19.5
10	하남 미사동 183번지 내 유적		240	18.6~19.5
11	하남 미사동 375-4번지 내 유적		350	17.8~18.4
12	하남 미사동 411-2·5·6번지 내 유적		150	18.4~19.2
13	하남 미사동 411-1번지 외 1필지 내 유적		150	18.0~18.8

2.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의 속성별 특징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경작유적은 총 8개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밭 경작유적에서 확인된 세부 속성인 유구층위, 이랑방향, 두둑 너비, 고랑 너비, 식물규소체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강의 유로방향은 남동-북서이며, 삼국시대 밭 경작유적의 이랑조성 방향은 한강의 유로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남동-북서와 직교하는 형태인 동-서 방향으로 대별된다. 북서-남동 방향으로 조성된 밭들은 대부분 미사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으로 조성된 경작유구들은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2개 층 이상이 조사된 유적들을 살펴봤을 때, 하부에 해당하는 유구가 동-서로 조성되었으며, 상부에 해당하는 유구들이 남-북 또는 북서-남동으로 한강의 유로방향과 일치하였다.

【표 4】 삼국시대 경작유적 세부속성

유적명	내용	유구명	이랑방향	해발 (m)	두둑 너비(cm)		고랑 너비(cm)		식물 규소체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미사리 유적	백제상층	남-북 (N-8°-E)	19.2 ~ 19.4	70	75	25		·	
	백제하층	동-서 (N-77°-W)		70	80	70	80		
미사동 575-2번지 내 유적	백제상층	북서-남동 (N-45°-W)	19.1	50	55	50	55	·	
	백제하층	북서-남동 (N-40°-W)	18.5	40	45	40	45		
미사동 체육시설부지 내 유적	4문화층	북서-남동 (N-21°-W)	·	43	60	26	38	·	
	5문화층	북서-남동 (N-43°-W)		28	40	38	65		
	6문화층	북서-남동 (N-40°-W)		45	45	30	30		
미사동 570-3번지 내 유적	밭유구1	북서-남동 (N-48°-W)	21	60	68	60	65	·	
	밭유구2	북동-남서 (N-58°-E)	21	50	56	50	55		
미사동 407번지 내 유적	상부밭유구	동-서 (N-87°-W) (E-W)	18.5	50	60	40	50	·	
	하부밭유구	북서-남동 (N-45°-W)	18	60	80	30	40		

유적명	내용	유구명	이랑방향	해발 (m)	두둑 너비(cm)		고랑 너비(cm)		식물 규소체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미사동 411-2·5·6 번지 내 유적	삼국 제1발	동-서 (E-W)	18.4	50	80	40	50	벼, 기장	
	삼국 제2발	북서-남동 (N-78°-W)	18.6	100		30	40	.	
	삼국 제3발	북동-남서 (N-20°-E)	18.6	70		30		벼, 기장	
미사동 411번지 의 1필지 내 유적	삼국	동-서 (E-W)	18.8	40	50	35	40	.	
미사동 409-8번지 내 유적	삼국 제2발	북서-남동 (N-60°-W)	18.5	80		25	50	.	
	삼국 제1-1발	동-서 (N-84°-W)	18.3	50	80	25	50	.	
	삼국 제1-2발	북서-남동 (N-60°-W)	18.4	30	40	25	30	.	

이는 범람과정에서 미사섬 내의 위치에 따라 퇴적방향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람 이후 토성이 안정된 방향에 맞추어 경작지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밭 경작유구의 경계나 구획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인접한 유구의 이랑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유력자에 의한 대규모의 농장형태로 경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이랑의 세부속성 중 두둑 대 고랑비로 보아 삼국시대 미사동 경작유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두둑 대 고랑비가 1:1인 경우와 두둑이 고랑보다 약 2배가 넓은 2:1의 비율을 갖는 경우이다. 1:1의 비율인 경우는 총 14개소의 경작유구 중 10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2:1은 4개소의 경작유구에서 확인된다. 2: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경작유구 중 미사동 체육시설부지내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북쪽에 위치하는 경작유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의 형태가 확인되며, 남쪽으로 갈수록 1:1의 형태를 띠고 있다.

3. 조성시기

미사섬에서 확인된 밭 경작유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기홍⁵⁷⁾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미사리 삼국시대 2개 층의 밭 경작유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밭 경작유구가 갖고 있는 이랑의 크기와 고랑의 높낮이, 이랑의 방향, 밭 규모의 특징과 같은 속성과 발굴된 삼국시대 농경구의 문헌자료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각각의 밭 경작유구를 4~5세기와 6세기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 농경에서 철제 농경

57) 김기홍, 1995, 「미사리 삼국시대 밭 유구의 농업」, 『역사학보』 146.

구와 우경의 도입으로 인해 농경의 상경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미사섬 내에서 밭 굴조사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추가적인 연구진척은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시행된 소규모 국비지원 밭굴사업에 의하여 일부 면적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존 미사리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밭 경작유구 외에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밭 경작유구가 확인된 하남 미사동 375-4번지 유적과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밭 경작유구가 확인된 하남 미사동 165-3번지·183번지 등이 추가로 조사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각 시기별 밭 경작유구의 입지조건 및 세부속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⁵⁸⁾

지금까지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유구의 입지조건·두둑과 고랑의 세부속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밭 경작유구는 인접한 하남 미사동 411-5번지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밭 경작유구와 조성방향·층위·이랑의 속성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밭 경작유구는 식량 생산유적으로 출토유물의 빈도수가 낮으며, 수확이후 식량 등의 수확물과 짚, 줄기 등 부산물이 소비지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유구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물질적 증거가 적다. 또한 본 조사대상지인 409-8번지는 후대 교란으로 유구의 범위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밭 경작유구가 갖고 있는 해발고도, 조성층위, 두둑과 고랑의 세부속성 비교를 통해 각 시대별 특징 중 지역적 특성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미사섬이란 동일지역 내에서도 섬의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는 밭 경작유구에서 조사된 이랑의 규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물의 파종 공간이나 재배작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진 두둑과 고랑 중 파종처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두둑이 고랑보다 넓은 경우 효율상 고랑보다는 두둑을 재배공간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키가 큰 벼나 보리 등 벧과류 식물보다는 콩이나 팥 등 두류를 재배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사동 375-4번지, 미사동 411-2·5·6번지 등 주변유적에서 진행된 식물규소체 분석결과 벼, 보리, 기장 등이 검출되어 미사섬 내에서 육도작과 잡곡 농사가 삼국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농경상을 복원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와 더불어 문헌, 자연과학적 분석 성과가 축적되길 기대한다.

58) 한국문화재단, 2018, 『6. 하남 미사동 165-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183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375-4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2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5번지 유적, 하남 미사동 411-6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밭굴조사 보고서 I-인천·경기 1』.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②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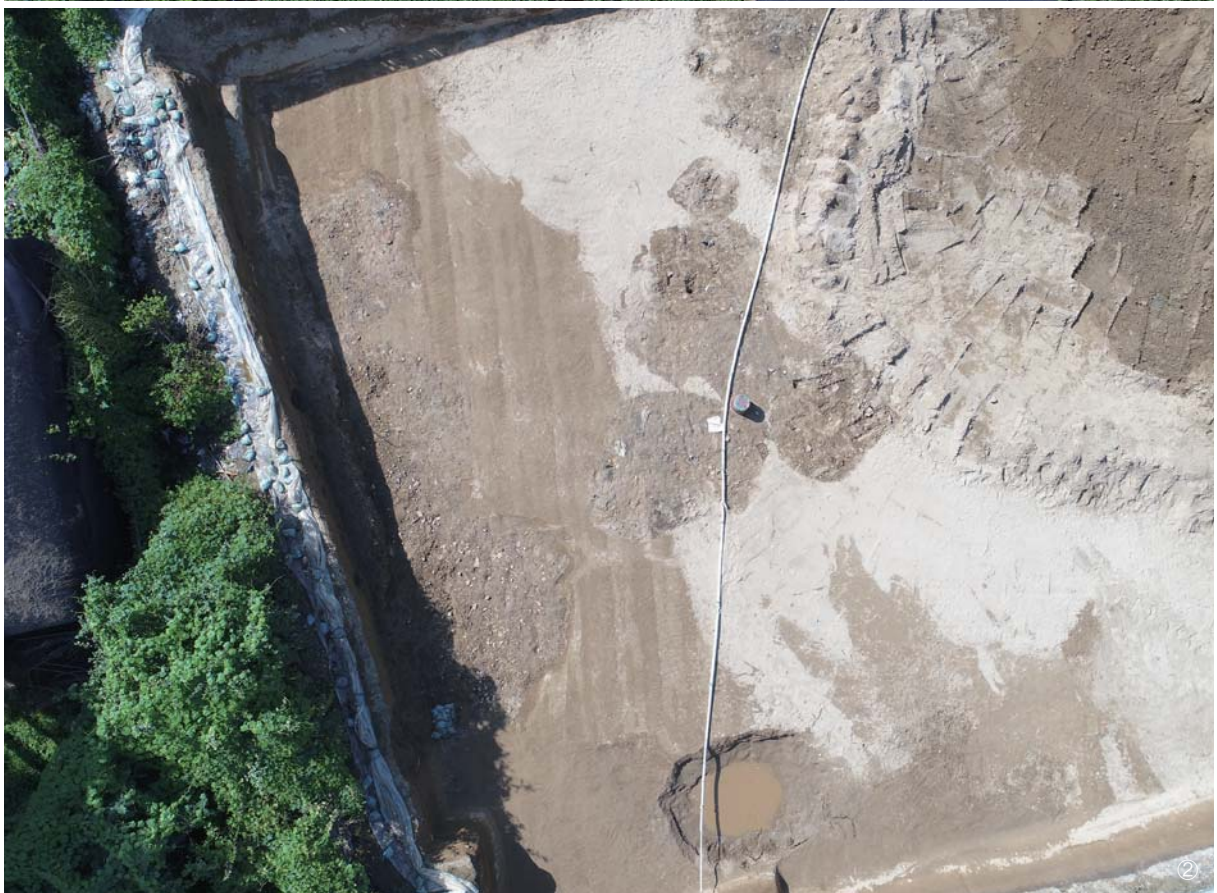
도판 2. 제1-1·1-2발 경작유구 조사전



도판 3. 제1-1·1-2발 경작유구 조사중



도판 4. 제1-1 · 1-2발 경작유구(①조사후, ②~④세부, ⑤토층)



도판 5. 제2발 경작유구 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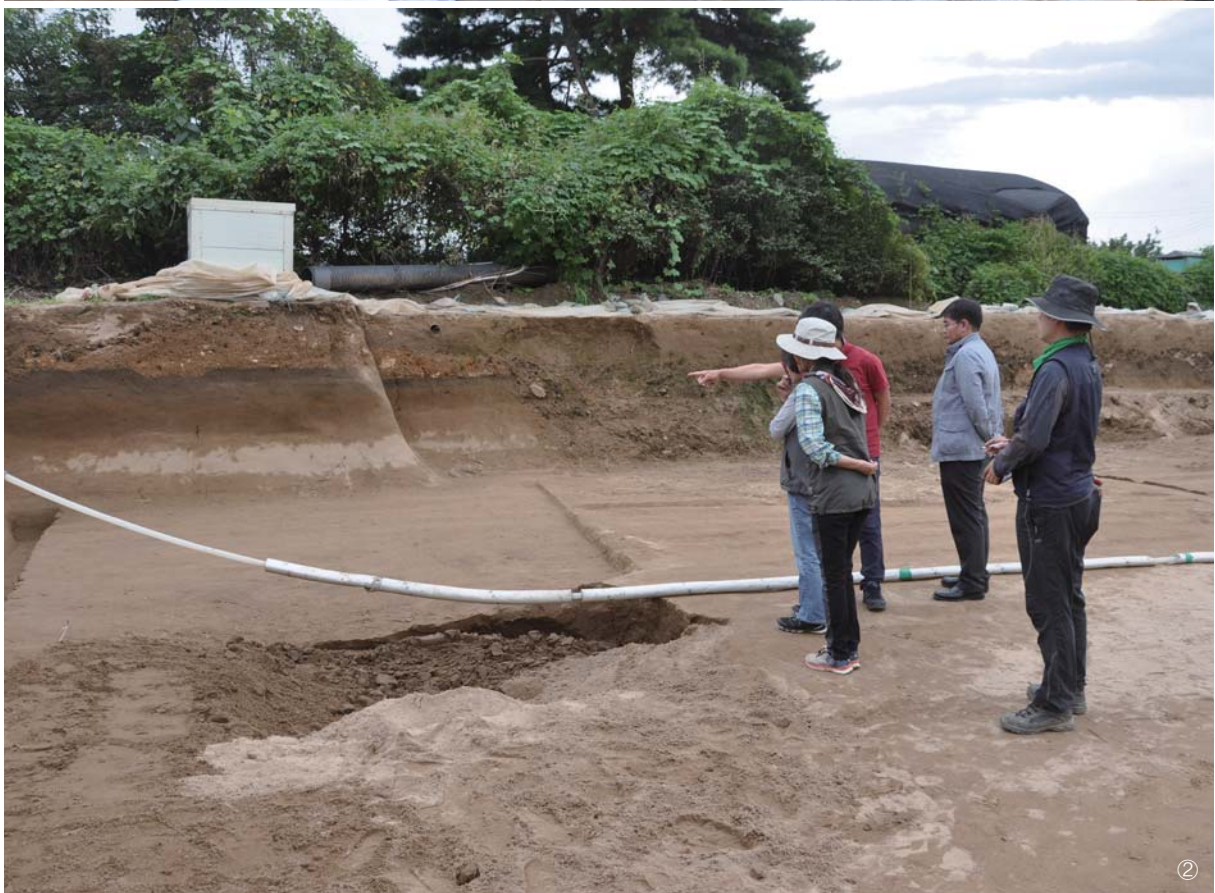
도판 6. 제2발 경작유구 조사중



도판 7. 제2발 경작유구(①조사후, ②③세부, ④⑤토층)



도판 8. 탐색트렌치(①전경, ②토층)



도판 9. 학술자문회의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發刊日	2019年 9月 25日	
發刊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編輯者	정훈진·이건충·정홍선·오정영·박자연				
調査緣由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정훈진·김미현·오정영·최성수				
遺蹟所在地番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409-8번지				
調査面積	839m ²				
遺構種別	時 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밭 경작유구	삼국	3	·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32-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2-11
1. 자연·지리적 환경	132-11
2. 역사·고고학적 환경	132-12
III. 조사내용	132-21
1. 입회조사.....	132-21
2. 발굴조사	132-22
1) 조사진행	132-22
2) 유적의 층위	132-22
3) 조사내용	132-24
〈고려시대〉	132-24
(1) 저수지	132-24
〈조선시대〉	132-63
(1) 1호 수혈유구	132-63
(2) 2호 수혈유구	132-64
(3) 1호 적심	132-65
(4) 1호 건물지	132-65
(5) 주혈군	132-71
IV. 조사성과	132-75

도면목차

도면 1. 경상도의 지형도 내 조사지역	132-11
도면 2. 「해동지도」의 울진현(1751)	132-13
도면 3. 「大東輿地圖」에서 조사지역 위치(1861)	132-15
도면 4. 일제강점기의 조사지역 위치(1915)	132-16
도면 5.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132-18
도면 6. 조사지역 범위도(S=1:6,000)	132-19
도면 7. 조사지역 지적도(S=1:1,200)	132-20
도면 8. 유구배치도(S=1:200)	132-23
도면 9. 저수지 및 주변 유구배치도(S=1:200).....	132-26
도면 10. 저수지 기와폐기층 평면·토층도(1/60)	132-27
도면 11. 저수지 석축렬 평면·단면도(1/60)	132-29
도면 12. 저수지 출토유물(1·2)	132-31
도면 13. 저수지 출토유물(3·4)	132-33
도면 14. 저수지 출토유물(5·6)	132-34
도면 15. 저수지 출토유물(7·8)	132-35
도면 16. 저수지 출토유물(9·10).....	132-36
도면 17. 저수지 출토유물(11·12)	132-37
도면 18. 저수지 출토유물(13·14)	132-39
도면 19. 저수지 출토유물(15·16)	132-40
도면 20. 저수지 출토유물(17·18)	132-41
도면 21. 저수지 출토유물(19·20)	132-42
도면 22. 저수지 출토유물(21·22)	132-43
도면 23. 저수지 출토유물(23·24)	132-45
도면 24. 저수지 출토유물(25·26)	132-46
도면 25. 저수지 출토유물(27·28)	132-47
도면 26. 저수지 출토유물(29·30)	132-48
도면 27. 저수지 출토유물(31·32)	132-49
도면 28. 저수지 출토유물(33·34)	132-51
도면 29. 저수지 출토유물(35·36)	132-52
도면 30. 저수지 출토유물(37·38)	132-53
도면 31. 저수지 출토유물(39·40)	132-54
도면 32. 저수지 출토유물(41·42)	132-55

도면 33. 저수지 출토유물(43·44)	132-57
도면 34. 저수지 출토유물(45·50)	132-58
도면 35. 저수지 출토유물(46~49)	132-59
도면 36. 저수지 출토유물(51~53)	132-60
도면 37. 저수지 출토유물(54·55)	132-61
도면 38. 1호 수혈유구 평면·토층도(1/40)	132-63
도면 39.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6)	132-63
도면 40. 2호 수혈유구 평면·토층도(1/40)	132-64
도면 41.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7)	132-64
도면 42. 1호 적심 평면·단면도(1/40) 및 출토유물(58)	132-65
도면 43. 1호 건물지 평면·토층도(1/60) 및 출토유물(59~65, 68)	132-67
도면 44. 1호 건물지 출토유물(66·67·69)	132-70
도면 45. 주혈 1~3 평면·토층도(1/40)	132-71
도면 46. 주혈 4~14 평면·토층도(1/40)	132-73
도면 47. 주혈 15~29 평면·토층도(1/40)	132-74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항공사진(①화성리 성지 내 원경, ②저수지 추정범위 전경)	132-81
도판 2. 조사대상지 항공사진(①조사전 전경, ②조사후 전경)	132-82
도판 3. 작업 광경(①), 유적 토층(②동벽 전경, ③동벽 세부, ④남벽)	132-83
도판 4. 저수지(①기와 폐기상태 전경, ②기와 폐기상태 세부)	132-84
도판 5. 저수지(①·②기와 폐기층 토층, ③~⑤판축 토층, ⑥·⑦습지 토층 퇴적양상)	132-85
도판 6. 저수지(①·②남벽 토층, ③남벽 석축 세부, ④~⑦남벽 판축 토층)	132-86
도판 7. 저수지(①기와 폐기상태 노출 전경, ②~④기와 폐기양상 세부)	132-87
도판 8. 저수지(①~③기와 폐기양상 세부, ④·⑤기와 노출 세부)	132-88
도판 9. 저수지(①석축 노출 전경, ②~④석축 축조상태 및 세부)	132-89
도판 10. 저수지(①석축 노출 전경, ②~④석축 노출 세부)	132-90
도판 11. 저수지(①습지 깊이, ②습지 토층, ③~⑤습지 전경 및 세부, ⑥입수구 전경)	132-91
도판 12. 저수지 출토유물(1~7)	132-92
도판 13. 저수지 출토유물(8~15)	132-93
도판 14. 저수지 출토유물(16~23)	132-94
도판 15. 저수지 출토유물(24~30)	132-95
도판 16. 저수지 출토유물(31~38)	132-96
도판 17. 저수지 출토유물(39~45)	132-97
도판 18. 저수지 출토유물(46~54)	132-98
도판 19. 저수지 출토유물(55), 1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 ②조사중 전경, ③토층, ④세부, ⑤조사후 전경, ⑥내부 주혈 토층) 및 출토유물(56)	132-99
도판 20. 2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 ②조사중 전경, ③토층, ④조사후 전경, ⑤세부) 및 출토유물(57), 1호 적심(①조사전 전경, ②노출 전경)	132-100
도판 21. 1호 적심(①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58), 1호 건물지(②조사전 전경, ③조사중 전경, ④~⑥토층)	132-101
도판 22. 1호 건물지(①조사후 전경, ②~④노출 세부, ⑤내부 주혈)	132-102
도판 23. 1호 건물지(①~⑧내부 주혈, ⑨~⑬유물출토상태)	132-103
도판 24. 1호 건물지 출토유물(59~69)	132-104
도판 25.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 ④~⑥주혈2, ⑦~⑨주혈3, ⑩~⑫주혈4, ⑬~⑮주혈5)	132-105
도판 26.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6, ④~⑥주혈7, ⑦~⑨주혈8, ⑩~⑫주혈9, ⑬~⑮주혈10, ⑯~⑰주혈11)	132-106
도판 27.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2, ④~⑥주혈13, ⑦~⑨주혈14, ⑩~⑫주혈15,	

⑬~⑮주혈16, ⑯~⑰주혈17)	132-107
도판 28.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8, ④~⑥주혈19, ⑦~⑨주혈20, ⑩~⑫주혈21, ⑬~⑮주혈22, ⑯~⑰주혈23)	132-108
도판 29.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24, ④~⑥주혈25, ⑦~⑨주혈26, ⑩~⑫주혈27, ⑬~⑮주혈28, ⑯~⑰주혈29)	132-109

일러두기

1. 보고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1996년 기준 : 도자각 7°15'서편향)
2.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의 경우 1/60을 기본으로 하였고, 유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축소비를 달리하였고 개별 도면에 별도로 축척표시를 하였다. 유물의 경우에는 토기·자기는 1/3, 기와는 1/4을 원칙하고, 축소 비율이 다를 경우 별도의 축척표시를 하였다.
4. 유구의 토층 土色 및 토기류의 色調는『新版 標準土色帖(日本彩色研究所, 1997)을 기준으로 하였다.
5. 한 유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경우 도면은 조사순서에 따라 〈1차〉, 〈2차〉로 표기하였다.
6. 유물설명에 일련번호는 유구출토 유물번호, 유물도면번호, 유물도판번호와 일치한다.
7. 유물의 설명을 표로 할 경우 잔존규모는 괄호 안에 수치를 넣어 표현하였다.

I. 조사개요

조사지역은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입회조사¹⁾에서 확인된 고려~조선 시대 건물지 관련 석렬 및 주혈 등의 생활유구가 확인된 곳이다. 입회조사 결과에 따라 이영근씨(건축주)의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이 있었고,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한국문화재재단의 국비지원 발굴조사 대한 대행조사 의뢰<조사연구1팀-1434호(2017.06.23)>를 받아 문화재청의 허가(제2017-0839호, 2017.06.30)를 득하여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2017년 7월 10일에 착수하였다. 조사진행 과정에서 본 유적은 고려시대 저수지와 조선시대 생활유적 등의 중층유적으로 밝혀져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8월 1일 개최된 1차 학술자문회의²⁾를 통해 관련 변경허가(2017.08.09)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고려시대의 저수지 1기와 조선시대의 수혈유구 2기, 적심 1기, 건물지 1동과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2017년 9월 5일 조사결과에 대한 2차 학술자문회의³⁾가 개최되었다. 자문위원 의견으로 확인된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잘 마무리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조사 완료 후 해당 부지의 공사는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저수지와 석축이 미조사된 곳으로 연결되고 있어 노출된 유구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조사지역 남단에 있는 석축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복토 등의 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조사단에서는 유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저수지 석축에 대한 보강과 복토를 한 후 2017년 9월 5일(현장조사일수 38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문화재청의 조치통보(발굴제도와-11089, 2017.09.21)를 받아 조사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복토)작업을 2017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당시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승 규(영남문화재연구원 원장 / 現 가야문화연구원 상임이사)

책임조사원 : 하 진 호(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정 창 희(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現 한국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 사 원 : 박 상 은(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 現 연구기획과장)

이 석 범(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 現 조사연구부장)

준 조 사 원 : 장 기 명(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現 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보 조 원 : 김 기 홍(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現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연구원)

박 정 현(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現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1) 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2) 1차 학술자문회의 위원 :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김구균(삼한문화재연구원장)

3) 2차 학술자문회의 위원 :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김구균(삼한문화재연구원장)

발굴조사된 유물의 정리와 복원은 상기조사원들이 담당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의 관리와 유물의 관리는 연구기획부 이미정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발굴조사의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는 권주성(경영지원부장)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의 경영지원부 직원들이 수고하여 주었다.

이번 보고서 발간작업은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영남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에서 주도하였으며, 각 부문별 분담업무에 대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총 관 : 하진호
연구기획 : 박상은
유물실측·탁본 : 이경아
제 도 : 박상은·석경화
유물사진촬영 : 박상은·장기명
도면편집 : 박상은
도판편집 : 장기명
본 문 : I. 조사개요 : 하진호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장기명
 III. 조사내용 : 박상은·장기명
 IV. 조사성과 : 박상은
교 정 : 박상은
교 열 : 하진호

끝으로,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발굴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업주(이영근)와 국비발굴 대행기관인 한국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⁴⁾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이 속한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군과 영양군, 남쪽은 영덕군, 북쪽은 강원도 삼척시와 지리적 경계를 이룬다.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9°04′, 북위 36°38′~37°08′에 위치한다.

울진군의 전체적인 지형은 郡의 서쪽에 형성된 높은 산지가 동쪽의 동해에 면해 발달해 있어 산지와 해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울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정맥 동사면은 비교적 험한 곡간의 산악지대로서 해안에 인접한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나 100~300m 사이의 구릉지역에 촌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울진군의 산세는 낙동정맥의 주맥이 울진군의 서쪽에 치우쳐 뺏어 내리고 있어 서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발 5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울진군 전역에 형성된 동정맥은 중앙산맥과 해안산맥으로 구분된다. 중앙산맥은 태백산(1,560m)에서 남으로 향하여 영양, 청송, 언양을 지나 낙동강 하구의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의 주맥이다. 중앙산맥에 해당되는 주요 산으로는 통고산, 일월산, 백암산, 대행산, 향로봉, 주왕산, 보현산, 가지산, 고현산, 천왕산 등 해발 1,000m 내외의 주봉들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산맥은 백암산-금장산-통고산-오미산-응봉산 등의 높은 산들로 이어진다. 해안산맥은 중앙산맥 동쪽에 해안을 따라 연속되는 구릉성 산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울진읍 부근에서 시작하여 울산만에 이른다. 이 산맥에 속하는 주요한 산은 현종산, 칠보산, 승운산, 고계산, 운제산, 삼대봉, 동대산, 염포산 등 해발 400~800m의 산들이 있으며 이들 구릉지 사이에는 좁은 곡저평야가 발달해 있다.

수계는 낙동정맥 동사면이 서사면에 비해 급경사를 이루고, 한반도 지반 용기 축인 백두대간이



도면 1. 경상도의 지형도 내 조사지역

4)蔚珍郡, 2001, 『蔚珍郡誌』.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蔚珍白巖山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동해에 치우쳐 발달해 있어 상대적으로 하상구배가 급하고 유로가 짧은 특징이 있다. 군내 하천의 대부분은 깊은 하곡상을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같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울진군 지역은 서해나 남해 지역에 비해 하천 중·하류에 넓은 충적평야가 적은 편이다. 단지 왕피천 하류의 수산리·울진 및 평해 남대천 하류에 소규모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안지방에는 해발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여, 광천과 매화천의 지류를 거느린 왕피천을 비롯하여 울진읍 중앙을 흐르는 南大川, 북면을 지나는 부구천, 기성면을 지나는 정명천, 평해읍을 지나는 남대천 등의 여러 하천들이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이들 하천이 통과하는 중류와 하류에는 소규모의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취락과 농경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울진군은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동편해 있어 하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하천 대부분은 감입곡류를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하천 주류에서 해안까지 해발 100~200m의 구릉지들이 발달해 있어 충적평야의 발달 조건이 불리하다. 울진군의 해안 충적평야는 울진 남대천과 왕피천 하류 그리고 황보천과 평해 남대천 하구 부근에 국지적으로 발달해 있을 뿐이다. 동해로 유입되는 짧은 하천들은 이 구릉지를 개척하여 산지에서 나오는 부근에 선상지, 중류에서 하안단구와 곡류절단 그리고 하단 부근에는 좁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울진군 일대의 지질을 살펴보면 우백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변 지질은 화강편마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울진군 일원에는 편암류와 이들 암질을 관입하거나 분출한 형태로 분포하는 화산암류가 불규칙적으로 분포한다. 이는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지질로서, 울진군의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분포해 있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퇴적암 혹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이 선캠브리아기 후기의 화강암 관입에 의해 원래 성질이 편암이나 편암류로 변성된 변성암류이다.

2. 역사·고고학적 환경⁵⁾

울진에 대한 옛 명칭은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우진야(宇珍也)로 기록⁶⁾되어 있으며,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에는 우추(于抽)로 명시되어 있다. 울진이라는 명칭은 郡誌에 따르면, 삼국 통일기에 김유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우진에 당도하니 산천이 울창하고 진귀한 보배가 많음을 보고 군명을 울진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울진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잠시 고구려의 우진야현으로 복속되었

5) 蔚珍郡·安東大學校, 1991, 『蔚珍의文化財』.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심현용, 2006, 「통합이전 울진지역의 역사개관」, 『울진문화』 제20호, 울진문화원.

6) 『三國史記』 권35 잡지4 지리2 명주울진군조 및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하슬라주조.

『高麗史』 권58 지12 지리3 동계강릉부울진현조.

『世宗實錄』 권153 지리지강원도울진현조.

『新東國輿地勝覽』 권45 강원도울진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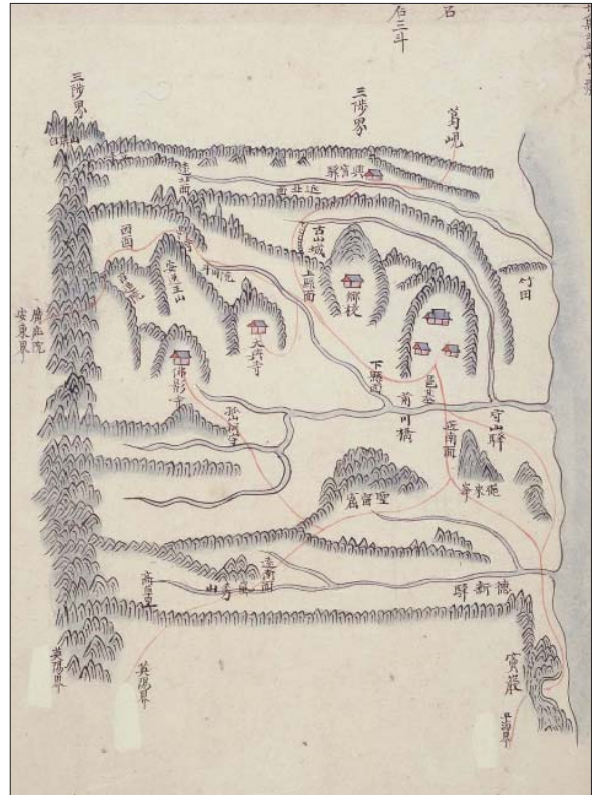
으나⁷⁾, 신라 지증왕 6년(505)에 삼척에 卅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어⁸⁾ 신라가 5세기 말~6세기 초에 동해안의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진군에 분포한 고분군의 조사에서 덕신리 고분군⁹⁾은 5~6세기, 덕천리 고분군¹⁰⁾은 5~7세기, 봉평리 고분군¹¹⁾과 매화리 고분군¹²⁾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읍남리 고분군¹³⁾, 오산리 고분군¹⁴⁾, 노음리 고분군 등에서 5~7세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울진이 당시 신라의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신문왕 5년(685)에 영토를 9주로 분할할 때 명주(溟洲, 지금의 강릉)는 북쪽으로 통천, 서쪽으로 안동시 임하와 청송, 남쪽으로 청하까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경덕왕 16년(757년)에 전국의 卅郡縣 명칭을 개칭할 때 우진야현(于珍也縣)에서 울진군(蔚珍郡)으로 개칭하고 영현으로는 해곡현(海曲縣)을 두고 그대로 명주의 관할 하에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현으로 강등되어 현령이 파견되었으나, 충렬왕 때에 이곳 출신 황서가 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다녀와서 평해군(平海郡)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울진의 읍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강원도 삼척도호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세조 12년(1466년) 진관체제의 확립에 따라 강릉진관으로 이관되었다.

근대인 1914년 군면 통폐합시 평해군은 폐지되고 그에 속해있던 8개면은 울진군에 편입되어 울진군 7개면과 합하여 오늘날의 울진군으로 되었다.

조사지역 주변 유적으로는 고분군과 지석묘, 패총 등 다수의 고고학적 유적과 조선시대 분묘유적·민속신앙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연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 중기 구석기 유적인 북면 주인리



도면 2. 「해동지도」의 울진현(1751)

7) 『三國史記』 권 35 잡지 4 지리 2 명주 울진군조에는 ‘于珍也縣’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하슬라주 조와 권32 잡지1 제사약사조에는 ‘于珍也郡’으로 기록되어 있다.

8)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6년조.

9) 안동대학교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 유적』.

10) 聖林文化財研究員,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聖林文化財研究員,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I』.

11) 安義政·蔡奎敦, 1992, 『蔚珍郡 鳳坪里 石槨墓 收拾調査 報告』, 『古代研究』 3집, 古代研究會.

12) 안동대학교박물관, 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울진 덕신리 유적 시굴조사』.

1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청량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14) 심현용, 2003, 『울진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1)』, 『울진문화』 17, 울진문화원, p.128.

석수동¹⁵⁾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B.C.12만년~B.C.4만년으로 추정되는 주먹도끼, 굽개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후포면 후포리 유적¹⁶⁾이 있다. 이 유적은 1983년 경북 울진군 후포리의 후포항 동쪽에 접해 있는 등대산 정상부에서 확인된 집단매장유적으로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지름 4m 안팎의 부정형의 수혈로서 최소 40인 이상의 2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녀 인골이 출토되었다. 세골장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로는 시신을 덮을 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180여 점의 석부와 관옥, 석재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토기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춘천 교동 유적·통영 옥지도에서 출토된 석부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죽변면 죽변리 일원에서는 용기문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¹⁷⁾, 이와 관련된 문화층이 2009년 10월 (재)삼한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죽변리 1-25번지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용기문토기, 침선문토기, 채색토기, 무문양토기, 석촉, 결합식 낚시 바늘, 낚시추, 석부, 석도, 굽개 등 100여 점의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¹⁸⁾.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지석묘가 보고되어 있는데¹⁹⁾, 북면 고목2리 지석묘군, 북면 나곡2리 지석묘, 근남면 진북리 지석묘, 북면 신화리 지석묘, 북면 부구리 지석묘, 근남면 덕신리 무문토기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에서 주거지 등이 조사 보고되었다²⁰⁾. 이러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주로 군내에 흐르는 하천변에서 확인된다²¹⁾. 이와 같이 울진지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활발한 사회분화가 일어나 하나의 소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한의 우중국²²⁾을 역사학계에서는 대체로 울진으로 비정하고 있다. 다만 울진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분묘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죽변면 죽변리 패총유적은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삼국시대 고분유적도 다수 확인이 되었는데 덕신리 고분군, 봉평리 고분군, 매화리 고분군, 읍남리 고분군, 마산리 고분군, 노음리 고분군, 덕천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외 524년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며, 통일신라 말 창건되어 조선 초까지 법통을 유지한 傳靑巖寺址도 최근 조사 보고되었다²³⁾.

울진 죽변 화성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산내성(화성리성지)은 1939년 『蔚珍郡誌』蔚珍邑 城郭條에 신라 말 왜구에 의해 폐허가 되자 고려 초 장산성에서 내륙으로 산내성에 축성하여 이읍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²⁴⁾. 특히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저수지의 추정범위는 성지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향후 죽변 화성리 유적은 화성리성지의 구조와 지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이 될 것

15) 홍영호·김상태, 2002, 「경북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구석기유적」 『한국구석기학보』 3집, 한국구석기학회.

16) 國立慶州博物館, 1991, 『蔚珍厚浦里遺蹟』.

17) 국립경주박물관, 2003, 「학술조사」 『年報(2002년)』, pp.44~50.

18)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 竹邊里 遺蹟』.

19) 울진군·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울진의 문화재』, 양지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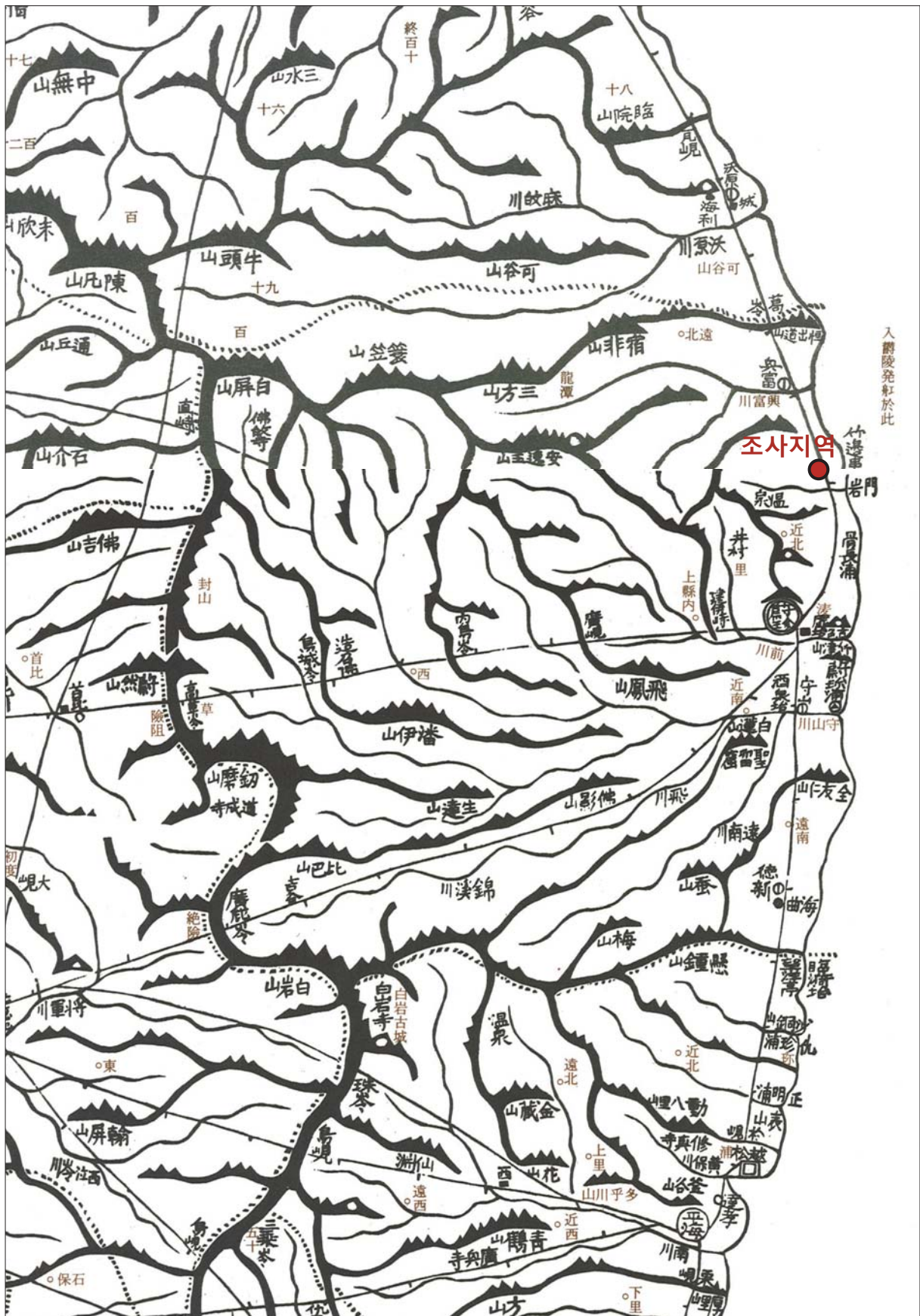
20)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집」.

21) 심현용, 2002, 「동해안지방 지석묘 시론-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22) (優中國) 『三國志』 권30 위서30 동이전 진·변한조.

23) 蔚珍郡·慶州大學校博物館, 2008, 『蔚珍 九山里 傳靑巖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4) 박기혁, 2016, 「울진의 성지」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도면 3. 「大東輿地圖」에서 조사지역 위치(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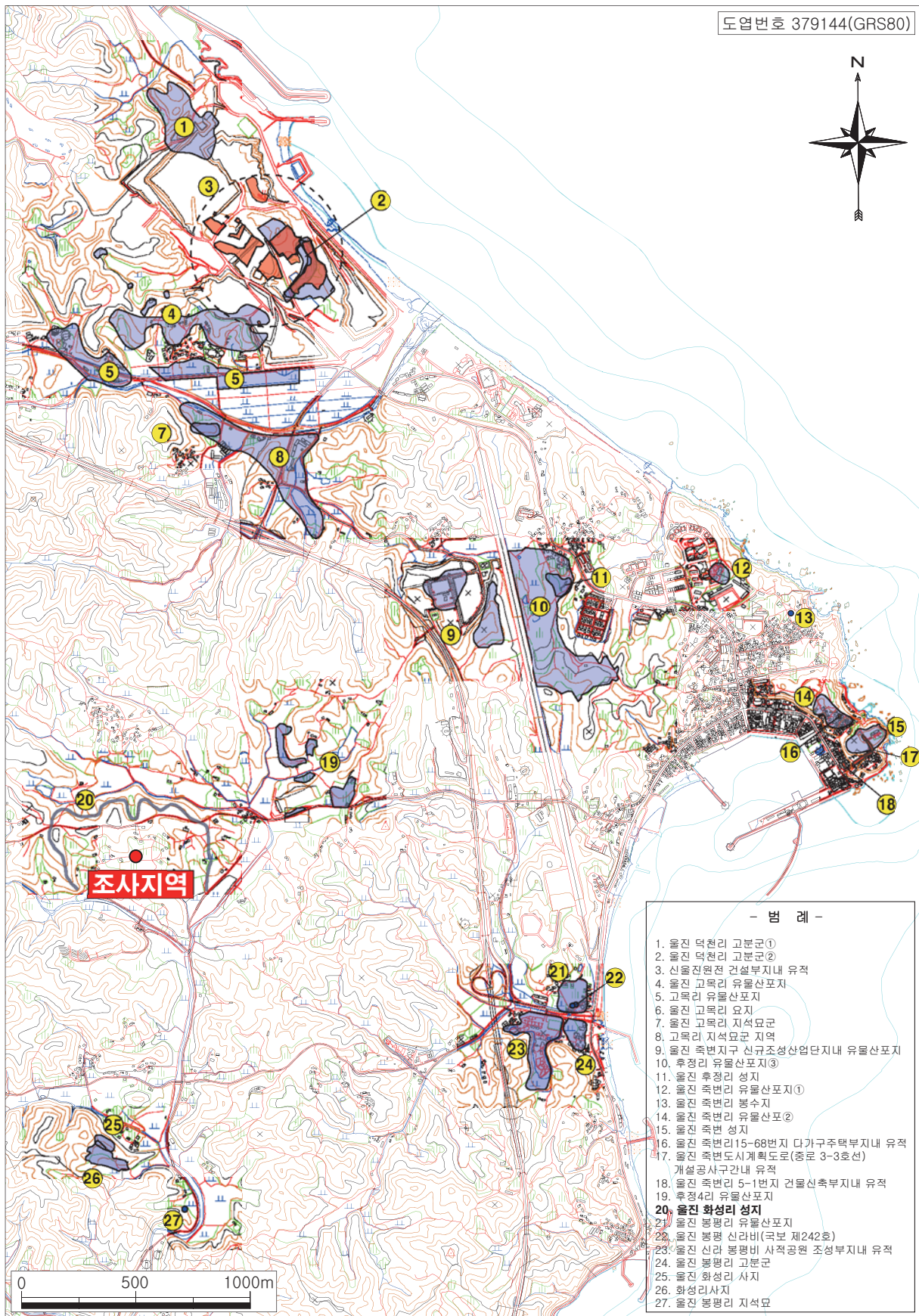


도면 4. 일제강점기의 조사지역 위치(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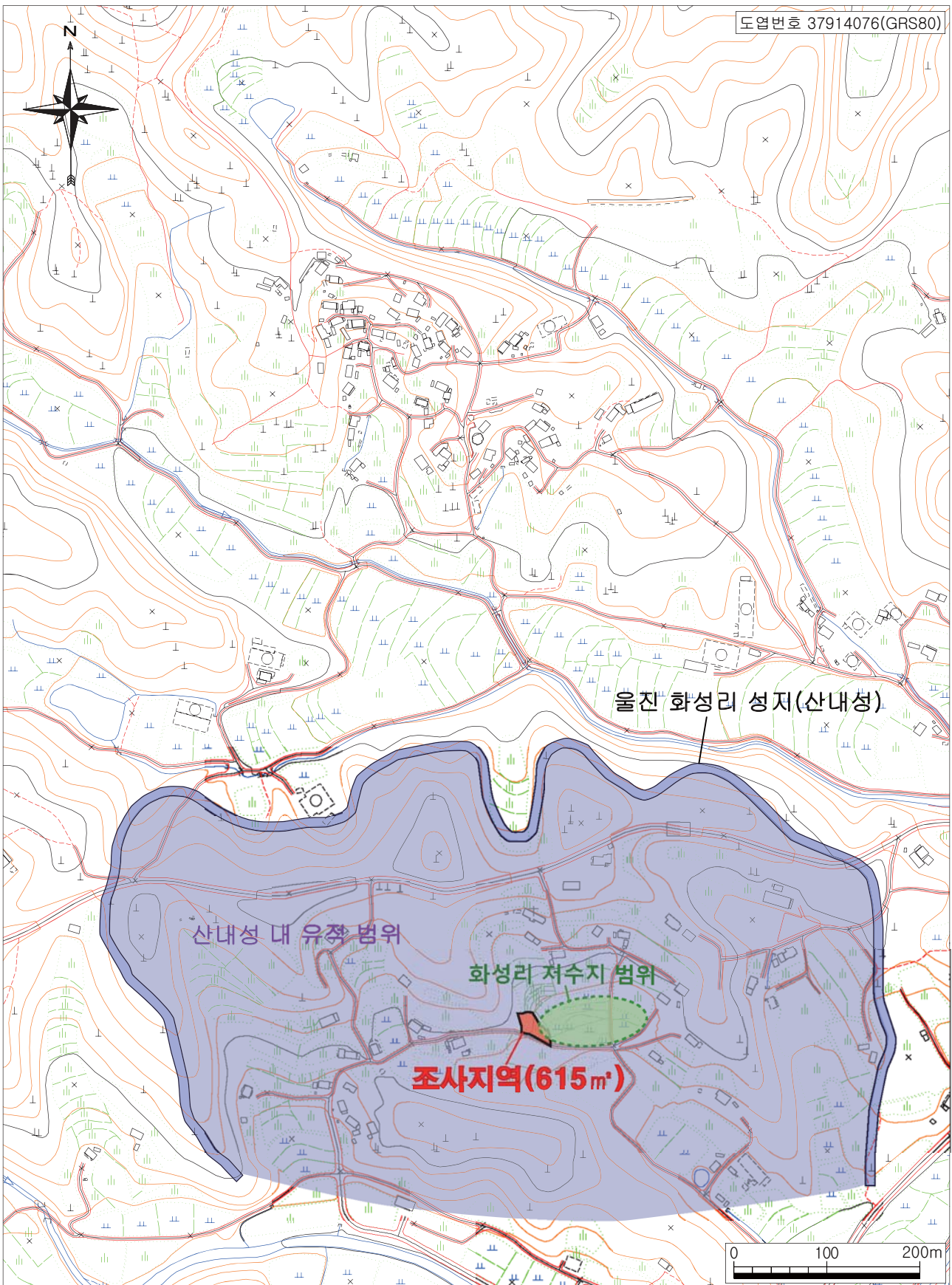
으로 기대된다.

【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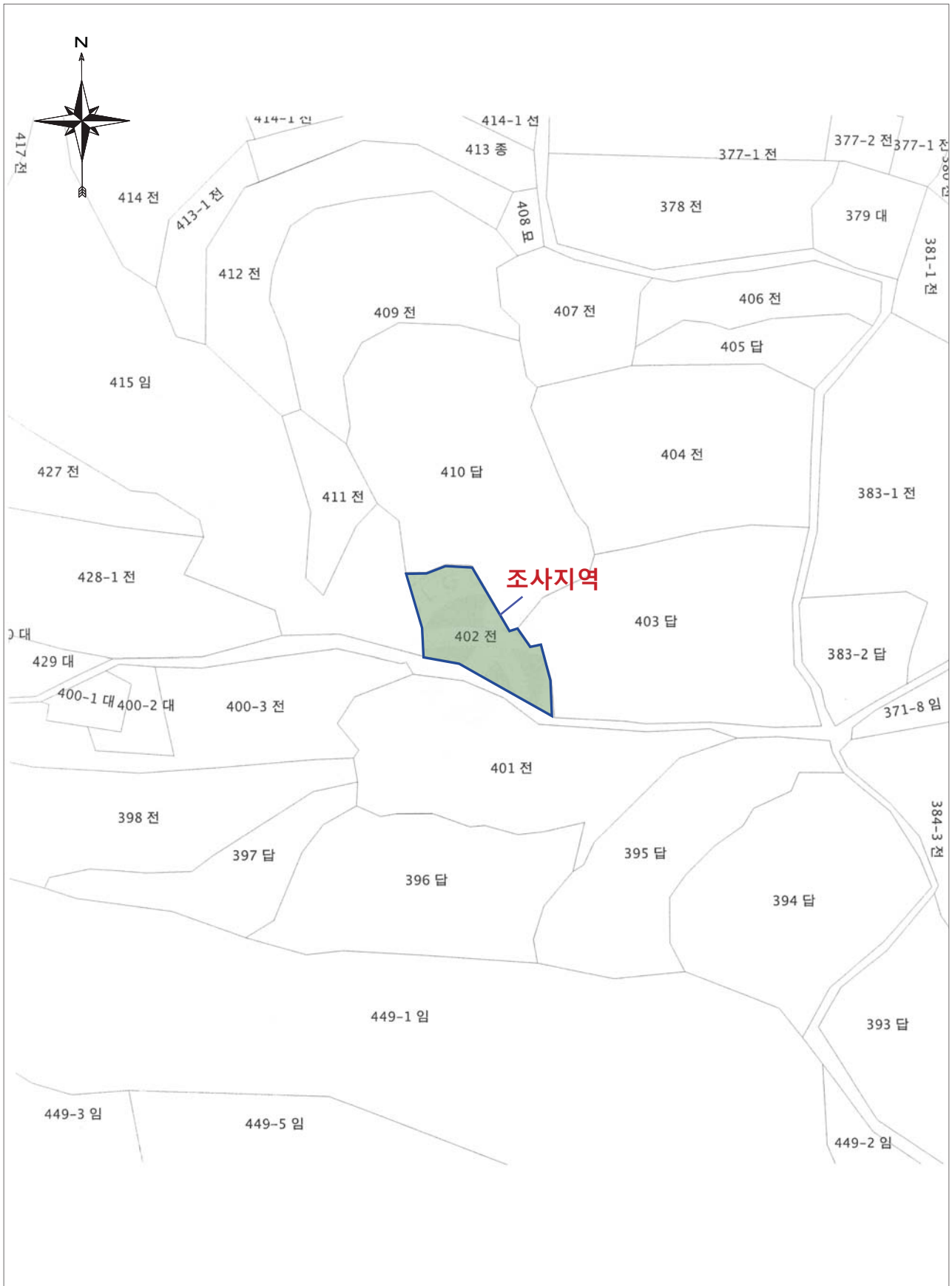
연번	유 적 명	시 대	성 격	비 고
1	울진 덕천리 고분군①	삼국시대	분묘	
2	울진 덕천리 고분군②	삼국시대	분묘	
3	신울진원전 건설부지내 유적	삼국시대	분묘	
4	울진 고목리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5	고목리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6	울진 고목리 요지	조선시대	요업	
7	울진 고목리 지석묘군	선사시대	고인돌	
8	울진 고목리 지석묘군 지역	선사시대	고인돌	
9	울진 죽변지구 신규조성 산업단지 부지내 유물산포지	선사시대	유물산포지	
10	울진 후정리 유물산포지③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11	울진 후정리 성지	삼국시대	산성	
12	울진 죽변리 유물산포지①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3	울진 죽변리 봉수지	조선시대	봉수	
14	울진 죽변리 유물산포지②	선사시대	유물산포지	
15	울진 죽변 성지	삼국시대	산성	
16	울진 죽변리 15-6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선사시대	유물산포지	
17	울진 죽변도시계획도로(중로 3-3호선) 개설공사구간내 유적	선사~조선시대	기타	
18	울진 죽변리 5-1번지 건축신축부지내 유적	선사시대	주거유적	
19	울진 후정4리 유물산포지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	
20	울진 화성리 성지	고려시대	산성	
21	울진 봉평리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22	울진 봉평 신라비(국보 제242호)	삼국시대	비갈	
23	울진 신라 봉평비 사적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24	울진 봉평리 고분군	삼국시대	분묘	
25	울진 화성리 사지	고려~조선시대	사지	
26	화성리 사지	고려시대	사지	
27	울진 봉평리 지석묘	선사시대	고인돌	



도면 5.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도면 6. 조사지역 범위도(S=1:6,000)



도면 7. 조사지역 지적도(S=1:1,200)

Ⅲ. 조사내용

1. 입회조사²⁵⁾

입회조사는 2017년 3월 29일 (재)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

입회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로 화성4리 일원에 위치하는 ‘화성리 성지’ 남서쪽 성벽 사면에서 20m 정도 떨어 밭으로 개간된 상태이다.

트랜치는 입회지가 구릉 사면 끝자락에 해당하므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는 트랜치 총 3개를 설치하였다. 토층은 구릉쪽인 서쪽 가장자리 일대는 풍화암반층이 경작토 아래에서 확인되어 원지형이 훼손되었고 동쪽으로는 갈색사질점토층 아래 암갈색사질점토층(자기편+기와편+소토알갱이 포함, 고려-조선시대 문화층), 풍화암반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조사결과, 트랜치 1~3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석열 및 주혈 등의 생활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고려-조선시대 대접 저부 등 청자편과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입회조사 결과에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유구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삽도 1. 입회조사 트랜치 배치도 및 트랜치 전경(①Tr 1, ②Tr 2)

25) 삼한문화재연구원의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7,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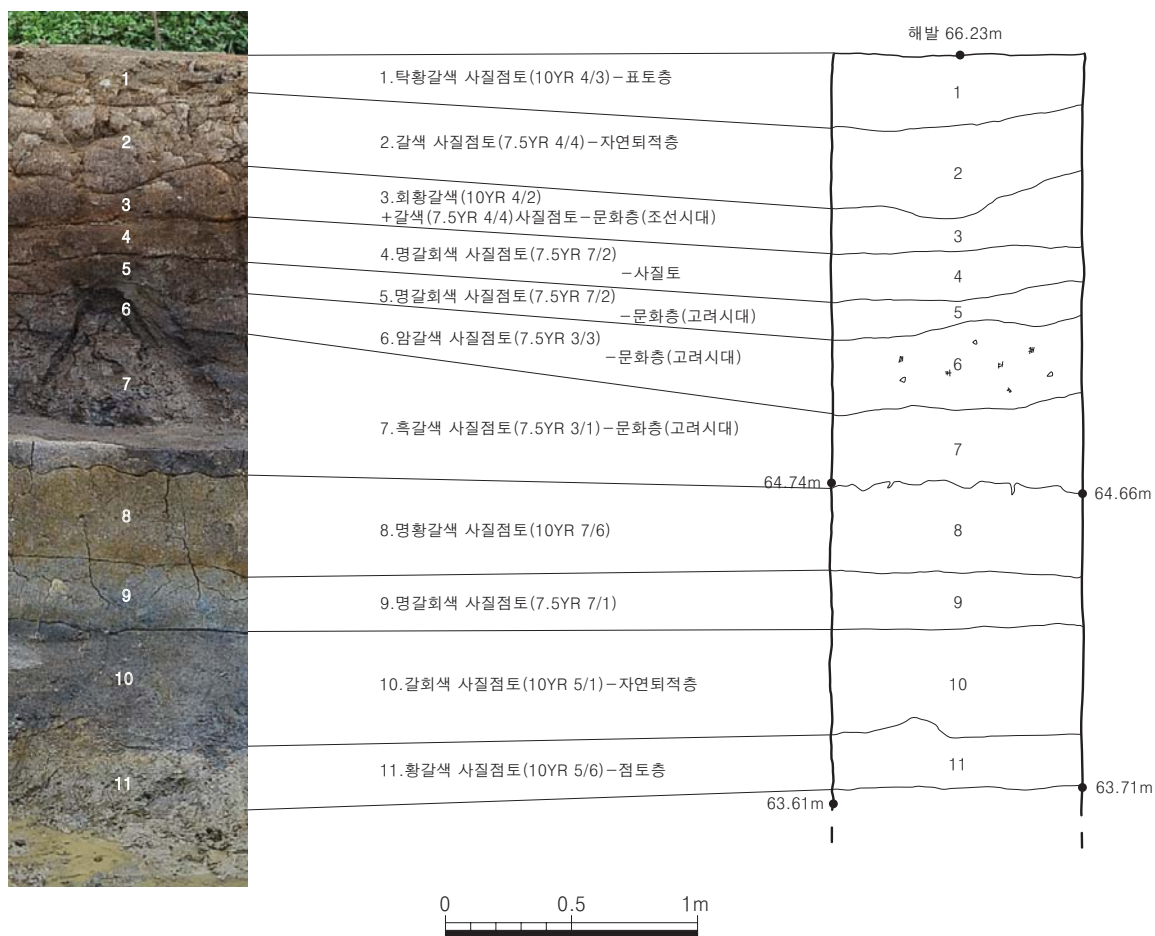
2. 발굴조사

1) 조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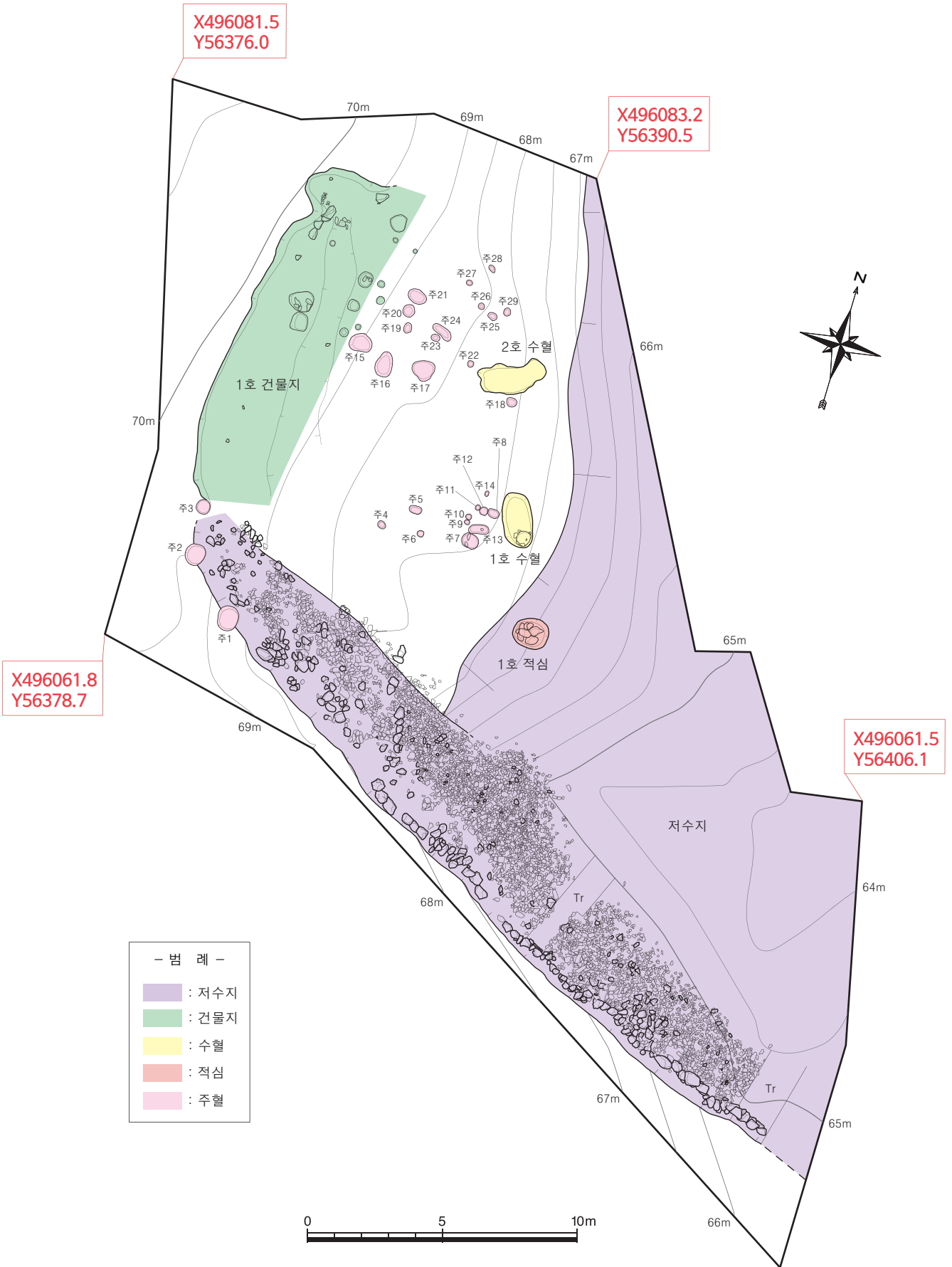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사전 자료조사 및 착수 → 조사전 사진촬영 → 조사대상지 구획 → 퇴적토 제거 및 반출 작업 → 토층 및 유구확인조사 → 유구내부조사 → 조사단계별 사진촬영 → 실측(평·단면도, 토층도, 유구배치도 등) 및 조사기록 → 보충조사 및 현장정리 → 조사완료 및 복구, 철수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유적의 층위

유적의 동쪽 표준토층에서 확인된 층위는 크게 6개의 층으로 파악된다. 조사지역의 층위를 살펴보면 상부에서부터 표토층(1층)과 자연퇴적층인 갈색(Hue 7.5YR 4/4) 사질점토층(2층)이 형성되어 있고, 하층에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출토되는 조선시대의 문화층인 회황갈색(Hue 10YR 4/2)+갈색(Hue 7.5YR 4/4) 사질점토층(3층)이 확인된다. 그 아래에는 명갈회색(Hue 7.5YR 7/2) 사질점토



삽도 2. 발굴조사지역 표준토층도



도면 8. 유구배치도(S=1:200)

및 사질토(4층)가 퇴적되어 있다. 5~7층은 고려시대 저수지가 확인되는 문화층으로 명갈회색(Hue 7.5YR 7/2)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Hue 7.5YR 3/3), 흑갈색(Hue 7.5YR 3/1) 사질점토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7층은 가장 아래 저수지의 고정 범위로 추정되는 상시 침수층이 확인되는 양상이다. 7층 아래부터는 생토층으로 명황갈색(Hue 10YR 7/6, 7.5YR 7/1), 갈회색(Hue 10YR 5/1), 황갈색(Hue 10YR 5/6)의 사질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3) 조사내용

발굴조사지역은 해발 66~71m 지점이며 능선 말단부와 평탄 지대가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형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경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상층 유구인 조선시대 생활유구들은 회황갈색+갈색 사질점토인 3층에서 확인되고 하층 유구인 고려시대의 저수지는 명갈회색 사질점토인 5층과 암갈색 사질점토의 6층, 흑갈색 사질점토인 7층에서 확인된다.

조사된 상층 유구는 조선시대 전기의 수혈유구 2기, 적심 1기, 건물지 1동과 다수의 주혈이 있고, 하층 유구는 석축렬과 기와폐기층, 습지로 이루어진 저수지가 있으며 고려시대 후기에 존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총 69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의 수혈유구와 적심에서 암키와 3점, 건물지에서 병, 종지, 대접 등의 자기와 옹편, 암키와 등 총 11점이 출토되었고, 고려시대 저수지에서 청자 2점과 단경호, 호, 파수, 시루 등의 토기류 4점, 수키와, 암키와 49점 등 총 55점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1) 저수지

가. 유구(도면 9~11, 도판 4~11)

저수지는 유적의 남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저수지는 석축시설 및 기와 폐기층과 저수지 습지층으로 구성된다. 석축은 조사지역 남쪽경계를 따라 일렬로 확인되며, 북동쪽 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려간 기와편 폐기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기와편 폐기 범위가 끝나는 경계지점에 습지층(암올리브회색 니질점토)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석축을 통해 저수지의 규모를 추정하면 (현)길이 30.0m 정도이며 최상단 벽석에서 습지층 상면까지 높이 2.5m 정도이다. 내부에 퇴적된 폐기 기와층의 규모는 길이 28.5m, 너비 4.4m, 두께 3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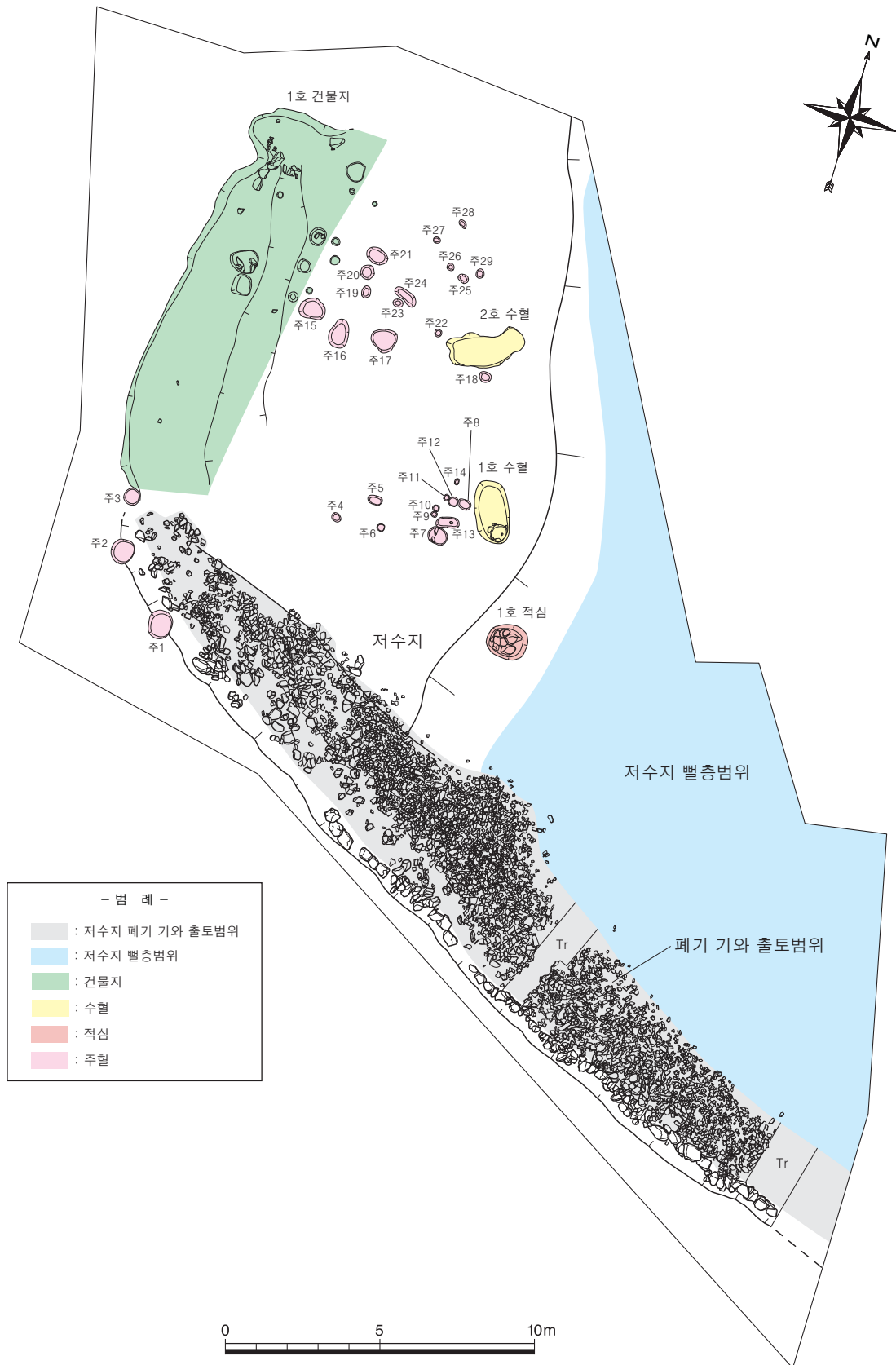
조사지역 내에서 파악되는 저수지의 구조는 능선의 말단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집수하기 위한 구상의 입수구(入水溝)가 확인되며 그 아래에는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다. 입수구의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별도의 시설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수지의 토층은 최하단층에서 암올리브회색 니질점토로 구성된 습지층과 암올리브회색+황갈색 니질점토층이 확인된다. 전자 층은 저수지에서 상시적으로 수위가 유지되는 구간이며, 후자 층은 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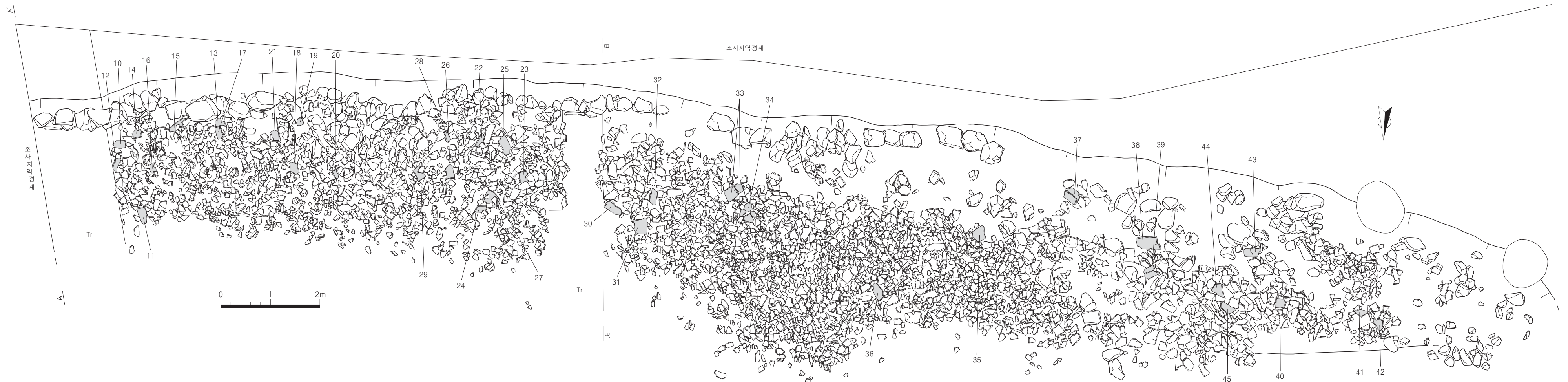
와 건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위가 변동된 구간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 회백색 사질점토층과 밝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이후 판축기법으로 다진 정지층이 형성되면서 그 상면에서 석축이 축조된다.

석축은 저수지의 동쪽 부분이 가장 잘 남아 있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축조 순서는 판축기법으로 기반층을 정지한 후 굴착하여 수직으로 벽석을 쌓고 하단을 계단상으로 쌓아 보강하였다.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동쪽 석축을 살펴보면 30~80cm 내외의 크고 작은 할석으로 종평적과 횡평적을 혼용하여 4~5단 정도 수직으로 축조한 후, 그 아래로 30~40cm 내외의 할석을 비스듬한 경사면에 맞춰 계단상으로 들여쌓기하였다. 서쪽 석축은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일부 구간에서 경사면을 따라 들여쌓기한 계단상의 벽석이 일부 확인된다. 또 2~3단 정도 잔존한 수직으로 축조한 석축에서 최하단석을 의도적으로 들여쌓기한 양상이 확인된다.

석축이 축조된 이후 기와편이 다량으로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혼입되었다. 해당 층에서만 층위의 색상 및 성격을 달리하면서 기와편이 다량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폐기가 진행된 것 아니라 일괄적 폐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의 폐기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저수지의 기능은 어느 정도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위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층과 갈색 사질점토층이 수평적으로 자연 퇴적되었다. 저수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편이 대다수이며 자기류는 드물다. 유물은 잔존 상태가 양호한 기와를 기준으로 규격을 살펴보면 암키와의 크기는 길이 36.0~42.0cm, 너비 26.0~32.0cm, 두께 1.8~2.6cm 정도이며, 수키와의 크기는 길이 39.0~42.5cm, 너비 16.0~18.0cm, 두께 1.8~2.6cm 정도이다. 문양은 수키와의 경우 대부분 무문이며, 암키와는 태선문이나 어골문이 드물고 장판의 복합문이 대부분이다. 또 출토양이 많지 않지만 수키와의 구성에서 미구기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저수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접시와 매병으로 추정되는 기종으로 완형은 아니지만 굽 형태가 해무리굽을 탈피한 점과 상감 장식이 베풀어진 점을 통해 대략적인 연대 추정이 가능하며, 저수지의 초축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수지 바닥의 습지층에서 출토된 기와 등의 유물과 상층에서 폐기된 다수의 기와와 함께 출토된 청자편을 통해 그 존속 시기는 고려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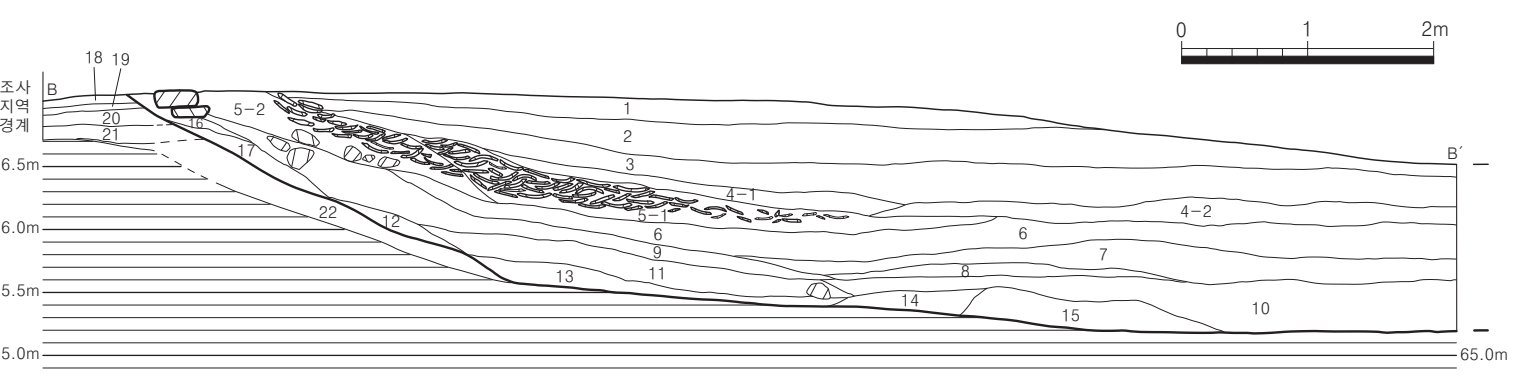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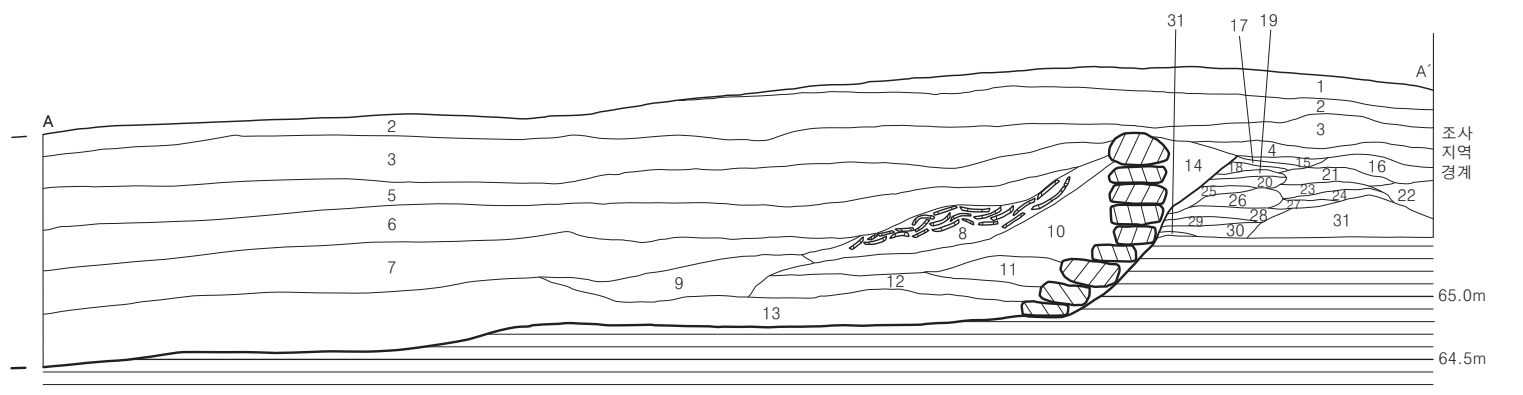
도면 9. 저수지 및 주변 유구배치도(S=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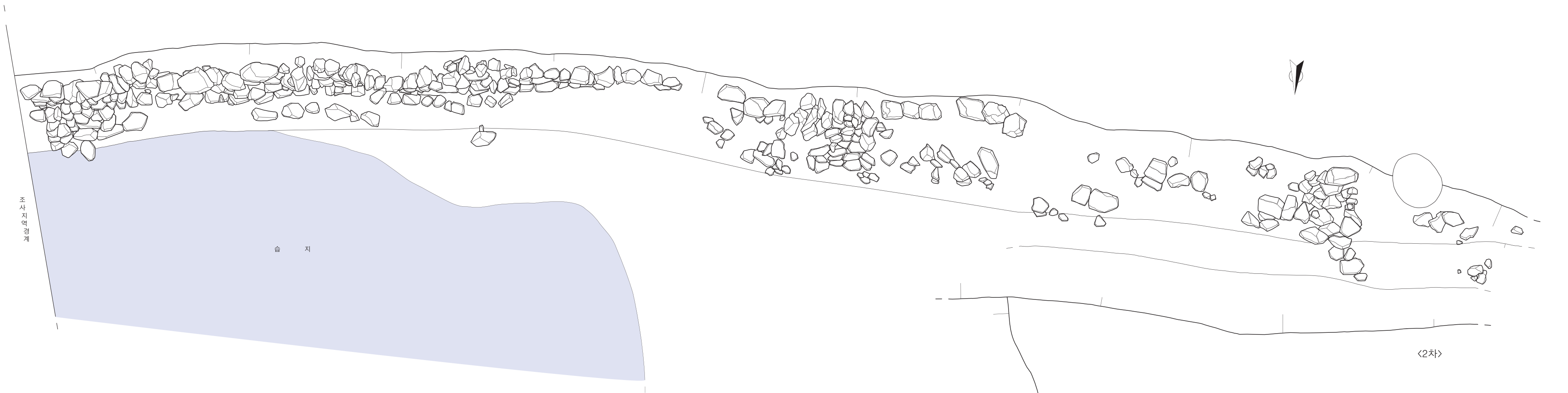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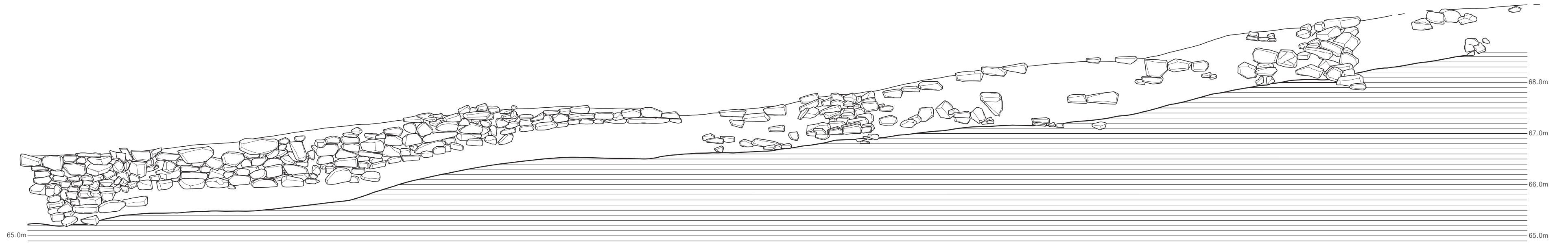
<1차>

- 1. 갈색 사질점토(10YR 4/4) - 밀도 보통, 점성 약함, 자연퇴적층.
- 2.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 밀도 보통, 점성 약함, 자연퇴적층.
- 3. 명황갈색 사질점토(10YR 6/6) - 목탄 소량 포함, 점성 보통, 자연퇴적층.
- 4.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5/4)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 5.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6. 회색 사질점토(N 5/0) - 밀도 높고, 점성 있음, 퇴적층.
- 7.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8. 암갈색 사질점토(7.5YR 3/3) - 점성 약함, 기와 폐기층.
- 9. 회백색 사질점토(N 7/0) - 점토 포함량 많음, 점성 강함, 우기시 수위 상승층.
- 10. 갈색 사질점토(10YR 4/6)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11. 암적갈색 사질점토(5YR 4/6)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12. 회백색 사질점토(N 7/0)+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 점성 강함, 우기시 수위 상승층.
- 13. 회색 니질점토(N 6/0) - 밀도 높음, 점성 강함, 상시 수위층, 별층.
- 14.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6/4) - 밀도 보통, 점성 약함, 석축 뒤채움토.
- 15. 갈색 사질점토(10YR 4/4) - 점성 강함, 판축층.
- 16. 갈색 사질점토(10YR 4/6) - 점성 보통, 판축층.
- 17. 회색 사질점토(N 5/0) - 판축층.
- 18. 적갈색 사질점토(5YR 4/6) - 판축층.
- 19. 등색 사질점토(7.5YR 6/8) - 판축층.
- 20. 회황갈색 사질점토(10YR 4/2) - 판축층.
- 21. 갈색 사질점토(10YR 4/4) - 판축층.
- 22. 암갈색 사질점토(10YR 3/4) - 판축층.
- 23. 명황갈색 사질점토(10YR 6/6) - 판축층.
- 24. 갈색 사질점토(10YR 4/4) - 판축층.
- 25. 적갈색 사질점토(5YR 4/8) - 판축층.
- 26.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 판축층.
- 27. 갈색 사질점토(10YR 4/4) - 판축층.
- 28. 적갈색 사질점토(5YR 4/6) - 판축층.
- 29. 등색 사질점토(7.5YR 6/6) - 판축층.
- 30. 갈색 사질점토(10YR 4/4) - 판축층.
- 31. 명적갈색 사질점토(5YR 5/6) - 판축층.

- 1. 암갈색 사질점토(7.5YR 3/3)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자연퇴적층.
- 2. 갈색 사질점토(7.5YR 4/4)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자연퇴적층.
- 3.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 밀도 높고, 점성 보통, 자연퇴적층.
- 4-1. 회색 사질점토(N 5/0)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기와 폐기층.
- 4-2. 회색 사질점토(N 5/0)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기와 폐기층.
- 5-1. 흑갈색 사질점토(7.5YR 3/2)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기와 폐기층.
- 5-2. 갈색 사질점토(10YR 4/4)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5~10cm 풍화암반 포함, 기와 폐기층.
- 6. 갈색 사질점토(10YR 4/4)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7. 암적갈색 사질점토(5YR 3/6) - 밀도 보통, 점성 강함, 퇴적층.
- 8. 회백색 사질점토(N 7/0)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우기시 수위 상승층.
- 9. 갈색 사질점토(7.5YR 4/6) - 밀도 보통, 점성 있음, 퇴적층.
- 10. 회색 니질점토(N 6/0) - 밀도 높음, 점성 강함, 상시 수위층, 별층.
- 11.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암적갈색 사질점토(5YR 3/6) - 점성 강함, 퇴적층.
- 12. 명갈색 사질점토(7.5YR 5/6)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퇴적층.
- 13. 회백색 사질점토(N 7/0)+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 점성 강함, 우기시 수위 상승층.
- 14. 회색 니질점토(N 6/0) - 밀도 높음, 점성 강함, 상시 수위층, 별층.
- 15. 회백색 사질점토(N 7/0) - 점성 강함, 상시 수위층, 별층.
- 16. 적갈색 사질점토(5YR 4/8)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석축 관련 정지층.
- 17. 이.ㄱ.이 적갈색 사질점토(5YR 4/4) - 밀도 높고, 점성 강함, 풍화암반 포함, 석축 관련 정지층.
- 18.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5/4) - 밀도 보통, 점성 보통.
- 19. 갈색 사질점토(10YR 4/4) - 점성 강함, 판축층.
- 20. 이.ㄱ.이 황갈색 사질점토(10YR 4/3) - 판축층.
- 21. 갈색 사질점토(10YR 4/4) - 판축층.
- 22. 명적갈색 풍화암반토(5YR 5/6) - 기반층.



도면 10. 저수지 기와 폐기층 평면·토층도(1/60)



도면 11. 저수지 석축렬 평면·단면도(1/60)

나. 유물

1. 대접(도면 12, 도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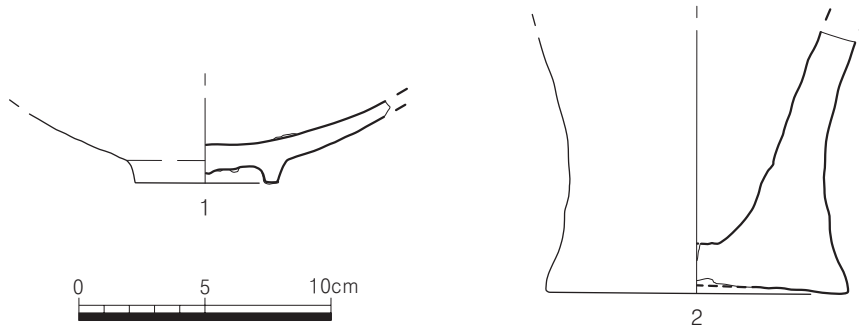
신부 일부와 굽 1/2 정도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녹회색(75YR 6/1)을 띠고, 속심은 회백색(N 7/0)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저면에 2개의 받침흔이 남아 있고, 굽 내면과 접지면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현)고 3.4cm, 굽경 5.6cm

2. 병(도면 12, 도판 12)

저부 1/2 정도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녹회색(75YR 6/1)을 띠고,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외저면은 등색(5YR 6/6), 속심은 회백색(N 7/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현)고 10.4cm, 복원저경 1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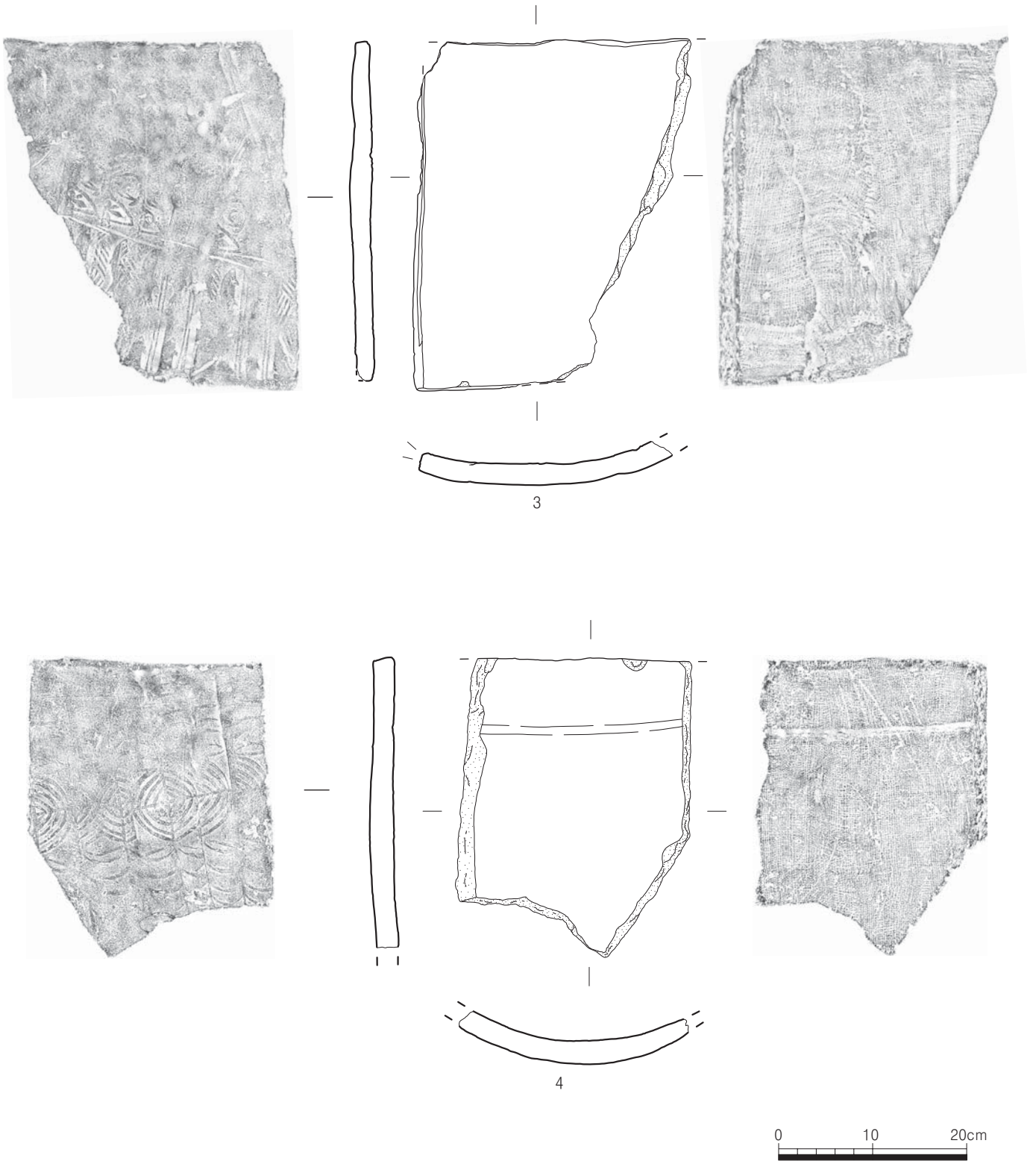


도면 12. 저수지 출토유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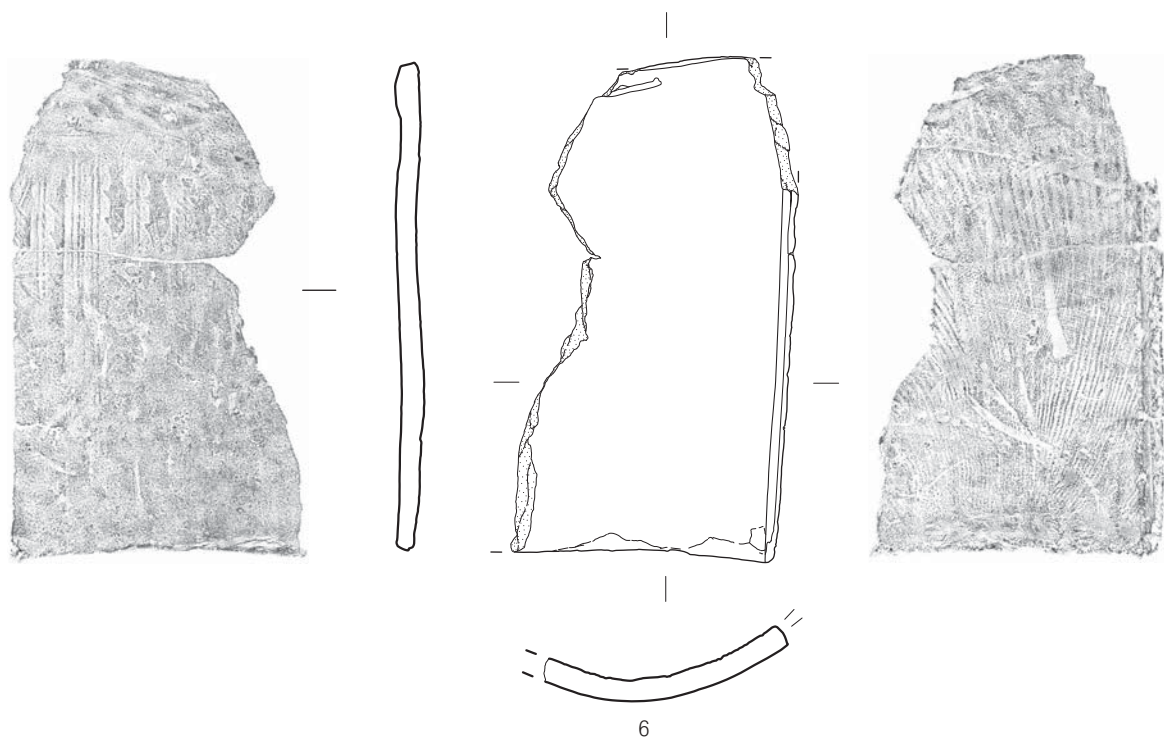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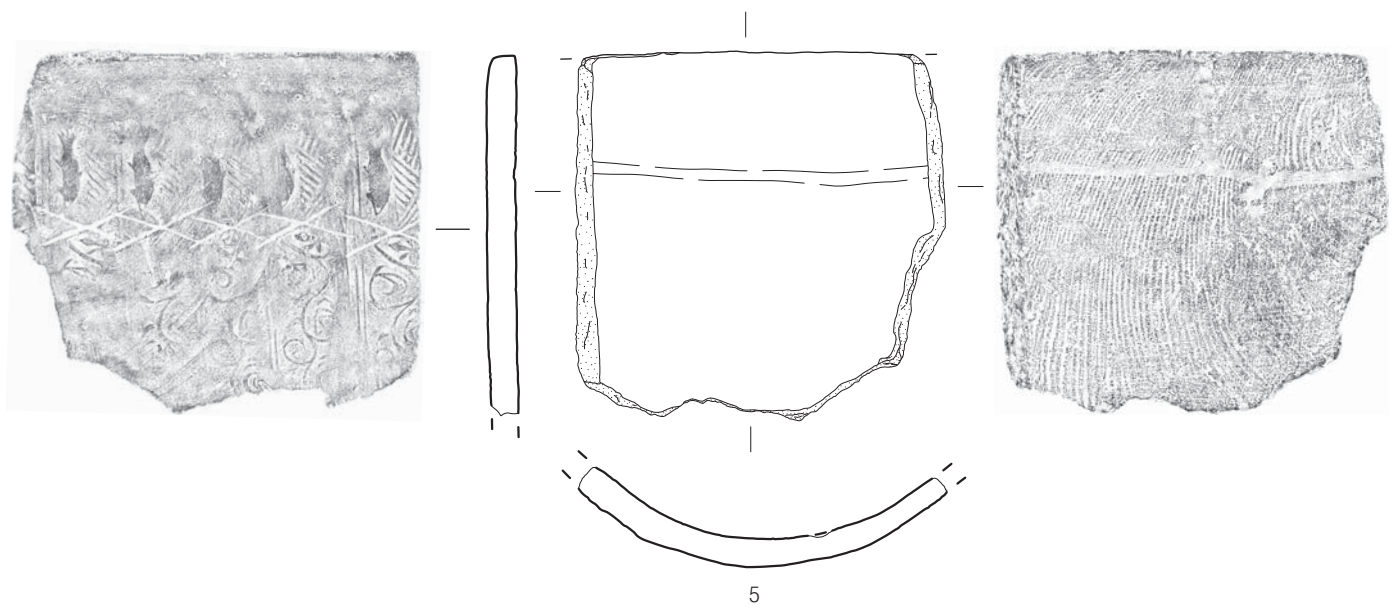
3~45·50~55. 저수지에서 기와는 수키와 7점, 암키와 42점으로 총 49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함유된 점토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3	암키와	13	12	36.7	(26.9)	2.3	청회색 (5PB 5/1)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 타날.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함. 하단부내면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4	암키와	13	12	(31.8)	(24.6)	2.5	암회색 (N 3/0)	상단부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질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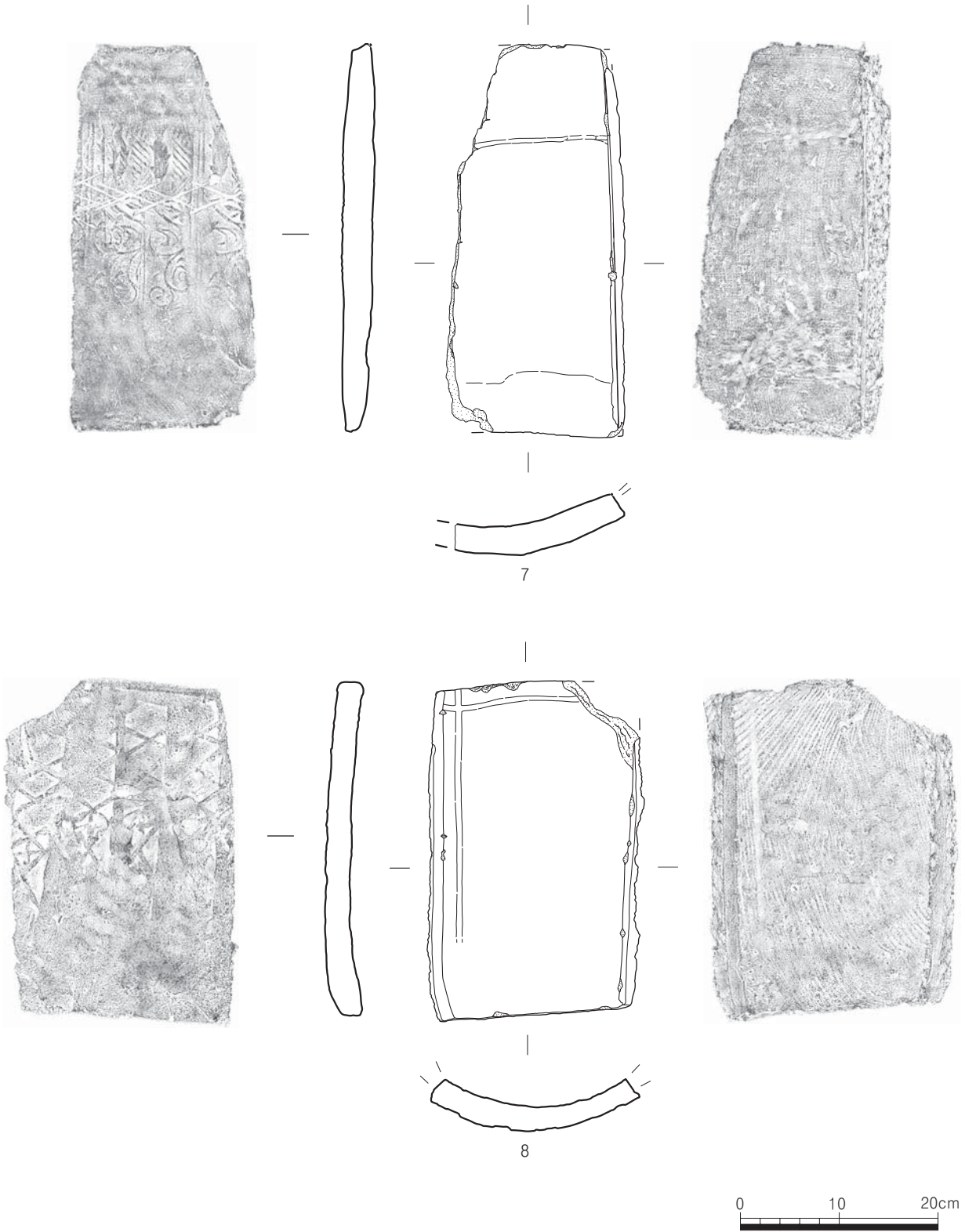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5	암키와	14	12	(28.9)	(29.2)	2.3	회색 (5Y 6/1)	상단부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6	암키와	14	12	38.6	(19.5)	1.7	회색 (N 5/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종방향 문양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정면하여 대부분 지워지고 희미함. 외면 상단에 점토 보강흔. 측면 내측에 와도흔.
7	암키와	15	12	39.1	(17.2)	3.1	회색 (7.5Y 6/1)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윤철흔, 점토접합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하단부는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8	암키와	15	13	33.8	(21.0)	2.5	암회색 (N 3/0)	상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합철흔. 외면에 사격자방격문 타날.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9	암키와	16	13	37.6	25.5	2.2	회색 (N 5/0)	상·하단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횡방향과 사선방향의 선문 타날.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함. 하단부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0	암키와	16	13	36.4	27.5	1.6	회백색 (7.5Y 7/1)	상·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 상·하단은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1	암키와	17	13	38.0	29.5	2.3	회색 (N 5/0)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상·하단 물손질로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함.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2	암키와	17	13	35.6	29.1	1.9	회색 (N 5/0)	상·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하단부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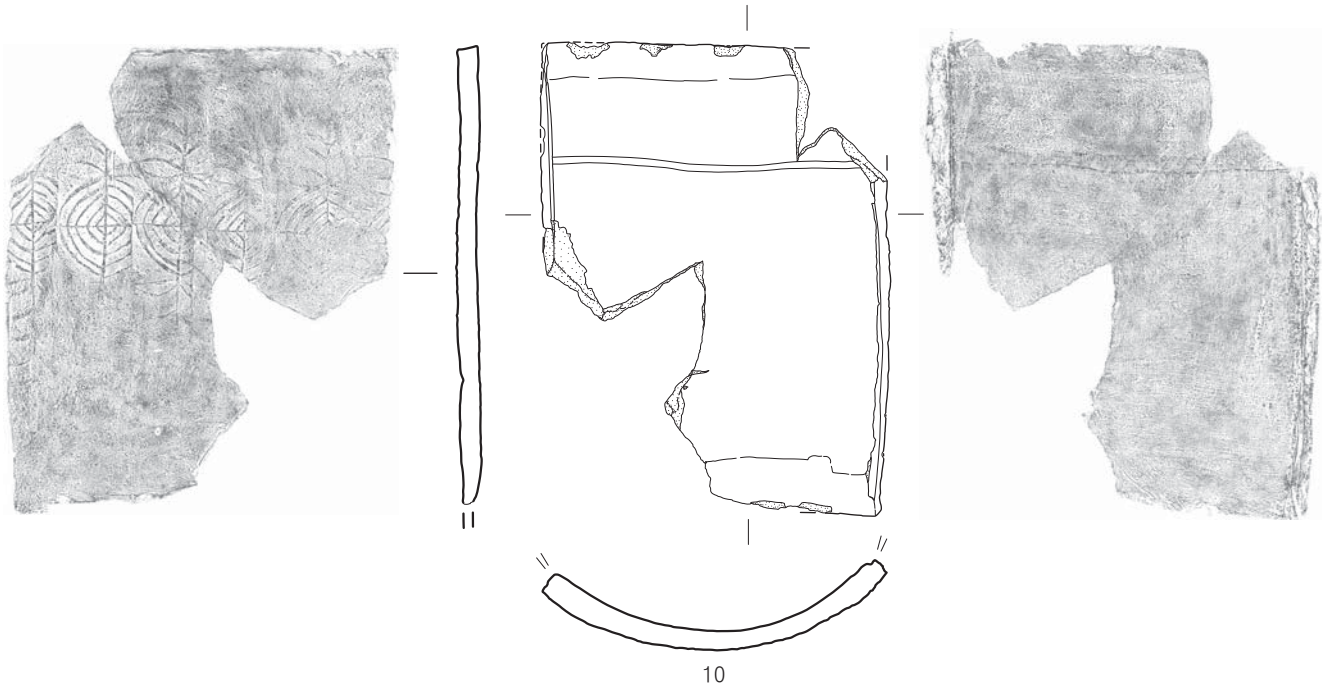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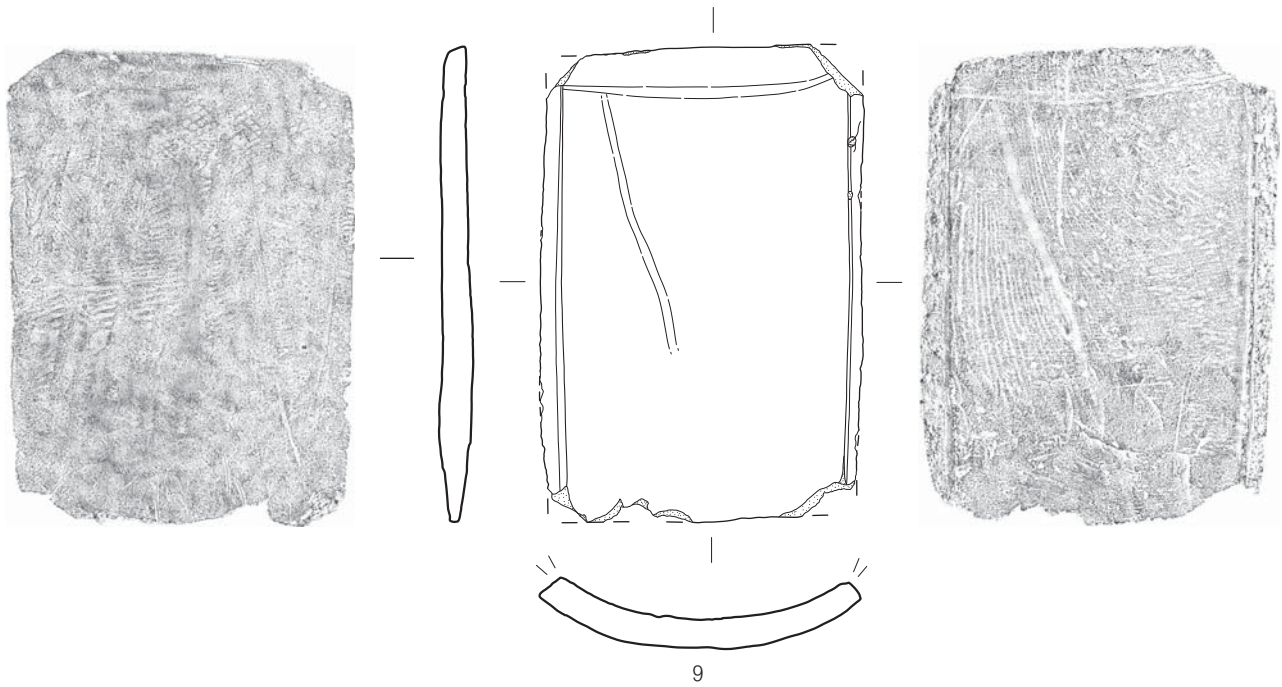
도면 13. 저수지 출토유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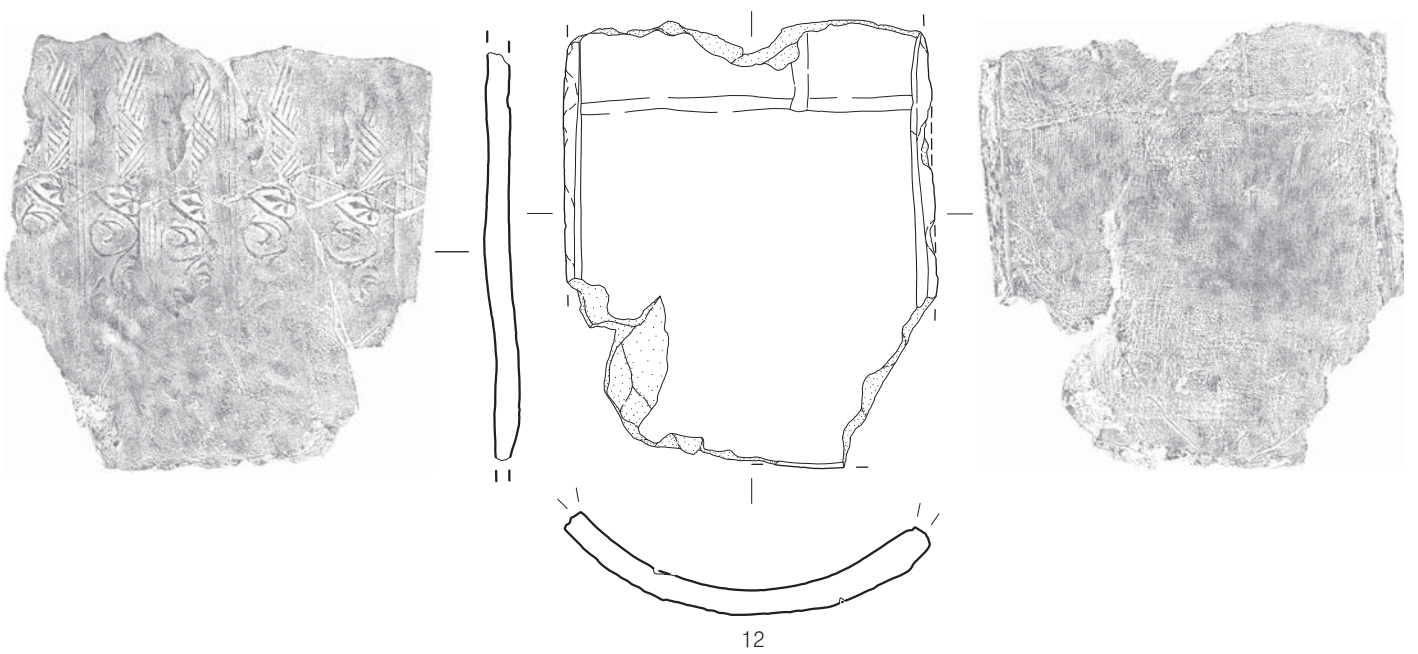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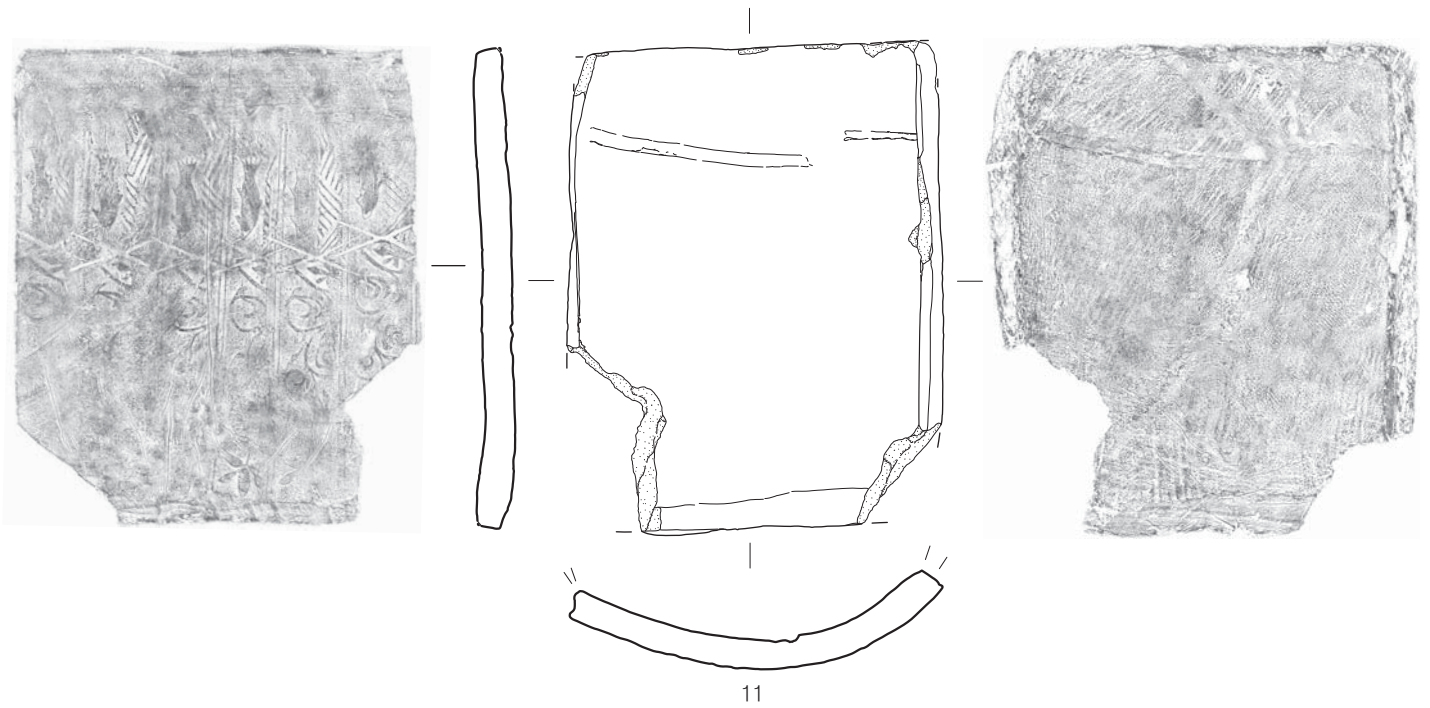
도면 14. 저수지 출토유물(5·6)



도면 15. 저수지 출토유물(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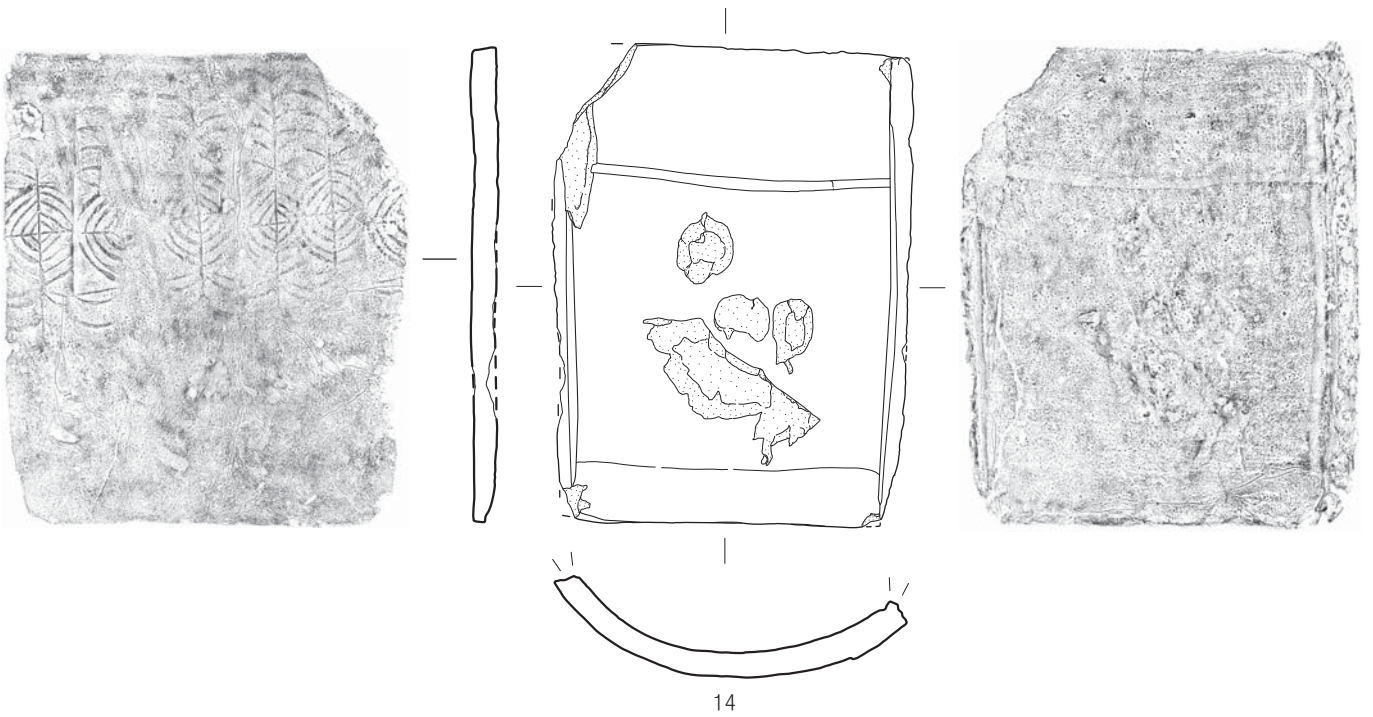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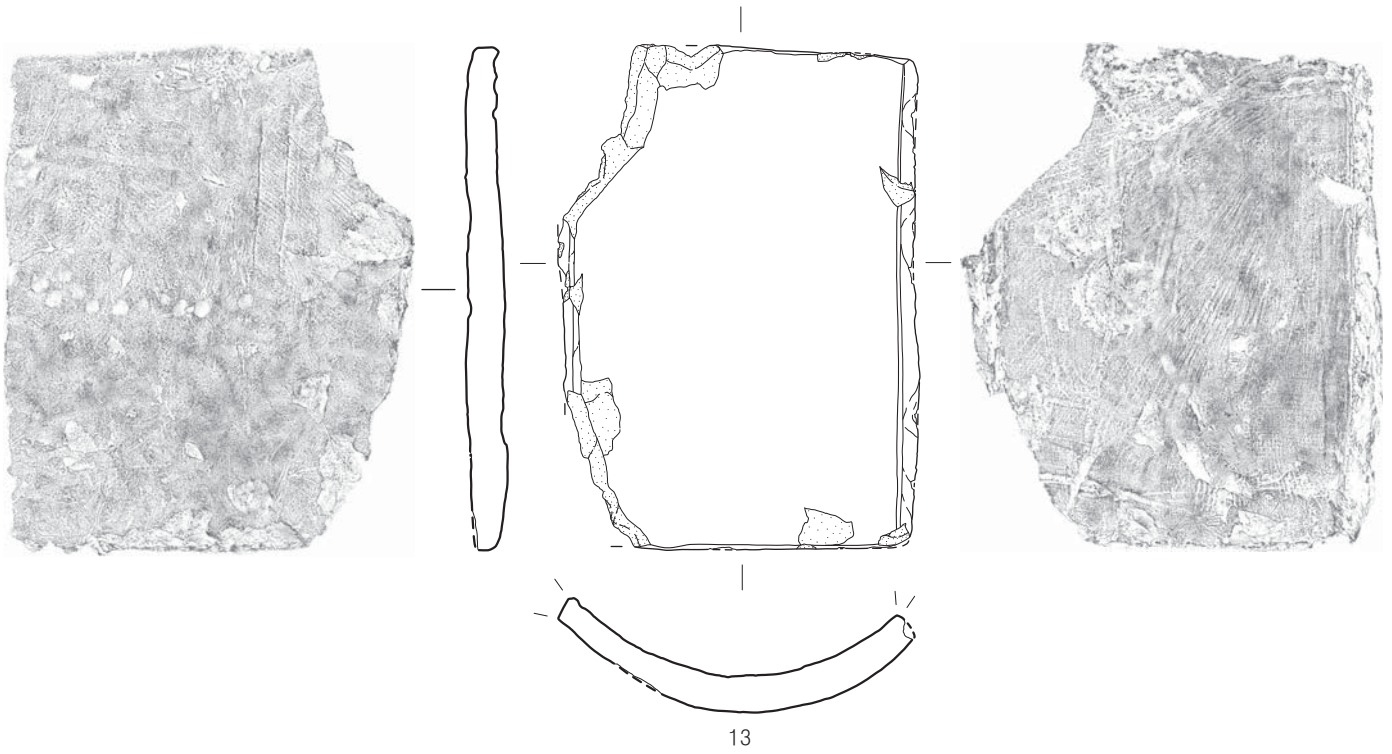


도면 16. 저수지 출토유물(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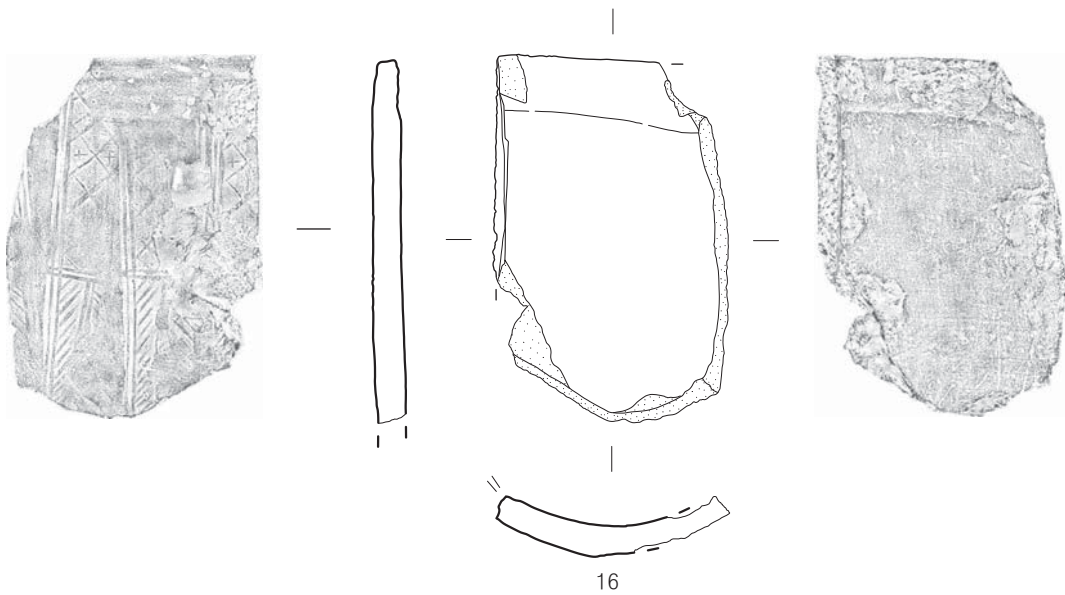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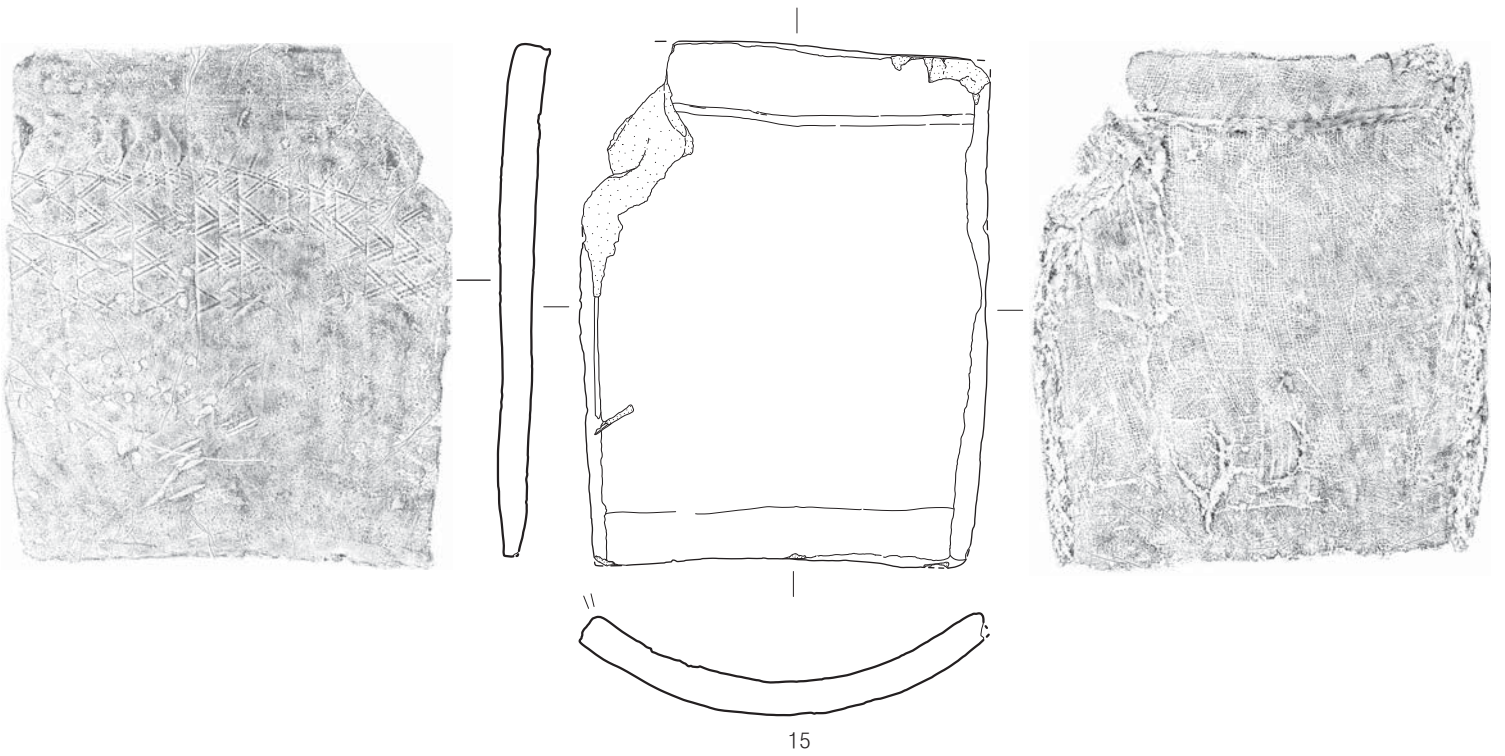


도면 17. 저수지 출토유물(1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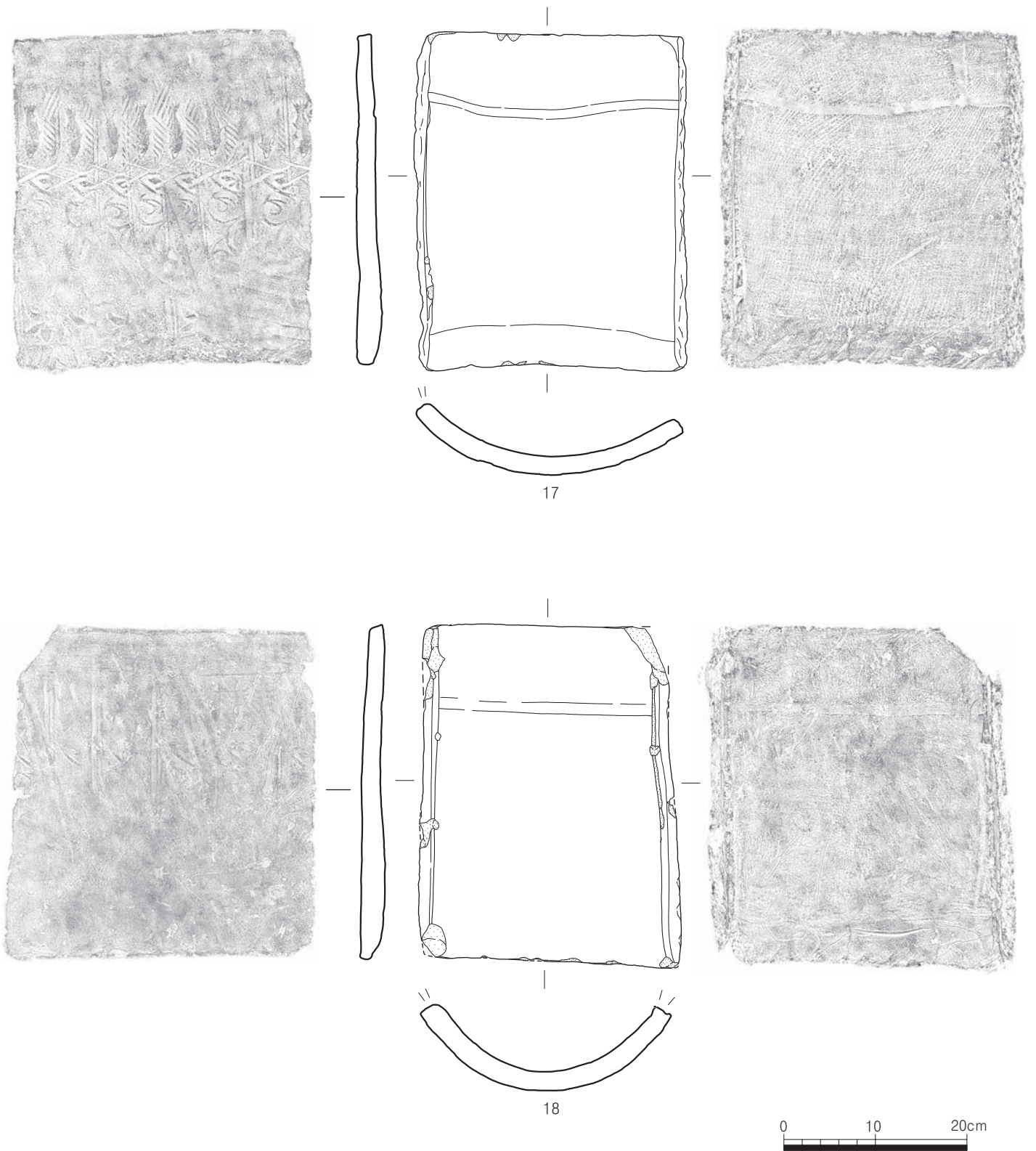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13	암키와	18	13	40.6	28.6	2.9	회색 (N 5/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합철흔, 연철흔. 외면 일부에 사선문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함. 지두흔. 내·외면 표면 박리.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4	암키와	18	13	38.3	27.8	1.9	회색 (N 6/0) 암회색 (5Y 3/1)	상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희미하게 확인.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 상·하단은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5	암키와	19	13	40.8	32.1	2.7	회색 (7.5Y 6/1)	상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직선문 타날. 상·하단은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한쪽 측면 내측에 와도흔.
16	암키와	19	14	(28.6)	(18.5)	2.2	회백색 (2.5Y 8/1)	상단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직선 복합문 타날. 한쪽 측면 내측에 와도흔.
17	암키와	20	14	36.2	29.2	2.2	암회색 (N 3/0)	신부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하단부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측면 내측에 와도흔.
18	암키와	20	14	36.7	28.8	2.1	회백색 (5Y 7/1) 회색 (N 5/0)	상·하단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윤철흔. 외면에 종방향 선문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19	암키와	21	14	(32.7)	22.9	1.8	회백색 (5Y 7/1)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격자타날문.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0	암키와	21	14	(21.3)	(18.5)	2.1	암회색 (N 3/0)	신부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직선 복합문(사선문+삼각문+중선문) 타날.
21	암키와	22	14	38.6	26.8	1.9	회색 (N 5/0)	상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 상·하단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함.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2	암키와	22	14	39.0	31.1	1.8	회색 (5Y 6/1)	신부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연철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되었고, 상·하단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함.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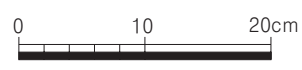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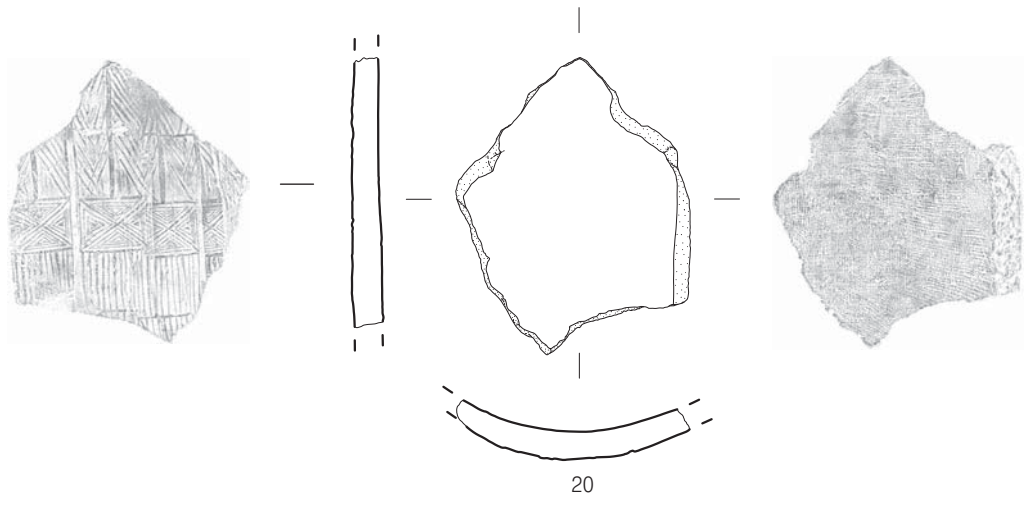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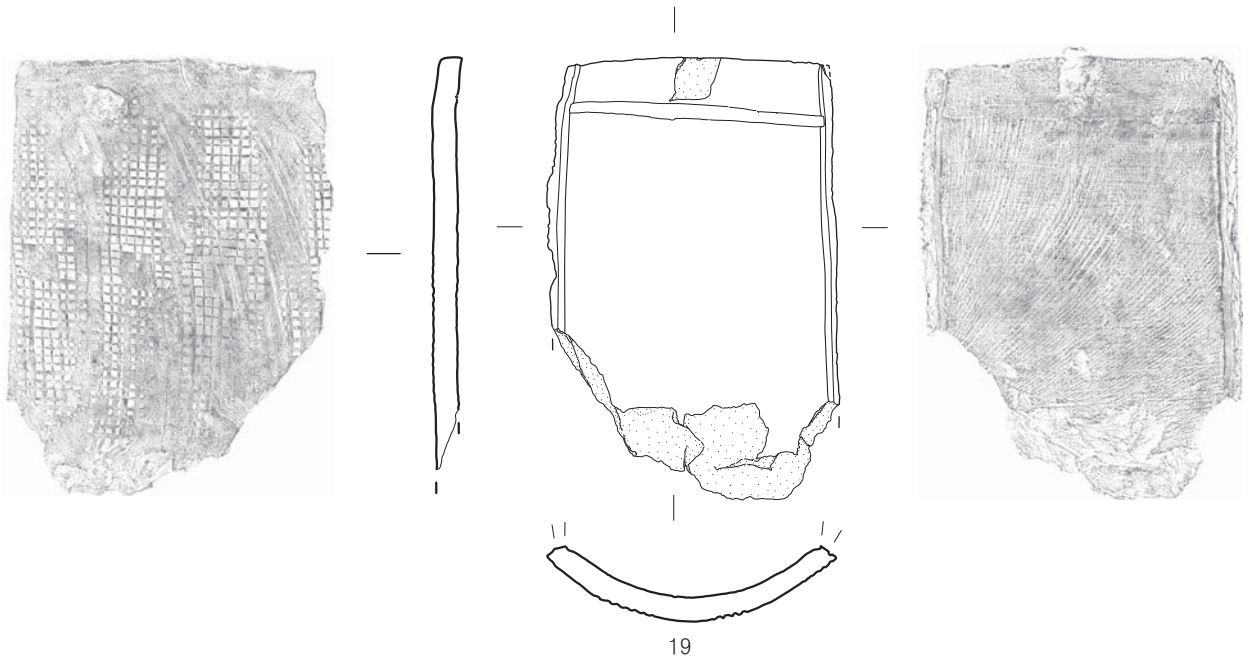
도면 18. 저수지 출토유물(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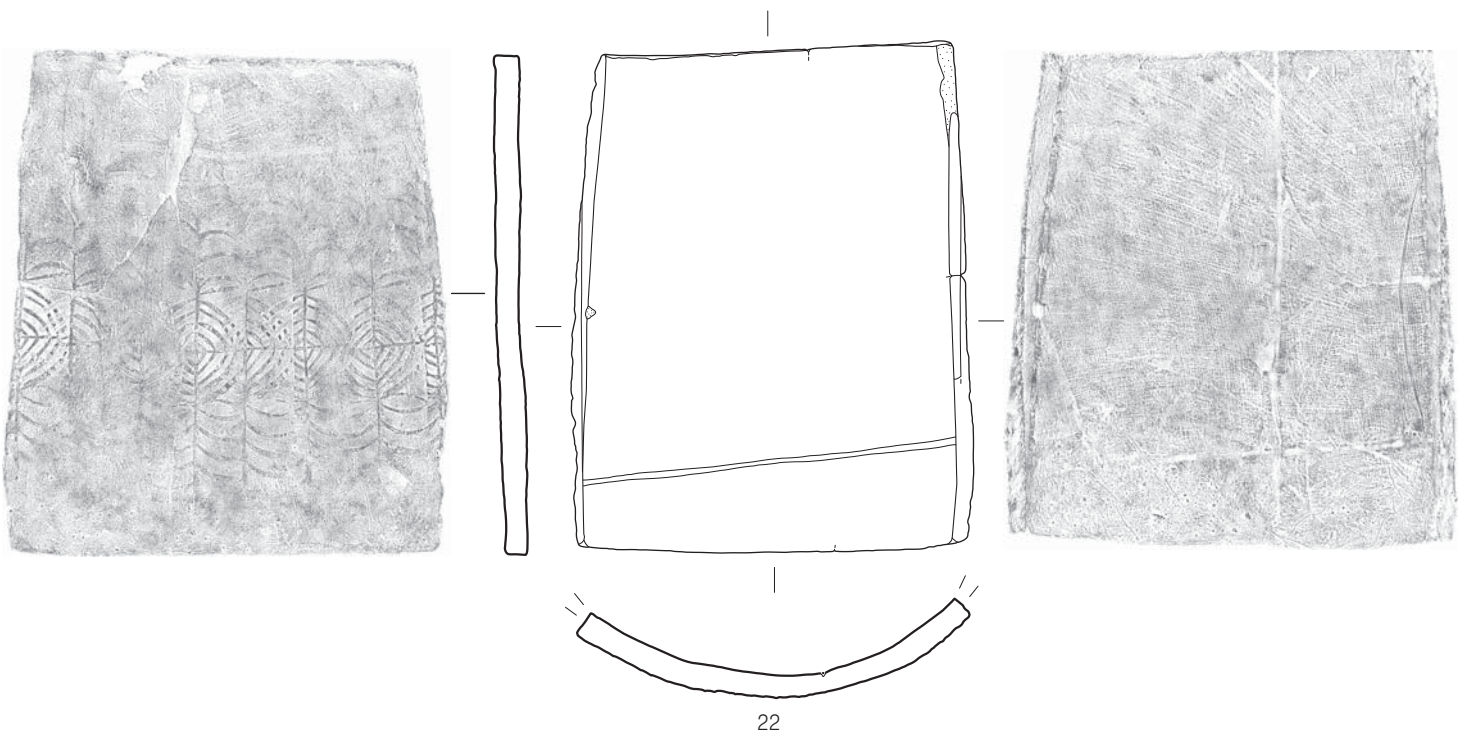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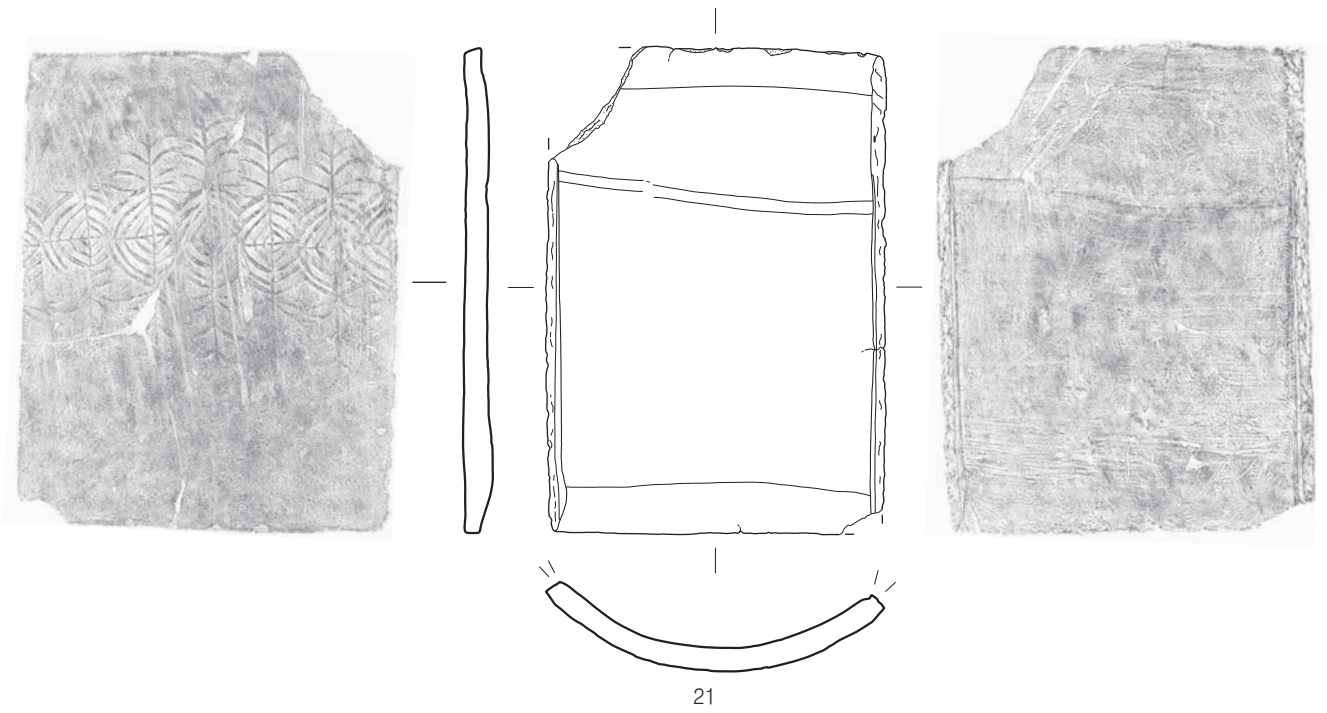
도면 19. 저수지 출토유물(15 · 16)



도면 20. 저수지 출토유물(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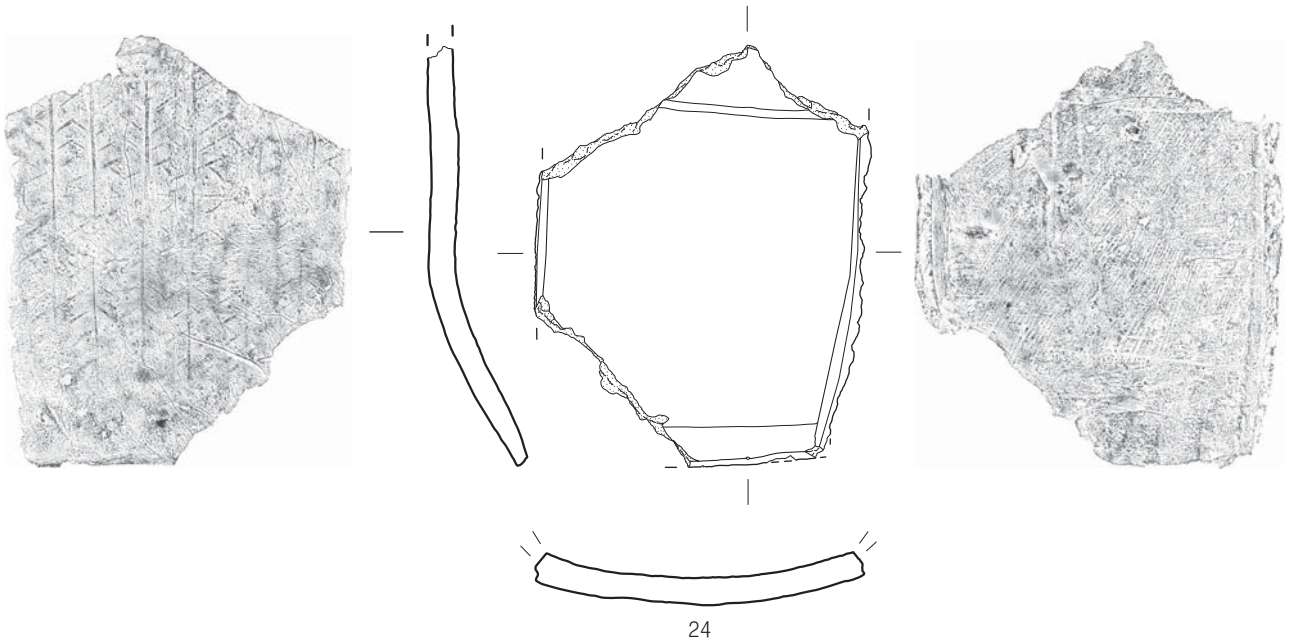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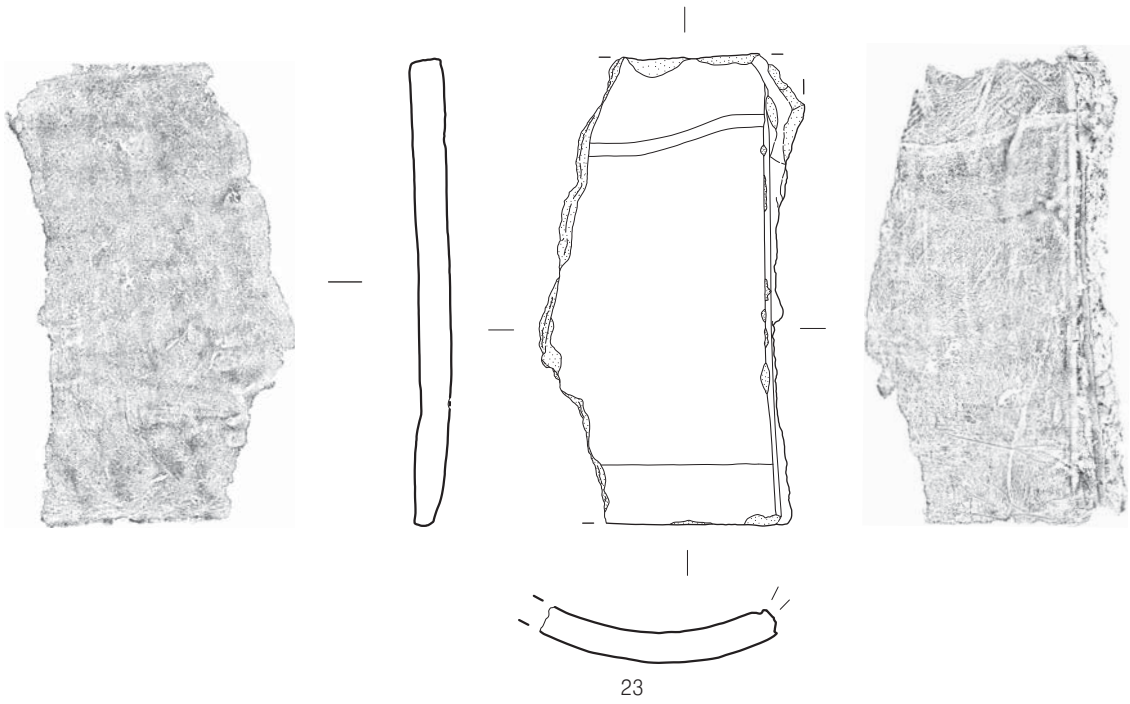


도면 21. 저수지 출토유물(19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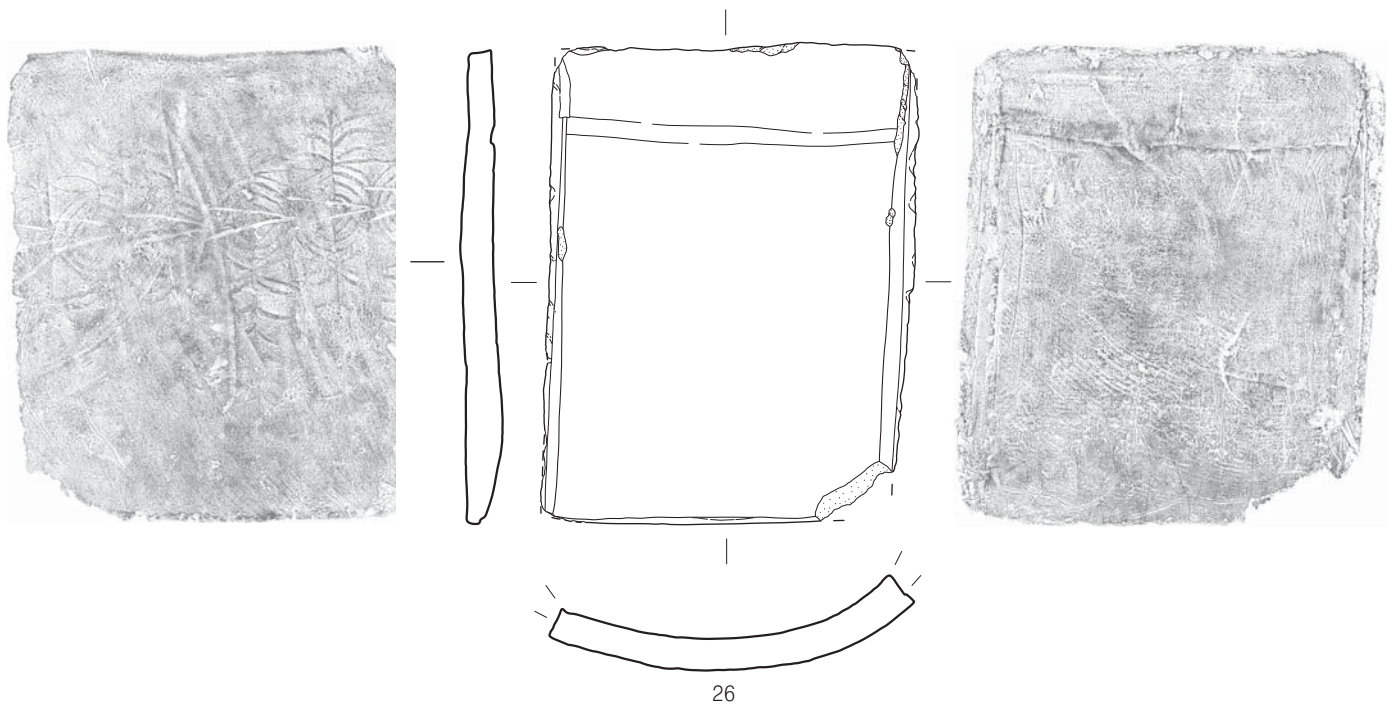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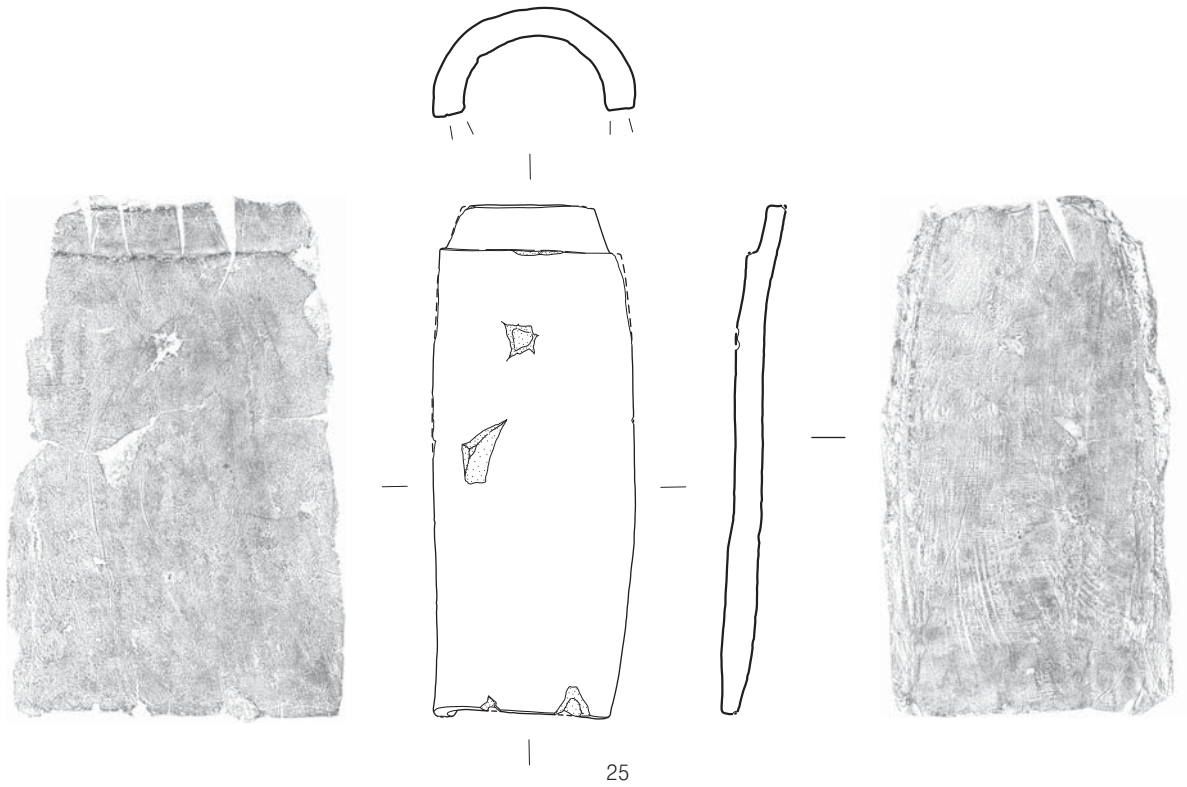


도면 22. 저수지 출토유물(21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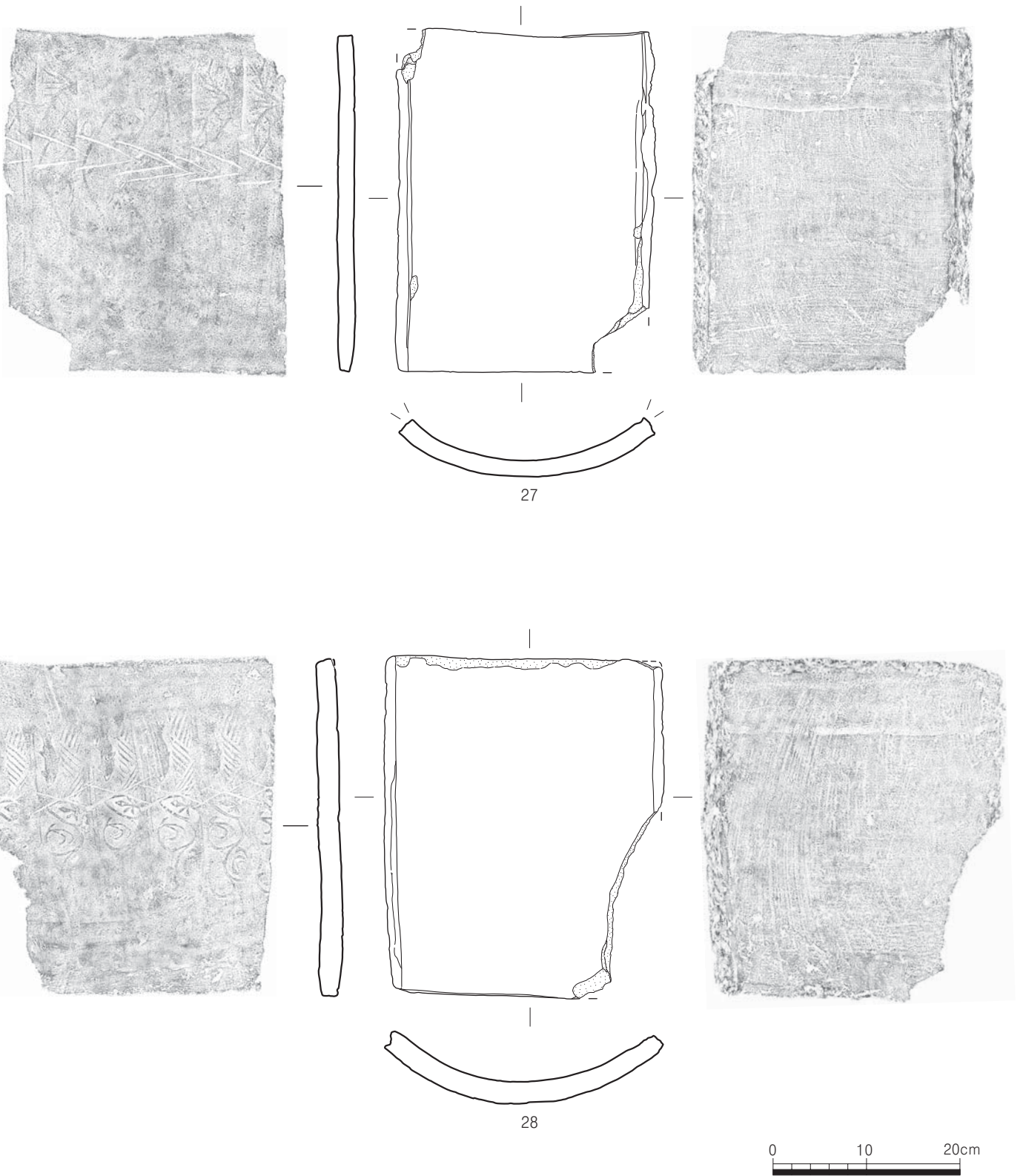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23	암키와	23	14	37.0	(18.7)	2.4	회색 (N 5/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측면 내측에 와도흔.
24	암키와	23	15	(33.3)	26.0	2.1	암회색 (N 3/0)	상단부와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어골문 타날,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는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5	수키와	24	15	40.6	16.1	2.2	회색 (N 5/0)	미구기와. 신부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6	암키와	24	15	38.2	30.2	2.5	회색 (N 5/0)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지워져 희미함.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7	암키와	25	15	36.0	27.4	1.7	회색 (N 6/0)	상·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중상위에 사선 침선문 시문.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28	암키와	25	15	36.1	29.8	2.2	암청회색 (5PB 4/1) 회색 (N 5/0)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복합문(어문+X문+당초문) 타날. 상·하단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외면 깎기흔, 내면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29	암키와	26	15	37.8	29.0	2.8	회색 (7.5Y 6/1)	하단 일부, 측면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외면 상단 점토보강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0	수키와	26	15	42.8	17.5	2.2	회색 (10Y 5/1)	미구기와. 상단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1	암키와	27	16	34.1	30.6	1.8	암청회색 (5PB 4/1) 회색 (5Y 6/1)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사격자방격문 타날. 하단은 물손질로 지워짐. 내면 하단부는 깎기흔과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2	수키와	27	16	(30.0)	13.3	2.4	회색 (N 4/0)	상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점토접합흔. 외면에 사방향 평행 타날, 물손질로 정면되어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측면 내측에 와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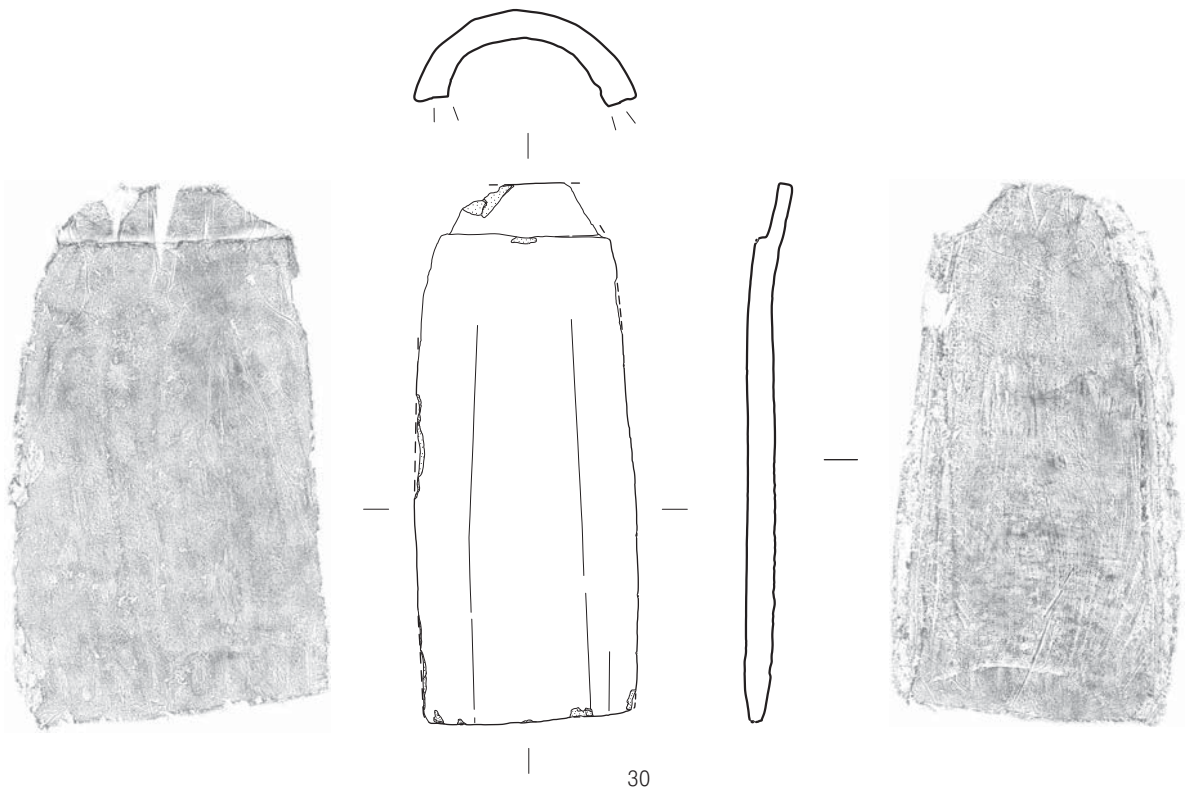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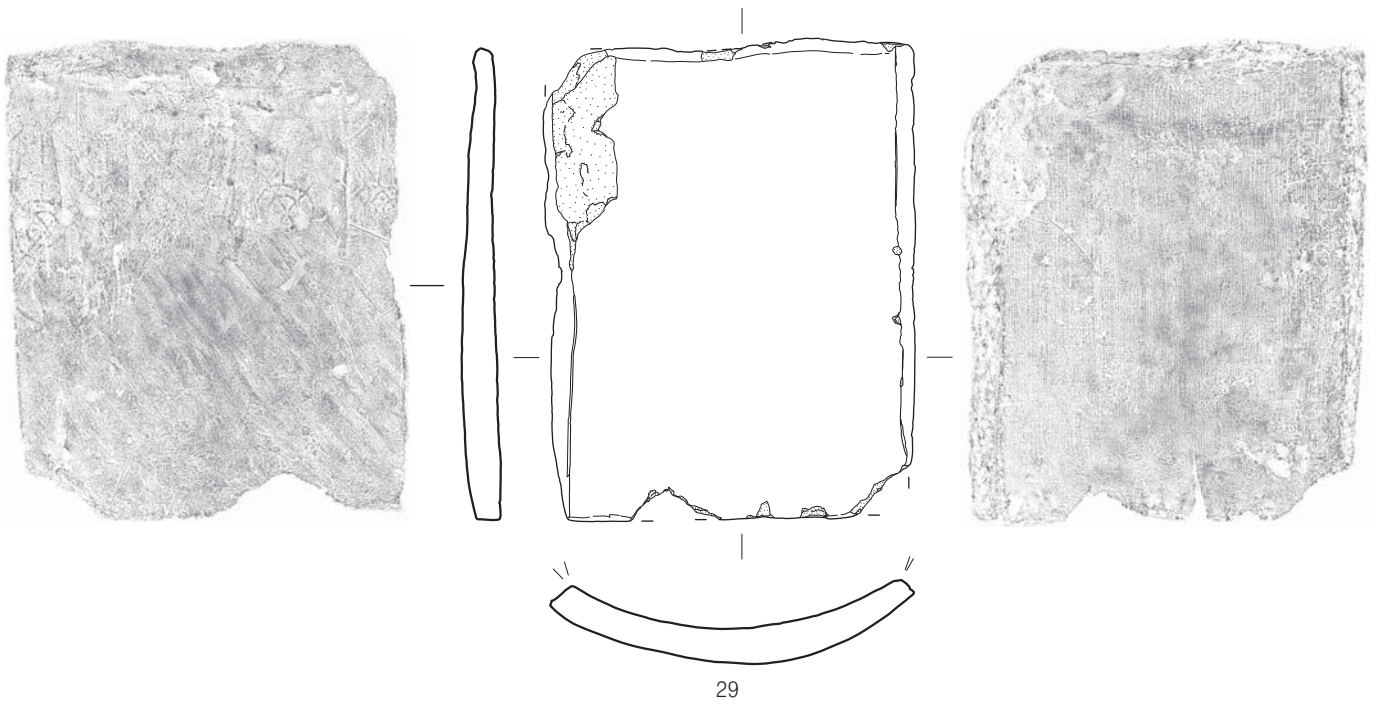
도면 23. 저수지 출토유물(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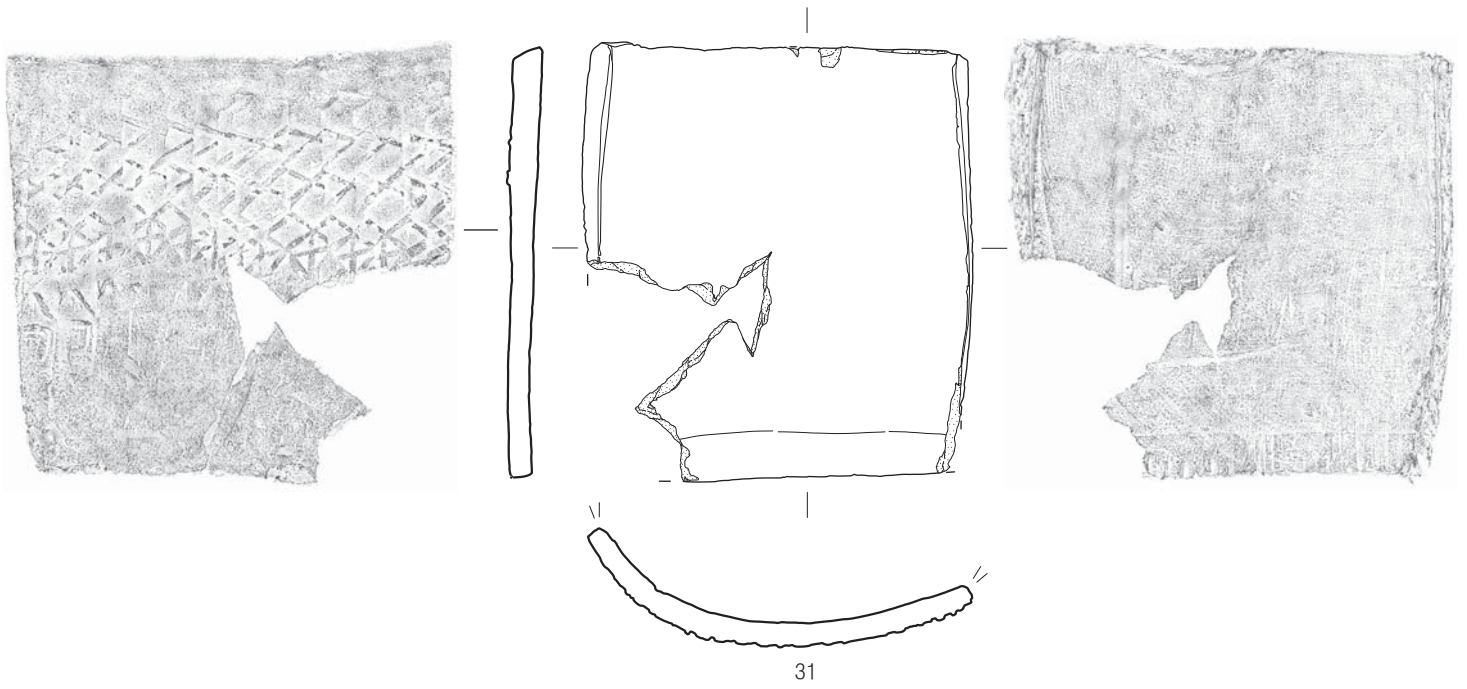
도면 24. 저수지 출토유물(25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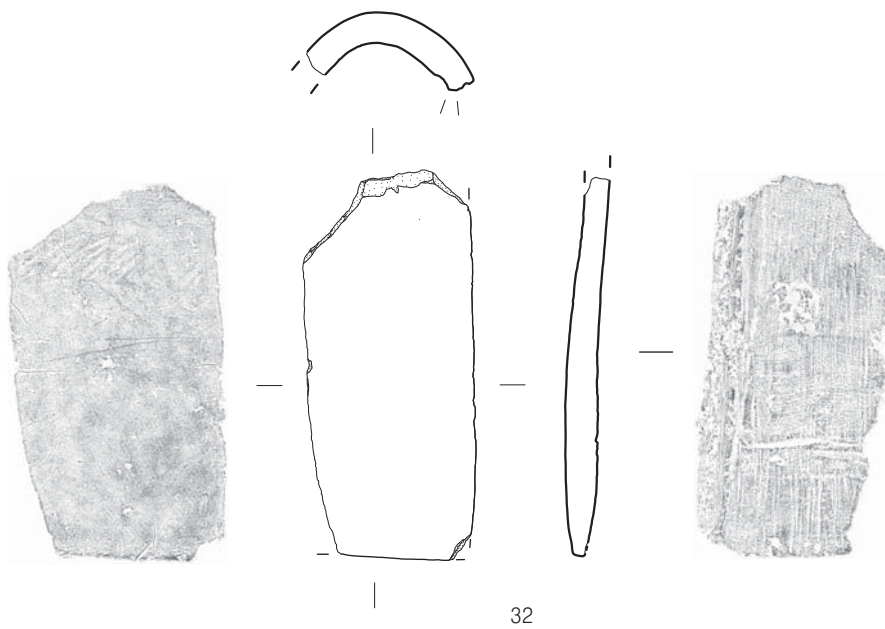
도면 25. 저수지 출토유물(27 · 28)



도면 26. 저수지 출토유물(29·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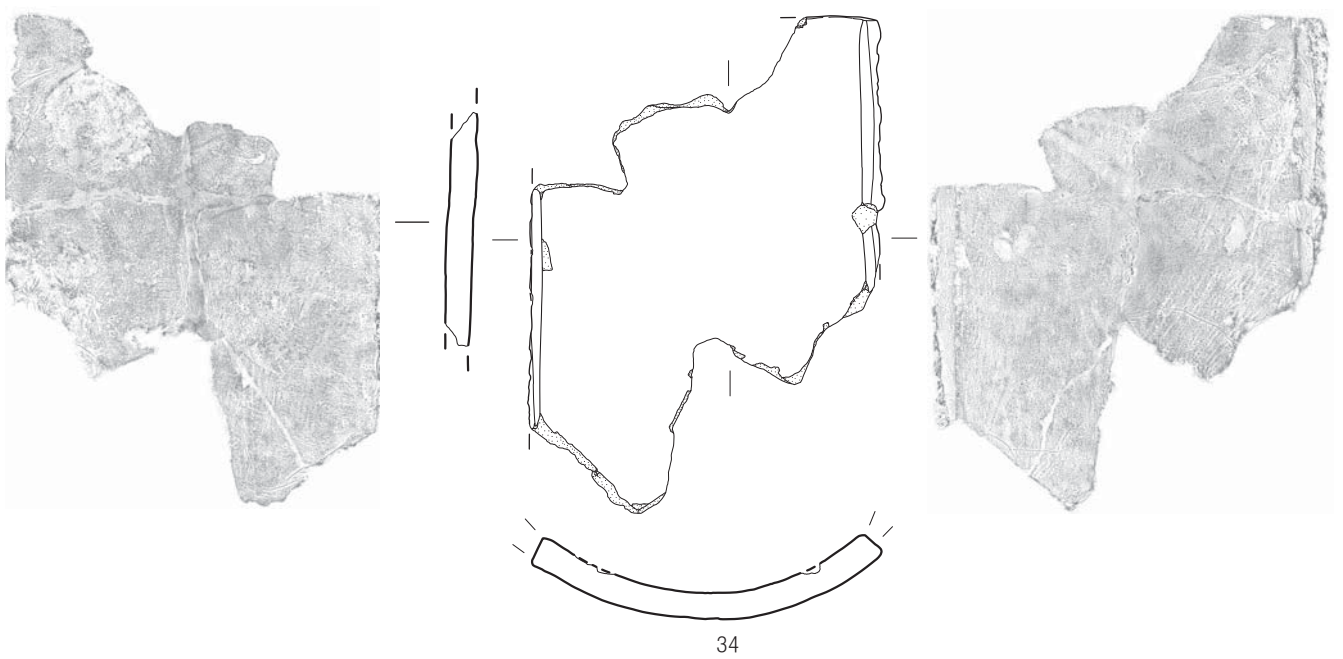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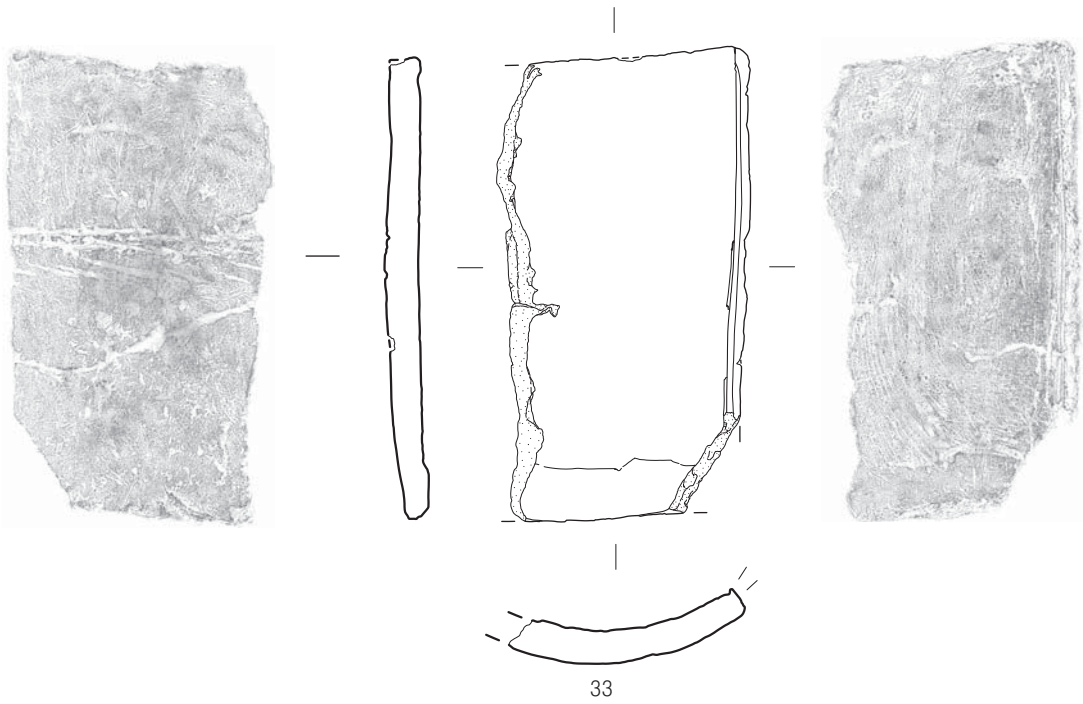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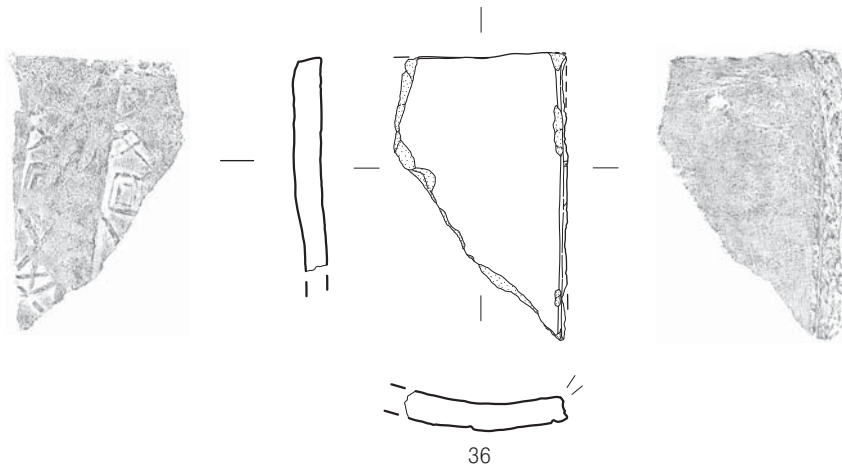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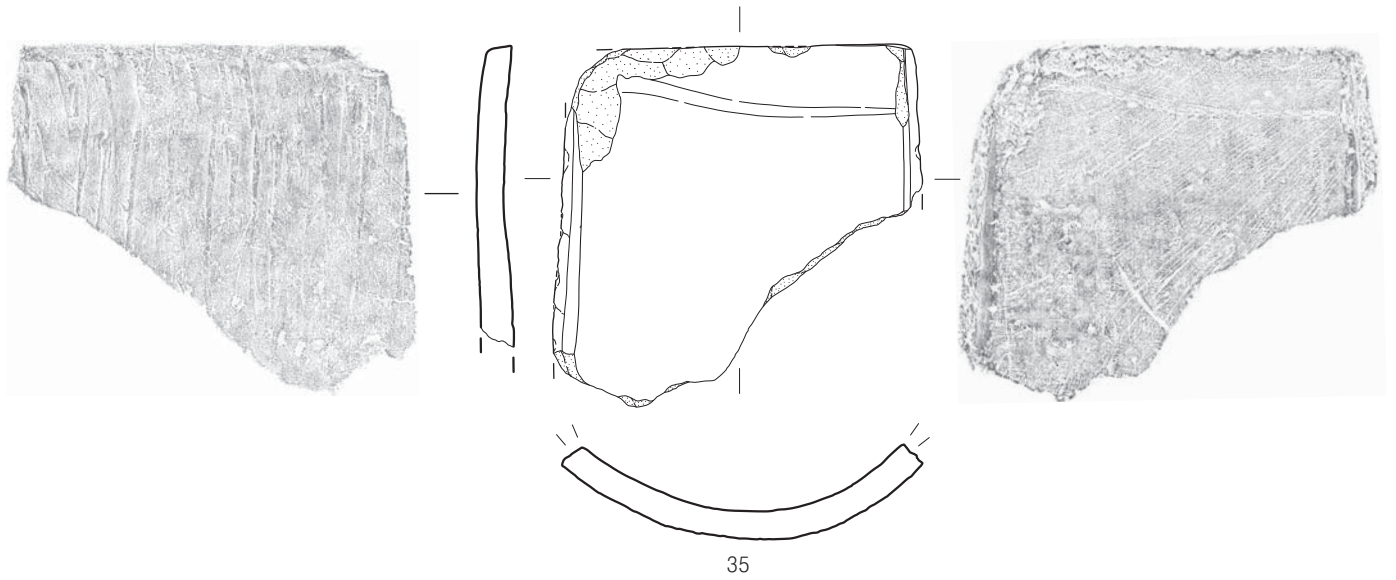


도면 27. 저수지 출토유물(31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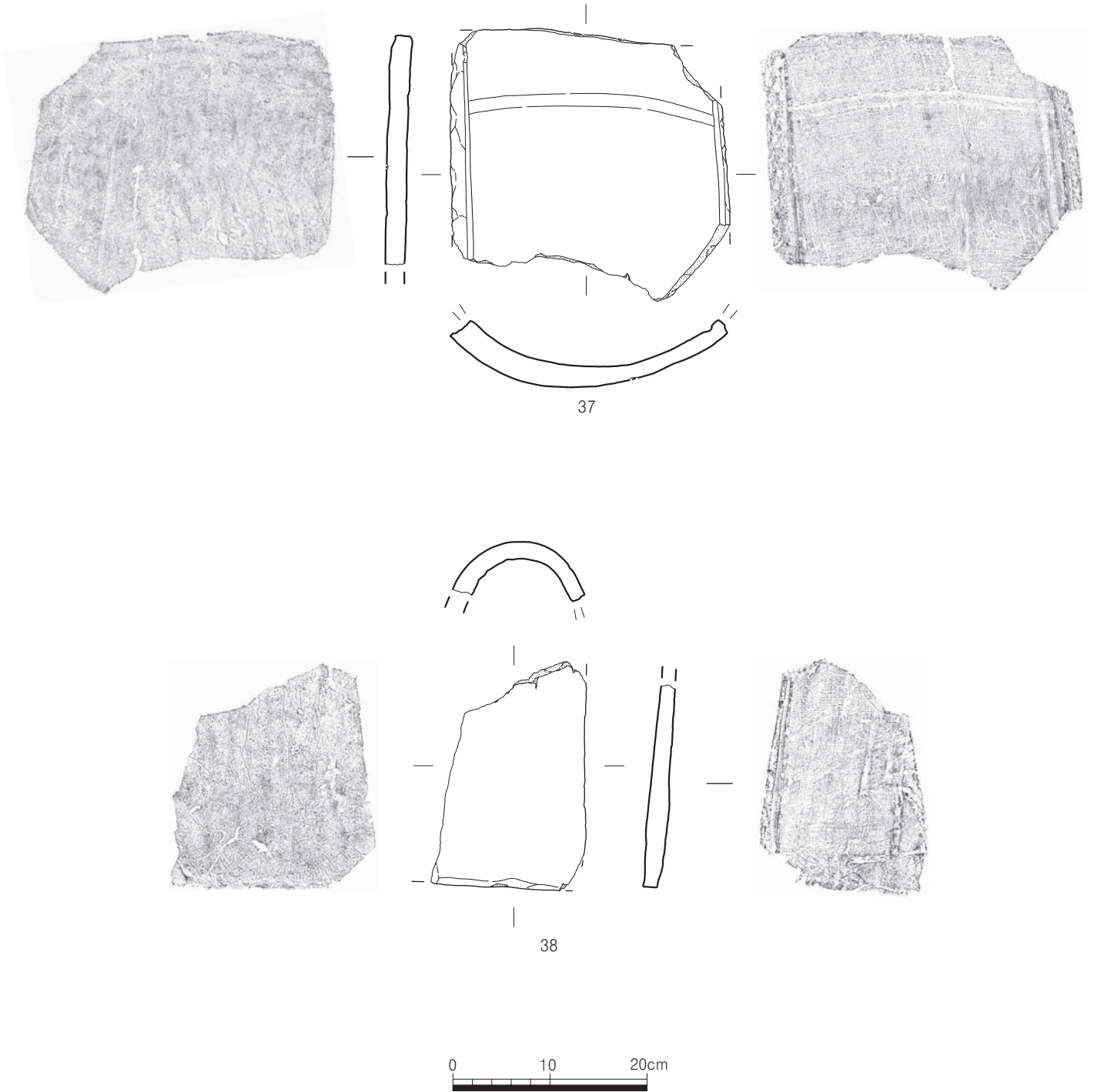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33	암키와	28	16	36.6	(18.7)	2.6	암청회색 (5PB 4/1)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도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횡방향 타날흔 있으나 물손질로 정면되면서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내측면에 분할계선 확인. 측면 내측에 와도흔.
34	암키와	28	16	(38.6)	27.8	2.1	적갈색 (5YT 5/4)	상단 일부,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 하단에 종방향 타날흔. 물손질 정면에 의해 대부분 지워짐.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5	암키와	29	16	(28.5)	28.6	2.2	회색 (5Y 6/1)	하단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종방향 타날흔. 물손질 정면에 의해 지워져 희미함.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6	암키와	29	16	(22.9)	(13.8)	2.1	회색 (N 5/0)	상단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외면에 직선 복합문(격자문+방형문) 타날. 상단은 물손질 정면에 의해 지워져 희미함. 측면 내측에 와도흔.
37	암키와	30	16	(28.1)	28.8	2.1	회색 (N 5/0)	상단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일부에 지둔흔.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38	수키와	30	16	(20.9)	13.6	1.8	암청회색 (5PB 4/1)	상단부와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도접합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39	수키와	31	17	(22.8)	14.2	1.9	회색 (7.5Y 5/1)	상단부와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도접합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40	수키와	31	17	(38.2)	17.5	2.6	황회색 (2.5Y 5/1)	미구기와. 상단 일부와 한쪽 측면 일부 결실. 표면의 박리가 심하여 내면의 포목흔 희미하게 확인.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있으나 뚜렷하지 않음.
41	수키와	32	17	39.6	17.3	2	회색 (N 4/0)	신부 극히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 하단부 내면 물손질로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42	암키와	32	17	40.8	27.8	2.2	회색 (N 6/0)	상단 일부,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종방향 직선문 타날. 물손질 정면에 의해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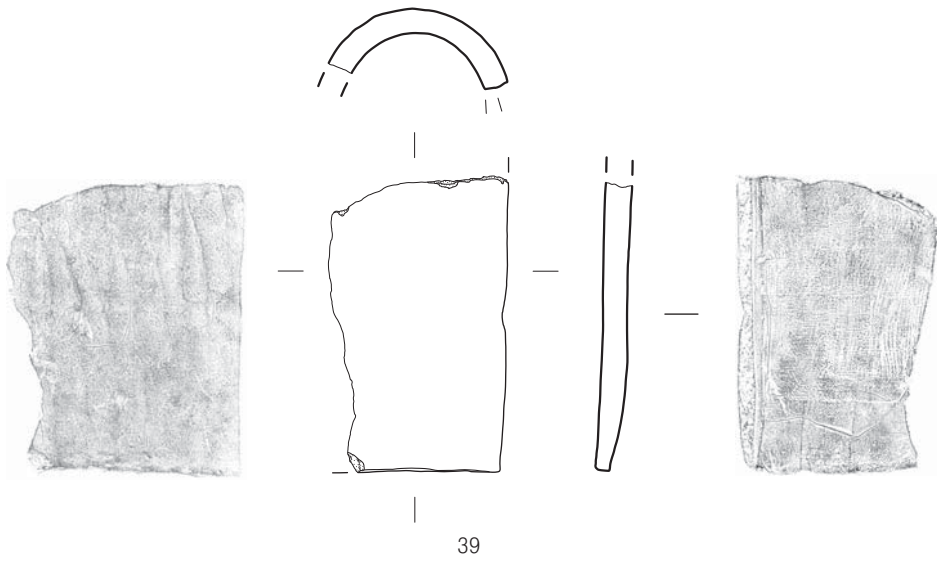
도면 28. 저수지 출토유물(33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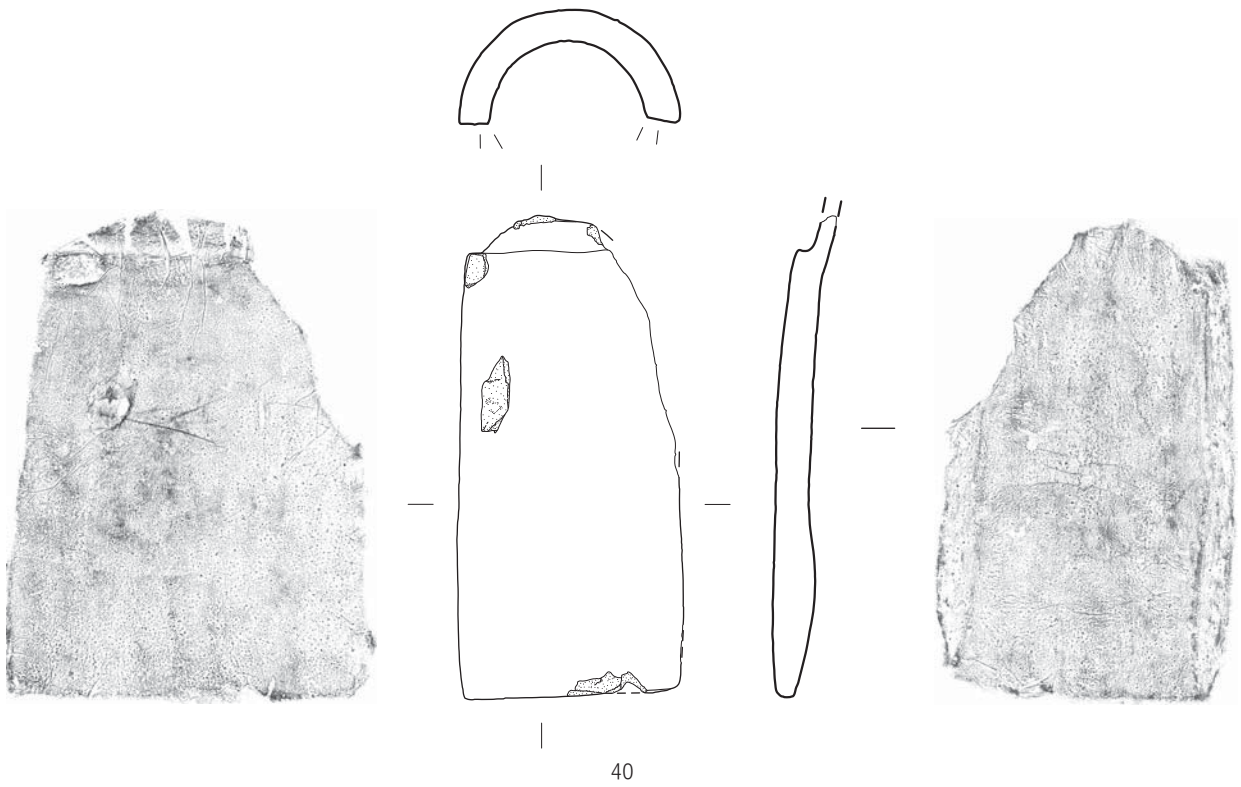
도면 29. 저수지 출토유물(35 · 36)



도면 30. 저수지 출토유물(37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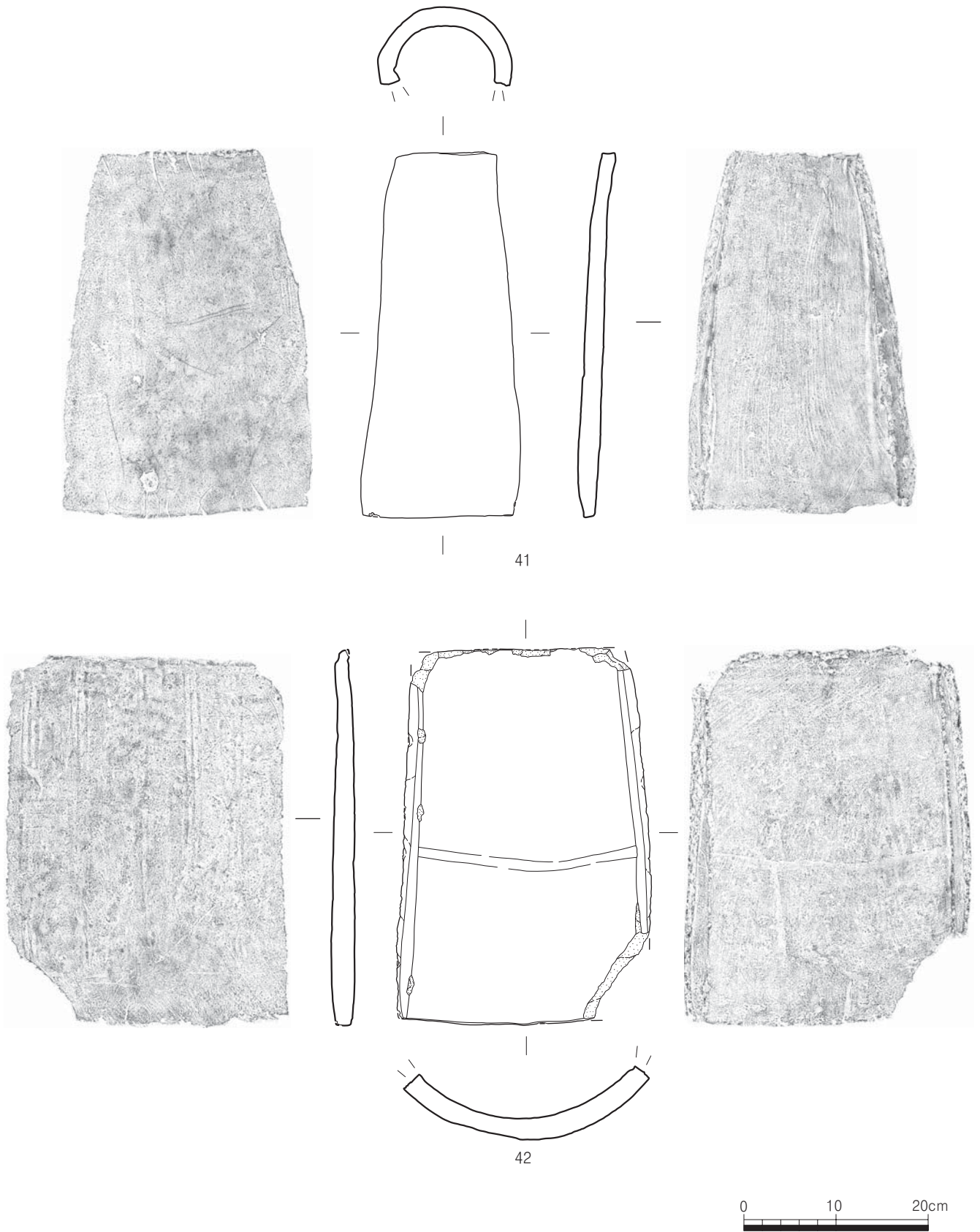
39



40



도면 31. 저수지 출토유물(39 · 40)



도면 32. 저수지 출토유물(41 · 42)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징
				길이	너비	두께		
43	암키와	33	17	(36.4)	28.9	2.2	회색 (N 5/0)	하단 일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부분적으로 희미한 타날 문양 확인되나 물손질 정면에 의해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44	암키와	33	17	34.0	(18.4)	2.4	회색 (N 6/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합철흔. 외면에 부분적으로 희미한 타날 문양 확인되나 물손질 정면에 의해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45	암키와	34	17	37.1	(24.3)	1.9	회색 (N 5/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점토접합흔, 윤철흔. 외면에 종방향의 타날흔 확인되나 물손질 정면에 의해 대부분 지워짐. 하단부 내면 물손질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46. 단경호(도면 35, 도판 18)

구연 1/2 정도와 동체 극히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5/0)을 띠고, 속심은 회적색(2.5YR 5/2)을 띤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 접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자연유 부착·산화되었다.

(현)고 4.9cm, 복원구경 14.2cm

47. 파수(도면 35, 도판 18)

파수와 동체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외면은 청회색(5PB 5/1),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5YR 4/3)을 띤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동체 외면에 선문타날흔과 내면에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파수 상면에 ‘—’자형 홈이 있으며, 물손질흔이 있다.

(현)길이 7.4cm

48. 호(도면 35, 도판 18)

저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N 6/0)을 띠고, 내면과 외면 일부는 약간 어두운 회색(N 4/0)을 띤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동체 외저면에 격자타날흔, 내면에 녹로흔, 기면은 물손질과 회전물손로 정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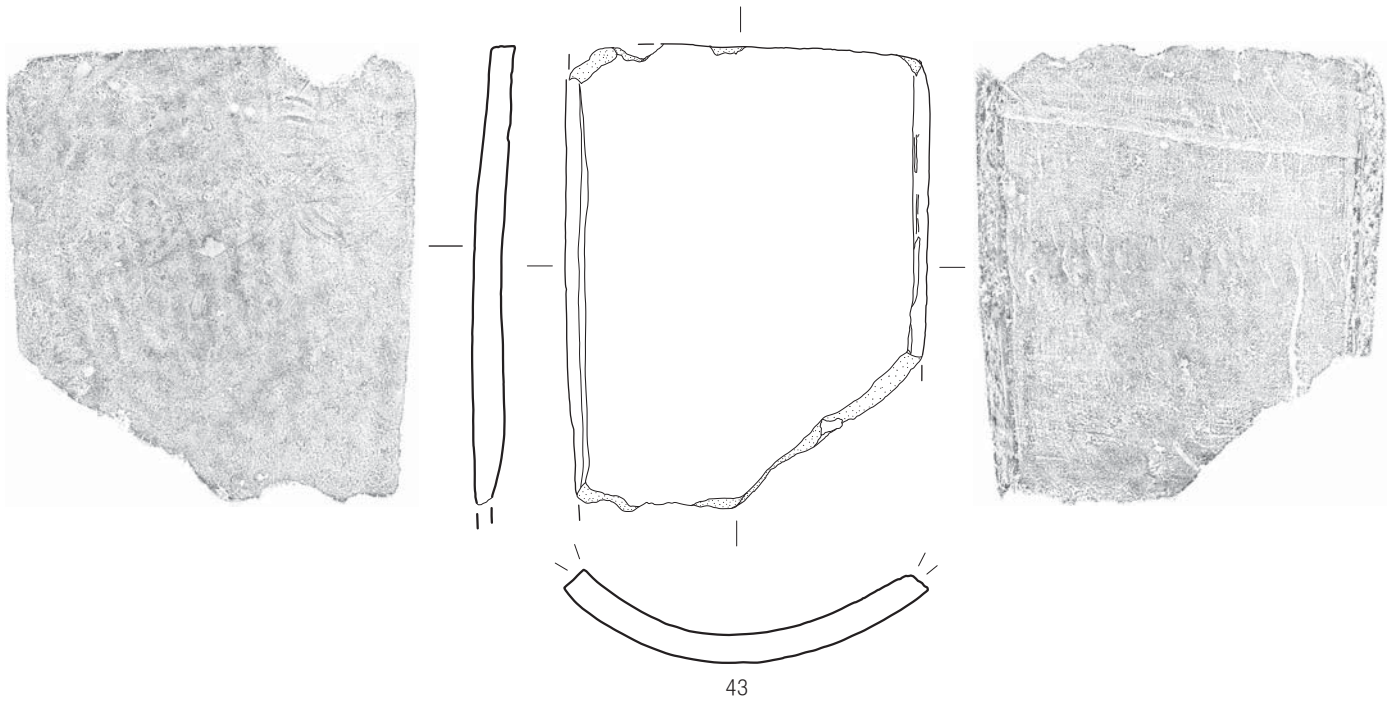
(현)고 11.4cm, 복원저경 19.9cm

49. 시루(도면 35, 도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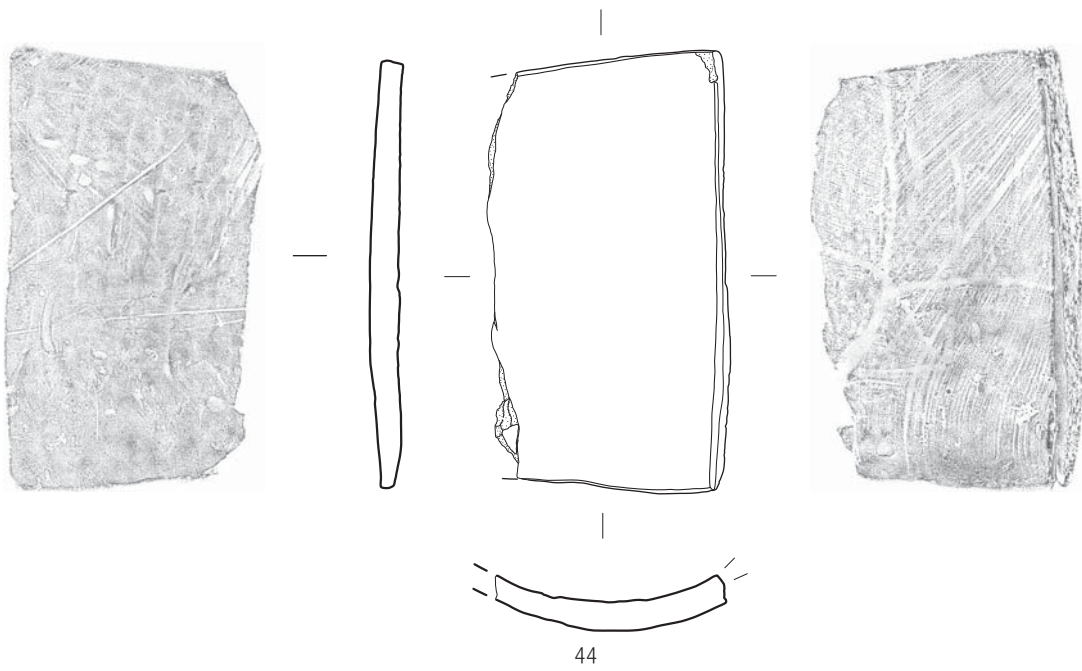
저부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0)을 띤다. 경질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동체 외저면에 격자타날흔, 내면에 녹로흔이 남아 있다. 기면은 물손질과 회전물손로 정면되었다. 바닥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다.

(현)고 1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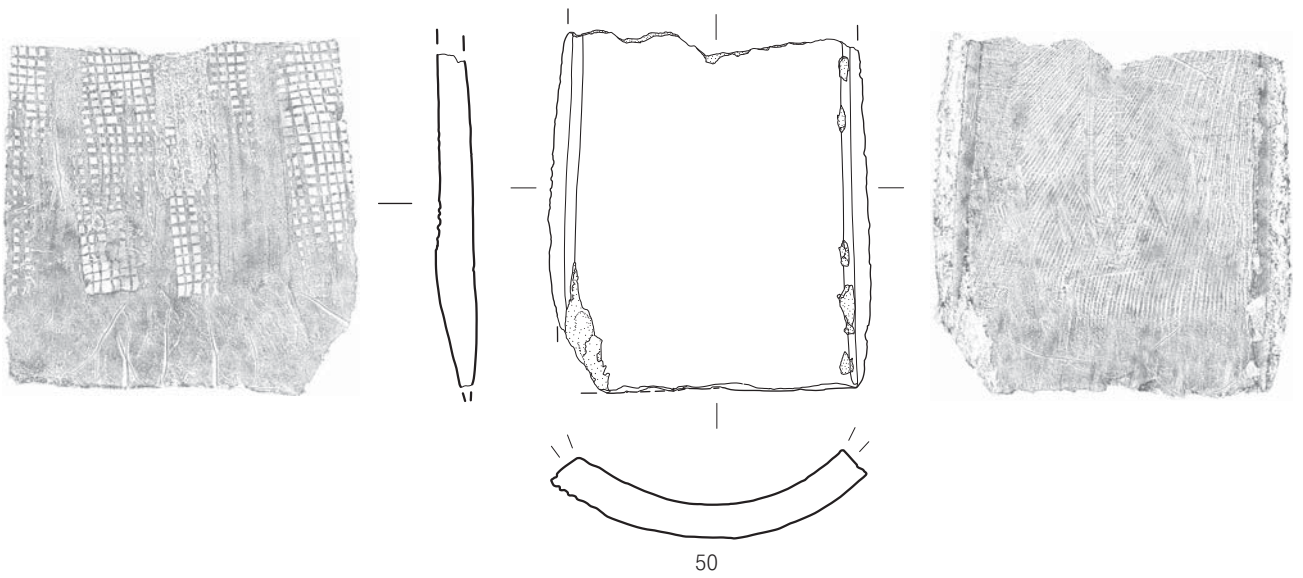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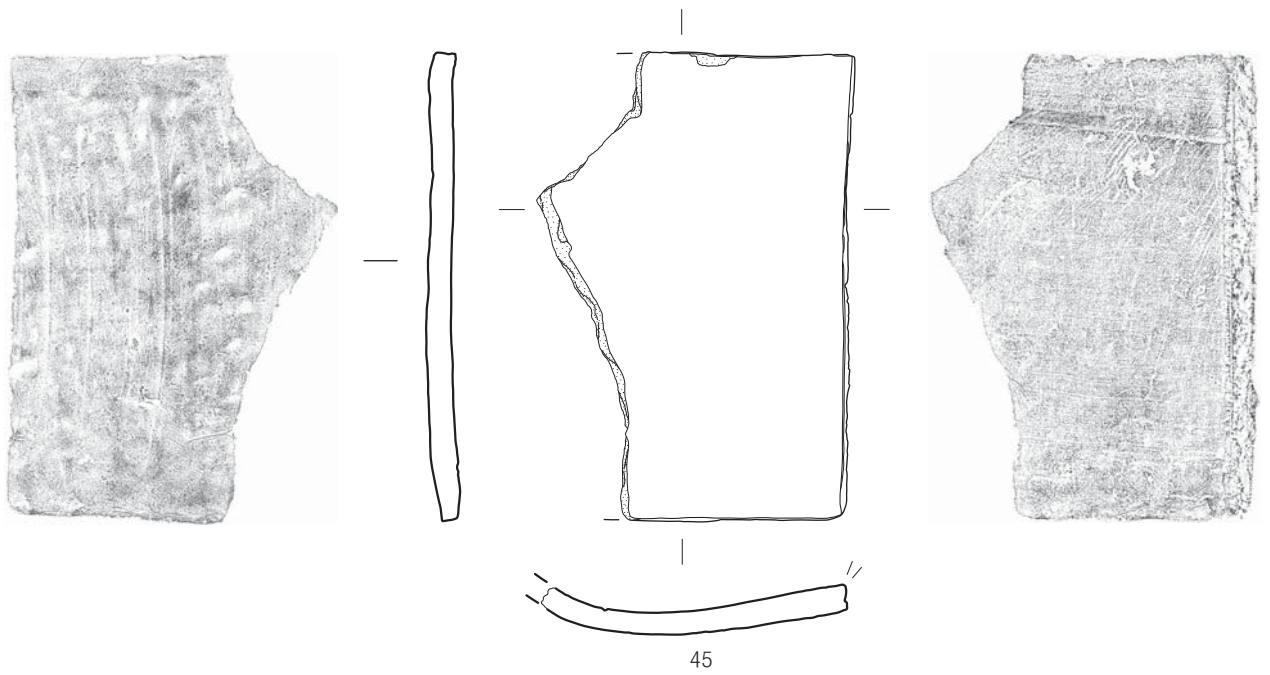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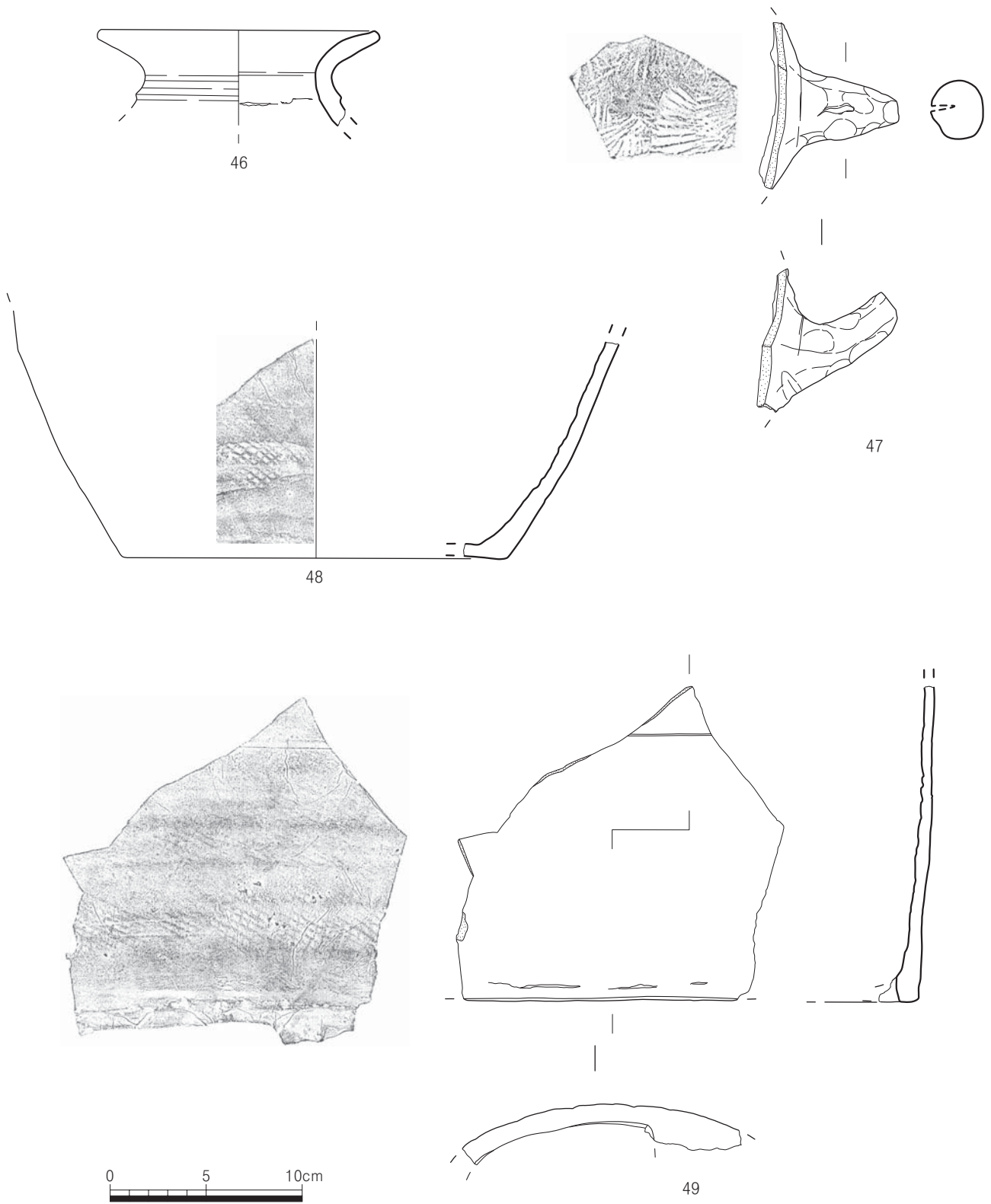
44

도면 33. 저수지 출토유물(43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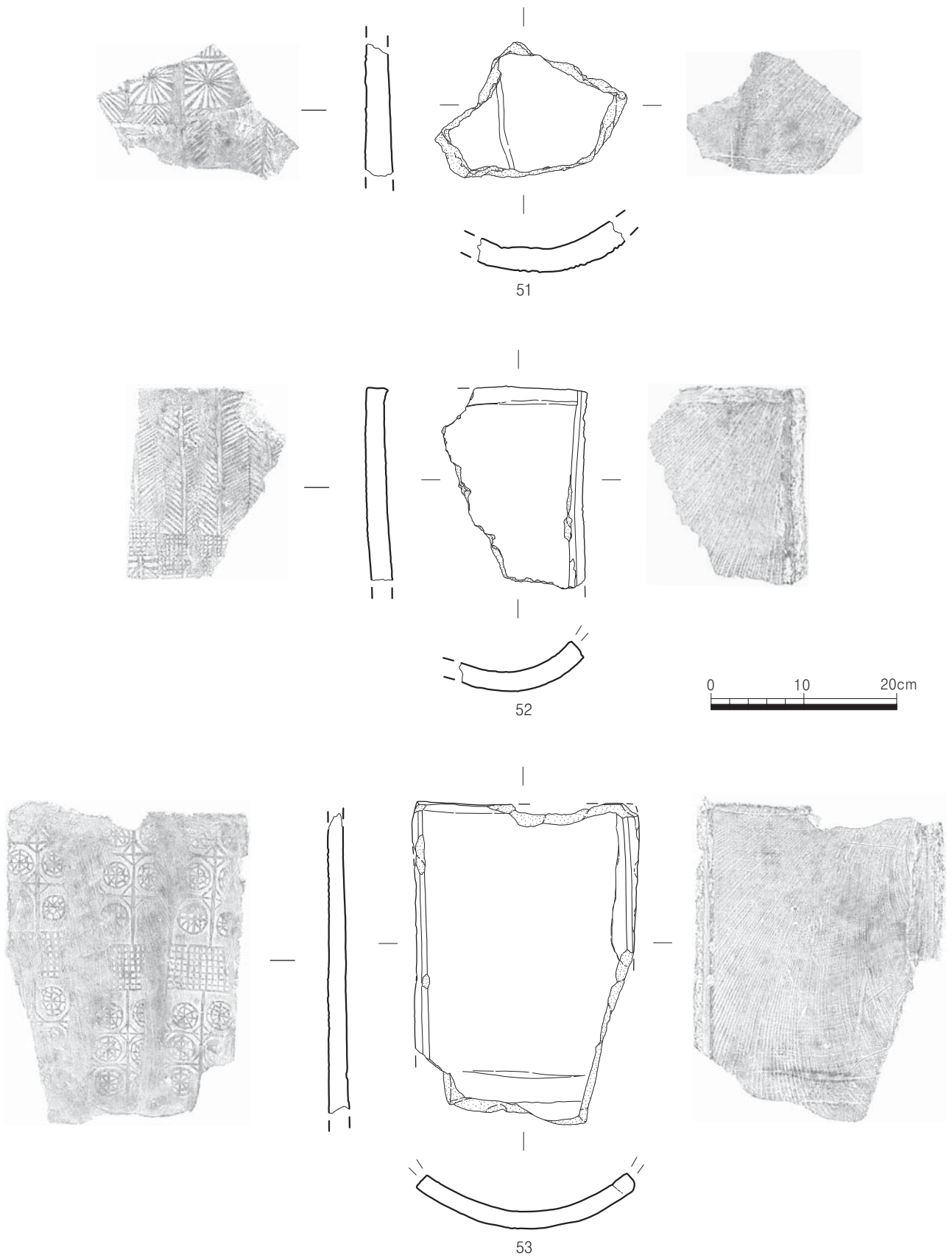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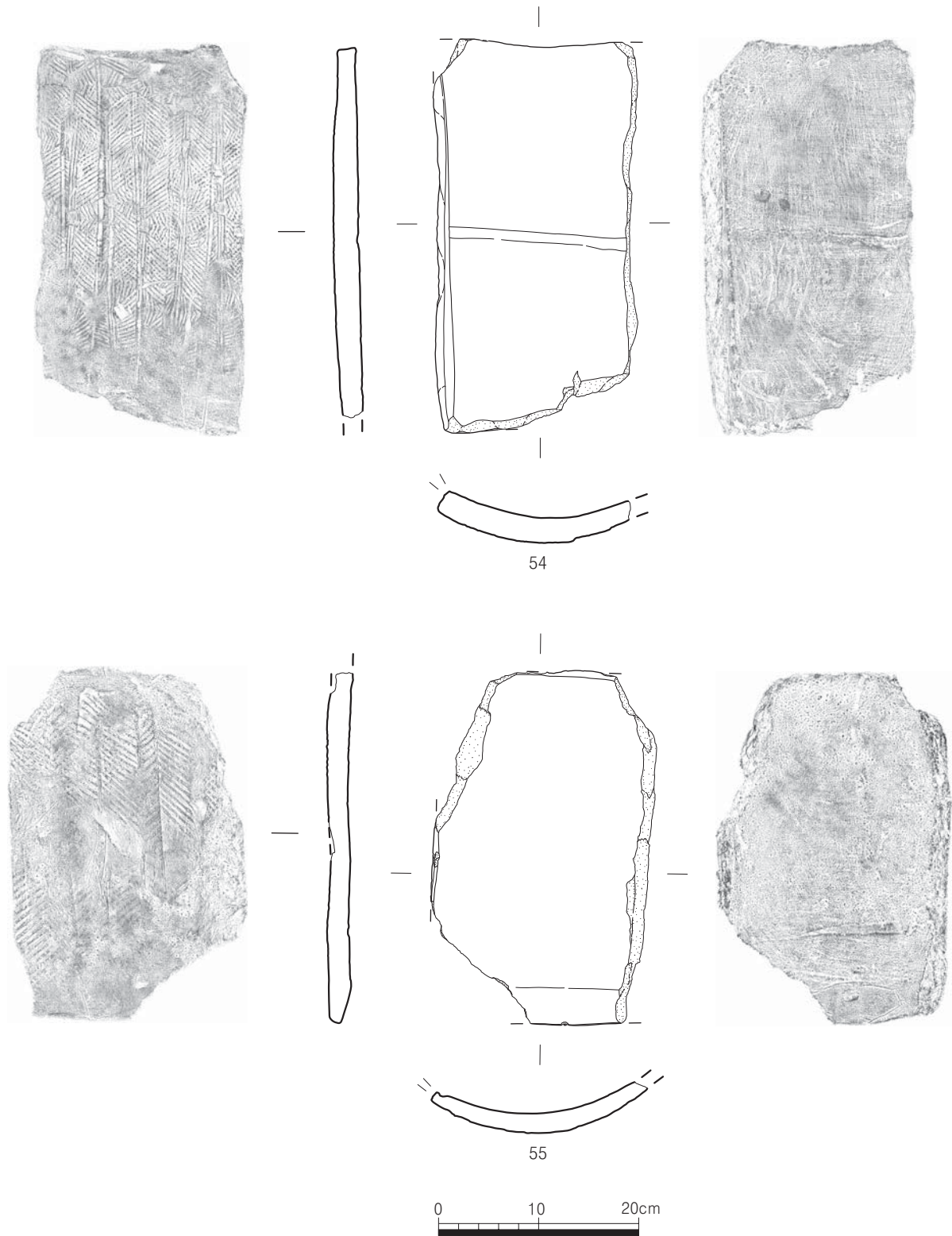
도면 34. 저수지 출토유물(45 · 50)



도면 35. 저수지 출토유물(46~49)



도면 36. 저수지 출토유물(51~53)



도면 37. 저수지 출토유물(54 · 55)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색조	특 징
				길이	너비	두께		
50	암키와	34	18	(20.4)	25.1	2.6	청회색 (5PB 5/1)	상단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종방향의 격자타날흔. 하단부 내·외면 물손질 조정. 양측면 내측에 와도흔.
51	암키와	36	18	(14.2)	(15.8)	2.5	회백색 (N 8/0) 회백색 (7.5Y 7/1)	신부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직선 복합문(어골문+방사선 방형문) 타날, 일부는 물손질로 지워짐.
52	암키와	36	18	(20.9)	(13.4)	2.2	청회색 (5PB 6/1)	상단 일부 잔존.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외면에 직선 복합문(어골문+격자문) 타날. 와도흔.
53	암키와	36	18	(34.9)	24.5	1.9	회백색 (N 7/0)	상단 일부, 하단부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곡선 복합문(차륜문+격자문) 타날. 와도흔.
54	암키와	37	18	(39.4)	(20.5)	2.5	회백색 (N 7/0)	한쪽 측면 결실. 내면에 포목흔, 사절흔. 외면에 사방향의 직선문 타날. 측면 내측에 와도흔.
55	암키와	37	19	(35.0)	(21.6)	1.9	갈회색 (5YR 6/1) 회색 (N 4/0)	상·하단 일부와 한쪽 측면 결실. 내면 포목흔, 사절흔 희미함. 외면 어골문 타날. 하단부 내·외면 물손질로 조정. 측면 내측에 와도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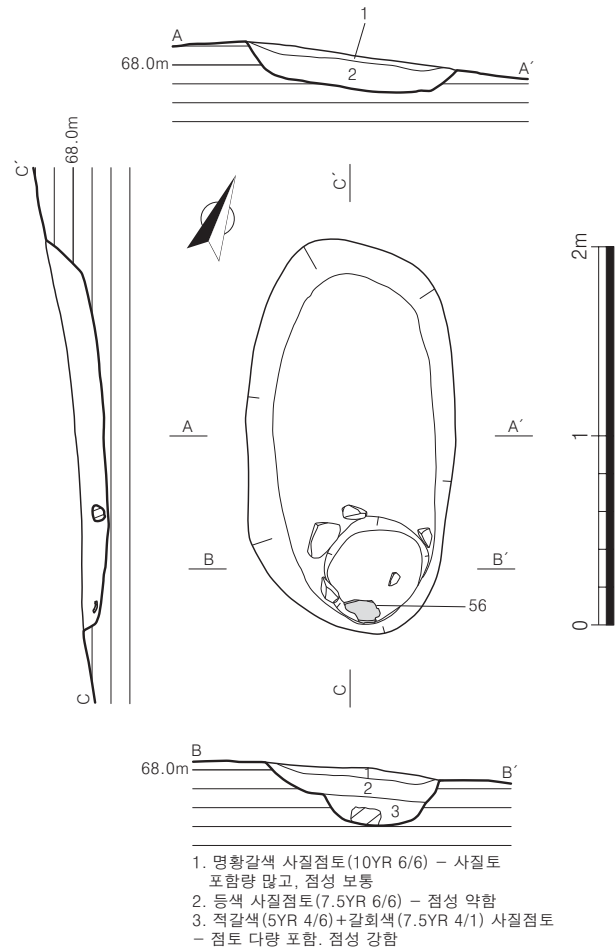
<조선시대>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8, 도판 19)

유구는 유적의 중앙부에서 북동편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회황갈색+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규모는 길이 206cm, 너비 110cm, 깊이 16cm 정도이다. 내부토는 상층은 명황갈색(Hue 10YR 6/6) 사질점토가, 하층은 점성이 약한 등색(Hue 7.5YR 6/6) 풍화암반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닥은 편평하게 정지되어 있다.

유구 내부에는 남쪽 단벽에 접하여 직경 56cm, 깊이 14cm 크기의 평면형태 원형 주혈이 확인된다. 그리고 주혈 내부에는 크기 15~20cm 정도의 할석이 주혈 주변으로 돌아가며 놓여 있고, 적갈색(Hue 5YR 4/6)+갈회색(Hue 7.5YR 4/1)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유물은 암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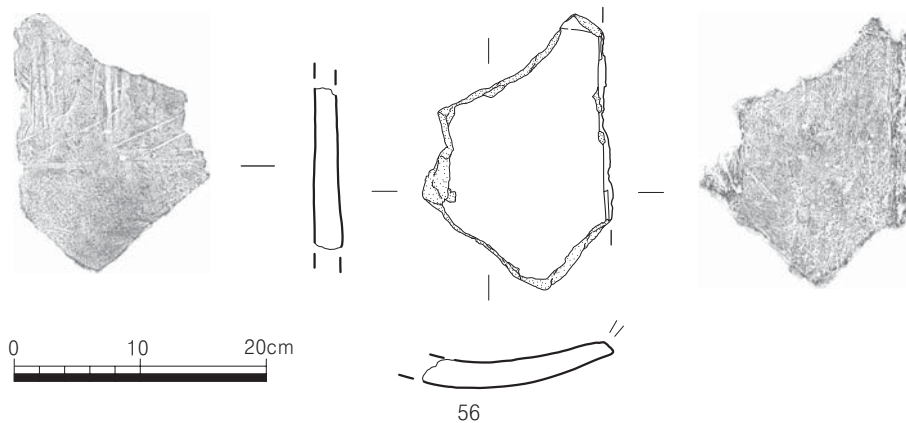
도면 38. 1호 수혈유구 평면·토층도(1/40)

나. 유물

56. 암키와(도면 39, 도판 19)

기면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7.5Y 5/1)을 띠고, 속심은 흐린 적갈색(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 선문타날흔, 내면에 포목흔이 남아 있다. 측면 내측에서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2.7cm, (현)너비 15.0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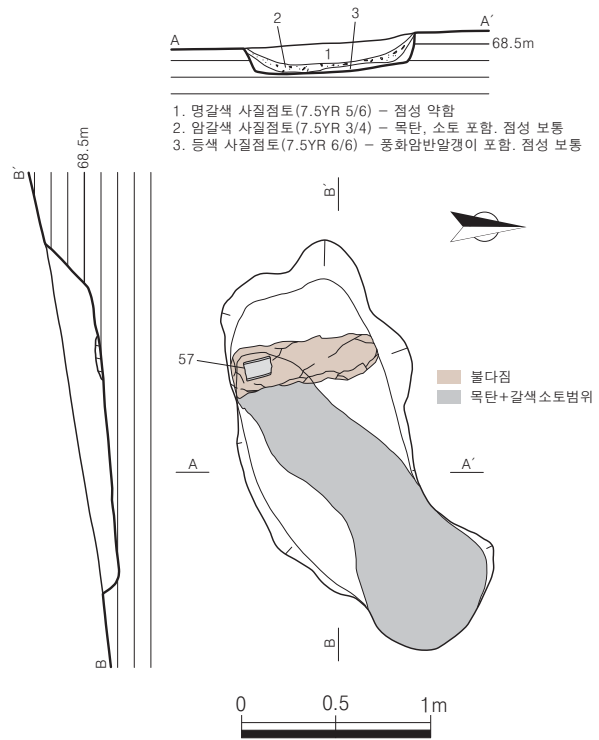
도면 39.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6)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0, 도판 20)

유구는 유적의 북동편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회황갈색+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고,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100cm, 깊이 22cm 정도이다. 내부토는 3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상층인 1층은 명갈색(Hue 7.5YR 5/6) 사질점토, 2층은 목탄과 소토알갱이를 포함한 암갈색(Hue 10YR 3/4) 사질점토, 하층은 암반알갱이를 포함하는 등색(Hue 7.5YR 6/6) 풍화암반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유구의 서편 단벽쪽으로 치우쳐 유리칠화 되듯이 검붉게 소결된 바닥이 일부 확인되며 너비는 25cm 정도이다. 유물은 서쪽으로 치우친 바닥에서 수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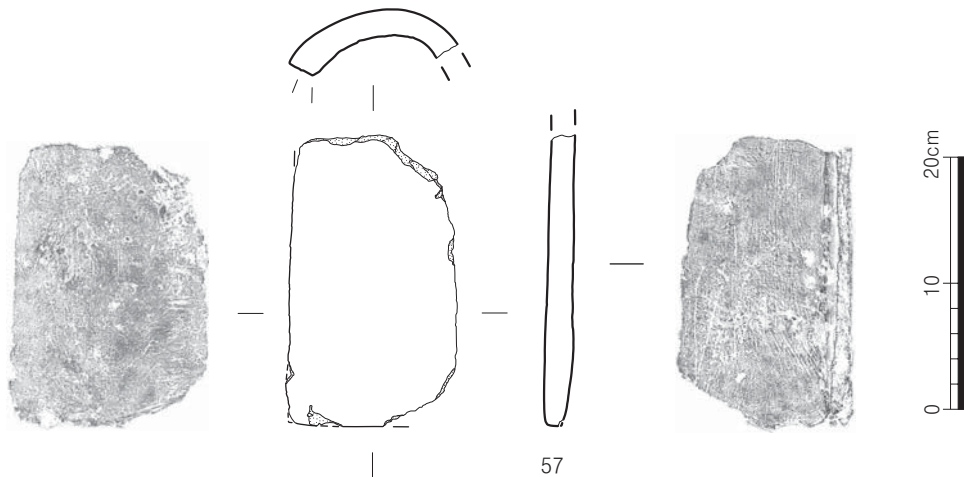
도면 40. 2호 수혈유구 평면·토층도(1/40)

나. 유물

57. 수키와(도면 41, 도판 20)

상단부와 우측면이 결실되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7.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내면에 사절흔, 포목흔이 남아 있다. 내면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좌측면 내측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23.1cm, (현)너비 13.3cm, 두께 2.1cm



도면 41.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7)

(3) 1호 적심

가. 유구(도면 42, 도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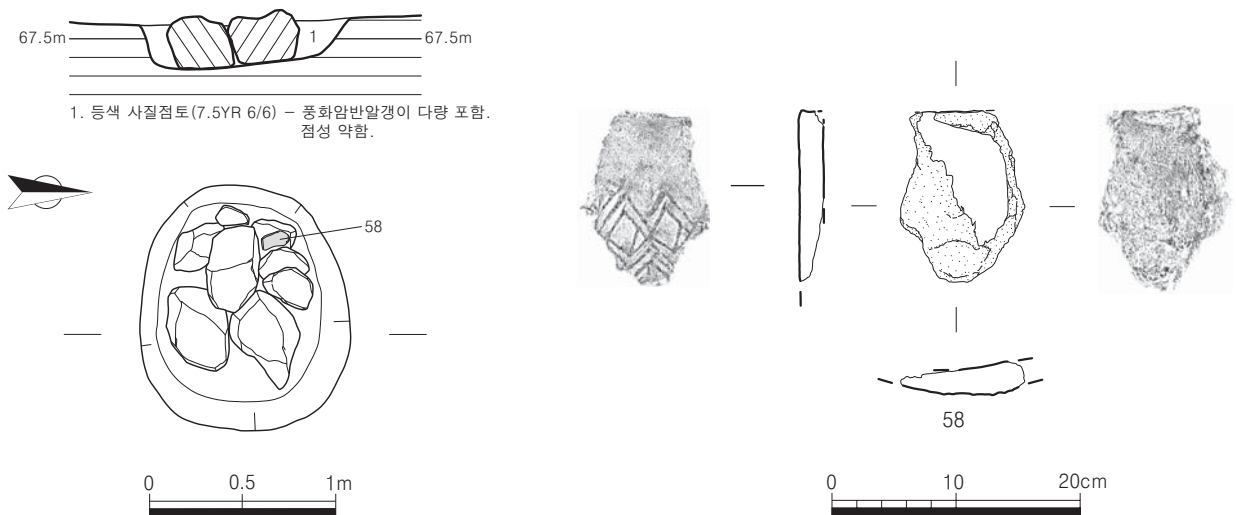
유구는 유적의 중앙부에서 동편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회황갈색+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110cm, 깊이 23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알갱이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등색(Hue 7.5YR 6/6)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할석 사이에서 암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8. 암키와(도면 42, 도판 21)

상단부 일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 능형문 타날흔이 남아 있다. 내면은 표면박리가 심하여 포목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길이 13.8cm, (현)너비 9.9cm, 두께 1.8cm



도면 42. 1호 적심 평면·단면도(1/40) 및 출토유물(58)

(4) 1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43, 도판 21~23)

건물지는 유적의 서쪽으로 치우쳐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풍화된 암반층에서 확인된다. 잔존하는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규모는 (현)길이 13.9m, (현)너비 5.7m, 깊이 30cm 정도이다. 내부토는 상층은 2~5mm 내외 풍화된 암반알갱이를 다량 포함하고 점성이 없는 갈색(Hue 7.5YR 4/4) 사질점토가, 하층은 점성이 강한 암갈색(Hue 7.5YR 3/4)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건물지의 북편에는 30~40cm 내외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배치한 석렬 일부가 남아 있다. 바닥은

고르지 못하고 약간 울퉁불퉁하며, 경사면 아래인 동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경사면 아래쪽에는 직경 20~60cm 내외 크기의 원형 주혈 12개가 확인된다. 주혈의 배치에서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크기와 깊이가 다양하다. 주혈 내부에는 1~2cm 내외 굵은 풍화된 암반알갱이를 다량 포함하고 색이 어두운 암갈색(Hue 7.5YR 3/3)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건물지의 북편에서 백자병, 종지, 옹기편과 암키와편이 출토되었고, 중앙부 내부에서 자기 접시와 대접, 옹기편, 암키와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9. 병(도면 43, 도판 24)

구연부, 동체 하위 및 저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백색(7.5YR 8/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기면에 회백색(7.5Y 7/2) 유약이 시유되었고, 외면 일부는 박리되었다. 내면에 녹로흔이 남아 있다.

(현)고 16.4cm, 복원동최대경 13.7cm

60. 종지(도면 43, 도판 24)

구연 일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백색(N 8/0)을 띤다. 태토는 미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 전면에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내저면과 굽 내·외면에 굵은 모래받침흔이 있다.

기고 5.3cm, 구경 10.7cm, 굽경 4.8cm

61. 옹(도면 43, 도판 24)

구연 1/4 정도와 동체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백색(N 7/0)을 띤다. 태토는 미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동체 상위 내·외면에 이물질이 다량 부착되어 있다.

(현)고 12.7cm, 복원구경 12.6cm, 복원동최대경 1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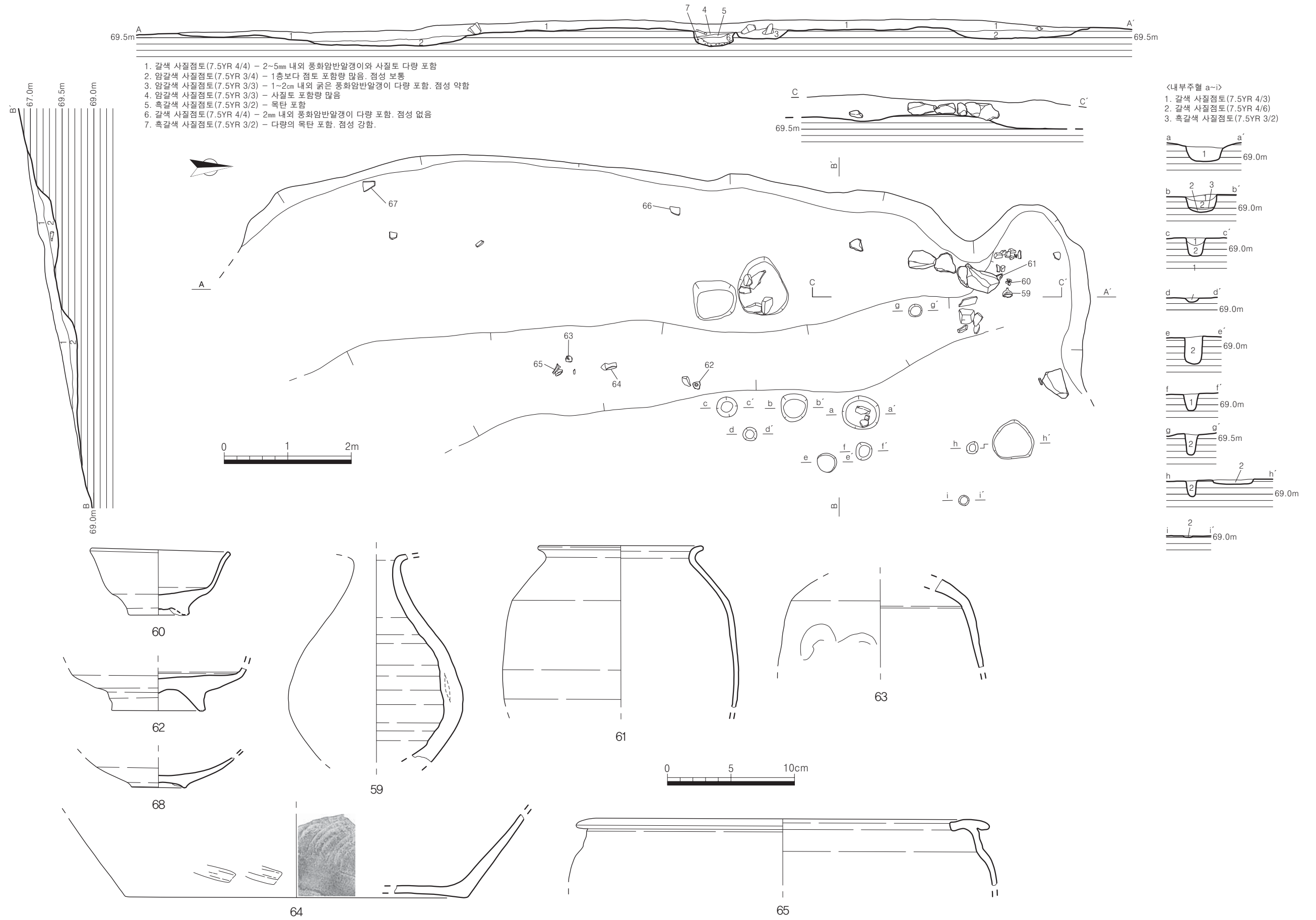
62. 대접(도면 43, 도판 24)

신부 하위 일부와 굽 부분이 남아 있다. 색조는 회백색(N 7/0)을 띤다. 태토는 미세사립이 함유된 점토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 전면에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내저면에 모래받침흔, 굽접지면에 태토 빗음흔이 확인된다.

(현)고 3.4cm, 복원굽경 7.4cm

63. 병(도면 43, 도판 24)

동체 상위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천황등색(10YR 8/4)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미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기 전면에 명녹회색(10GY 8/1)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외면에 흑색 문양이



도면 43. 1호 건물지 평면·토층도(1/60) 및 출토유물(59~65, 68)

있다.

(현)고 6.9cm

64. 옹(도면 43, 도판 24)

저부 일부, 동체 하위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5/0)을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함유된 점토이다. 동체 외저면에 도구누름흔, 내면에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고 6.6cm, 복원저경 27.0cm

65. 옹(도면 43, 도판 24)

구연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 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7.5Y 8/1)을 띠고, 속심은 회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와질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고 5.2cm, 복원구경 29.4cm

66. 암키와(도면 44, 도판 24)

기면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백색(7.5Y 7/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 포목흔과 사절흔이 남아 있다. 측면 내측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3.2cm, (현)너비 13.3cm, 두께 2.0cm

67. 암키와(도면 44, 도판 24)

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황갈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 황방향의 타날흔이 있고, 내면에 포목흔과 사절흔이 남아 있다. 하단부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측면 내측에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길이 11.9cm, (현)너비 14.5cm, 두께 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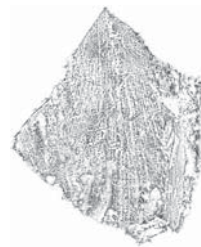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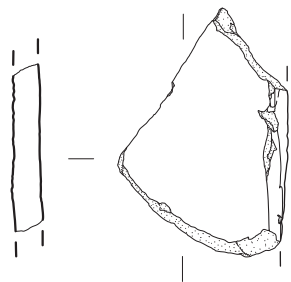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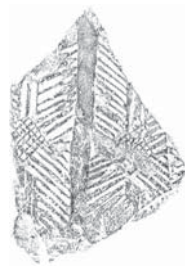
68. 접시(도면 43, 도판 24)

신부 하위와 저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10Y 7/1)을 띠고, 속심은 회색(7.5Y 6/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기 전면에 유를 시유하였고, 일부 멍쳐있다. 내저면과 굽 안쪽에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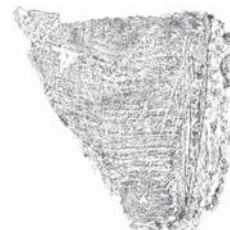
(현)고 2.3cm, 굽경 4.3cm

69. 암키와(도면44, 도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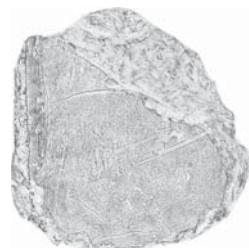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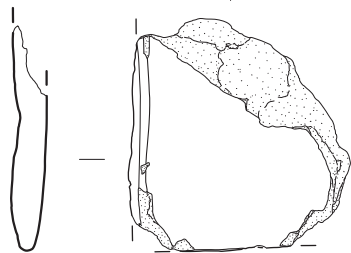
하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



66



67



69



도면 44. 1호 건물지 출토유물(66·6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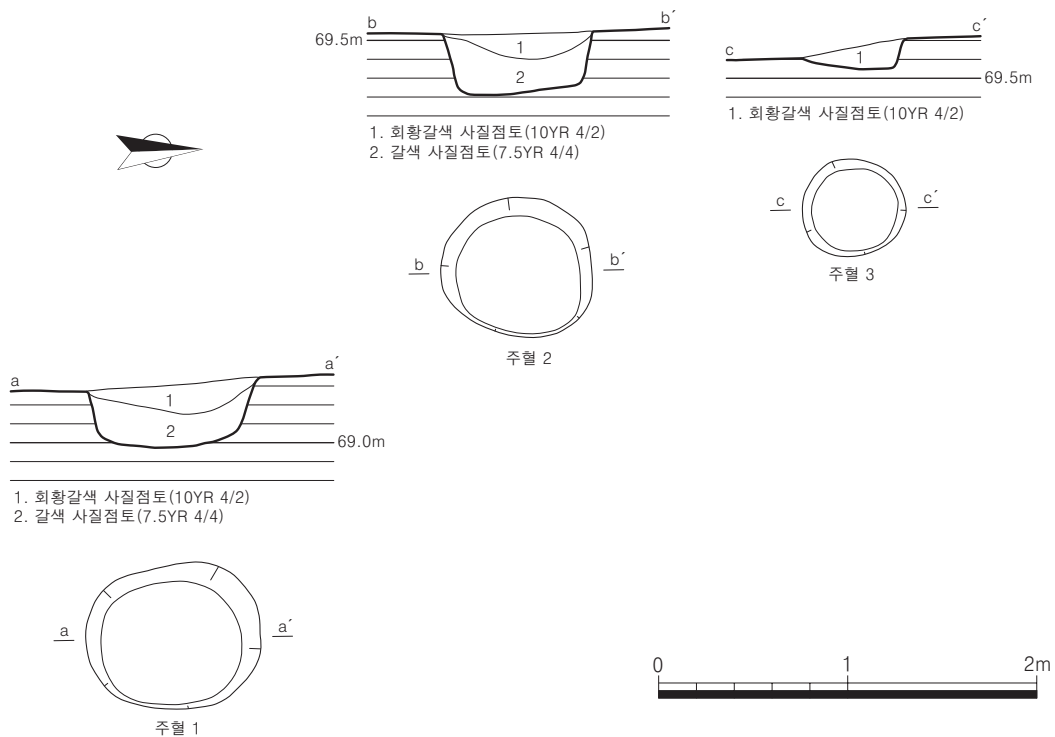
된 점토이다. 외면에 능형문 타날흔, 내면에 포목흔과 사절흔이 남아 있다.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측면 내측에 와도흔이 있다.

(현)길이 17.8cm, (현)너비 17.4cm, 두께 2.4cm

(5) 주혈군

가. 유구(45~47, 도판 2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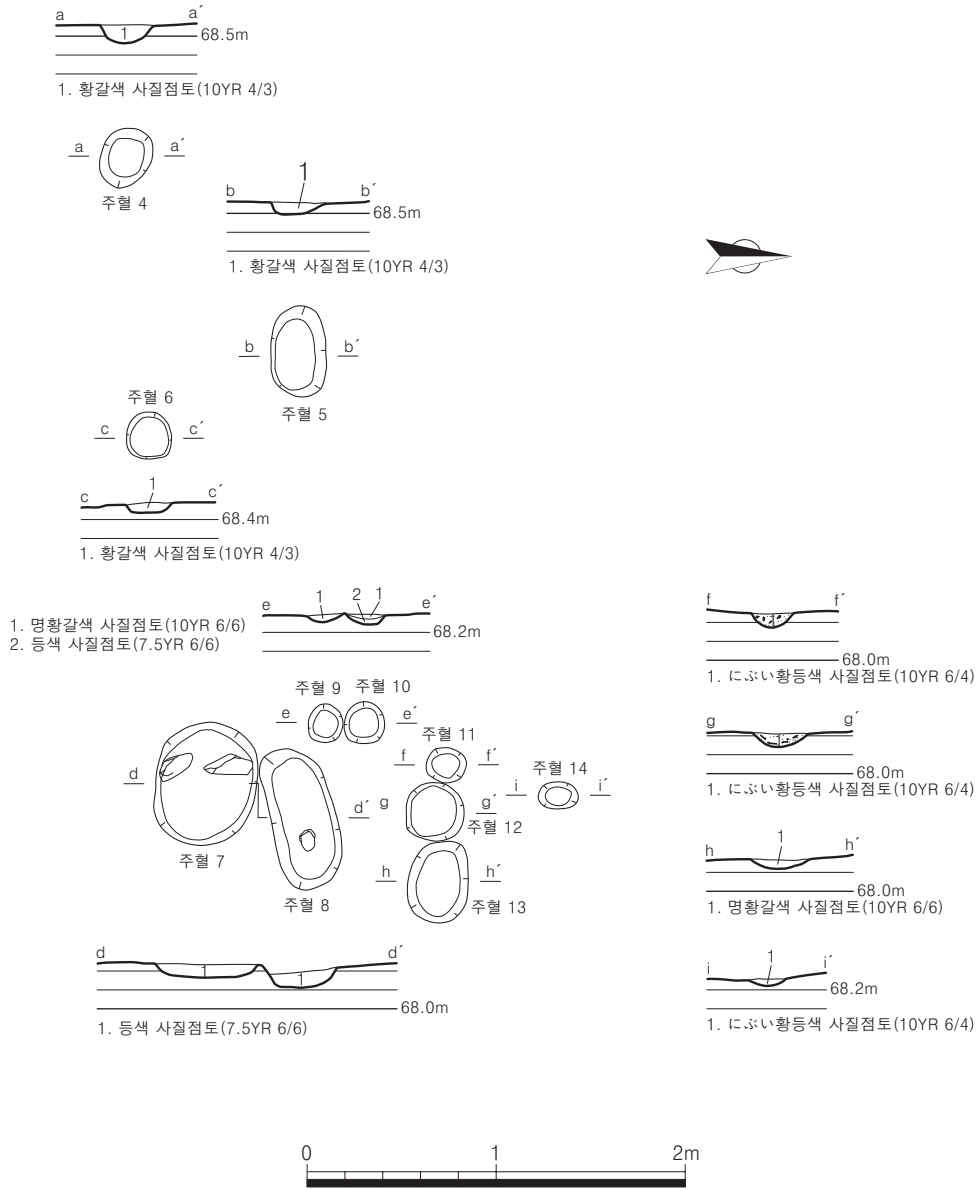
주혈군은 조사대상지역의 북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29개가 확인되었다. 주혈군이 형성된 층위는 갈색(Hue 7.5YR 4/4) 사질점토층이고, 그 아래층에는 명갈회색(Hue 7.5YR 7/2) 사질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주혈의 규모는 길이 14~84cm, 너비 20~96cm, 깊이 4~32cm 정도이고,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과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과 'V'자형으로 나뉜다. 주혈의 배치양상에 있어 정형성이 파악되지 않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또한 없어 그 성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조선시대의 수혈유구와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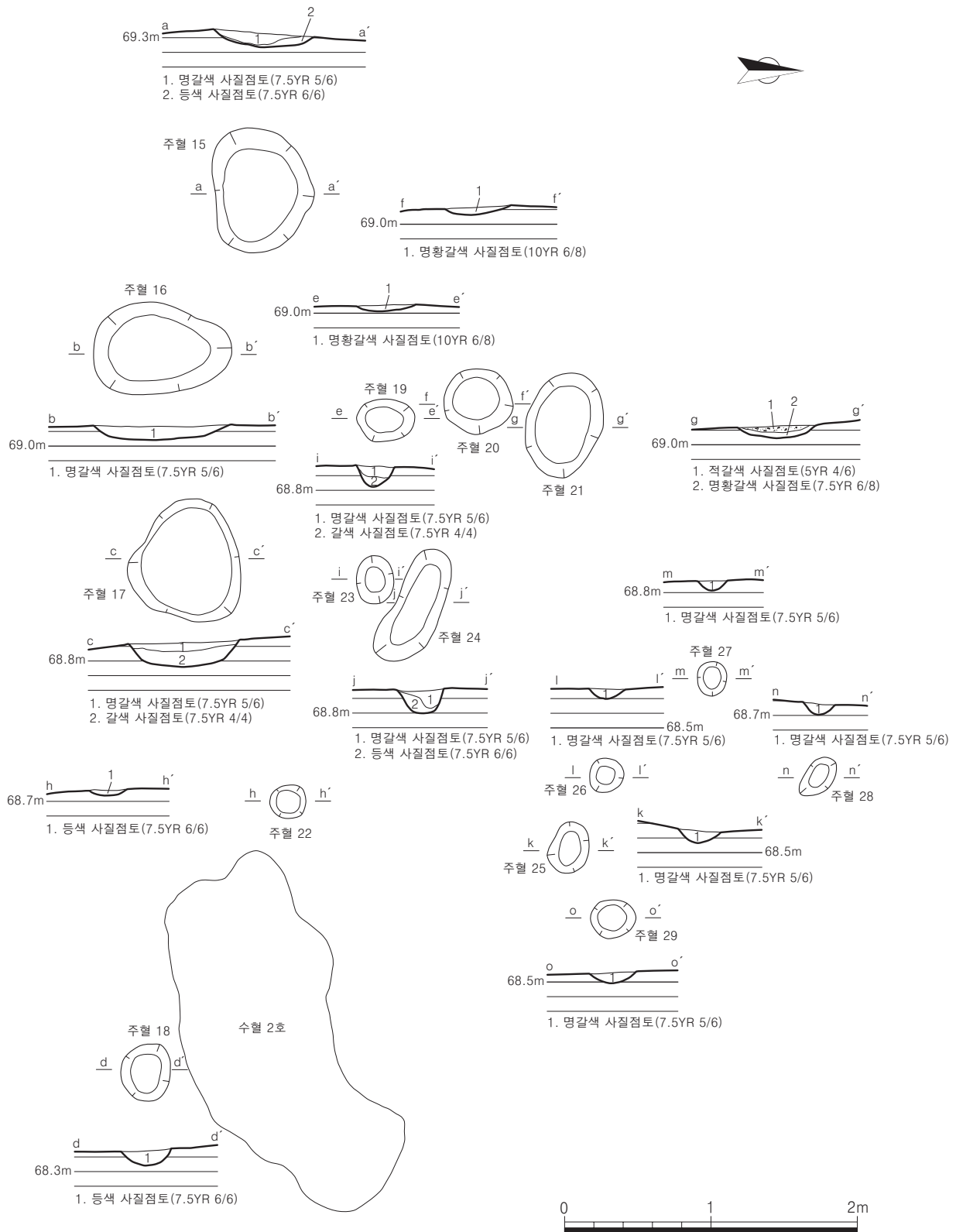
도면 45. 주혈 1~3 평면·토층도(1/40)

【표 2】 주혈 현황표

주혈 번호	평면형태	단면형태	규 모(cm)			내부토	비 고
			길이	너비	깊이		
1	타원형	‘U’자형	68	96	32	1층: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2층: 갈색(7.5YR 4/4) 사질점토	
2	원형	‘U’자형	74	80	32	1층: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2층: 갈색(7.5YR 4/4) 사질점토	
3	원형	‘L’자형	52	54	16	1층: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4	원형	‘U’자형	30	28	10	1층: 탁한 회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5	타원형	‘U’자형	48	30	6	1층: 탁한 회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6	원형	‘U’자형	26	24	6	1층: 탁한 회황갈색(10YR 4/3) 사질점토	
7	타원형	‘U’자형	66	54	7	1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8	타원형	‘U’자형	74	36	8	1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9	원형	‘U’자형	20	18	4	1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10	원형	‘U’자형	22	22	6	1층: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2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11	원형	‘V’자형	18	20	7	1층: 탁한 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12	원형	‘V’자형	30	30	8	1층: 탁한 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13	타원형	‘V’자형	44	32	4	1층: 명황갈색(10YR 6/6) 사질점토	
14	타원형	‘V’자형	14	22	4	1층: 탁한 황등색(10YR 6/4) 사질점토	
15	부정형	‘U’자형	84	66	8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16	부정형	‘U’자형	62	94	10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17	부정형	‘U’자형	84	78	18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층: 갈색(7.5YR 4/4) 풍화암반토	
18	타원형	‘V’자형	40	34	10	1층: 등색(7.5YR 6/6) 사질점토	
19	타원형	‘U’자형	28	40	4	1층: 명황갈색(10YR 6/8) 사질점토	
20	원형	‘U’자형	46	48	5	1층: 명황갈색(10YR 6/8) 사질점토	
21	타원형	‘U’자형	72	54	8	1층: 적갈색(5YR 4/6) 사질점토 2층: 명황갈색(10YR 6/8) 풍화암반토	
22	원형	‘U’자형	22	24	4	1층: 등색(7.5YR 6/6) 사질점토	
23	타원형	‘V’자형	32	28	14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층: 갈색(7.5YR 4/4) 사질점토	
24	부정형	‘U’자형	80	34	16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층: 등색(7.5YR 6/6) 풍화암반토	
25	타원형	‘V’자형	36	28	8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6	원형	‘V’자형	22	24	10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7	타원형	‘V’자형	24	20	12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8	타원형	‘V’자형	26	22	16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29	원형	‘V’자형	26	30	14	1층: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	



도면 46. 주혈 4~14 평면·토층도(1/40)



도면 47. 주월 15~29 평면 · 토층도(1/40)

IV. 조사성과

유적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전 실시한 입회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시행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면적은 615㎡이다.

발굴조사지역은 해발 66~71m 지점에 위치하며, 유적이 위치한 성안마을의 주변으로 야트막한 구릉성 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구릉 정상부를 따라 반원형으로 산내성이 축조되어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능선 말단부와 평탄 지대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지형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급경사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유적의 중앙부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건물지와 유적에서는 상층과 하층의 두 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상층 유구는 회황갈색+갈색 사질점토인 3층에서 수혈유구 2기, 적심 1기, 건물지 1기, 주혈 29개가 조사되었고, 하층 유구는 명갈회색 사질점토인 5층과 암갈색점토의 6층, 흑갈색 사질점토인 7층에서 석축시설이 있는 저수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상층 유구인 건물지 및 수혈유구에서 백자편, 분청사기편 등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하층 유구인 저수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암키와가 대다수이며, 소량의 미구수키와가 출토되었고, 자기류는 드물지만 청자편을 포함하고 있어 고려시대에 축조된 유구로 판단된다.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한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유구·유물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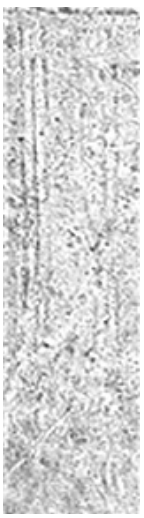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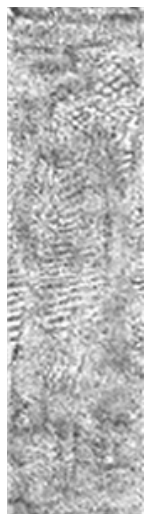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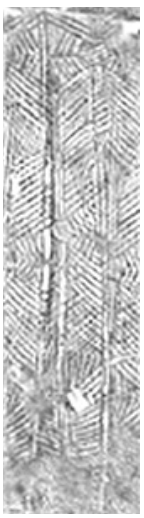


유 구			유 물			비 고
시대 및 성격	수량(기)	토도류	금속류	수량(점)		
고려	저수지	1	55	·	55	
조선	건물지	1	11	·	11	
	수혈유구	2	2	·	2	
	적심	1	1	·	1	
	주혈	29	·	·	·	
합 계		34	69	0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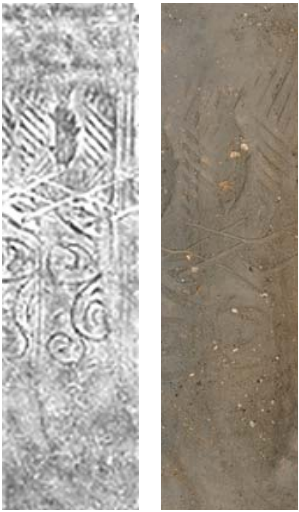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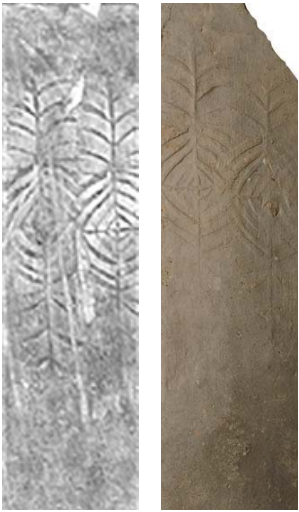


유적의 성격을 대표하는 유구는 저수지로 볼 수 있다. 저수지의 구조는 석축시설 및 기와 폐기층, 능선의 말단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집수하기 위한 구상의 입수구(入水溝), 그 아래에 형성된 습지층으로 구성된다. 석축은 판축기법으로 기반층을 정지한 후 굴착하여 30~80cm 내외의 크고 작은 할석으로 종평적과 횡평적을 혼용하여 4~5단 정도 수직으로 벽석을 쌓고, 그 아래 하단은 30~40cm 내외의 할석을 비스듬한 경사면에 맞춰 계단상으로 들여쌓기 하였다. 입수구는 특별한 시설없이 경사면을 이용하여 단면형태 ‘U’자형으로 굴착하고 능선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저수지 안쪽으로 모이도

록 하였으며, 석축의 경사면 안쪽으로 폐기된 다량의 기와편으로 추정할 때 석축 위에는 기와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의 사용은 해당 층에서만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폐기가 진행된 것 아니라 일괄적 폐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을 통해 그 시기를 살펴보면 저수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55점으로 자기류 2점과 기와류 53점이다. 기와의 크기는 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암키와는 길이 36.0~42.0cm, 너비 26.0~32.0cm, 두께 2.2cm 정도이며, 수키와는 길이 39.0~42.5cm, 너비 16.0~18.0cm, 두께 1.8~2.6cm 정도이다. 기와는 물손질로 하단 내면을 조정하였고 조정범위는 5.0~8.0cm 내외이며, 분할흔적은 양측면의 안쪽에서 와도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목흔, 사절흔, 윤철흔, 연철흔 등이 확인되고, 외면에는 잔존하는 타날판의 문양으로 보았을 때 장판으로 추정되는 타날흔이 남아있다. 문양은 수키와의 경우 외면의 문양은 대부분 무문이며, 소량의 수키와에서 사방향의 집선문이 확인되고, 수키와의 구성에서 유단식의 미구기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암키와의 외면에서 확인된 문양은 태선문이나 어골문이 드물고 무문이거나 장판의 집선문계 복합문이 대부분이다. 직선계 집선문으로 종방향, 횡방향, 사방향의 집선문이 타날된 평기와와 어골문이 있다. 직선계 복합문으로 잔존하는 평기와의 문양을 토대로 살펴보면 어골문+삼각방형문+중형문이 장판을 이루어 횡방향으로 타날된 평기와, 어골문+격자방형문, 어골문+방사선방형문 어골문+사격자문 등으로 구성된 장판의 타날문 평기와가 확인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특징적인 문양으로 물고기모양이 양각된 곡선계 복합문이 타날된 평기와가 다수 있으며, 장판의 차륜문이나 중호문이 타날된 평기와가 있다. 또 출토양이 많지 않지만 저수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청자가 있다. 기종은 접시와 매병으로 추정되며 완형은 아니지만 굽 형태가 해무리굽을 탈피한 점과 병의 상감 장식이 베풀어진 점을 통해 고려시대 후기로 판단된다.

이렇듯 저수지의 초축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수지 바닥의 습지층에서 출토된 기와 등의 유물과 상층에서 폐기된 다수의 기와와 함께 출토된 청자편을 통해 저수지의 존속시기는 고려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표 4】 저수지 출토 평기와 문양표

직선계 집선문							
	종방향집선문	횡방향집선문	격자문	침선문	사방향집선문	사방향집선문	어골문

직선계 복합문					
	사격자 복합문	어골문+삼각방형문+중선문	어골문+사격자문	어골문+격자방형문	어골문+방사선방형문
곡선계 복합문					
	어문+집선문+ X문+당초문	중호 복합문	차륜문+격자방형문		

저수지 상층에서 확인된 건물지에서 자기류와 기와류 11점을 비롯하여 수혈유구에서 기와 2점, 적심에서 기와 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백자와 분청사기는 중지, 접시와 병의 기종이 확인되며, 편으로 잔존하는 출토 유물의 기형 및 기종 구성에서 연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청사기와 백자가 공반되는 점에서 상한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적 내 상층 유구인 건물지와 수혈유구의 조성시기는 조선시대 전기로 판단되고, 하층 유구인 저수지는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되어 존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유구 제원표

연번	성 격	평면형태	주축방향	규 모			내 용	출토유물	비 고
				길이(m)	너비(m)	깊이(cm)			
1	저수지	부정형	.	(현) 30.0	(현) 15.5	250	석축렬, 입수구(入水溝)	청자편 수키와, 암키와	
3	1호 수혈유구	장타원형	N-65°-E	2	1.1	16	내부주혈1	암키와	
4	2호 수혈유구	부정형	N-20°-W	2.5	1	22	소결 바닥	암키와	
5	1호 적심	타원형	E - W	1.3	1.1	23	20~30cm 할석	암키와	
2	1호 건물지	부정형	N - S	13.9	5.7	30	주혈12	자기편 암키와	

유적의 주변으로 유적과 인접하여 울진 화성리 성지(山內城)가 축조되어 있다. 울진 화성리 성지인 山內城은 죽변면에 소재하는 ‘長山城이 신라말 왜구에 의해 폐허가 되자 고려초에 장산성에서 내륙으로 서쪽 5리 떨어진 이곳에 축성하고 이읍하였다’는 문헌사료가 있다. 사료에는 『蔚珍郡誌』蔚珍邑 城郭 山內城條에 ‘在縣北 城內洞하니 土築이라. 新羅末에 長山城이 爲倭寇所焚하고 居民離散하야 不得修築이러니 高麗時에 移建于山內城하고 至成宗朝하야 以爲城小地래이라하야 廣基城址러니 後에 移治古縣城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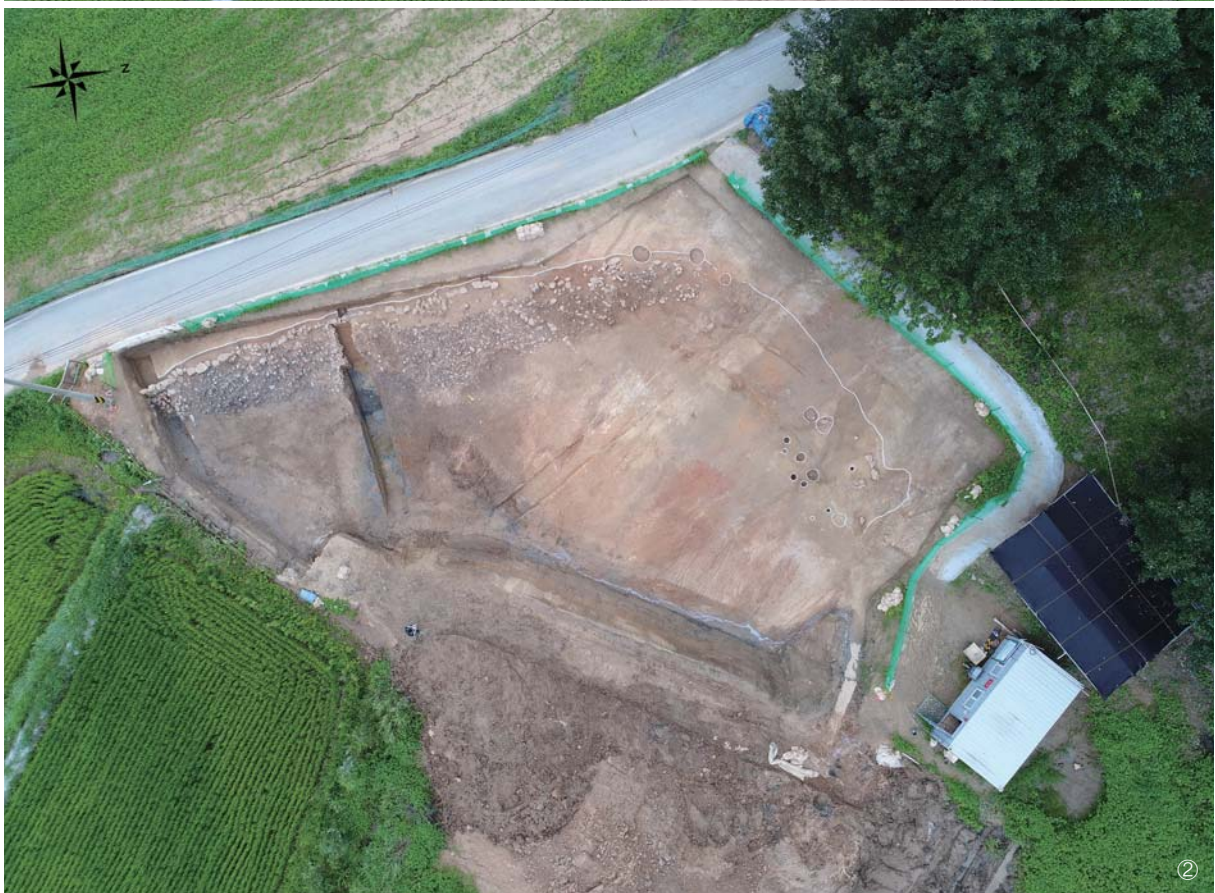
산내성의 지표조사²⁶⁾에서 수습된 유물로 태선 어골문계 암키와와 자기류가 있다. 산내성에서 확인된 유물 등과 저수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유적은 산내성과 관련된 유구로 판단된다. 앞으로 화성리 성지와 함께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지 및 관련 건축물, 수리시설 등과 연계하여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6) 慶尙北道 蔚珍郡. 大邱大學校 博物館, 1998, 『蔚珍郡 城地遺蹟 地表調査報告書』.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항공사진(①화성리 성지 내 원경, ②저수지 추정범위 전경)



도판 2. 조사대상지 항공사진(①조사전 전경, ②조사후 전경)



도판 3. 작업 광경(①), 유적 토층(②동벽 전경, ③동벽 세부, ④남벽)



도판 4. 저수지(①기와 폐기상태 전경, ②기와 폐기상태 세부)



도판 5. 저수지(①·②기와 폐기층 토층, ③~⑥판축 토층, ⑥·⑦습지 토층 퇴적양상)



도판 6. 저수지(① · ②남벽 토층, ③남벽 석축 세부, ④~⑦남벽 판축 토층)



도판 7. 저수지(①기와 폐기상태 노출 전경, ②~④기와 폐기양상 세부)



도판 8. 저수지(①~③기와 폐기양상 세부, ④·⑤기와 노출 세부)



도판 9. 저수지(①석축 노출 전경, ②~④석축 축조상태 및 세부)



도판 10. 저수지(①석축 노출 전경, ②~④석축 노출 세부)



도판 11. 저수지(①습지 깊이, ②습지 토층, ③~⑤습지 전경 및 세부, ⑥입수구 전경)



도판 12. 저수지 출토유물(1~7)



도판 13. 저수지 출토유물(8~15)



도판 14. 저수지 출토유물(16~23)



도판 15. 저수지 출토유물(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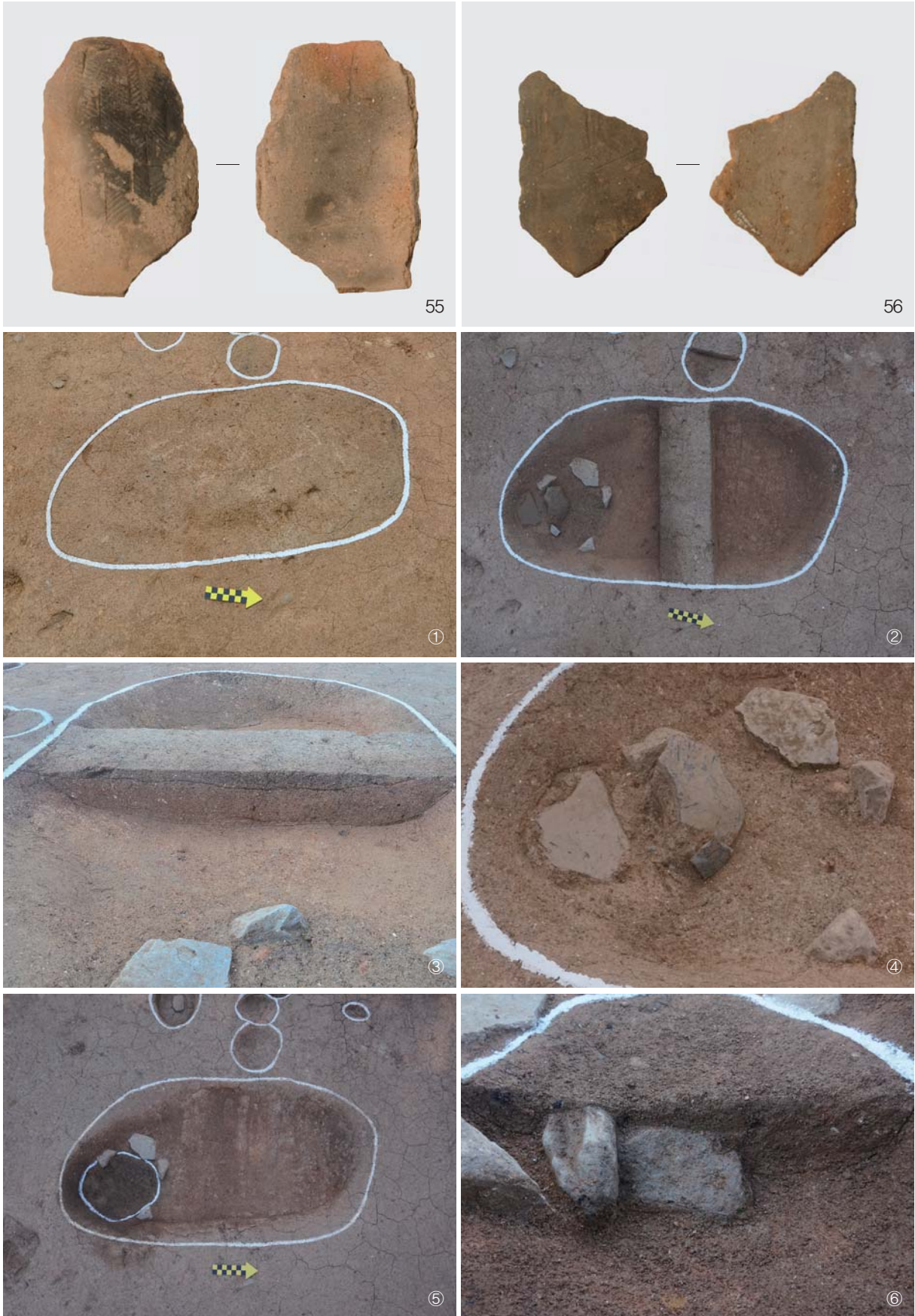
도판 16. 저수지 출토유물(31~38)



도판 17. 저수지 출토유물(39~45)



도판 18. 저수지 출토유물(46~54)



도판 19. 저수지 출토유물(55), 1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 ②조사중 전경, ③토층, ④세부, ⑤조사후전경, ⑥내부 주혈 토층) 및 출토유물(56)



도판 20. 2호 수혈유구(①조사전 전경, ②조사중 전경, ③토층, ④조사후 전경, ⑤세부) 및 출토유물(57), 1호 적심(①조사전 전경, ②노출 전경)



도판 21. 1호 적심(①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58), 1호 건물지(②조사전 전경, ③조사중 전경, ④~⑥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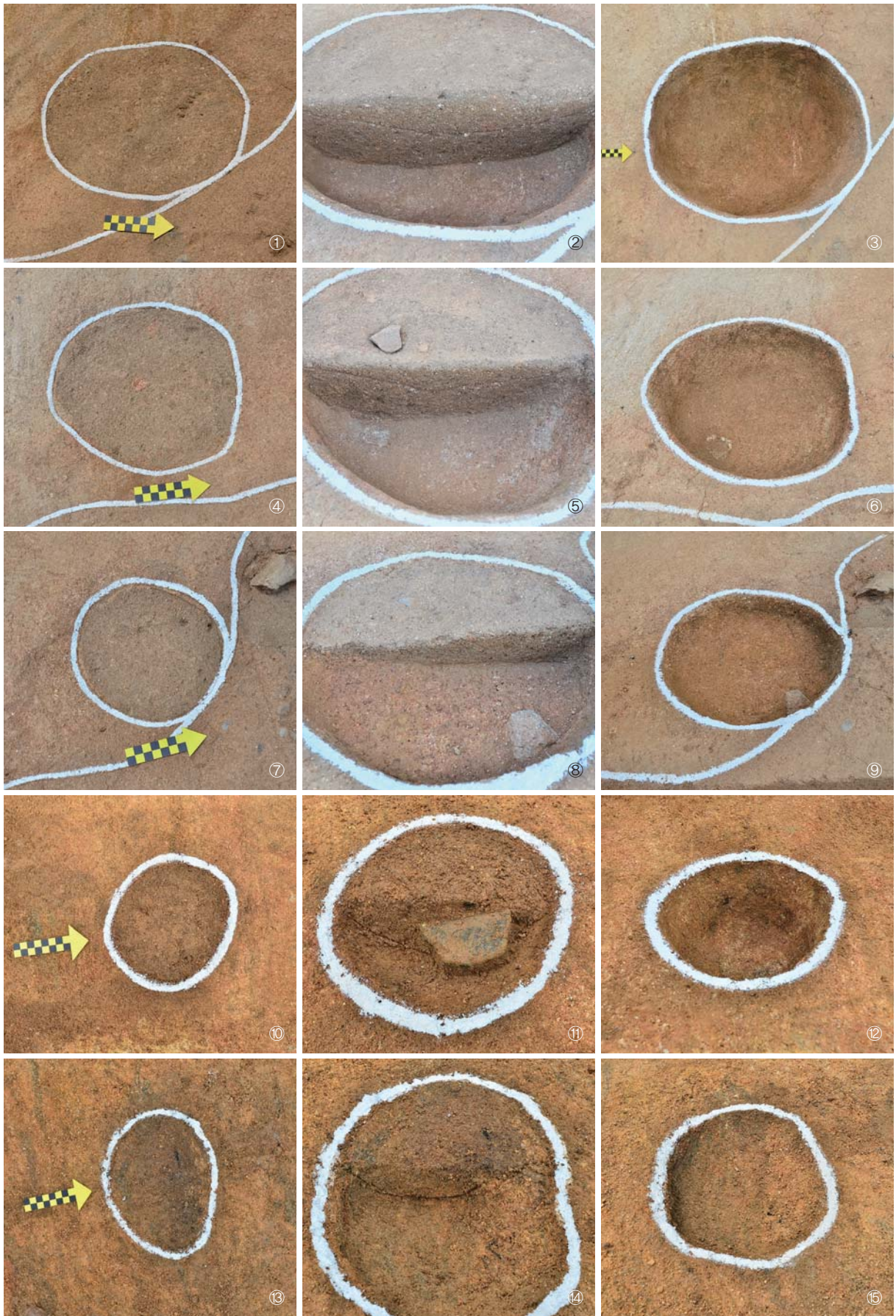
도판 22. 1호 건물지(①조사후 전경, ②~④노출 세부, ⑤내부 주혈)



도판 23. 1호 건물지(①~⑧내부 주철, ⑨~⑬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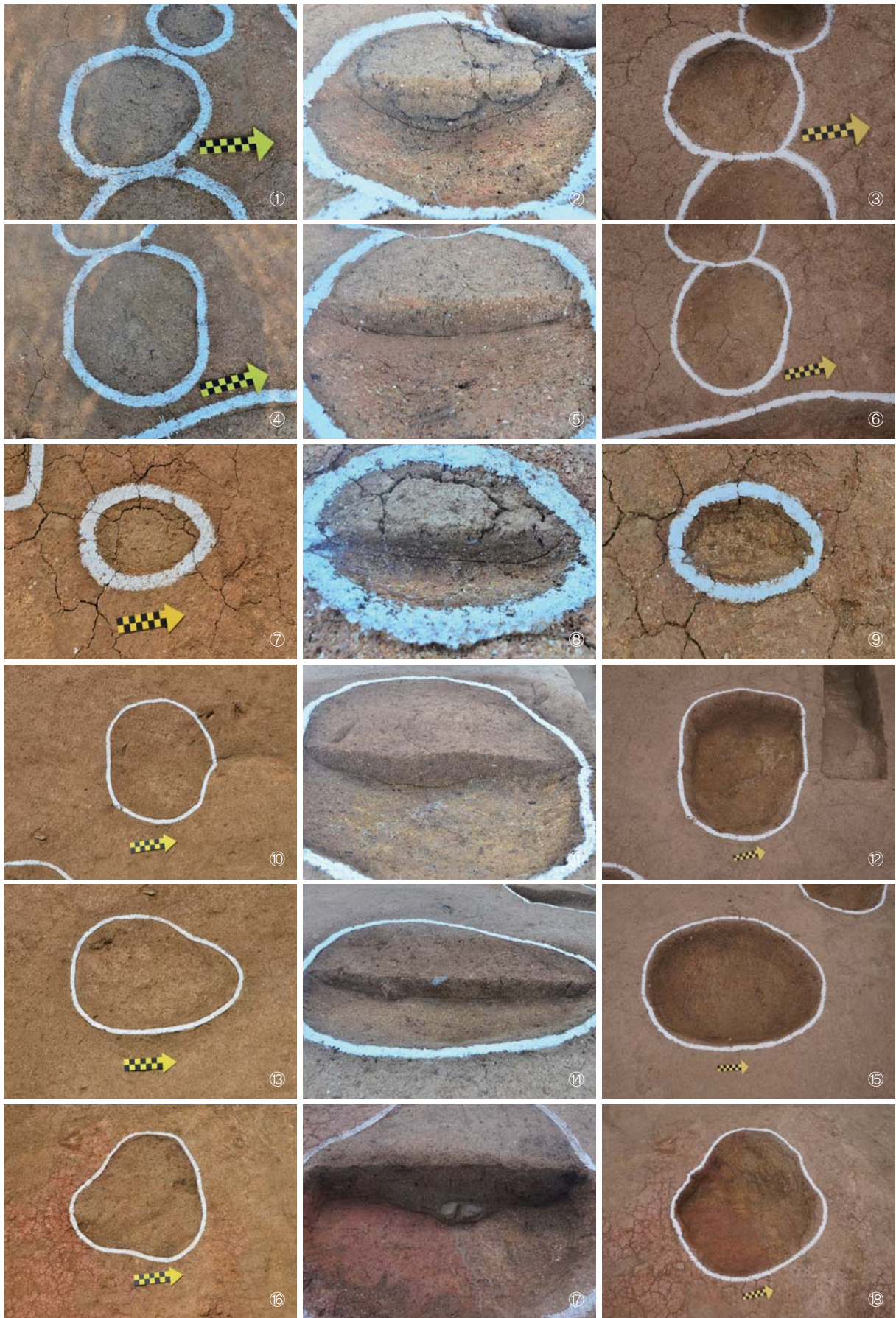
도판 24. 1호 건물지 출토유물(5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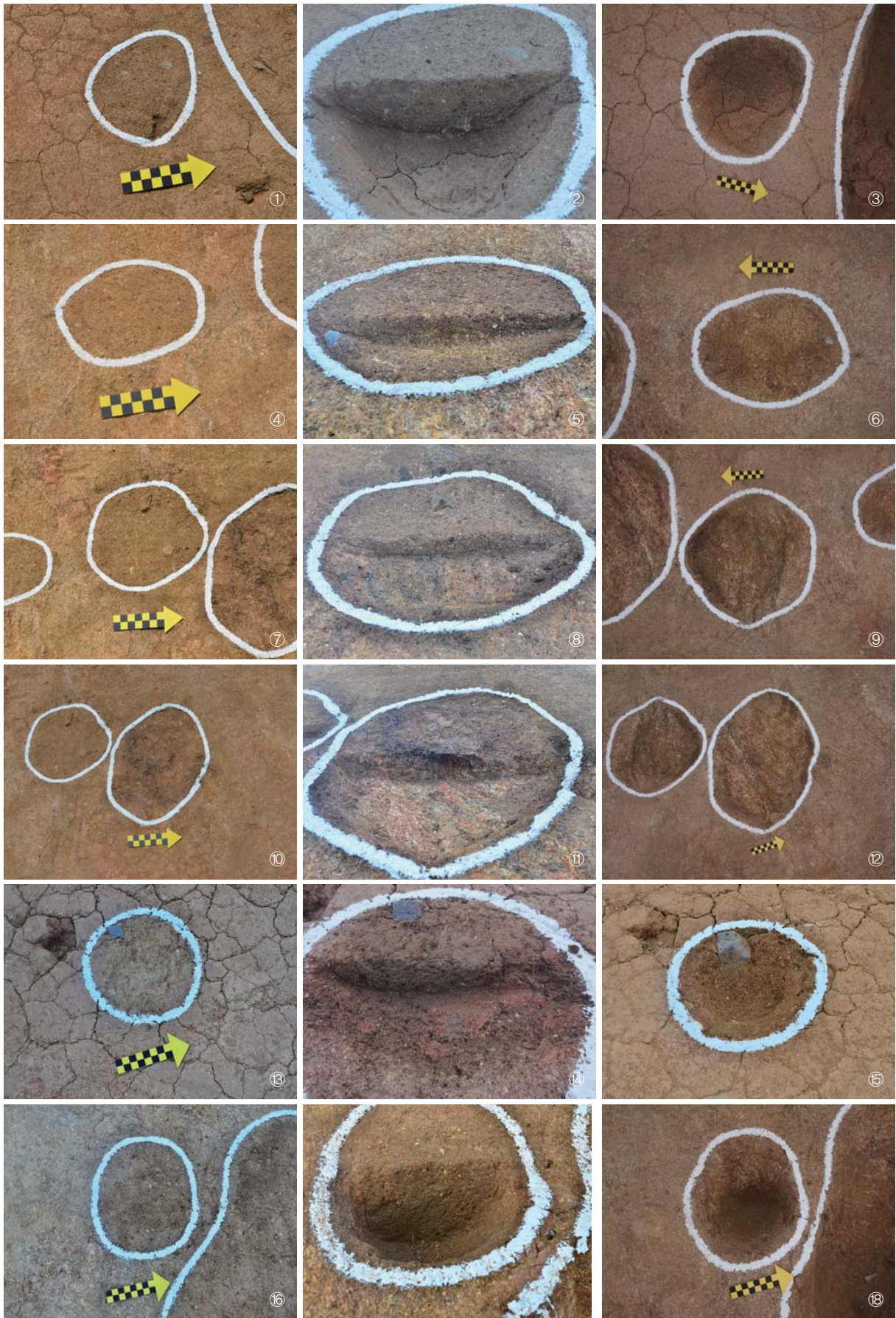
도판 25.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 ④~⑥주혈2, ⑦~⑨주혈3, ⑩~⑫주혈4, ⑬~⑮주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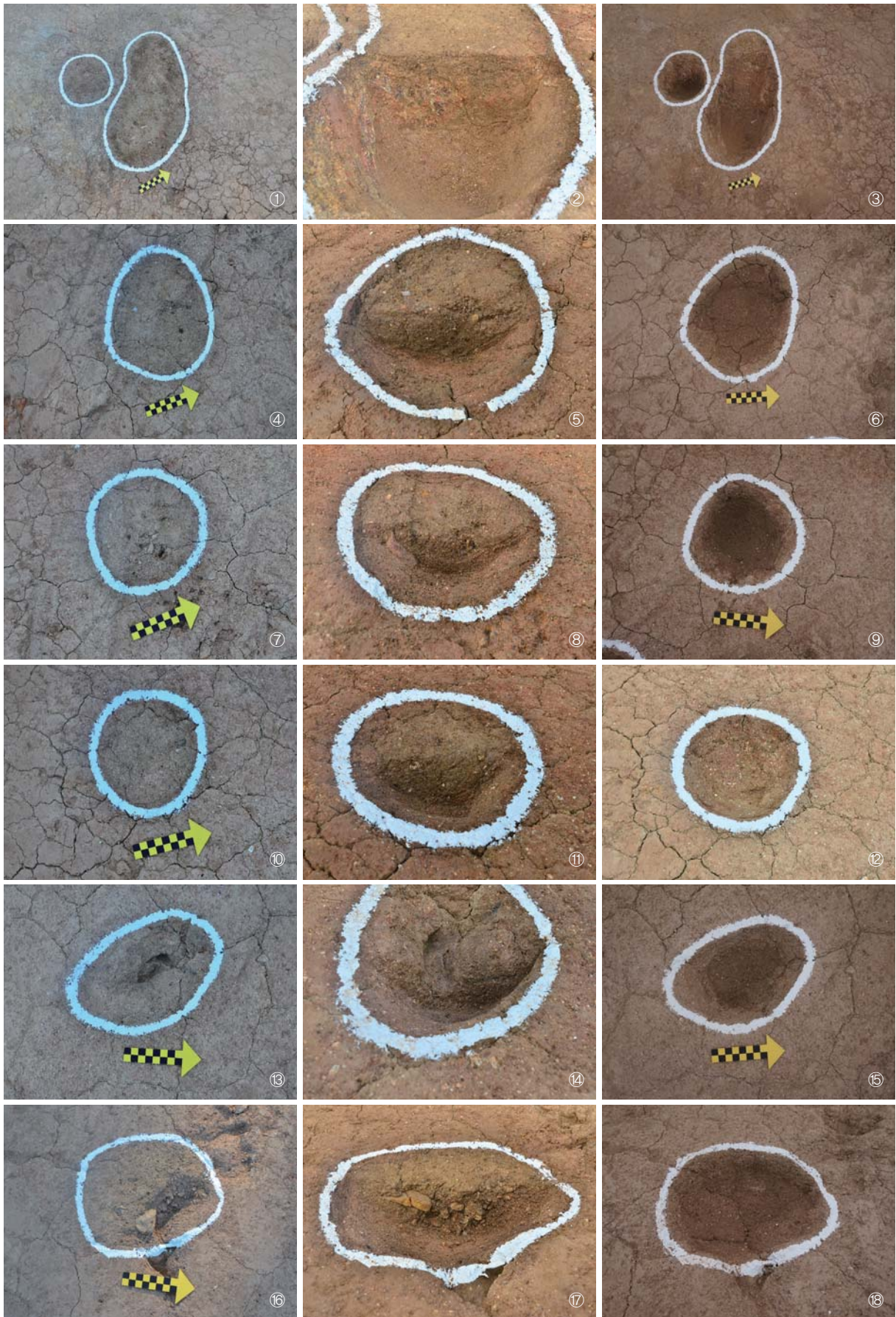
도판 26.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6, ④~⑥주혈7, ⑦~⑨주혈8, ⑩~⑫주혈9, ⑬~⑮주혈10, ⑯~⑰주혈11)



도판 27.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2, ④~⑥주혈13, ⑦~⑨주혈14, ⑩~⑫주혈15, ⑬~⑮주혈16, ⑯~⑰주혈17)



도판 28.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18, ④~⑥주혈19, ⑦~⑨주혈20, ⑩~⑫주혈21, ⑬~⑮주혈22, ⑯~⑰주혈23)



도판 29. 주혈 전경 및 토층(①~③주혈24, ④~⑥주혈25, ⑦~⑨주혈26, ⑩~⑫주혈27, ⑬~⑮주혈28, ⑯~⑰주혈29)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2017-0839-0001	대접	1	저수지	토도	고려	(3.4)	.	5.6	12-1 12-1	Y
2017-0839-0002	병	1	저수지	토도	고려	(10.4)	.	11.8	12-2 12-2	Y
2017-0839-000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7	(26.9)	2.3	13-3 12-3	Y
2017-0839-000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1.8)	(24.6)	2.5	13-4 12-4	Y
2017-0839-0005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8.9)	(29.2)	2.3	14-5 12-5	Y
2017-0839-0006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6	(19.5)	1.7	14-6 12-6	Y
2017-0839-0007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9.1	(17.2)	3.1	15-7 12-7	Y
2017-0839-0008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3.8	(21.0)	2.5	15-8 13-8	Y
2017-0839-0009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7.6	25.5	2.2	16-9 13-9	Y
2017-0839-0010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4	27.5	1.6	16-10 13-10	Y
2017-0839-0011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0	29.5	2.3	17-11 13-11	Y
2017-0839-0012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5.6	29.1	1.9	17-12 13-12	Y
2017-0839-001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40.6	28.6	2.9	18-13 13-13	Y
2017-0839-001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3	27.8	1.9	18-14 13-14	Y
2017-0839-0015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40.8	32.1	2.7	19-15 13-15	Y
2017-0839-0016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8.6)	(18.5)	2.2	19-16 14-16	Y
2017-0839-0017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2	29.2	2.2	20-17 14-17	Y
2017-0839-0018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7	28.8	2.1	20-18 14-18	Y
2017-0839-0019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2.7)	22.9	1.8	21-19 14-19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2017-0839-0020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1.3)	(18.5)	2.1	21-20 14-20	Y
2017-0839-0021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6	26.8	1.9	22-21 14-21	Y
2017-0839-0022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9.0	31.1	1.8	22-22 14-22	Y
2017-0839-002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7.0	(18.7)	2.4	23-23 14-23	Y
2017-0839-002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3.3)	26.0	2.1	23-24 15-24	Y
2017-0839-0025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40.6	16.1	2.2	24-25 15-25	Y
2017-0839-0026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2	30.2	2.5	24-26 15-26	Y
2017-0839-0027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0	27.4	1.7	25-27 15-27	Y
2017-0839-0028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1	29.8	2.2	25-28 15-28	Y
2017-0839-0029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7.8	29.0	2.8	26-29 15-29	Y
2017-0839-0030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42.8	17.5	2.2	26-30 15-30	Y
2017-0839-0031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4.1	30.6	1.8	27-31 16-31	Y
2017-0839-0032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0.0)	13.3	2.4	27-32 16-32	Y
2017-0839-003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6	(18.7)	2.6	28-33 16-33	Y
2017-0839-003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6)	27.8	2.1	28-34 16-34	Y
2017-0839-0035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8.5)	28.6	2.2	29-35 16-35	Y
2017-0839-0036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2.9)	(13.8)	2.1	29-36 16-36	Y
2017-0839-0037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8.1)	28.8	2.1	30-37 16-37	Y
2017-0839-0038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0.9)	13.6	1.8	30-38 16-38	Y
2017-0839-0039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2.8)	14.2	1.9	31-39 17-39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2017-0839-0040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8.2)	17.5	2.6	31-40 17-40	Y
2017-0839-0041	수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9.6	17.3	2.0	32-41 17-41	Y
2017-0839-0042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40.8	27.8	2.2	32-42 17-42	Y
2017-0839-004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6.4)	28.9	2.2	33-43 17-43	Y
2017-0839-004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4.0	(18.4)	2.4	33-44 17-44	Y
2017-0839-0045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7.1	(24.3)	1.9	34-45 17-45	Y
2017-0839-0046	단경호	1	저수지	토도	고려	(4.9)	14.2	.	35-46 18-46	Y
2017-0839-0047	파수	1	저수지	토도	고려	(7.4)	.	.	35-47 18-47	Y
2017-0839-0048	호	1	저수지	토도	고려	(11.4)	.	19.9	35-48 18-48	Y
2017-0839-0049	시루	1	저수지	토도	고려	(16.5)	.	.	35-49 18-49	Y
2017-0839-0050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0.4)	25.1	2.6	34-50 18-50	Y
2017-0839-0051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14.2)	(15.8)	2.5	36-51 18-51	Y
2017-0839-0052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20.9)	(13.4)	2.2	36-52 18-52	Y
2017-0839-0053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4.9)	24.5	1.9	36-23 18-53	Y
2017-0839-0054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9.4)	(20.5)	2.5	37-54 18-54	Y
2017-0839-0055	암키와	1	저수지	토도	고려	(35.0)	(21.6)	1.9	37-55 19-55	Y
2017-0839-0056	암키와	1	1호 수혈	토도	조선	(12.7)	(15.0)	2.0	39-56 19-56	Y
2017-0839-0057	수키와	1	2호 수혈	토도	조선	(23.1)	(13.3)	2.1	41-57 20-57	Y
2017-0839-0058	암키와	1	1호 적심	토도	조선	(13.8)	(9.9)	1.8	42-58 21-58	Y
2017-0839-0059	병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16.4)	.	.	43-59 24-59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2017-0839-0060	종지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5.3	10.7	4.8	43-60 24-60	Y
2017-0839-0061	옹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12.7)	12.6	.	43-61 24-61	Y
2017-0839-0062	대접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3.4)	.	7.4	43-62 24-62	Y
2017-0839-0063	병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6.9)	.	.	43-63 24-63	Y
2017-0839-0064	옹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6.6)	27.0	.	43-64 24-64	Y
2017-0839-0065	옹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5.2)	29.4	.	43-65 24-65	Y
2017-0839-0066	암키와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13.2)	(13.3)	2.0	44-66 24-66	Y
2017-0839-0067	암키와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11.9)	(14.5)	2.7	44-67 24-67	Y
2017-0839-0068	접시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2.3)	.	4.3	43-68 24-68	Y
2017-0839-0069	암키와	1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17.8)	(17.4)	2.4	43-69 24-69	Y
	계	69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發行日	2019년 9월 25일
發行機關	名稱	(재)영남문화재연구원		
	住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2길 43		
	TEL	(054) 971-8084~9	FAX	(054) 971-8083
執筆・編輯者	하진호, 박상은, 장기명			
調査緣由	건물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승규, 하진호, 정창희, 박상은, 이석범, 장기명, 김기홍, 박정현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402번지			
調査面積	615㎡			
調査期間	2017. 7. 10 ~ 2017. 9. 5.			
遺構種類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生活遺蹟	고려시대	저수지 1기	대접, 병, 단경호, 시루, 암키와, 수키와	
	조선시대	수혈유구 2기	암키와	
		적심 1기	암키와	
		건물지 1기	병, 종지, 접시, 대접, 옹, 암키와	
		주혈 29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재)한양문화재연구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허가번호 제 2017-0887호)'에 대한 보고서이다.
2. 조사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이며, 보고서 제목은 지명을 따라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으로 명명하였다.
3. 유구와 유물의 도면자료는 본문 내에 수록하였고, 사진자료는 보고서 말미에 일괄로 수록하였다.
4.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5. 본문에 수록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및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 자원주제도 등을 발체·편집하여 사용하였다.
6. 유구의 토층도 및 입·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海拔高度이며, 해발고도는 입·단면도의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유구의 토층 기술은 장축토층을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명기하였다. 단축토층은 장축과 연결되는 부분의 경우 장축토층의 연번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그 외에 추가되는 토층은 한글자음과 로마 소문자 순으로 기술하였다.
8. 유구는 시대 및 성격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유구 번호는 시대 순으로 연속하여 명명하였다.
9. 유구의 주축방향은 아래 방위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준 방위	작성 예시	
	N-0~22.5°-E or W	남-북
	N-22.6~45°-E	북동-남서
	N-22.6~45°-W	북서-남동
	E-0~22.5°-N or S	동-서

10. 도면의 축소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축소비를 달리한 경우 해당도면 하단에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였다.
 - 유구-주거지 1/40, 수혈유구 1/30
 - 유물-토기 1/3, 기와 1/4, 금속류 1/2
11. 본문에 기술된 유구 토층의 색조는 표준토색첩(2007, 일본색채연구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물의 색조는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다.
12. 유물의 제원은 도면상에 표시된 단면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목 차

I. 조사개요	133-11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3-13
1.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	133-13
2. 고고학적 환경	133-18
3. 역사적 배경	133-28
III. 조사내용	133-33
1. 조사 범위 및 현황	133-33
2. 조사 방법	133-33
3. 층위	133-35
4. 조사 내용	133-36
〈원삼국~한성백제시대〉.....	133-36
1) 수혈주거지	133-36
(1) 1호 수혈주거지	133-36
2) 수혈유구	133-51
(1) 1호 수혈유구	133-51
(2) 2호 수혈유구.....	133-54
〈(통일)신라시대〉.....	133-59
1) 수혈주거지	133-59
(1) 2호 수혈주거지	133-59
(2) 3호 수혈주거지.....	133-67
(3) 4호 수혈주거지.....	133-70
(4) 5호 수혈주거지.....	133-74
(5) 6호 수혈주거지.....	133-78
(6) 7호 수혈주거지.....	133-87
(7) 8호 수혈주거지.....	133-92
(8) 9호 수혈주거지.....	133-100
(9) 10호 수혈주거지	133-103
(10) 11호 수혈주거지	133-107
2) 수혈유구	133-113
(1) 3호 수혈유구	133-113

(2) 4호 수혈유구	133-113
(3) 5호 수혈유구	133-115
(4) 6호 수혈유구	133-116
3) 지표 수습유물	133-118
IV. 조사성과	133-121
〈부록〉	133-167
1.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분석	133-169
2.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보고서	133-181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행정구역도(양평군청 홈페이지 발췌·편집)	133-13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온맵지형도 편집, 2015年, 국토지리정보원)	133-14
도면 3. 조사지역(●) 위성사진(1:25,000, 다음 스카이뷰 발췌·편집)	133-15
도면 4. 조사지역(●) 수계도(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133-17
도면 5. 조사지역(●)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주제도 발췌·편집)	133-17
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133-24
도면 7.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年,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33-30
도면 8. 조사지역(●) 고지도(『廣輿圖-驪州牧』, 19세기 초,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33-31
도면 9. 조사지역(●) 근세지형도(『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1919年, 朝鮮總督府)	133-32
도면 10. 조사지역 현황도(1:1,00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133-34
도면 11. 조사지역 현황도(1:25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133-35
도면 12. 조사지역 토층도	133-37
도면 13. 1호 수혈주거지	133-39
도면 14.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9)	133-42
도면 15.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16)	133-46
도면 16.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7~20)	133-48
도면 17.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1~24)	133-49
도면 18.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5~29)	133-52
도면 19. 1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30~31)	133-53
도면 20. 2호 수혈유구	133-55
도면 21.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2~45)	133-57
도면 22. 2호 수혈주거지	133-61
도면 23. 2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46~62)	133-63
도면 24. 3호 수혈주거지	133-66
도면 25. 3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3~74)	133-69
도면 26. 4호 수혈주거지	133-72
도면 27. 4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75~79)	133-73
도면 28. 5호 수혈주거지	133-75
도면 29. 5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0~84)	133-77
도면 30. 6호 수혈주거지	133-79
도면 31.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5~101).....	133-83
도면 32.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2~107)	133-86

도면 33. 7호 수혈주거지	133-88
도면 34.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8~116)	133-90
도면 35.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7)	133-92
도면 36. 8호 수혈주거지	133-95
도면 37.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8~129)	133-97
도면 38.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0~132)	133-99
도면 39. 9호 수혈주거지	133-101
도면 40. 9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3~139)	133-102
도면 41. 10호 수혈주거지	133-104
도면 42. 10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0~145)	133-106
도면 43. 11호 수혈주거지	133-108
도면 44. 1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6~162)	133-110
도면 45. 3호 수혈유구	133-113
도면 46. 4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3~165)	133-114
도면 47. 5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6)	133-116
도면 48. 6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7)	133-117
도면 49. 지표수습유물(168~174)	133-119
도면 50. 조사지역 및 경기도 일원 출토 세형동검	133-123
도면 51. 조사지역 및 주변 남한강 일대 통일신라시대 유적 분포도	133-124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지역 전경(①조사 중, ②조사 후)	133-127
도판 2.	1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133-128
도판 3.	1호 수혈주거지(①~③동-서 토층, ④아궁이 조사 전, ⑤·⑥아궁이 토층, ⑦아궁이 내 유물출토상태, ⑧아궁이 석재 제거 전, ⑨아궁이 조사 후)	133-129
도판 4.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8).....	133-130
도판 5.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9~16)	133-131
도판 6.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7~24)	133-132
도판 7.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5~29),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0~31)	133-133
도판 8.	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토층), 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조사 후, ⑦남-북 토층)	133-134
도판 9.	2호 수혈유구(①동-서 토층) 및 출토유물(32~41)	133-135
도판 10.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2~45), 2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133-136
도판 11.	2호 수혈주거지 아궁이1(①조사 전, ②토층, ③조사 중, ④조사 후), 아궁이2(⑤조사 전, ⑥조사 중, ⑦~⑨토층)	133-137
도판 12.	2호 수혈주거지 아궁이1(①·②조사 후), 전경(③조사 후) 및 출토유물(46~48)	133-138
도판 13.	2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49~62)	133-139
도판 14.	3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⑥피열면 세부, ⑦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63~65)	133-140
도판 15.	3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6~74)	133-141
도판 16.	4호 수혈주거지(①·②조사 중)	133-142
도판 17.	4호 수혈주거지(①조사 후, ②·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133-143
도판 18.	4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뒹개돌 제거 후 조사 전, ②·③토층, ④세부, ⑤조사 후), 주혈(⑥~⑨토층) 및 출토유물(75~79)	133-144
도판 19.	5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점토 제거 전,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133-145
도판 20.	5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토층, ④추정 지각) 및 출토유물(80~84)	133-146
도판 21.	6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추가 하강 후, ④조사 후, ⑤·⑥남-북 토층)	133-147
도판 22.	6호 수혈주거지(①~③동-서 토층, ④·⑤추정 아궁이 피열흔, ⑥~⑧주혈 토층, ⑨·⑩유물출토상태)	133-148

도판 23.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5~93)	133-149
도판 24.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94~102)	133-150
도판 25.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3~107), 7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남-북 토층)	133-151
도판 26. 7호 수혈주거지(①동-서 토층, ②조사 후, ③추정 아궁이 구들, ④추정 아궁이 피열면, ⑤·⑥주혈 토층, ⑦주혈 내부 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108~110)	133-152
도판 27.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1~117), 8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133-153
도판 28. 8호 수혈주거지(①조사 후, ②아궁이 조사 후, ③아궁이 토층, ④벽석 조사 전, ⑤벽석 토층, ⑥벽석 조사 후, ⑦~⑩주혈 토층)	133-154
도판 29.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8~127, 129)	133-155
도판 30.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28, 130~132), 9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⑤아궁이 조사 전, ⑥아궁이 조사 후, ⑦아궁이 내 붓돌 세부)	133-156
도판 31. 9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3~139), 10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133-157
도판 32. 10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0~145)	133-158
도판 33. 11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③조사 중, ④조사 후, ⑤남-북 토층, ⑥동-서 토층, ⑦·⑧아궁이 토층)	133-159
도판 34. 11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및 출토유물(146~151)	133-160
도판 35. 1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52~162)	133-161
도판 36. 3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토층), 4호 수혈유구(④조사 전, ⑤조사 후, ⑥토층) 및 출토유물(163~165)	133-162
도판 37. 5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⑤유물출토 상태) 및 출토유물(166), 6호 수혈유구(⑥토층) 및 출토유물(167)	133-163
도판 38. 6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지표수습유물(168~172)	133-164
도판 39. 지표수습유물(173~174), 학술자문회의 광경(①~③)	133-165

I. 조사개요

금번 조사는 오세현씨(개인사업자)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로 2009년에 실시된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보고된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 내에 위치하고 있다¹⁾.

사업시행자인 오세현씨는 주택신축을 위하여 경기도 양평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양평군청은 상기 부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고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양평군 문화체육과-9602호)하였다. 오세현씨는 해당 부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재)서해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였고, 2017년 5월 28일 해당 부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²⁾. 당시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후 오세현씨는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문화재청 협업포털 2017-0616-01호), 국비지원 발굴조사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본원에 발굴조사에 대한 대행조사를 의뢰(한국문화재재단; 조사연구1팀-1439호)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7년 7월 6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발굴제도과-8174)를 득하였으며, 2017년 7월 20일 정밀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전면 제토 결과 조사면적(512m²)에 대비하여 유구의 수량이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유구간의 중복 및 교란이 심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7년 8월 22일 발굴조사 기간연장(실조사일수 10일)을 신청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조사 말미에는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구의 향후 처리 문제 및 공사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8일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³⁾. 당시 회의에서는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구의 교란 및 잔존 양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복 유구의 선후 관계와 구조 파악 등 조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남긴 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구는 전체적으로 중복 양상이 심하게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목탄 시료 및 세형동검편 등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을 실시하여 과학적 분석자료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이후 2017년 9월 22일 최종적으로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조사지역이 마을 소로변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 이전까지 현장 외곽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발굴조사 완료조치 통보[발굴제도과-11586(2017.10.10.)] 이후 2017년 10월 12일 현장 복토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는 원삼국~한성백제시대凸자형 주거지 1기·수혈유구 2기,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0기·수혈유구 4기 등 총 1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한강2권역 화도·양평지구』.

2) 오세현·서해문화재연구원, 2017.05, 『양평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3) 오세현·(재)한양문화재연구원, 2017.9,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제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발굴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 강 병 학(한양문화재연구원 원장)
조 사 원 : 조 성 호(한양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부 부장)
 김 한 성(한양문화재연구원 유적조사부 팀장)
준 조 사 원 : 양 승 규(한양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빈 소 현(前 한양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임 송 만(한양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고서 간행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이루어졌다.

연 구 · 기 획 : 강 병 학 · 조 성 호 · 김 정 연(한양문화재연구원 자료연구부 부장)
유물정리 · 촬영 : 김 정 연 · 여 희 진(한양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양 승 규
유 물 실 측 : 여 희 진
보 존 처 리 : 김 서 한(한양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원)
도 면 제 도 : 양 승 규 · 여 희 진
원 고 작 성 : 조 성 호 · 여 희 진 · 양 승 규
편 집 : 조 성 호 · 김 정 연
교 정 · 교 열 : 강 병 학 · 조 성 호 · 김 정 연

보고서에 수록된 자연과학분석 내용 중 AMS분석과 세형동검편의 과학적 분석(X-Ray 촬영, 금속 현미경관찰, SEM-EDS 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은 (주)다인스와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에서 각각 수고해 주었다. 아울러 발굴조사 기간 중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조사단에게 충실한 조사와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주신 최병현 교수님과 김길식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발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현장관계자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위치와 자연·지리적 환경⁴⁾

조사지역이 속해있는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쪽으로는 북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광주시와 남양주시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여주시와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과 연접해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18'46"~127°51'02", 북위는 37°21'33"~37°40'07"이며 면적은 877.69km²로 서울시의 1.45배에 달한다. 현재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양평읍·서종면·양서면·옥천면·강하면·강상면·개군면·용문면·단월면·지평면·청운면·양동면 등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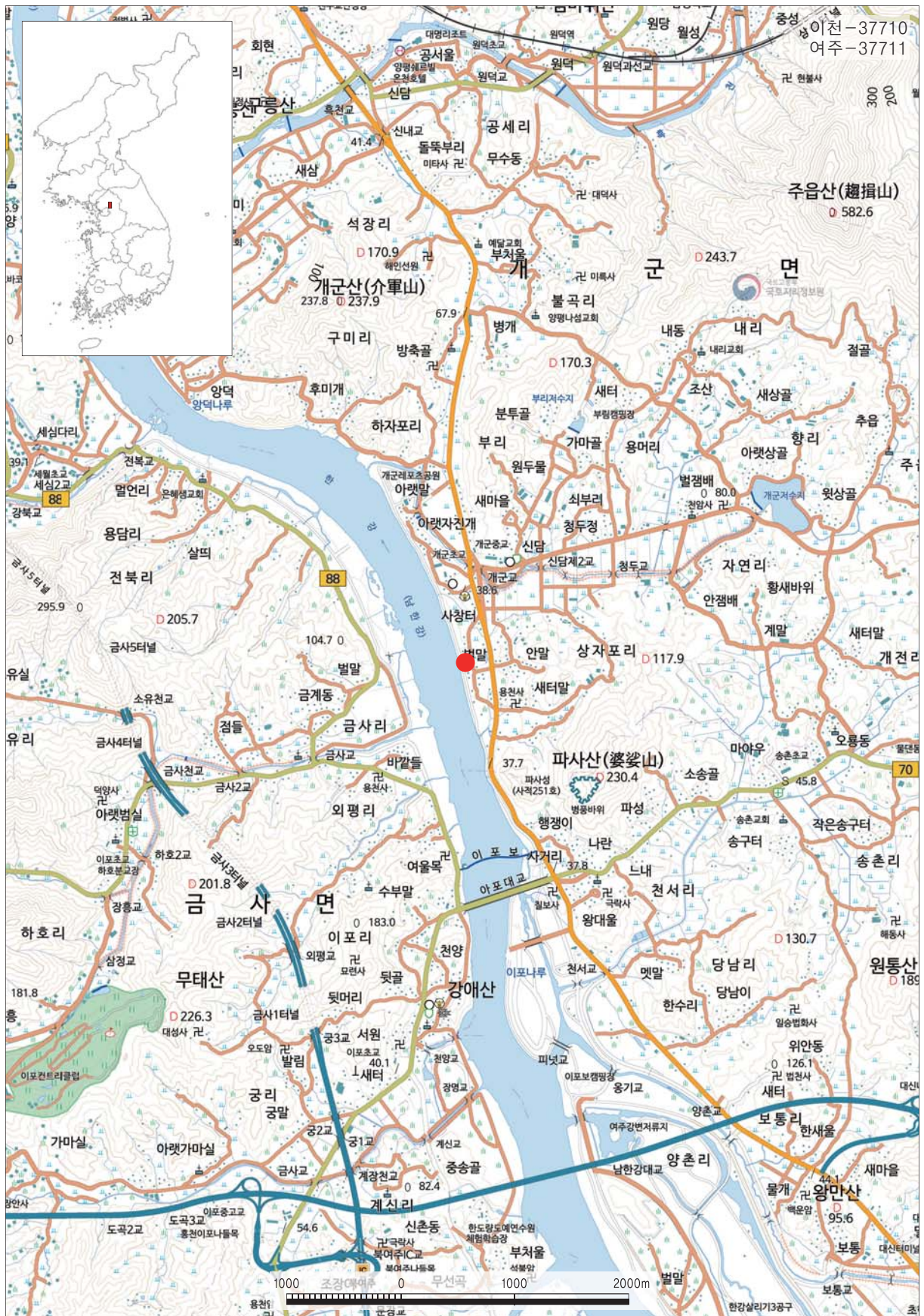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행정구역도(양평군청 홈페이지 발취·편집)

4) 양평군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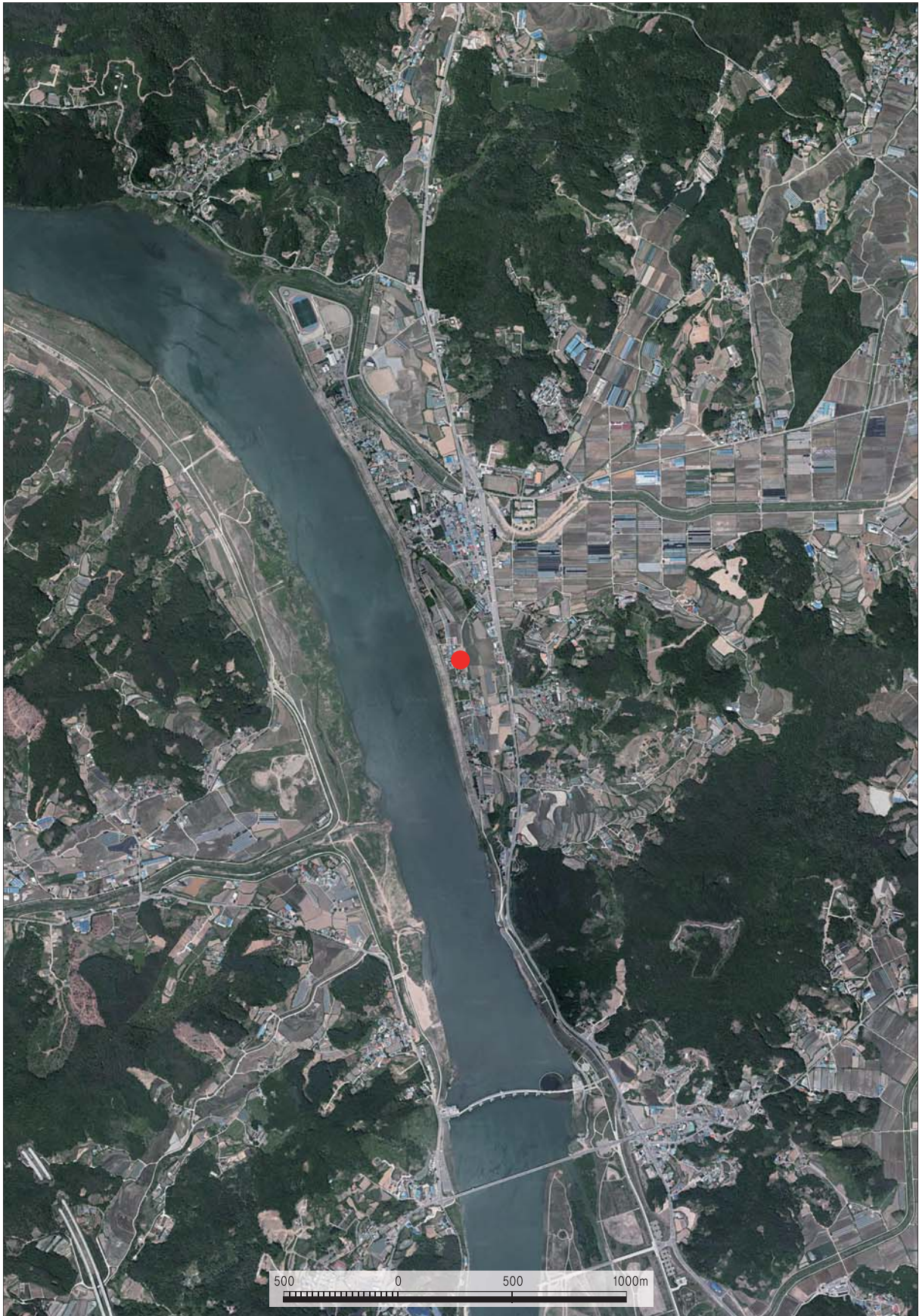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楊平郡誌編纂委員會, 2005, 『楊平郡誌』上.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온맵지형도 편집, 2015年, 국토지리정보원)



도면 3. 조사지역(●) 위성사진(1:25,000, 다음 스카이뷰 발췌·편집)

양평군의 산세는 광주산맥의 한 줄기인 용문산(1,157m)이 군내 가장 높은 산이며, 그 산세가 사방으로 뻗어 험한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한강과 북한강 등 한강 지류와 하천 인근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에는 유명산(862m)·봉미산(856m)·중미산(834m)·화야산(755m)·갈기산(685m)·통방산(650m)·시루봉(504m) 등이 가평군·강원도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부에는 성지봉(791m)·금물산(774m)·당산(541m) 등이 강원도 횡성군·원주시와 경계를 이룬다. 남부에는 양자산(710m)·고래산(541m)·우두산(484m)·옥녀봉(419m)·파사산(230m) 등이 경기도 여주시와의 경계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인근 산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1km 이격되어 파사산이 있으며, 북쪽으로 약 2km 거리를 두고 개군산이, 북동쪽으로 약 900m에 주읍산에서 뻗어 나온 산맥이 자리 잡고 있다.

주 하천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남한강은 남동쪽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고, 북한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두 강은 양평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양수리(두물머리)에서 합수되어 서울을 지나 서해로 들어간다.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용소에서 발원하며, 유역면적은 12,577km²이고, 총 길이는 375km이다. 남한강의 지류로는 평창강·달천천·섬강·청미천·양화천·북하천·흑천 등이 있다.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며 유역면적은 10,834km²이고, 총 길이는 317.5km이다. 금강천·금성천·서천천·수입천·소양강·가평천·홍천강과 합류하고, 유로에는 파로호·춘천호·의암호·소양호·청평호 등의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양수리 일대는 충적지대로 하천변을 따라 발달한 저지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하천을 바탕으로 충적지와 범람원·하안단구 및 하중도 등의 하천지형이 나타나며, 양평군 서쪽에 위치하는 서종면 부근에는 비교적 큰 범람원이 형성되어 있다. 양평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은 흑천으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양평군 중심부를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개군면 인덕리에서 남한강으로 합류하게 된다. 흑천의 총 길이는 37km이고, 유역면적은 282.55km²이며, 12개의 지류가 있다.

지질은 양평군 전 지역이 경기육괴에 속하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를 이루는 암상은 경기변성암복합체의 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으로 반상변정질편마암·경기층군의 편마암류와 춘천계층군의 편마암류가 산재하여 분포한다. 군의 남동부인 지평면과 양동면지역에는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이 나타나며, 개군면 일대에는 중생대 쥐라기 각섬석 흑운모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이 노출되어 산지를 이룬다. 중부의 양평읍은 시대가 밝혀지지 않은 화성복합체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하천 주변으로는 충적층이 발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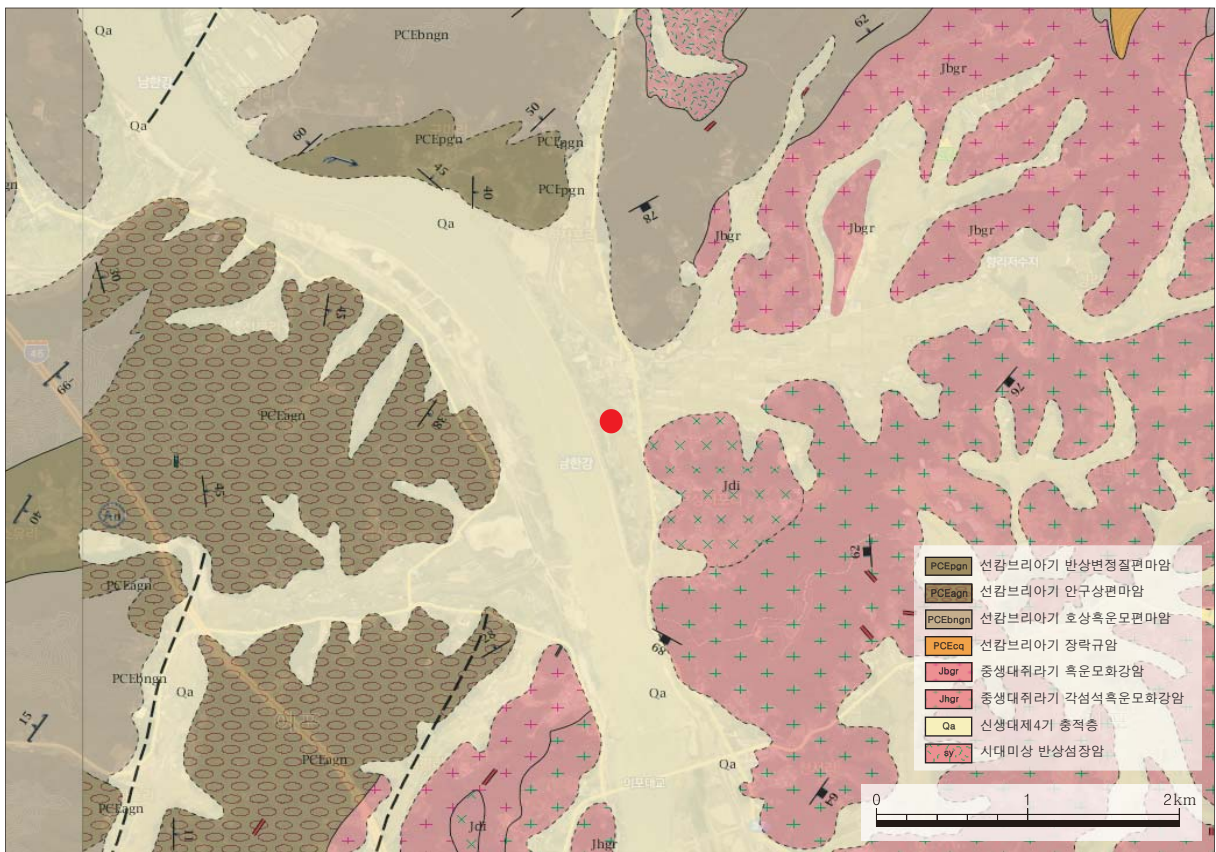
기후는 겨울과 여름의 연교차가 크고 한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2.9℃, 1월 평균 기온 -1.6℃, 8월 평균 기온 25.6℃이며, 연강수량은 847mm이다⁵⁾.

조사지역인 개군면은 양평군의 남쪽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지평면, 서쪽으로는 강상면과 여주시 금사면과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여주시 대신면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양평읍과 용문면이 연결해 있다. 금번 조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7°25'16", 동경 127°32'14"이며(조사

5) 양평군, 2017, 『2016년 통계연보』.



도면 4. 조사지역(●) 수계도(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도면 5. 조사지역(●)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주제도 발취·편집)

지역 지번기준) 행정적 범위는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에 해당한다. 주변의 하천으로는 남한강이 서쪽으로 약 120m 정도 이격되어 남에서 북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북동쪽으로 약 600m 이격되어 향리천이 북서방향으로 흘러 하자포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지질은 신생대 4기의 충적층으로 신생대에 이르러 계속된 용기와 더불어 침식작용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만장년기에 서 노년기에 이르는 침식유평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상에는 사력층이 퇴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충적층이 형성되고 있다⁶⁾.

2. 고고학적 환경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중하류를 끼고 있어 강 주변으로 비옥한 충적토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용문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지에 둘러싸여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자연적 환경의 영향으로 주변에 다수의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1970년대 팔당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후에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와 광역 문화유적 분포조사에 의해 그 면모가 밝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양평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경의중앙선 복선화 철도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발굴조사와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양평군의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 되었다.

1) 구석기~신석기시대

양평일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유적의 입지는 주로 하안단구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도곡리 유적⁷⁾, 병산리 유적⁸⁾, 전수리·양덕리 유적⁹⁾ 등이 확인되었다. 도곡리 유적에서는 주먹도끼·주먹찌르개·찍개·여러면석기를 비롯한 뎀석기가 출토 되었다. 병산리 유적 또한 여러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중기~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물은 몸돌·양면찍개·주먹도끼·긁개·밀개·톱니날·새기개·흙날·망치돌과 석핵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지표조사를 통해 회현리¹⁰⁾·병산리¹¹⁾·단석리¹²⁾·삼성리¹³⁾·오빈

6) 蘇七燮·羅基昌·朴孟彦, 1989, 『梨浦圖幅 地質報告書 - 縮尺 1:50,000』, 韓國動力資源研究所, p21.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楊平 道谷里 舊石器 遺蹟』.

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楊平 屏山里 遺蹟』.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楊平 屏山里 遺蹟2』.

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八當·昭陽澗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書』.

10) 서울大學校博物館, 1997,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南漢江流域 地表調查報告書』.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양평 양덕리 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리¹⁴⁾·상자포리²⁾ 등지에서 뎀석기가 수습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구석기시대의 하안단구 중심에서 강변의 충적대지 혹은 얇은 구릉 정상부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이는 이전 시대보다 한층 발달된 기술로 인간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이해되며, 양평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한강변의 충적지에서 확인된다. 먼저 지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은 문호리 선사유적Ⅱ¹⁶⁾, 광탄리 유적¹⁷⁾, 양덕리 유적¹⁸⁾ 등이 보고되었다. 이 중 양덕리 유적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대부분 침식되어 유실되었으나 상부층에서 다량의 빗살무늬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이밖에 아신리 유적¹⁹⁾에서 장방형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와 빗살무늬토기편, 격지, 석재 어망추가 함께 조사되었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전시기의 강안중심의 입지에서 구릉 정상부로 입지가 변화하는 양상이 일반적이거나, 양평군 일대에서는 강변을 따라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양평일대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한강과 하천주변으로 생활유적·분묘유적·유물산포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삼성리 유적²⁰⁾, 양수리 유적²¹⁾, 양덕리 유적²²⁾ 등이 있다. 이 중 삼성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수릉리 지석묘·양덕리 지석묘·회현리 지석묘·대석리 지석묘·전수리 지석묘·정배리 추정 고인돌군²³⁾·서후리 추정 고인돌군²⁴⁾·대심리 지석묘²⁵⁾ 등이 있으며, 양평 상자포리²⁶⁾에

14)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15)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1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8) 서울大學校博物館, 1997,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南漢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양평 양덕리 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구간(3공구) 내 유적』.

20) (財)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楊平 三星里 遺蹟』.

21) 한국문화재재단, 2016, 『양평 양수리 770-7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6, 『양평 양수리 1171번지 외 2필지 유적』.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양평 양수리 유적 I』.

(재)서해문화재연구원, 2017, 『양평 양수리 유적 II』.

2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양평 양덕리유적』.

2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24)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25)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7, 『양평 대석리 지석묘군 시굴조사 보고서』.

26) 유적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서는 지식묘에서 세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산포지로는 교평리 유물산포지²⁷⁾·2²⁸⁾, 양근리 유물산포지²⁹⁾, 쌍학리 유물산포지1·2³⁰⁾, 마룽리 유물산포지,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2, 정배리 유물산포지³¹⁾, 송현리 유물산포지³²⁾, 지평리 유물산포지³³⁾ 등이 있다. 양평군에서 확인되는 지식묘는 대부분 강변의 자연제방 상면에 위치하며 탁자식, 무덤방(墓室)을 땅속에 마련한 기반식, 하부구조에 토광으로 매장시설을 갖춘 개석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이밖에 지표상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만 수습된 유적으로는 양근리 선사유적³⁴⁾, 오빈리 선사유적, 교평리 선사유적, 운심리 선사유적, 전수리 선사유적, 양수리 선사유적 I~Ⅲ, 문호리 선사유적 I, 광탄리 선사유적1, 앙덕리 선사유적, 상자포리 선사유적 I·Ⅱ 등이 있다³⁵⁾.

3)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문호리 유적·양수리 유적·양근리 유적·오빈리 유적·병산리 유적·교평리 유적·앙덕리 유적·하자포리 유적·대심리 유적³⁶⁾·상석정마을 유적 등이 있다. 이 중 대심리 유적에서는 장대형의 주조철부류와 도자류가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슬래그가 다량 수습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양평일대가 철 생산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을 상정할 수 있지만 추가로 확인된 유적이 없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³⁷⁾. 특히 앙덕리 유적에서는 지식묘 조사 과정 중 빗살무늬토기편과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시대별로 유물이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양평일대의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양수섬 일대에서는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상석정마을 유적³⁸⁾에서는 총 23기의 주거지(凸자형, 타원형, (장)방형계)가 조사되었고,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와 더불어 한식동굴, 철경동축, 철도자, 철부, 환두소도, 철촉, 철검, 주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양수리 770-7번지 유적³⁹⁾에서는 12기의 주거지(凸자형, (장)방형)와 32기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고, 양수리 1171번지

27)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南漢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 『양평 앙덕리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9)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0)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1)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2)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4)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八當·昭陽댐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査報告書』.

37)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38) 成均館大學校博物館, 2008,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보고서(철기시대 전기편)』.

39) 한국문화재단, 2016, 『양평 양수리 770-7번지 유적』.

외 2필지 유적⁴⁰⁾에서는 주거지 3기(凸자형)와 수혈유구 6기가 조사되었다. 이외에 양수리 유적 I⁴¹⁾, 양수리 유적 II⁴²⁾, 양수리 756-5번지 유적⁴³⁾, 양수리 531-13번지 유적⁴⁴⁾,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⁴⁵⁾이 조사되어 양수섬 일대와 한강변의 층적대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4) 삼국~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삼국이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였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관방유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주거유적, 그리고 분묘유적, 불교유적 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양평지역에서는 삼국 중 고구려 관련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백제 생활유적이나 신라 고분 및 산성 등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 먼저 관방유적으로는 신원리 성지⁴⁶⁾와 양평군과 맞닿아 파사성이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양수리 유적·양근리 유적·오빈리 유적·병산리 유적·양덕리 유적·상석정마을 유적 등이 있다. 이들 생활유적은 대부분 광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보고된 유적들이 대부분이며,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정확한 성격 및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분묘유적으로는 최근 조사가 진행된 대평리 1호·2호분⁴⁷⁾ 신라시대 고분이 대표적이며, 쌍학리 고분군·망미리 고분군1·2·옥현리 고분·마룡리 고분 등이 있다⁴⁸⁾. 불교유적으로 신화리 사지·용문사 등이 있다. 유물산포지로 문호리 유물산포지·상자포리 유물산포지1·대심리 유물산포지·병산리 유물산포지 등이 있다⁴⁹⁾. 특히 문호리 유물산포지는 강변 층적지를 따라 약 1,200m 가량 길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방형적석총이 확인되었다. 또한 산포지가 강변 층적지에 입지하는 점과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볼 때 대규모 취락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5)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대부분 불교유적이다.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보물 제531호)·지평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용천리 삼층석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1호)·

40) 한국문화재단, 2016, 『양평 양수리 1171번지 외 2필지 유적』.

41) (재)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6, 『양평 양수리 유적 I』.

42) (재)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7, 『양평 양수리 유적 II』.

43) (재)서해문화재단연구원, 2016, 『양평 양수리(756-5번지)농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44) (재)고려문화재단연구원, 2016,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31-13번지 일원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45)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7, 『양평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4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7) (財)中部考古學研究所·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楊平 大坪里 2號墳 非指定 埋藏文化財 學術發掘調査』.

(財)中部考古學研究所·양평군, 2016, 『楊平 大坪里 古墳群 緊急發掘調査』.

4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9)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상원사 철조여래좌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9호)·옥천리 삼층석탑(양평군 향토유적 제33호) 등과 보리사지·운필암사지·청계리사지·향소리사지 등의 사지가 남아있다. 관방유적으로는 함왕성지(경기도 기념물 제123호)가 있는데, 1999년 시굴조사⁵⁰⁾ 결과 고려시대 후기의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밝혀졌다.

생활유적으로는 상석정마을 유적⁵¹⁾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13동이 조사되었다. 삼성리 유적⁵²⁾에서도 수혈 25기와 구상유구 4기에서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계정리 고분군⁵³⁾이 확인되었으며, 병산리 유적⁵⁴⁾에서는 조선시대 분묘와 수혈에서 청동대부발·자기류·도기류·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생산유적으로는 부안리 요지·금왕리 요지·계정리 요지1~4·단석리 요지·일신리 요지1·2·옥현리 야철지1·2·신점리 와요지 등을 꼽을 수 있다⁵⁵⁾. 이를 통해서 볼 때 양평지역은 고려~조선시대에 도자기류와 기와, 철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신점리 유물산포지1·2⁵⁶⁾·단석리 유물산포지·송현리 유물산포지2·3·광탄리 유물산포지1⁵⁷⁾·백안리 유물산포지·병산리 유물산포지2·3⁵⁸⁾·병산리 유물산포지4·6⁵⁹⁾·전수리 유물산포지·양수리 유물산포지2·갈운리 유물산포지⁶⁰⁾ 등이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수혈주거지 1기·수혈유구 2기와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0기·수혈유구 4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 주변으로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시기와 비슷한 유적으로는 하자포리 342번지 일원⁶¹⁾ 일대에서 삼국시대 방형의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 5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타날문토기도 소량 확인되었고, 수혈에서도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동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자포리 337번지 유적에서 백제시대 주거지 4기와 수혈 16기, 조선시대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⁶²⁾. 이 외에 행정구역상은 여주시에 속하지만 조사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이격되어 파사성이 위치하는데 삼국~조선시대의 유구들이 확인⁶³⁾되고 있어 관련성이 검토된다.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백제)시대 주거지·노지,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성벽 및 시설, 통일신라~

50) 수원대학교박물관, 1999, 『양평 함왕성지-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

51) 成均館大學校博物館, 2006,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보고서(고려·조선시대)』.

52) (財)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楊平 三星里 遺蹟』.

5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54)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양평 병산리 산 8번지 유적』.

55)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5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57)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5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5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고속도로 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제3공구) 대안설계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60)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양평군』.

61)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06, 『양평 하자포리 337, 336-2번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62)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09, 『양평 하자포리 337번지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63)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 驪州郡, 2007, 『驪州 娑娑城Ⅰ -긴급수습 및 1차 발굴조사보고서-』.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驪州市, 2014, 『驪州 娑娑城Ⅱ -2~4차 발굴조사보고서-』.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驪州市, 2014, 『驪州 娑娑城Ⅲ -5~6차 발굴조사보고서-』.

고려시대 건물지, 고려시대 집수지,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우물 및 포루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남한강변을 따라 현재의 여주시내에 위치한 연양리 유적⁶⁴⁾, 매룡리 용강골 고분⁶⁵⁾, 상리 고분⁶⁶⁾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와 석실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표 1】 주변유적 현황표(도면 6 참조)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내용	출처
1	양평 개군 유물산포지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62-2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2공구) 문화 재 지표조사 보고서』
2	양평 개군 유물산포지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110-2	조선	유물 산포지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2공구) 문화 재 지표조사 보고서』
3	하자포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산27묘	청동기	유물 산포지	양평군지편찬위원회, 2005, 『楊平郡 誌』中, 양평군
4	양평지구 구미포 나루터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구미리 산1 일대	조선	유물 산포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 고서 -한강2권역 화도 · 양평지구-』
5	구미포나루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480천	조선	나루	문화유적분포지도
6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3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318 일대	시대 미상	유적분포 가능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 고서 -한강2권역 화도 · 양평지구-』
7	양평 하자포리 3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42번지	초기철기 ~원삼국	생활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1. 양평 하자포리 342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 경기 · 강원1-』
8	양평 개군 복합운동장 건립사업 2구역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518답 일원	시대미상	유적분포 가능지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3, 『양평 개 군 복합운동장 건립사업 추가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여주 생태공원조성부지내 여주 연양리 유적』.

65) 翰林大學 博物館, 1988, 『驪州 梅龍里 용강골古墳群 發掘報告書』.

翰林大學 博物館, 1989, 『驪州 梅龍里 용강골古墳群Ⅱ 發掘報告書』.

66) 翰林大學校博物館, 2001, 『여주 상리 고분(94·97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내용	출처
9	양평 하자포리 337번지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37번지	삼국	생활 유적	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양평 하자포리 337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 국비 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10	양평지구 유물산포지3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73 일원	청동기 ~조선	유물 산포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2권역 화도·양평지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1	개군면 공덕비군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12-2	조선	선정비	문화유적분포지도
12	하자포나루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661천	조선	나루	문화유적분포지도
13	양평지구 상자포리 선사유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561 일대	청동기 ~삼국	유물 산포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2권역 화도·양평지구-』,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4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5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금사리 124-20 일대	시대 미상	유적분포 가능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2권역 화도·양평지구-』
15	여주 금사리 고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39답	시대 미상	무덤 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16	여주 전북리 유물산포지1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493구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17	여주 금사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353답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18	상자포나루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478-1천	조선	나루	문화유적분포지도
19	여주 송촌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561전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내용	출처
20	양평상자포리 마애여래입상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6-1번지	고려	불상	시도유형문화재 제171호
	상자포리 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36-1번지	고려	폐사지	-
21	상자포리 유물산포지3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산46임	청동기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22	여주 파사성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8-10번지	백제	산성	사적 제251호
23	여주 파사성 내 유적(1~6차)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일원	삼국, 조선	성곽	京畿文化財團 畿甸文化財研究院·驪 州郡, 2007, 『驪州 婆娑城Ⅰ -긴급수 습 및 1차 발굴조사보고서-』,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驪 州市, 2014, 『驪州 婆娑城Ⅱ -2~4차 발굴조사보고서-』,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驪 州市, 2014, 『驪州 婆娑城Ⅲ -5~6차 발굴조사보고서-』
24	조겸행 묘와 묘표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14임	조선	무덤 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25	홍만식 영세불망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14임	조선	무덤 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26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유물산포지18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471잡 일대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4대강 살 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한강2권역 여주1지구』
27	여주 천서리 유물산포지1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434창	삼국,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28	조석주 묘와 묘갈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0임	조선	비갈	문화유적분포지도
29	여주 천서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548전	삼국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내용	출처
30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유물산포지19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500 일대	삼국	유물 산포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4대강 살 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한강2권역 여주1지구』
31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유물산포지20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당남리 707전 일대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4대강 살 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한강2권역 여주1지구』
32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유물산포지1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64전 일대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4대강 살 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한강2권역 여주1지구』
33	이봉재 가옥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38-15임	근대~ 일제강점기	가옥	문화유적분포지도
34	여주 외평리 유물산포지1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산37임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35	여주 외평리 유물산포지3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327-1전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36	여주 술천성 주변 유적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산 5-1 일원	고려 ~조선	산성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2공구) 문화 재 지표조사 보고서』
	술천성				문화유적분포지도
37	봉서정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113-2대	고려	비갈	문화유적분포지도
	김안국 부묘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109-5 임	조선	무덤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38	여주 외평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산45-1임	조선	유물 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39	묘련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400-1전	조선	사지	문화유적분포지도
40	여주 외평리 고분군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산50-3임	시대 미상	무덤 유적	문화유적분포지도



도면 6. 조사지역 위치 (●)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3. 역사적 배경

양평군의 위치는 한반도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한강과 남한강의 중하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변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에 비옥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오래전부터 인간이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역사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영토분쟁의 지역이기도 하였다.

양평군은 삼한시대 마한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한 54국 중 일화국 혹은 고탄자국의 영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⁶⁷⁾. 마한에서 백제가 성장하여 주위의 크고 작은 집단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평지역도 자연스럽게 백제의 세력권 아래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

한강유역의 정세에 대한 기록은 『史記』朝鮮列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기원전 2세기말 위만조선이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그 유이민 집단이 진국(辰國)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 시기에 마한 세력도 경기도 지역으로 진출함으로 인해 이 두 세력에 의해 한강유역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세기 중엽에 이르면 한강유역에는 마한연맹체에 속한 1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다가 점차 백제가 세력을 확장하여 한강유역에 맹주권을 장악하였다. 백제는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예성강, 안성천, 서해, 춘천 지역 등을 장악하여 마한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고대 왕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근초고왕대에는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고구려에 큰 위협을 주었고, 멀리 왜와 산둥 반도까지 진출하는 전성기를 누렸다.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양평의 옛 지명인 양근과 지평이 고구려의 양근군·향양 또는 지평현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 지역이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이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551년 나제연합군이 한강을 점령하게 되고,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백제로부터 탈취한 이후 한강유역은 신라의 세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신라는 새로 확장된 지역의 지배를 위하여 곳곳에 견고한 산성을 구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때 양평지역도 신주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대에 양근군(楊根郡)은 빈양현(濱陽縣)으로 개명되어 기천군(沂川郡)의 영현이 되었고, 지현현은 지평(地坪)으로 개명되어 삭주(朔州)의 영현이 되었다. 889년에는 궁예가 양평지역을 공략하여 활동무대로 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는데, 983년(성종 2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당시 양근현과 지평현은 광주목에 속하였다. 1018년(현종 9년)에는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양근현과 지평현은 천녕군(川寧郡)·이천군(利川郡)·죽주군(竹州郡)·과주군(果州郡)·용구현(龍駒縣) 등과 함께 양광도(楊廣道) 광주목(廣州牧)에

67) 천관우, 1993,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속하게 되었다. 1175년(명종 5년)에는 양근현에 감무(監務)를 파견하였다. 양근현은 공신과 왕사가 배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읍호승강이 잦았다. 1269년(원종 10년)에는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자정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되었고, 1356년(공민왕 5년)에는 왕사 보우(普愚)의 어머니 고향이기 때문에 양근현을 양근군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보우가 미원장(迷元莊)의 소설암(小雪菴)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미원장이 미원현으로 승격되었으나, 땅이 비좁고 인가가 드물어 얼마 후 다시 복귀시켰다. 지평현의 경우도 고려 말기인 1378년 우왕의 유모 장씨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감무를 두었다가 1388년 혁파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양평지역은 군·현의 변화는 계속되었으며, 1413년(태종 13년)에 감무를 설치하고 현감을 두었다. 기존의 양광도가 경기도로 바뀌었을 뿐 양근과 지평은 그대로 광주목에 속하였다. 하지만 강상(綱常)의 도리를 어긴 죄인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을의 지위를 격하시켰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변화가 반복되었다. 1658년(효종 9년)에 양근군과 지평현을 병합하였다가 1668년(현종 9년)에 다시 양근군을 설치하였다. 1685년(숙종 11년)에도 강상의 죄인을 낳았다는 이유로 지평현을 폐지하여 양근군에 귀속시키기도 하였고, 1728년(영조 4년)에는 양근을 현으로 강등했다가 1741년(영조 17년) 다시 군으로 승격되는 등 변화가 잦았다. 1865년(고종 2년)에 발간된 『大典會通』에 의하면 양근은 군으로, 지평은 현감이 관할하는 현으로 편제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도입되었을 때 양근군과 지평현은 춘추부에 속하게 되었다. 이듬해 13도제로 행정구역이 재편됨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현은 다시 경기도에 예속되었다.

1908년 9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여 양평군이 되었다. 1914년 3월에 남종면이 광주군에, 1942년 4월에 설악면이 가평군에 이속되었다.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 개군면이 새롭게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73년 7월에는 서종면의 삼회리와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1979년 5월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 12월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개칭되어 오늘 날에 이른다.



도면 8. 조사지역(●) 고지도(『廣輿圖-驪州牧』, 19세기 초,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면 9. 조사지역(●) 근세지형도(『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1919年, 朝鮮總督府)

Ⅲ. 조사내용

1. 조사 범위 및 현황

금번 발굴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이며, 조사면적은 512 m²이다. 조사지역의 주변으로는 개인주택단지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지역 또한 금번 조사 이전까지 개인주택지로 이용되었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서쪽으로 약 120m 가량 떨어져 남한강이 남-북방향으로 북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약 600m 거리에 향리천이 동-서방향으로 흘러 남한강과 합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조사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원은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사지역의 해발고도는 36m 내외이다.

조사지역은 추후 단독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남-북 방향은 20m, 동-서 방향은 19m 이내로 매우 협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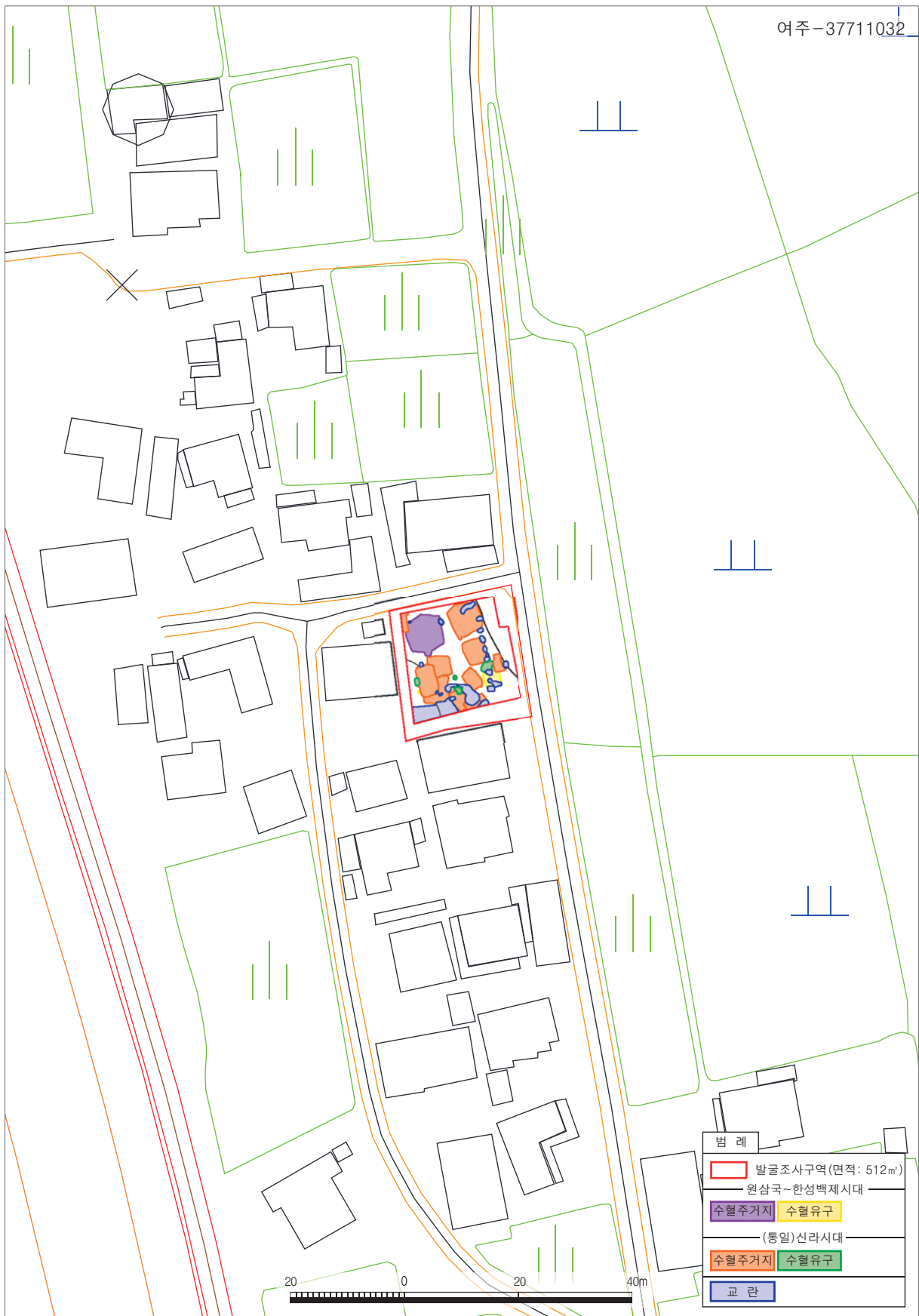
2. 조사 방법

조사지역은 남한강변의 충적지로 2009년에 실시된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하여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으로 보고된 지역이다. 이후 2017년 5월 (재)서해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표본조사⁶⁸⁾ 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및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본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표본조사 당시 설치한 트렌치를 토대로 유구가 확인되는 상부의 층위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삭을 실시함과 동시에 인력을 동원하여 유구의 평면 윤곽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각 방위 벽면의 토층 기록을 남김과 동시에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구간에 별도의 Pit조사를 실시하여 하부로 다른 문화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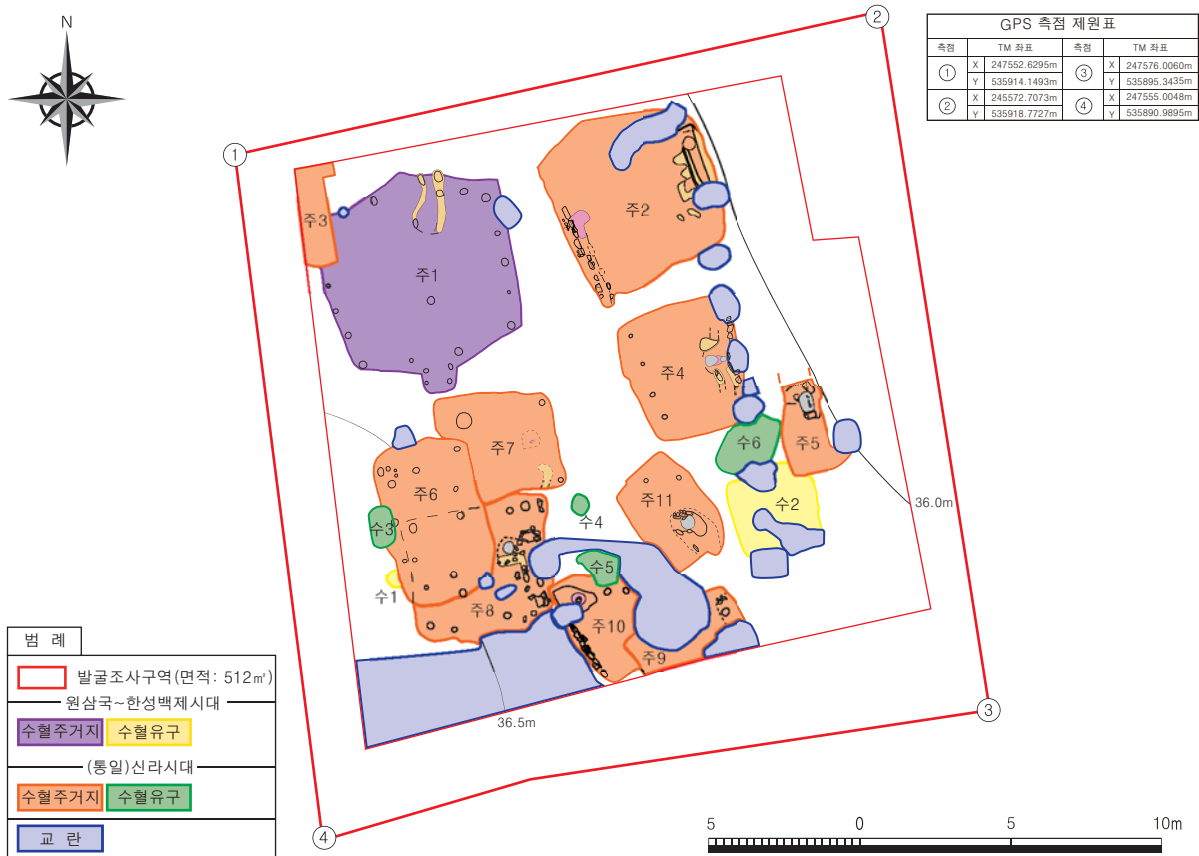
유구에 대한 내부조사는 유구 간 중복관계를 파악하여 후축된 유구부터 내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단면조사를 통한 중복 선후관계를 재차 확인하였다. 확인된 유구들은 유구 내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층위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후 자연층위법을 이용한 내부조사를 통하여 유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과 폐기 후에 유입된 유물의 출토맥락을 파악하여 기록을 남겼다. 내부시설은 상면으로 추정되는 층위면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상면조사를 마친 후 굴착면 확인을 위한 상면토 제거를 실시하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 주거지의 연대파악을 위해 주거지 내에서 수습한 목탄을 이용하여 AMS연대 측정을 시행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10호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세형동검편의 과학적 분석(X-Ray 촬영, 금속현미경관찰, SEM-EDS 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68) 오세현·서해문화재연구원, 2017.05, 「양평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10. 조사지역 현황도(1:1,00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도면 11. 조사지역 현황도(1:250, 2016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3. 층위

조사지역 내 층위 양상은 남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북벽의 층위 양상까지 파악하여 모식도를 설정하였다(도면 12). 토층은 상층부에서부터 표토(교란 및 콘크리트)→명갈색사질토(10YR, 5/8)→탁황색사질토(2.5Y, 6/4)→황갈색사질토(2.5Y, 5/4)·탁황색사질토(2.5Y, 6/3)→황갈색사질토(10YR, 5/3)→탁황등색사질토(10YR, 6/3)·탁황갈색사질토(10YR, 5/3)→갈색사질토(10YR, 4/6)→천황등색사질토(10YR, 8/4)로 총 8개 층으로 구분된다. 층위양상은 최상위층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현대 교란층에서 각종 쓰레기와 배수관 시설이 확인되었다. 1~2층은 자연퇴적층이며, a·3·4층은 고려~조선시대의 유물포함층으로 특히 a층은 대부분 교란으로 인해 층위가 불안정하다. b·5·6층은 원삼국~백제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물포함층으로 비슷한 높이에서 유물과 유구가 확인된다. 7층은 원삼국~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유구조성층으로 남서에서 북동으로 낮아지는 양상이며, 대체로 해발 36.0m 내외에서 유구가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남한강의 자연제방에 속하고 있으며, 동편은 배후습지로 나타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원삼국~한성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 1기·수혈유구 2기,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0기·수혈유구 4기 등 총 17기이다.

4. 조사내용

〈원삼국~한성백제시대〉

1) 수혈주거지

(1) 1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13,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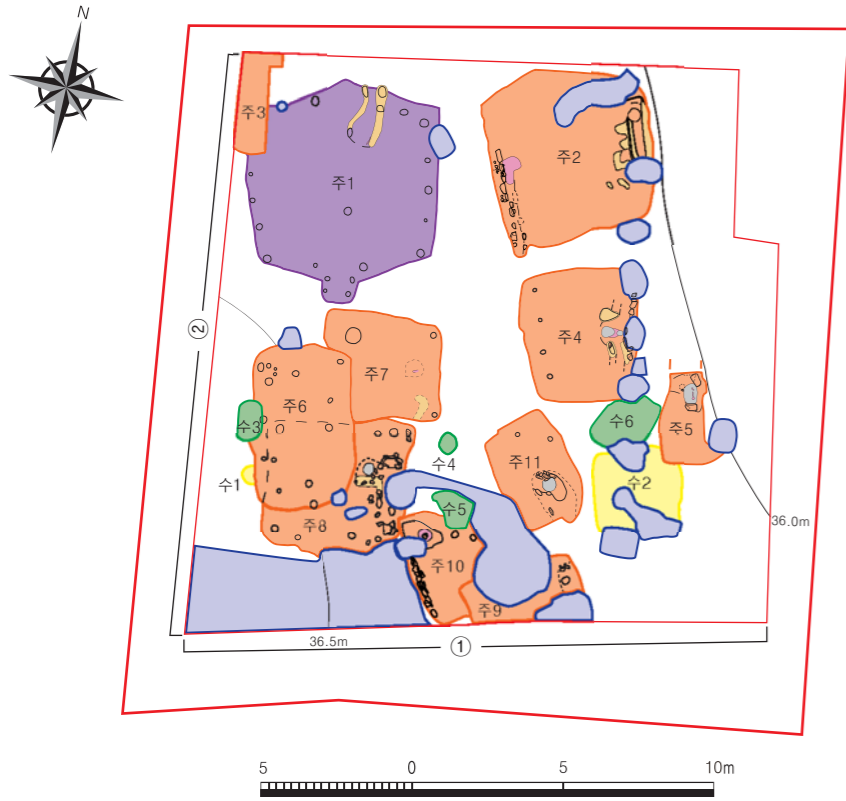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해발 36.4m)한다. 북쪽으로는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바닥면만 잔존해 있으며, 동벽 중앙부와 북(서)쪽으로는 교란으로 인해 유구가 일부 파괴되었다. 주거지의 벽체는 유수의 영향 및 교란으로 인하여 북벽과 서벽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3호 수혈주거지가 퇴적층 상층에 자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출입구가 남벽 중앙으로 돌출된凸자형 주거지이며, 북벽의 교란으로 인해 벽체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바닥면의 잔존 양상으로 보았을 때 육각형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2°-E)방향이다. 주거지의 전체 규모는 길이(남-북) 740cm, 너비(동-서) 640cm, 최대깊이 46cm이고, 입구부의 규모는 길이(남-북) 72cm, 너비(동-서) 120cm이다.

내부 층위는 황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가 반복적으로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거지의 폐기 이후 유수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퇴적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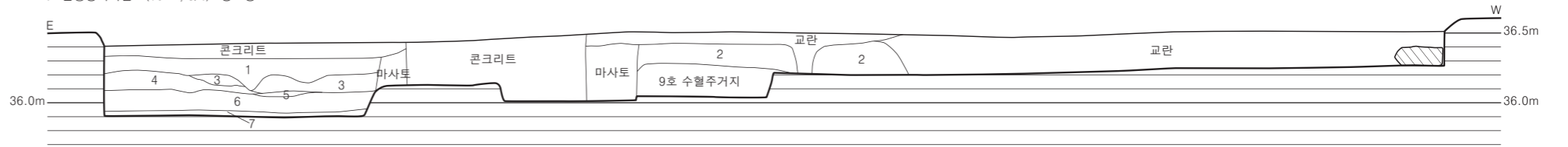
내부시설은 출입구, 터널형의 부뚜막,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출입구는 남벽 중앙에 돌출된凸자형으로 판단되며, 돌출된 출입구 바닥면에는 4기의 주혈이 벽체에 연접하여 조성되었다. 출입구 내 주혈은 지름 10~20cm, 깊이 12cm 이내로 소형이다. 출입구부에서 주실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사지게 처리하였으며, 주실의 바닥은 점토를 이용하여 일부 다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부뚜막 시설은 주실 후벽의 돌출부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조성되었다. 규모는 잔존 길이(남-북) 206cm이며, 아궁이 입구의 너비 약 60cm, 배연부의 너비는 약 30cm 가량이다. 아궁이 입구는 얇은 토기 동체부편을 바닥에 깔 후 상부에 점토를 발라 시설하였다. 고래시설은 황갈색의 점토를 이용하여 고래독을 마련하였으며, 주거지의 북벽 외곽으로 연장되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부뚜막 시설의 주변으로는 일부 판석 재들이 관찰되는데 고래시설의 개석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주혈은 주거지의 벽체에 연접하여 1m 정도의 등간격을 이루며 관찰되며, 주거지의 중앙으로 중심주혈 1기가 확인된다. 주혈의 규모는 지름 10~30cm로 다양하며, 깊이는 대부분 20cm 이내로 깊지 않다.

유물은 유개고배편,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 소용, 평저 소호, 심발형토기편, 장란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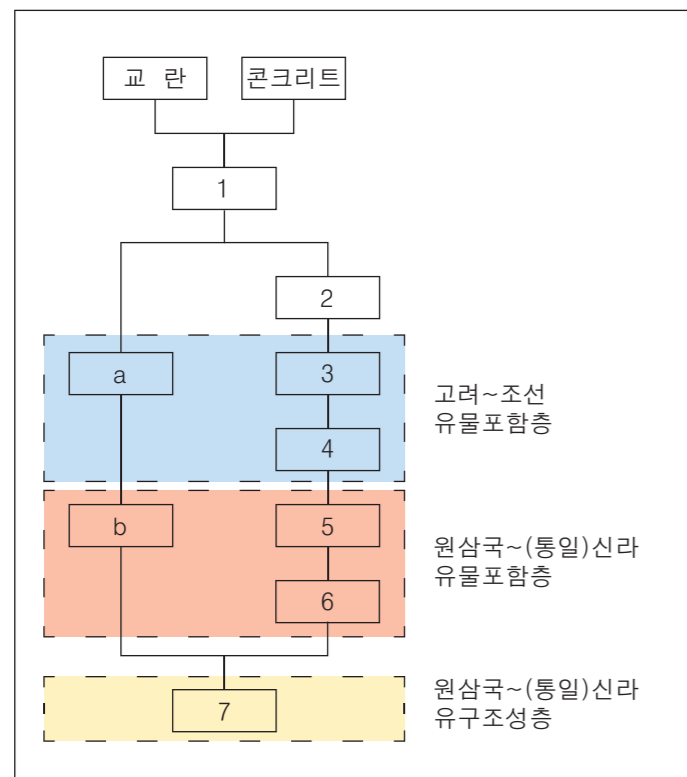


① 남벽

- 1: 명갈색사질토(10YR, 5/8)
- 2: 탁황색사질토(2.5Y, 6/4)
- 3: 탁황색사질토(2.5Y, 6/3)
- 4: 황갈색사질토(10YR, 5/3)
- 5: 탁황등색사질토(10YR, 6/3)
- 6: 갈색사질토(10YR, 4/6)
- 7: 천황등색사질토(10YR, 8/4)-생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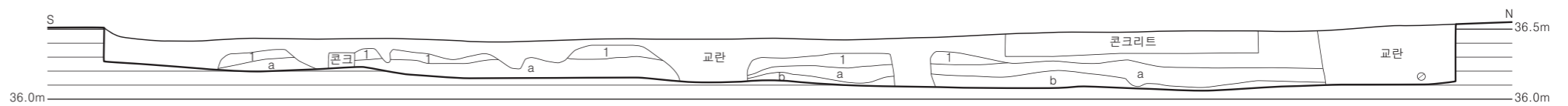
* 조사지역 퇴적양상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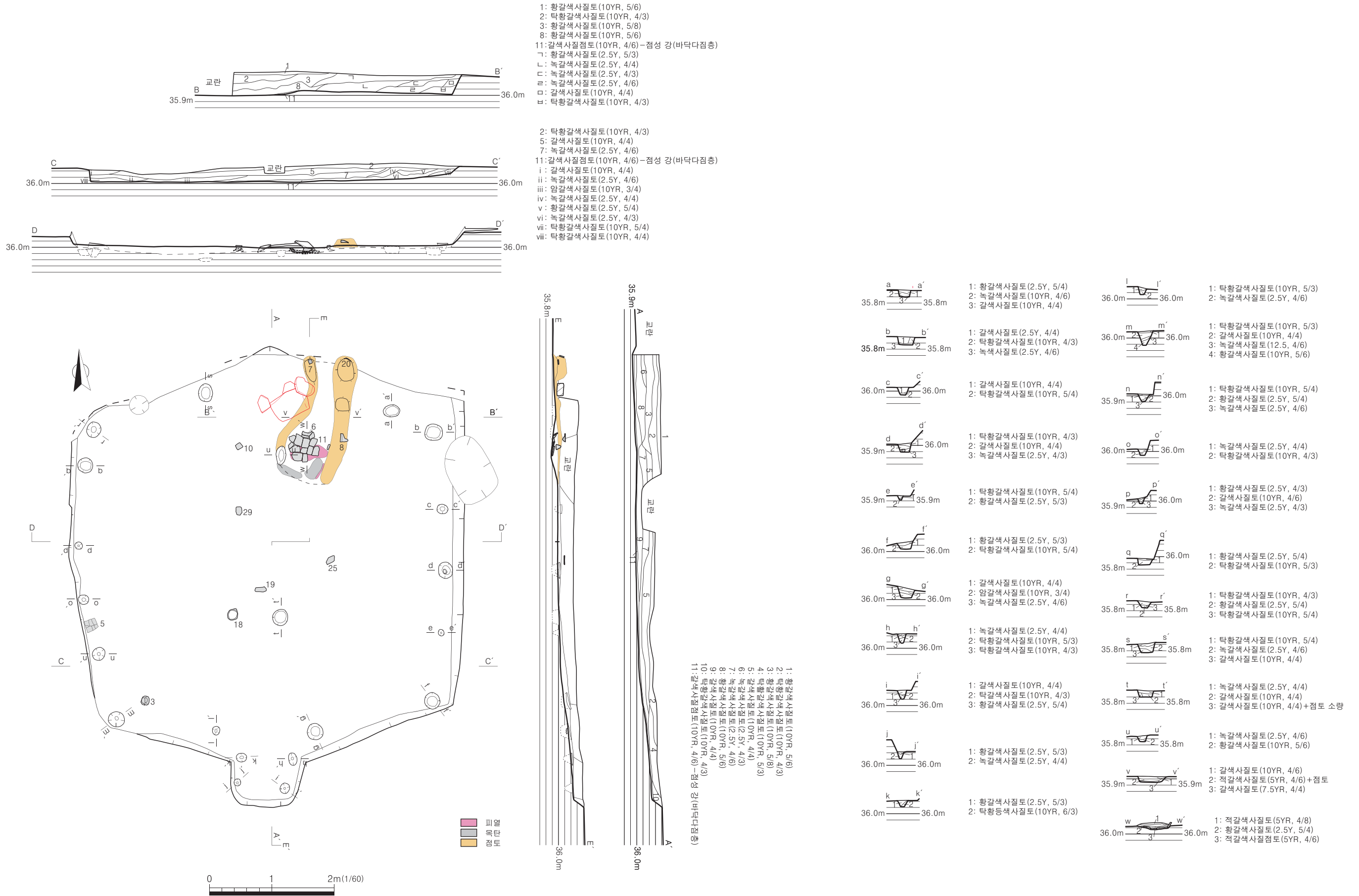


도면 12. 조사지역 토층도

② 서벽

- 1: 명갈색사질토(10YR, 5/8)
- a: 황갈색사질토(2.5Y, 5/4)
- b: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나. 유물

1. 유개고배(도면 14-1, 도판 4-1)

주거지 내부토 최상층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유개고배이다. 대각 말단부가 결실되었으나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배신부는 둥근 곡면을 그리며 올라간다. 뚜껑받이턱은 단면 삼각형으로 짧게 돌출되어 있고, 구연은 내만하고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뚜껑받이턱 아래로 다수의 지두압흔이 확인되고, 대각 접합을 위한 홈이 배신 바닥에서 1조 관찰된다. 대각 접합은 접합면을 판상의 도구로 긁은 뒤 그 위에 대각을 붙이고, 점토를 한 겹 얇게 덧발라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 확인되며, 바닥면에서도 관찰된다.

잔존높이 5.2cm, 복원구경 8.2cm, 두께 0.3~0.6cm

2. 대합 구연부(도면 14-2, 도판 4-2)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흑회색 연질의 대합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과 석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듯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짧게 내만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평평한 면을 이루며 내경한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였고, 점토피흔이 관찰된다. 또 대부분 탈락되었으나 흑색마연흔(광택)이 잔존편의 하부를 중심으로 일부 확인된다. 내면 또한 점토피흔이 관찰되며, 횡방향의 도구정면흔과 지두흔이 견부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잔존높이 5.1cm, 두께 0.55~0.65cm

3.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 소용(도면 14-3, 도판 4-3)

주거지 남서벽 인근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 소용이다. 구연부 1/2 이상과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기표면 상태가 양호하다. 저부는 들린 평저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만하다 구연부에 이르러 외경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룬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정면한 뒤 횡사방향으로 매끄럽게 도구정면하였다. 반면 구연부와 동체-저부 경계면은 정면흔이 거친 편이다. 내면은 견부와 저부경계면을 중심으로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구연부를 중심으로 종방향의 도구정면흔과 점토피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되는데, 외면은 기표면 전면에서 확인되며, 내면은 바닥면에서 1/3 지점 이상으로 확인된다.

잔존높이 17.6cm, 복원구경 13.4cm, 복원저경 8.8cm, 두께 0.5~1.05cm

4. 평저 소호(도면 14-4, 도판 4-4)

주거지 아궁이 점토 내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평저 소호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섞인 조질의 점토를 사용하였으나 기표면 상태가 양호하다. 기형은 평저에서 동체부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동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다시 내만하다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동체-저부는 바닥면 위로 기벽을 올리고, 외측면에 점토를



도면 14.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9)

보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동하부에서 무문의 내박자흔이, 견부에서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나 마연에 가까울 정도로 정면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외면 일부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1.55cm, 복원구경 9.9cm, 복원저경 9.7cm, 두께 0.4~1.1cm

5. 심발형토기(도면 14-5, 도판 4-5)

주거지 서벽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심발형토기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바닥은 대부분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구연에 이르러 등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얇은凹면을 이루며, 구연내측도凹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여 구경부는 타날이 지워졌고, 동체부는 1.0cm 너비로 횡·종방향의 물손질흔이 등간격으로 확인된다. 저부 외측면은 회전깎기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견부와 저부 경계면을 중심으로 지두흔이 관찰되며, 동하부에서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또한 점토띠흔이 단위를 이루며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한편,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8.45cm, 복원구경 19.7cm, 두께 0.5~0.9cm

6. 심발형토기 저부(도면 14-6, 도판 4-6)

주거지 아궁이 상부에서 출토된 외면·속심 적갈색, 내면 회갈색 연질의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바닥부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타날 하였고, 내면은 다수의 지두흔과 동체-저부 성형시 사용된 점토 보강흔이 관찰된다. 동체-저부는 바닥부에 기벽을 세우고 내·외면에 점토를 덧발라 보강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잔존높이 7.25cm, 복원저경 13.0cm, 두께 0.45~1.1cm

7. 장란형토기 구연부(도면 14-7, 도판 4-7)

주거지 부뚜막 배연부쪽에서 출토된 회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내만하는 견부에서 완만한 면을 그리며 외반하고, 구연단은 물손질에 의해 얇은凹면을 이룬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으며, 구연부는 물손질되어 타날이 지워졌다. 이외 구연부에서 지두흔이 일부 관찰되나 물손질에 의해 희미하다. 내면은 견부를 중심으로 무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되며, 구경부를 중심으로 지두흔과 점토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외면 일부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35cm, 두께 0.45~0.65cm

8. 장란형토기 구연부(도면 14-8, 도판 4-8)

주거지 부뚜막 동쪽 점토 고래열에서 출토된 내·외면 황갈색, 속심 암회색의 연질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기

형은 내만하게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둥근 곡면을 그리며 크게 외반하는 형태이고, 구연단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승문타날 후 구연부는 물손질 하였다. 내면은 견부를 중심으로 점토띠를 붙여 나가면서 생긴 지두압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횡방향의 거친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1.5cm, 복원구경 29.0cm, 두께 0.55~0.85cm

9. 장란형토기 구연부(도면 14-9, 도판 5-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기형은 동체에서 견부로 완만하게 내만하다 견부에서 직립하고 구연에 이르러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루며, 구연내측은 횡방향 물손질에 의해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구연까지 승문타날하였으나 물손질에 의해 견부와 견부 일부의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견부에서 무문의 내박자흔이, 구경부에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일부 확인된다.

잔존높이 8.25cm, 두께 0.55~0.7cm

10. 심발형토기 구연부(도면 15-10, 도판 5-10)

주거지 아궁이 서편 부근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동체부는 둥글게 내만하며, 견부에서 거의 직립하다 구연에 이르러 수평에 가깝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하였고, 구연부는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며, 견부를 중심으로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높이 8.3cm, 두께 0.45~0.65cm

11. 장란형토기 동체부(도면 15-11, 도판 5-11)

주거지 아궁이 입구부의 바닥 점토 시설 하부에서 얇게 깔려서 출토된 (암)회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으로 동하부에 해당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암회색의 점토를 한 겹 덧발랐으나 기표면 박리가 심해 대부분 속심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외면에는 승문과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3.25cm, 두께 0.6~0.85cm

12. 장란형토기 동체부(도면 15-12, 도판 5-12)

주거지 아궁이 입구부의 바닥 점토시설 하부에서 얇게 깔려서 출토된 회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으로 기형상 견부에 해당한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으며, 견부로 이어지는 상부는 물손질에 의해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견부 조정시 끌어올린 지두정면흔이 다수 관찰된다. 외면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1.35cm, 두께 0.55~0.75cm

13. 장란형토기 동체부(도면 15-13, 도판 5-13)

주거지 아궁이 입구부의 바닥 점토시설 하부에서 얇게 깔려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다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소형 내박자흔이 다수 관찰되고 내박자로 인해 기표면凹凸이 심한 편이며,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외면 상부와 하부 일부에서 부뚜막 고정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갈색 점토가 관찰된다.

잔존높이 15.0cm, 두께 0.5~0.7cm

14. 장란형토기 동체부(도면 15-14, 도판 5-14)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부편으로 기형 및 문양으로 보아 동하부에 해당한다.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에는 승문과 격자문이 확인되며, 격자문은 물손질에 의해 일부 지워졌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소형의 무문 내박자흔이, 동하부를 중심으로 지두흔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높이 20.95cm, 두께 0.45~0.7cm

15. 심발형토기 구연부(도면 15-15, 도판 5-1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사격자문을 타날하였고, 구연부는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견부를 중심으로 무문의 내박자흔과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며,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4.5cm, 두께 0.4~0.6cm

16. 동이 구연부(도면 15-16, 도판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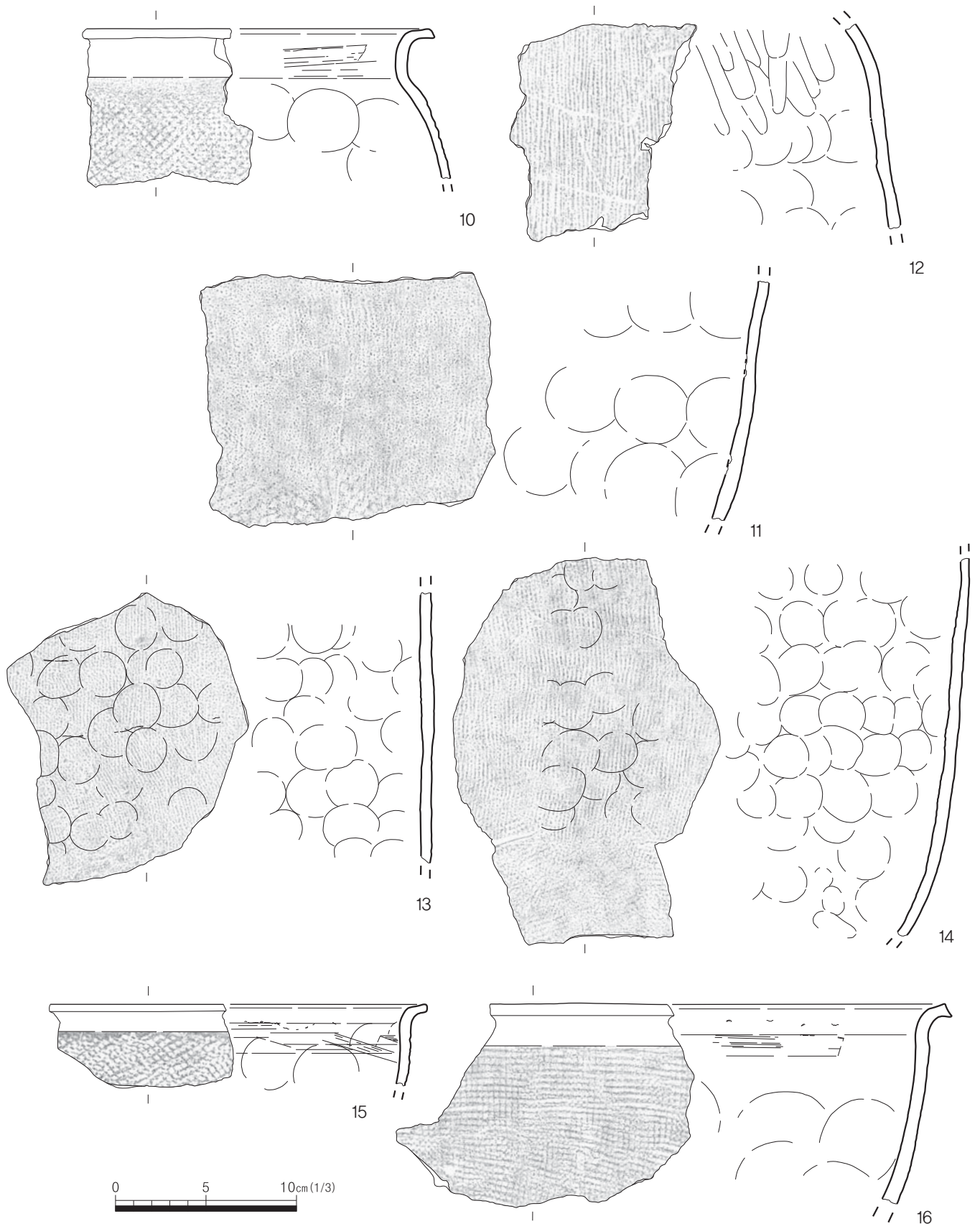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동이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다량의 석립이 혼입되었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 이르러 둥글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얇은 띠면을 이루면서 아래쪽이 뾰족한 형태이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 하였고,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둥근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견부를 중심으로 점토띠흔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11.05cm, 두께 0.65~0.8cm

17. 동이 구연부(도면 16-17, 도판 6-17)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흑회색 연질의 동이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부는 둥글게 내만하고, 구연에 이르러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사격자문 타날 후 구경부는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남아있고 횡방향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나 희미하며, 견부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4cm, 두께 0.55~0.75cm



도면 15.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16)

18. 단경호 구연부(도면 16-18, 도판 6-18)

주거지 중앙 중심주혈 서편 인근에서 출토된 회(갈)색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부는 구형을 이루고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경부는 구연에 이르러 살짝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凹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횡침선을 돌렸고, 타날 후 구연부와 견부는 물손질하였다. 구연단은 종사방향으로 도구정면하였다. 내면은 견부를 중심으로 지두흔과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2.6cm, 구경 18.1cm, 두께 0.6~0.9cm

19. 호 동체부(도면 16-19, 도판 6-19)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외면·속심 황갈색, 내면 적갈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희미하며, 점토띠흔이 일부 관찰된다. 내면은 지두흔과 횡사방향의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외면에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0cm, 두께 0.7~1.0cm

20. 호 동체부(도면 16-20, 도판 6-20)

주거지 부뚜막 배연부 부근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호 동체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평행타날문을 사방향으로 교차타날하였으며, 그 위로 6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동하부는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되며, 견부 이하는 종·사방향의 도구 정면흔이, 그 위로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또 동하부를 중심으로 점토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잔존높이 17.5cm, 두께 0.4~0.75cm

21. 대호 저부(도면 17-21, 도판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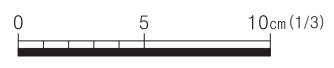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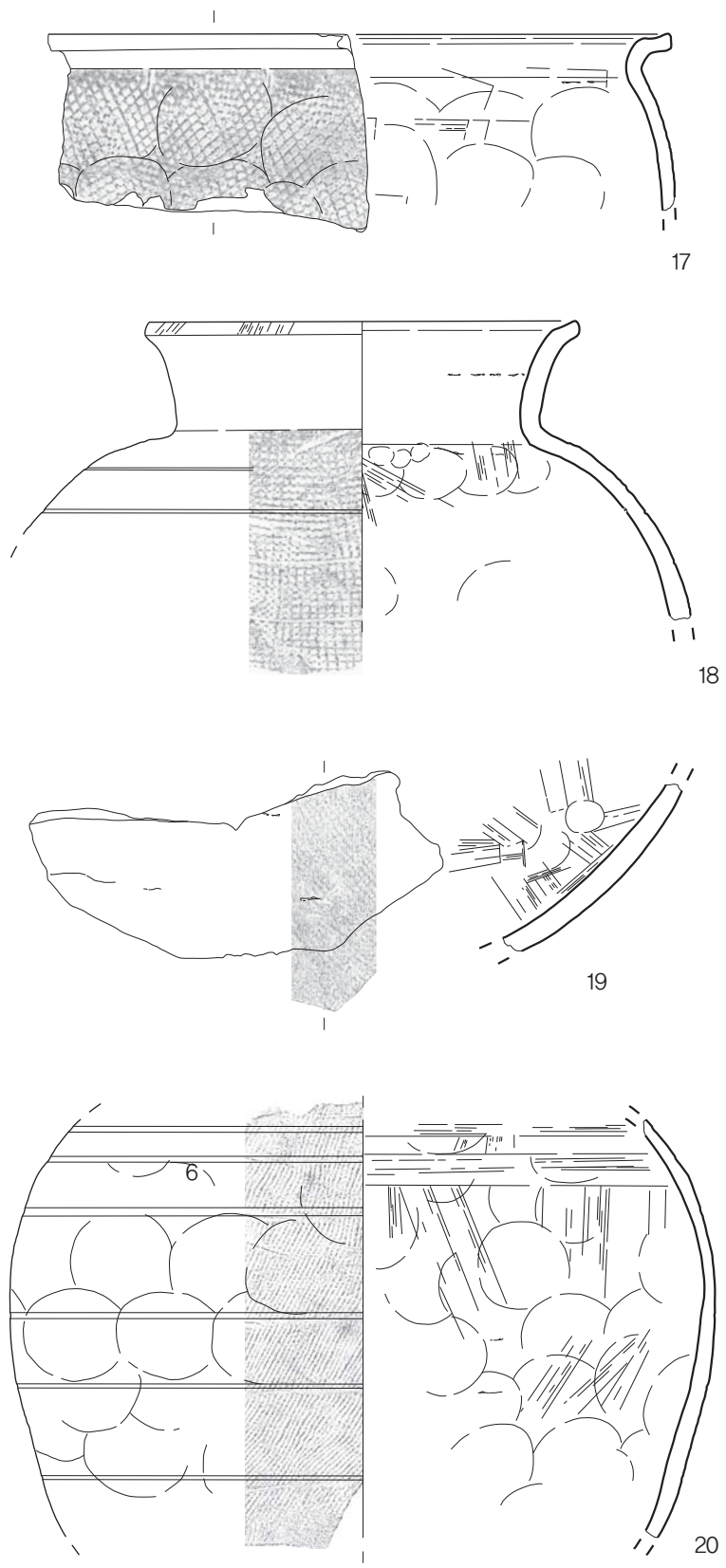
주거지 아궁이에서 출토된 (암)회색 연질의 대호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격자타날하였다. 내면은 둥근 내박자흔과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확인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며,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4.95cm, 두께 0.55~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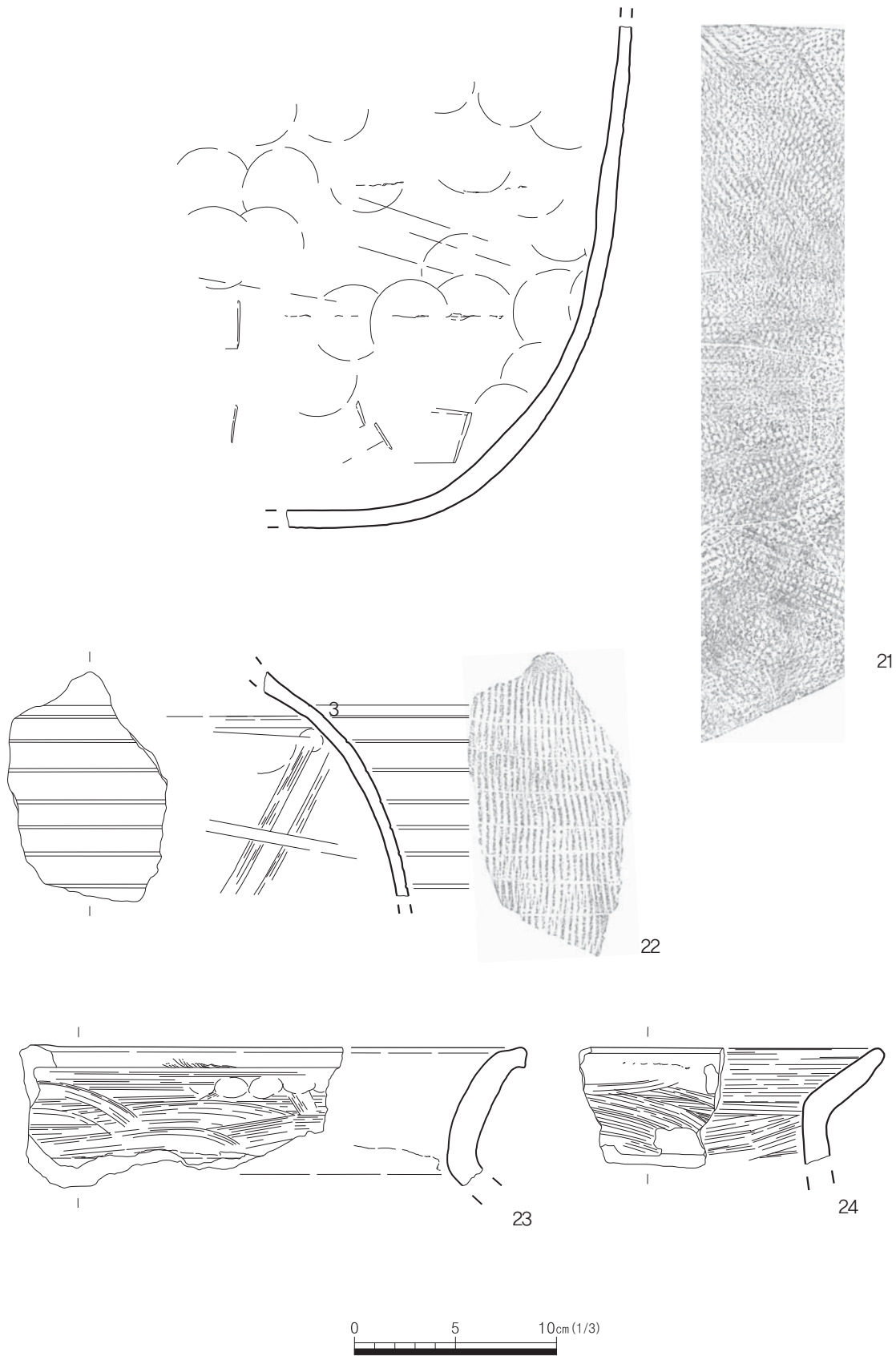
22. 호 동체부(도면 17-22, 도판 6-22)

주거지 아궁이에서 출토된 회흑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으로 기형과 문양으로 보아 견부에 해당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평행선문 타날 후 횡침선을 8조 이상 돌렸으며, 견부는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종·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견부를 중심으로 지두흔과 무문의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11.15cm, 두께 0.55~0.85cm



도면 16.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7~20)



도면 17.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1~24)

23. 대호 구연부(도면 17-23, 도판 6-23)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대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단에서 수평에 가깝게 꺾이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구연단 아래로 지두흔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횡사방향의 물손질흔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견부를 중심으로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내면 견부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6.8cm, 두께 1.15~1.5cm

24. 대옹 구연부(도면 17-24, 도판 6-24)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연회색 연질의 대옹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견부에서 구연부로 급격하게 꺾여 외경하는 형태로 구연단으로 갈수록 기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외면에서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75cm, 두께 0.75~1.45cm

25. 대옹 동체부(도면 18-25, 도판 7-25)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대옹 동체부편으로 견부에 해당한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타날 하였으며, 견부는 물손질에 의해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다수 관찰되며,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견부에서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8.85cm, 두께 0.85~1.3cm

26. 수키와(도면 18-26, 도판 7-26)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좌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석립이 혼입된 고운 점토이다. 외면은 격자타날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폭 2.0cm 가량의 통쪽 와통흔이 관찰된다. 측면 와도는 전면에 걸쳐 그었고, 두께가 매우 얇은 편이다.

잔존길이 5.0cm, 두께 0.55~0.8cm

27. 호 구연부(도면 18-27, 도판 7-27)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로, 구연단은 각이 져 있고 하단부에서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횡사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4.4cm, 두께 0.45~0.75cm

28. 호 구연부(도면 18-28, 도판 7-2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사선에 가깝게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급하게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얇은凹면을 이룬다. 외면은 태승문 타날 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며, 경부를 중심으로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6.65cm, 두께 0.45~0.9cm

29. 몸돌(도면 18-29, 도판 7-29)

주거지 아궁이 남서편 부근에서 출토된 담회색 유문암제 몸돌이다.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하여 격지를 떼어냈다. 타격은 윗면에서 아랫면 방향으로 두세차례 떼어낸 후 다시 여러 방향으로 수차례에 걸쳐 떼어냈다. 뒷면은 폐기 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몸돌 이전 자갈돌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5×15cm 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9.7cm, 너비 11.7cm, 두께 4.8cm

2)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9, 도판 8-①~④)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해발 36.6m)하며,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주거지에 의해 유구의 동쪽 절반 가량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유구의 파괴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잔존하는 평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원형으로 판단된다. 잔존규모는 지름 60cm, 최대깊이 8cm로 소형이다.

내부 층위는 탁황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바닥은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벽체는 10cm 이내로 남아있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잔존 양상으로 보아 사선방향으로 벽체를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바닥면을 평평하게 조성한 점, 바닥 내에 토기편 1개체가 수습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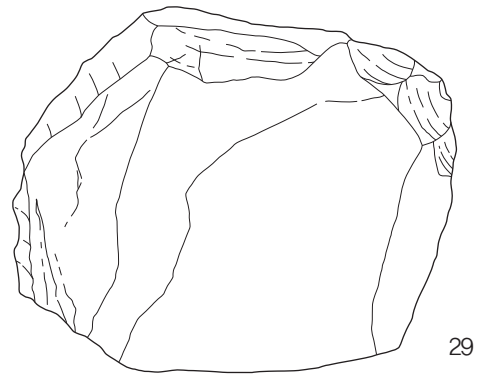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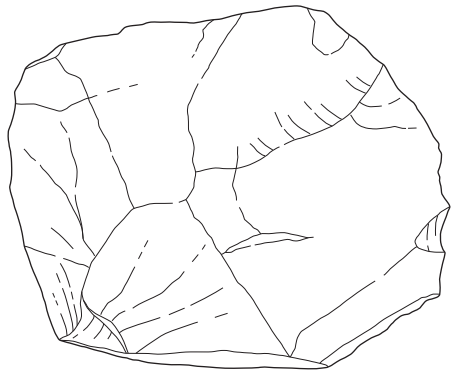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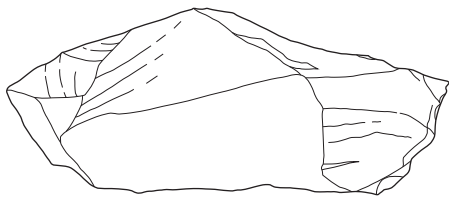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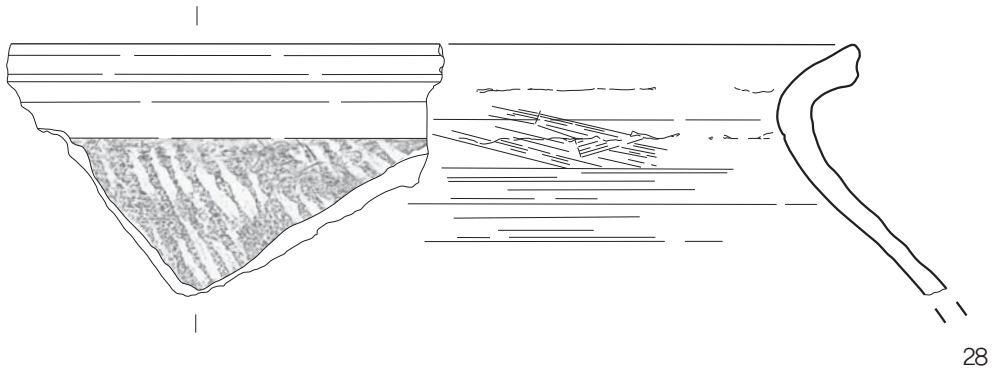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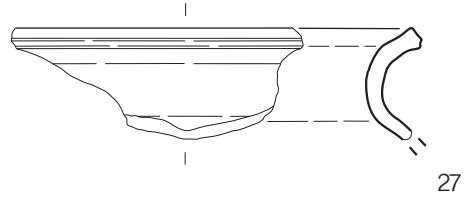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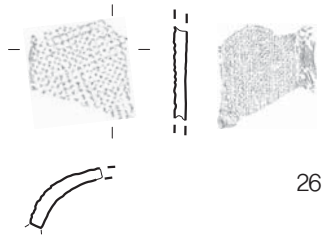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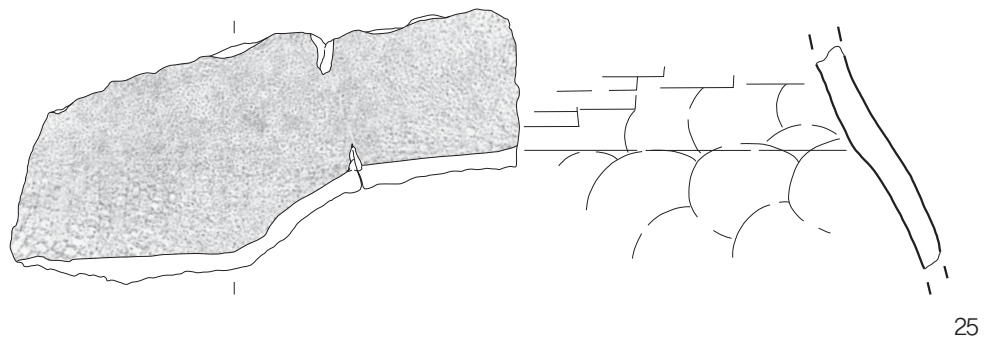
유물은 내부토에서 무문토기편, 장란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0. 무문토기 저부(도면 19-30, 도판 7-30)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바닥 중앙부가 1.0mm 가량 살짝 들려 있으나 평저에 가깝다. 외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목판정면 후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1cm, 복원저경 7.5cm, 두께 0.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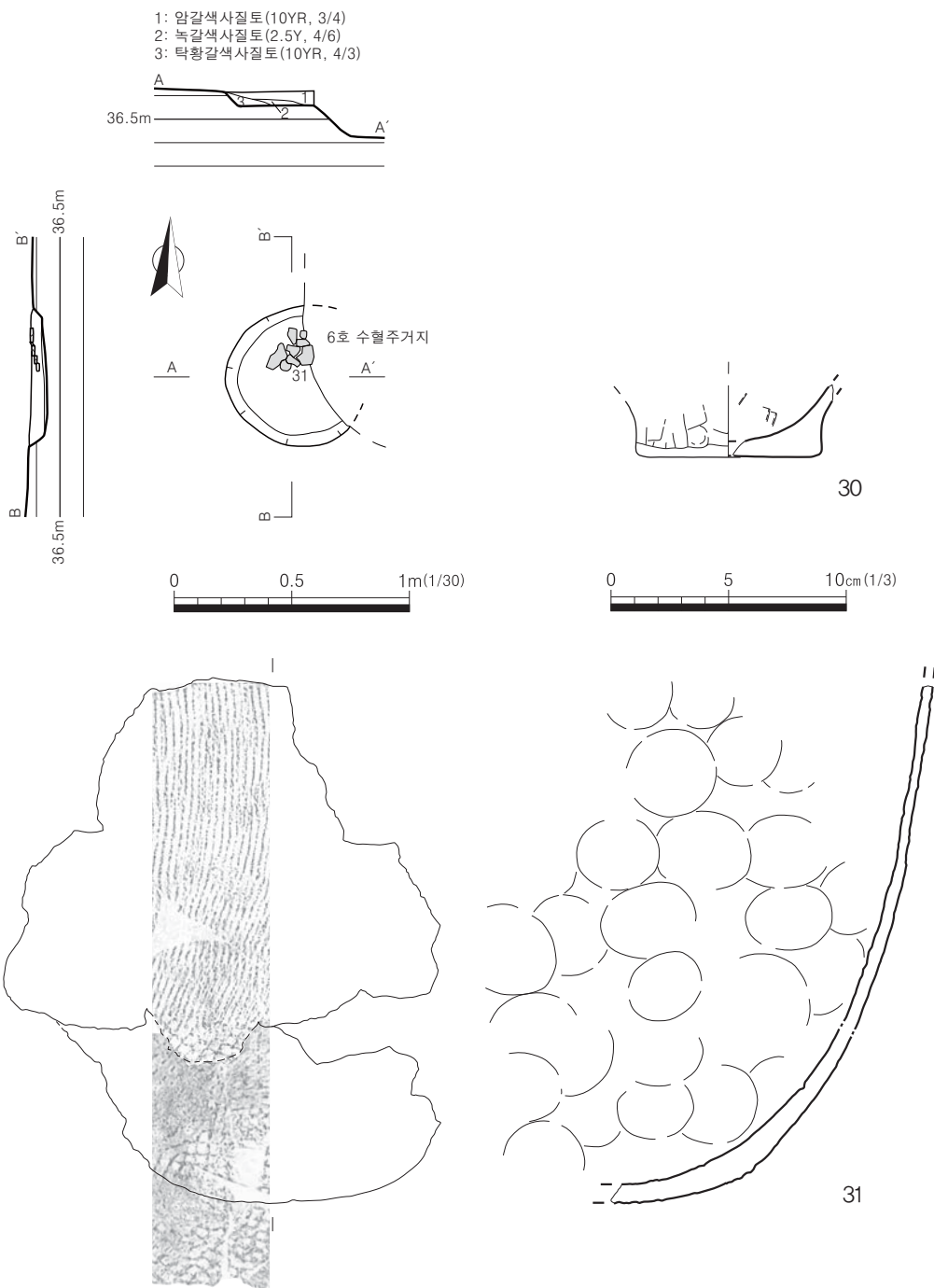


도면 18.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5~29)

31. 장란형토기 동체-저부(도면 19-31, 도판 7-31)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갈색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저부편이다. 동일 개체로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은 동체부 승문, 저부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외면 저부를 중심으로 그을음과 피열흔이 관찰된다.

복원 잔존높이 22.0cm, 두께 0.4~1.25cm



도면 19. 1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30~31)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0, 도판 8-⑤~9-①)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해발 36.25m)한다.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5호 수혈주거지로 인하여 북동벽 모서리가 일부 유실되었으며, 최근 교란으로 인해 유구의 북벽 중앙부 일부와 남벽 전체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유구의 파괴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잔존하는 평면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방형으로 판단된다. 잔존규모는 길이(남-북) 275cm, 너비(동-서) 284cm, 최대깊이 29cm이다.

내부 층위는 갈색사질토와 탁황갈색사질토가 벽가에 인접하여 퇴적되었으며, 내부 중앙으로는 암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회황갈색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바닥은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유구의 규모 및 조성 방식 등을 보았을 때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된다.

유물은 무문토기편, 중도식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2. 무문토기 저부(도면 21-32, 도판 9-32)

수혈 북동쪽 부근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무문토기 저부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바닥면 중앙이 1.0mm 가량 들려 있는 평저이고 굽축약은 심하지 않다. 내·외면 모두 목판정면 후 물손질하였고, 내면 일부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굽외면과 바닥면 일부에서 그늘음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7cm, 저경 7.4cm, 두께 0.65~1.3cm

33. 무문토기 소형 발형토기(도면 21-33, 도판 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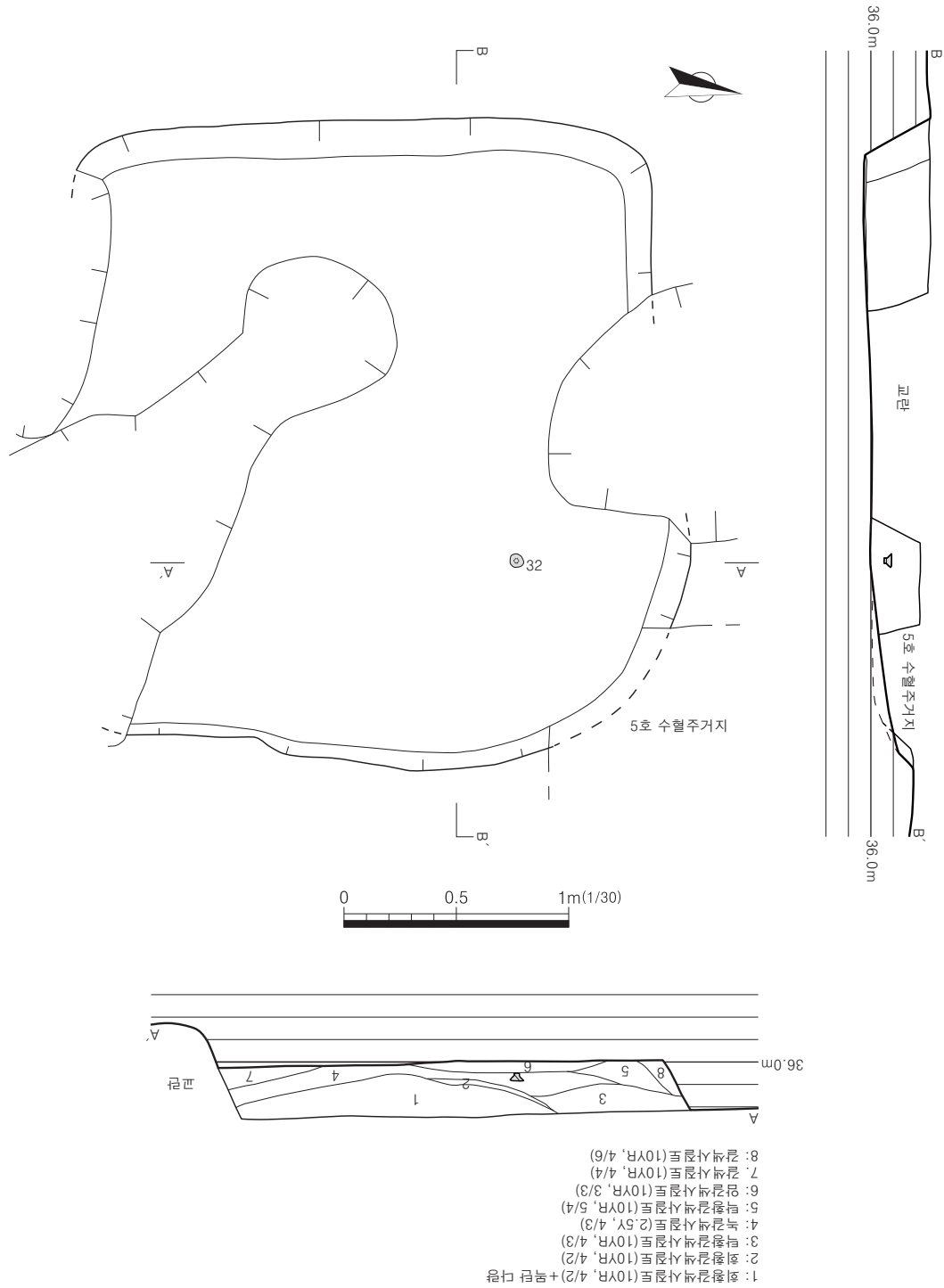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무문토기 소형 발형토기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저부는 평저이고, 사선을 그리며 동체부로 올라가다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구연으로 다시 내만하는 형태이다. 외경 접합하였으며, 바닥면은 굽외면을 보강하여 제작하였다.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전면에 걸쳐서 확인되며, 구연부를 중심으로 목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내면 또한 지두압흔과 목판흔이 관찰되나 역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7.35cm, 두께 0.55~0.75cm

34.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도면 21-34, 도판 9-34)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갈색, 속심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한 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깨끗하게 물손질되어 외면 일부에서 목판흔이 관찰되는 것 외에 정면흔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5.0cm, 두께 0.45~0.85cm



도면 20. 2호 수혈유구

35. 호형토기 구연부(도면 21-35, 도판 9-35)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내경하듯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외면은 물손질하여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은 폭이 좁은 도구를 사용하여 횡사방향으로 정면하였고, 구연부와 동하부는 폭이 넓은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하였다. 구연부는 내경 접합하였다.

잔존높이 11.8cm, 두께 0.6~0.9cm

36.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1-36, 도판 9-36)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다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바닥면이 약간 들린 평저로 동체부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면은 바닥-동체 경계면에 지두압흔이 횡으로 연속하여 돌아간다. 내면에는 바닥면을 중심으로 지두압흔이, 동체부를 중심으로 종방향의 목판흔이 관찰되며,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4.05cm, 복원저경 10.1cm, 두께 0.9~1.9cm

37.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1-37, 도판 9-37)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황갈색, 내면 갈색, 속심 흑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과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바닥면이 약간 들린 말각평저이다. 내·외면 모두 목판정면 후 물손질하였으며, 바닥면을 중심으로 희미하게 지두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일부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3cm, 복원저경 11.6cm, 두께 0.75~1.65cm

38.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1-38, 도판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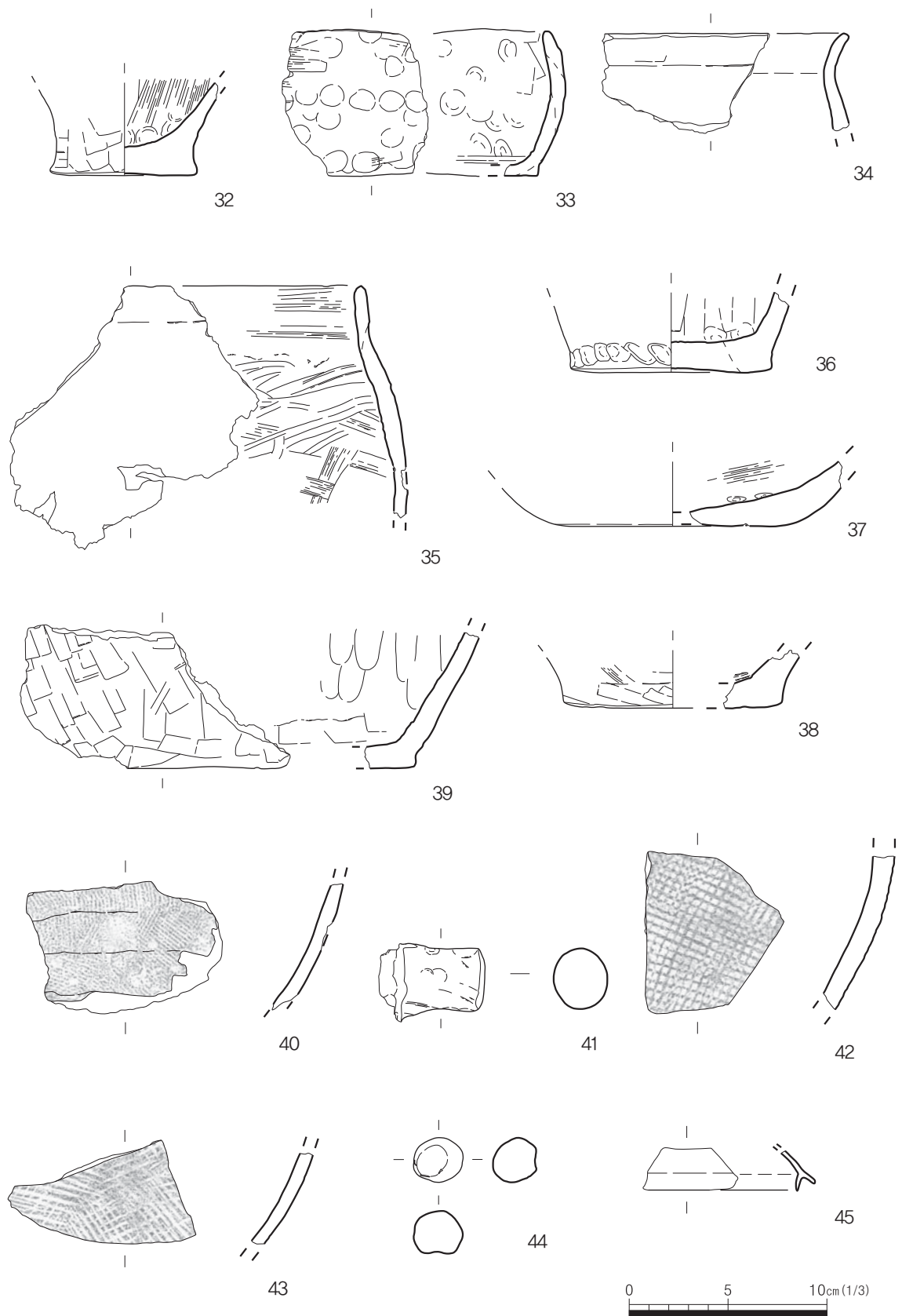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적갈색, 내면·속심 황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목판정면 하였고, 바닥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2.95cm, 복원저경 11.0cm, 두께 1.25~1.3cm

39.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1-39, 도판 9-39)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적갈색, 내면·속심 황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은 종사방향의 목판정면흔이 관찰되며, 저부 외면에는 목판에 의해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지두정면흔과 횡방향의 목판정면흔, 일부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일부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6.9cm, 두께 0.75~1.35cm



도면 21.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2~45)

40. 동체부(도면 21-40, 도판 9-40)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고, 약 2.5cm 간격으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기표면 박락 및 마모가 심하여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6.4cm, 두께 0.6~0.75cm

41. 봉상파수(도면 21-41, 도판 9-41)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흑회색 연질의 봉상파수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었다. 파수의 끝부분은 평평하다. 외면은 지두흔과 목판정면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길이 5.35cm, 잔존너비 3.95cm, 두께 2.7~3.05cm

42. 동체부(도면 21-42, 도판 10-42)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회색 연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백색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격자타날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7.8cm, 두께 0.95~1.05cm

43. 동체부(도면 21-43, 도판 10-43)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연회색, 내면·속심 암회색의 연질 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선문을 교차타날하였다. 내면은 기표면 박락 및 마모가 심하여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4.6cm, 두께 0.55~0.7cm

44. 구형 토제품(도면 21-44, 도판 10-44)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갈색 연질의 구형 토제품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상부에는 3군데에서 횡방향의 도구찍힘흔 또는 쥘흔이 관찰되며, 하부에는 성형 및 정면 시 생긴 띠면이 확인된다.

지름 2.25~2.45cm, 두께 2.05cm

45. 뚜껑(도면 21-45, 도판 10-45)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의 뚜껑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니질에 가까운 점토이다. 신부에서 드림부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형태로 드림턱은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드림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2.1cm, 두께 0.15~0.25cm

<(통일)신라시대>

1) 수혈주거지

(1) 2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22, 사진 10-①~12-③)

조사지역의 북동쪽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해발 36.25m)한다. 북동쪽은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벽체와 바닥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동벽 중앙부 또한 교란으로 인해 벽체 및 내부 구들시설 일부가 훼손되었다. 바닥면 또한 유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주거지의 남쪽으로는 약 1m 가량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주거지가 동일 축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⁶⁹⁾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13°-W)방향이다. 주거지의 전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598cm, 너비(동-서) 548cm, 최대깊이 30cm이다.

내부 층위는 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가 반복적으로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녹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남쪽으로는 바닥에 일부 점토 다짐층이 관찰되는데, 북쪽의 경우 유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 2기가 조사⁷⁰⁾되었으며, 각각 주거지의 동벽과 서벽에서 확인된다. 동벽의 경우 황갈색의 점토를 이용하여 1열의 고래열을 마련하였으며, 아궁이 입구와 배연시설은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고래열의 전체 길이(남-북)는 198cm, 너비(동-서)는 78cm이며, 고래열의 내부 너비는 24~32c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궁이의 입구는 북쪽으로 판단되며, 북에서 남으로 고래열이 진행되다 남쪽의 최근 교란 지점에서 배연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 ‘ㄱ’자 형태의 구들시설로 판단된다.

서벽에서 확인된 구들시설은 할석재와 점토를 이용하여 고래열을 마련하였다. 벽가에 연결하여 20~40cm 가량의 할석재를 세워 고래독을 마련하였으며, 10cm 이내의 자갈돌 및 점토를 이용하여 벽체를 보강하였다. 주거지 내측으로는 석재 이탈흔 및 고래흔만이 일부 관찰되고 있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잔존하는 고래열의 전체 길이(남-북)는 366cm, 너비(동-서)는 60cm이며, 고래열의 내부 너비는 15~20cm 정도로 추정된다. 아궁이 입구는 피열흔이 집중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서벽 중앙부로 보이며, 주거지 남서벽 모서리가 일부 돌출된 양상의 배연시설이 관찰되고 있어 동벽의 구들시설과 마찬가지로 ‘ㄱ’자 형태의 구들시설로 판단된다.

유물은 중도식무문토기편, 유개고배편, 대부완, 직구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69) 본고에서는 방형 주거지의 경우 구들시설의 흐름과 동일한 축을 주축으로 보고자 한다.

70) 2호 주거지의 경우 2기의 구들시설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주변 유적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최초 Pit 조사를 통하여 주거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중복의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주거지 내에 2기의 구들시설을 동시에 이용하였거나, 중복 주거지일 경우 후축된 주거지 폐기 과정에서 벽체의 유실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나. 유물

46.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3-46, 도판 12-46)

주거지 남-북 축 제토 중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저부는 축약된 형태이다. 외면에는 지두흔과 목관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3.6cm, 두께 0.8~1.1cm

47.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23-47, 도판 12-47)

주거지 남-북 축 제토 중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다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저부는 말각의 형태이다. 외면 바닥에서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나, 내·외면 모두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2.2cm, 두께 0.55~1.0cm

48. 중도식무문토기 동체부(도면 23-48, 도판 12-48)

주거지 아궁이² 점토면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75cm, 두께 0.8~1.0cm

49. 뚜껑 꼭지(도면 23-49, 도판 13-49)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뚜껑 꼭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꼭지는 단추형이며, 뚜껑 신부 상부에 점토띠를 한 줄 돌리고 끝을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내·외면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1.9cm, 두께 0.45~0.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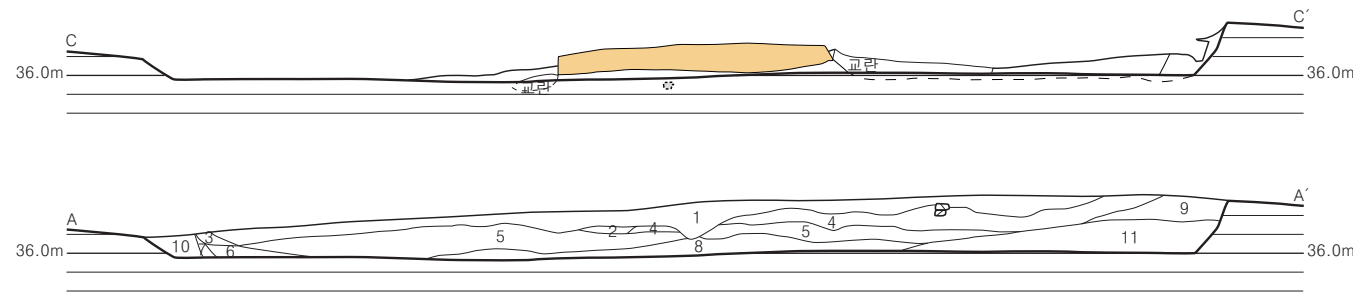
50. 유개고배 배신부(도면 23-50, 도판 13-50)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유개고배 배신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과 흑색 석립이 혼입되었다. 배신부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뚜껑받이턱은 단면 삼각형으로 짧게 돌출되어 있다. 구연은 내만하고 구연단은 뾰족하다. 외면 배신 하부에 대각 접합을 위한 1조의 홈이 돌아간다. 내면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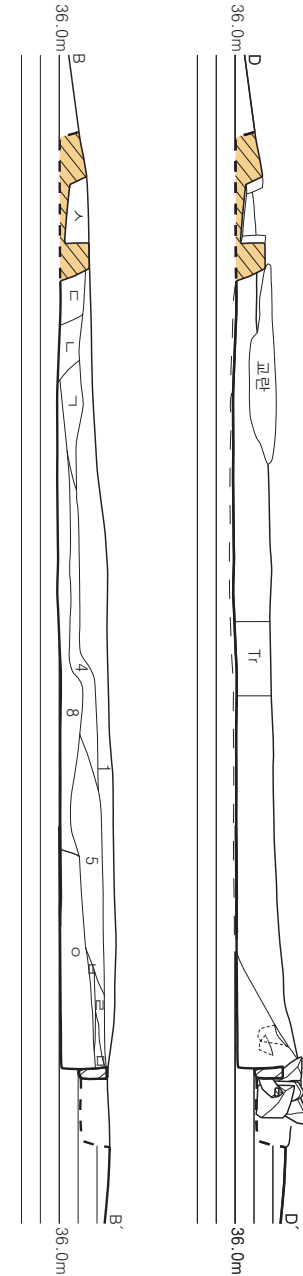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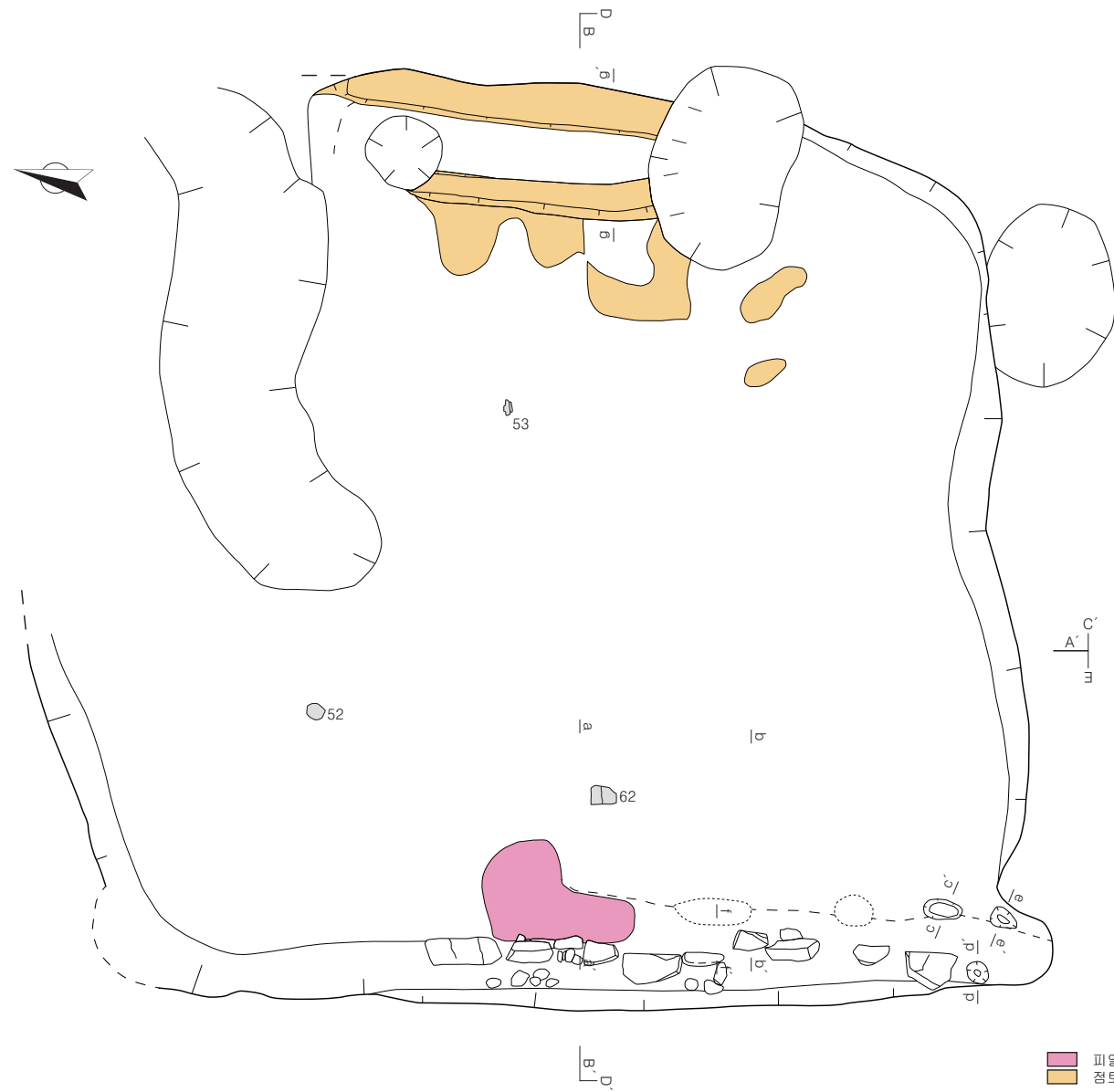
잔존높이 3.45cm, 복원구경 11.4cm, 두께 0.35~1.1cm

51. 대부완 배신부(도면 23-51, 도판 1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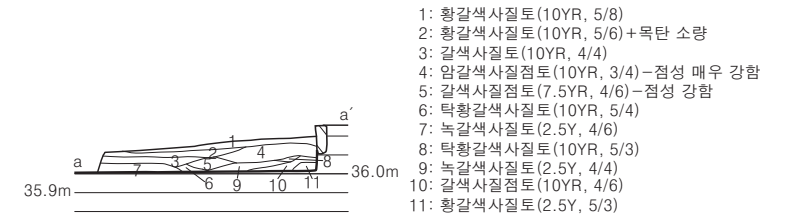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대부완 배신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이다. 기형은 배신하부에서 구연부로 둥근 곡면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단에서 살짝 외경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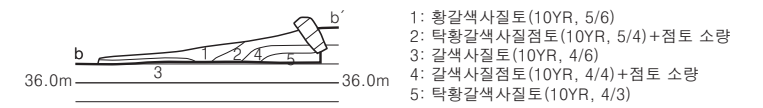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회갈색사질토(10YR, 4/2)
- 3: 갈색사질토(10YR, 4/4)
- 4: 갈색사질토(10YR, 4/3)-밀도 높음
- 5: 암갈색사질토(10YR, 3/3)
- 6: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 7: 암갈색사질토(10YR, 4/6)
- 8: 갈색사질토(10YR, 4/6)
- 9: 갈색사질토(7.5YR, 4/6)+점토 및 목탄 소량
- 10: 녹갈색사질토(2.5Y, 4/6)-보강토 채움(소량의 목탄포함)
- 11: 적갈색사질점토(5YR, 4/8)+점토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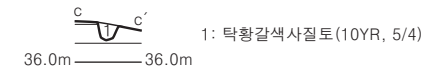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점토(10YR, 4/3)
- 4: 갈색사질토(10YR, 4/3)-밀도 높음
- 5: 암갈색사질토(10YR, 3/3)
- 8: 갈색사질토(10YR, 4/6)
- 7: 암갈색사질토(10YR, 3/4)
- 1: 명황갈색사질토(7.5YR, 4/6)+점토
- 2: 녹갈색사질토(2.5Y, 4/3)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회갈색사질토(10YR, 4/3)
- 3: 명갈색사질토(10YR, 5/6)
- 4: 사변 구덩이시설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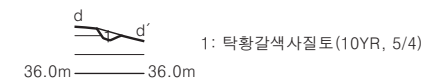
- 1: 황갈색사질토(10YR, 5/8)
- 2: 황갈색사질토(10YR, 5/6)+목탄 소량
- 3: 갈색사질토(10YR, 4/4)
- 4: 암갈색사질점토(10YR, 3/4)-점성 매우 강함
- 5: 갈색사질점토(7.5YR, 4/6)-점성 강함
- 6: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7: 녹갈색사질토(2.5Y, 4/6)
- 8: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 9: 녹갈색사질토(2.5Y, 4/4)
- 10: 갈색사질점토(10YR, 4/6)
- 11: 황갈색사질토(2.5Y,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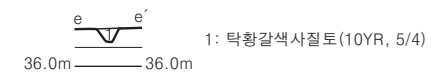
- 1: 황갈색사질토(10YR, 5/6)
- 2: 탁황갈색사질점토(10YR, 5/4)+점토 소량
- 3: 갈색사질토(10YR, 4/6)
- 4: 갈색사질점토(10YR, 4/4)+점토 소량
- 5: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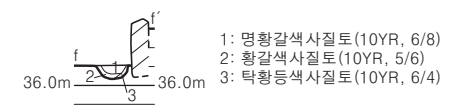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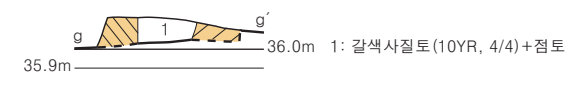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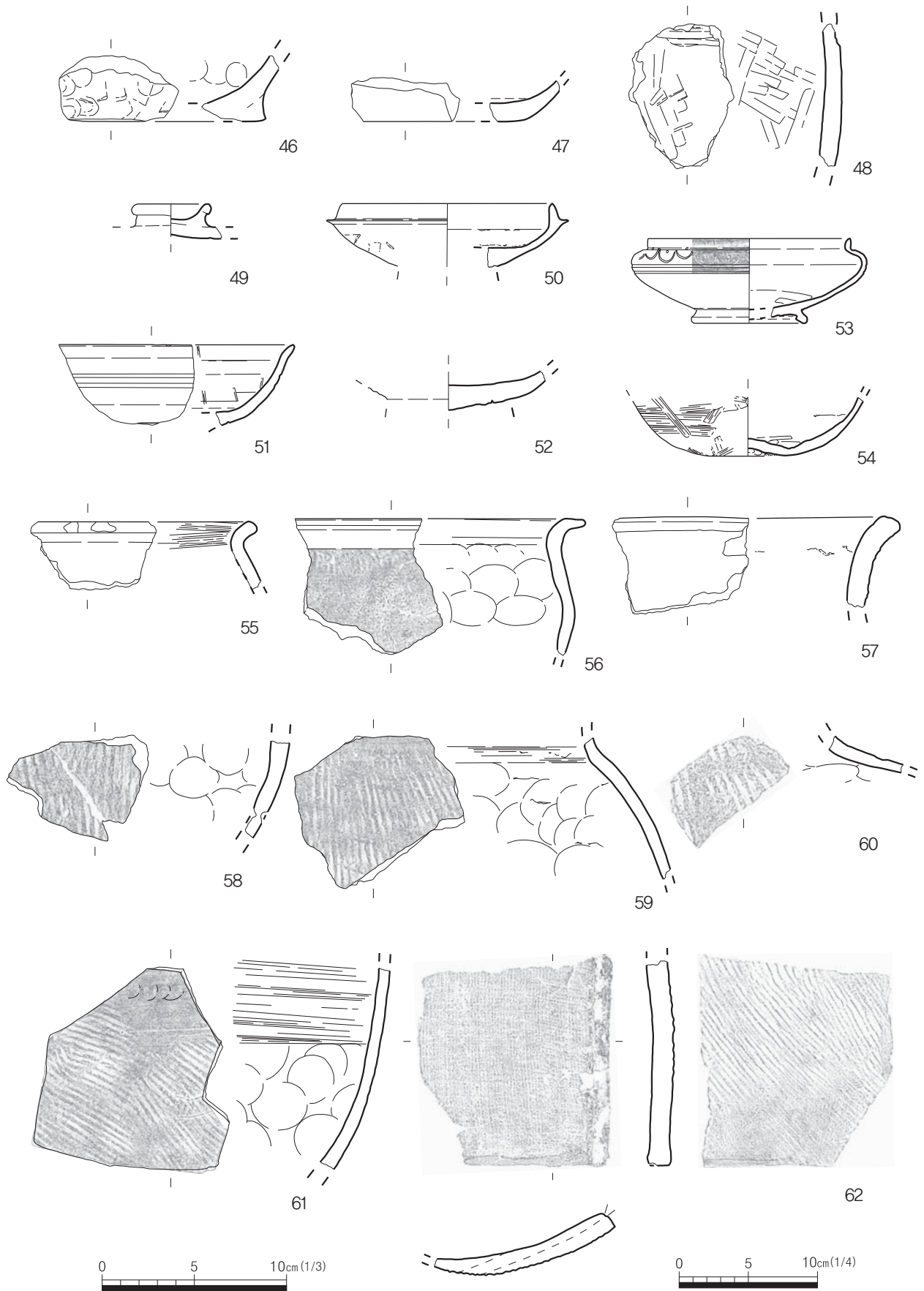


- 1: 명황갈색사질토(10YR, 6/8)
- 2: 황갈색사질토(10YR, 5/6)
- 3: 탁황등색사질토(10YR, 6/4)



- 1: 갈색사질토(10YR, 4/4)+점토

도면 22. 2호 수혈주거지



도면 23. 2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46~62)

이다. 외면에는 동중위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바닥면에는 대각부 접합을 위한 홈이 1조 돌아간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4cm, 두께 0.3~0.7cm

52. 대부완 동체부(도면 23-52, 도판 13-52)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회색 연질의 대부완 동체부편으로 바닥면을 중심으로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동체부 바닥면에는 대각부 접합을 위한 여러 조의 홈이 원형으로 돌아간다. 내면 또한 나선형의 회전성형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1cm, 두께 0.6~1.35cm

53. 직구호(도면 23-53, 도판 13-53)

주거지 중앙부 바닥에서 출토된 흑회색 경질의 직구호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배신부는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동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만하는 형태이다. 동체부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을 띠나 납작한 편이며, 구연부는 짧게 직립한다. 외면에는 동중위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중상위에 반원점문을 횡방향으로 시문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으며, 내면 저부에서 사방향의 도구흔이 일부 관찰된다. 견부를 중심으로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며, 내면에는 재흔이 관찰된다.

높이 4.6cm, 복원구경 11.0cm, 복원저경 6.0cm, 두께 0.25~0.6cm

54. 병 저부(도면 23-54, 도판 13-54)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갈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병 저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저부는 중앙부가 들린 말각평저이고, 곡면을 그리며 동체부로 올라간다. 바닥 중앙부는 지두로 원을 그리듯 누른 뒤 중앙부를 마지막으로 눌러 오목하게 만들었다. 외면은 종·횡방향으로 마연하듯 도구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과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2cm, 저경 4.0cm, 두께 0.25~0.5cm

55. 소호 구연부(도면 23-55, 도판 13-5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소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다량의 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연부는 동체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였으나 기면 박리가 심해 희미하게 남아있다.

잔존높이 3.15cm, 두께 0.65~0.7cm

56. 발형토기 구연부(도면 23-56, 도판 13-56)

주거지 아궁이2 바닥면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동체부는 동상부에서 꺾여 내만하다 구연에 이르러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폭이 좁은 면을 이루며, 구연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타날흔이 일부 관찰되나 물손질 및 기면 마모로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에 의해 기표면이凹凸을 이룬다. 한편,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4cm, 두께 0.45~0.85cm

57. 대호 구연부(도면 23-57, 도판 13-57)

주거지 아궁이2 점토면 바닥면에서 출토된 외면·속심 암회색, 내면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대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입자가 작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기면 박리가 심하여 석립 알갱이가 노출되어 있다. 구연은 길게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룬다. 내면에서 일부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9cm, 두께 1.0~1.2cm

58. 동체부(도면 23-58, 도판 13-5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점토에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평행타날하였고,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3cm, 두께 0.75~1.0cm

59. 호 견부(도면 23-59, 도판 13-59)

주거지 아궁이2 바닥면에서 출토된 외면 회황색, 내면·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호 견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희미해졌으며, 구연부는 정면에 의해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과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에서 피열흔과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7cm, 두께 0.55~0.75cm

60. 호 견부(도면 23-60, 도판 13-60)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호 견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태선문 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2.0cm, 두께 0.45~0.75cm

61. 호 동체부(도면 23-61, 도판 1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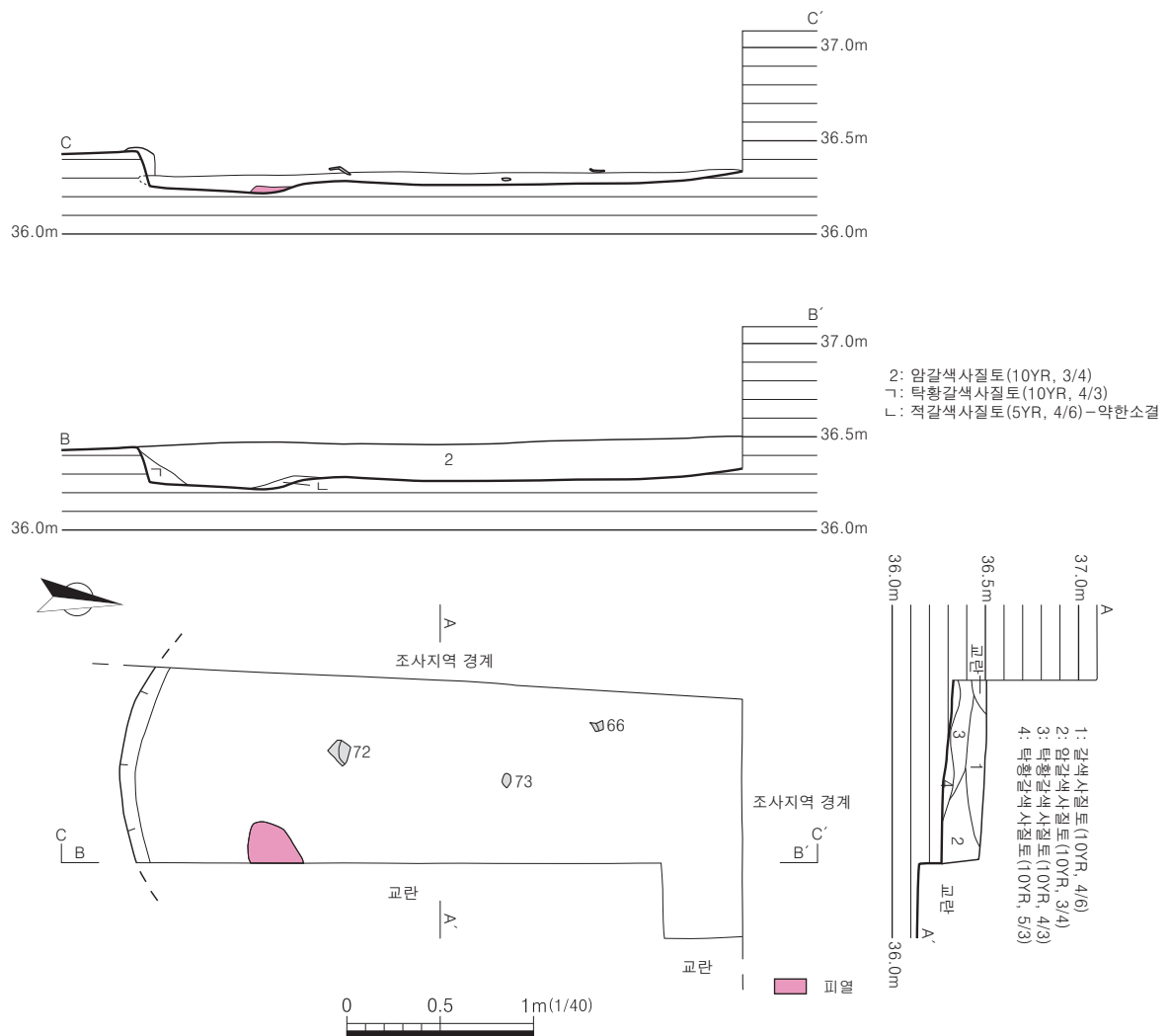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회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흑색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평행타날 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과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95cm, 두께 0.6~0.85cm

62. 암키와(도면 23-62, 도판 13-62)

주거지 아궁이2 동쪽에서 출토된 회황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하단부 및 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비교적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폭 약 4.0cm의 타날구를 사용하여 선문타날 하였으며, 타날 후 하단부는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며, 잔존편의 상부에서 도구정면흔이 일부 관찰된다. 또한 내면 하단부는 횡방향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와도는 내→외측으로 얇게 그어 분할하였고, 파쇄면은 마연하듯 깔끔하게 다듬었다. 이외 점토 합흔이 단면상에서 관찰되며, 중앙부로 갈수록 점토 두께가 얇아지는 특징이 있다.

잔존길이 14.85cm, 잔존너비 13.05cm, 두께 0.6~1.75cm



도면 24. 3호 수혈주거지

(2) 3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24, 도판 14-①~⑦)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에 연접하여 위치(해발 36.4m)한다. 동쪽은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벽체와 바닥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서쪽과 북쪽은 조사지역 경계와 맞닿아 있어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주거지의 하층으로는 원삼국~한성백제시대 1호 수혈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잔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334cm, 너비(동-서) 147cm, 최대깊이 22cm이다.

내부 층위는 탁항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가 퇴적된 양상을 보이나, 조사지역 경계 외곽으로 연결되고 있어 전체적인 퇴적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남동편에 치우쳐 일부 피열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교란으로 인하여 절반 이상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하는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29cm, 잔존너비(동-서) 22cm이며, 피열 두께는 4cm 가량 남아있다. 난방과 관련된 시설의 잔존면으로 추정되나 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시루편, 호 동체부편, 고배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63. 유개고배 배신부(도면 25-63, 도판 14-63)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암회색을 띠는 연질의 유개고배 배신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배신부는 깊이가 깊은 편으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뚜껑받이턱으로 올라간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고, 구연부는 짧게 내경하며 구연단은 뽕족한 면을 이룬다. 외면 바닥에는 대각부 접한흔이 일부 확인되나, 기면 마모가 심하여 관찰이 어렵다.

잔존높이 4.75cm, 복원구경 11.4cm, 두께 0.3~0.8cm

64. 고배 대각부(도면 25-64, 도판 14-64)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고배 대각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며, 대각단은 끝을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외면에는 1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방형 또는 제형의 투공이 1개 확인된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하였다.

잔존높이 2.0cm 두께 0.25~0.7cm

65. 대각부(도면 25-65, 도판 14-6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황갈색, 내면 암회색, 속심 연회색의 연질 대각부편으로 대각 상부를 중심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질의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박락 및 마모가 심하여 정면흔 관찰이 어렵다.

잔존높이 2.15cm, 두께 0.75cm

66. 장경호 경부(도면 25-66, 도판 15-66)

주거지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의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을 띠는 경질의 장경호 견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기형은 둥글게 내만하는 견부에서 구연부로 외반하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경부와 견부의 경계면을 중심으로 1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견부에는 6치구를 이용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내·외면 모두 경부를 중심으로 가마 소성시 내려앉은 재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7cm, 두께 0.35~0.45cm

67. 구연부(도면 25-67, 도판 15-67)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회색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상·하단 삐침의 형태이며, 구연 내측은 약하지만 단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5.9cm, 두께 0.55~0.7cm

68. 구연부(도면 25-68, 도판 15-68)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회색을 띠는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사선으로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꺾이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자연유가 산화되어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구연단 일부에서 사방향의 도구흔이 확인되며, 견부에서 도구압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점토띠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잔존높이 4.95cm, 두께 0.6~0.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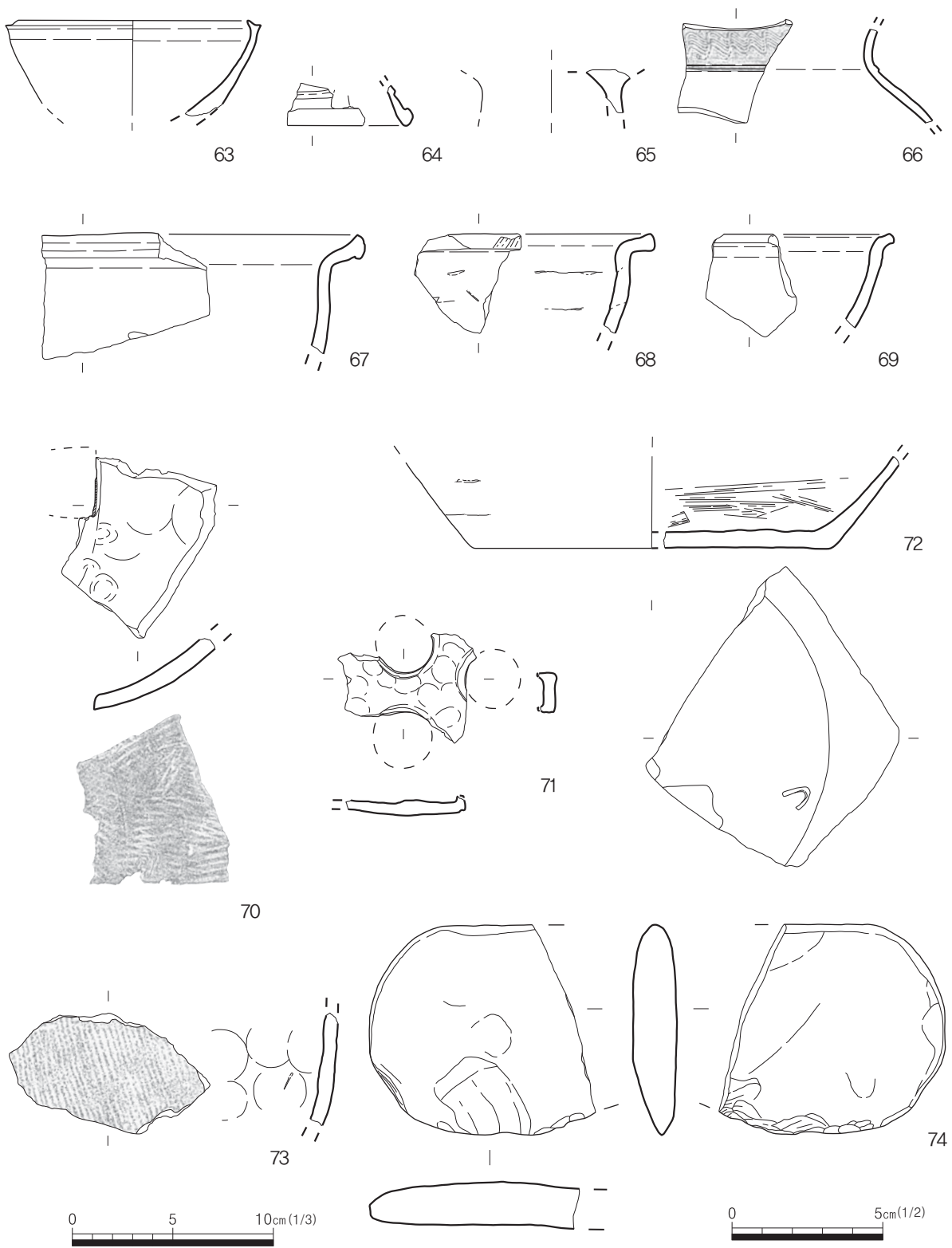
69. 구연부(도면 25-69, 도판 15-69)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연회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기형 상 완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사선을 그리며 올라오던 동체에서 살짝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루며, 구연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은 기면이 마모되어 희미하나 회전성형에 의한凹凸면을 이룬다.

잔존높이 4.65cm, 두께 0.5~0.65cm

70. 시루 저부(도면 25-70, 도판 15-70)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회황색을 띠는 연질의 시루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시루 바닥면은 결실되었고, 증기공 일부가 확인된다. 증기공은 동체-바닥의 경계면을 시작점으로 하여 도려내기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잔존면으로 보아 제형 또는 삼각형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희미하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



도면 25. 3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3~74)

자흔과 지두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3.55cm, 두께 0.65~0.9cm

71. 시루 저부(도면 25-71, 도판 15-71)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속심 황갈색, 내면 암갈색을 띠는 연질의 시루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바닥은 평저로 추정된다. 증기공은 원형의 형태로, 밖에서 안으로 뚫어 제작하였다. 내면 바닥에서 지두압흔이 다수 확인된다. 내·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0.95cm, 두께 0.4~0.75cm

72. 도기 저부(도면 25-72, 도판 15-72)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외면 흑색, 내면 회색, 속심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도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바닥은 평저로, 동체부로 사선으로 올라간다. 외면은 점토띠흔이 관찰되며, 바닥면에서 'v'자형의 기호가 확인된다. 'v'자형의 기호는 끝이 비교적 둥근 시문구를 사용하여 새겼다. 내면 동체부 및 바닥면에서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6cm, 복원저경 17.7cm, 두께 0.45~1.1cm

73. 호 동체부(도면 25-73, 도판 15-73)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외면·속심 암갈색, 내면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과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선문을 사방향으로 타날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다수 관찰되며, 일부 도구압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6cm, 두께 0.65~0.75cm

74. 용도미상 석기(도면 25-74, 도판 15-74)

주거지 남-북 독 제토 중 출토된 흑회색의 마제석기로 일부가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단면은 납작한 타원형으로, 평평한 전면이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전면에 걸쳐 마연흔이 관찰되며, 모서리 부분에 석재를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쪼임흔이 관찰된다.

길이 7.0cm, 너비 7.5cm, 두께 1.4cm

(3) 4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26, 도판 16-①~18-⑨)

조사지역의 동쪽 중앙에 위치(해발 36.35m)한다. 동쪽은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벽체와 내부 구들시설 일부가 훼손되었다. 주거지의 남동쪽은 후축된 6호 수혈유구로 인하여 벽체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9°-W)방향이다. 주거지

의 전체 규모는 길이(남-북) 452cm, 너비(동-서) 400cm, 최대깊이 32cm이다.

내부 층위는 녹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가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녹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점토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T'자형 구들시설 1기와 주혈 4기가 조사되었다. 구들시설은 주거지의 동벽에 시설하였으며, 동벽 중앙부의 아궁이부와 고래열 일부가 관찰되나 고래열은 교란 및 내부 삭평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배연부 또한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아궁이 시설은 완만하게 바닥면을 굴착한 후 황갈색의 점토를 이용하여 입구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아궁이 입구의 너비는 65cm이다. 아궁이 입구 안쪽으로는 목탄 및 소토가 내부에 충전되어 관찰된다. 고래열은 아궁이 입구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양상이 확인되나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었다. 잔존하는 고래열은 동벽에 연접하여 20~30cm 가량의 할석재를 세워 고래독을 마련하였으며, 점토를 이용하여 석재를 고정하였다. 내측으로는 별다른 시설이 관찰되지 않으나 일부 황갈색점토를 이용한 고래독이 잔존하고 있어 'T'자형의 구들시설임을 알 수 있다. 아궁이 입구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래열의 상부로는 약 60cm 가량의 판석재 1매가 함몰된 상태로 관찰되는데 구들장으로 사용된 석재로 판단되며, 나머지 석재들은 모두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은 주거지의 서벽에 치우쳐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m 가량의 등간격을 이루며 4기가 확인된다. 지름은 10~20cm 이내이며, 깊이는 5~10cm 이내로 깊지 않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에서 시루 저부편, 호 구연부 및 경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75. 시루 저부(도면 27-75, 도판 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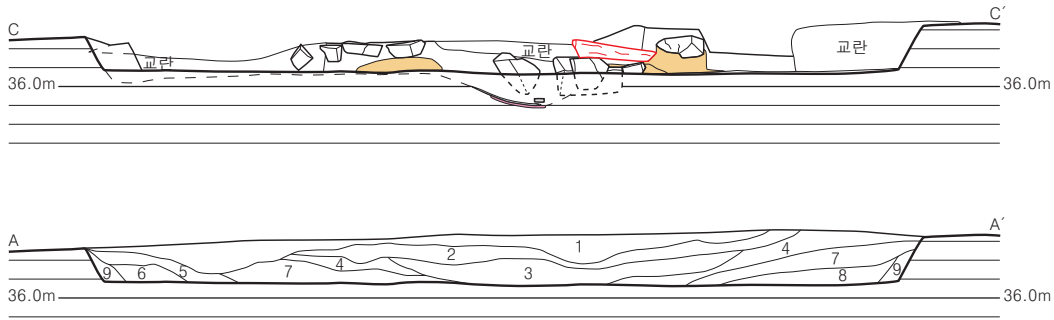
주거지 아궁이 입구부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시루 저부편으로 증기공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저부는 동체부로 둥글게 올라가며, 증기공은 도려내기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원형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평행타날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6.6cm, 두께 0.65~0.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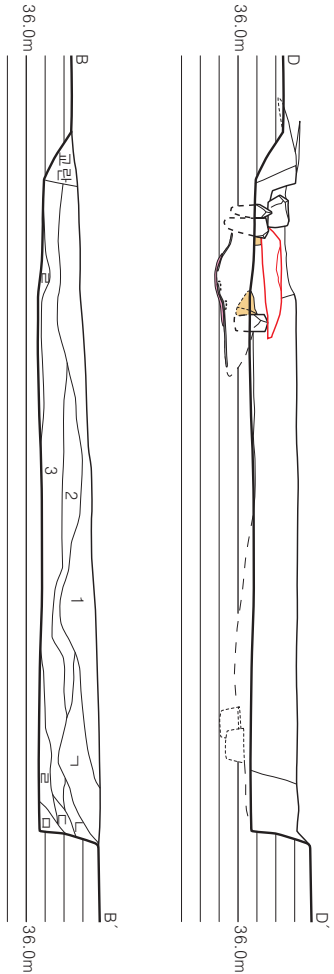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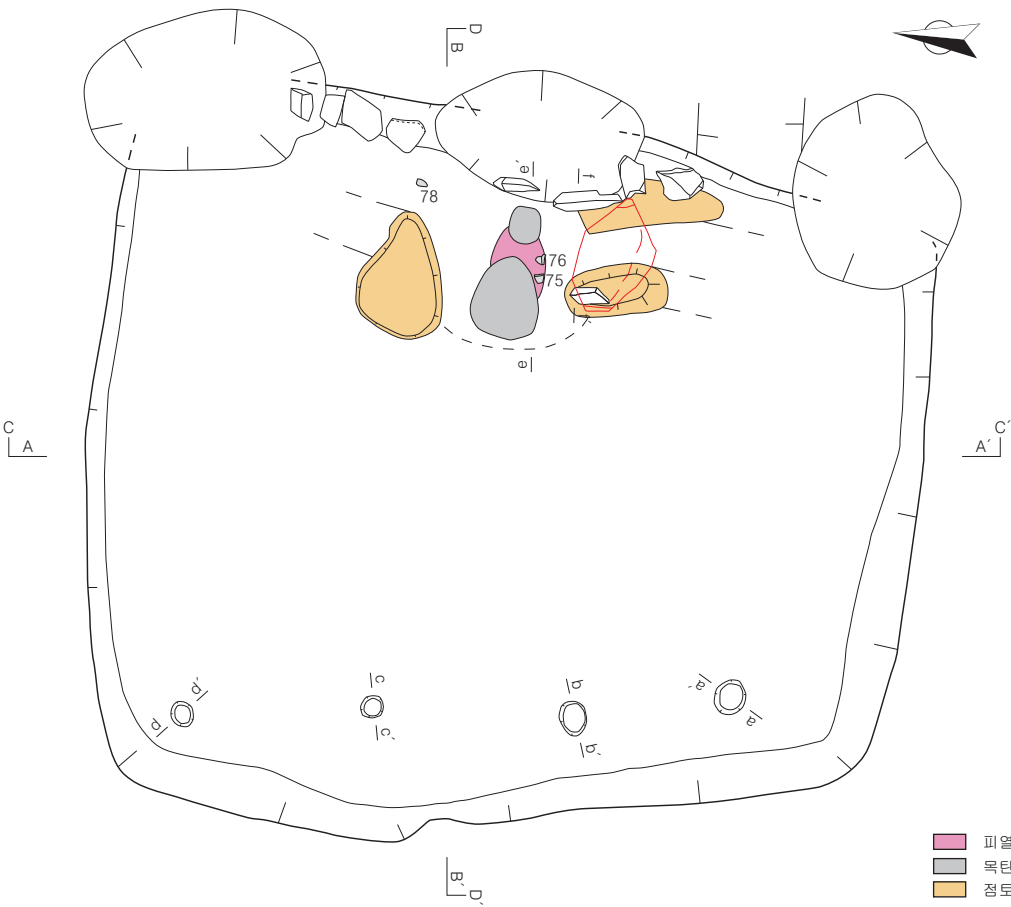
76. 호 구연부(도면 27-76, 도판 18-76)

주거지 아궁이 입구부에서 출토된 갈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내만하던 동체부에서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얇은 띠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단이 저있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희미하다. 내면은 물손질하였고, 점토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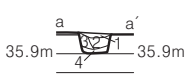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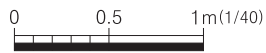
잔존높이 5.15cm, 두께 0.6~0.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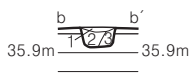
- 1: 황갈색사질토(10YR, 5/6)
+ 암갈색사질토(10YR, 3/4)
- 2: 갈색사질토(10YR, 4/6)
- 3: 녹갈색사질토(2.5Y, 4/6)
- 4: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5: 갈색사질토(10YR, 4/4) + 복탄 소량
- 6: 녹갈색사질토(2.5Y, 4/4)
- 7: 갈색사질토(10YR, 4/6)
- 8: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9: 녹갈색사질토(2.5Y, 4/3)



- 점토
- 복탄
- 점
-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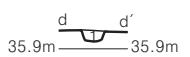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녹갈색사질토(2.5Y, 4/3)
- 3: 암회황색사질토(2.5Y, 4/2)
- 4: 갈색사질토(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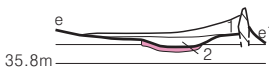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녹갈색사질토(2.5Y, 4/6)
- 3: 황갈색사질토(2.5Y,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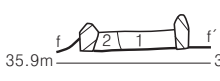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암갈색사질토(10YR, 3/3) + 점토 소량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황갈색사질토(10YR, 5/6)

- 1: 황갈색사질토(10YR, 5/6)
+ 암갈색사질토(10YR, 3/4)
- 2: 갈색사질토(10YR, 4/6)
- 3: 녹갈색사질토(2.5Y, 4/6)
- 4: 갈색사질토(10YR, 4/4)
- 5: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6: 녹갈색사질토(2.5Y, 4/6)
- 7: 황갈색사질토(2.5Y, 5/3)

도면 26. 4호 수혈주거지

77. 호 경부(도면 27-77, 도판 18-77)

주거지 아궁이 바닥면에서 출토된 외면 회색, 내면·속심 연황색을 띠는 연질의 호 경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기형은 내만하게 올라오던 동체부에서 경부로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경부는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으며, 동체부는 등간격으로 물손질되어 타날흔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과 도구정면흔, 점토피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6.15cm, 두께 0.6~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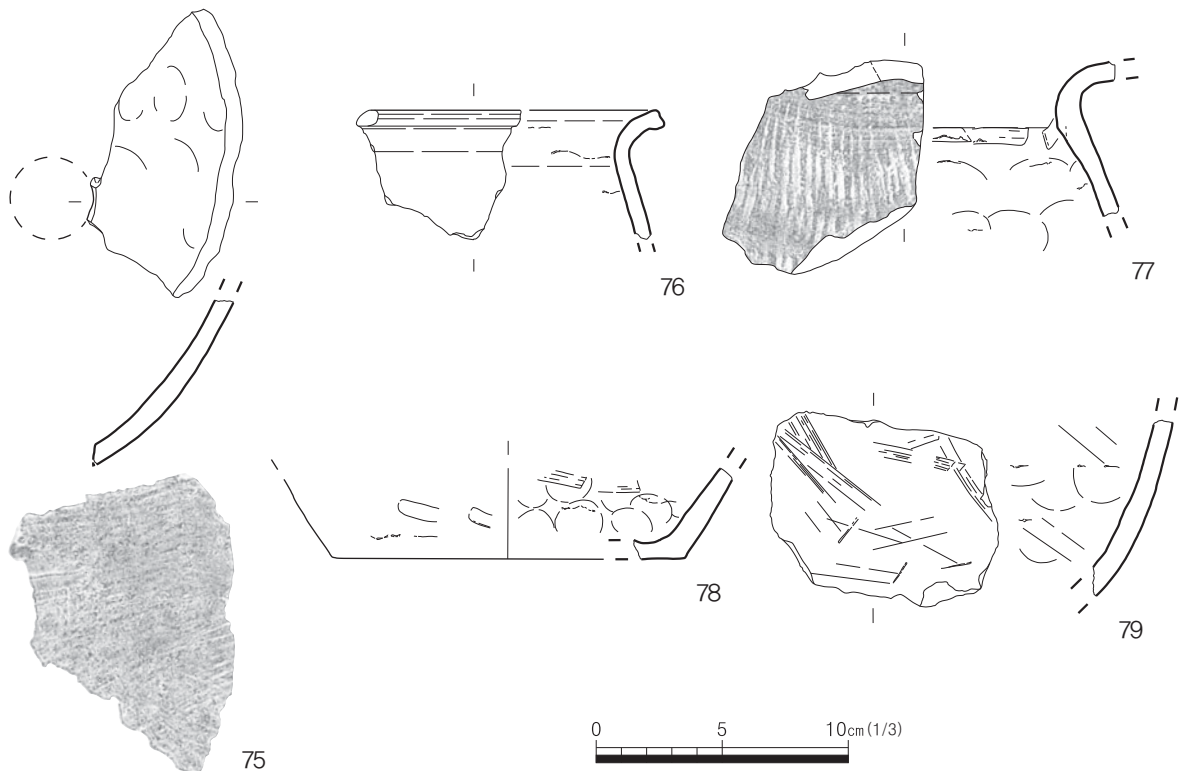
78. 도기 저부(도면 27-78, 도판 18-78)

주거지 아궁이 북편 고래열에서 출토된 외면 흑갈색, 내면·속심 황갈색의 도기 저부편으로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과 흑색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로 사선으로 올라간다. 외면은 물손질에 의해 희미하나 도구정면흔과 점토피흔이 일부 남아있다. 내면은 지두흔의 의해凹凸이 심하며, 점토피흔과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6cm, 복원저경 14.0cm, 두께 0.65~0.95cm

79. 동체부(도면 27-79, 도판 18-79)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내·외면 흑갈색, 속심 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사방향으로 마연하듯 도구정면하였다. 내면



도면 27. 4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75~79)

은 무문의 내박자흔, 도구정면흔, 점토피흔이 관찰되며, 기표면의 뾰족이 심한 편이다. 외면을 중심으로 그을음이 일부 확인된다.

잔존높이 7.0cm, 두께 0.7~0.9cm

(4) 5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28, 도판 19-①~20-④)

조사지역의 동쪽 중앙에 인접하여 위치(해발 36.2m)한다. 동쪽은 최근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하여 유실되었고, 주거지의 남쪽과 서쪽 일부만이 잔존한다. 주거지의 남서쪽으로 선축된 원삼국~한성백제시대 2호 수혈유구의 남서벽 모서리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316cm, 잔존너비(동-서) 214cm, 최대깊이 24cm이다.

내부 층위는 탁황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회황갈색사질토 등이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벽체 함몰토로 판단되는 황갈색점토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유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벽체는 일부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시설은 아궁이 시설이 주거지의 잔존하는 북서벽에 치우쳐 확인된다. 아궁이 시설은 전체적인 삭평으로 인하여 바닥 소결면만 일부 확인되며, 붓돌로 사용된 40cm 가량의 할석재 2매가 원위치를 이탈한 상태로 관찰된다. 이외에 벽체 함몰토로 판단되는 황갈색점토가 서벽에 치우쳐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고배 대각편, 호 동체부편, 우각형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80. 고배 대각부(도면 29-80, 도판 20-80)

주거지 북벽 중앙부 인근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의 고배 대각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비스듬한 면을 이룬다. 대각단 상부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돌대 위로 방형의 투창이 뚫려 있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1cm, 복원저경 1.0cm, 두께 0.45~0.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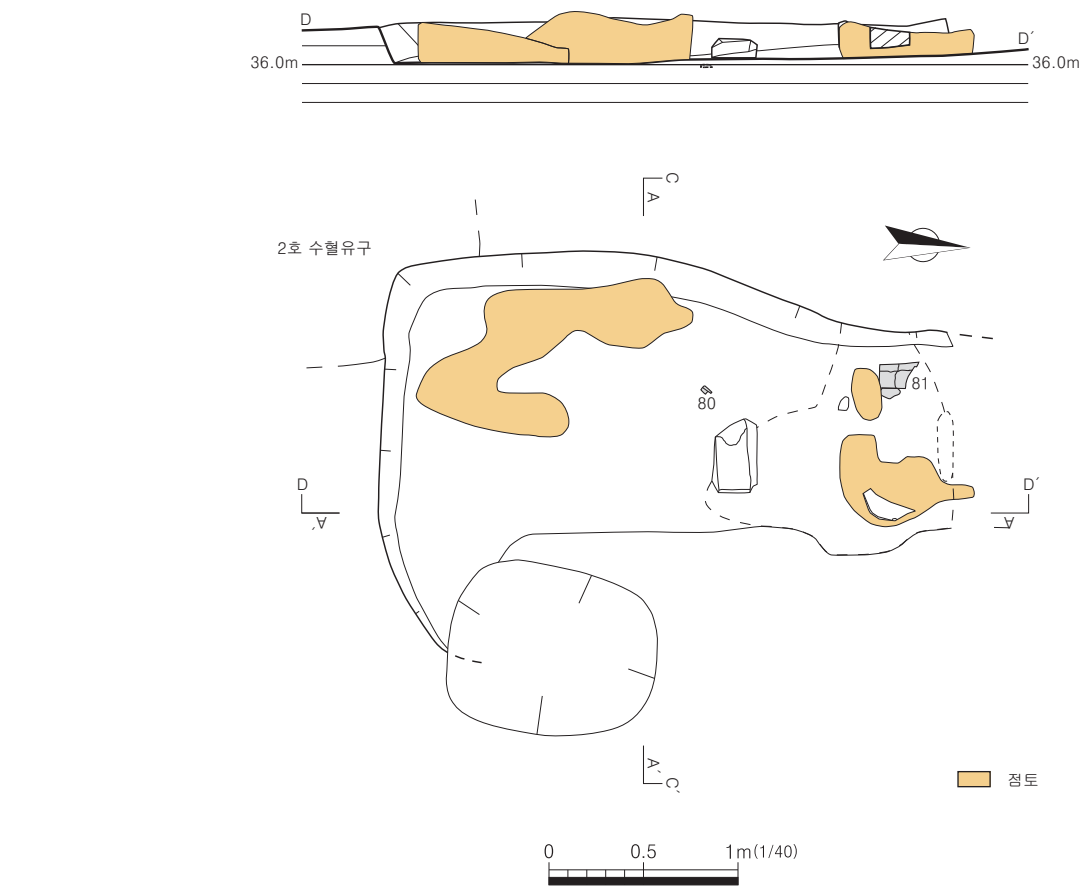
81. 동체부(도면 29-81, 도판 20-81)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사방향의 평행타날 후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타날이 일부 지워졌다.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 점토피흔과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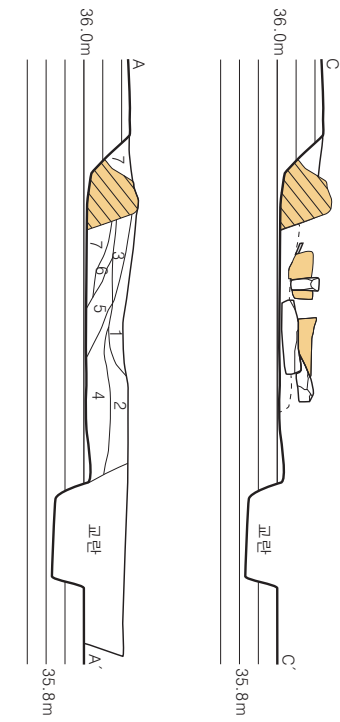
잔존높이 14.75cm, 두께 0.45~0.65cm

82. 우각형파수(도면 29-82, 도판 20-82)

주거지 북서벽 퇴적층 내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우각형파수로 단면형태는 원형이다. 태토는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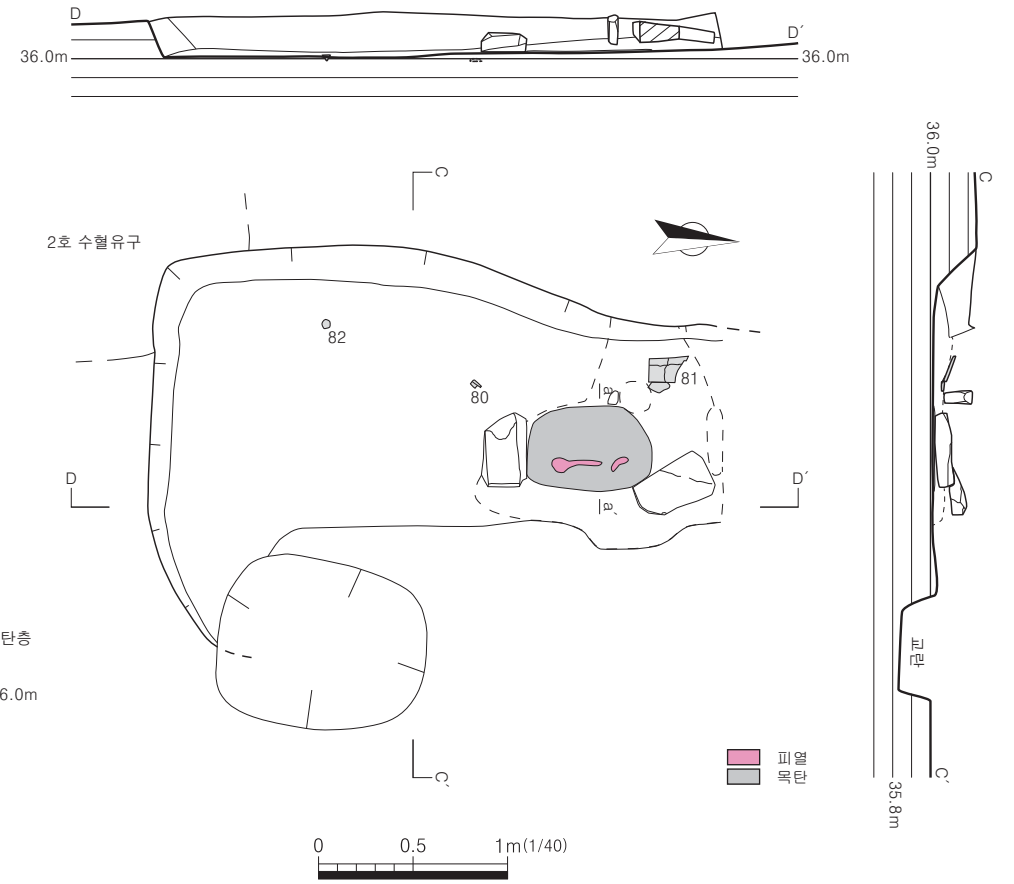


- 2: 탁월색사질토(10YR, 4/3)
- 4: 녹색사질토(2.5Y, 4/6)
- 7: 탁월색사질토(10YR, 4/4)
- 7: 탁월색사질토(10YR, 4/4)
- 7: 탁월색사질토(2.5Y, 4/4)
- 7: 탁월색사질토(2.5Y, 4/4)
- 7: 탁월색사질토(10YR, 5/4)
- 7: 탁월색사질토(2.5Y, 4/2)
- 7: 탁월색사질토(2.5Y, 4/6)
- 7: 탁월색사질토(10YR, 3/4)
- 7: 탁월색사질토(10YR,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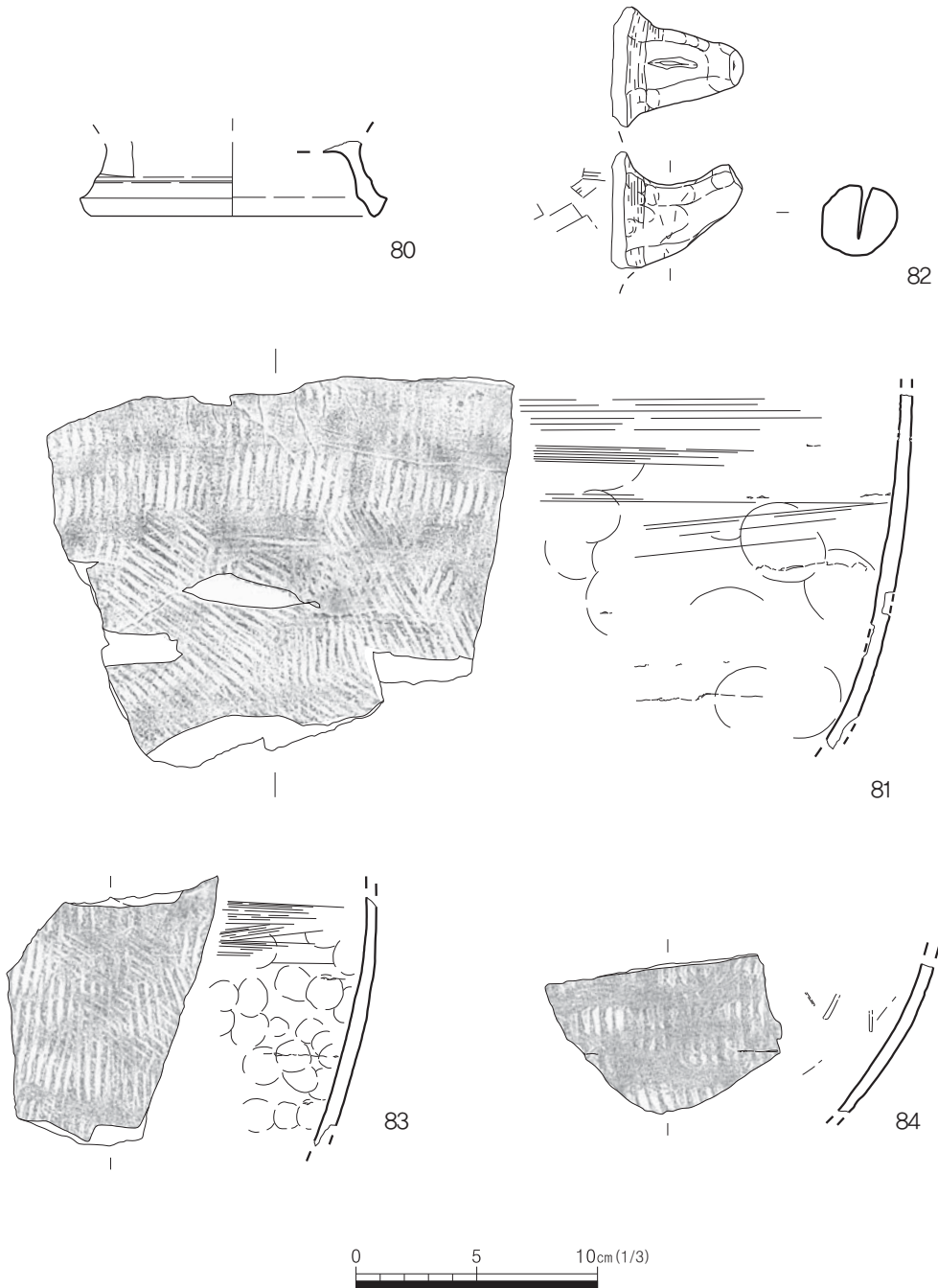


- 1: 회황갈색사질토(10YR, 5/2)
- 2: 탁월색사질토(10YR, 4/3)
- 3: 갈색사질토(10YR, 4/4)
- 4: 녹갈색사질토(2.5Y, 4/6)
- 5: 녹색사질토(2.5Y, 4/4) + 황갈색점토 소량
- 6: 갈색사질토(10YR, 4/4) + 녹탄 소량
- 7: 탁월색사질토(10YR, 4/3)

1: 흑갈색(2.5Y, 3/1)-목탄층
 a a' 36.0m 36.0m



도면 28. 5호 수혈주거지



도면 29. 5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0~84)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지두흔과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동체-파수 접합면에서 뚜렷하게 남아있다. 상면에는 깊이 2.1~2.2cm의 쨌흔이, 하부에는 깊이 0.35cm의 지지대흔이 확인되며, 파수의 끝부분에는 깊이가 얇은 지지대흔이 확인된다. 내면은 도구 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4.85cm, 두께 2.85~3.05cm

83. 호 동체부(도면 29-83, 도판 20-83)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평행타날하였고, 내면은 다수의 지두흔과 횡방향의 도구정면흔,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에서 피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3cm, 두께 0.4~0.6cm

84. 호 동체부(도면 29-84, 도판 20-84)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암회색을 띠는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평행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고,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도구압흔이 일부 확인된다.

잔존높이 6.15cm, 두께 0.35~0.55cm

(5) 6호 수혈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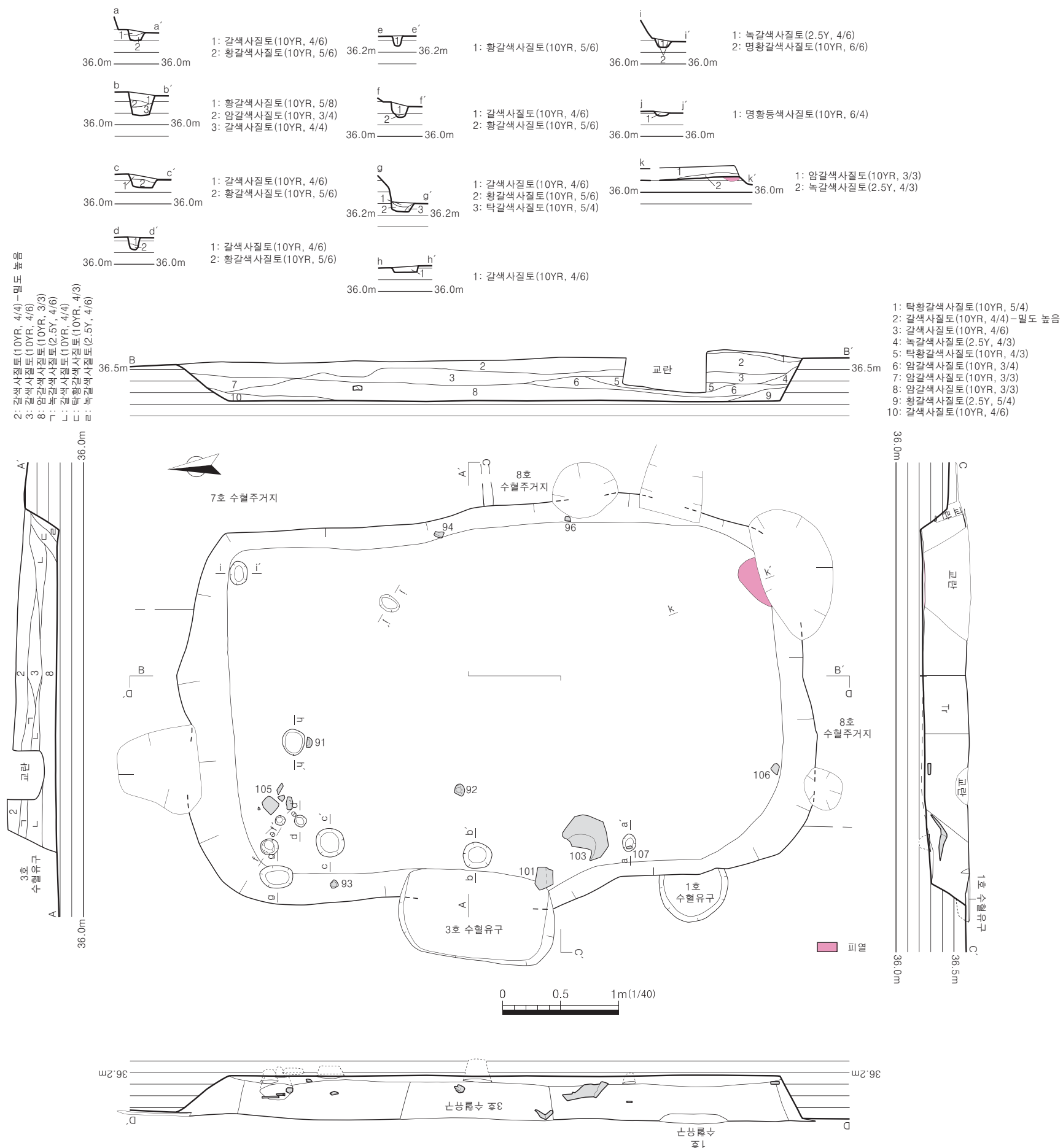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30, 도판 21~22)

조사지역의 서쪽 중앙에 위치(해발 36.6m)한다. 북동쪽과 남동쪽은 각각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7·8호 수혈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남서쪽은 선축된 원삼국~한성백제시대 1호 수혈유구를 절반 가량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서벽 중앙은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3호 수혈유구로 인해 벽체 일부가 파괴되었다. 이 외에 북벽, 동벽, 남동벽 일부가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3°-E)방향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남-북) 555cm, 너비(동-서) 358cm, 최대깊이 44cm이다.

내부 층위는 암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등이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황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에 일부 점토를 이용하여 다짐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는 대부분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나, 북벽의 경우 다른 벽체와 달리 완만하게 굴착하여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주혈과 일부 피열흔이 관찰된다. 주혈은 주거지의 북서벽에서 6기가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북동벽 모서리에 1기, 북동쪽에 1기, 서벽 중앙부와 남쪽에 치우쳐 각각 1기 등 총 10기가 조사되었다. 주혈은 북서벽에 치우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양상 외에는 일정한 정형성은 보이지 않으며, 규모는 지름 10~24cm, 깊이 3~20cm로 다양하게 관찰된다. 피열흔은 주거지의 남동벽 모서리에서 확인되는데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바닥 절반 이상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길이(남-북)는 15cm이며, 너비는 40cm 가량 남아있으며, 주거지의 모서리에 시설된 점으로 보아 취사와 관련된 아궁이 시설의 잔존면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중도식무문토기편, 인화문토기편, 고배, 대부완, 소호, 기와편,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30. 6호 수혈주거지

나. 유물

85.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도면 31-85, 도판 23-8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연부는 길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룬다. 내면에서 지두흔이 관찰되나 기면 마모 및 박락이 심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7.75cm, 두께 0.35~0.5cm

86. 뚜껑 신부(도면 31-86, 도판 23-86)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뚜껑 신부로 극히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에는 반원문 주위로 점열문이 돌아가는 원문류를 횡방향으로 연속시문하였다.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2.35cm, 두께 0.4~0.65cm

87. 뚜껑(도면 31-87, 도판 23-87)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을 띠는 경질의 뚜껑편으로 신부와 드림부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드림부는 안턱이 퇴화된 ‘ㄱ’자형의 형태이며, 신부로 사선으로 올라간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기면을 고르게 정면하였다.

잔존높이 2.15cm, 두께 0.25~0.55cm

88. 고배 대각부(도면 31-88, 도판 23-8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황갈색, 속심 암회색 연질의 고배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배신부는 둥근 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였고, 기면을 단이 지듯 정면하였다. 내면은 회전 성형 및 정면에 의해凹凸을 이룬다.

잔존높이 3.9cm, 두께 0.4~0.75cm

89. 고배 대각부(도면 31-89, 도판 23-8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단각고배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 접어 성형하였다. 잔존 편외 상면에는 3조의 홈을 돌려 배신과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 물손질하였으며, 내면 바닥에는 점토를 얇게 덧바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65cm, 복원저경 7.5cm, 두께 0.4~0.6cm

90. 대각부(도면 31-90, 도판 23-90)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대각부편으로 대각부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며, 1/4 가량

남아 도면복원 하였다. 잔존상태로 미루어 편구형 병의 대각부일 가능성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각진 면을 이룬다. 저부는 바닥까지 닿아있고, 동체부로 둥근 면을 이루며 올라간다. 외면은 바닥면까지 선문타날 하였고, 대각접합부가 가까이로 1줄의 돌대를 돌렸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가 관찰되나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3.0cm, 복원저경 14.4cm, 두께 0.65~0.75cm

91. 대부완(도면 31-91, 도판 23-91)

주거지 북편 중앙부근 주혈 인근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의 대부완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 접어 성형하였다. 동체부는 말각방형의 형태이며, 구연부로 거의 직립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며, 구연 외측에는 1조의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였고, 외면은 면을 이루듯 정면하였다. 이외 외면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65cm, 복원구경 12.1cm, 복원저경 5.6cm, 두께 0.4~0.8cm

92. 대부완(도면 31-92, 도판 23-92)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대부완이다. 동체부가 1/3 가량이 결실되었으며, 소성 불량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동체부는 말각방형으로 구연부까지 직립에 가깝게 올라간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며, 구연 외측에 1조의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 물손질하였고,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7cm, 복원저경 6.0~6.5cm, 두께 0.25~0.8cm

93. 대부완 대각부(도면 31-93, 도판 2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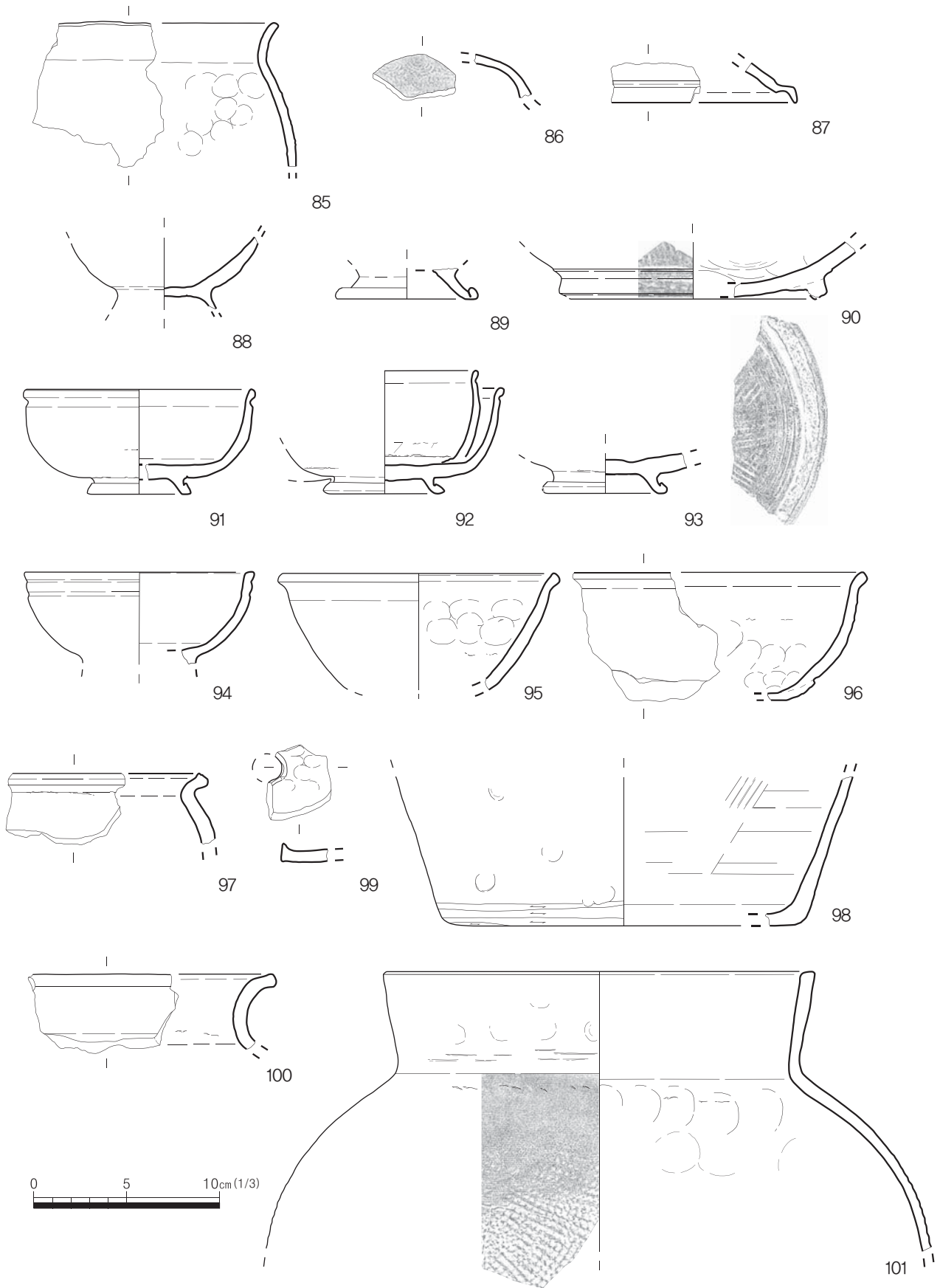
주거지 북서벽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암갈색의 경질 대부완 대각부로, 구연부 및 배신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과 소량의 흑색 석립이 혼입되었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외면에는 점토띠흔이, 내면에는 회전성형에 의한凹凸면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2.15cm, 저경 6.6cm, 두께 0.45~0.9cm

94. 고배 배신부(도면 31-94, 도판 24-94)

주거지 동벽에서 출토된 암회색 연질의 고배 배신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배신부는 둥근 곡면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직립한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고, 구연 외측에 2조의 홈이 돌아간다. 동체 하부에는 대각부 접합을 위한 홈이 1조 돌아간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5.0cm, 복원구경 12.3cm, 두께 0.5~0.6cm



도면 31.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5~101)

95. 완 구연부(도면 31-95, 도판 24-9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완 구연부편으로, 1/3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지두흔과 점토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6.25cm, 복원구경 14.5cm, 두께 0.4~0.65cm

96. 완 구연부(도면 31-96, 도판 24-96)

주거지 동벽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연회색을 띠는 연질의 완 구연부편으로, 바닥이 일부 잔존하나 대부분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저부는 말각으로 동체부로 올라간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룬다. 내·외면 횡방향 물손질하였으나, 정면이 고르지 못해凹凸면을 이룬다. 이외 점토띠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점토접합 시 생긴 지두압흔이 다수 관찰된다.

잔존높이 6.8cm, 두께 0.35~0.65cm

97. 소호 구연부(도면 31-97, 도판 24-97)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소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연부는 내만하는 견부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각진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외면 견부에는 성형시 생긴 조임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8cm, 두께 0.55~0.75cm

98. 저부(도면 31-98, 도판 24-9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저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니질에 가까운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에서 사선으로 동체부로 올라간다. 지두흔이 일부 확인되며, 내면 일부에는 사방향의 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8.05cm, 복원저경 18.4cm, 두께 0.45~1.1cm

99. 시루 저부(도면 31-99, 도판 24-9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시루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투공은 원형의 형태로 밖에서 안으로 뚫어 제작하였다. 내·외면 모두 도구정면하였고, 내면에서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cm, 두께 0.55~0.95cm

100. 호 구연부(도면 31-100, 도판 24-100)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둥글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횡방향으로 거칠게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05cm, 두께 0.65~0.7cm

101. 호 구연부(도면 31-101, 도판 24-101)

주거지 서벽 3호 수혈유구와 인접해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명회색을 띠는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니질에 가까운 점토이다. 구연부는 둥근 견부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고,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견부와 구연부를 중심으로 물손질하였다. 이외 구연부에서 지두흔과 횡방향의 도구흔이, 견부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견부를 중심으로 무문의 내박자흔과 점토띠흔이 관찰되나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15.1cm, 복원구경 23.2cm, 두께 0.45~0.75cm

102. 호 저부(도면 32-102, 도판 24-102)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적갈색, 속심 갈색을 띠는 연질의 호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바닥은 약간 들린 평저로 동체부로 둥근 면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격자타날하였고, 내면에는 다수의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3.2cm, 두께 0.5~0.7cm

103. 대호 저부(도면 32-103, 도판 25-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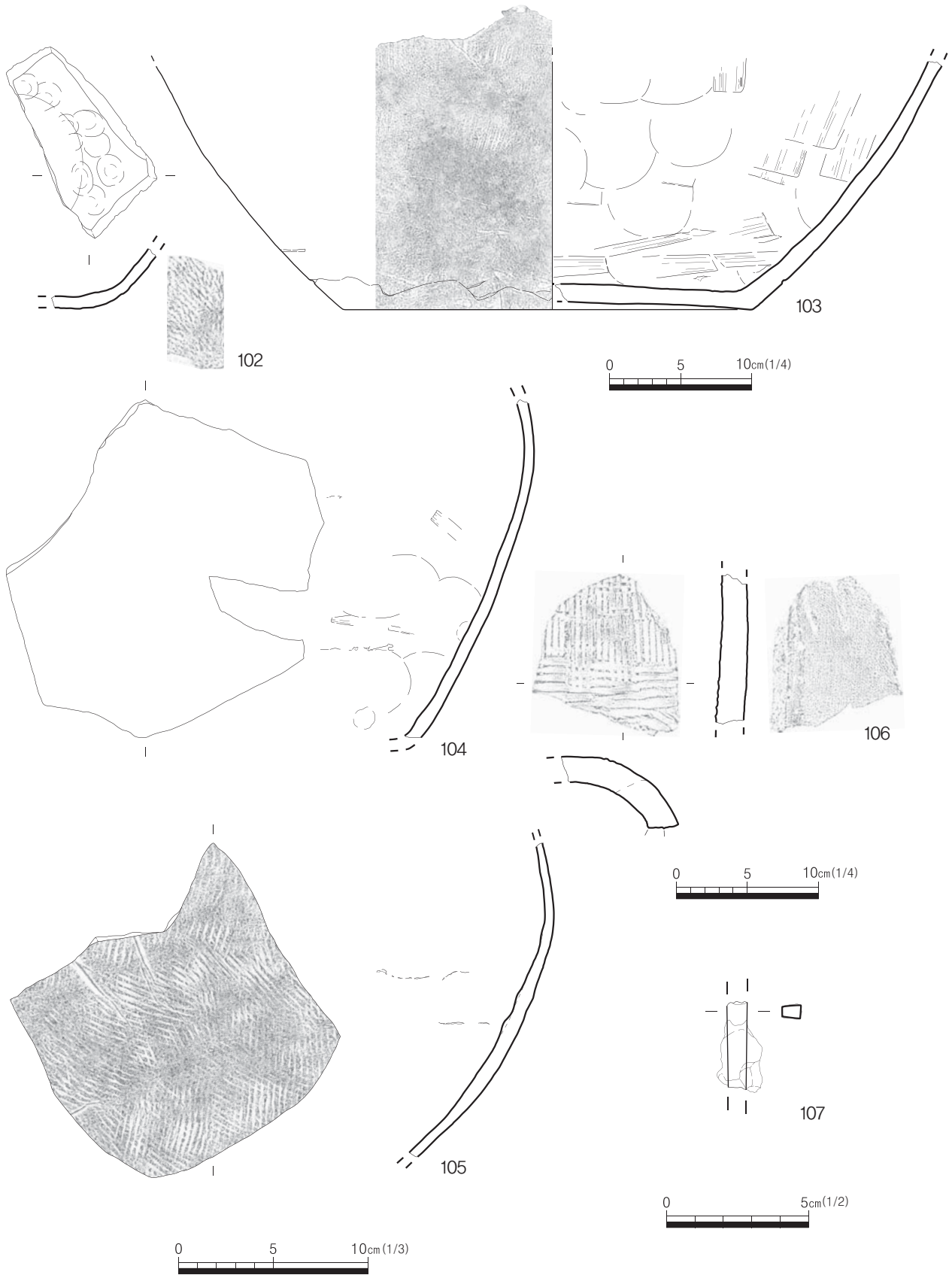
주거지 서벽 부근에서 출토된 외면 암회색, 내면·속심 회갈색을 띠는 경질의 대호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바닥은 약간 들린 평저이며, 동체부로 사선으로 올라간다. 외면은 평행선문 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대부분 지워졌으며, 저부 외측으로 점토띠흔이 두껍게 확인된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남아있으며, 그 위로 종·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외면 동하부와 바닥면을 중심으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7.45cm, 복원저경 29.4cm, 두께 0.9~1.55cm

104. 동이 동체부(도면 32-104, 도판 25-104)

주거지 주혈에서 출토된 외면 회갈색, 내면·속심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이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니질의 점토이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견부에서 둥글게 내만한다. 내·외면 모두 횡사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내박자흔과 도구정면흔,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 일부에서 원형 형태의 그을음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7.9cm, 두께 0.5~0.75cm



도면 32.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2~107)

105. 호 동체부(도면 32-105, 도판 25-105)

주거지 북서벽 부근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을 띠는 경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소성 상태가 불량하여 내면에 다수의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일부 지워졌다. 내면은 선문이 새겨진 무문의 내박자흔이 남아 있으나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이외 점토피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4.65cm, 두께 0.35~0.8cm

106. 수키와(도면 32-106, 도판 25-106)

주거지 남벽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한쪽 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은 복합선문을 타날하였고, 타날단위는 약 3.5cm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사방향으로 점토편흔이 관찰된다. 와도는 내→외측으로 1/2 가량 그어 분할하였으며, 파쇄면은 깔끔하게 다듬어 마감하다.

잔존길이 11.9cm, 잔존너비 8.3cm, 두께 1.8~2.05cm

107. 철정(도면 32-107, 도판 25-107)

주거지 서벽 주혈 상부에서 출토된 철정편으로 신부 일부가 잔존한다. 단면 장방형이며, 전체적으로 녹혹이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3.2cm, 두께 0.4~0.7cm

(6) 7호 수혈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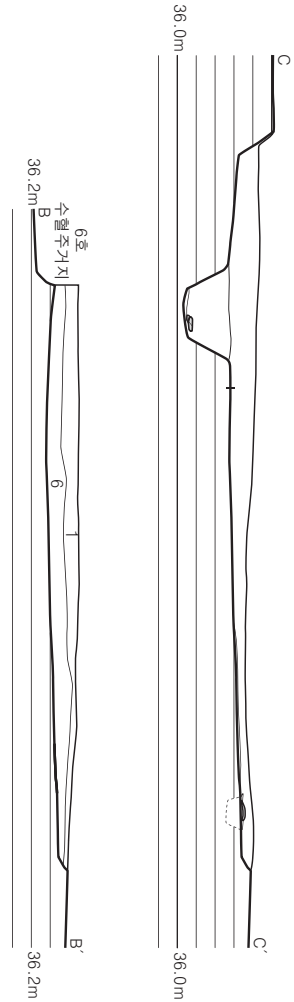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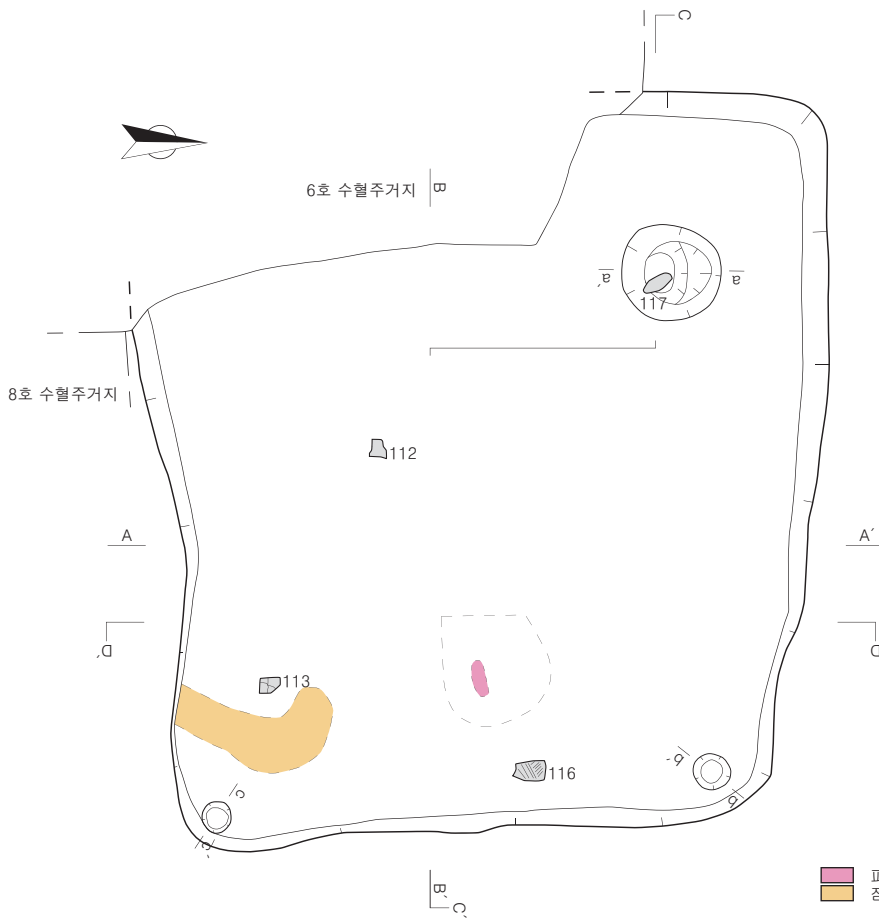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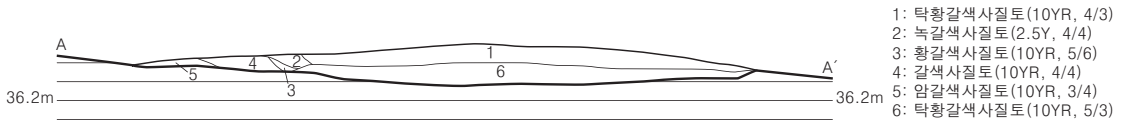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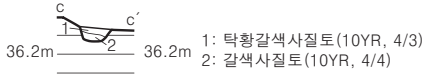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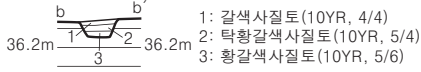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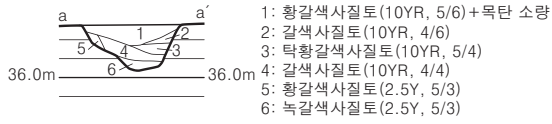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33, 도판 25-①~26-⑦)

조사지역의 서쪽 중앙에 위치(해발 36.5m)한다.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주거지로 인하여 남서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삭평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벽체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평면형태는 삭평으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벽체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방형으로 추정되며, 주거지의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370cm, 잔존너비(동-서) 402cm, 최대깊이 14cm이다.

내부 층위는 탁황갈색사질토가 일부 점성을 달리하며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암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에 일부 점토를 이용하여 다짐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는 삭평으로 인하여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수혈 1기, 주혈 2기가 조사되었으며, 동벽 중앙에 일부 피열흔이 관찰된다. 수혈은 북서벽에 치우쳐 1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으로 지름 53cm, 깊이 24cm로, 벽체에서 바닥면까지 완만하게 연결된다. 내부에서 석부 1점이 출토되었다. 주혈은 북동벽 모서리와 남동벽 모서리에서 각각 1기씩 조사되었다. 지름 16~20cm, 깊이 7~9cm로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 피열흔은 주거지의 동벽 중앙부에서 길이 20cm, 너비 10cm 범위로 비교적 약하게 관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6: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도면 33. 7호 수혈주거지

찰된다. 주변으로 일부 목탄흔이 관찰되고 있어 난방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나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유물은 인화문토기편, 동이 구연부편, 완, 기와편,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08. 대각부(도면 34-108, 도판 26-10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단각으로 대각단은 밖에서 안으로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고, 마모가 심하여 정면흔 관찰이 어렵다.

잔존높이 14.0cm, 저경 7.1cm, 두께 0.45cm

109. 완 구연부(도면 34-109, 도판 26-10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회청색, 내면·속심 회색을 띠는 경질의 완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검은 석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둥근 동체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외경한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며, 구연 외측에는 2조의 홈이 돌아간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일부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85cm, 두께 0.4~0.6cm

110. 인화문토기 동체부(도면 34-110, 도판 26-110)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인화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외면에는 종장점열문을 V자형으로 연속압인하였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0cm, 두께 0.35~0.6cm

111. 완 구연부(도면 34-111, 도판 27-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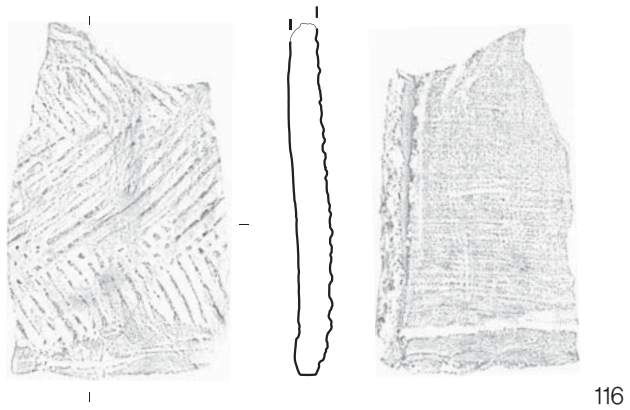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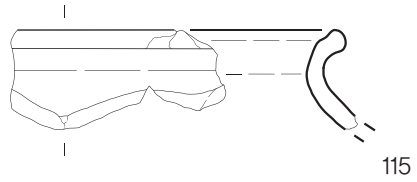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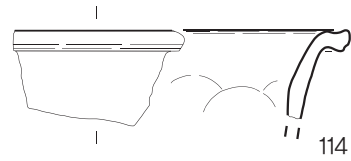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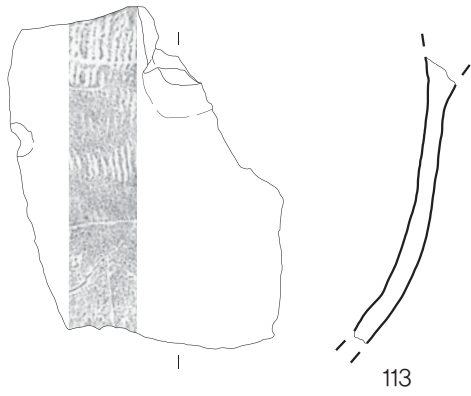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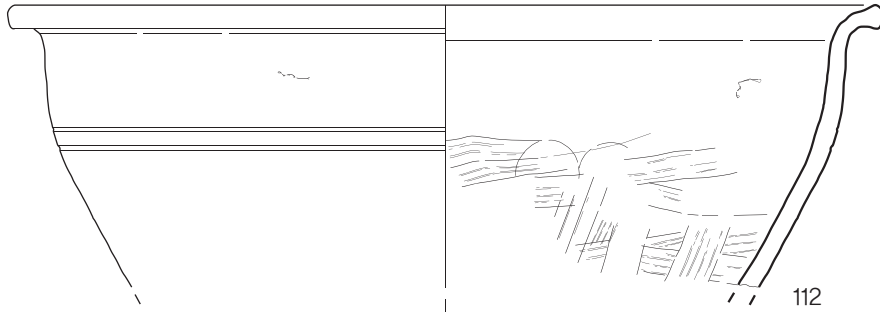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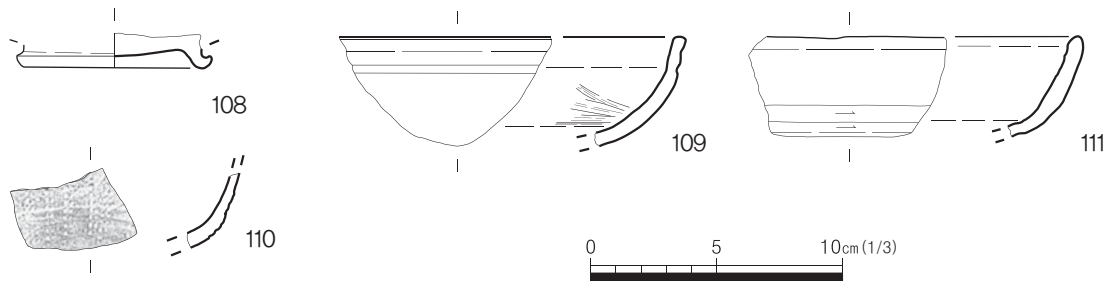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갈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완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룬다. 외면은 마연하듯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기면에凹凸이 형성되어 고르지 않다.

잔존높이 4.0cm, 두께 0.4~0.75cm

112. 동이 구연부(도면 34-112, 도판 27-112)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동이 구연부편으로, 1/3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전체적으로 기면 박리가 심하여 속심이 드러나 있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견부에 이르러 직립하고 구연부에서 다시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과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35cm, 두께 0.6~0.7cm



도면 34.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8~116)

113. 시루 동체부(도면 34-113, 도판 27-113)

주거지 남동벽 부근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시루 동체부편으로, 우각형파수 하단면이 일부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외면은 승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기표면 마모 및 박락이 심하여 정면흔 관찰이 어렵다.

잔존높이 11.4cm, 두께 0.65~0.8cm

114. 구연부(도면 34-114, 도판 27-114)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사선으로 올라오던 동체에서 수평으로 꺾여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근면을 이루되 하단면에 1조의 홈이 돌아가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일부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5cm, 두께 0.45~0.7cm

115. 구연부(도면 34-115, 도판 27-11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외면 암회색, 내면·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며,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95cm, 두께 0.6~0.75cm

116. 수키와(도면 34-116, 도판 27-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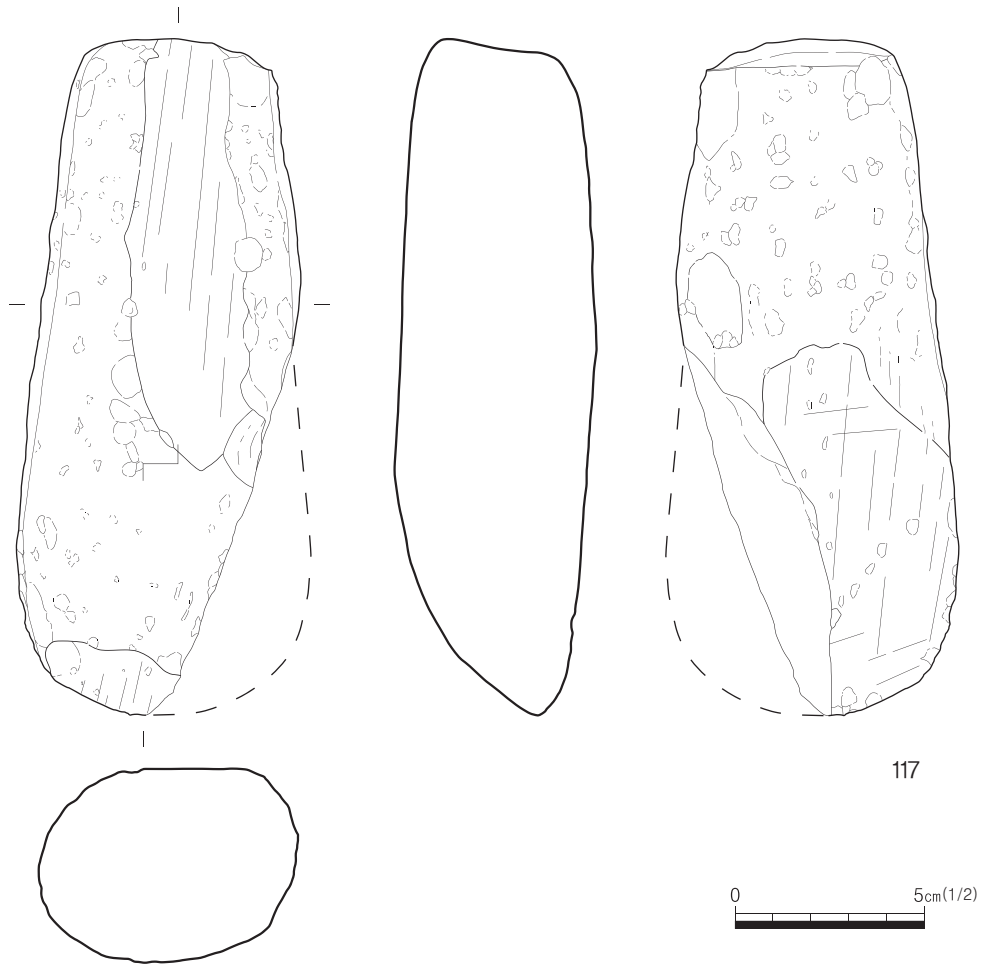
주거지 동벽 부근에서 출토된 적갈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한쪽 측면과 하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선문타날을 위→아래 방향으로 교차되게 타날하였으며, 타날 후 하단부 1.0~2.85cm 가량은 깎기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하단부에는 포를 접은 흔적과 2차례 깎기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이외 종방향의 점토피흔, 사절흔,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와도는 내→외 방향으로 1/3 정도 그어 분할하였으며, 파쇄면은 깔끔하게 정면하였다. 하단면에 건조시 깔았던 모래가 확인된다.

잔존길이 18.65cm, 잔존너비 8.25cm, 두께 0.8~2.1cm

117. 석부(도면 35-117, 도판 27-117)

주거지 내 수혈 내부에서 출토된 합인석부로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두부는 둥근 형태로 신부 중앙부에서 최대 너비를 이루고 곡선 상으로 내려와 인부와 만난다. 장타원형의 천석재 몸돌을 사용해 전면에 걸쳐 조밀하게 고타하여 정형하였다. 마연은 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광택이 뛰어나다.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룬다.

길이 18.0cm, 너비 7.5cm, 두께 5.1cm



도면 35.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7)

(7) 8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36, 도판 27-①~28-⑩)

조사지역의 서쪽 중앙에 위치(해발 36.6m)한다. 북서쪽으로는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주거지로 인하여 주거지의 벽체 1/4 가량이 유실되었으며, 남동벽 모서리는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10호 수혈주거지로 인하여 파괴되었으나, 바닥면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이 외에 주거지의 중앙과 남동벽, 동벽 중앙부는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일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방형으로 판단되며, 주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1°-W)방향이다. 주거지의 전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470cm, 너비(동-서) 490cm, 최대깊이 36cm이다.

내부 층위는 황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암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점토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벽체는 교

란 및 후축된 주거지로 인하여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않으나,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동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ㄱ’자형 구들시설 1기와 주혈이 조사되었다. 구들 시설은 주거지의 동벽에 시설하였으며, 동벽 중앙에서 북쪽에 치우쳐 아궁이시설을 하였으며, 고래열은 삭평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아궁이시설에서 남동벽 모서리로 연결된다. 배연시설은 교란 및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10호 수혈주거지로 인하여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궁이 및 고래열은 점토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한 것으로 판단되나 석재의 경우 대부분 원위치를 이탈하였으며, 점토 또한 아궁이 입구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실되었다. 아궁이 입구부와 고래열 내부로는 일부 목탄 집중면이 관찰되고 있어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석재 및 점토 등을 토대로 대략의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아궁이 입구부의 전체 너비는 대략 90cm 정도이며, 고래열의 잔존길이는 260cm 내외로 판단된다. 고래열의 남서쪽 모서리로는 길이 40~50cm 정도의 판석재 2매가 확인되는데 구들장으로 사용된 석재로 추정된다. 주혈은 주거지의 벽체에 인접하여 40~180cm 정도의 등간격을 두고 10기가 확인되며, 주거지의 중앙에서 서쪽에 치우쳐 주혈 2기가 위치한다. 주혈의 규모는 지름 14~32cm, 깊이 8~20cm로 다양하게 확인된다.

유물은 인화문토기 뚜껑편 및 편구형 병 동체부편, 대부완, 완, 병, 대상파수, 도가니,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18. 뚜껑 신부(도면 37-118, 도판 29-118)

주거지 아궁이 입구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뚜껑편으로 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신부는 반구형으로, 드림부는 사선으로 올라가고, 안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다. 외면 신부에는 연속마제형문을 횡방향으로 인화시문하였고, 드림부에는 화문을 시문하였다. 화문은 횡방향으로 겹쳐 시문하여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4.5cm, 두께 0.25~0.45cm

119. 대부완 대각부(도면 37-119, 도판 29-11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을 띠는 경질의 대부완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소성불량으로 신부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짧게 벌어지는 형태이고, 대각단은 완만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75cm, 복원저경 6.2cm, 두께 0.55~1.0cm

120. 완(도면 37-120, 도판 29-120)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완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다소 조잡한 편이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동체부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구연 외측으로 1조의 얇은 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바닥면에서 지두압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3.1cm, 복원구경 8.6cm, 복원저경 5.6cm, 두께 0.3~0.65cm

121. 완 구연부(도면 37-121, 도판 29-121)

주거지 아궁이 외부 서편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갈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완 동체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흑·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로 다소 조잡한 편이다. 구연부는 거의 사선에 가깝게 올라가고, 구연단은 상단이 뾰족한 면을 이룬다. 구연 외측에 1조의 흠이 돌아간다. 내·외면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희미하게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5.55cm, 복원저경 12.7cm, 두께 0.25~0.6cm

122. 완(도면 37-122, 도판 29-122)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연회색 연질의 완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에 이르러 살짝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룬다. 외면은 회전성형으로 인해凹凸을 이룬다. 내면에는 점토띠흔과 지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5.35cm, 복원구경 13.0cm, 복원저경 7.4cm, 두께 0.25~0.65cm

123. 병(도면 37-123, 도판 29-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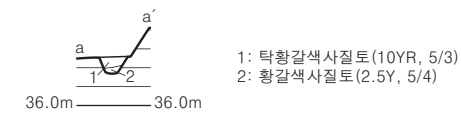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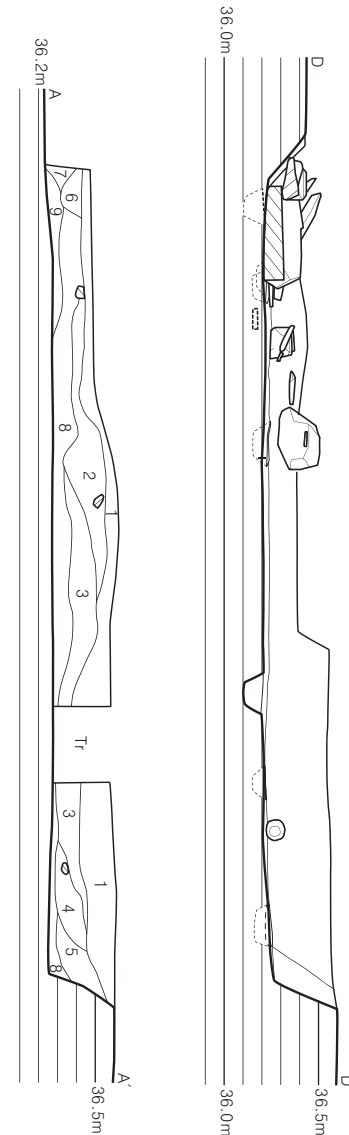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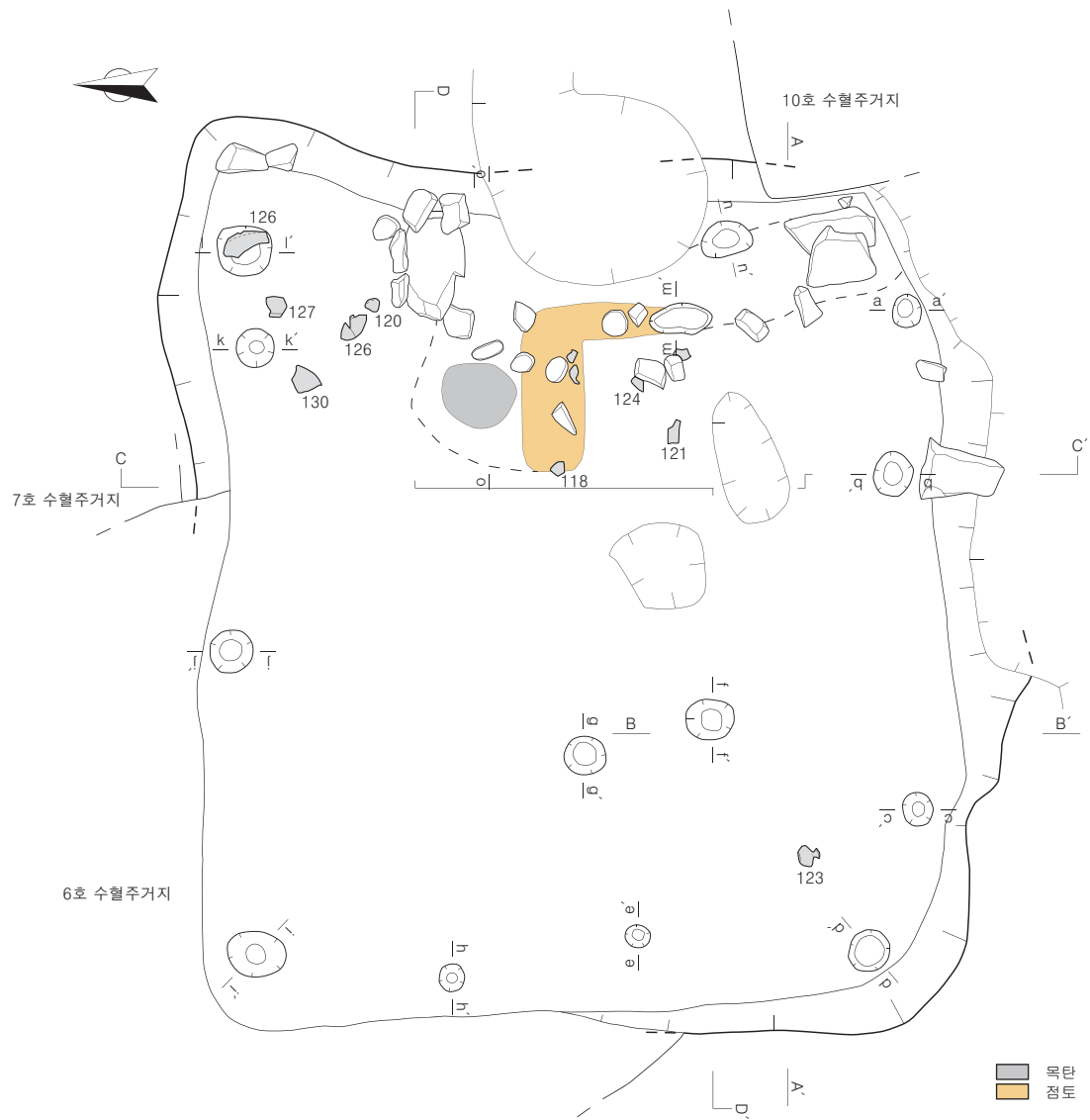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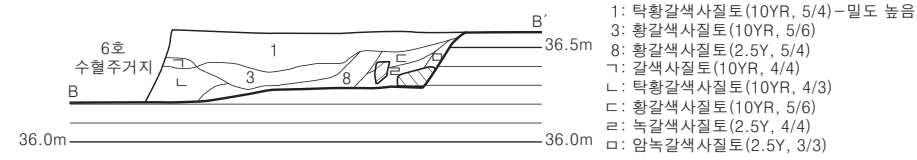
주거지 남서벽 부근에서 출토된 연회색 연질의 병으로 구연부 일부가 결손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로 사선으로 올라가다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만하다 구연에 이르러 길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반구형을 띠며, 구연단은凹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견부를 중심으로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횡침선을 중심으로 그 위로 2조, 그 아래로 1조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파상문은 비교적 조잡하게 시문하였고, 상부의 것은 물손질에 의해 일부 지워졌다. 바닥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여 면을 다듬었고, 저부 외면에는 동체-저부 접합시 생긴 점토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높이 10.85cm, 복원구경 6.7cm, 복원저경 7.2cm, 두께 0.4~0.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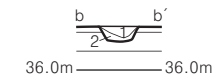
124. 편구형 병 동체부(도면 37-124, 도판 29-124)

주거지 아궁이 외부 서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편구형 병 동체부편으로, 1/4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질의 점토이나, 소성상태가 좋지 못해 내면 기표면이 터져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였고, 동하부에는 점토를 덧바른 뒤 예새로 거칠게 정면하였다. 문양은 종선+종장점열문을 2단에 걸쳐 횡방향으로 인화시문하였다. 동하부에는 대각부 접합을 위한 1조의 흠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횡방향 물손질에 의해 기면이凹凸을 이루고, 점토띠흔이 일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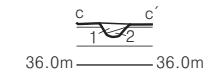
잔존높이 6.5cm, 두께 0.65~1.3cm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 2: 황갈색사질토(2.5Y,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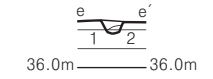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2: 황갈색사질토(2.5Y,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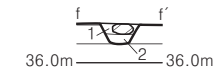
- 1: 갈색사질토(10YR, 4/4)
- 2: 황갈색사질토(10YR,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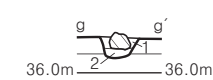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2: 갈색사질토(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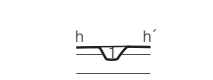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갈색사질토(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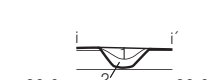
- 1: 갈색사질토(10YR, 4/4)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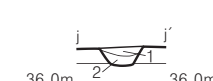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6/3)
- 2: 갈색사질토(10YR,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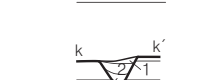
- 1: 갈색사질토(10YR,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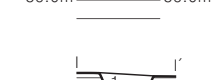
- 1: 탁갈색사질토(10YR, 5/6)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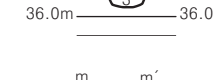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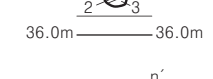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6/4)
- 2: 회황갈색사질토(10YR, 6/2)
- 3: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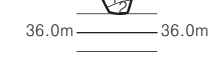
- 1: 갈색사질토(10YR, 4/6)+점토 소량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 3: 녹갈색사질토(2.5Y,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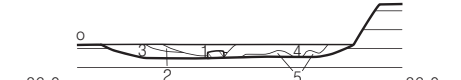
- 1: 녹갈색사질토(2.5Y, 4/3)
- 2: 황갈색사질토(10YR, 5/3)
- 3: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1: 갈색사질토(10YR, 4/4)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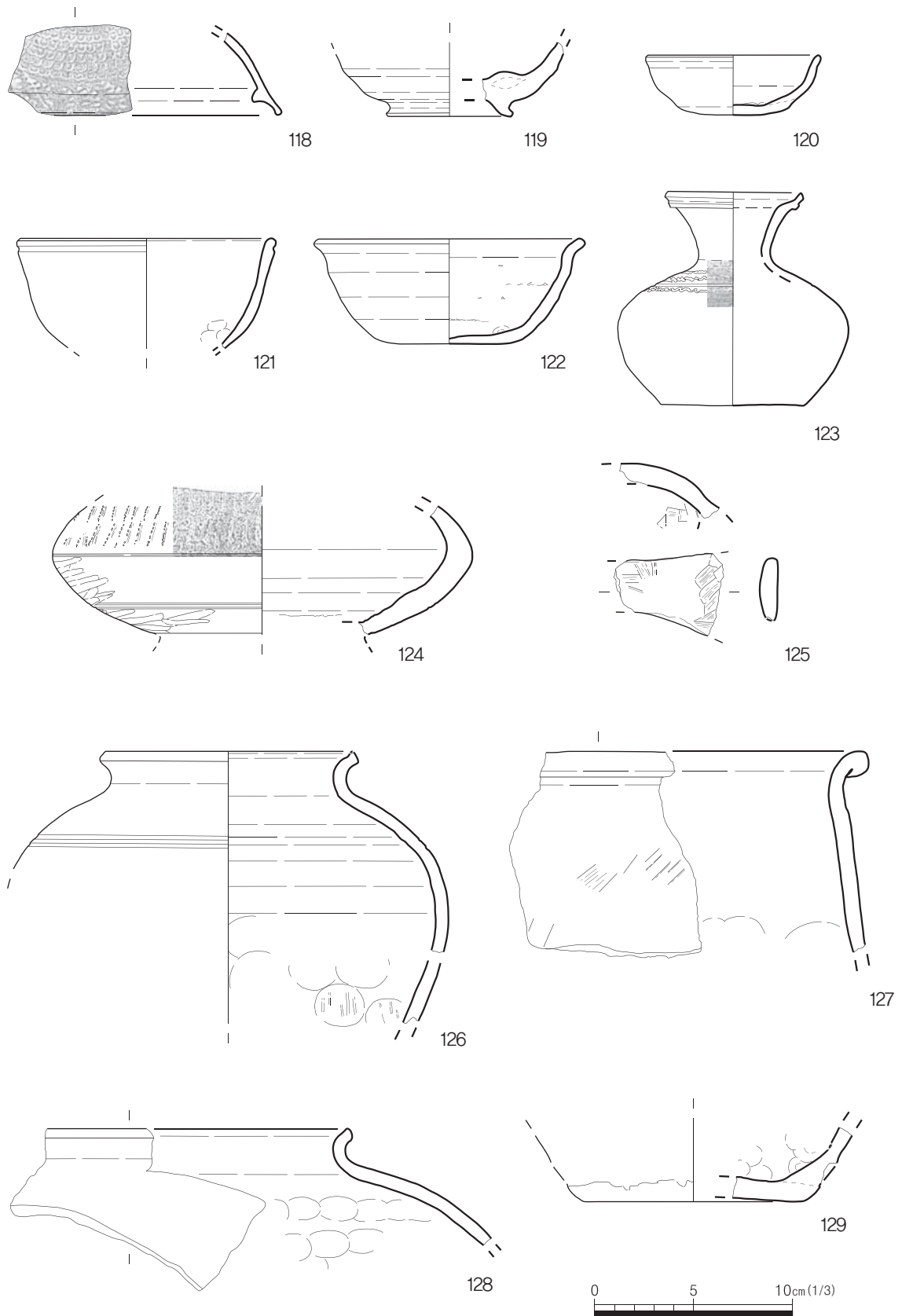
- 1: 갈색사질토(10YR, 4/4)
- 2: 탁황갈색사질토(10YR, 5/3)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2: 갈색사질토(10YR, 4/3)
- 3: 암녹갈색사질토(2.5Y, 3/3)
- 4: 황갈색사질토(10YR, 5/6)+점토 소량
- 5: 녹갈색사질토(2.5Y, 4/4)

- 1: 탁황갈색사질토(10YR, 5/4)-밀도 높음
- 2: 갈색사질토(10YR, 4/6)
- 3: 황갈색사질토(10YR, 5/6)
- 4: 탁황갈색사질토(10YR, 4/3)
- 5: 암갈색사질토(10YR, 3/4)+점토 소량
- 6: 갈색사질토(10YR, 4/4)
- 7: 탁황갈색사질토(10YR, 5/4)
- 8: 황갈색사질토(10YR, 5/4)
- 9: 녹갈색사질토(2.5Y, 4/3)

도면 36. 8호 수혈주거지



도면 37.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8~129)

125. 대상파수(도면 37-125, 도판 29-12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대상파수편으로, 마모가 심하여 속심이 드러나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내·외면 도구정면하였고, 특히 동체 접합부 가까이로 사방향의 도구 정면흔이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잔존길이 5.5cm, 잔존너비 4.15cm, 두께 0.5~0.9cm

126. 단경호 구연-동체부(도면 37-126, 도판 29-126)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외면 암갈색, 내면·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단경호 구연-동체부편으로, 기표면 마모 및 박락이 심하여 속심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구형의 동체부는 동중상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구연부에 이르러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띠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동하부에서 타날흔이 일부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이외 견부에 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동하부를 중심으로 선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3.8cm, 구경 12.5cm, 두께 0.55~0.7cm

127. 구연부(도면 37-127, 도판 29-127)

주거지 북동벽 부근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사선을 그리며 내경하는 동체에서 밖으로 둥글게 말아 접어 제작하였다. 외면 일부에서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내면에서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10.2cm, 두께 0.65~0.8cm

128. 단경호 구연부(도면 37-128, 도판 3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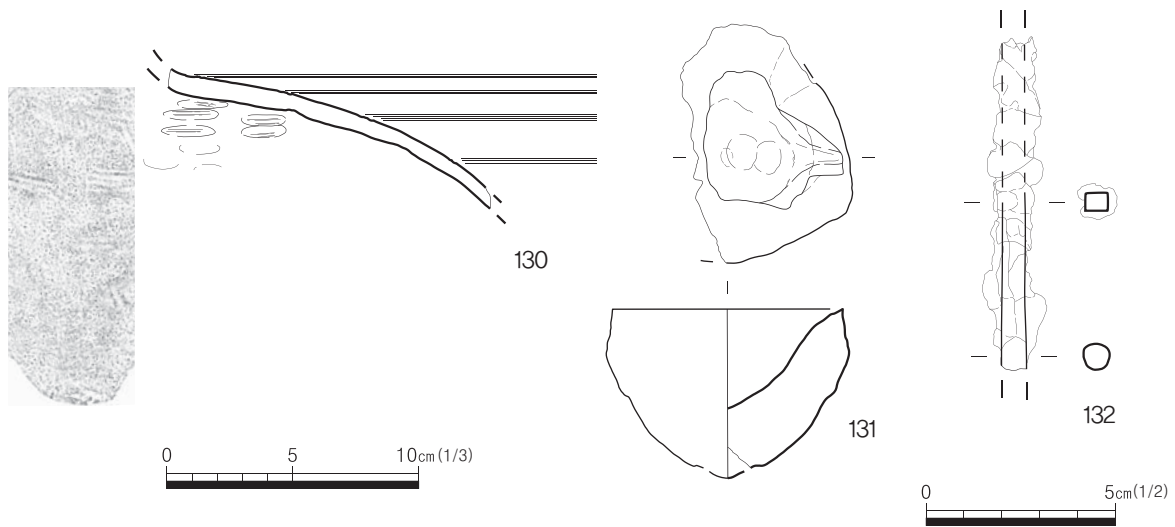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회색 슬립이 입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박락이 심해 황갈색의 속심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둥글게 내만하던 동체에서 짧게 외반하는 형태이고,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잔존높이 5.95cm, 두께 0.55~0.7cm

129. 저부(도면 37-129, 도판 29-12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암)회색, 속심 자색+회색을 띠는 경질의 저부편이다. 전체적으로 소성상태가 불량하여 색조 및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백색 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들린 평저이고, 동체부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면에는 성형시 끌어올린 점토가 확인된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관찰되고, 자연유가 형성되었고, 소성상태가 고르지 않다.

잔존높이 3.75cm, 복원저경 11.0cm, 두께 0.7~1.05cm



도면 38.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0~132)

130. 대호 견부(도면 38-130, 도판 30-130)

주거지 북동편 부근에서 출토된 외면 암회색, 내면·속심 회색을 띠는 연질의 대호 견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2조씩 4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선문의 내박자흔이 전면에 걸쳐 확인되나 물손질하여 뚜렷하지 못하다.

잔존높이 5.5cm, 두께 0.5~0.8cm

131. 도가니(도면 38-131, 도판 30-131)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갈색 연질의 도가니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섞인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구연단을 제외하고는 기벽 두께가 일정한 편이다. 기형은 포탄형이며, 주구는 안에서 밖으로 외반하는 형태로,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가열에 의한 흑반과 소결면이 확인된다. 이외 내면에서 지두압흔과 점토띠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태토가 부스러지는 양상이어서 성형 및 정면흔의 관찰이 어렵다.

복원 잔존높이 6.7cm, 복원구경 9.15cm, 두께 1.75~2.6cm

132. 철정(도면 38-132, 도판 30-132)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철정편으로 두부와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잔존편의 상부 단면은 장방형이며, 하부는 원형이다. 전체적으로 부식으로 인한 녹흔이 형성되었다.

잔존길이 8.8cm

(8) 9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39, 도판 30-①~⑦)

조사지역의 남쪽 중앙 경계에 연접하여 위치(해발 36.4m)한다. 북서쪽으로는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10호 수혈주거지의 남쪽 벽체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이 외에 주거지의 북벽 중앙과 동벽 일부는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주거지의 남쪽은 조사지역 경계와 맞닿아 있어 주거지의 절반 가량만이 조사 가능한 상황이다.

주거지는 절반 가량만 조사되어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잔존하는 양상 및 주변 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판단되며, 주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22°-W)방향이다. 주거지의 잔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200cm, 너비(동-서) 383cm, 최대깊이 37cm이다.

내부 층위는 녹갈색사질토, 암회황색사질토, 암녹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점토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벽체는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않으나,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북동벽 모서리에서 아궁이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아궁이시설은 북쪽에 치우쳐 20cm 이내의 할석재 3매를 이용하여 붓돌을 마련하였으며, 붓돌시설에서 남쪽으로 약 20cm 가량 떨어져 붓돌의 이탈흔으로 판단되는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아궁이 주변으로는 일부 목탄이 소량 확인되나 주변 교란으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외에 주거지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 완, 구연부편, 철정,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33. 무문토기 저부(도면 40-133, 도판 3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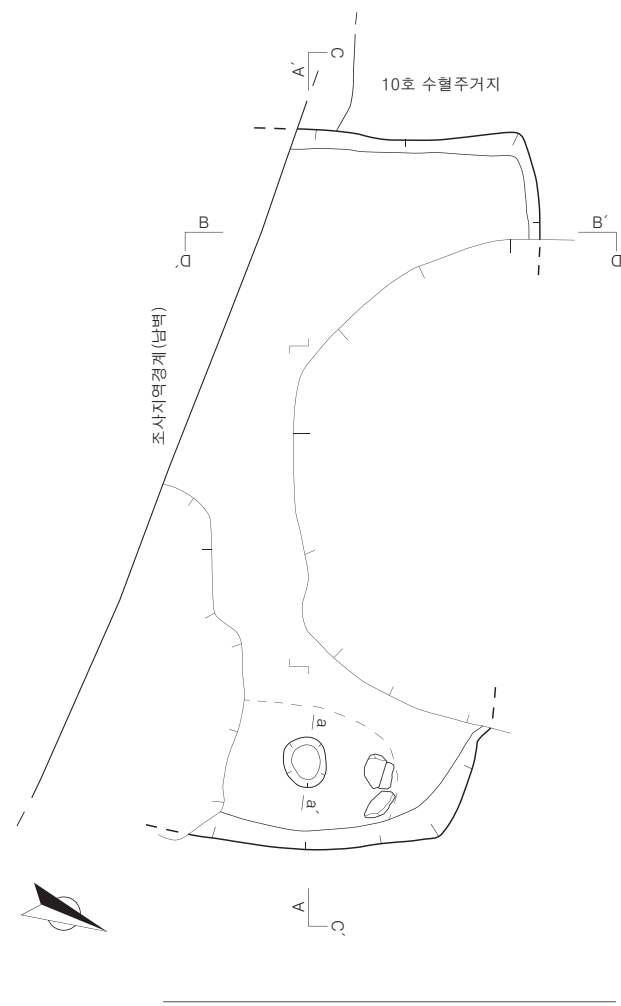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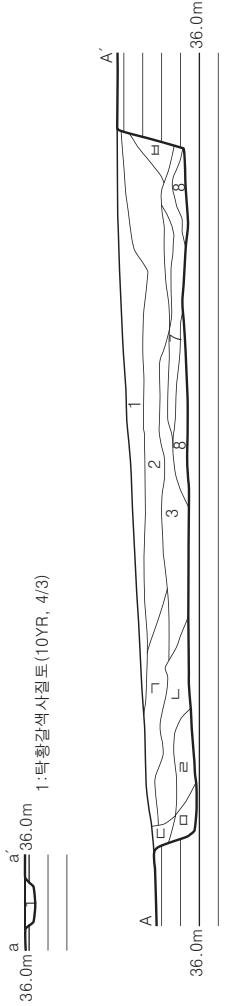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황갈색, 속심 (회)갈색의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축약하여 동체부로 올라간다. 내·외면 지두흔과 도구 정면흔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9.8cm, 두께 0.7~1.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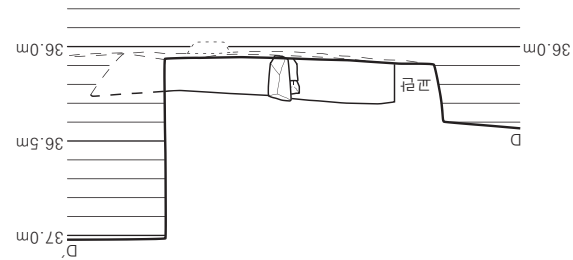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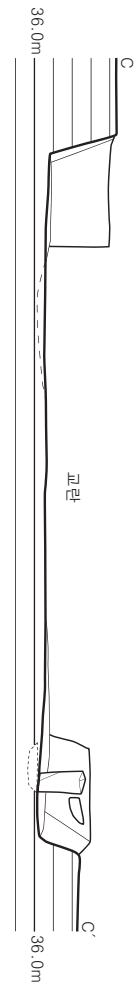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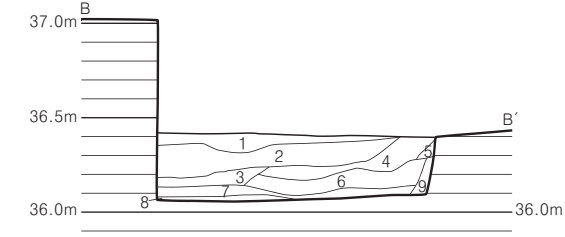
134. 완 구연-동체부(도면 40-134, 도판 31-134)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황갈색, 속심 암회색인 연질의 완 구연부편으로, 1/3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로 다소 조잡한 편이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위·아래로 살짝 빠져 있으며,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점토접합면을 중심으로 지두흔이 관찰되나, 횡방향으로 거칠게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구연 내측으로 그을음과 피열흔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凹凸이 형성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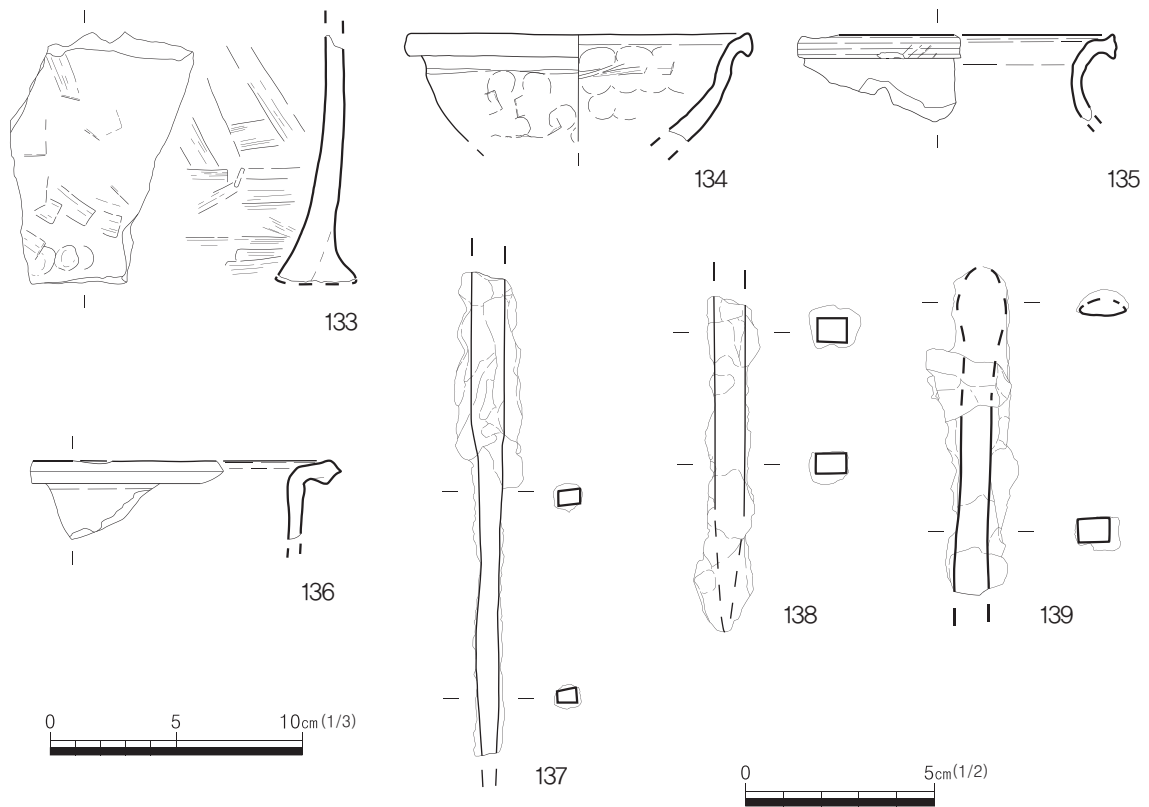
- 1: 탁황갈색사질토 (10YR, 4/3)
- 2: 안녹갈색사질토 (2.5Y, 3/3)
- 3: 암회황색사질토 (2.5Y, 4/2)
- 7: 담녹갈색사질토 (2.5Y, 3/3)
- 8: 녹갈색사질토 (2.5Y, 4/3)
- 1: 갈색사질토 (10YR, 4/4)
- 1: 안갈색사질토 (10YR, 4/3)
- 1: 안갈색사질토 (2.5Y, 4/3)
- 1: 탁황갈색사질토 (10YR, 4/3)
- 1: 갈색사질토 (10YR, 4/6)
- 1: 탁황갈색사질토 (10YR, 5/3)



- 1: 탁황갈색사질토 (10YR, 4/3)
- 2: 안녹갈색사질토 (2.5Y, 3/3)
- 3: 암회황색사질토 (2.5Y, 4/2)
- 4: 흑갈색사질토 (10YR, 3/2)
- 5: 갈색사질토 (10YR, 4/4)
- 6: 회황갈색사질토 (10YR, 4/2) + 점토 소량
- 7: 안녹갈색사질토 (2.5Y, 3/3)
- 8: 녹갈색사질토 (2.5Y, 4/3)
- 9: 녹갈색사질토 (2.5Y, 4/6)



도면 39. 9호 수혈주거지



도면 40. 9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3~139)

등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잔존높이 4.3cm, 복원구경 19.5cm, 두께 0.45~0.85cm

135. 구연부(도면 40-135, 도판 31-13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흑회색, 속심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凹凸면을 이루고, 구연내측은 단이 져 있다. 내·외면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45cm, 두께 0.35~0.55cm

136. 동이류 구연부(도면 40-136, 도판 31-136)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동이류로 추정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소량의 흑·백색 석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직선에 가깝게 올라오던 동체에서 수평에 가깝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밖으로 말아 접어 성형하였고, 삼각면을 이루며, 구연내측은 단이 져 있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1cm, 두께 0.5~0.7cm

137. 철정(도면 40-137, 도판 31-137)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철정편으로 두부와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장방형이며, 부식으로 인한 녹혹이 형성되었다.

잔존길이 12.8cm

138. 철정(도면 40-138, 도판 31-13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철정편으로 하단부가 잔존한다. 단면은 장방형으로 하단부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녹혹이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8.95cm

139. 철촉(도면 40-139, 도판 31-13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철촉으로 경부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촉두부는 모가 죽은 타두형이며, 단면은 뚜렷한 능이 없는 렌즈형이다. 봉부의 단면형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부는 단면 장방형을 띤다. 부식으로 인한 녹혹이 형성되었다.

잔존길이 8.7cm

(9) 10호 수혈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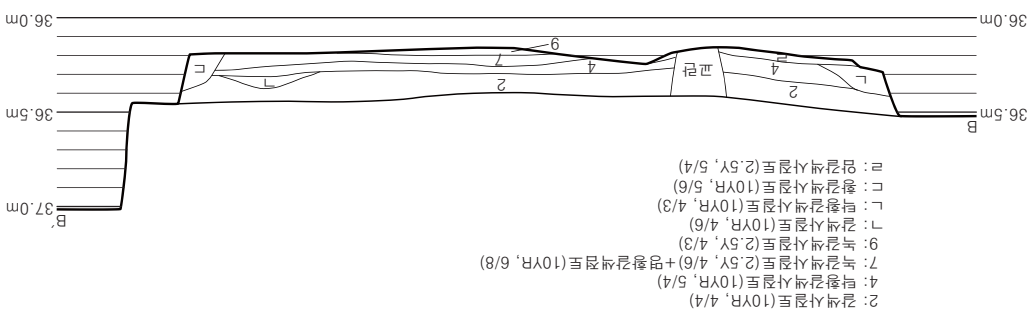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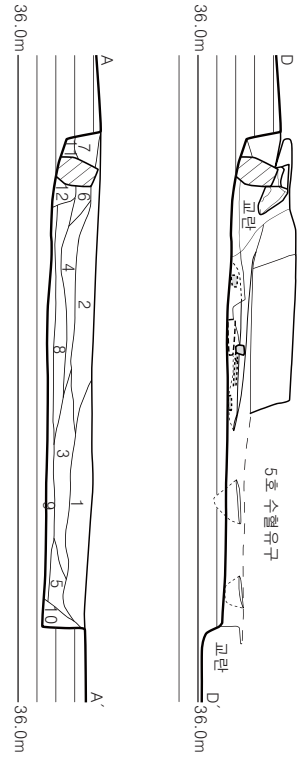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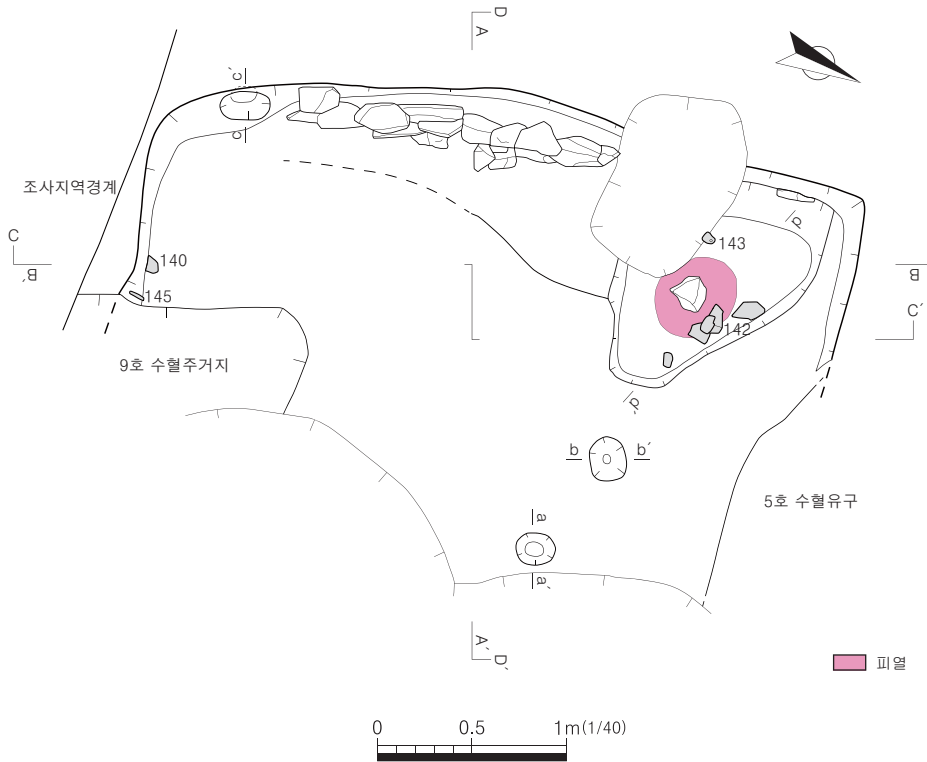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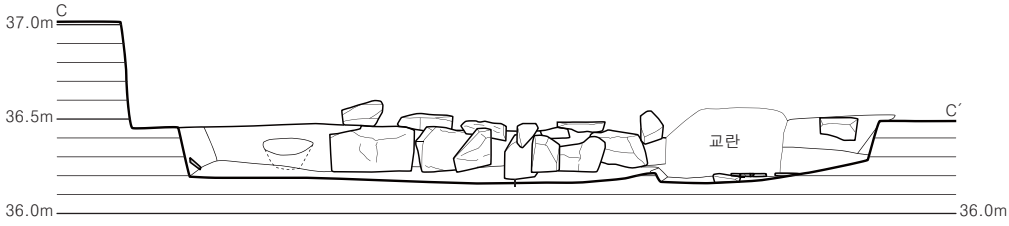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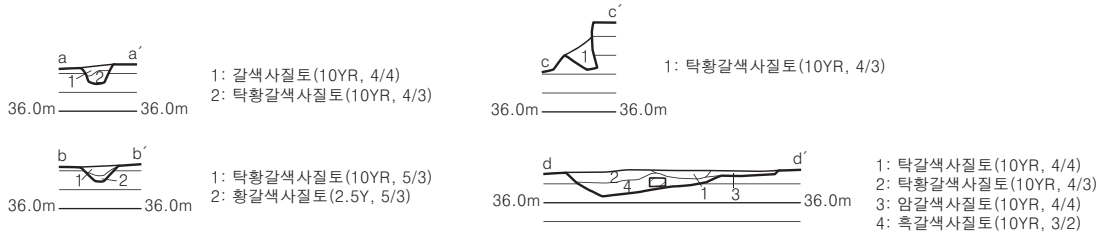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1, 도판 31-①~④)

조사지역의 남쪽 중앙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해발 36.5m)한다. 북서쪽은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8호 수혈주거지의 남동쪽 벽체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후축된 (통일)신라시대 9호 수혈주거지와 (통일)신라시대 5호 수혈유구로 인하여 주거지의 남벽과 북벽이 각각 훼손되었다. 이 외에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의 동벽이 모두 유실되었다.

주거지는 절반 가량만 조사되어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잔존하는 양상 및 주변 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판단되며, 주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10°-W)방향이다. 주거지의 잔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392cm, 잔존너비(동-서) 264cm, 최대깊이 25cm이다.

내부 층위는 녹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점토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벽체는 교란 및 후축된 주거지로 인하여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않으나,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주거지의 서벽에서 구들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구들시설은 할석재와 점토를 이용하여 고래열을 마련하였다. 벽가에 연접하여 20~40cm 가량의 할석재를 세워 고래둑을 마련하였으며, 점토를 이용하여 벽체를 보강하였다. 주거지 내측으로는 고래흔 만이 일부 관찰되고 있어 대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잔존하는 고래열의 전체길이(남-북)는 312cm, 너비(동-서)는 10~50cm이며, 고래열의 내부 너비는 15cm 이내로 추정된다. 아궁이 입구는 교란으로 인하여 정확한 구조 파악은 불가능



도면 41. 10호 수혈주거지

하나 피열흔이 집중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북서벽 모서리로 보이며, 내부에 목탄 및 피열흔이 관찰되고 있다. 일부 파쇄된 활석재들과 토기편들이 관찰되나 석재의 경우 원위치를 이탈하였다. 배연시설은 주거지의 남서벽 모서리로 판단되나 삭평 및 상부 교란으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유물은 남벽에 인접한 퇴적층 내에서 세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고, 이외에 대호편, 석추,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40. 호 동체부(도면 42-140, 도판 32-140)

주거지 남벽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였고, 잔존편의 상부에 1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이 확인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11.7cm, 두께 0.4~0.9cm

141. 호 동체부(도면 42-141, 도판 32-141)

주거지 아궁이시설 바닥면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은 선문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소형의 무문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15.5cm, 두께 0.85~1.0cm

142. 대호 동체부(도면 42-142, 도판 32-142)

주거지 아궁이 입구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회색의 경질 대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선문이 시문된 방형 타날구를 사용하여 성형하였고, 성형 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무문의 소형 내박자흔과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3.65cm, 두께 0.55~1.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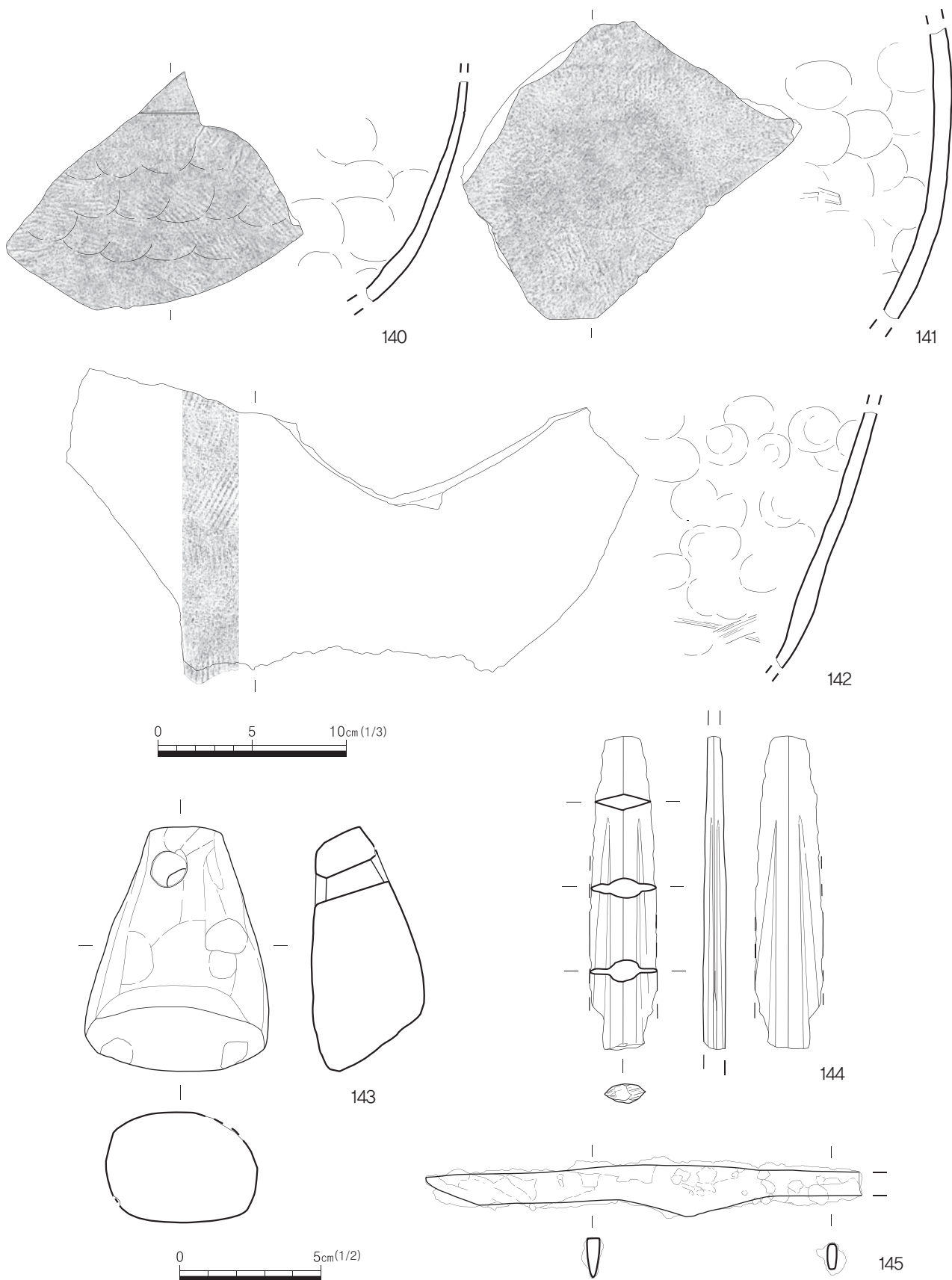
143. 석추(도면 42-143, 도판 32-143)

주거지 아궁이에서 출토된 완형의 석추이다. 암질은 회백색의 활석재로 전면이 세밀하게 정마되어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다. 평면과 종단면은 말각제형에 가까우나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룬다. 상단에는 지름 1.2cm 내외의 현공을 관통시켜 놓고 그 주위를 다시 정마하여 다듬었다. 무게는 295g이다.

길이 8.7cm, 상단너비 2.5cm, 하단너비 6.3cm, 최대두께 3.9cm

144. 세형동검(도면 42-144, 도판 32-144)

주거지 남벽 인근 내부토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으로, 봉부 일부를 포함한 신부 상단 일부만 잔존한다. 색조는 청동의 부식산화물이 전체적으로 얇게 덮여있어 암녹색을 띤다. 인부는 부식으로 인해 대부분 결락되었으며, 척능선은 직선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 봉부의 단면형태는 능형이며, 검척은



도면 42. 10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0~145)

타원형을 띤다. 한편, 검척의 하단부 깨진면에서 횡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되어 부러진 청동검을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11.1cm, 신부 최대너비 2.3cm, 무게 67g

145. 철도자(도면 42-145, 도판 32-145)

주거지 남벽에서 출토된 철제 도자이다. 병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며, 표면에 부식이 진행되어 전면 에 녹이 부착되었고, 균열이 발생하였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세장한 삼각형으로 배부가 일직선을 이룬다. 신부와 병부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병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잔존길이 15.5cm, 잔존너비 0.85~1.8cm, 두께 0.3~0.45cm

(10) 11호 수혈주거지

가. 유구(도면 43, 도판 33-①~34-③)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치우쳐 위치(해발 36.3m)한다. 주거지의 남서쪽으로 삭평 및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벽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주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북서-남동(N-32°-W) 방향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남-북) 387cm, 너비(동-서) 252cm, 최대깊이 34cm이다.

내부 층위는 암녹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벽가에는 탁황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등이 사선방향으로 퇴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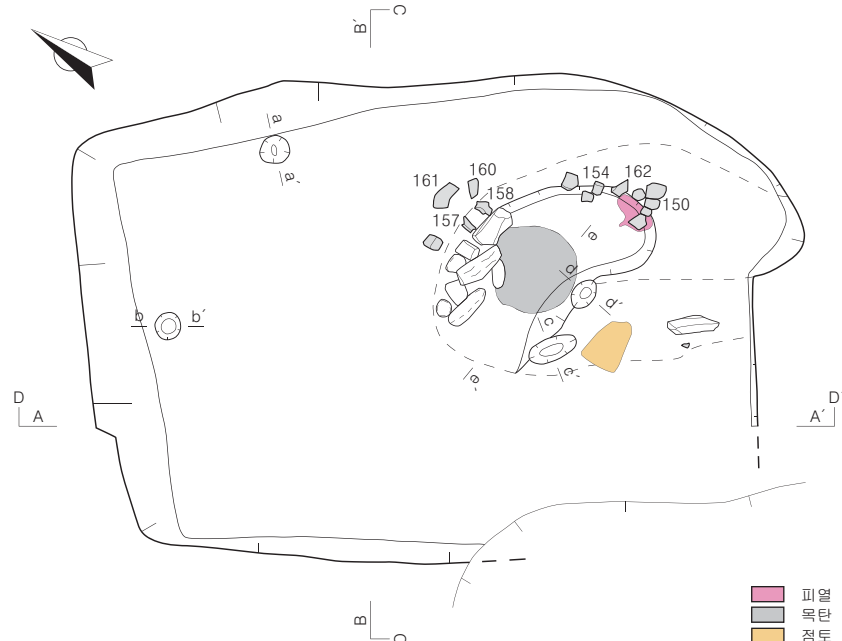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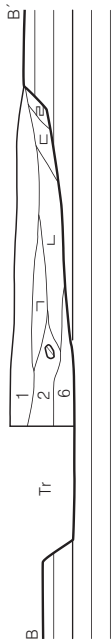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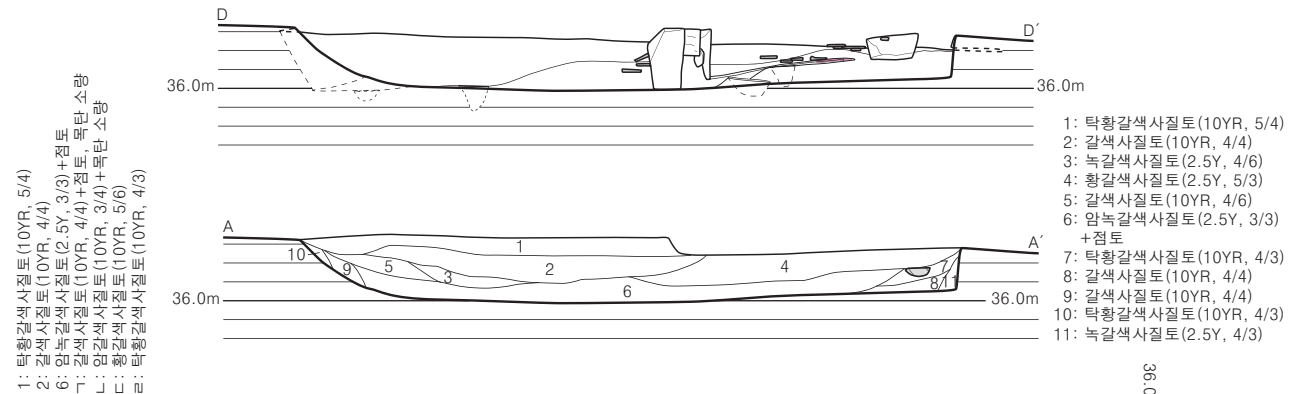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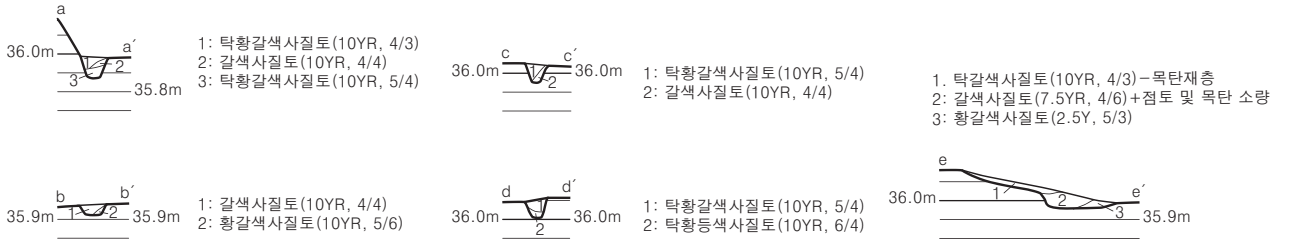
주거지의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바닥에 점토시설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벽체는 삭평 및 교란으로 인하여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않으나,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주거지의 남동벽에 치우쳐 쪽구들시설 1기가 조사되었으며, 소주혈 2기가 북벽 중앙과 동벽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쪽구들시설은 20~30cm 가량의 할석재를 이용하여 고래열을 마련하였으나, 삭평으로 인하여 아궁이 입구의 동편에 3매만이 잔존한다. 서쪽으로는 석재 이탈흔만 일부 관찰되고 있어 아궁이 입구의 대략의 너비만 알 수 있는 상황이며, 아궁이 입구의 너비는 대략 20cm 정도로 판단된다. 구들시설의 내부에는 목탄 및 피열흔이 관찰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삭평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다. 이 외에 주거지의 북벽 중앙부와 동벽의 북쪽에 치우쳐 주혈이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지름은 16cm 이내이며, 깊이 또한 20cm 이내로 깊지 않다.

유물은 유개고배편, 완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46. 중도식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도면 44-146, 도판 34-146)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내만구연옹 구연부편으로 극히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점토에 굵은 석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내만하며, 구연단은 완만한 면



도면 43. 11호 수혈주거지

을 이룬다. 외면은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며, 내면 또한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외면에서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45cm, 두께 0.4~0.65cm

147. 호 구연부(도면 44-147, 도판 34-147)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로 다소 조잡한 편이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다 구연단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구연부에서 관찰되고, 내면에는 지두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0.05cm, 두께 0.55~0.85cm

148.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44-148, 도판 34-148)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이다. 바닥면이 약간 들린 평저로 저부에서 축약하여 동체부로 연결된다. 외면에는 지두압흔과 목판흔이 관찰된다. 내면 또한 목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잔존높이 3.0cm, 복원저경 7.9cm, 두께 0.55~1.25cm

149.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44-149, 도판 34-14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바닥면이 약간 들린 말각평저이다. 외면은 횡사방향의 거친 목판정명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지두압흔이 확인되며, 그 위로 횡사방향으로 목판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1.25cm, 복원저경 6.2cm, 두께 0.45~0.7cm

150. 호 동체부(도면 44-150, 도판 3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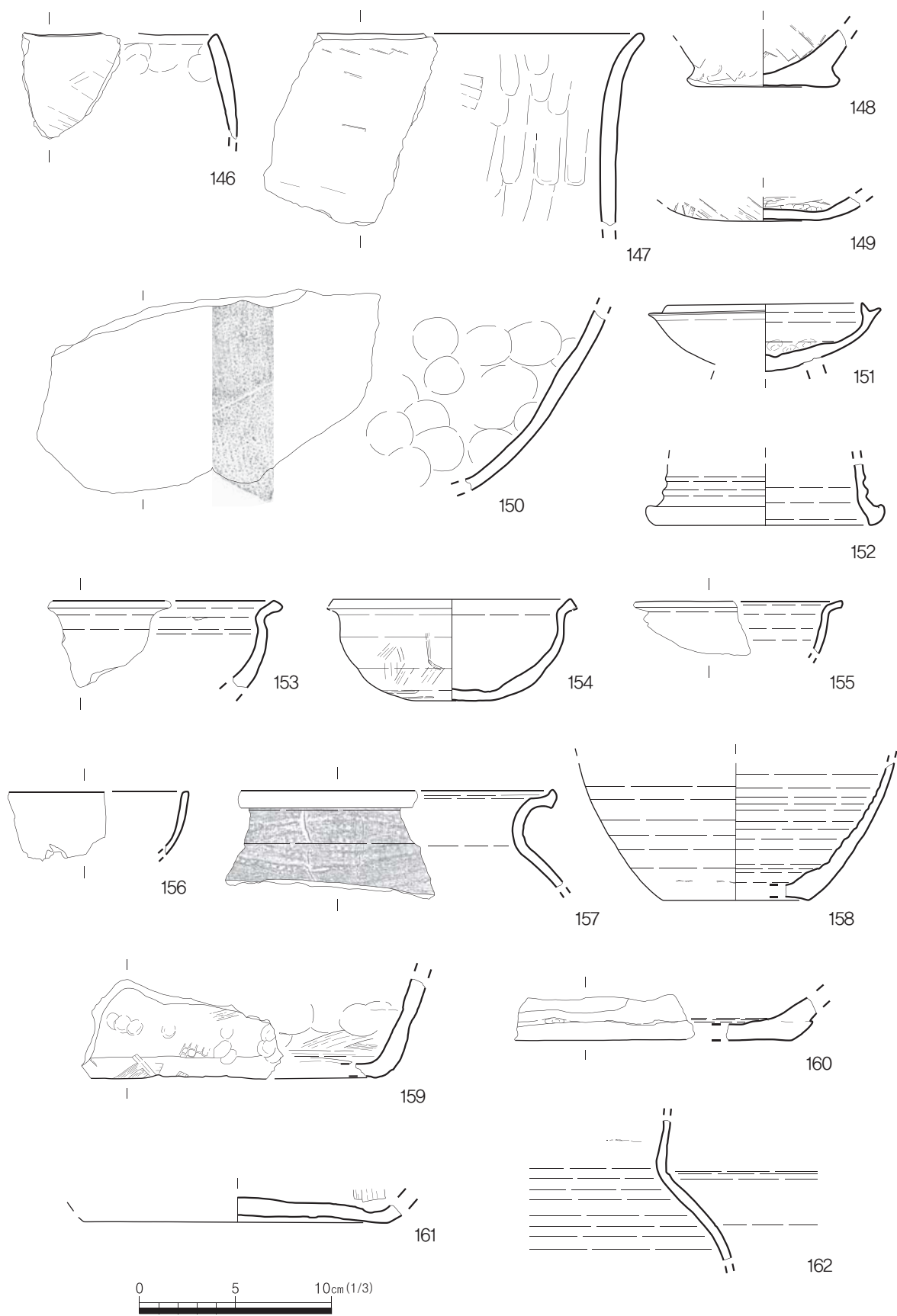
주거지 아궁이 고래열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호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로 다소 조잡한 편이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은 무문의 소형 내박자가 전면에 걸쳐 관찰되나 물손질하여 희미하다.

잔존높이 9.4cm, 두께 0.55~0.8cm

151. 유개고배 구연-배신부(도면 44-151, 도판 34-151)

주거지 남-북 독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의 유개고배 구연-배신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백색 석립이 혼입되었다. 배신부는 사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뚜껑받이턱은 단면 삼각형으로 짧게 돌출되어 있다. 구연은 내만하며, 구연단은 뾰족한 면을 이룬다. 외면 바닥에는 대각부 접합을 위한 홈이 3조 돌아간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바닥면을 중심으로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6cm, 복원구경 11.5cm, 두께 0.35~0.85cm



도면 44. 1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6~162)

152. 대각부(도면 44-152, 도판 35-152)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암)회색 경질의 대각부편으로,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대각부는 직립하다 짧게 외반하는 형태이며, 대각단은 밖으로 살짝 말아 접어 성형하였다. 외면 대각단 가까이로 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한편, 외면에 자연유가 확인되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며, 내면 하단에는 짙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25cm, 복원저경 10.3cm, 두께 0.4~0.6cm

153. 완 구연부(도면 44-153, 도판 35-153)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완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둥글게 올라오던 배신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S자형을 이룬다. 구연단은 평탄한 면을 이루며, 구연 내측은 단을 이룬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으나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이외 내면에서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4.55cm, 두께 0.4~0.85cm

154. 완(도면 44-154, 도판 35-154)

주거지 아궁이 고래열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완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는 말각평저이고, 동체부로 둥근 면을 그리며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짧게 외경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물손질에 의해 약한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성형 및 정면으로 인해凹凸이 심하다. 외면에 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며, 내면 바닥은 나선형의 회전성형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5.3cm, 복원구경 12.4cm, 복원저경 4.5cm, 두께 0.3~0.75cm

155. 완 구연부(도면 44-155, 도판 35-155)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의 완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니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하며,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루고, 구연 내측은 얇은 띠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회전성형에 의한凹凸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2.75cm, 두께 0.3~0.35cm

156. 완 구연부(도면 44-156, 도판 35-156)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을 띠는 경질의 완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완만한 면을 이룬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외면에 자연유가 비산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3.3cm, 두께 0.25~0.35cm

157. 단경호 구연부(도면 44-157, 도판 35-157)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내만하던 견부에서 둥글게 외반하는 형태이다. 구연단은 각이 저있고, 구연 내측은凹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 또한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5.1cm, 두께 0.4~0.55cm

158. 호 저부(도면 44-158, 도판 35-158)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회색 경질의 호 저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바닥은 들린 평저이고, 동체부로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내·외면 회전성형에 의한凹凸면이 확인되고, 외면 하부에는 점토피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15cm, 복원저경 7.5cm, 두께 0.35~1.2cm

159. 저부(도면 44-159, 도판 35-159)

주거지 내부토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저부편이다. 태토는 백색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로 사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외면 바닥에는 동체부 성형 시 끌어올린 점토피흔이 관찰되며, 격자타날흔과 지두압흔, 도구정면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과 점토접합흔, 횡사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으나,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않다.

잔존높이 5.15cm, 두께 0.7~1.0cm

160. 저부(도면 44-160, 도판 35-160)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저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다량의 석립이 혼입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다. 외면에는 바닥-동체부 성형 시 사용된 점토피가 관찰된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2.25cm, 두께 0.85~1.45cm

161. 저부(도면 44-161, 도판 35-161)

주거지 아궁이 외부 북편에 치우쳐서 출토된 내·외면 회갈색, 속심 적갈색을 띠는 연질 저부 바닥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바닥은 들린 평저이다. 내·외면 거친 도구정면흔이 관찰되며, 바닥 경계면에서 회전성형에 의한凹면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1.3cm, 저경 16.0cm, 두께 0.45~0.9cm

162. 장경호 경부(도면 44-162, 도판 35-162)

주거지 아궁이 고래열에서 출토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갈색을 띠는 경질의 장경호 경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기형은 둥글게 내만하던 견부에서 경부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면 견부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잔존 편외 하부에는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나 자연유가 전면을 덮고 있어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경부에는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7.3cm, 두께 0.3~0.5cm

2) 수혈유구

(1)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5, 도판 36-①~③)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해발 36.7m)하며,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6호 수혈주거지의 서벽 중앙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3°-E)방향이다. 규모는 길이(남-북) 133cm, 너비(동-서) 81cm, 최대깊이 25cm이다.

내부 층위는 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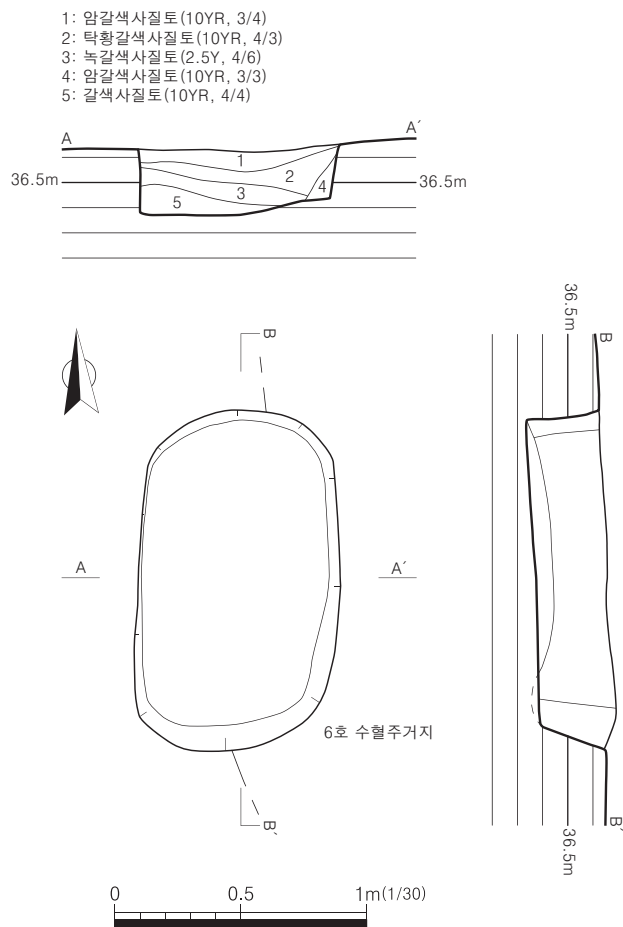
바닥은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평면형태 및 바닥면을 평평하게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된다.

내부출토 유물은 없다.

(2)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6, 도판 36-④~⑥)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남쪽에 치우쳐 위치(해발 36.4m)한다. 남쪽으로 약 2m 가량



도면 45. 3호 수혈유구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 약 2m 가량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7·8호 수혈주거지와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지름 63cm, 최대깊이 55cm이다.

내부 층위는 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탁갈색사질토, 녹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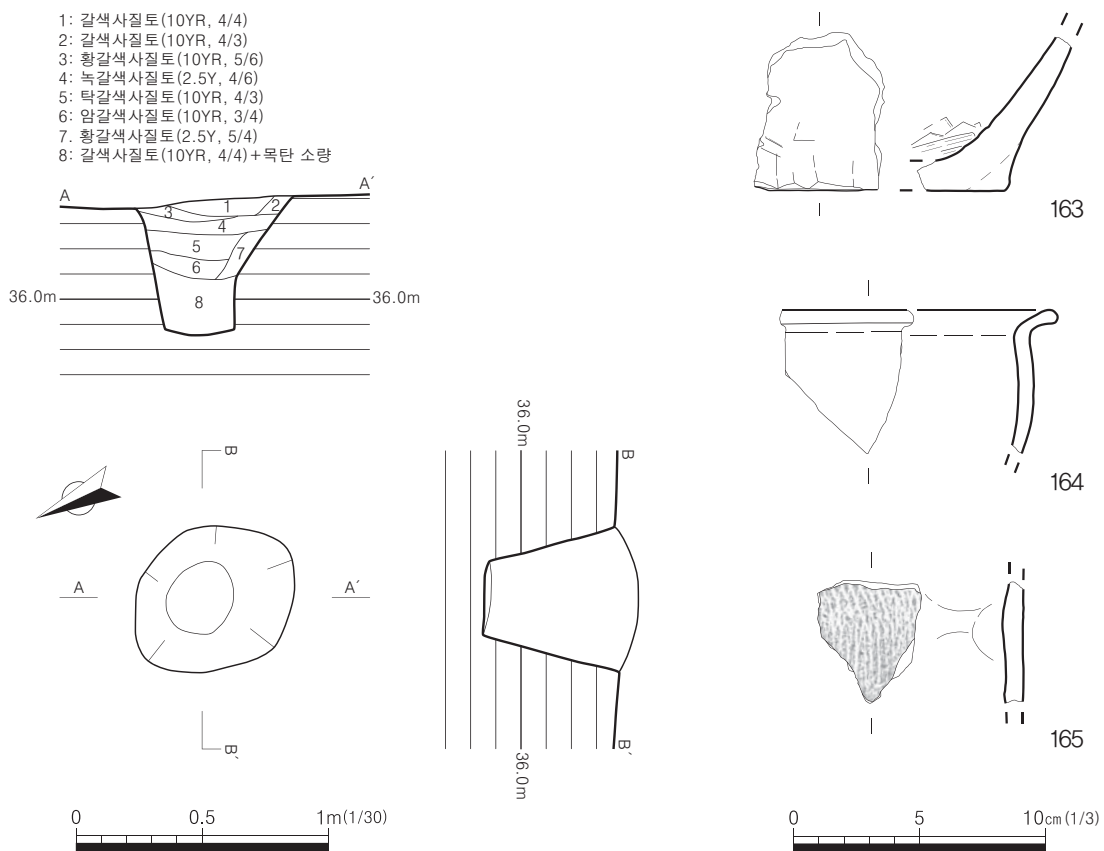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유구의 규모 및 조성 방식 등을 보았을 때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된다.

유물은 토기 구연부편과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등이 출토되었고,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은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163. 중도식무문토기 저부(도면 46-163, 도판 36-163)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적갈색, 속심 암갈색의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이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에 점토를 보강하여 제작한 것으로 관찰된다. 외면은



도면 46. 4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3~165)

목판정면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다. 내면 또한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6.1cm, 두께 0.75~1.4cm

164. 구연부(도면 46-164, 도판 36-164)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극히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흑·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구연부는 내만하던 동체부에서 급하게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고, 구연단은 둥근 면을 이룬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하여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높이 5.7cm, 두께 0.4~0.6cm

165. 동체부(도면 46-165, 도판 36-165)

수혈 내부토에서 출토된 내·외면 갈색, 속심 황갈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으로 극히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승문타날하였으며, 내면은 무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취사흔으로 추정되는 그을음이 관찰된다. 전체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취사용기인 심발형 또는 장란형토기로 추정된다.

잔존높이 4.8cm, 두께 0.6~0.8cm

(3) 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7, 도판 37-①~⑤)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남쪽에 치우쳐 위치(해발 36.4m)한다. 남쪽으로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10호 수혈주거지의 북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으며, 서쪽으로 약 2m 가량 떨어져 (통일)신라시대 8호 수혈주거지가 위치한다. 수혈벽은 대부분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유실되었으며, 남벽과 북서벽 일부와 바닥면 일부만이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며, 잔존 규모는 잔존길이(남-북) 124cm, 잔존너비(동-서) 139cm, 최대깊이 20cm이다.

내부 층위는 회황갈색사질토, 탁황갈색사질토, 탁황등색사질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잔존하는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 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내부에서 고배편 1점이 확인되어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추정된다.

유물은 유개고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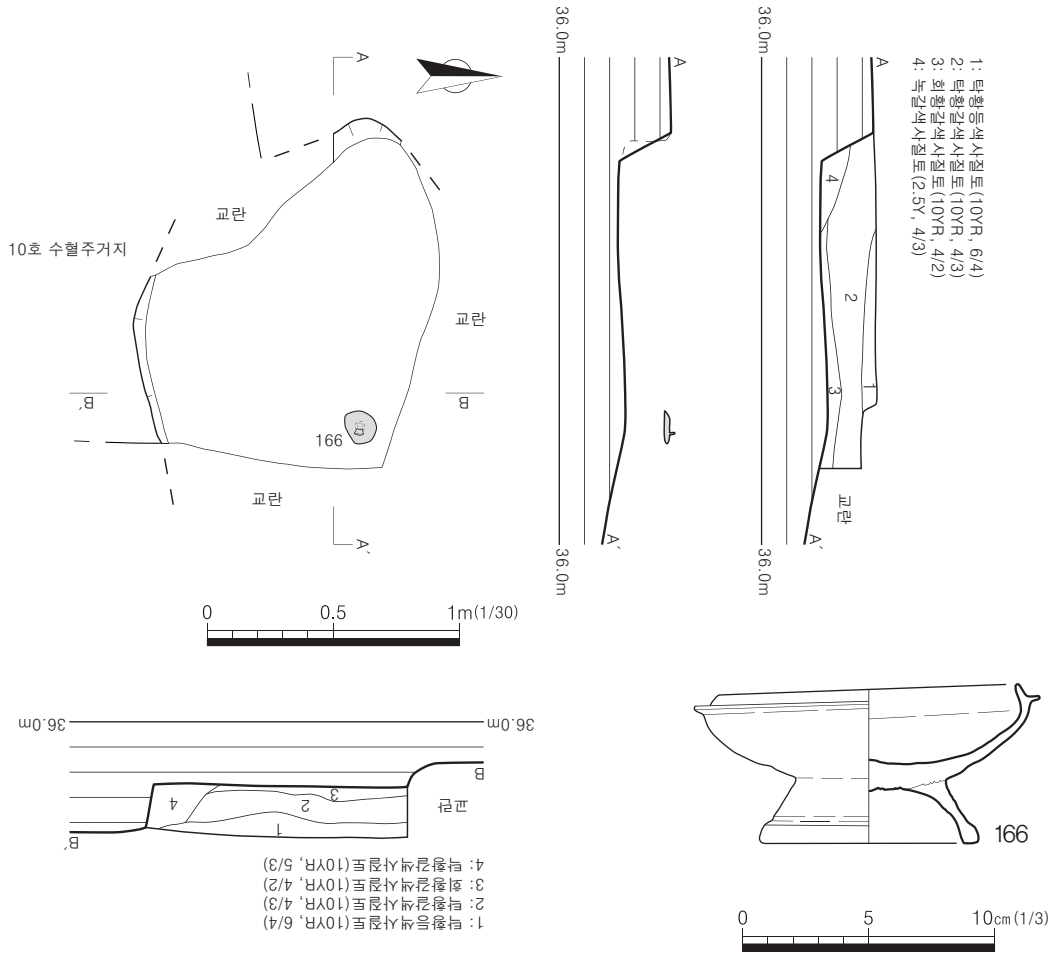
나. 유물

166. 유개고배(도면 47-166, 도판 37-166)

수혈의 동편에서 출토된 자색 경질의 유개고배로 기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사립과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대각부는 사선으

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뭉툭한 형태이며, 대각단 가까스로 얇은 홈이 1조 돌아간다. 배신은 둥근 형태이며, 뚜껑받이턱은 수평으로 돌출되어 있고, 구연은 내경한다. 배신부와 대각은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흔이 관찰되나, 소성 후의 기표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 정면흔 관찰이 어렵다. 배신부 내면과 대각부 등에서 짙흔이 관찰된다.

잔존높이 6.4cm, 복원구경 11.9cm, 복원저경 8.5cm, 두께 0.25~1.25cm



도면 47. 5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6)

(4) 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8, 도판 37-⑥~38-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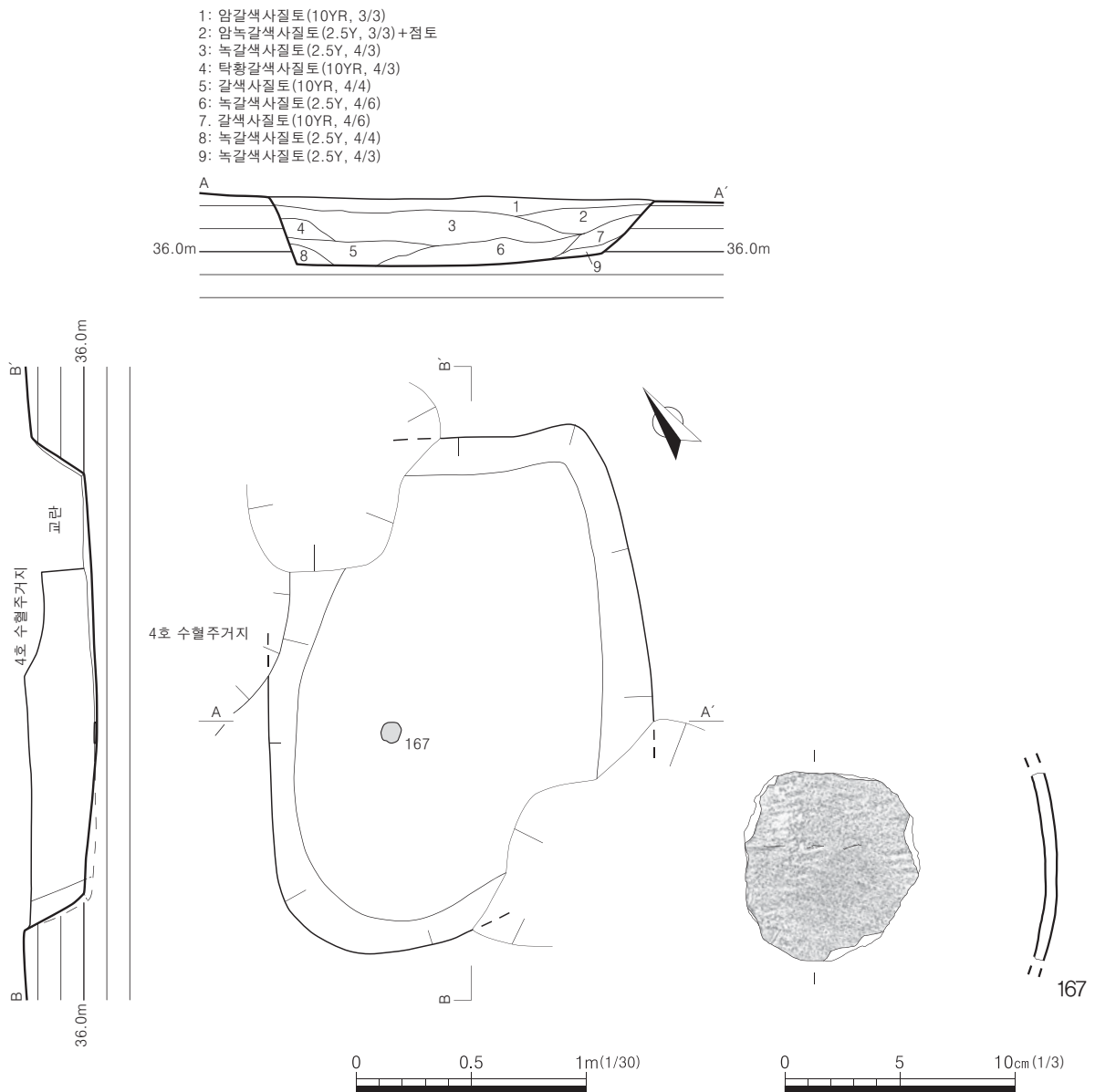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남동쪽에 치우쳐 위치(해발 36.2m)한다. 북서쪽으로 선축된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주거지의 남동벽 모서리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이외에 최근 교란으로 인하여 수혈의

북서벽과 남동벽 모서리가 일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남한강의 흐름과 평행하는 남-북(N-18°-E)방향이다.

규모는 길이(남-북) 216cm, 너비(동-서) 168cm, 최대깊이 29cm이다. 내부 층위는 녹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암녹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였으며, 벽체는 사선방향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유구의 규모 및 조성 방식 등을 보았을 때 저장과 관련된 수혈로 판단된다. 유물은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48. 6호 수혈유구 및 출토유물(167)

나. 유물

167. 동체부(도면 48-167, 도판 37-167)

수혈 중앙에서 출토된 흑회색 연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백색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 또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8.2cm, 두께 0.45~0.55cm

3) 지표수습유물

168. 중도식무문토기 호 구연부(도면 49-168, 도판 38-168)

지표에서 수습된 중도식무문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1/3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한 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경부를 중심으로 점토띠흔과 지두압흔이 관찰되며, 그 이하로는 횡사방향의 거친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종·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특히 구연부는 마연하듯 정면하여 기표면 상태가 상당히 부드럽다. 외면에 그을음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9.3cm, 복원구경 17.1cm, 두께 0.65~1.1cm

169. 호 저부(도면 49-169, 도판 38-169)

지표에서 수습된 황갈색 연질의 호 저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에는 승문과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승문에는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높이 10.2cm, 두께 0.4~0.7cm

170. 고배 대각부(도면 49-170, 도판 38-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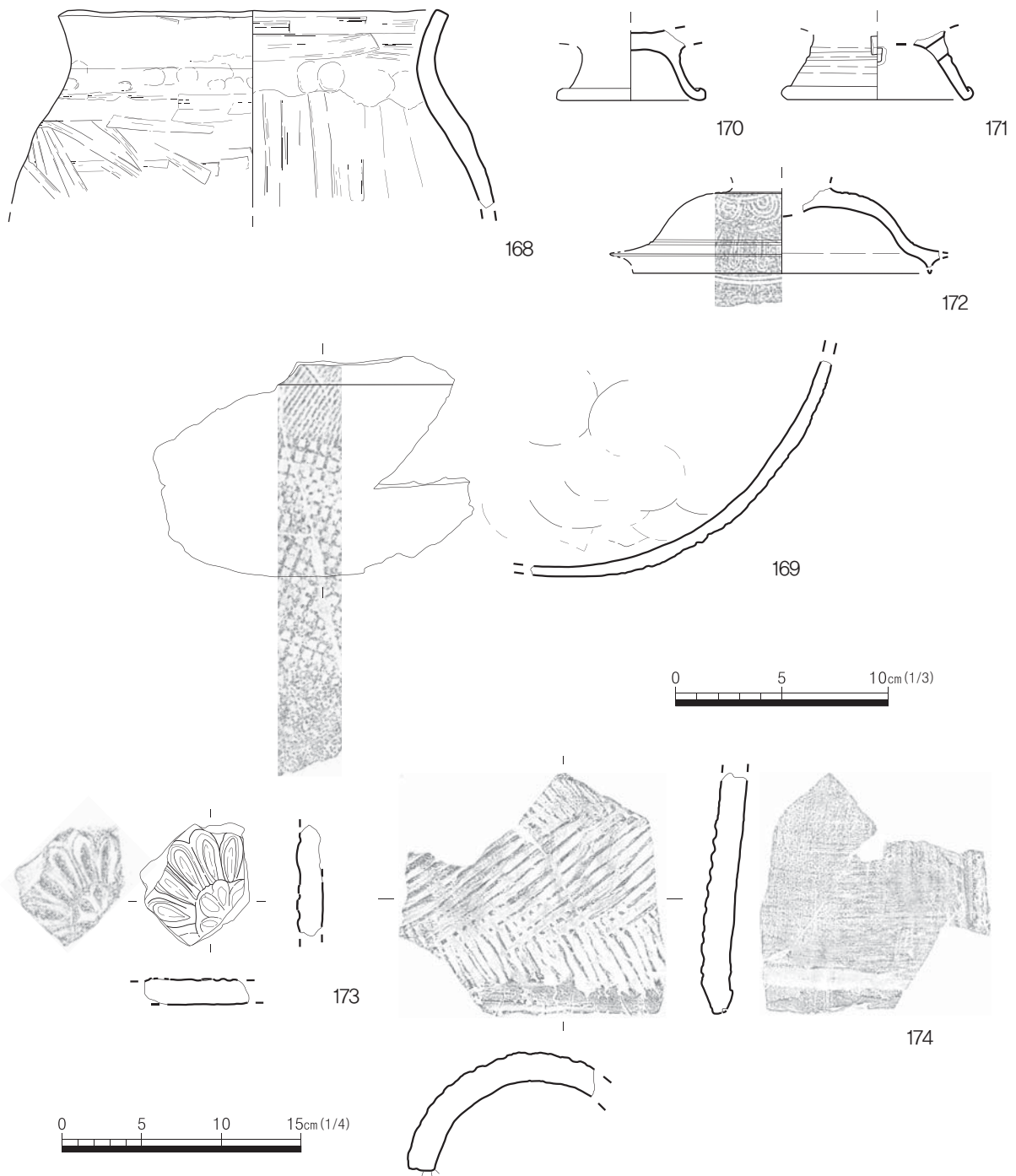
지표에서 수습된 내·외면 회청색, 속심 자색의 경질 고배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대각단은 밖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제작하였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3cm, 복원저경 7.0cm, 두께 0.35~0.8cm

171. 고배 대각부(도면 49-171, 도판 38-171)

지표에서 수습된 회색 경질의 고배 대각부편으로, 1/2 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대각부는 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며, 대각단은 점토를 밖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성형하였다. 대각부 중위에는 2조의 홈을 돌려 약한凹凸면을 이루게 하였고, 상위에는 0.6×0.8cm 크기의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내면에는 투창 제작 시 밀린 점토를 제거하여 기면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높이 3.25cm, 복원저경 8.3cm, 두께 0.45~1.05cm



도면 49. 지표수습유물(168~174)

172. 뚜껑(도면 49-172, 도판 38-172)

지표에서 수습된 회청색 결질의 뚜껑편으로 꼭지는 결실되었으며, 신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과 백색 석립이 다량 혼입된 조질의 점토이다. 신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려오다 드림부에서 수평으로 외반한다. 구연은 직립하는 형태이고, 안턱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뚜껑

꼭지는 단추형(또는 굽형)으로 추정된다. 문양은 신부 상위에는 원문류가, 중위에는 수적형문이 시문되어 있고, 드림부로 반전하는 경계면에는 2조의 흠이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하였다.

잔존높이 4.0cm, 복원구경 14.0cm, 두께 0.45~0.7cm

173. 수막새(도면 49-173, 도판 39-173)

지표에서 수습된 회색 연질의 중판연화문수막새로 막새부만 1/4 가량 잔존한다. 태토는 점토에 흑·백색 세석립이 혼입되어 조잡한 편이다. 연판은 중판 양식이며 잔존 편에서 내판 4개, 외판에 6개의 연화문이 확인된다. 막새 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하여 제작방식의 관찰이 어렵다.

잔존길이 6.8cm, 잔존너비 7.9cm, 두께 1.4~1.6cm

174. 수키와(도면 49-174, 도판 39-174)

지표에서 수습된 적갈색 연질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와 한쪽 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었다. 외면은 단판 타날구를 이용하여 어골문의 형태로 선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에는 비교적 울이 굵은 포목흔이 확인되며, 하단부에는 포를 두껍게 접어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 내측면은 물손질에 의해 포흔이 일부 지워졌다. 내·외면 하부 2.0cm 가량은 횡방향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와도는 내→외측으로 1/2 가량 그어 분할하였고, 파쇄면은 다듬어 정면하였다. 하단면에는 건조시 깔았던 모래가 붙어있다.

잔존길이 15.15cm, 잔존너비 11.7cm, 두께 1.6~1.9cm

IV. 조사성과

조사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이며, 오세현씨(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남한강변의 충적지에 해당되며, 2009년 실시된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지표조사'를 통해 '양평 상자포리 선사유적'으로 보고된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에서는 원삼국~한성백제시대凸자형 수혈주거지 1기·수혈유구 2기,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0기·수혈유구 4기 등 총 1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표 2】 원삼국~한성백제시대 유구 속성표

*()는 추정 및 잔존치

유구명	장(주)축방향	규모(cm)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길이×너비×깊이			
1호 수혈주거지	N-2°-E	740×640×46	凸자형	유개고배편, 외반구연소용, 평저소호, 심발형토기편, 장란형토기편 등	출입구, 부뚜막, 주혈
1호 수혈유구	-	60×8	원형	장란형토기편 등	-
2호 수혈유구	-	(275)×284×29	(방형)	중도식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	-

원삼국~한성백제시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수혈주거지의 경우 평면형태는 남벽 중앙부가 돌출된凸자형태이며, 북벽은 바닥면만 잔존해 있으나 바닥면 잔존양상 및 내부 주혈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육각형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출입구, 터널형의 부뚜막,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단경호,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유개고배, 대합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부뚜막은 주거지의 후벽인 북벽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노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시기는 조사지역 내에서 1기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시기 상정에는 무리가 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내부 출토유물, 부뚜막 시설만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늦은 시기 원삼국~한성백제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에서는 기원후 250~390년대 사이의 측정값이 가장 높게 확인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사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조사지역 내에서는 1기의 주거지만이 확인되었으나,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 외곽으로는 관련 문화층이 이어지고 있어 유구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인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에서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⁷¹⁾, 이 유적에서는 총 4개의 문화층(초기철기시대 이전·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 하

71) 한국문화재단, 2017.11,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부·삼국시대 상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하부 문화층에서 주거지 1기, 구 1기, 굴립
 주거지 2기, 수혈유구 6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확인된 유구 중 주거지는 조사지역과 동일한 육각형
 주거지로 추정⁷²⁾되고 있어 관련성이 검토된다.

【표 3】(통일)신라시대 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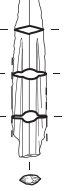






*()는 추정 및 잔존치

유구명	장(주)축방향	규모(cm)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길이×너비×깊이				
2호 수혈주거지	N-13°-W	598×548×30		방형	유개고배편, 대부완, 직구호, 기와편 등	ㄱ자형 구들(2)
3호 수혈주거지	-	(334)×(147)×22		-	시루편, 호 동체부편, 고배편 등	바닥 피열흔
4호 수혈주거지	N-9°-W	452×400×32		장방형	시루 저부편, 호 구연부편 등	T자형 구들, 주혈
5호 수혈주거지	-	(316)×(214)×24		-	고배 대각편, 호 동체부편, 파수 등	아궁이
6호 수혈주거지	N-3°-E	555×358×44		장방형	인화문토기편, 고배, 대부완, 소호, 기와편, 철정 등	주혈, 바닥 피열흔
7호 수혈주거지	-	(370)×(402)×14		(방형)	인화문토기편, 동이 구연부편, 완, 기와편, 석부 등	수혈, 주혈, 피열흔
8호 수혈주거지	N-1°-W	470×490×36		(방형)	인화문토기편, 대부완, 완, 병, 대상파수, 도가니, 철정 등	ㄱ자형 구들
9호 수혈주거지	N-22°-W	(200)×383×37		(방형)	완, 철정, 철촉 등	아궁이
10호 수혈주거지	N-10°-W	(392)×(264)×25		(방형)	세형동검, 대호편, 석추, 철도자 등	ㄱ자형 구들
11호 수혈주거지	N-32°-W	387×252×34		(방형)	유개고배편, 완 등	쪽구들
3호 수혈유구	N-3°-E	133×81×25		타원형	-	-
4호 수혈유구	-	63×55		원형	중도식무문토기 저부편, 토기 구연부편,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5호 수혈유구	-	(124)×(139)×20		-	유개고배편	-
6호 수혈유구	N-18°-E	216×168×29		장방형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

72) 조사지역의 북쪽 경계 외곽으로 유구가 연장되고 있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보고자는 동쪽으로 출입구가 조성된 육각형의 주거지로 추정 보고하였다.

(통일)신라시대 관련 유구는 수혈주거지 10기, 수혈유구 4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전역에서 총 10기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며 6호 수혈주거지는 장방형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52~579cm, 너비 332~542cm, 깊이 19~40cm이며, 2호 수혈주거지의 규모가 가장 크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 아궁이시설, 추정 노지, 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ㄱ’자(2호·8호·10호·11호) 내지는 ‘T’자 형태(4호)로 구분되며, 아궁이시설만 갖춘 주거지(9호)도 확인된다. 3호·7호 수혈주거지는 전체적으로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못하며, 바닥면에 피열면만 일부 관찰되고 있어 무시설식의 노지 내지는 아궁이의 잔존면으로 추정된다. 구들 및 아궁이 시설은 교란 및 석재 이탈로 인하여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못하나 잔존하는 고래열의 석재 및 석재 이탈흔, 바닥 피열흔 등으로 대략의 양상이 파악된다. 구들 및 아궁이 시설은 동벽(2호·4호·8호·9호)과 서벽(2호·10호)에 설치하였다. 2호 수혈주거지의 경우 동벽과 서벽에 각각 시설하였는데, 동벽의 경우 점토만을 이용하여 고래열을 조성하였으며, 서벽의 경우 석재와 점토를 이용하여 고래열을 마련하였다. 4호 수혈주거지는 동벽에 ‘T’자형태의 구들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나 주거지의 벽체 교란으로 인하여 잔존양상이 양호하지 못하다. 수혈 및 주혈은 주거지의 벽체에서 일부 관찰된다.

유물은 인화문토기편을 비롯한 대부분, 단각고배편, 기와편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10호 수혈주거지의 경우 남벽에서 세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는데, 재가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경기지역의 세형동검 출토 예는 지표수습(서울 상일동·영등포⁷³⁾), 청동기시대 지석묘(양평 상자포리 유적⁷⁴⁾),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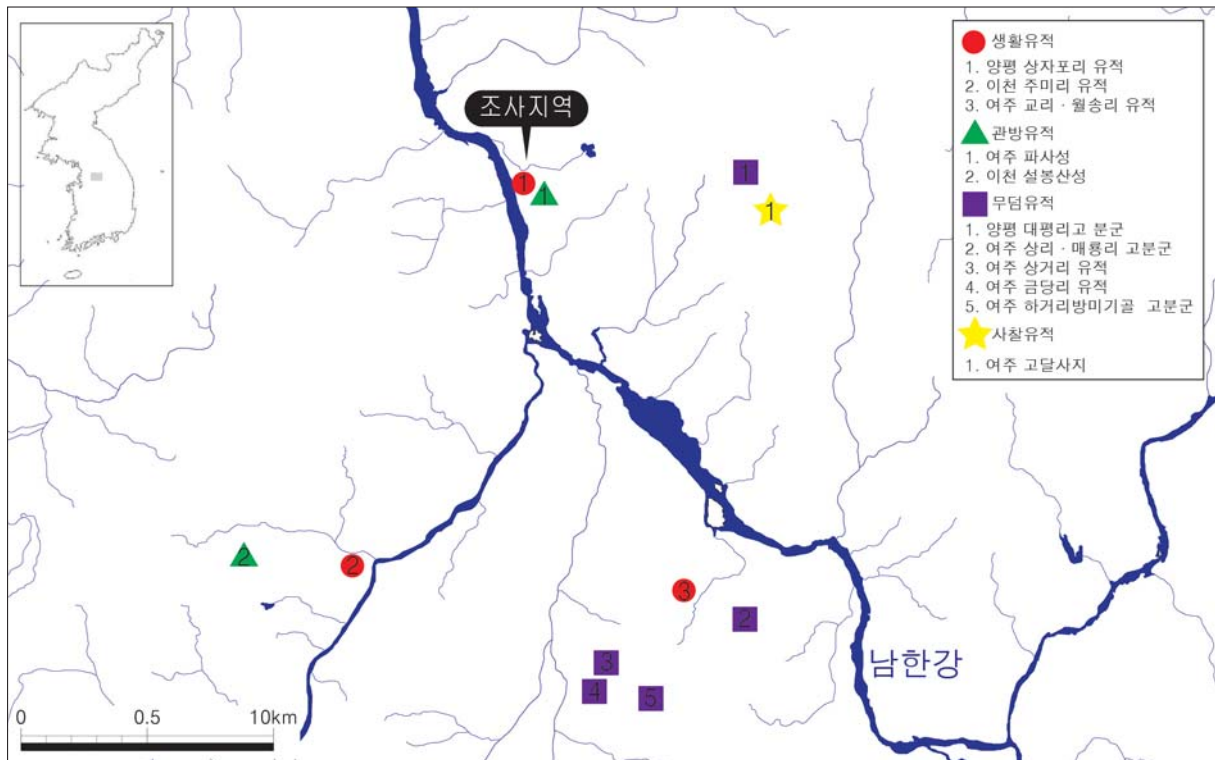
						
조사지역 10호 수혈주거지	양평 상자포리 지석묘	인천 검암동 1호 토광묘	안성 만정리 4지점 1호	파주 운정 1호	서울 상일동 지표	서울 영등포 지표

도면 50. 조사지역 및 경기도 일원 출토 세형동검

73) 韓炳三, 1968, 「새로 發見된 細形銅劍」 『考古學』 第一輯, 韓國考古學會.
金元龍編, 1973, 『朝鮮古蹟圖譜 別冊』.

74) 秦弘燮·崔淑卿, 1974, 「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群發掘報告」 『八堂 昭陽潭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철기시대 토광묘(인천 검암동 유적⁷⁵⁾, 파주 운정 유적 I⁷⁶⁾, 안성 만정리 신기 유적⁷⁷⁾에서 확인되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아마도 당시 지표에서 수습한 후 재가공해 사용하였거나 주거지 폐기 이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검을 제외한 유물들은 대부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되며 8호 수혈주거지 출토 연속종장문 인화문토기 등은 7세기 후반경의 특징을 나타내어 삼국시대 신라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판단된다.



도면 51. 조사지역 및 주변 남한강 일대 통일신라시대 유적 분포도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유적은 원삼국~(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생활유적이다. 원삼국~한성백제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유구의 수량이 적으나, 조사지역 북쪽 경계 외곽으로 관련 문화층이 연결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사례도 있는 바, 추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지역 주변으로 대단위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인근의 파사성(남동쪽으로 약 1.5km 이격)과 관련성이 검토된다. 그리고 조사지역 주변의 양평 및 여주 등 남한강 일원에 이 시기 고분군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바, 향후 파사성 및 양평군 일대의 관련 시기 자료 등을 통해 남한강 유역의 (통일)신라 진출 및 점유과정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5)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仁川 黔岩洞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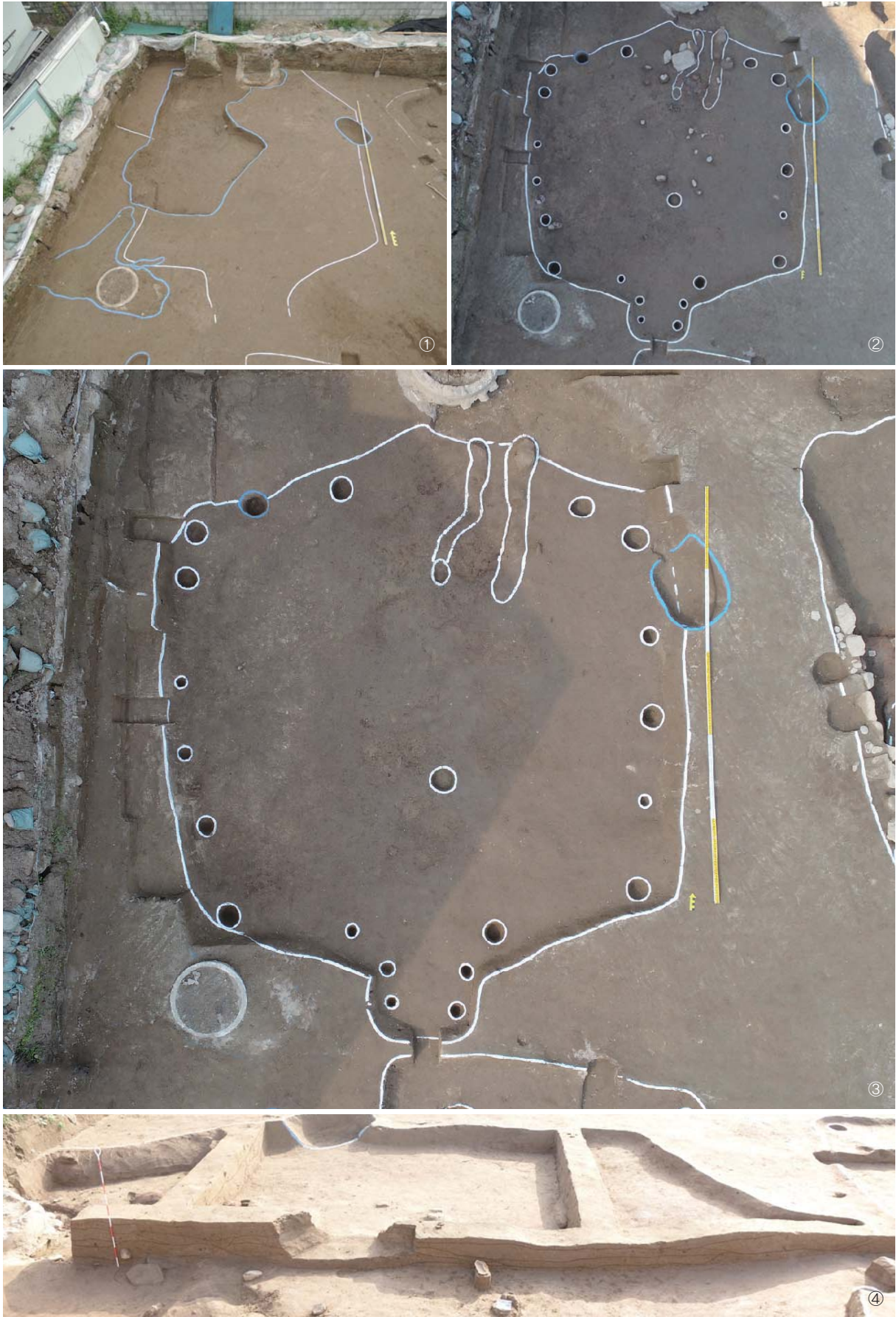
76) 中央文化財研究院, 2011, 『坡州 雲井(2) 宅地開發地區 內 坡州 雲井遺蹟 I -3·4·5·6地點-』.

77)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安城 萬井里 新기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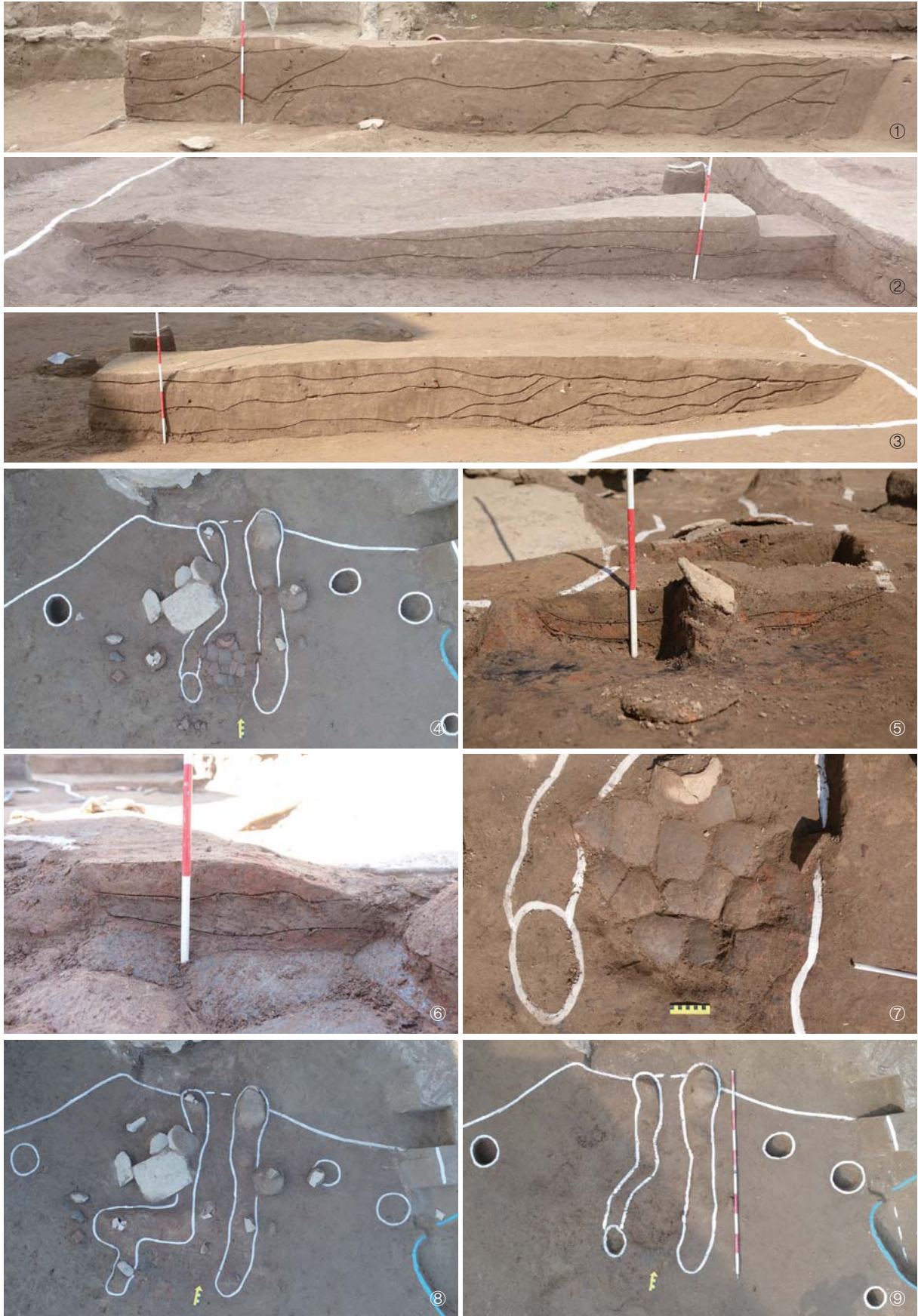
도 판



도판 1. 조사지역 전경(①조사 중, ②조사 후)



도판 2. 1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도판 3. 1호 수혈주거지(①~③동-서 토층, ④아궁이 조사 전, ⑤·⑥아궁이 토층, ⑦아궁이 내 유물출토상태, ⑧아궁이 석재 제거 전, ⑨아궁이 조사 후)



도판 4.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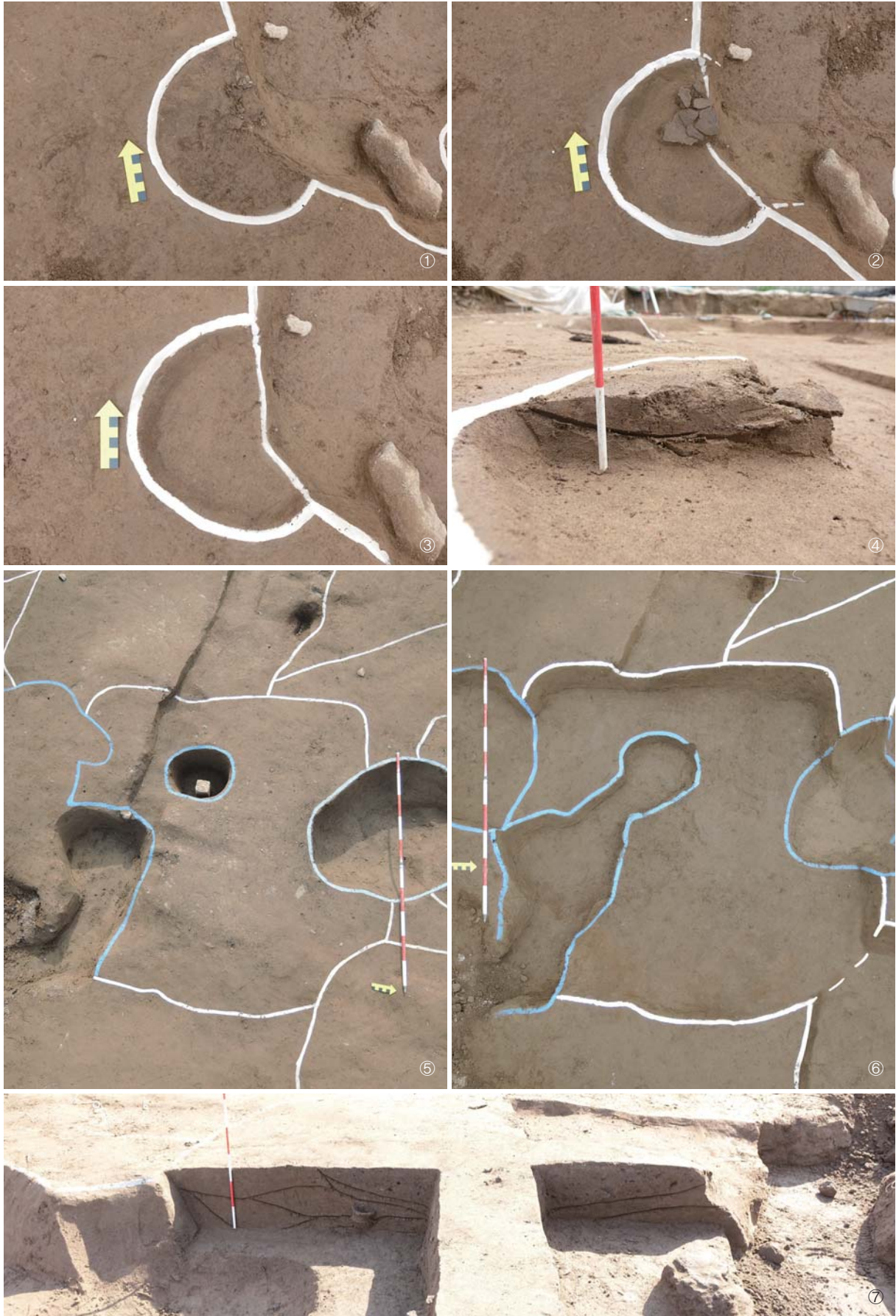
도판 5.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9~16)



도판 6.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7~24)



도판 7. 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25~29),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0~31)



도판 8. 1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토층), 2호 수혈유구(⑤조사 전, ⑥조사 후, ⑦남-북 토층)



도판 9. 2호 수혈유구(①동-서 토층) 및 출토유물(32~41)



도판 10.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2~45), 2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도판 11. 2호 수혈주거지 아궁이1(①조사 전, ②토층, ③조사 중, ④조사 후), 아궁이2(⑤조사 전, ⑥조사 중, ⑦~⑨토층)



도판 12. 2호 수혈주거지 아궁이1(① · ②조사 후), 전경(③조사 후) 및 출토유물(4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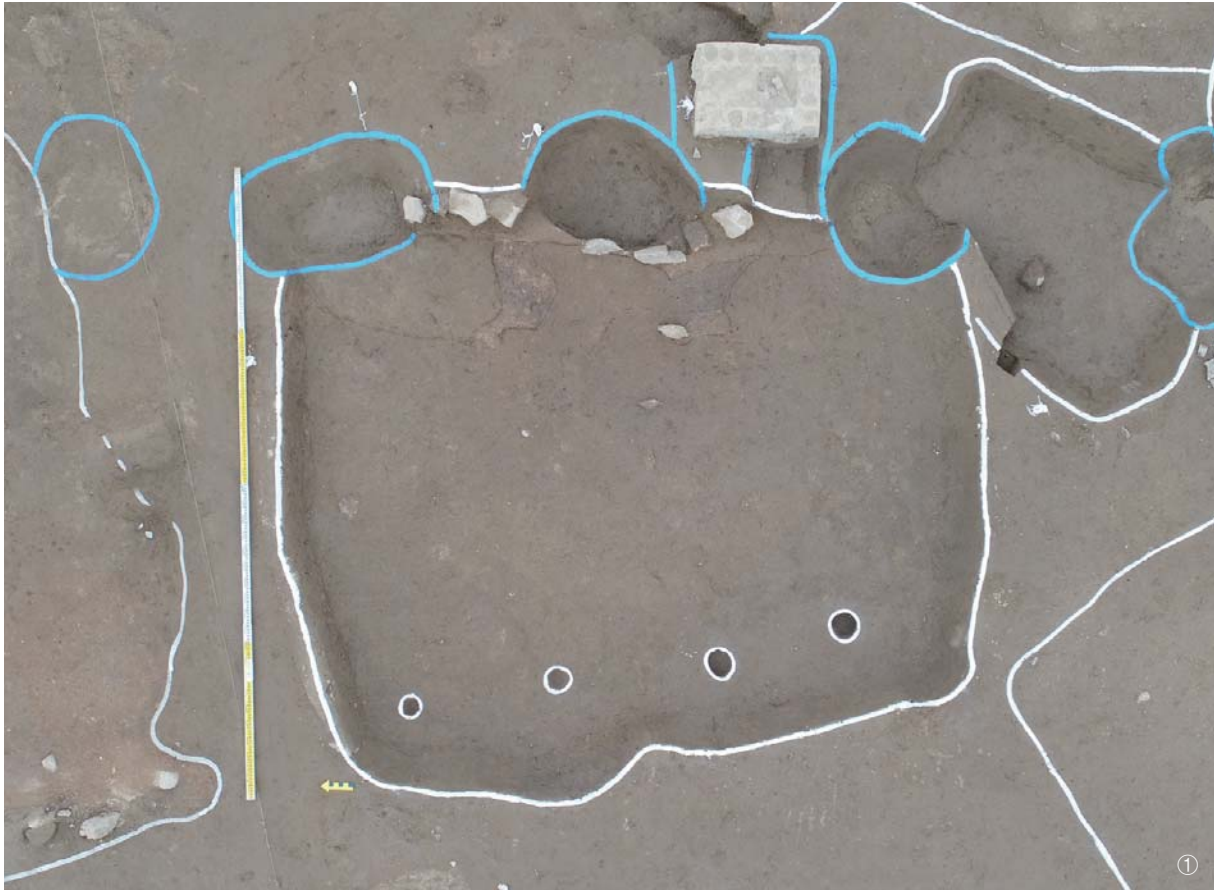
도판 13. 2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49~62)



도판 14. 3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⑥피열면 세부, ⑦유물출토 상태) 및 출토유물(63~65)



도판 15. 3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6~74)



도판 16. 4호 수혈주거지(① · ②조사 중)



도판 17. 4호 수혈주거지(①조사 후, ②·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도판 18. 4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뒤편돌 제거 후 조사 전, ②·③토층, ④세부, ⑤조사 후), 주혈(⑥~⑨토층) 및 출토 유물(75~79)



도판 19. 5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점토 제거 전, ③조사 후, ④남-북 토층, ⑤동-서 토층)



도판 20. 5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토층, ④추정 지각) 및 출토유물(80~84)



도판 21. 6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추가 하강 후, ④조사 후, ⑤·⑥남-북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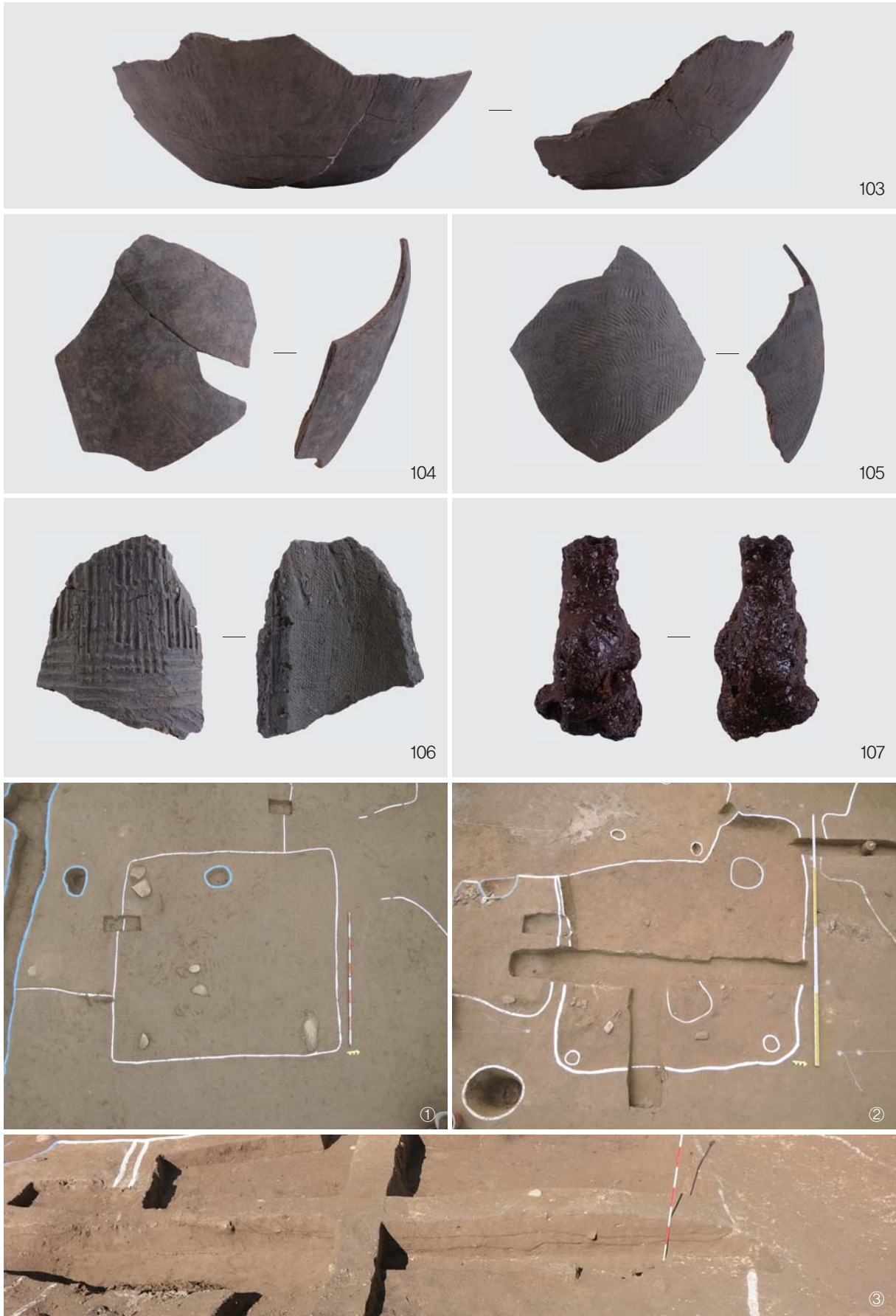
도판 22. 6호 수혈주거지(①~③동-서 토층, ④·⑤추정 아궁이 피열흔, ⑥~⑧주혈 토층, ⑨·⑩유물출토상태)



도판 23.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85~93)



도판 24.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94~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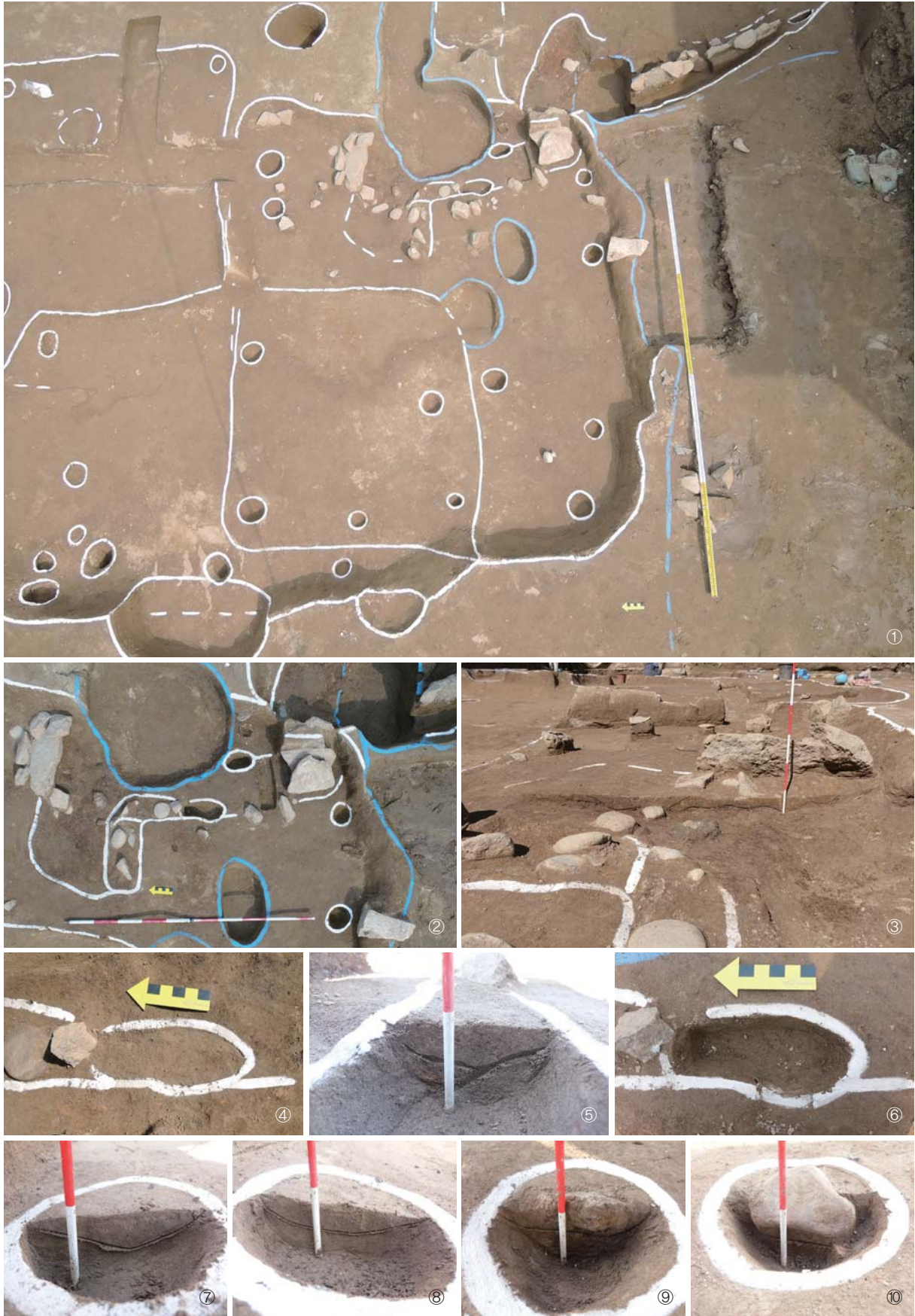
도판 25. 6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03~107), 7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남-북 토층)



도판 26. 7호 수혈주거지(①동-서 토층, ②조사 후, ③추정 아궁이 구들, ④추정 아궁이 피열면, ⑤·⑥주혈 토층, ⑦주혈 내부 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108~110)



도판 27. 7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1~117), 8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도판 28. 8호 수혈주거지(①조사 후, ②아궁이 조사 후, ③아궁이 토층, ④벽석 조사 전, ⑤벽석 토층, ⑥벽석 조사 후, ⑦~⑩주혈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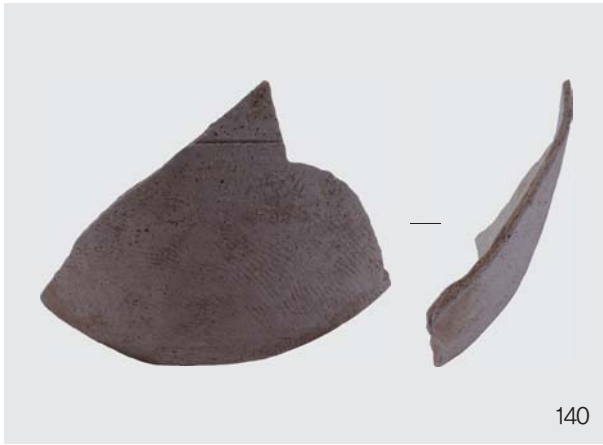
도판 29.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18~127, 129)



도판 30. 8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28, 130~132), 9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⑤아궁이 조사 전, ⑥아궁이 조사 후, ⑦아궁이 내 붓돌 세부)



도판 31. 9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33~139), 10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140



141



142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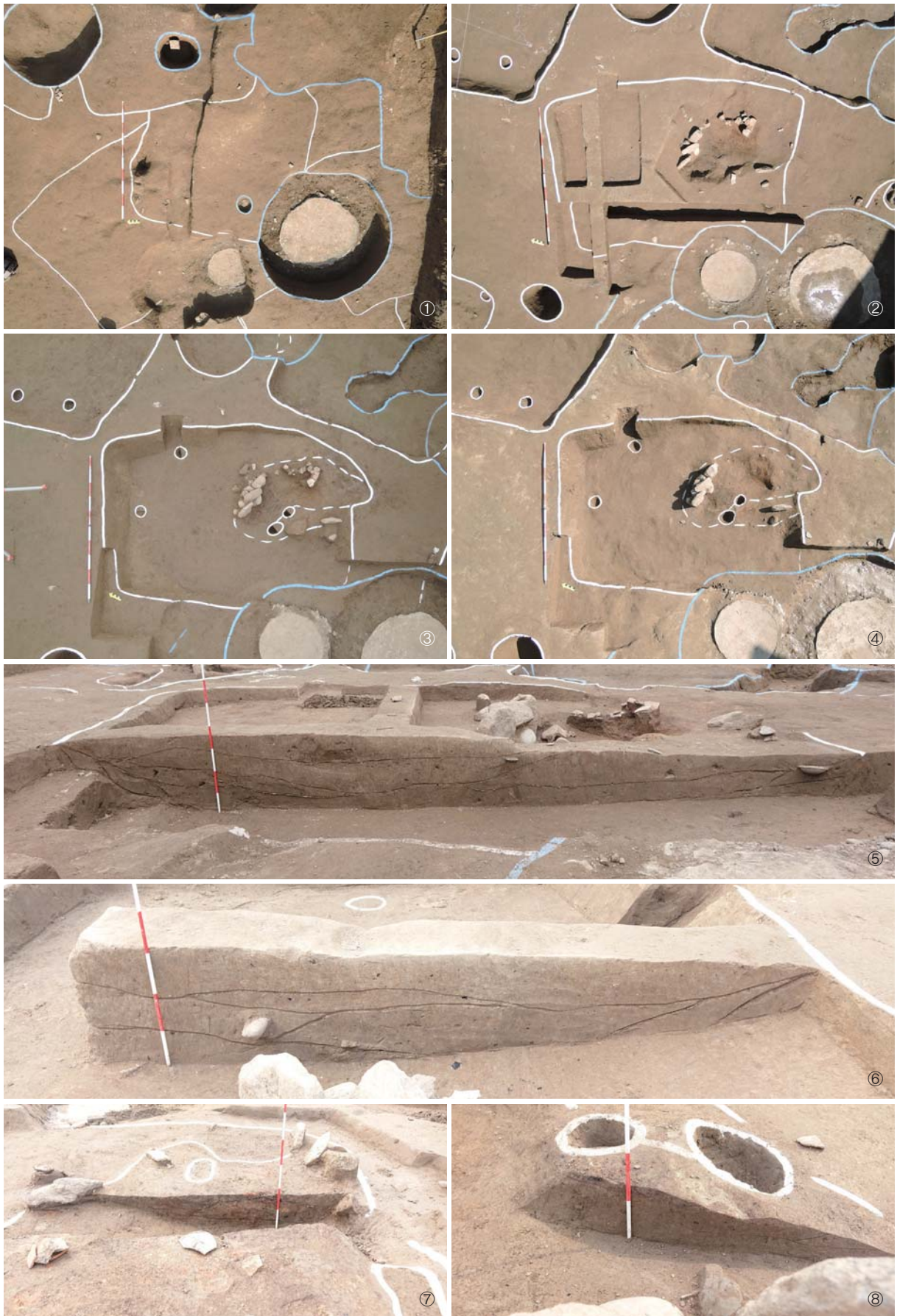


144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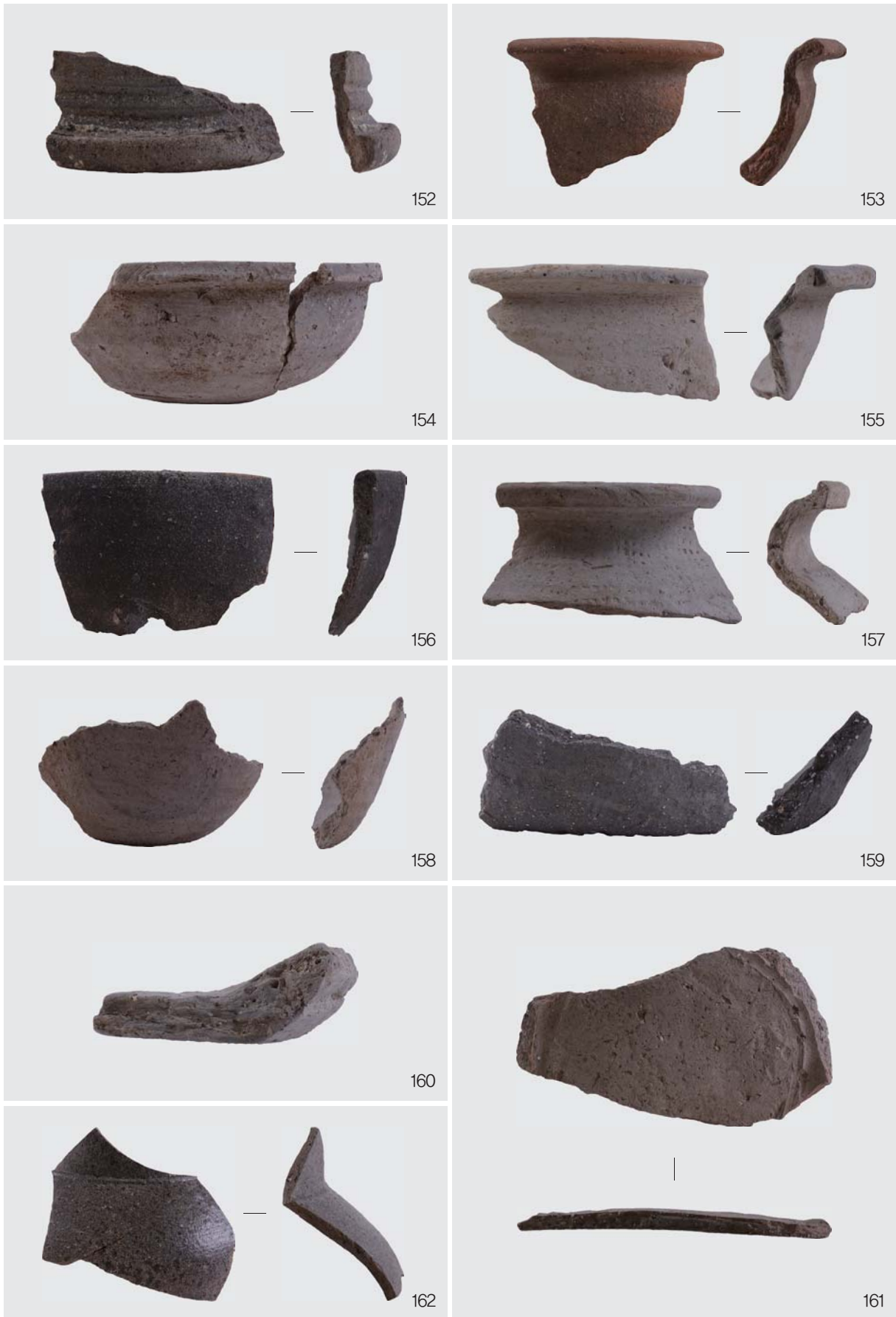
도판 32. 10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40~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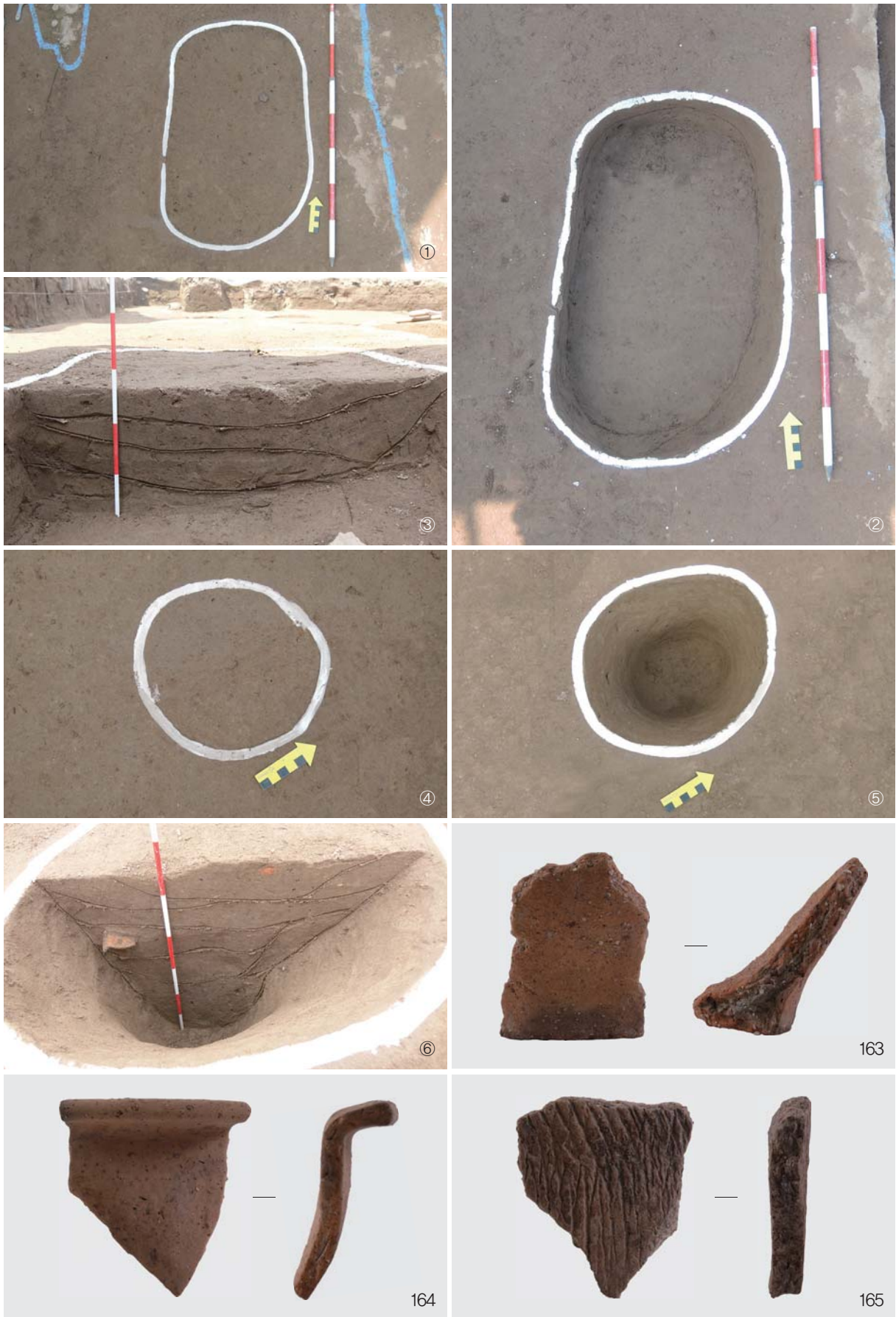
도판 33. 11호 수혈주거지(①조사 전, ②·③조사 중, ④조사 후, ⑤남-북 토층, ⑥동-서 토층, ⑦·⑧아궁이 토층)



도판 34. 11호 수혈주거지 아궁이(①조사 전, ②조사 중, ③조사 후) 및 출토유물(146~151)



도판 35. 11호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52~162)



도판 36. 3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토층), 4호 수혈유구(④조사 전, ⑤조사 후, ⑥토층) 및 출토유물(163~165)



도판 37. 5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③남-북 토층, ④동-서 토층, ⑤유물출토상태) 및 출토유물(166), 6호 수혈유구(⑥토층) 및 출토유물(167)



도판 38. 6호 수혈유구(①조사 전, ②조사 후), 지표수습유물(168~172)



도판 39. 지표수습유물(173~174), 학술자문회의 광경(①~③)

부부

1.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 지원 발굴조사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분석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분석

박수경 · 조남철

-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

목 차

- I. 머리말
- II. 과학적 분석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 III. 맺음말
- IV. 참고문헌

I. 머리말

한반도에서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약 천년부터로 처음으로 사용된 금속은 청동이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기원전 3세기 초 북쪽으로부터 철기가 들어와 시기적으로 철기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철기가 들어온 다음에도 남쪽에서는 청동기가 계속 제작되다가 철기가 본격적으로 주조, 유행 되는 시기 1세기 정도가 되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이난영, 2000). 금속은 대개 합금의 형태로 사용 되었고, 이 중 가장 출토빈도가 높은 것은 Fe-C 합금유물과 Cu-Sn 청동유물이다. 금속유물은 재료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용된 원료나 제작기법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 금속기 제작기술과 함께 발달해온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금속 유물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1점이다. 과학적 분석은 X-Ray 촬영, 금속현미경관찰, SEM-EDS 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금속유물의 원료와 제작기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과학적 분석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이 된 유물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 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1점이다.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료를 소량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유물과 적용된 분석방법을 표 1과 그림 1로 나타내었다.



그림 1.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

표 1. 분석 대상 유물

연번	유물번호	유구명	유물명	수량	비고
1	1	양평군 개군면	세형동검	1	○ X-ray 관찰 ○ 미세조직 분석 ○ 납동위원소비 분석

2. 분석방법

1) X-ray 관찰

토세형동검의 내부구조와 유물의 재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X선 발생장치(Soft X-Ray radiography, SOFTEX M-150)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2) 미세조직 분석

세형동검에서 소량 채취한 시료는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mounting)하여 SiC 연마지의 조밀 순서에 따라 #220, 400, 800, 1000, 1200, 2000, 2400, 4000의 순서대로 연마한 후 물로 세척하였다. 그 후 마무리 미세연마는 3 μ m, 1 μ m(DP-Spray, Struers)를 사용하여 스크래치가 없을 때 까지 실시하였다. 연마가 완료된 청동시료 중 금속심이 남아있는 시료는 염화철 200g를 염산 6ml와 Ethyl Alcohol 100ml에 혼합한 용액으로 부식시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금속현미경(Metallurgical Microscope, Leica DM 2500)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SEM-EDS(SEM : MIRA3, TESCAN / EDS : QUANTA300, BRUKER) 분석을 통해 조직별 성분을 분석·비교하였다. 분석시료들은 백금(Pt)으로 코팅하여 시료의 전도도를 높이는 한편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3) 납동위원소비

세형동검에 포함된 납동위원소비를 측정하기 위해 열이온화질량분석(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 Model : VG Sector 54-30)을 실시하였다. 시료 표면의 흙과 부식물을 제거한 후, 약 3mg정도 시료를 데프론 바이알에 넣고 정제된 왕수를 2~3ml 첨가하여 가열판에 가열시킨다. 바이알 뚜껑을 열고 가열 후 건조시키고, 6N-HCl 2ml정도를 사용하여 다시 건조 시킨 후, 1N HBr 1ml 정도에 녹였다. 원심분리시킨 후 녹인 시료를 음이온 교환수지(AG1-X8, Chloride form, 100-200#)와 1N HBr을 사용하여 납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납을 Re single filament에 얹어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를 사용하여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준물질(NBS SRM 981)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보정하였으며, 분석과정의 총 바닥 값(total blank)은 1ng이하이다.

3. 분석결과

1) X-ray 관찰

X-Ray 관찰 결과 눈에 띄는 균열은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인(劍刃)부가 부식으로 인하여 균질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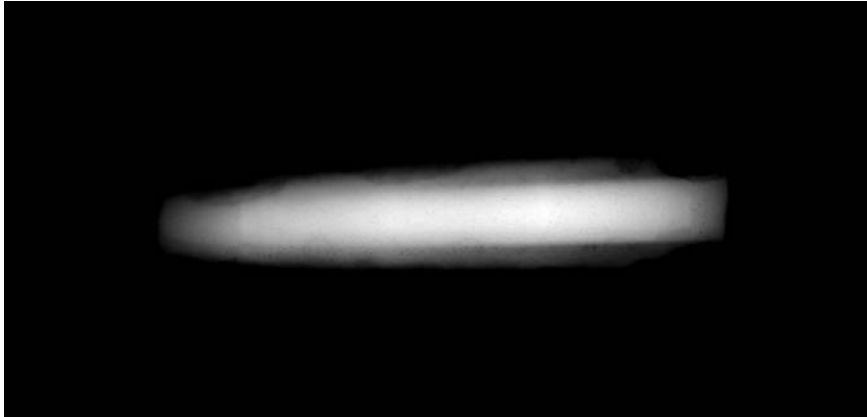


그림 2. 양평균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 X-ray 사진(60kV, 1.5mA, 3.0sec)

2) 미세조직 분석

그림 3은 양평균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유물번호 1번)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금속조직 주변으로 부식층이 두껍게 발달해 층상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금속조직 내에 부식이 심하여 확실하게 상을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입자 형태의 δ 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alpha+\delta)$ 공석상이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세조직이 균질하게 성장해 있는데, 이는 균질한 용탕이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내에 인위적인 가공이나 열처리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주조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열처리나 단조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직상에서 크고 작은 점들은 주물공이며, 작고 검은 원형의 점은 납의 입자들이다. 주물공이 조직 내부에 있는 것은 용탕 중에 함유된 가스가 거푸집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응고 시 액상에서 방출되어 주물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입 시 외부 공기의 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기가 큰 기공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동검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여 공기의 빠짐이 원활했으며, 용탕을 거푸집에 주입하는 속도가 느려 외부 공기가 혼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학수, 유혜선, 2009).

SEM image를 관찰한 결과(그림 4,5) $(\alpha+\delta)$ 공석상 과 δ 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다수의 Hole과 납이 편석된 부분이 관찰된다. 1-01은 SEM 분석영역 전체를 EDS로 면분석한 결과로 유물의 평균적인 성분조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석 결과 양평균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

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유물번호 1번)은 부식이 심하여 C와 O의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Cl이 검출되며, 주성분 원소의 함량이 일반적인 세형동검 보다 적게 검출된다. 4.9wt%Cu-14.3wt%Sn-1.2wt%Pb의 조성을 보이는 삼원계 합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1-02는 Sn가 17.9wt% 검출되어 Sn의 함량이 매우 높은 δ 상으로 분석되었으며 1-03은 Sn의 함량이 많은 ($\alpha+\delta$) 공석상으로 분석되었고 1-04는 Pb이 8.68wt% 검출되어 납이 편석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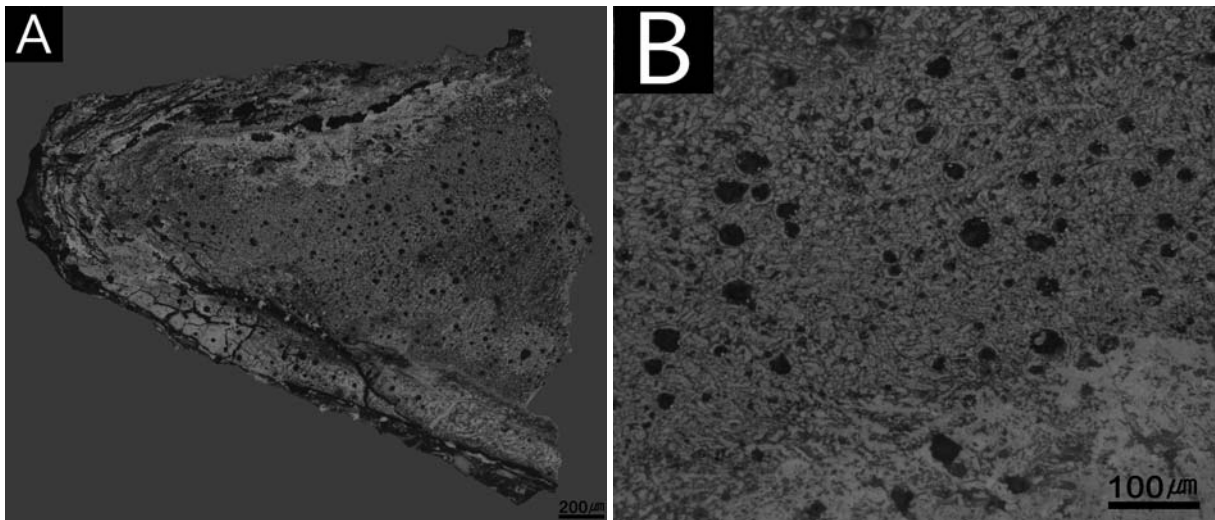


그림 3.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의 미세조직; (A) 시료전체(시료전체($\times 50$)), (B) 금속심의 수지상구조($\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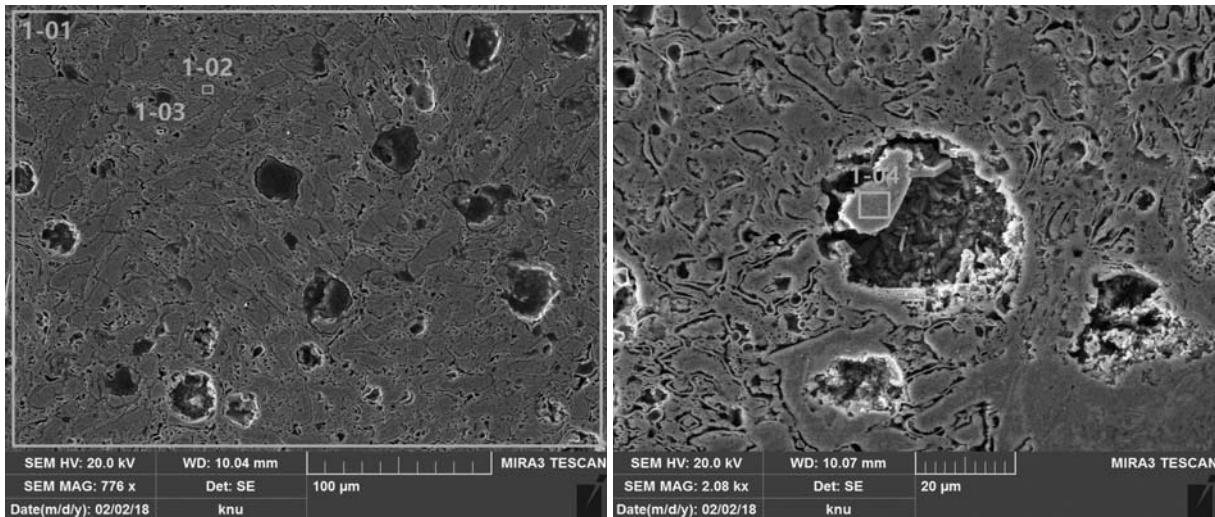


그림 4.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의 SEM-image

그림 5.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의 SEM-image

표 2. 양평군 개군면 출토 검파형동기(유물번호 18번)의 EDS 분석결과

분석위치	성분(wt%)											
	C	O	Mg	Al	Si	S	Cl	Fe	Cu	Sn	Pb	As
01월 01일	31.14	41.35	0.22	0.13	0.83	0.78	3.72	1.39	4.93	14.31	1.2	-
01월 02일	25.33	44.82	0	0	0.26	0.28	3.97	1.08	3.54	17.88	2.8	-
01월 03일	68.71	18.45	0	0.04	1.03	0.25	2.19	1.46	1.36	6.03	0.42	-
01월 04일	13.86	62.14	-	0.18	-	11.38	0	0.02	1.1	0.1	8.68	2.54

3) 납동위원소비

고대 청동기는 대부분 구리와 주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납을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청동에 납을 첨가하는 목적은 주조할 때 유동성을 좋게 하고 용융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값비싼 주석을 얻기 어려워 대신 납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렇듯 청동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납은 당시의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용도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하여 첨가하지만 동시에 이 납을 언제, 어디서 입수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강형태 외, 2002).

청동 유물의 산지추정 연구는 청동에 포함된 납의 동위원소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청동에 포함된 납의 산지를 연구함으로써 재료의 원산지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의 교역 및 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지현, 2007). 납동위원소의 존재량과 그 비는 암석 중에 존재하는 우라늄, 토륨, 납의 양과 공존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며, 각 광산마다 고유한 값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Pb-204의 양과 Pb-206, Pb-207, Pb-208의 양을 측정하고 이를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납 광산의 납동위원소비와 비교함으로써 유물의 산지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히라오 요시미츠, 2001).

본 보고서에서는 청동유물에 포함된 납의 산지 추정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방연석 영역에 분석하고자 하는 청동유물의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함께 도식화해 납 원료의 산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했다(馬淵久夫, 平尾良光, 1983). 두 번째는 한국, 중국, 일본 방연석 시료 134점의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다변수분석법 중 선형판별식분석법(SLDA)을 사용하여 분류한 그래프를 이용하였다(馬淵久夫, 平尾良光, 1987). 선형판별식분석으로 구한 판별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분석시료의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넣어 계산된 판별점수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의 위치가 분석시료의 납 산지인데 이 위치는 판별함수에서 얻은 X축의 판별점수(DS1j)와 Y축의 판별점수(DS2j)로 정해진다(강형태, 2003).

$$DS_{1j} = -0.571X_{A_j} + 1.916X_{B_j} - 0.091X_{C_j} + 8.292X_{D_j} + 14.24X_{E_j} - 53.13$$

$$DS_{2j} = 1.025X_{A_j} + 3.231X_{B_j} - 0.487X_{C_j} + 7.280X_{D_j} + 3.140X_{E_j} - 63.33$$

$$(X_{A_j} = {}^{206}\text{Pb}/{}^{204}\text{Pb}, X_{B_j} = {}^{207}\text{Pb}/{}^{204}\text{Pb}, X_{C_j} = {}^{208}\text{Pb}/{}^{204}\text{Pb}, X_{D_j} = {}^{207}\text{Pb}/{}^{206}\text{Pb}, X_{E_j} = {}^{208}\text{Pb}/{}^{206}\text{Pb})$$

세 번째는 한반도 남부의 납 광산에서 215개의 방연석 샘플을 채취하여 납동위원소비를 분석, 분류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Youn-Joong Jeong 외, 2012), 이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에서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납동위원소비 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유물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청동유물의 열이온화질량분석(TIMMS)결과와 다변수분석법 중 선형판별분석법으로 구한 판별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청동유물의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

연번	유물명	납동위원소비					판별점수	
		$^{206}\text{Pb}/^{204}\text{Pb}$	$^{207}\text{Pb}/^{204}\text{Pb}$	$^{208}\text{Pb}/^{204}\text{Pb}$	$^{207}\text{Pb}/^{206}\text{Pb}$	$^{208}\text{Pb}/^{206}\text{Pb}$	DS1j	DS2j
1	세형동검	18.77	15.693	39.487	0.836	2.104	3.72	1.39

유물에 사용된 납의 산지추정을 위해 첫 번째로 한국, 중국, 일본의 방연석 134점의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해 도식화한 $^{206}\text{Pb}/^{204}\text{Pb}$ vs $^{207}\text{Pb}/^{204}\text{Pb}$ (그림 6), $^{207}\text{Pb}/^{206}\text{Pb}$ vs $^{208}\text{Pb}/^{206}\text{Pb}$ (그림 7) 그래프를 이용하였다(馬淵久夫, 平尾良光, 1983). 두 번째로는 선형판별분석법(SLDA)을 사용하여 분류한 그래프(그림 8)를 이용하였으며 양평군 개군면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납동위원소비를 각 그래프에 대입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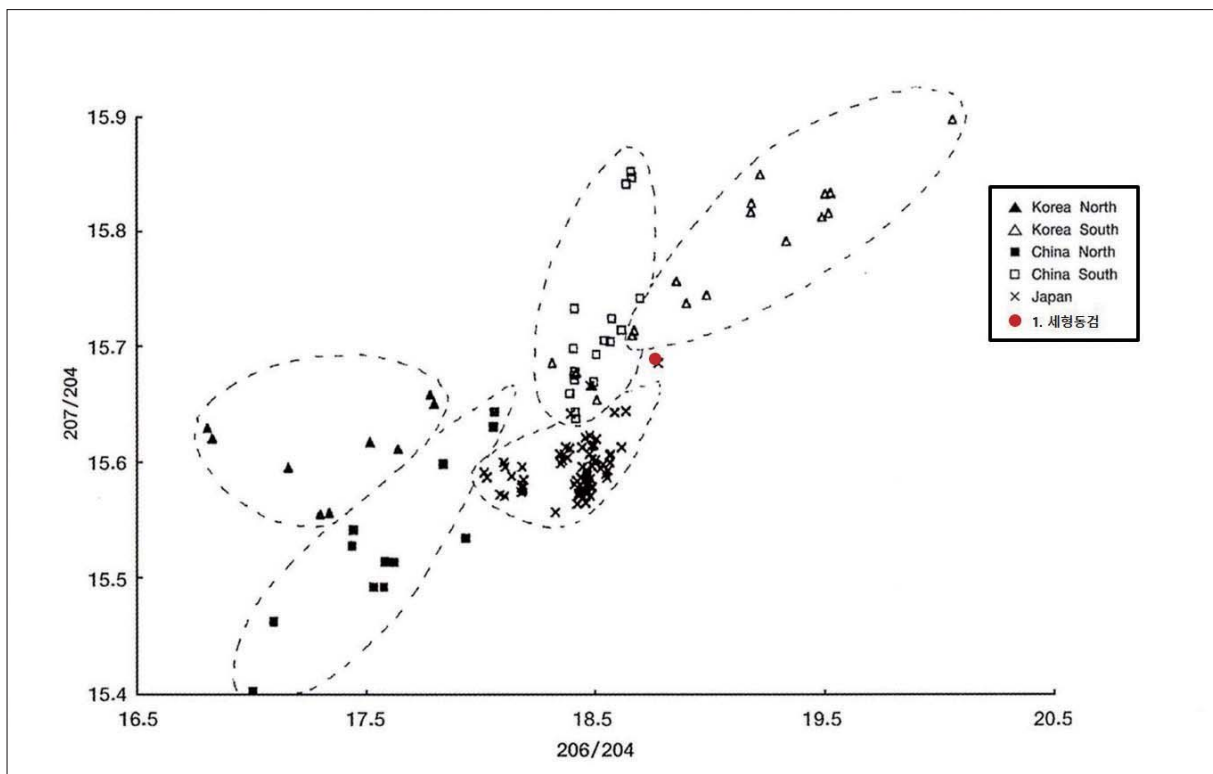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중국, 일본 방연석의 $^{206}\text{Pb}/^{204}\text{Pb}$ vs $^{207}\text{Pb}/^{204}\text{Pb}$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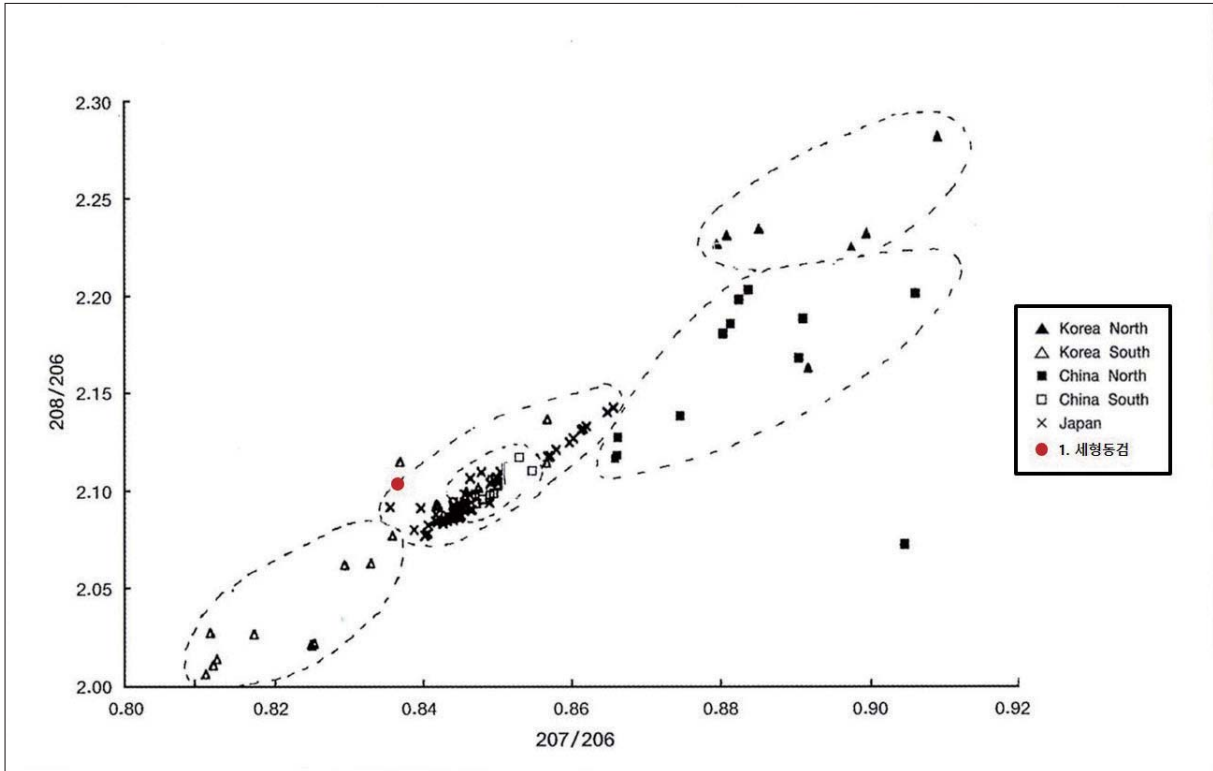


그림 7. 한국, 중국, 일본 방연석의 $^{207}\text{Pb}/^{206}\text{Pb}$ vs $^{208}\text{Pb}/^{206}\text{Pb}$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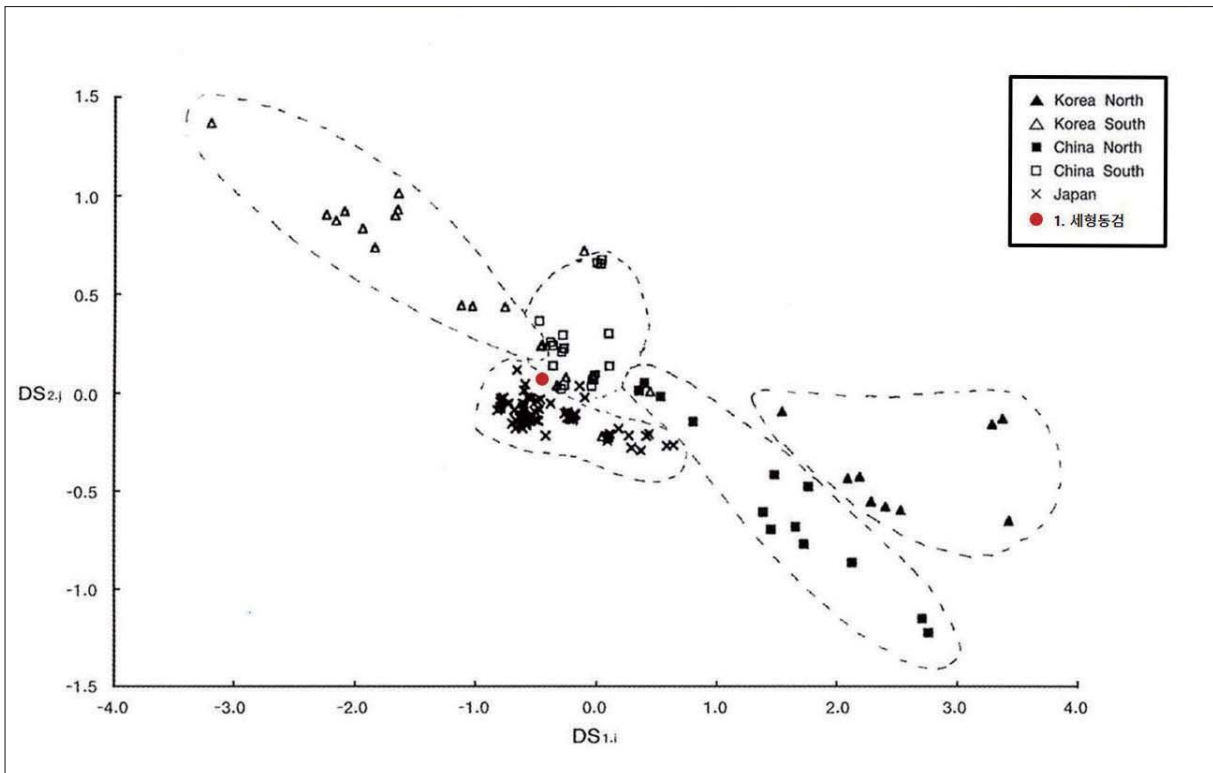


그림 8. 선형판별식 분석에 의한 한·중·일 방연석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세 번째로 남한의 납 광산에서 215개의 방연석 샘플을 채취하여 납동위원소비를 분석, 분류한 데이터(Youn-Joong Jeong, 2012)를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에 양평군 개군면 출토 세형동검의 납동위원소비 값을 대입해 보았다(Zone 1 : 경상분지, 2 : 북동 영남지괴, 동태백분지, 3 : 중·남서 영남지괴, 서태백분지, 옥천변성대, 4 : 서부 경기지괴).

남한지역 방연석의 $^{206}\text{Pb}/^{204}\text{Pb}$ vs $^{207}\text{Pb}/^{204}\text{Pb}$ 분포도(그림 9)와 $^{206}\text{Pb}/^{204}\text{Pb}$ vs $^{208}\text{Pb}/^{204}\text{Pb}$ 분포도(그림 10)를 나타낸 그래프에 분석한 납동위원소비를 대입한 결과 양평군 개군면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Zone 2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Zone 2는 북동 영남지괴, 동태백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양평군 개군면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경북지역의 방연석을 이용하여 제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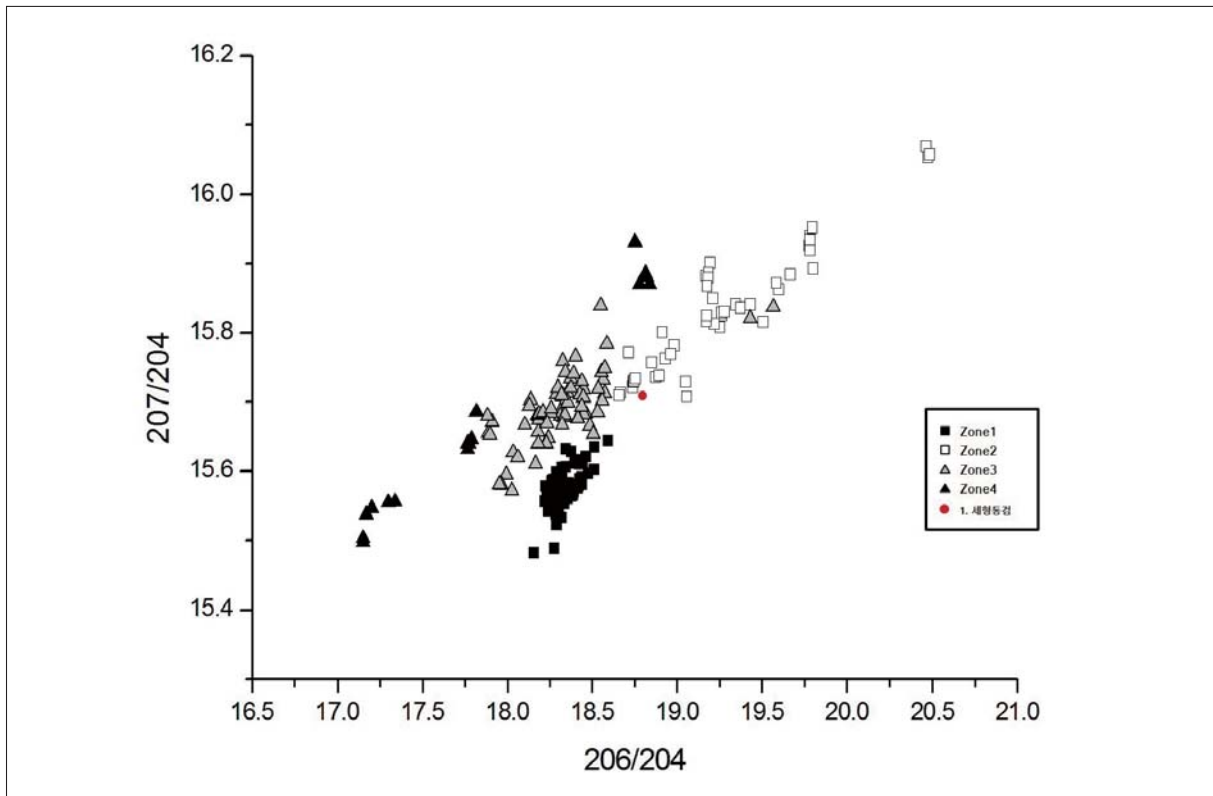


그림 9. 남한지역 방연석의 $^{206}\text{Pb}/^{204}\text{Pb}$ vs $^{207}\text{Pb}/^{204}\text{Pb}$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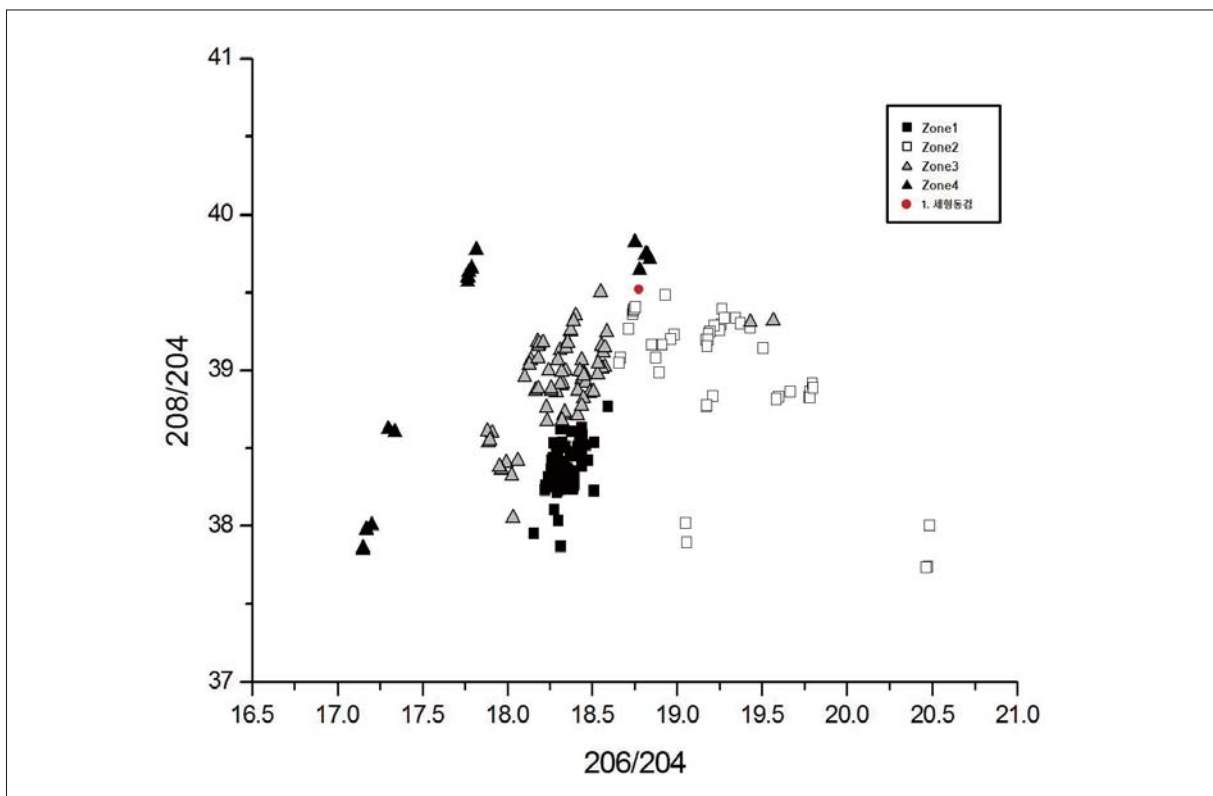


그림 10. 남한지역 방연석의 $^{206}\text{Pb}/^{204}\text{Pb}$ vs $^{208}\text{Pb}/^{204}\text{Pb}$ 분포도

Ⅲ. 맺음말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형동검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료를 소량 채취하여 미세조직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X-ray 관찰결과 눈에 띄는 균열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검인(劍刃)부에 부식으로 인하여 불균질한 부분이 관찰된다.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미세조직 분석결과 Cu-4.9wt%, Sn-14.3wt%, Pb-1.2wt%의 삼원계 합금으로 ($\alpha + \delta$) 공석상과 δ 상이 관찰된다. 조직 내에서 인위적인 가공이나 열처리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주조 과정을 통해 제작되고 그 이후 추가적인 열처리나 단조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직상에서 크고 작은 점들은 주물공이며, 작고 검은 원형의 점은 납의 입자들이다. 주물공이 조직 내부에 있는 것은 용탕 중에 함유된 가스가 거푸집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응고 시 액상에서 방출되어 주물에 잔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입 시 외부 공기의 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기가 큰 기공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동검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여 공기의 빠짐이 원활했으며, 용탕을 거푸집에 주입하는 속도가 느려 외부 공기가 혼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학수, 유혜선, 2009).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한 결과 남한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Youn-Joong Jeong, 2012)에 대입 하여 보았을 때 북동 영남지괴, 동태백분지에 속하는 광산에서 채굴된 방연광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므로 북동 영남지괴, 동태백분지에 속하는 광산에서 채굴된 방연석을 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출토 세형동검의 과학적 분석을 완료하였다.

IV. 참고문헌

1. 이난영, 2000,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2. 강형태, 정광용, 이기길, 2002, 『납동위원소비법에 의한 영광 수공유적 청동기의 산지추정』, 호남고고학보
3. 노지현, 2007, 『납동위원소비 분석법을 통해서 본 일본 중부큐슈와 한국 청동기 문화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4. 강형태 외, 2003, 『논산시 원북리 토광묘유적 출토 청동기의 과학분석』, 한국고고학회
5. 이병길, 2014, 『충북 지역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충북대학교
6. 정광용, 이주현, 2009 『안동 옥동유적 출토 청동시의 미세조직 및 산지연구』, 보존과학회지 Vol.25. No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7. 馬淵久夫, 平尾良光, 1987, 『東アジア鉛鑛石の鉛同位體比』, 考古學雜誌
8. 최미라, 2014, 『초기철기시대 청동유물의 제작기법 및 산지추정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9. 박장식, 2004, 『고대 한국의 청동기 기술체계』, 열처리 공학지 Vol 17, 한국열처리공학회
10. 정창식, 2010, 『한반도 납동위원소 분포 연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 허일권, 조남철, 강형태, 2007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동경의 금속학적 연구 및 산지추정』, 보존과학회지 Vol.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12. 정재일, 박계현, 2006, 『전북 광상의 납동위원소 조성에 대한 고찰』, 암석학회지 Vol 15, 한국암석학회
13. 정연중, 정창식, 최정윤 외 4명, 2013, 『한반도 금속광상의 납동위원소 분포 특성』,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 2013, 대한지질학회
14. 정연중, 2012, 『Regional variations in the lead isotopic composition of galena from ... southern Korea with implications for the discrimination of lead provenance』, Vol 61,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15. 이오희, 2009, 『문화재보존과학』, 주류성
16. 서정호, 2008, 『문화재를 위한 보존방법론』, 경인문화사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금속문화재보존』
18.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2, 『문화재와 X선필름 자료집1』
19. 정광용, 2005, 『금속문화재 보존관리』, 『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교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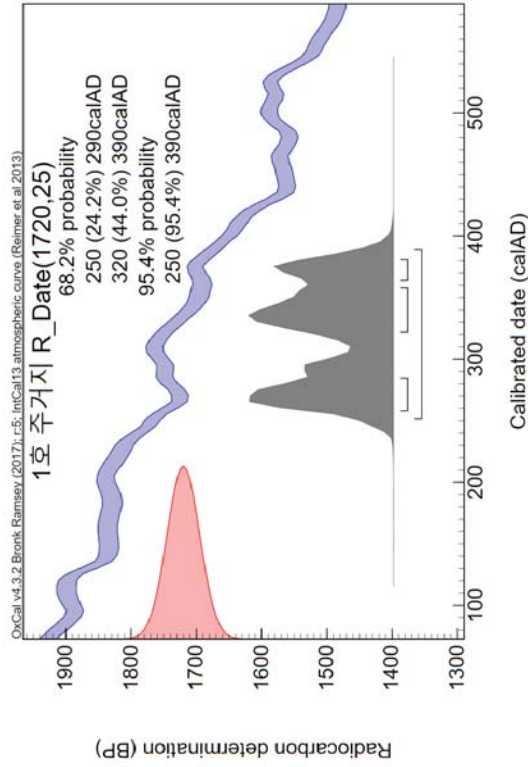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요약 테이블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No.	시료명	보정 연대 결과 2 σ 연대 (95.4%)	탄소연대 (yrs BP \pm Err)	$\delta^{13}\text{C}$ (‰)	pMC (%)
1	1호 주거지	250 calAD ~ 390 calAD	1720 \pm 25	-27.8 \pm 0.1	80.72 \pm 0.25
2	2호 주거지	560 calAD ~ 660 calAD	1448 \pm 31	-27 \pm 0	83.5 \pm 0.32
3	2-1호 주거지	20 calAD ~ 140 calAD	1919 \pm 26	-24.8 \pm 0	78.75 \pm 0.25
4	4호 주거지	620 calAD ~ 680 calAD	1376 \pm 22	-25.7 \pm 0	84.26 \pm 0.24
5	5호 주거지	770 calAD ~ 970 calAD	1154 \pm 22	-26.1 \pm 0.1	85.92 \pm 0.24
6	6호 주거지	1050 calAD ~ 1260 calAD	855 \pm 26	-25.5 \pm 0.1	88.52 \pm 0.29
7	8호 주거지	1160 calAD ~ 1260 calAD	829 \pm 23	-19.7 \pm 0.2	88.83 \pm 0.25
8	9호 주거지	990 calAD ~ 1150 calAD	990 \pm 20	-25.8 \pm 0	87.26 \pm 0.22
9	10호 주거지	980 calAD ~ 1150 calAD	1007 \pm 25	-23.5 \pm 0.1	87.2 \pm 0.28
10	11호 주거지	1150 calAD ~ 1260 calAD	841 \pm 27	-38.3 \pm 0.1	88.84 \pm 0.3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1호 주거지	ESCh170711	DIS171102WA191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δ ¹³ C ± err (‰)	pMC ± err (%)
1720 ± 25	320 ± 70 calAD	-27.8 ± 0.1	80.72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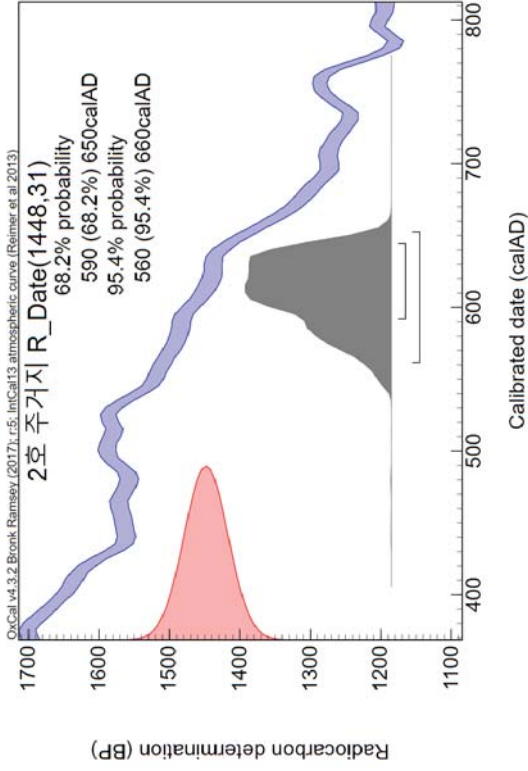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니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법적 연대로 활용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¹³C 및 Δ14C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2호 주거지	ESCh170712	DIS171102WA192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δ ¹³ C ± err (‰)	pMC ± err (%)
1448 ± 31	610 ± 50 calAD	-27 ± 0	83.5 ±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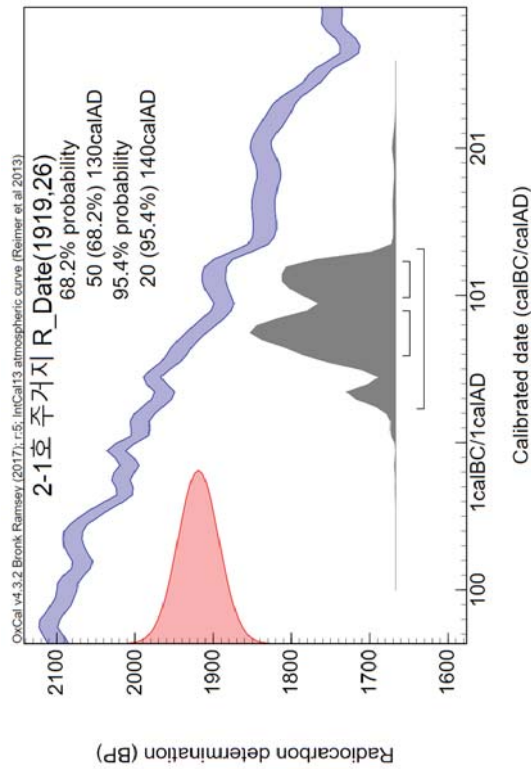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니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법적 연대로 활용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¹³C 및 Δ14C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험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접수코드	진처리 방법
2-1호 주거지	ESCh170713	DIS171102WA193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C \pm err$ (‰)	pMC ± err (%)
1919 ± 26	80 ± 60 calAD	-24.8 ± 0	78.75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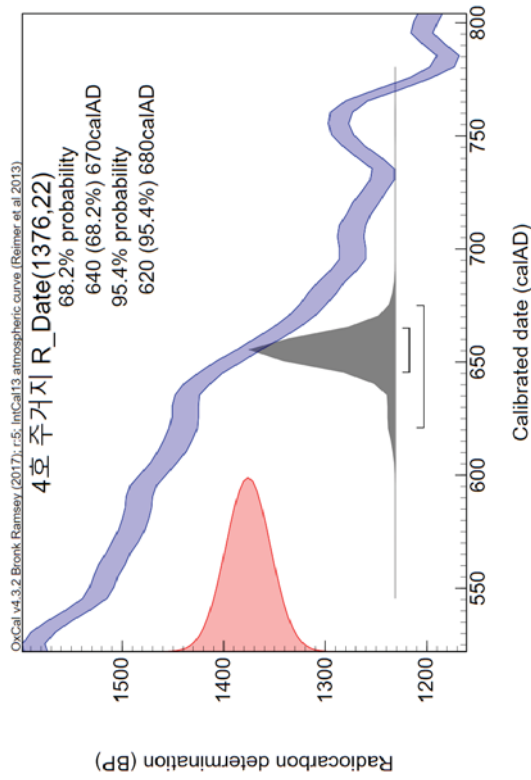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delta^{13}C$ 및 $\Delta 14C$ 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 14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험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접수코드	진처리 방법
4호 주거지	ESCh170714	DIS171102WA194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C \pm err$ (‰)	pMC ± err (%)
1376 ± 22	650 ± 30 calAD	-25.7 ± 0	84.26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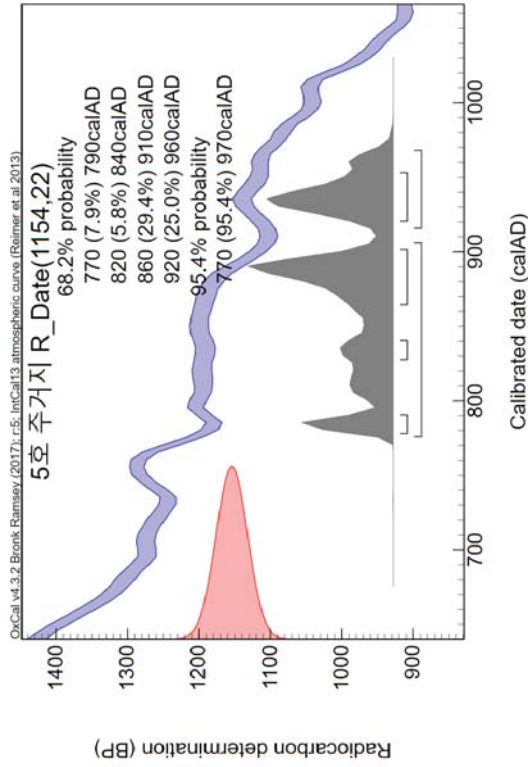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delta^{13}C$ 및 $\Delta 14C$ 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 14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5호 주거지	ESCh170715	DIS171102WA195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C \pm err$ (‰)	pMC ± err (%)
1154 ± 22	870 ± 100 calAD	-2.6 ± 0.1	85.92 ±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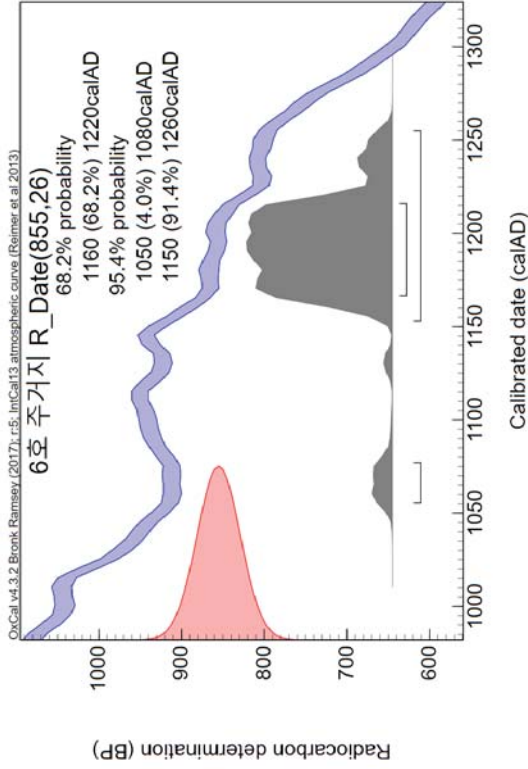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13C 및 Δ14C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6호 주거지	ESCh170716	DIS171102WA196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C \pm err$ (‰)	pMC ± err (%)
855 ± 26	1160 ± 100 calAD	-25.5 ± 0.1	88.52 ±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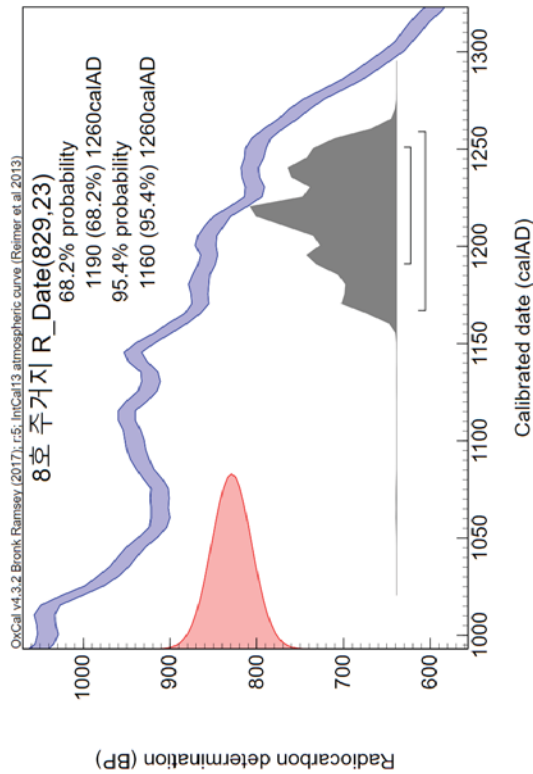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13C 및 Δ14C의 정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8호 주거지	ESCh170717	DIS171102WA197	AAA
탄소연대 ($y_{rs} BP \pm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pm err$)	$\delta^{13}C \pm err$ (‰)	pMC $\pm err$ (%)
829 \pm 23	1210 \pm 50 calAD	-19.7 \pm 0.2	88.83 \pm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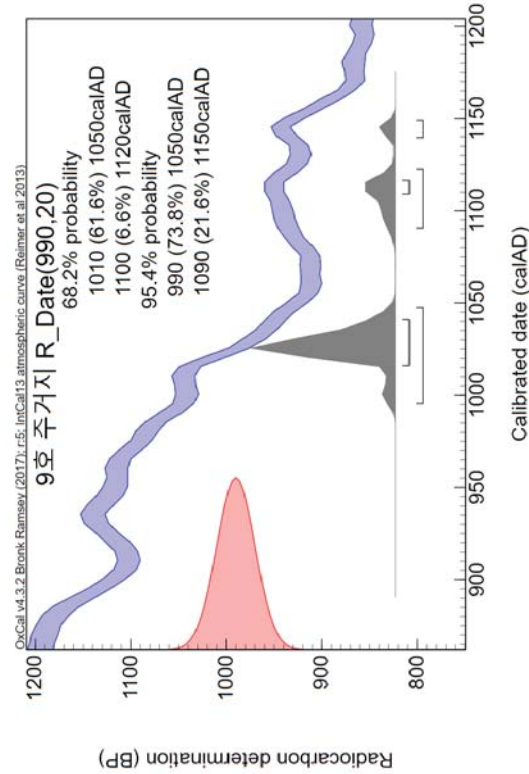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 σ (65% 신뢰구간)입니다.
- $y_{rs} BP$ 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delta^{13}C$ 및 $\Delta^{14}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9호 주거지	ESCh170718	DIS171102WA198	AAA
탄소연대 ($y_{rs} BP \pm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pm err$)	$\delta^{13}C \pm err$ (‰)	pMC $\pm err$ (%)
990 \pm 20	1070 \pm 80 calAD	-25.8 \pm 0	87.26 \pm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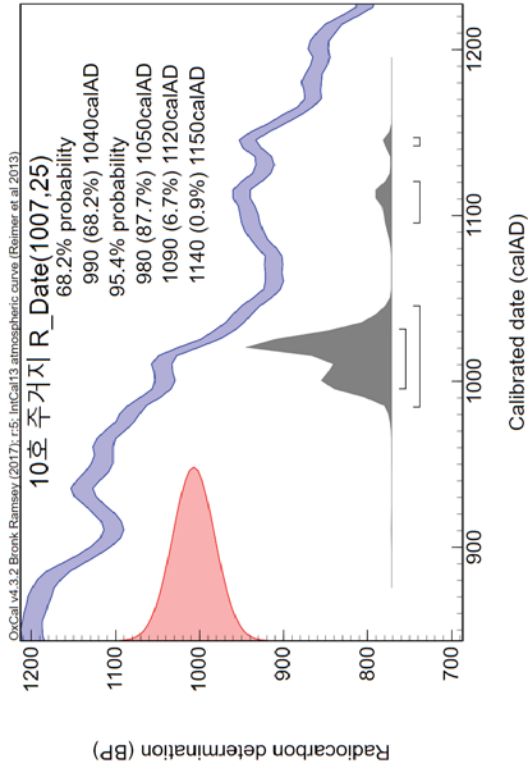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 σ (65% 신뢰구간)입니다.
- $y_{rs} BP$ 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delta^{13}C$ 및 $\Delta^{14}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10호 주거지	ESCh170719	DIS171102WA199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text{C} \pm \text{err} (\%)$	pMC ± err (%)
1007 ± 25	1070 ± 80 calAD	-23.5 ± 0.1	87.2 ±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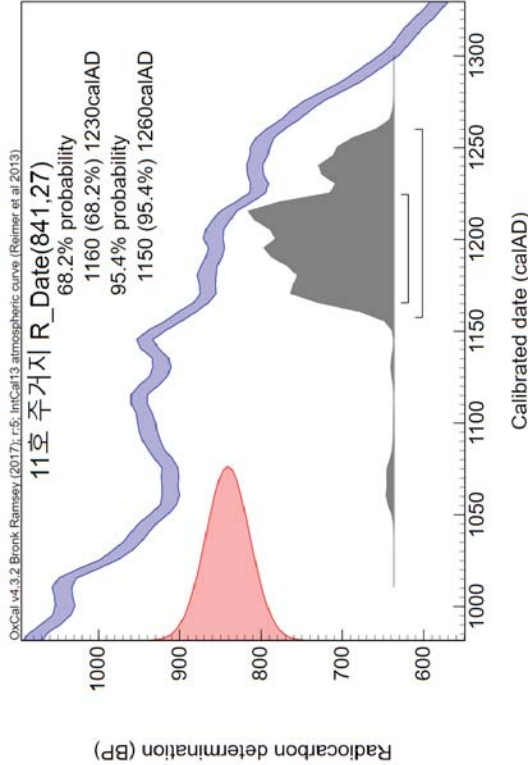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13C 및 δ14C의 정밀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의뢰기관: 한양문화재연구원
 의뢰인: 양승규
 시료분석 기관: 한국과학기술훈원 (KIST)

시료명	시료코드	검수코드	진처리 방법
11호 주거지	ESCh170720	DIS171102WA200	AAA
탄소연대 (yrs BP ± err)	보정 평균 연대 (cal avr ± err)	$\delta^{13}\text{C} \pm \text{err} (\%)$	pMC ± err (%)
841 ± 27	1210 ± 50 calAD	-38.3 ± 0.1	88.84 ± 0.3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잔위 감정이나 범격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차는 1σ(65%신뢰구간)입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탄소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밀력 연대로 환산하는 데는 Oxcal 혹은 CalP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oxcal.html>)
- δ13C 및 δ14C의 정밀도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δ14C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출토유물 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001	유개고배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1 4-1	Y
2017-0887-0002	대합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2 4-2	Y
2017-0887-0003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 소용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3 4-3	Y
2017-0887-0004	평저소호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4 4-4	Y
2017-0887-0005	심발형토기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5 4-5	Y
2017-0887-0006	심발형토기 저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6 4-6	Y
2017-0887-0007	장란형토기 구연부	1	1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14-7 4-7	Y
2017-0887-0008	장란형토기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8 4-8	Y
2017-0887-0009	장란형토기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4-9 5-9	Y
2017-0887-0010	심발형토기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0 5-10	Y
2017-0887-0011	장란형토기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1 5-11	Y
2017-0887-0012	장란형토기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2 5-12	Y
2017-0887-0013	장란형토기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3 5-13	Y
2017-0887-0014	장란형토기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4 5-14	Y
2017-0887-0015	심발형토기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5 5-15	Y
2017-0887-0016	동이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5-16 5-16	Y
2017-0887-0017	동이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6-17 6-17	Y
2017-0887-0018	단경호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6-18 6-18	Y
2017-0887-0019	호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6-19 6-19	Y
2017-0887-0020	호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6-20 6-20	Y
2017-0887-0021	대호 저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7-21 6-21	Y
2017-0887-0022	호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7-22 6-22	Y
2017-0887-0023	대호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7-23 6-23	Y
2017-0887-0024	대옹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7-24 6-24	Y
2017-0887-0025	대옹 동체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8-25 7-25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026	수키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8-26 7-26	Y
2017-0887-0027	호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8-27 7-27	Y
2017-0887-0028	호 구연부	1	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18-28 7-28	Y
2017-0887-0029	몸돌	1	1호 수혈주거지	옥석유리류	백제시대	18-29 7-29	Y
2017-0887-0030	무문토기 저부	1	1호 수혈유구	토도류	청동기시대	19-30 7-30	Y
2017-0887-0031	장란형토기 동체-저부	2	1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19-31 7-31	Y
2017-0887-0032	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2 9-32	Y
2017-0887-0033	무문토기 소형 발형토기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3 9-33	Y
2017-0887-0034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4 9-34	Y
2017-0887-0035	호형토기 구연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5 9-35	Y
2017-0887-0036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6 9-36	Y
2017-0887-0037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7 9-37	Y
2017-0887-0038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8 9-38	Y
2017-0887-0039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39 9-39	Y
2017-0887-0040	동체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0 9-40	Y
2017-0887-0041	봉상파수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1 9-41	Y
2017-0887-0042	동체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2 10-42	Y
2017-0887-0043	동체부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3 10-43	Y
2017-0887-0044	구형 토제품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4 10-44	Y
2017-0887-0045	뚜껑	1	2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21-45 10-45	Y
2017-0887-0046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23-46 12-46	Y
2017-0887-0047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23-47 12-47	Y
2017-0887-0048	중도식무문토기 동체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23-48 12-48	Y
2017-0887-0049	뚜껑 꼭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49 13-49	Y
2017-0887-0050	유개고배 배신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0 13-50	Y
2017-0887-0051	대부완 배신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1 13-51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052	대부안 동체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2 13-52	Y
2017-0887-0053	직구호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3 13-53	Y
2017-0887-0054	병 저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4 13-54	Y
2017-0887-0055	소호 구연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5 13-55	Y
2017-0887-0056	발형토기 구연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6 13-56	Y
2017-0887-0057	대호 구연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7 13-57	Y
2017-0887-0058	동체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8 13-58	Y
2017-0887-0059	호 견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59 13-59	Y
2017-0887-0060	호 견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60 13-60	Y
2017-0887-0061	호 동체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61 13-61	Y
2017-0887-0062	암키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3-62 13-62	Y
2017-0887-0063	유개고배 배신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3 14-63	Y
2017-0887-0064	고배 대각부	1	2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4 14-64	Y
2017-0887-0065	대각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5 14-65	Y
2017-0887-0066	장경호 경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6 15-66	Y
2017-0887-0067	구연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7 15-67	Y
2017-0887-0068	구연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8 15-68	Y
2017-0887-0069	구연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69 15-69	Y
2017-0887-0070	시루 저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70 15-70	Y
2017-0887-0071	시루 저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71 15-71	Y
2017-0887-0072	도기 저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72 15-72	Y
2017-0887-0073	호 동체부	1	3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5-73 15-73	Y
2017-0887-0074	용도미상 석기	1	3호 수혈주거지	옥석유리류	신라시대	25-74 15-74	Y
2017-0887-0075	시루 저부	1	4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7-75 18-75	Y
2017-0887-0076	호 구연부	1	4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7-76 18-76	Y
2017-0887-0077	호 경부	1	4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7-77 18-7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078	도기 저부	1	4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7-78 18-78	Y
2017-0887-0079	동체부	1	4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7-79 18-79	Y
2017-0887-0080	고배 대각부	1	5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9-80 20-80	Y
2017-0887-0081	동체부	1	5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9-81 20-81	Y
2017-0887-0082	우각형파수	1	5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9-82 20-82	Y
2017-0887-0083	호 동체부	1	5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9-83 20-83	Y
2017-0887-0084	호 동체부	1	5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29-84 20-84	Y
2017-0887-0085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31-85 23-85	Y
2017-0887-0086	뚜껍 신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86 23-86	Y
2017-0887-0087	뚜껍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87 23-87	Y
2017-0887-0088	고배 대각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88 23-88	Y
2017-0887-0089	고배 대각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89 23-89	Y
2017-0887-0090	대각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0 23-90	Y
2017-0887-0091	대부완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1 23-91	Y
2017-0887-0092	대부완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2 23-92	Y
2017-0887-0093	대부완 대각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3 23-93	Y
2017-0887-0094	고배 배신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4 24-94	Y
2017-0887-0095	완 동체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5 24-95	Y
2017-0887-0096	완 동체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6 24-96	Y
2017-0887-0097	소호 구연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7 24-97	Y
2017-0887-0098	저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8 24-98	Y
2017-0887-0099	시루 저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99 24-99	Y
2017-0887-0100	호 구연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100 24-100	Y
2017-0887-0101	호 구연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1-101 24-101	Y
2017-0887-0102	호 저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2-102 24-102	Y
2017-0887-0103	대호 저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2-103 25-103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104	동이 동체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2-104 25-104	Y
2017-0887-0105	호 동체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2-105 25-105	Y
2017-0887-0106	수키와	1	6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2-106 25-106	Y
2017-0887-0107	철정	1	6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32-107 25-107	Y
2017-0887-0108	대각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08 26-108	Y
2017-0887-0109	완 구연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09 26-109	Y
2017-0887-0110	인화문토기 동체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0 26-110	Y
2017-0887-0111	완 구연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1 27-111	Y
2017-0887-0112	동이 구연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2 27-112	Y
2017-0887-0113	시루 동체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3 27-113	Y
2017-0887-0114	구연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4 27-114	Y
2017-0887-0115	구연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5 27-115	Y
2017-0887-0116	수키와	1	7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4-116 27-116	Y
2017-0887-0117	석부	1	7호 수혈주거지	옥석유리류	청동기시대	35-117 27-117	Y
2017-0887-0118	뚜껍 신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18 29-118	Y
2017-0887-0119	대부완 대각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19 29-119	Y
2017-0887-0120	완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0 29-120	Y
2017-0887-0121	완 구연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1 29-121	Y
2017-0887-0122	완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2 29-122	Y
2017-0887-0123	병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3 29-123	Y
2017-0887-0124	편구형 병 동체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37-124 29-124	Y
2017-0887-0125	대상파수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5 29-125	Y
2017-0887-0126	단경호 구연-동체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6 29-126	Y
2017-0887-0127	구연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7 29-127	Y
2017-0887-0128	단경호 구연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8 30-128	Y
2017-0887-0129	저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7-129 29-129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130	대호 견부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8-130 30-130	Y
2017-0887-0131	도가니	1	8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38-131 30-131	Y
2017-0887-0132	철정	1	8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38-132 30-132	Y
2017-0887-0133	무문토기 저부	1	9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청동기시대	40-133 31-133	Y
2017-0887-0134	완 구연-동체부	1	9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0-134 31-134	Y
2017-0887-0135	구연부	1	9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0-135 31-135	Y
2017-0887-0136	동이류 구연부	1	9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0-136 31-136	Y
2017-0887-0137	철정	1	9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40-137 31-137	Y
2017-0887-0138	철정	1	9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40-138 31-138	Y
2017-0887-0139	철촉	1	9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40-139 31-139	Y
2017-0887-0140	호 동체부	1	10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2-140 32-140	Y
2017-0887-0141	호 동체부	1	10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2-141 32-141	Y
2017-0887-0142	대호 동체부	1	10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2-142 32-142	Y
2017-0887-0143	석추	1	10호 수혈주거지	옥석유리류	신라시대	42-143 32-143	Y
2017-0887-0144	세형동검	1	10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초기철기시대	42-144 32-144	Y
2017-0887-0145	철도자	1	10호 수혈주거지	금속류	신라시대	42-145 32-145	Y
2017-0887-0146	중도식무문토기 내만구연용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44-146 34-146	Y
2017-0887-0147	호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44-147 34-147	Y
2017-0887-0148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44-148 34-148	Y
2017-0887-0149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44-149 34-149	Y
2017-0887-0150	호 동체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백제시대	44-150 34-150	Y
2017-0887-0151	유개고배 구연-배신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1 34-151	Y
2017-0887-0152	대각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2 35-152	Y
2017-0887-0153	완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3 35-153	Y
2017-0887-0154	완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4 35-154	Y
2017-0887-0155	완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5 35-155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유구	분류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2017-0887-0156	완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6 35-156	Y
2017-0887-0157	단경호 구연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7 35-157	Y
2017-0887-0158	호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8 35-158	Y
2017-0887-0159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59 35-159	Y
2017-0887-0160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60 35-160	Y
2017-0887-0161	저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61 35-161	Y
2017-0887-0162	장경호 경부	1	11호 수혈주거지	토도류	신라시대	44-162 35-162	Y
2017-0887-0163	중도식무문토기 저부	1	4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46-163 36-163	Y
2017-0887-0164	구연부	1	4호 수혈유구	토도류	백제시대	46-164 36-164	Y
2017-0887-0165	동체부	1	4호 수혈유구	토도류	신라시대	46-165 36-165	Y
2017-0887-0166	유개고배	1	5호 수혈유구	토도류	신라시대	47-166 37-166	Y
2017-0887-0167	동체부	1	6호 수혈유구	토도류	신라시대	48-167 37-167	Y
2017-0887-0168	중도식무문토기 호 구연부	1	지표	토도류	백제시대	49-168 38-168	Y
2017-0887-0169	호 저부	1	지표	토도류	백제시대	49-169 38-169	Y
2017-0887-0170	고배 대각부	1	지표	토도류	신라시대	49-170 38-170	Y
2017-0887-0171	고배 대각부	1	지표	토도류	신라시대	49-171 38-171	Y
2017-0887-0172	뚜껑	1	지표	토도류	신라시대	49-172 38-172	Y
2017-0887-0173	수막새	1	지표	토도류	통일신라시대	49-173 39-173	Y
2017-0887-0174	수키와	1	지표	토도류	신라시대	49-174 39-174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發行日	2019年 9月 25日
發行機關	名稱	(재)한양문화재연구원			
	住所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019호(평촌동, 두산벤처다임)			
	TEL	031-478-3500	FAX	031-478-3504	
執筆・編輯者	조성호, 양승규, 김정연, 여희진				
調査緣由	단독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강병학, 조성호, 김한성, 양승규, 임송만, 빈소현				
遺蹟調査地番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4-2				
調査面積	512㎡				
發掘期間	2017.07.20 ~ 2017.09.22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數量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주거지	원삼국~ 한성백제시대	1	유개고배편, 중도식무문토기 외반구연 소옹, 심발형토기편 등		
수혈유구		2	중도식무문토기편, 장란형토기편 등		
수혈주거지	(통일)신라시대	10	고배편, 대부완, 뚜껑, 직구호, 기와편, 석부, 석추, 세형동검 등		
수혈유구		4	고배편, 뚜껑, 기와편 등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I. 조사개요	134 - 5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4 - 7
III. 조사내용	134-16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134-18
1) 수습유물	134-1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134-19
1) 건물지	134-19
(1) 건물지 1호	134-19
(2) 건물지 2호	134-21
2) 석렬유구	134-22
(1) 석렬유구 1호	134-22
(2) 석렬유구 2호	134-23
(3) 석렬유구 3호	134-24
3) 수습유물	134-24
IV. 조사성과	134-26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34-8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34-9
도면 3. 서울성곽 내 조사대상지	134-11
도면 4. 고지도(수선전도 내 조사대상지)	134-12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34-15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134-17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습유물	134-19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 및 출토유물	134-20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2호	134-22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1호	134-23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2호	134-23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3호	134-24
도면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134-25

도판목차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134-33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①토층, ②유물출토상태, 1~3:수습유물)	134-34
도판 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①전경, ②③적심토층, 4·5:출토유물)	134-35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2호(①전경, ②③적심토층) 및 석렬유구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134-36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세부) 및 3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세부)	134-37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134-38

I.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76번지로 사업시행자 장근식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112.4㎡)이다.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남서쪽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져 “사직단(사적 제121호)”의 북신문이 있고 동쪽으로 460m 떨어져서는 “경복궁(사적 제117호)”의 영추문이 있다. 누하동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광해군때 궁궐로 지어졌던 인경궁 내부의 누각 아래쪽에 위치한 동네라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주변에는 누하동 99-4¹⁾ · 117-1²⁾ · 117-7³⁾ · 175-3⁴⁾ · 184-2⁵⁾ · 224⁶⁾번지 및 체부동 111-2번지⁷⁾ 유적에서 조선시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종로구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치할 것과 아울러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

종로구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2017년 6월 16일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 본 재단에 소규모 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소규모 발굴조사 대기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울문화재연구원에 대행조사를 의뢰하였다.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는 7월 12일에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제2017-0915호)를 받아 8월 9일에 시굴조사에 착수(실조사일수 1일)하였다. 시굴조사 결과⁸⁾ 2개 문화층에서 조선시대와 관련된 적심석과 석렬유구 등 2기의 유구와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결과와 조사당일 개최된 학술자문회의⁹⁾의 견에 따라 시굴조사 대상지역(면적 112.4㎡)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종로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재차 통보하였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와 달리 대행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조사하였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 5일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7일 실조사일수 9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159호)를 받아 9월 12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1)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서울 누하동 99-4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1』.
 2)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서울 누하동 117-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1』.
 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2, 『서울 종로구 누하동 117-7번지 일원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4) 한국문화재재단, 2017, 「서울 종로 누하동 17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5)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18, 「서울 종로 누하동(184-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보고서」.
 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서울 종로 누하동 224번지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7) 한국문화재재단, 2017, 「89. 서울 체부동 111-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 88~96 -』.
 8)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 「서울 종로 누하동(17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9) 자문위원 : 정계옥(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신창수(백두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발굴조사 결과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는 건물지 2동과 석렬유구 3기가,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백자 병, 백자 발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 21일 유적의 성격 및 향후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학술자문회의¹⁰⁾를 진행하였는데, 회의결과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에 대해서는 추후 전면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유예하고,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은 기록보존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보완조사 및 기록유지를 실시한 후 9월 25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허가일수 9일이 모두 소요되었다.

발굴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 이 창 욱(조사연구2팀 부팀장)
조 사 원 : 이 진 호(조사연구2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경 훈(조사연구2팀 연구원)
보 조 원 : 김 방 효(조사연구2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이진호(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경훈·김방효 등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정홍선(조사연구2팀 부팀장) 책임 하에 김현진·손지선·김형란(이상 조사연구2팀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현진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립 아카이브)가 촬영하였다.

원고는 이진호 책임 하에 I~Ⅲ장 김방효(조사내용 및 유구), 김현진(유물), IV장 김방효가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진호·정홍선이 수정하였고 교정 및 교열은 정훈진(조사연구2팀장)이 하였다.

10) 자문위원 :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준범(서울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이번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176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6°58′07″, 북위 37°34′43″이다. 조사대상지는 서울 한양도성 내 북서쪽 일원으로 북악산 정상부에서 남쪽의 경복궁 방면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북악산에서 서쪽의 인왕산으로 우회하여 내려오는 배화여자대학교 운동장 동쪽 주변의 평탄대지에 위치한다.

지리적으로는 사직공원 북동쪽의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필운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350m 진행한 후 서쪽 골목길로 약 10m 이동하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동쪽으로 450m 떨어져 경복궁 영추문과 남쪽으로 250m 떨어져서는 사직단이 위치한다. 또한 주변 일원은 조선시대부터 주요 궁지나 관청들이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허물고 신축 혹은 개축하여 도심 속의 문화 마을인 서촌조성 등으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는 한쪽 모서리가 패인 ‘ㄱ’자형이며, 신축건물은 신청부지 거의 전면에 걸쳐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의 지반은 주로 중생대 말기에 형성된 감홍색의 서울화강암과 고생대 이전에 형성된 화강편마암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화강암은 서울의 동북부와 관악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고 화강편마암은 주로 남서부 일대에 분포하는데 그 경계선은 대체로 북아현동에서 서소문, 그리고 남산 서쪽을 돌아 한남동과 행당동을 지난다.

서울의 기후는 난대성기후와 한랭한 기후의 중간형으로 전형적인 온대기후를 보인다. 연평균기온은 11.8℃로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7.2℃,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은 25.8℃로 나타나 같은 위도상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연강수량은 2,039.3mm이며, 연강수량의 58% 가량이 6~8월 사이에 집중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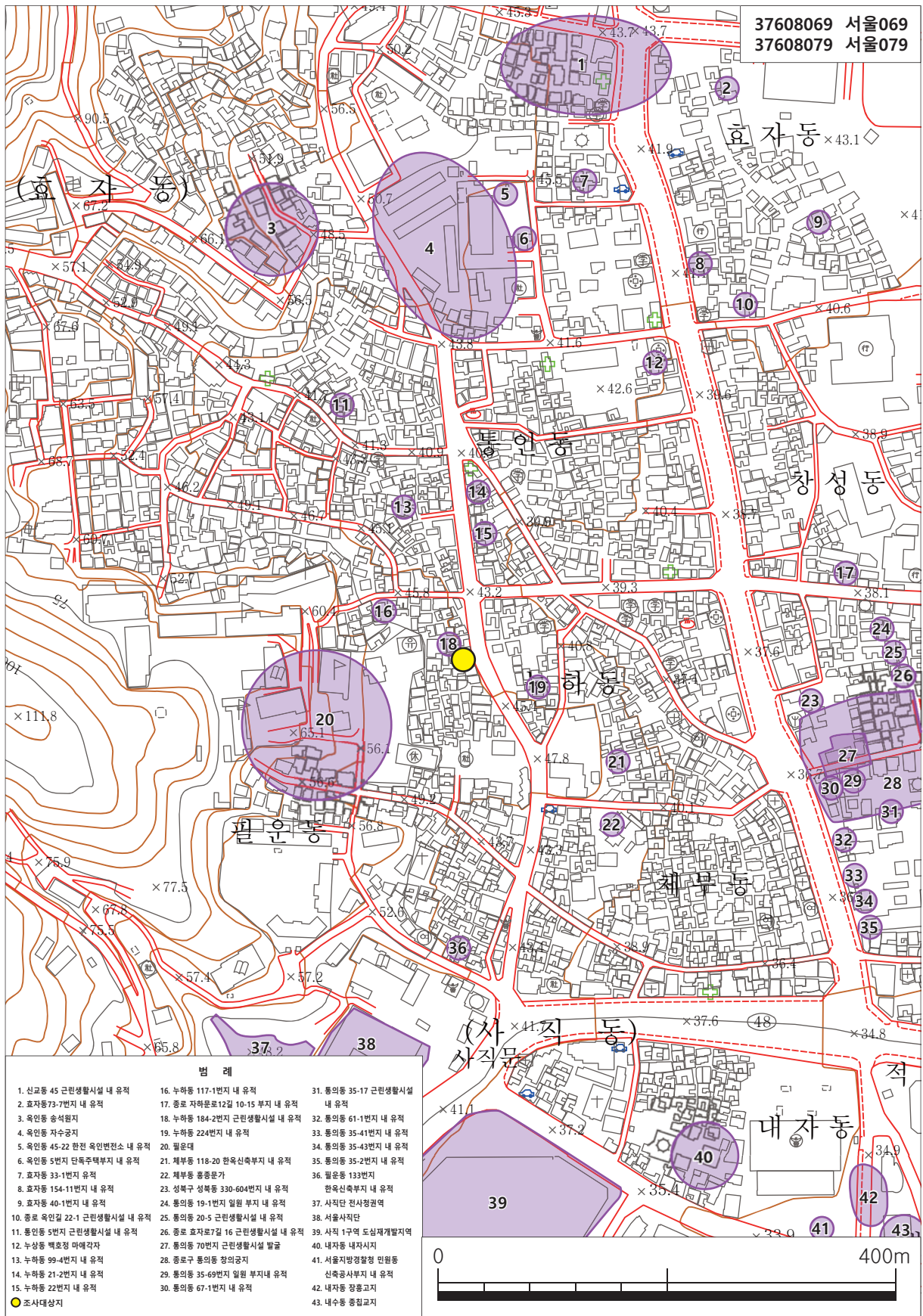
조사구역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시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59′, 북위 37°24′에 위치하며, 동-서 간 거리는 6.066km, 남-북 간 거리는 7.299km이고 총면적은 23.91km²이다. 종로구는 동쪽으로 북악산(北岳山) 능선을 경계로 성북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인왕산(仁王山)을 경계로 서대문구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중구와, 북쪽으로는 북한산(北漢山)을 경계로 도봉구·은평구·경기도 고양시와 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의 북한산을 중심으로 북고남저의 형태이며, 지질은 중생대 쥐라기에 나타난 대보화강암류인 서울화강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고·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선사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종로구와 인접한 서대문 무악산에서 1976년 출토된 사냥돌 유적과 또 같은 해 서대문 부근에서 출토된 주먹도끼가 인하대학교 박물관에 소장¹²⁾되어 있는 등 구석기 유적이 일부 조사된 예가 있고 청동기 유적으로는 1958년 조사된 성북구 정릉동 지석묘가 있다. 최근의 성과로는 2003년 서울역

11) 각 통계자료는 서울 종로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를 참고하였음.

종로구청, 2011, 『2011년 통계연보』.

12) 이경수, 2005, 「서울지역 선사유적 조사현황」,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I』, 99쪽.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사박물관이 조사한 서대문구 안산유물산포지에서 소량의 무문토기편도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 ‘고지성 취락유적’이 분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¹³⁾.

고대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의 영토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삼국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유적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복속하고 세운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진흥왕순수비’로 북한산 비봉에 위치¹⁴⁾하고 있으며, 태종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장춘랑(長春郎)과 나랑(羅郎)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하는 장의사(藏義寺)¹⁵⁾ 터가 종로구 신영동의 세검정초등학교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장의사터에는 보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는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문종 21년(1067) 삼경제(三京制)가 실시되면서 남경이 설치되었다. 남경의 위치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숙종(肅宗, 1054~1105)대에 남경의 범위는 동쪽은 대봉(大峯)·서쪽은 기봉(岐峯)·남쪽은 사리(沙里)·북쪽은 면악(面嶽)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¹⁶⁾.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 대를 거치면서 조선왕조의 기틀과 함께 한성부의 구성도 완성되었다. 한성부의 도로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앞에 육조거리가 형성되고 관아, 도성과 문루 등이 세워졌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도성 내 많은 시설이 소실되었다가 광해군 집권기로부터 궁궐과 많은 건물들이 중축되어 왕도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후 숙종 대에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의 수축이 끝난 30여년 후인 영조 대에 다시 ‘도성수축론’이 대두되는데 이때의 수축된 도성은 40여 곳으로 수축의 주체는 삼군부가 분담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한성부는 상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경향을 띤다. 특히 17세기 후반 이후 상업의 발달에 따라 교통로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18세기 이후 경강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의 발달은 한성부의 도시 구조를 변화시켰다.

1876년 개항으로 한성부는 급속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을 겪는다. 이후 근대적인 개혁으로 평가되는 갑오개혁은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내각과 아문으로 변경하였으나 새로운 관아건설은 없었으며, 종전의 관아 건물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 이후 한성 5부를 5서로 개칭하고 계를 줄이고 동을 따로 정하여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였다.

1910년 국권강탈로 인해 10월 1일에는 부령(府令) 제7호(1910년 10월 1일 공포)로 한성부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으며, 1911년 4월 1일에는 부령 제31호로 경성부의 행정조직을 도성을 기준으로 성 안은 5부 36방으로, 성 밖은 8면으로 하는 5부 8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성부의 행정은 부제(府制)를 바탕으로 하였고 1930년대 경성부의 인구 증가로 경성부의 구역확장과 구제(區制)가 실시되면 현재의 종로구가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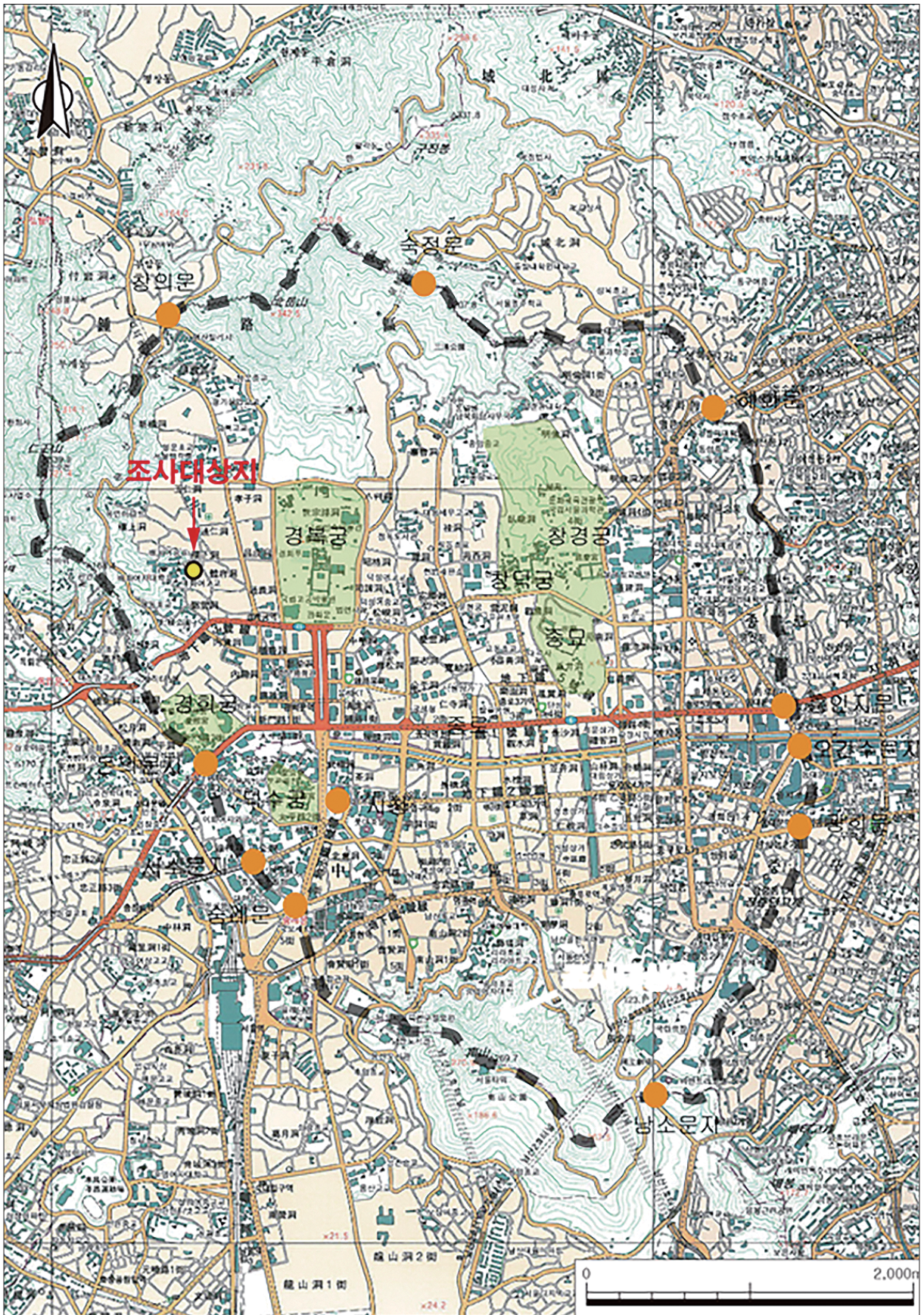
1945년 해방이후 주변국가의 동포와 북한주민들이 남하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인구의 증가로 전통적으로 주거지가 밀집한 조사구역 일원은 필지가 분할되어 소규모 주택이 형성되었다.

13) 이경수, 2005, 「서울지역 선사유적 조사현황」,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I』, 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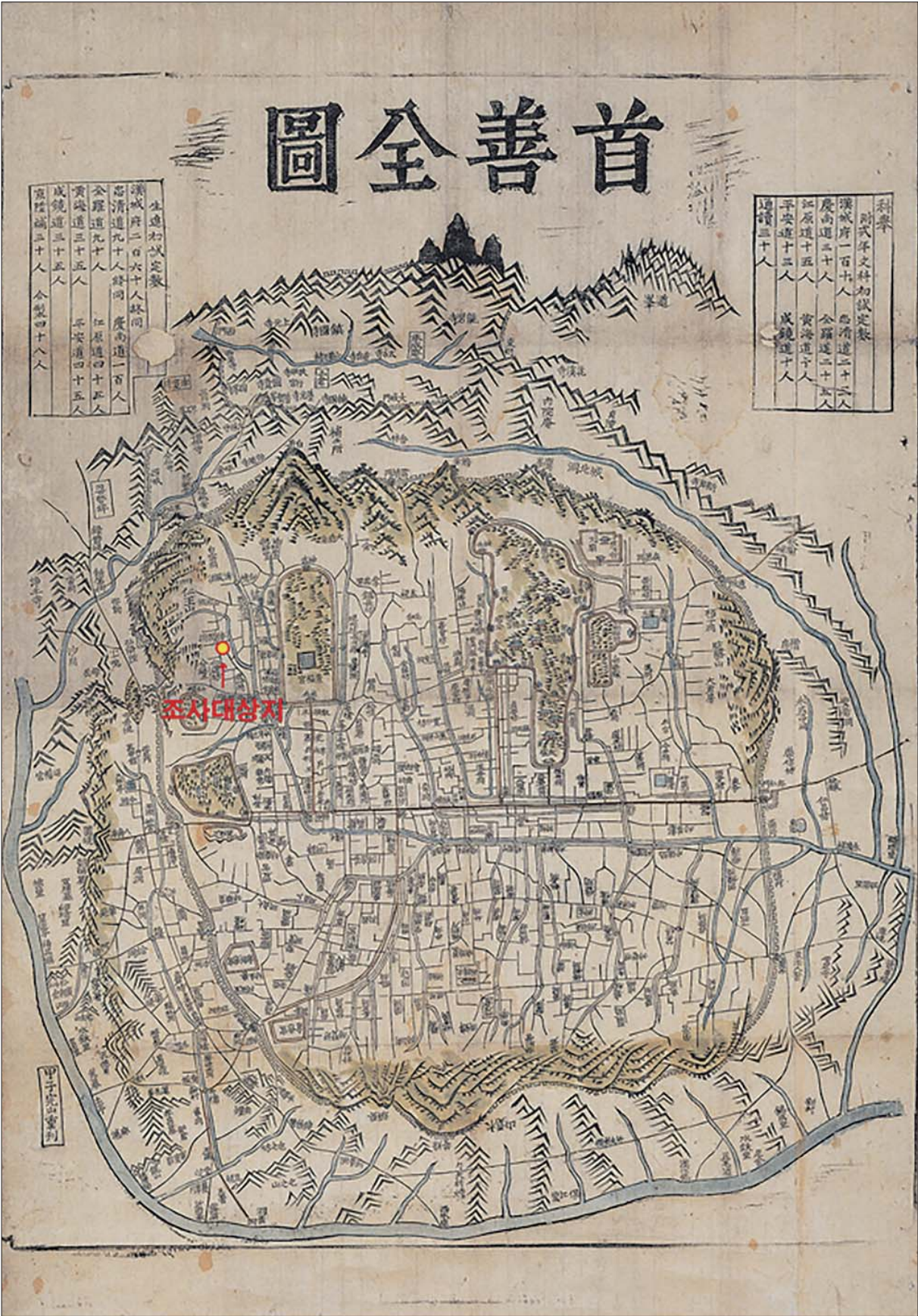
14) 현재는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전시되고 있으며, 북한산 비봉에는 모조품이 자리하고 있다.

15) 박상빈, 2005, 「신라 한강진출과 통일신라시대의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I』, 142쪽.

16) 현재의 위치로는 타락산, 인왕산, 한강, 북악을 의미한다는 설이 주도적이다.



도면 3. 서울성곽 내 조사대상지



도면 4. 고지도(수선전도 내 조사대상지)

1948년 남한단독정부 수립과 ‘6.25 한국전쟁’ 등으로 휴전이 성립되는 1953년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은 미비하여 정부에 의한 수도 서울의 정비는 없었다. 전후 월남한 북한사람의 상당수가 서울에 정착하였고 이에 서울의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특히, 1960년대부터 매년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인구의 도시집중은 심화되었다.

그 후 서울의 개발과 인구증가로 조사구역을 포함한 효자동, 체부동, 누상동 일원에는 저층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의 주택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인경궁¹⁷⁾이 주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누하동 99-4번지 유적¹⁸⁾·117-1번지 유적¹⁹⁾·175-3번지 유적²⁰⁾·224번지 유적²¹⁾·필운동 133번지 유적²²⁾·옥인동 5번지 유적²³⁾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및 관련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통의동 67-1번지 유적²⁴⁾·통의동 61-1번지 유적²⁵⁾·통의동 35-69번지 유적²⁶⁾·통의동 35-2번지 유적²⁷⁾ 등 통의동 일원에서는 주로 창의궁과 관련된 유적들이 조사 보고되었고 효자동 40-1번지 유적²⁸⁾에서도 조선~근대 사이의 유적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3번지 내 유적	남동쪽 인접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7,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	서울 종로구 누하동 224번지 내 유적	동쪽 60m	조선시대~근현대 생활유적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서울 종로구 누하동 224번지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7)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005, 『한국지역사회발전연구』 30권 2호.

18)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서울 누하동 99-4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인천·경기1-』.

19)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서울 누하동 117-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인천·경기1-』.

20) 한국문화재재단, 2017,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1)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7, 「서울 종로 누하동 224번지 한옥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2)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종로 필운동 13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3)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서울 종로 옥인동 5번지 유적」.

24)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서울 통의동 67-1번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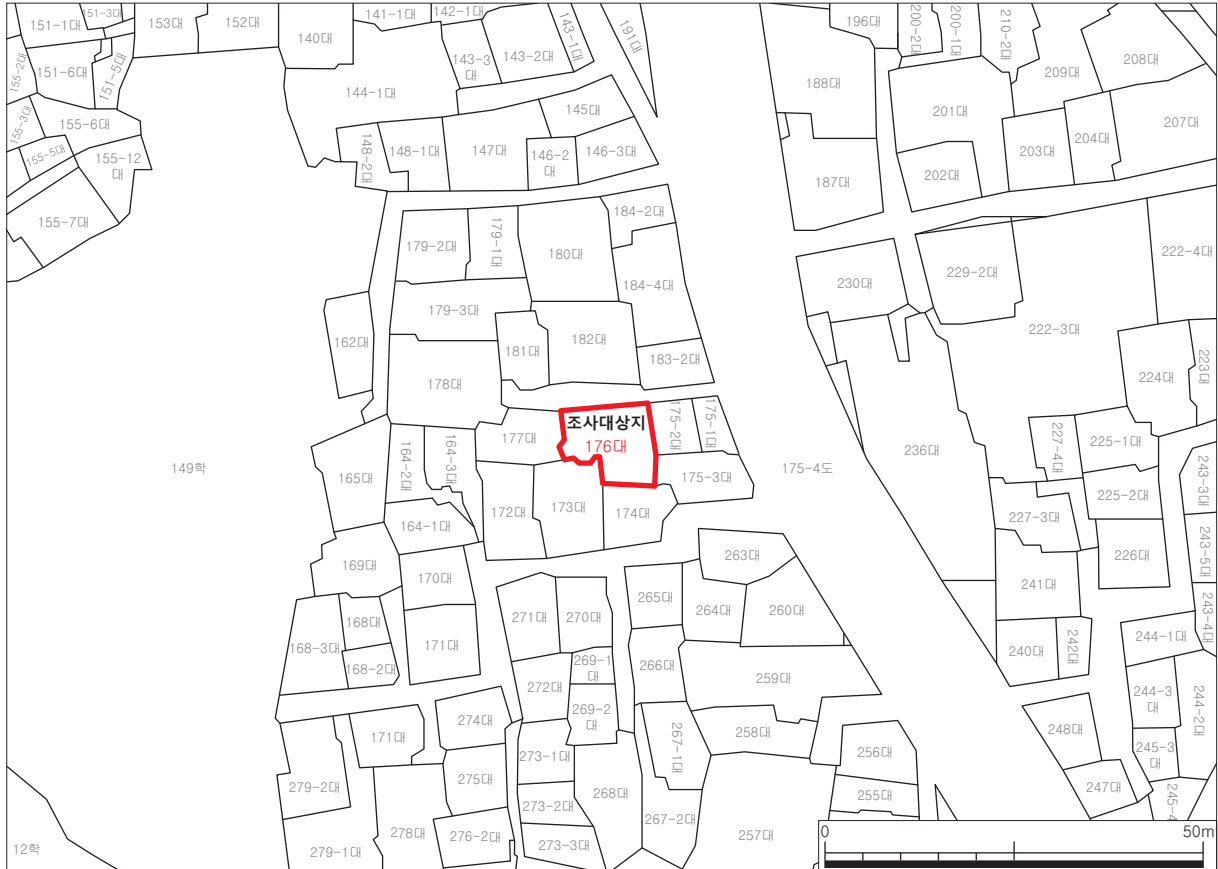
25)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서울 통의동 유적 -종로구 통의동 61-1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6)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 통의동 35-6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종로 통의동 35-2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8) 한국문화재재단, 2015, 「3. 서울 효자동 40-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서울·인천·경기1-』.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3	서울 종로구 누하동 117-1번지 내 유적	북서쪽 72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5, 「2. 서울 누하동 117-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 조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 1-』	
4	서울 종로구 누하동 99-4번지 내 유적	북서쪽 80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5, 「1. 서울 누하동 99-4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 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 1-』	
5	서울 종로구 효자동 40-1번지 내 유적	북동쪽 392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5, 「3. 서울 효자동 40-1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 사 보고서 I - 서울·인천·경기 1-』	
6	서울 종로구 필운동 133번지 내 유적	남쪽 222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서울 종로구 필 운동 13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7	서울 종로구 옥인동 5번지 내 유적	북동쪽 431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종로구 옥 인동 5번지 유적』	
8	서울 종로구 통의동 67-1번지 내 유적	남동쪽 315m	조선시대 생활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서울 통의동 67-1번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9	서울 종로구 통의동 61-1번지 내 유적	남동쪽 330m	조선시대 생활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06, 『서울 통의동 유 적 - 종로구 통의동 61-1번지 내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1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9번지 내 유적	동쪽 266m	조선시대 생활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 통의동 35-6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11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2번지 내 유적	남동쪽 408m	시대미상 생활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종로 통의동 35-2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2	체부동 홍종문가	남쪽 85m	근대, 일제강점기	홍대형,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편, 기문당』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서울의 문화재』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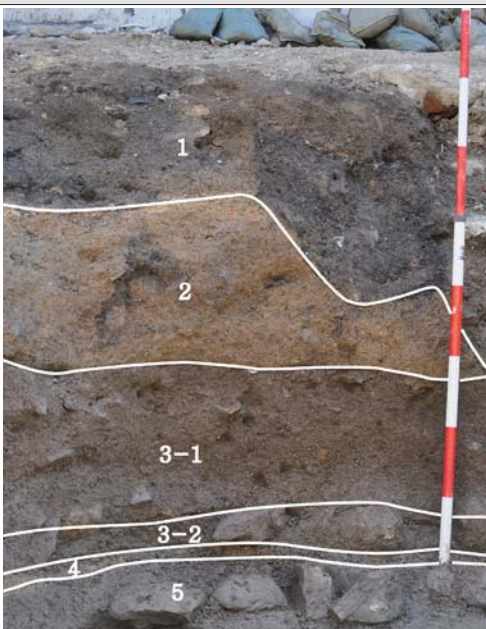
Ⅲ. 조사내용

발굴조사의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 상부는 기계제토 하였으며, 문화층에 인접해서는 수작업(인력)을 실시하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가 협소하고 동·서·남쪽에 노후된 가옥 및 시멘트블럭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북쪽은 골목길이 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계에서 안쪽으로 1m 가량 들인 지점부터 제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벽면은 안정경사를 주어 벽면붕괴를 방지하였다. 한편 북동쪽에는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불가하였다. 또한 임시 토사 적치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동쪽과 서쪽으로 2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동쪽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서쪽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구역의 퇴적양상을 동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6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부터 갈색+흑갈색사질점토(1층 : 표토 및 교란층) - 적갈색사질점토(2층 : 복토층) - 갈색사질점토(3-1층 : 성토층) - 갈색+회갈색사질점토(3-2층 : 성토층) - 명갈색사질점토(4층 : 자연퇴적층) - 회갈색사질점토(5층 :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 흑회색사질토(6층 : 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동쪽)

토 층	내 용	
	1층 : 갈색+흑갈색사질점토	표토층 및 교란층 (두께 40 ~ 85cm)
	2층 : 적갈색사질점토	복토층 (지표 하 40~85cm)
	3-1층 : 갈색사질점토	조선후기 성토층 (지표 하 85~135cm)
	3-2층 : 갈색+회갈색사질점토	
	4층 : 명갈색사질점토	자연퇴적층 (지표 하 135~140cm)
	5층 : 회갈색사질점토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지표 하 140~160cm)
6층 : 흑회색사질토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지표 하 160~220cm)	

1층(표토 및 교란층)은 갈색+흑갈색사질점토 지표로부터 약 40~85cm 정도의 두께로 쌓여 있으며, 교란층으로 건축폐기물 등이 다량으로 혼합되어 있다.

2층(복토층)은 적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40~85cm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의 현대 건축물 축조

를 위한 복토층으로 생활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다.

3층(조선후기 성토층)은 3-1층(갈색사질점토)과 3-2층(갈색+회갈색사질점토)으로 나뉘며, 지표 하 약 85~135cm에서 확인되었다. 사질성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단단히 다짐되어 있고 입자의 밀집도가 매우 높았으며, 부분적으로 할석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토한 층으로 보인다. 성토의 시기는 층 내부에서 출토되는 백자편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층(자연퇴적층)은 명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약 135~140cm에서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상부에 퇴적된 자연퇴적층으로 5층에 비해 점성이 높은 편이다.

5층(조선시대 상부문화층)은 회갈색사질점토로 지표 하 140~160cm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유구 및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6층(조선시대 하부문화층)은 흑회색사질토로 기준토층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대상지 내 3곳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확인하였다. 지표 하 약 160~220cm에서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백자가 출토되었다.



도면 6.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조사 이후 하부문화층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지의 남동쪽·중앙부·남서쪽 부분에 3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동쪽 트렌치1과 남서쪽 트렌치3에서는 해발 43.9m지점의 흑회색사질토에서 백자 발과 백자 병이 출토되었으며, 중앙부 트렌치2에서는 목탄이 혼입된 흑회색사질토에서 백자 발 저부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이 협소하고 유물이 출토되는 문화층의 깊이가 최대 220cm 정도로 깊으며, 주변에 노후된 건물들이 인접하고 있어 학술자문회의 의견과 같이 하부문화층에 대한 발굴조사는 유예하였다.

1) 수습유물

1. 백자 발(도면 7-1, 도판 2-1)

백자 발로 1/3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빙렬이 확인된다. 색조는 명회색(2.5Y 7/1)이다. 동체는 벌어져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에는 원각이 돌려져 있고 내저원각경은 굽 저정보다 약간 크다. 굽은 깎음새가 불량한 죽절굽이며, 굽 안쪽 중앙이 볼록해지도록 돌려 깎았다. 내저면과 굽접지면에는 태토빛음 받침이 남아있다.

기고 10.2cm, 복원구경 18.4cm, 저경 6.0cm, 두께 0.3~1.3cm

2. 백자 발 저부(도면 7-2, 도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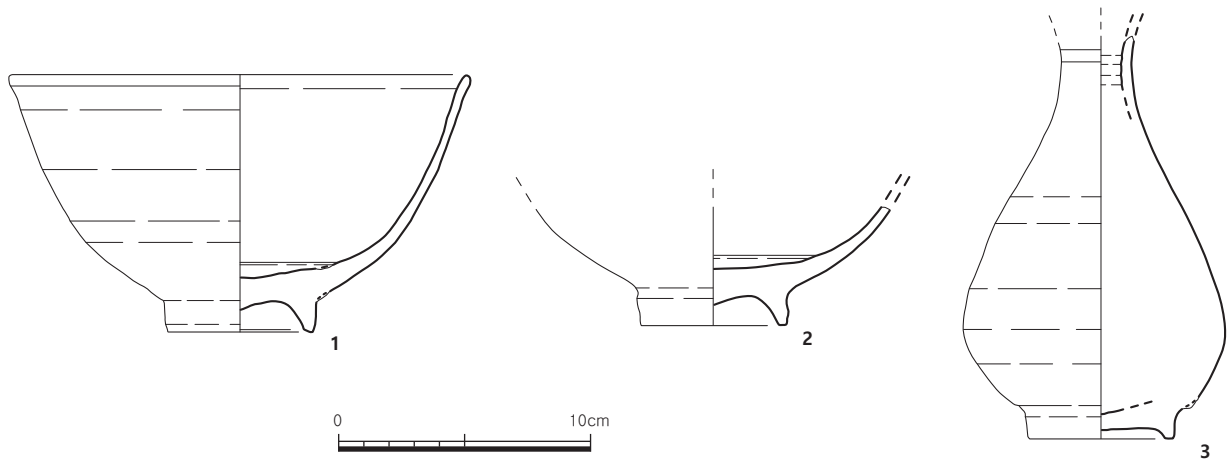
백자 발 저부로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빙렬이 확인된다. 색조는 명회색(2.5Y 7/1)이다. 내저면에는 원각이 돌려져 있고 내저원각경은 굽 저정보다 크다. 굽은 깎음새가 불량한 죽절굽이고 굽 안쪽 중앙이 볼록해지도록 돌려 깎았다. 내저면과 굽접지면에는 태토빛음 받침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4.7cm, 저경 5.8cm, 두께 0.3~1.4cm

3. 백자 병(도면 7-3, 도판 2-3)

백자 병으로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고르지 못한 편이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빙렬이 확인된다. 색조는 명회색(5Y 7/1)이다. 동체부는 동하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올라오다가 경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굽은 오목굽이다.

잔존기고 16.0cm, 저경 5.8cm, 두께 0.5cm



도면 7. 조선시대 하부문화층 수습유물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유구는 5층(회갈색사질점토)에서 노출되었는데 해발 44.5~45.0m 내외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전면에 걸쳐서 확인되었으며 건물지 2동과 석렬유구 3기 등 모두 5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제토 및 유구조사 과정에서 백자 발 저부, 백자 접시, 기와편, 전편 등 6점을 수습하였다.

1)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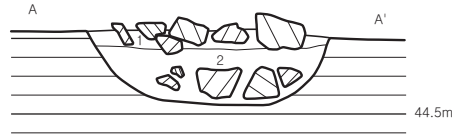
(1) 건물지 1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3-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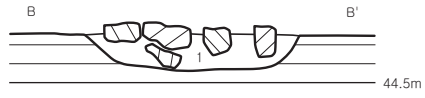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45.0m에 위치한다. 건물지 1호에서 동쪽으로 120cm 떨어져 석렬유구 1호가 있고, 서쪽으로 370cm 떨어져서는 건물지 2호가 위치한다.

건물지 1호에서는 적심 2기만 확인되었는데 회갈색사질점토를 평면 원형으로 굴광하여 축조하였다. 적심은 완만한 'U'자형의 수혈을 굴광한 후 6×10~30×34cm 크기의 할석과 회갈색사질점토를 혼합하여 축조하였다. 적심의 규모는 북쪽 적심이 지름 118cm·깊이 48cm이고, 남쪽 적심의 지름은 108cm·깊이 27cm이다. 주칸 거리는 24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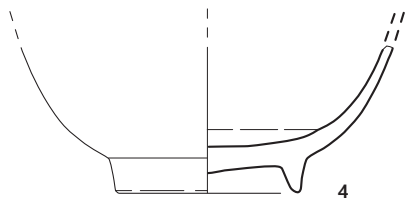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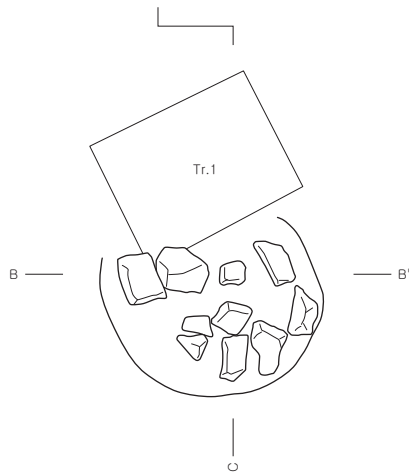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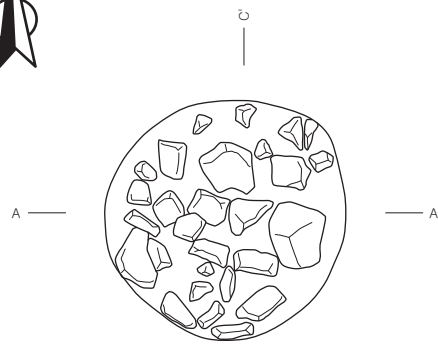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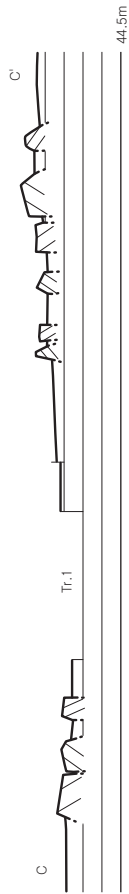
각각의 적심 바닥은 해발 약 44.6m로 거의 동일하며, 북쪽 적심의 단면을 살펴보면 두 개의 층위로 구분되고 내부 석재 또한 모든 층위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반면에 남쪽 적심은 후대 정화조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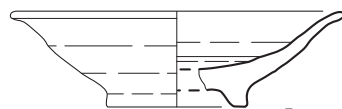
- 1. 회갈색사질점토
- 2. 갈색+암갈색사질점토+석립



- 1. 회갈색사질점토



4



5



도면 8.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 및 출토유물

의 설치로 인해 북쪽의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상면 역시 훼손이 된 듯 단면의 깊이가 낮고 단일층이며, 석재 수량도 북쪽에 비해 적다.

유물은 적심 내부에서 백자 발 저부, 백자 접시 등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 백자 발 저부(도면 8-4, 도판 3-4)

백자 발 저부로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전체 시유하였으며, 굽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빙렬이 확인된다. 색조는 명녹회색(10GY 7/1)이다. 굽은 수직굽이고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15.8cm, 저경 7.4cm, 두께 0.4~1.0cm

5. 백자 접시(도면 8-5, 도판 3-5)

백자 접시로 1/3정도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다.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빙렬이 확인된다. 색조는 명녹회색(10G 8/1)이다. 동체부는 사선방향으로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에는 굽 저정보다 약간 큰 원각이 돌려져있다. 굽은 오목굽이고 태토빛음 받침이 남아있다.

기고 3.8cm, 복원구경 13.4cm, 복원저경 5.6cm, 두께 0.3~0.9cm

(2) 건물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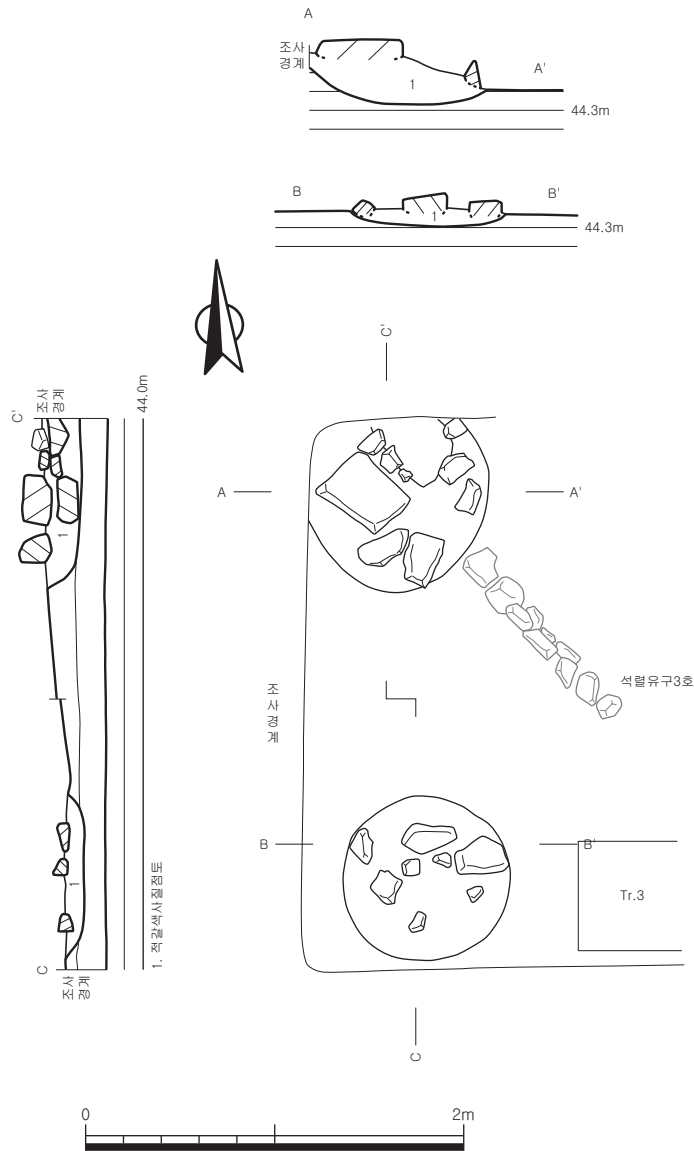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9, 도판 4-①~③)

조사대상지의 북서쪽 해발 44.7m에서 확인되었다. 북쪽 적심은 석렬유구 3호의 북서쪽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동쪽으로 약 110·370cm 떨어져서는 각각 석렬유구 2호와 건물지 1호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1호와 마찬가지로 적심 2기만 확인되었다. 회갈색사질점토를 평면 원형으로 굴광하여 축조하였다. 북쪽 적심이 석렬유구 3호의 북서쪽을 파괴하고 축조된 것으로 보아 석렬유구 3호보다 건물지 2호가 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심은 완만한 'U'자형으로 굴광한 후 8×10~30×36cm 크기의 할석과 적갈색사질점토를 혼입하여 축조하였다. 적심의 규모는 북쪽 적심이 지름 88cm·깊이 32cm이고 남쪽 적심의 지름은 84cm·깊이 26cm이며, 주칸 거리는 192cm이다. 북쪽에서 확인된 적심은 조사구역 북서쪽 모서리 외곽으로 연장되며, 남쪽의 적심은 상부가 훼손되고 석렬 1열만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9.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2호

2) 석렬유구

(1) 석렬유구 1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4-④·⑤)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 해발 44.8m에서 확인되었다. 북쪽부분은 조사범위 북쪽 경계 외곽으로 연장되고 남쪽은 후대의 교란으로 범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쪽으로 150·370cm 떨어져 각각 건물지 1호와 석렬유구 2호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5°-W)향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350cm·너비 32cm

이다.

회갈색사질점토 상부에 6×10~30×34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후대의 교란으로 1열 1단만 확인된다.

현재 남아 있는 양상으로는 유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석렬유구 2호

가. 유구(도면 11, 도판 5-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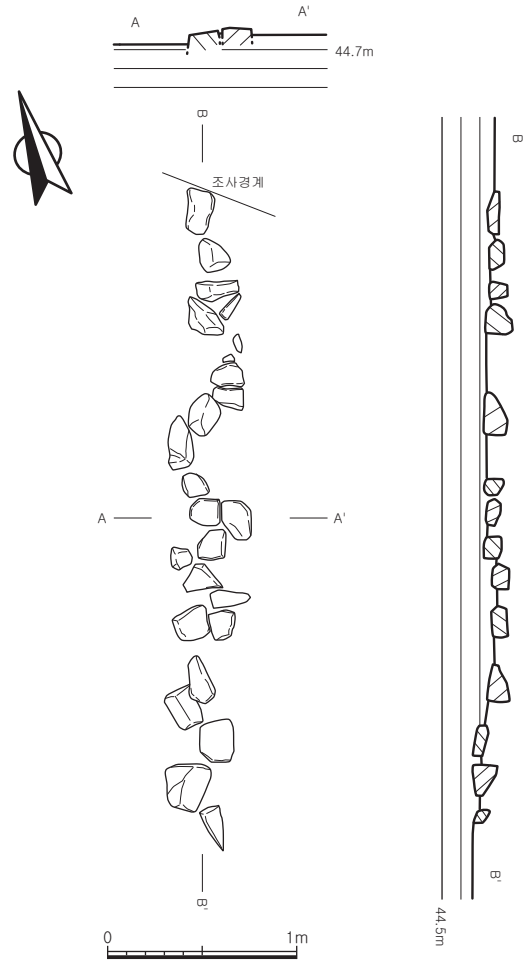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44.6m에서 확인되었다. 북동쪽 부분은 북쪽조사 경계 외곽으로 연장되고 남서쪽 부분은 석렬유구 3호 축조 등 후대의 교란으로 범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서쪽으로 50·100cm 떨어져 각각 석렬유구 3호와 건물지 2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N-53°-E)향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64cm·너비 8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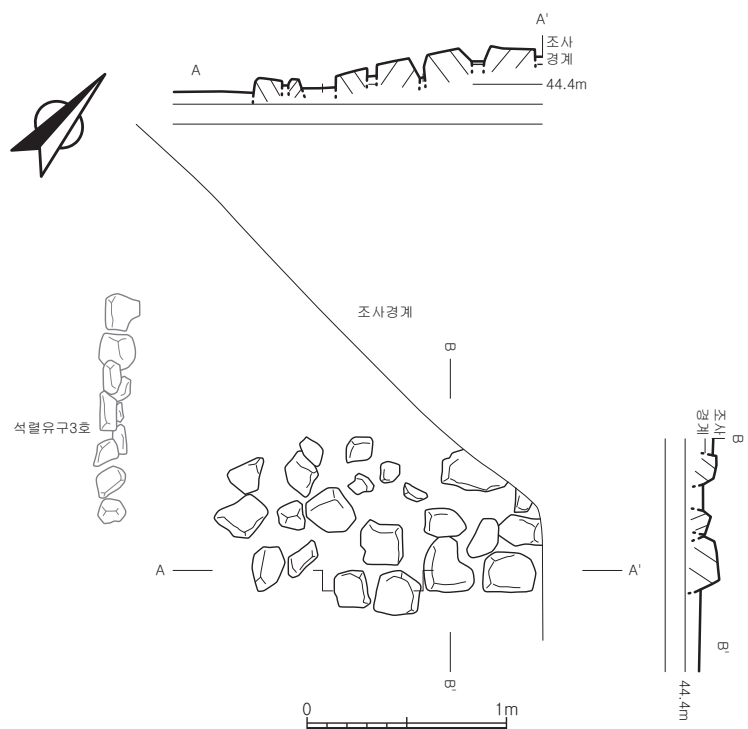
회갈색사질점토 상부에 12×14~30×36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3열이 1단 잔존하고 있다. 남동쪽은 바깥쪽으로 열이 맞으나 북서쪽은 남동쪽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진다.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담장의 기저부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0.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1호



도면 11.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2호

(3) 석렬유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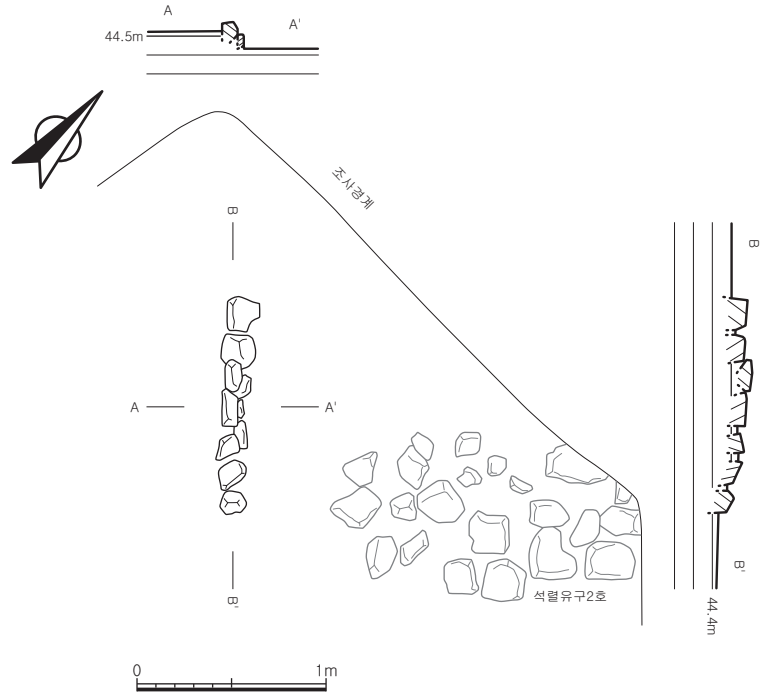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2, 도판 5-④~⑥)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44.5m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부분은 건물지 2호의 북쪽 적심에 의해 파괴되었다. 동쪽으로 50·560cm 떨어져 각각 석렬유구 2호와 1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N-43°-W)향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22cm·너비 14cm이다.

회갈색사질점토 상부에 8×9~16×2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남서쪽 부분의 면이 맞도록 축조하였으며, 1열이 1~2단 정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앙부에 2단으로 존재하는 석재들은 바닥을 고르고 최하단석을 가지런히 놓은 뒤 상부에 면을 맞추어 윗단을 쌓은 형태이다. 잔존 양상으로 보았을 때 건물지의 하부구조로 판단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2.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3호

3) 수습유물

6. 백자 접시(도면 13-6, 도판 6-6)

백자 접시로 완형이다.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명녹회색(5GY 7/1)이다. 동체부는 사선방향으로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저면에는 굽 저정보다 큰 원각이 돌려져있다. 굽은 오목굽이며, 굽 안쪽 중앙이 약간 볼록해지도록 돌려 깎았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는 태토빛을 받침이 남아있다.

기고 3.4cm, 구경 13.0cm, 저경 5.8cm, 두께 0.3~0.8cm

7. 수키와편(도면 13-7, 도판 6-7)

미구가 있는 수키와편으로 상단의 일부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회갈색(10YR 5/2)이다. 외면에는 사선문+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과 중방향 물손질 정

면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5.5cm, 잔존너비 9.7cm, 두께 2.0cm

8. 암키와편(도면 13-8, 도판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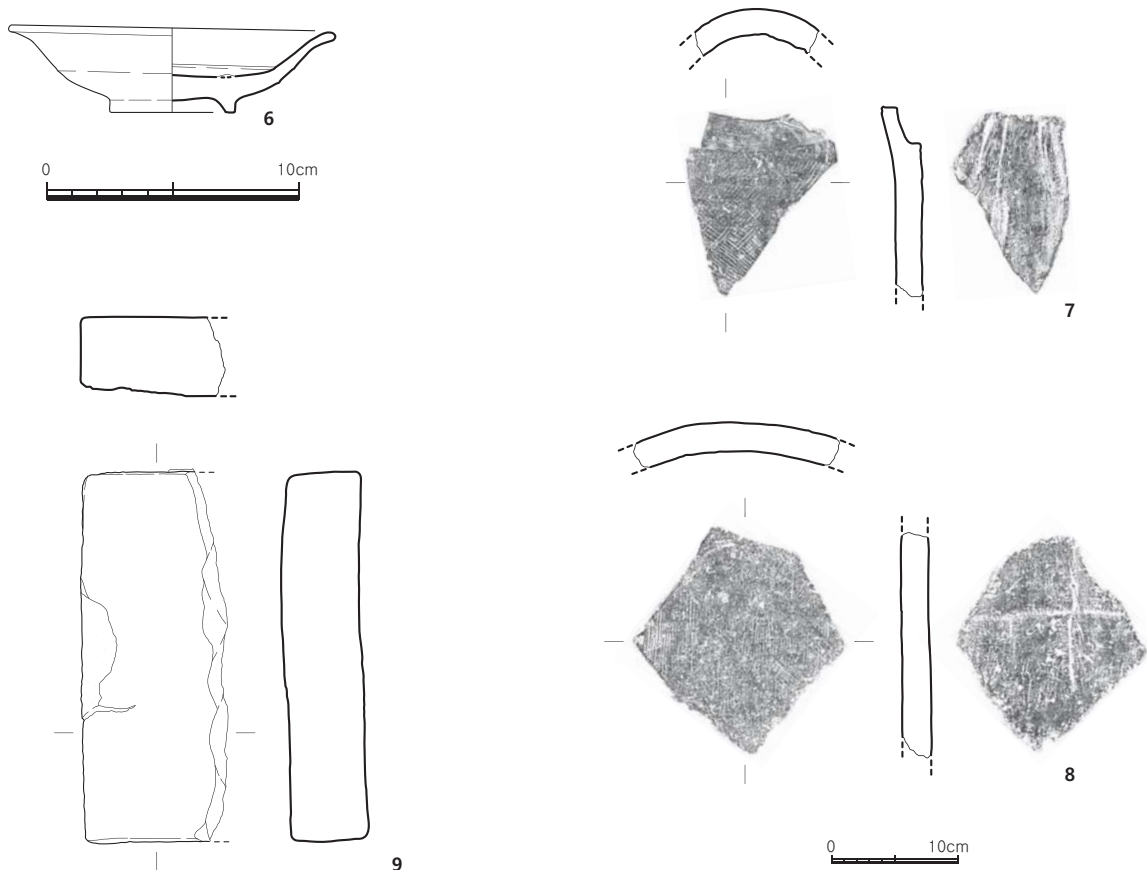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과 세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색(2.5Y 7/1)이다. 외면에는 세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윤철흔·포목흔·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7.8cm, 잔존너비 16.4cm, 두께 2.2cm

9. 전편(도면 13-9, 도판 6-9)

전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회색(N 5/0)이다. 상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9.2cm, 잔존너비 11.6cm, 두께 4.4cm



도면 1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IV.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176번지(사업자:장근식)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현장조사는 2017년 9월 12일에 착수하여 9월 25일까지 실조사일수 9일이 소요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는 건물지 2동과 석렬 3기가 조사되었고, 하부문화층에서는 백자 발 등이 트렌치조사 중 수습되었다.

조선시대 상부문화층에서 확인된 건물지 2동은 각각 적심 2개씩만 조사됨에 따라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다. 더불어 건물지 주변에서 건물지의 기단 또는 담장의 기저부로 보이는 석렬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건물지 1호에서 백자 발(수직굽)·백자 접시(오목굽)가 출토되었고, 제도중에 전돌·백자 접시(오목굽)·기와편이 출토되었다.

1. 유물 편년

출토된 유물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현장에서 수습된 백자 발과 접시의 굽 형태로 시기를 구분해 보고자 한다.

먼저 김세진²⁹⁾에 따르면 백자에서 확인되는 굽의 형태는 크게 죽절굽·역삼각형굽·수직굽·오목굽·넓은굽·안굽·평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죽절굽은 대나무 마디(竹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굽의 형태를 말하며, 15~16세기에 제작된 백자에서 나타나고 정확한 대나무 마디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좀 더 거친 형태를 띠고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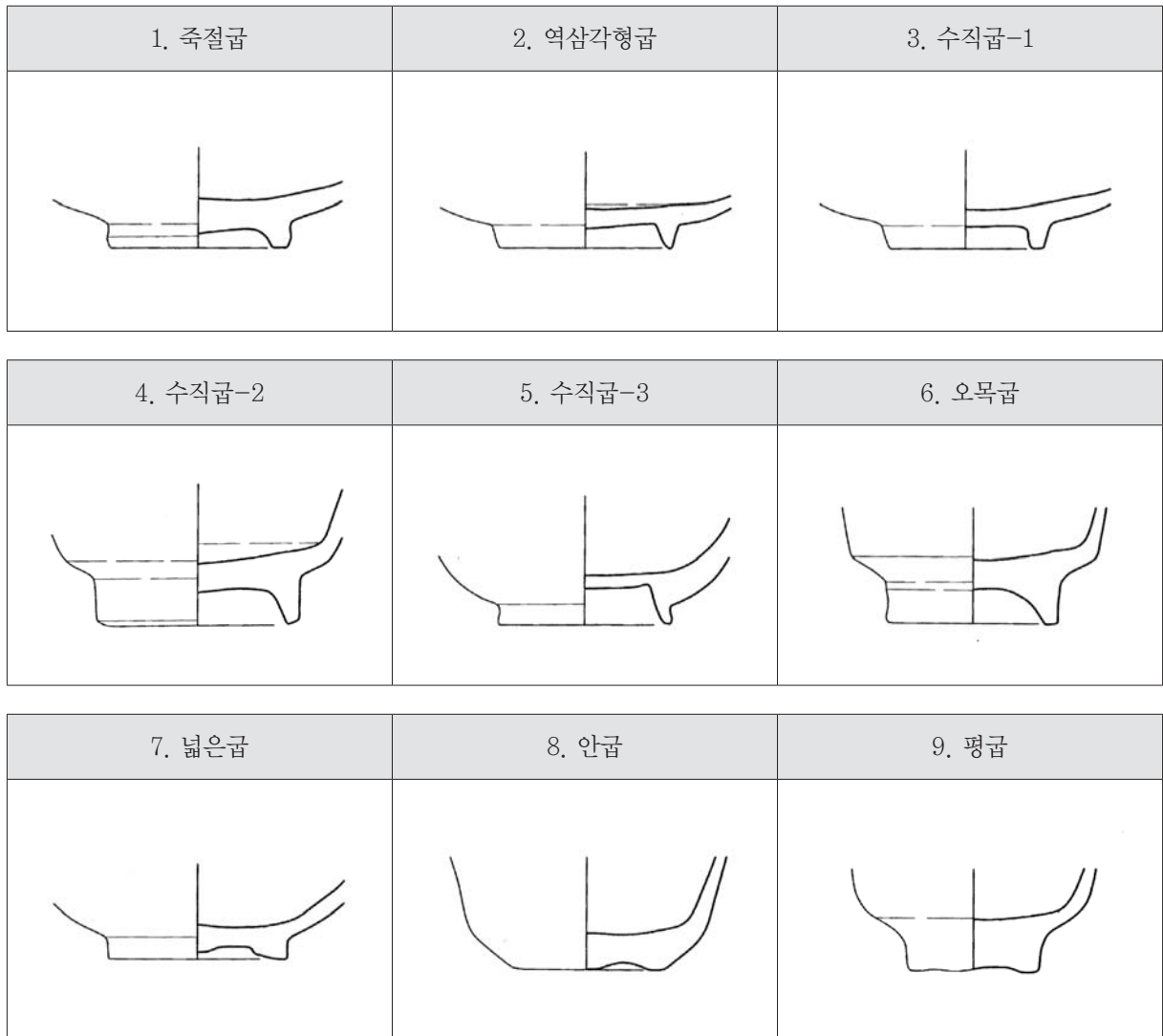
역삼각형굽은 답의 단면이 ‘▽’의 형태로 뒤집어진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굽 접지면이 상당히 좁은 것이 특징이고 관요에서 제작된 양질의 백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수직굽은 굽의 외면이 접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형태이며, 단면이 ‘⊥’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굽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조선 전기의 수직굽은 내·외면의 굽 높이가 거의 같은 형태로 대부분 1~1.2cm 정도의 높이로 제작되었다. 반면 조선 후기의 수직굽은 조선 전기처럼 내·외면의 굽 높이가 거의 같지만 굽 높이가 2cm 이상으로 높은 형태가 생산되었고, 굽 안바닥을 깊게 깎아내어 굽의 외면의 높이가 낮고 굽 내면의 높이가 깊숙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오목굽은 굽의 외면은 접지면과 직각을 이루나 굽 안바닥이 오목하게 들어간 원형을 띠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오목굽은 17~18세기의 백자에서 흔히 확인되는 굽의 모습이다.

넓은굽은 청자에서 보이는 해무리굽과 같이 굽 접지면이 0.8~1.5cm 가량으로 넓은 형태를 말한다.

29) 강경숙·김세진, 2015, 『유적출토 도자기 바로보기』, 187~193쪽.



삽도 1. 백자 굽의 종류

이러한 넓은 굽은 17세기 관요에서 생산된 양질의 백자에서 간혹 나타나며, 굽 안바닥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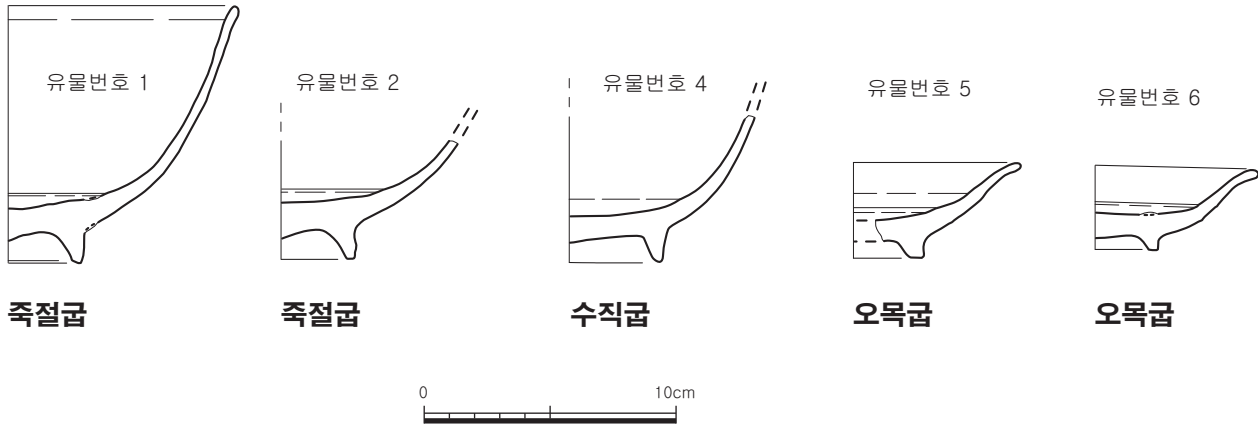
안굽은 외면에는 굽의 형태가 보이지 않고, 굽 안바닥만 깎아낸 형태의 굽이며, 호나 일부 병에서 확인되는 굽의 모습이다.

평굽은 별도의 굽을 제작하지 않아 바닥면이 편평한 상태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자굽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편년이 가능한 기존 형태에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백자굽의 모습을 비교하면 하부문화층에서는 죽절굽(유물번호 1, 2)이,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에서는 굽의 길이가 약 1.2cm 이상인 수직굽(유물번호 4)과 오목굽(유물번호 5)이, 제토층에는 오목굽(유물번호 6)이 수습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부문화층은 시굴조사에서 석렬이 확인되었고,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하부문화층은 유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백자 발 2점과 백자 병 1점을 포함하여

모두 3점이 수습되었고 백자 발의 경우 15~16세기에 해당하는 죽절굽이 확인되었다. 상부문화층은 수직굽과 오목굽(17~18세기)이 함께 수습되어 시기적으로 18세기 이후에 형성되었고, 또한 좁은 면적에서 여러 기의 유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건물의 건축 및 폐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삽도 2. 수습된 백자 굽의 종류

본 조사대상지는 서울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조선 중기에 운용되었던 인경궁³⁰⁾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지 남동쪽으로 접해 있는 누하동 175-3번지 유적에서는 적심 건물지의 장대석 및 장대석군 등 대형 건축 부재들이 조사되었고, 동쪽으로 약 60m 떨어진 곳에는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24번지 유적에서 석재로 축조된 대형배수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동남쪽으로 약 140m 떨어진 체부동 111-2번지 유적에서는 지름이 200cm에 이르는 대형 적심이 조사되어 인경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경궁은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 9년(1617)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궁궐이나 1623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으로 공사는 중지되고 현재는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사료를 근거로 위치를 추정해보면 궁궐의 남쪽경계는 사직단과 경희궁의 담과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역시 지금은 사라진 자수궁 근처까지며, 이를 현재의 행정동으로 표시하면 북쪽부터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필운동, 체부동 등이 해당된다. 인경궁 내부의 주요전각으로는 정문인 명화문(明化門), 정전인 홍정전(弘政殿), 누각인 누정(樓亭) 등이 있으며, 행정동인 누상동, 누하동의 명칭이 인경궁 누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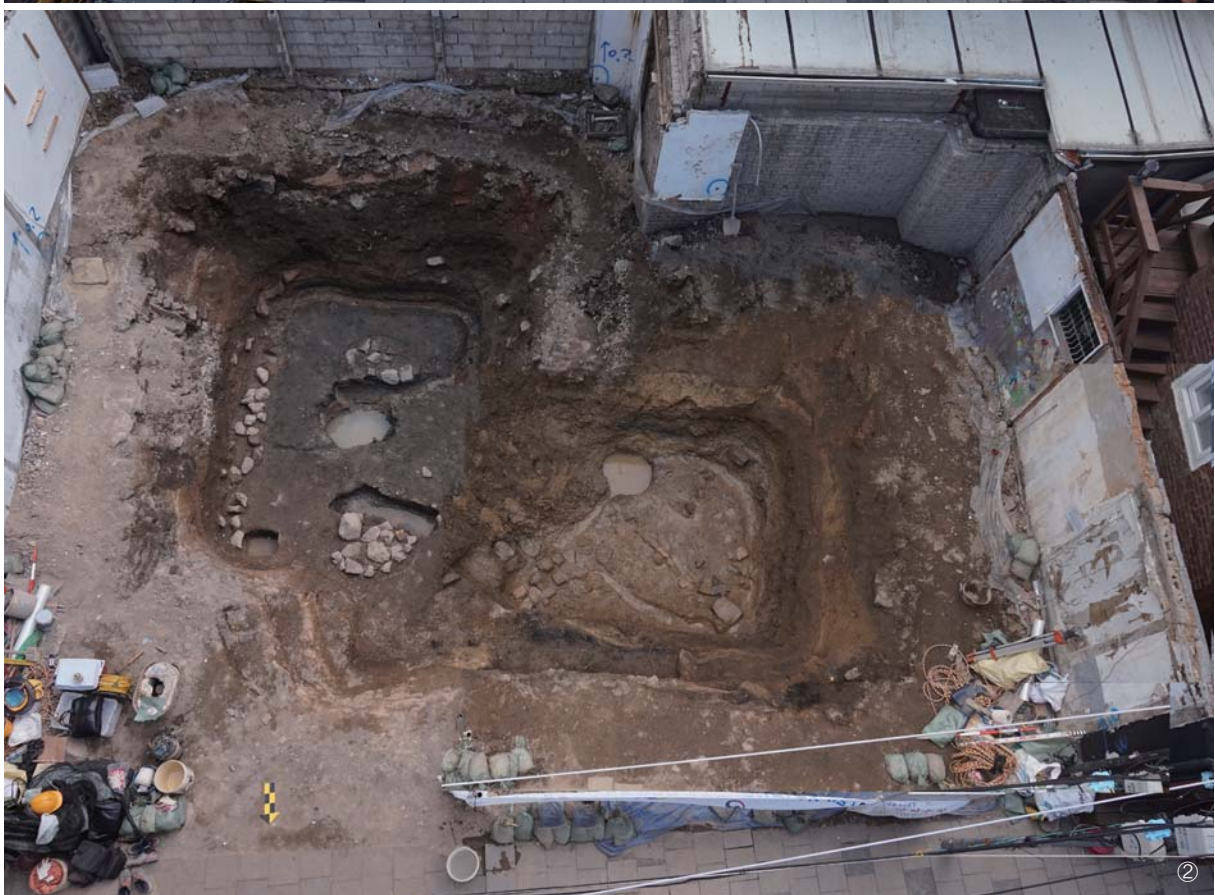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서울 종로구 누하동 176번지 국비지원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2개 문화층에서 건물지 및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각 문화층의 편년은 출토유물로 보아 상부문화층은 조선시대 후기로 보이며, 하부문화층은 조선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유물은 조선시대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백자 발,

30) 홍석주, 2000, 「조선조 광해군대의 궁궐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자 접시, 백자 병, 전돌,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적심 건물지 및 관련 유구들은 남동쪽에 연접한 ‘누하동 175-3번지 유적’과 비슷한 시기와 성격의 유구로 보이고 하부문화층에 대한 발굴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 판



도판 1. 발굴조사 대상지(①조사전, ②조사후)



도판 2. 조선시대 하부문화층(①토층, ②유물출토상태, 1~3:수습유물)



도판 3.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 (①전경, ②③적심토층, 4·5:출토유물)



도판 4.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건물지 2호(①전경, ②③적심토층) 및 석렬유구 1호(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5.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석렬유구 2호(①조사중, ②조사후, ③세부) 및 3호(④조사중, ⑤조사후, ⑥세부)



6



7



8



9

도판 6. 조선시대 상부문화층 수습유물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59-0001	백자 발	1	하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10.2	18.4	6.0	7-1 2-1	Y
2017-1159-0002	백자 발 저부	1	하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4.7)	-	5.8	7-2 2-2	Y
2017-1159-0003	백자 병	1	하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16.0)	-	5.8	7-3 2-3	Y
2017-1159-0004	백자 발 저부	1	상부문화층 건물지1호	토도	조선	(15.8)	-	7.4	8-4 3-4	Y
2017-1159-0005	백자 접시	1	상부문화층 건물지1호	토도	조선	3.8	13.4	5.6	8-5 3-5	Y
2017-1159-0006	백자 접시	1	상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3.4	13.0	5.8	13-6 6-6	Y
2017-1159-0007	수키와편	1	상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15.5)	(9.7)	2.0	13-7 6-7	Y
2017-1159-0008	암키와편	1	상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17.8)	(16.4)	2.2	13-8 6-8	Y
2017-1159-0009	전편	1	상부문화층 수습	토도	조선	29.2	(11.6)	4.4	13-9 6-9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9月 25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編輯者	정훈진 · 이진호 · 김경훈 · 김방효 · 정홍선 · 김현진				
調査 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박종섭 · 이창욱 · 이진호 · 김경훈 · 김방효				
遺蹟調査地番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76번지				
調査面積	112.4㎡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조선	2동	백자 접시 등		
석렬유구	조선	3기	-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I	1	경주 황남동 95-1번지 유적	VII	45	경주 황남동 231번지 유적
	2	무안 양창리 1117-3번지 유적		46	합천 구원리 506·507번지 유적
	3	경주 신서리 208-12번지 외 1필지 유적		47	제주 건입동 1378-1번지 유적
	4	영광 녹사리 89-35번지 유적		48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
	5	하남 미사동 411번지 외 1필지 유적	49	경주 인왕동 696-9번지 유적	
	6	경주 구황동 657번지 유적	VIII	50	경주 인동리 696-2번지 유적
	7	강릉 방동리 63-20번지 유적		51	경주 교동 145번지, 146번지 유적
	8	경주 울동 산3-14번지 유적		52	춘천 천전리 97-8번지 외 2필지 유적
II	9	청주 송절동 447번지 유적		53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10	서울 가회동 31-6번지 유적	54	춘천 우두동 118번지 외 2필지 유적	
	11	경주 배동 181번지 유적	55	창원 진동리 246-3번지 유적	
	12	양평 양수리 769-8번지 유적	IX	56	경주 울동 산2-6번지 유적
	13	부여 쌍북리 343번지 유적		57	경주 망성리 382-3, 383-3번지 유적
	14	청양 왕진리 599번지 유적		58	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15	김해 대성동 145-1번지 유적		59	제주 외도1동 34-5번지 유적
	16	서울 권농동 171-12번지 유적	60	가평 청평리 714-4번지 유적	
17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	61	대구 비산동 265-9번지 유적		
18	제주 광령리 1622-1번지 유적	62	제주 삼양1동 1662-11번지 유적		
III	19	가평 청평리 709-5번지 유적	X	63	춘천 신매리 70-6번지 일원 유적
	20	김해 봉황동 303-5번지 유적		64	양평 양덕리 50-2번지 유적
	21	용인 마북동 502-398번지 유적		65	울산 상안동 411-2번지 유적
	22	공주 중동 49-6번지 유적		66	창녕 교리 384-10번지 유적
	23	춘천 신매리 786번지 유적		67	부여 구아리 89-5번지 유적
	24	김해 대성동 123번지 유적		68	부여 구아리 89-4번지 유적
IV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	XI	69	부여 구아리 89-10번지 유적
	26	대구 옥수동 115번지 유적		70	김해 봉황동 223-13번지 유적
	27	하남 춘궁동 303-1번지 유적		71	경주 밀구1길 158-34 유적
	28	강화 관청리 697번지 유적	XII	72	제주 용담2동 2704-5번지 유적
	29	구미 신기리 70-23번지 유적		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30	성주 성산리 979-2번지 유적		74	울산 동동 505-2번지 유적
	31	서울 누하동 224번지 유적		75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
V	32	경주 용강동 1175-18번지 유적	XIII	76	하남 향동 142번지 유적
	33	강릉 초당동 316번지 유적		77	경주 황남동 229-19번지 유적
	34	춘천 신매리 393-1번지 유적		78	경주 탑동 514-4번지 외 1필지 유적
	35	강화 신문리 627-2번지 유적	XIII	79	제주 괏지리 2017-2번지 유적
	36	울산 서동 200번지 유적		80	공주 중동 54번지 유적
	37	춘천 천전리 64-11번지 유적		81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VI	38	경주 탑동 56-8·14번지 유적	XIII	82	경주 배동 545-4번지 유적
	39	경주 소현리 109번지 유적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40	경주 황남동 189-2번지 외 1필지 유적		84	제주 감산리 1500-1번지 유적
	41	부여 쌍북리 389-2번지 유적		85	공주 중동 50-5번지 유적
	42	산청 강누리 451-2번지 유적		86	고령 고곡리 940번지 유적
	43	광주 신창동 552-23번지 유적		XIII	87
VII	44	경주 황남동 232번지 유적	87		경산 부적리 286-1, 268-2번지 유적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IV	88	경주 남산동 222-9번지 유적	XX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89	서울 체부동 111-2번지 유적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90	고령 고아리 20-2번지 유적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91	경주 아화리 140-4번지 유적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92	부여 관북리 147-2번지 유적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93	강릉 초당동 248-2번지 유적	135	광주 상변천리 526-1번지 유적	
	94	경주 아화리 140-1번지 유적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95	경주 아화리 140-3번지 유적	137	안성 중북리 605-4번지 유적	
XV	96	경주 개곡리 836번지 유적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97	경주 인왕동 814-3번지 유적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XVI	98	경주 인왕동 814-4번지 유적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99	경주 방어리 39, 39-4번지 유적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100	제주 용담2동 2623-11번지 유적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101	제주 화순리 757-2, 757-5번지 유적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102	경주 조전리 601-8번지 유적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103	경주 쾌릉리 산37-1번지 유적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XVII	104	김해 동상동 841번지 유적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105	제주 용담2동 652-33번지 유적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106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107	보은 병원리 246-3번지 유적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108	울주 대대리 541번지 유적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109	영양 청기리 243-4번지 유적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110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152	대구 불로동 30-14, 30-15번지 유적	
	111	포항 구만리 328번지 유적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XVIII	112	경주 성건동 326-4번지 유적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113	가평 청평리 721-5번지 외 1필지 유적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114	경주 동부동 32-1번지 유적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115	경주 황남동 150-3번지 유적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116	강릉 초당동 124-3번지 유적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117	부산 월내리 237-14번지 유적	159	울산 중산동 684-2, 532-20번지 유적	
	118	경산 소월리 907, 907-1번지 유적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119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	
	120	서울 누하동 175-3번지 유적	162	정선 덕천리 29-3번지 유적	
	121	하남 미사동 254-1번지 유적	163	춘천 신매리 67-8번지 유적	
XIX	122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유적	164	제주 화순리 695-4번지 유적	
	123	경주 아화리 136-4번지 외 1필지 유적	165	제주 함덕리 3366-1번지 유적	
	124	경주 아화리 136-6번지 유적	166	부여 쌍북리 615-5번지 유적	
	125	경주 화산리 314번지 유적	167	상주 외담동 45-2, 45-3번지 유적	
	126	공주 반죽동 281-5번지 유적	168	부여 가탑리 94-7번지 유적	
	127	경주 소현리 115번지 유적	169	부여 동남리 235번지 유적	
	128	춘천 금산리 446-2번지 유적	170	창녕 교리 523-1번지 유적	
	129	춘천 지내리 680-2번지 외 1필지 유적	171	경주 황오동 42-2번지 유적	
			172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92책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

| 130 ~ 134 |

2019년 9월 23일 印刷

2019년 9월 25일 發行

編輯 :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www.cprc.or.kr>)

發行 : 한국문화재단(<http://www.chf.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ISBN 978-89-6433-247-4
978-89-6433-018-0 (세트)

印刷 : 창조사
Tel. 062)234-0904 Fax. 062)222-8558
